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0. 10. 8.(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고연석, 권오영, 김문식, 박정혜,
오용섭, 이종민, 이해은, 장경희, 정은우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비 고
【심의사항】 8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간이벽온방(언해)	공 개
3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공 개
4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공 개
5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공 개
6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7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 명칭변경	공 개
8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명칭변경	공 개
【검토사항】 8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9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0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	공 개
11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공 개
12	경진년 연행도첩	공 개
13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공 개
14	‘미륵원’명 청동북	공 개
15	말모이 원고	공 개
16	조선말 큰사전 원고	공 개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0-05-001

1.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陝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가. 심의사항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0.12.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0.3.20.)를 실시하고 2012년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12.6.14.)에서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보물 유지 사유로 부결되었음.
- 이후 (사)한국미술사학회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6.12.28.)이 있어 관계전문가 3회 보완조사(‘18.3.2./‘20.5.14./‘20.7.8.) 및 과학조사(‘20.7.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8.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9.7.~10.6.)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999호(1989.04.10. 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陝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해인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2, 해인사정보박물관
- 수 량 : 1구
- 규 격 : 높이 82.4cm, 무릎 폭 66.6cm, 앞 뒤 최대폭 44cm

- 재 질 : 건칠, 목조(소나무)
- 형 식 : 좌상
- 제작연대 : 고려시대(10세기 추정)



그림 1.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희랑조사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건칠상으로서 한국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면은 건칠, 뒷면은 목조로 이루어진 이 초상 조각의 성격을 뚜렷하게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상의 밑면까지 천이 발라져 있어 내부를 조사할 수 없어 복장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된 뒤에 국보 지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류)

희랑대사조상은 양식적인 특징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조각상 중에서 진영상으로서의 유일한 예이다.

비록 조선시대 말에 가채되었지만, 특정한 인물이 연상될 만큼 조각이 사실적이며, 정신적인 면까지 잘 표출된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희랑대사조상은 해인사에서 전승되어 오던 문화재로서, 해인사에서 화엄사상을 떨쳤던 희랑대사의 실제 모습을 조성한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 상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18세기 후반이 되어 이덕무의 ‘해인사기’에 처음 확인된다. 희랑대사조상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초기에 이 상이 희랑대사와 관련된다는 직접적인 문헌기록이 지금으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이 상이 희랑대사상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보다 보강된 후에 국보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보 승격 지정신청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보류)

이 상은 실존하는 인물을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한 국내 유일의 초상 조각이다. 제작 기법상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현존 최고의 상이라는 점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덕망 높은 고승(高僧)의 내·외면의 연륜과 심연한 수행의 깊이까지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최고의 역량 있는 조각가가 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상은 예술적, 종교적 감성을 조각이라는 조형 언어로 완벽하게 승화시킨 최고의 작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상의 조형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제작시기와 제작주체, 존명(尊名) 등 좀더 확실한 자료 보완이 요구된다. 더불어 반건칠·반목재(反乾漆·反木材)의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는 제작기법에 대해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랑대사상이 지니고 있는 조각사적 위치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국보승격 문제는 지정 후 자료를 보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료 보완 후 승격 지정할 것인지를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본상은 상의 재질과 명칭에 있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현재 파악하고 있는 본상에 대한 더 이상의 특별한 정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일하며, 또한 가장 오래된 초상 조각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

마. 보완조사자 검토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희랑대사상은 건칠과 나무를 조합하여 조각한 우리나라 유일의 초상조각으로서 뛰어난 조형성과 제작기술이 완벽하게 반영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상을 제작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만, 실제 현존하는 사례는 극히 적은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기록을 통해 확인되면서 실제로 남아 있는 승상은 희랑대사상이 거의 유일하며, 실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실제 인물처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내면의 인품까지 표현한 점에서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또한 문헌기록을 통해 현존하는 희랑대사상이 해인사에 봉안되었던 역사성과 해인사의 解行堂, 眞常殿, 조사전, 보장전을 거치면서 봉안되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희랑대사상은 고려초기 10세기경에 제작된 상으로서 예술성과 종교성, 역사와 기록성을 갖춘 작품으로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해인사 희랑대사좌상은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상 조각이다.
- 과학적 조사 결과, 희랑대사좌상은 뒤쪽과 아래쪽에 나무를 사용하여 상을 고정하고 건칠기법으로 만든 목심건칠상임이 밝혀졌다. 상의 앞쪽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칠 기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 이 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덕무가 조선시대 18세기 후반에 찬술한 [해인사기]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희랑대사좌상을 특정한 기록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 해인사 구전에 따르면, 희랑대사좌상은 통일신라시대말부터 고려시대초까지 해인사에서 주석했던 희랑대사의 실제 모습을 모델로 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해인사에서는 문헌에 기록된 희랑대사의 신체적 특징인 흉혈이 실제 상의 가슴 중앙에 남아 있어서 이 상을 희랑대사상으로 믿고 있다.
- 희랑대사좌상은 누구를 모델로 하여 언제 조성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덕무의 기록과 같이 18세기 후반에도 해인사에서 이 상을 희랑대사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과 특정한 승려를 모델로 한 듯 매우 사실적인 조형이라는 점에서 희랑대사상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희랑대사좌상이 반드시 희랑대사를 모델로 하여 조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상은 우리나라 초상조각의 유일한 예이다. 또한 고려시대 전기의 조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는 수준 높은 초상조각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해인사 희랑대사좌상은 고려 전기 10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서 현존 最古, 唯一의 초상조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 유척기의 『游伽倻記』, 등 18세기 이래의 기록들에, 당시까지 유존하던 희랑대사에 대한 1차 사료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 1차 사료와 본 조상은 매우 긴밀하고 신빙할 만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 실존하였던 고승의 모습이 초상화처럼 사실적으로 재현된 조상으로서, 고승의 겉모습은 물론 성품까지도 충실하게 표현되어 초상조각으로서의 예술적 가치가 있다.
- 이상의 역사성, 예술성, 기록성 등의 가치를 갖고 있는 본 조상은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언제부터 희랑대사로 인식되어 왔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兪拓基의 『游海印寺記』 등 조선 후기의 여러 문인들의 기행문을 통해 오래전부터 희랑대사상으로 분명하게 신앙되고 인식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오랫동안 해인사에 봉안되어 왔던 우리나라 최고의 초상 조각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상은 희랑대사가 입적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하였기 때문에 관념적이지 않고 사실적인 묘사력이 돋보인다. 즉 형형하게 살아 있는 눈빛, 실오라기처럼 열게 퍼진 주름과 합죽 입술에 머물고 있는 법열의 미소, 노쇠한 살갓 위로 드러난 骨筋의 표현 등에서 아직도 살아 숨 쉬는 살아생전의 희랑대사를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이 조각은 희랑대사의 내외면의 깊은 수행 이력과 정신성을 생명력 넘치는 조각예술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조성되는 관념조각과는 차별되는 요소여서 희랑대사의 입적 전후에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조각 수법은 중국, 일본 등 유사시기 입적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초상 조각에서도 공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후삼국 격동기를 살았던 역사적 인물 희랑대사를 기념하기 위해 949년경에 제작한 작품으로, 현존 최고의 초상 조각이라는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건칠과 목조기법을 혼합하여 제작한 독특한 제작기법은 고대 건칠기법의 실체

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후삼국 통일에 기여하고 불교 교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도 학술적, 예술적 가치 못지않게 두루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

1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이 상은 해인사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희랑조사의 초상 조각이다. 희랑조사는 나말여초의 전환기에 해인사의 승려들이 남악과 북악으로 나뉘어져 각각 견훤과 왕건을 지지할 때, 남악파의 주장인 관혜에 대응하여 북악파의 주장으로서 왕건을 지지했던 분이다. 뒷 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여 해인사에 500결의 토지를 하사했다는 것이나 후삼국통일을 기념하여 세운 개태사가 화엄종 사찰이었던 점은 희랑조사와도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희랑조사의 생몰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최치원의 「증(贈)희랑화상」이라는 6수시(六首詩)가 전하고, 「사자산 흥녕사 징효대사비문」(924)에 ‘원주(院主)희랑장노’라는 언급이 보이며,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비문」(978)에 나타나는 ‘서백산에 있는 신랑 태대덕(神朗 太大德)’을 희랑조사로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자료들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희랑조사는 나말여초 기에 활동했으며 해인사가 후백제의 영역이었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해인사를 떠나 다른 사찰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상 조각의 사실적인 조각수법이나 고려 태조와의 관계에서 추측할 때 희랑조사상의 제작 시기는 고려 초 10세기 전반 무렵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희랑조사상은 X-레이 촬영을 통해서 앞면은 건칠(협저)상이고 뒷면은 목조상임이 밝혀졌다. 서로 다른 재료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건칠로 제작된 초상 조각이 어느 시기에 훼손되어 나무로 뒷면을 보수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몸 속에는 후령통을 비롯한 복장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복장을 열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한 내용물은 알 수 없다. 『해인사지(海印寺誌)』에 수록된 청장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가야산기」에는 희랑대사상의 얼굴과 손이 까맣게 칠해져 있다고 쓰여 있어 지금의 채색은 그 이후에 입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채색이 벗겨진 군데군데에 금색이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서 원래 가사에는 건칠 위에 금이 입혀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문헌자료

- 文明大, 「海印寺 木造希朗祖師眞影(肖像彫刻)의 考察」, 『考古美術』 138·139, 1978.
-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 민족사, 1990.
- 南東信, 「나말여초 화엄종단의 대응과 <華嚴神衆經>의 성립」, 『外大史學』 5, 1993.
-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혜안, 1996.
- 崔聖銀, 「開泰寺石造三尊佛立像의 研究 - 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敎彫刻」, 『美術史論壇』 16·17, 2003.

□

해인사 정보박물관에는 신라 말 고려 초에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삼국 통일에 공헌하였던 희랑대사좌상(889~956/967)이 있다. 희랑대사의 생몰 연대는 문헌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10세기에 해인사에 주석했던 화엄 승려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희랑대사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은 균여(均如, 917~973)의 전기를 다룬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제4, 입의정종분자立義定宗分者)에서 확인된다. 즉 신라 말, 가야산 해인사에 화엄학의 대가 관혜(觀惠)스님과 희랑스님이 있었는데, 관혜스님은 남쪽에서 견훤(甄萱)의 복전(福田)이 되었고 희랑대사는 고려 태조의 복전이 되어 남북으로 갈라졌다.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조선사찰자료(朝鮮寺刹資料)』 상)에는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왕손인 월광(月光)과 가야 지방에서 접전할 때, 희랑대사가 신병을 보내어 태조를 도움으로써 고려 건국에 큰 힘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의 건국 후, 태조는 그의 공적에 보답하는 뜻에서 해인사를 크게 중건하였다.

희랑스님에 대하여 최치원은 <증희랑화상(贈希朗和尚)>이라는 시에서 희랑스님을 용수보살이나 문수보살에 비유하거나 하늘이 우리나라를 교화하기 위하여 보낸 붓다로 비견하고 있다. 또한 해인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여 화엄종을 크게 떨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희랑스님은 고려 왕실의 비호를 받아 화엄종을 크게 일으켜 10세기 경에는 북악파의 조사이자 해인사의 제3대 조사로서 추앙을 받았다. 희랑대사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희랑대사의 영향력을 대변해 준다.

그러나 희랑대사를 둘러싼 일련의 기록들이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희랑대사 좌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상이 희랑대사좌상이라는 것은 오로지 구전에 의한 것이다. 조상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희랑대사가 활동하던 10세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나타난다. 즉 『해인사(海印寺誌)』 12편에 나오는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해인사 기행기인 [가야산기(伽倻山記)]에 처음으로 희랑대사 조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불당 북쪽 벽 아래에는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라 말의 희랑선사의 상을 모셔놓았다. 얼굴과 손을 모두 까맣게 칠하였고, 힘줄과 뼈가 울퉁불퉁하게 나왔다. 옷섬을 헤쳐 가슴을 드러내었는데, 양쪽 유방 사이에 앵도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으니 아마도 그가 생존 시기에 중완(中腕)에다 썩 뜬 흉터를 나타낸 것이거나 어쩌면 조각한 지가 오래되어 썩고 좀먹어 구멍이 생긴 것일 것이다.

이덕무의 기록은 18세기 후반에 해당되며, 매우 구체적으로 희랑대사좌상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검은 색의 얼굴과 손은 옷칠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은 피부색으로 가채되어 있다. 사전(寺傳)에 가슴에 구멍이 있어 희랑대사를 ‘흉혈국인(胸穴國人)’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 구멍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런데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라 말의 희랑선사상을 모셨다는 기록에서 ‘신라 말’은 신라 말에 나무로 조성된 희랑조사상이 아니라 신라 말에 활동했던 희랑조사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신라 말에 나무로 조성된 희랑조사상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덕무가 이 상을 실견했던 것이 조상이 만들어지고 약 700년의 세월이 지난 18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이 상이 희랑조사상이 분명한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희랑대사좌상은 상의 뒷 부분과 바닥 부분은 나무로 골격을 세우고, 앞 부분은 건칠 기법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앞 부분의 건칠기법이 전통적인 건칠법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옷칠, 금박, 종이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어 좀 더 자세한 성분 분석이 요구된다.

희랑대사좌상은 결가부좌에 양손을 배꼽 부분에 모아 좌선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약간 긴 듯한 장방형의 얼굴과 긴 턱, 마른 체형을 갖추고 있다. 조선시대 19세기 경에 가채되었다고 추정되는 얼굴과 손, 법의의 채색은 오히려 상이 지닌 조형적인 우수성을 가리고 있다. 희랑대사좌상은 특정한 사람을 모델로 하여 의학적 골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즉 가늘고 긴 이마, 미간·눈가·입가의 가늘고 긴 주름, 얇은 귀, 튀어나온 광대 뼈, 큰 코, 돌출된 목젖, 가슴 중앙의 구멍 등 마치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을 모델로 하여 모델링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다. 비록 채색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시야에는 선뜻 들어오지 않지만, 팔과 무릎을 덮고 있는 법의 자락의 부드럽고 유연한 표현은 상당한 수준의 장인에 의해 상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정면을 응시하면서 조용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은 오랜 기간 수행에만 정진했던 스님을 상상하게 한다. 희랑대사좌상은 상의 조형적인 특징은 물론, 그 이면에 있는 정신적인 면까지 잘 표현한 수준 높은 작품이다. 상에 보이는 비례나 표현 등 양식적인 특징들은 희랑대사좌상이 고려시대 초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희랑대사좌상은 우리나라 전시기에 걸쳐 현존하는 유일한 진영 조각상이자 초기 목심건칠 조각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합천 해인사 정보박물관에는 나말여초의 고승 희랑대사(希朗大師)의 상으로 전하는 초상 조각이 있는데, 고려까지 올라가는 고승의 진영조각(眞影彫刻)이 남아 있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크게 주목받아 왔다. 물론, 북한산 승가사에는 7세기 중국 사주(泗州)지역에서 활약했던 승가대사의 상이 있지만, 생전의 실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승도 아니기 때문에 희랑대사가 가지고 있는 조각사적 무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외 괴산 각연사에도 흙으로 빚은 유일대사(有一大師)의 상이 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래나 조성시기 등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물론, 조각적 깊이나 역량에서도 희랑대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기존의 설대로, 이 상을 나말여초 해인사를 중심으로 크게 활약한 희랑대사의 실존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상은 한국조각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희랑대사는 889년(진성여왕 3) 경상남도 거창군 성기(聖基)의 주씨(朱氏) 집안에서 태어나 15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하고, 966년(고려 광종 17)에 입적하였다고 사찰에 전해오고 있지만,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런데 유척기(兪拓基, 1691~1762)의 「유가야기(游加耶記)」에 따르면, 고려 초 기유년(己酉年, 949년 추정) 5월에 나라에서 ‘해인존사원융무애부동상적연기상유조양시조대지존자(海印尊師圓融無碍不動常寂緣起相由照揚始祖大智尊者)’라는 시호를 내린 교지가 18세기까지 해인사에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는 949년 이전에 이미 입적하였고, 상의 제작연대도 949년 이전이 될 것이다.

희랑대사는 후삼국 쟁탈기 태조 왕건을 도와 합천 지역에서 후백제 군대를 물리치고 후삼국 통일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왕건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자 해인사 중창에 필요한 토지를 하사하고 국가의 중요 문서를 이곳에 두었다. 신라 말 대문장가인 최치원은 희랑대사에게 보낸 찬시(讚詩)에서 그를 문수보살이나 용수보살에 비유하거나 하늘이 우리나라를 교화하기 위해 보낸 붓다로 비견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 초 그의 위상은 창건주인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그의 덕을 오래도록 숭모하기 위해 그의 초상을 조각으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록마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이어서 희랑대사의 활동 시기와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크다. 이들 기록에서는 대체로 지금의 조사상(祖師像)을 희랑대사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가야산기(伽倻山記)」(『간본 아정유고』 제3권)의 기록은 특히 주목된다.

불당 오른편 북쪽 벽 아래에는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라 말의 희랑선사(希朗禪師)의 상을 모셔놓았는데, 얼굴과 손을 모두 까맣게 칠하였고 힘줄과 뼈가 울퉁불퉁 나왔으며 옷섶을 헤쳐 가슴을 드러냈는데 양쪽 유방사이에 앵도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으니 아마도 그가 생존 시에 중완(中腕)에다 썩든 흉터를 형상한 것이거나 어쩌면 조각한지가 오래되어 썩고 좀먹어 구멍이 생긴 것일 것이다. 세상에서 이를 천흉국(穿胸國) 사람이라고 한다.¹⁾

이 기록은 이덕무가 1782년 2월에 가야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록인데, 지금의 희랑대사의 상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 당시 희랑대사상의 얼굴과 손은 현재의 모습과 달리 검게 옷칠된 상태로 있었으므로 지금의 채색은 그 이후에 개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재질은 최근까지 몇 개의 나무를 접목해서 만든 목조 상(像)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08년 9월 8일부터 2009년 2월 4일까지 진행된 보존처리 공사에서 앞쪽은 건칠기법으로, 뒤쪽은 목조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앞쪽에 사용된 건칠기법은 고려 후기 불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칠과 포를 여러 겹으로 겹쳐 만든 흔적은 관찰되지 않고, 가소성의 물질로 소조기법처럼 두텁게 반죽하여 제작한 것처럼 보인다. 보다 과학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건칠기법의 초기적인 형태가 아닐까 한다.

일반적인 초상화가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해서 그려지듯, 이 상(像) 역시 생전의

1) ...右北壁下. 安羅末希朗禪師木雕像. 面手髹漆. 筋骨戍削. 襟披胸現. 乳間有窟容櫻. 或象伊人生時中腕灸痕. 或是雕造多年. 腐蝕成窟. 世傳此穿胸國人..., 李德懋, 「伽倻山記」, 『雅亭遺稿』 卷3(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DBC 참조. <http://db.itkc.or.kr>)

희랑대사의 신체적 구조와 특징을 세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뒤 조각으로 이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은 고개를 약간 좌측으로 가우똥하게 기울이고 담담히 정면을 주시하고 있다. 쌍꺼풀이 있는 눈매, 우뚝하게 솟은 뭉툭한 코, 움푹 들어간 양뺨, 그로 인해 유달리 튀어나온 광대뼈, 이와 함께 피골이 상접한 가슴 사이로 드러난 쇠골뼈, 얇고 작은 귀,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주름 표현 등에서 사실주의 조각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더욱이 쌍꺼풀이 있는 그윽한 눈매와 함죽 들어간 입술에서 은은히 흘러나오는 미소에는 노승(老僧)의 법열(法悅)에 찬 정신성이 녹아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선과 양감을 통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여윈 몸에는 흰색 바탕 위에 적색, 녹색, 황색의 원점문이 규칙적으로 시문된 장삼을 입고, 그 위에 녹색의 분할선이 있는 붉은색의 분소의(分所衣)를 걸쳤다. 채색층 밑으로 곳곳에 금색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 원래는 금빛 찬란한 금란가사(金欄袈裟)를 의도한 듯하다. 왼쪽 어깨 위에는 가사를 고정하는 끈과 삼각형의 수술 장식이 표현되었는데, 동화사 입구 마애여래좌상,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여주 포초골 석조여래좌상 등 나말여초 시기에 조성된 불상에서 많이 표현되는 특징이어서 이 상의 연대 추정에 도움이 된다. 목에는 울대뼈가, 가슴에는 앙상하게 드러난 쇠골뼈와 구멍이 뚫려 있다. 가슴의 구멍은 ‘흉혈국인(胸穴國人)’이라는 그의 별칭을 상징한다. 흉혈(胸穴)은 정혈(頂穴)과 함께 승려의 신통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등장하는데, 북한산 승가사 승가대사상(1024년 추정)에는 정혈로 추정되는 것이 표현되어있다.²⁾ 정혈과 흉혈로 상징되는 신통력 있는 두 승려의 초상 조각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³⁾ 한편, 다소곳이 포개어 무릎 위에 올린 양 손은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사실적인데, 마치 간다라 지방에서 제작된 석가모니의 고행상(苦行像)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사실적 표현은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표현기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상의 제작 시기는 그의 입적 후 나라에서 시호를 내렸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949년 전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은 현존하는 유일의 건칠진영(乾漆眞影) 상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중요성이 인정된다.

○ 문헌자료

2) 남동신 교수는 승가대사상의 조성연대를 광배에 새겨진 1024년의 명문 보다 앞선 통일신라시대로 보고 있다. 南東信, 「북한산 승가대사상(僧伽大師像)과 승가신앙(僧伽信仰)」, 『서울학연구』 14(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pp.5-36 참조.

3) 남동신은 탄문의 비문에 등장하는 西伯山의 神朗太德을 ‘신통력이 뛰어난 希朗’으로 보고 있는데, 희랑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희랑대사의 신통력에 대해서는 南東信, 「羅末麗初 華嚴宗團의 대응과 《華嚴神衆經》의 成立」, 『外大史學』 5(韓國外國語大學校史學研究所, 1993), pp.143-174 참조.

- 文明大, 「海印寺 木造希朗祖師眞影(肖像彫刻)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8 · 139, 韓國美術史學會, 1978.
- 南東信, 「羅末麗初 華嚴宗團의 대응과 《(華嚴)神衆經》의 成立」, 『外大史學』 5, 韓國外國語大學校 史學研究所, 1993.
- 『해인사 목조희랑대사상 보수·보존처리사업』, 합천군·법보종찰 해인사, 2009.
- 정미경, 「해인사 희랑대사상의 보존처리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보존과학적 조사를 중심으로-」, 경주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현 상

초상 조각의 형상은 결가부좌한 발목 위에 오른손을 왼손 위에 얹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육신은 살색, 장삼은 백색 바탕에 붉은색과 녹색의 문양을 넣었으며, 붉은색 바탕에 녹색 띠를 그렸으나, 조선시대 후반에 보채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의 좌측 어깨의 윗면과 뒷면, 뒷면 하부의 중앙 및 좌우 측면의 하부에 균열이 확인된다. 또한 앞면 하단 중앙에는 채색이 박락되어 상의 바탕재가 보이며, 우측 무릎 밑의 바닥면도 파손되어 목재가 노출되어 있다. 얼굴과 신체 전면에 걸쳐 채색의 박락이 확인되어 2008년 경담연구소에 의한 보존처리가 실시되었다.

○ 내용 및 특징

본상은 그 형상과 옷주름 등의 세부 표현, 또한 그림이 아닌 조각상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 조각이 틀림없다고 판단되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이미 보물 제99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금번 국보로서의 승격 신청에 대한 조사자의 조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의 재질

2008년의 보존처리 사업 당시에 실시된 X-ray 검사에 의하여 본상은 앞면이 건칠, 뒷면은 목재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앞과 뒤가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 사례는 그 동안 보고된 바 없으므로 매우 특이한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재질의 차이가 상의 제작 당시에 채용된 것인지 또는 후대의 수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금번 조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였으나, 조사 여건 상 이 문제를 분명히 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상의 명칭

본상은 이덕무의 「가야산기」에 희랑선사의 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조선

후기에는 희랑대사의 초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고려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문헌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인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해인사의 개산조인 순응(順應)과 고려 시대의 중흥조인 희랑을 들 수 있으므로, 현재의 구전(口傳)만으로 이 상을 희랑대사의 초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본상은 희랑대사(希郎大師)의 초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상의 제작경위나 전래상황 등에 관한 고문헌은 남아있지 않다. 현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1741~1793)가 지은 「가야산기(伽倻山記)」(『해인사지(海印寺誌)』 수록)를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희랑선사상은 나무로 만들었으며, 열굴과 손이 까맣다고 전하고 있으므로, 본상이 18세기에는 해인사에 전래되고 있었으며, 현재의 채색이 이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완조사보고서



1. 희랑대사상 관련기록과 봉안처

희랑대사는 신라말 고려초기에 활동한 고승으로 889년(진성여왕 3)에 태어나 15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하였으며 입적한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크게 10세기 중엽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해인사에서 활동한 화엄종의 대가로서 북악파를 대표하는 왕건의 스승으로 유명하다.

희랑선사에 대한 기록은 최치원의 「贈希朗和尚」 六首詩에서 화엄종의 대가로서 용수나 문수보살에 비유하고 있으며, 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塔碑文(944, 보물 제 612호)에는 '院主希朗長老'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균여(均如, 917~973)의 전기를 다룬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제4, 立義定宗分者)에는 가야산 해인사에 화엄학의 대가 觀惠와 희랑스님이 있었는데, 관혜스님은 남쪽에서 甄萱의 福田으로, 희랑대사는 고려 태조의 복전이 되었다고 한다. 즉 희랑스님은 고려 왕실의 비호를 받아 화엄종을 크게 일으켜 10세기경에는 북악파의 조사이자 해인사의 제3대 조사로서 추앙을 받았다.

유척기(兪拓基, 1691~1762)의 「游加耶記」(知守齋集 권15)에 따르면, 고려 초

己酉(949년 추정) 5월에 나라에서 ‘海印尊師圓融無碍不動常寂緣起相由照揚始祖大智尊者’라는 시호를 내린 교지가 18세기까지 해인사에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949년경 입적했을 것이며 희랑대사상 역시 10세기 중엽 경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헌에 등장하는 희랑대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希朗和尚(최치원), 希朗禪師(이덕무, 「가야산기」) 希朗祖師(유척기, 「游伽倻記」)로 기록되어 있다.

희랑대사의 상과 봉안장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18세기에 쓴 여러 문집에 등장한다(표 1). 기록을 정리해 보면 희랑대사상은 조선시대에는 나무나 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봉안 장소는 1712년 혹은 1727년 해행당에 희랑조사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1490년 祖堂을 철거하여 해행당을 지었으므로 명칭으로 볼 때 조당에 있던 희랑대사상이 해행당에 봉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782년 이덕무가 해인사를 유람할 때 희랑대사상은 진상전에 봉안되어 있었다. 해행당에 있던 희랑상이 언제 진상전으로 옮겨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인사는 1743년(영조 19), 1763년, 1780년 연이어 화재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즈음 해행당이 소실되면서 진상전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방 조사전에 오랫동안 진영과 함께 봉안되었었고 그 이후인 1965년부터는 보장전으로 모셔졌으며 현재는 정보박물관으로 이안되어 있다.

표 1) 희랑대사좌상과 봉안처 기록(18세기)

연도	출전	내용
1712년	游伽倻記 『知守齋集』, 兪拓基(1691~1767) 문집.	법당의 서쪽에 진상전이 있다. --중략-- 전 아래에는 해행당이 있고 희랑조사의 목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고려의 이름난 승려이다.--후략 (法堂之西。曰眞常殿。-중략-殿下有解行堂。安希朗祖師木像。卽高麗名僧云。)
1714~1725 경 추정	北歸記, 『息山先生別集』 3, 이만부 문집(1664~1732)	밤에 해인사에 묵었다. 순응, 이정, 희랑유상 및 대장 총목을 보았다. (夜宿海印。觀 順應 利貞 希朗遺像及大藏總目)
정미년(1727) 9월	南遊記 『春洲遺稿』, 金道洙(1699-1733) 시문집.	22일 을해. 주지 철묵이 나를 데리고 법당에 올랐다. 건물은 매우 컸으며 --중략-- 해행당이라는 곳에 희랑소상이 있고 매우 검어 기이했다. (二十二日乙亥。住持哲默引余上法堂。棟宇宏敞。--중략--有解行堂。坐希朗塑像。甚黑詭。)
임인년(1782, 정조 6)	가야산기 『雅亭遺稿』	법당(적광전)의 서쪽에 진상전이 있으니--중략-- 오른편 북쪽 벽 아래에는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라말의 희랑 선사의 상을 모셔 놓았는데, 얼굴과 손을 모두

연도	출전	내용
		<p>까맣게 칠하였고 힘줄과 뼈가 울퉁불퉁 나왔으며 옷 셔를 헤쳐 가슴을 드러냈는데 양쪽 유방 사이에 앵두 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으니 아마도 그가 생존시에 중완에다 쑥뚝한 흉터를 형상한 것이거나 어찌면 조 각한 지가 오래되어 썩고 좀먹어 구멍이 생긴 것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를 천홍국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三才圖會》를 보니 천홍국의 귀인들은 반드시 긴 장대로 구멍을 꿰어가지고 두 사 람이 가마를 멘 것과 같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희랑 선사의 구멍은 겨우 붓대롱 하나가 들어갈 만하니, 가령 천홍국의 큰 귀인이라 하더라도 꿰어서 메게 되 면 붓대롱만한 막대기로는 꺾어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다.</p> <p>(堂西有眞常殿。.....右北壁下。安羅末希朗禪師木雕像。面手 髹漆。筋骨戍削。襟披胸現。乳間有竅容櫻。或象伊人生時。 中腕炙痕。或是雕造多年。腐蝨成竅。世傳此穿胸國人。然嘗 見三才圖會。穿胸國貴人。必以長杠貫穴。兩人擔之若藍輿。 然今希朗之穴。僅容筆管。假令爲穿胸國大貴人。貫而擔之。 則杠折而不可動矣。)</p>
<참고> 1490년	해인수 중수원문	관당 普眼堂
		관당 불전을 철거하여 寂光殿 옆으로 옮김 眞常殿
		祖堂을 철거하여 眞常殿 옆으로 옮김 解行堂

2. 현상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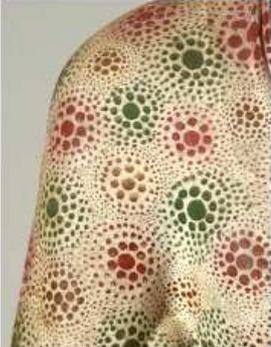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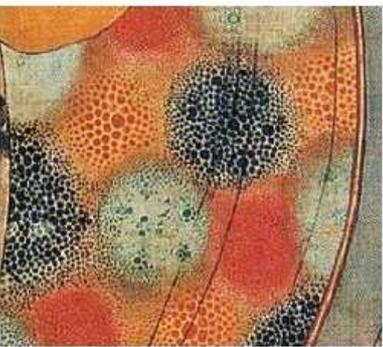
희랑대사상은 전면은 건칠, 뒷면은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건칠부분에는 고정된 철못이 다수 남아 있다. 이러한 기법은 유일한데 과학적인 조사 결과 제작 당시의 원 형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사 기법으로는 신라말 고려초기의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보물 1919호)이 건칠로서 앞판과 뒷판을 접합한 사례가 있다. 즉 두 판을 따로 만들어 접합하는 제작기법은 이 시기에만 등장하며 동아시아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형식인 점에서 주목된다.

희랑대사상은 약간 좌측으로 기울이고 정면을 주시하고 결가부좌하였으며 무릎 위에 오른손을 왼손 위에 얹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길쭉한 얼굴에 쌍꺼풀이 있는 작은 눈매, 오뚝하고 몽툭한 긴 코, 움푹 들어간 양 뺨과 튀어나온 광대뼈, 마른

몸매에 가슴 사이로 드러난 쇠골뼈, 얇고 작은 귀,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주름 표현 등에서 사실주의 조각의 정수를 볼 수 수 있다. 더욱이 쌍꺼풀이 있는 그윽한 눈매와 홀쭉하게 들어간 입술, 고요한 듯 은은한 미소에는 고승의 法悅에 찬 정신성이 녹아 있다. 인자하면서도 위엄있는 모습에 많은 수행을 거치면서 쌓인 내면의 정신성이 잘 표현되어있는 수작이다.

왼쪽 어깨 위에는 가사를 고정하는 끈과 삼각형의 수술 장식이 표현되었는데. 이는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과 같은 통일신라-고려초기의 불상에도 등장하는 특징이다. 살이 없는 몸에는 흰색 바탕 위에 적색, 녹색, 황색의 원점문이 규칙적으로 시문된 장삼을 입고, 그 위에 녹색의 분할선이 있는 붉은색의 가사를 입고 있다. 채색층 밑으로 곳곳에 금색이 드러나 있으며 검은 옷칠층도 남아 있다. 이는 18세기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내용과도 부합된다. 즉 ‘面手髹漆’(가야산기, 1782) ‘坐希朗塑像。甚黑詭’(「南遊記」, 1727) 등으로 이때까지는 검은 옷칠로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18세기 이후 현재와 같이 채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은 문양으로도 추정이 가능한데, 현재 희랑대사상의 가사 문양은 연속화된 동심원점문이 특징이다. 이는 17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며 18세기 의겸과 그의 영향을 받은 화승들에 의해 유행하였다 (자료 1). 예를 들어 의겸의 작품인 1723년 흥국사 응진전 16나한도, 1725년 송광사 16나한도, 의겸의 제자 색민 등이 그린 1753년 33조사도 등에 보이는 문양이다. 그러나 이 문양과 비교하면 희랑대사상에 그려진 동심원점문은 성글어지면서 규칙적으로 표현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오히려 19세기 완주 화암사(1858년), 미국 LACMA소장의 유가사 나한도(1862년)의 문양과 유사하다. 따라서 희랑대사상에 그려진 문양과 채색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에 활동한 화승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자료 1) 18-19세기 동심원점문 비교

		
희랑대사상(고려)	흥국사 응진전 16나한도(1723)	화암사 16나한도(1858년)

현재까지 희랑대사상과 비교되는 승상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40년대 까지 있었다고 전하는 고려말경의 경기도 화장사의 지공대사상이 유리건판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1636년의 신륵사 조사당의 목조나옹화상, 부석사 조사당 소조의상대사상 그리고 괴산 각연사의 有一大師로 전하는 소조상은 모두 조선후기의 상들이다. 이 승상들은 희랑대사상과는 섬세함과 사실성 그리고 조형적, 예술적인 측면에서 시대적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진다 (자료 2).

희랑대사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승상으로 국내외에 소개되고 있으며, 고승초상조각은 동아시아에서 많이 발견되고 신성시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경우 국보로 지정된 고승조각은 건칠鑑眞和上坐像(763년, 唐招提寺御影堂), 건칠行信僧都坐像(750~767년경, 法隆寺夢殿), 소조道詮律師坐像(873, 法隆寺夢殿), 목조俊乘上人(重源上人)坐像(1206경, 東大寺俊乘堂), 목조法相六祖坐像(康慶작,1189, 興福寺南円堂), 목조弘法大師坐像(康勝작,1233, 東寺) 등 6건이나 된다 (자료 3)

자료 2) 우리나라 고승 초상조각 주요사례

지공대사상(고려말조선초)	신륵사 나옹화상, 1636년	의상대사상(조선후기)

자료 3) 일본 국보 지정 고승초상조각 주요사례

乾漆鑑眞和上坐像,763년	乾漆行信僧都坐像,750~767년경	木造俊乘上人坐像,1206경

○ 참고문헌

- 『해인사 목조희랑대사상 보수·보존처리사업』, 합천군·법보종찰 해인사, 2009.
文明大, 「海印寺 木造希朗祖師眞影(肖像彫刻)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8·139, 韓國美術史學會, 1978.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한국미술연구소, 2014.



○ 현 상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채색이 입혀진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박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X-ray 촬영 결과, 상의 뒷부분과 바닥부분은 나무로 골격을 세우고, 앞부분은 건칠 기법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목조불1 본문』, p. 47). 또한 상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슴 부위와 양쪽 무릎에 다량의 껍쇠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목조불1 본문』, p. 74). 그러나 앞부분의 건칠기법이 전통적인 건칠법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옷칠, 금박, 종이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어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성분 분석이 요구된다(『목조불1 본문』, pp. 60-61).

○ 내용 및 특징:

해인사 성보박물관에는 신라말 고려 초에 고려 태조 왕건(王建, 918-943 재위)을 도와 고려 건국에 공헌하였던 희랑대사를 모델로 하여 만들었다는 희랑대사좌상(추정생몰연대, 889~956/967)이 있다. 희랑대사의 생몰 연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10세기에 해인사에 주석했던 화엄교학에 밝았던 승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희랑대사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은 균여(均如, 917-973)의 전기를 다룬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제4, 입의정종분자[立義定宗分者])에서 확인된다. 즉 신라 말,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에 화엄학의 대가 관혜(觀惠)스님과 희랑스님이 있었는데, 관혜스님은 남쪽에서 견훤(甄萱)의 복전(福田)이 되었고, 희랑대사는 고려 태조의 복전이 되어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것이다.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조선사찰자료(朝鮮寺刹資料)』上)에는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왕손인 월광(月光)과 가야지방에서 접전할 때, 희랑대사가 신병을 보내어 태조를 도움으로써 고려 건국에 큰 힘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의 건국 후, 태조는 그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하여 해인사를 크게 중건하였다.

희랑대사에 대한 또 다른 기록으로는 최치원(崔致遠, 857-900)의 [증희랑화상(贈希朗和尚)]이라는 시에서 확인되는데, 희랑스님을 용수(龍樹)보살과 문수(文殊)보살에 비유하거나 하늘이 우리나라를 교화하기 위하여 보낸 붓다로 비견하고 있으며,

해인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여 화엄종을 크게 떨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 희랑대사로 추정하게 하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보물 제612호 [사자산흥녕사징호대사탑비(獅子山興寧寺澄曉大師塔碑)](944)의 “원주희랑장노(院主希朗長老)”와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보물 제106호 [보원사지법인국사비(普願寺址法印國師碑)](978)의 “신랑태대덕(神朗太大德)”이라는 명문이 확인된다. 이들 기록은 희랑대사가 신라말 고려초에 활동했던 승려로서 고려 왕실의 비호를 받아 화엄종을 크게 일으켜 고려 10세기 전반에 북악파의 조사이자 해인사의 제3대 조사로서 추앙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희랑대사와 관련되는 이들 기록은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희랑대사좌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이 상이 희랑대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해인사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한 것이다. 희랑대사좌상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희랑대사가 활동하던 10세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나타난다. 즉 『해인사(海印寺誌)』 12편에 나오는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해인사 기행기인 [가야산기(伽倻山記)]에 처음으로 희랑대사좌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불당 북쪽 벽 아래에는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라 말의 희랑선사의 상을 모셔 놓았다. 얼굴과 손을 모두 까맣게 칠하였고, 힘줄과 뼈가 울퉁불퉁하게 나왔다. 옷깃을 헤쳐 가슴을 드러내었는데, 양쪽 유방 사이에 앵두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다. 아마 그가 살아 있을 때 중완(中腕)에다 썩 뜬 흉터를 나타낸 것이거나 어쩌면 조각한 지가 오래되어 썩고 쪼미 먹어 구멍이 생긴 것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이덕무의 기록은 18세기 후반의 것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희랑대사좌상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얼굴과 손이 지금은 피부색으로 채색되어 있지만 까맣다고 표현한 것은 이덕무가 봤을 당시엔 옷칠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슴에 구멍이 있어 희랑대사를 “흉혈국인(胸穴國人)”이라고 기록한 [사전(寺傳)]의 내용과 같이 여기서도 가슴에 흉터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나무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아마 옷칠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목조상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덕무가 이 상을 희랑선사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상이 만들어지고 700여년이 지난 조선시대 18세기 후반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상이 정말 희랑대사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희랑대사좌상은 양손을 배꼽 앞에서 포개어 잡은 다음, 다소곳한 모습으로 가부

좌를 하고 있다. 약간 긴 장방형의 얼굴과 길쭉한 턱, 마른 체형을 갖추고 있다. 희랑대사좌상은 특정한 사람의 의학적인 골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성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즉 가늘고 긴 이마, 미간·눈가·입가의 가늘고 긴 주름, 얇은 귀, 튀어나온 광대 뼈, 큰 코, 돌출된 목젓, 가슴 중앙의 구멍 등 마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하여 모델링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채색된 것으로 추정되는 얼굴과 손, 법의의 색깔은 화려하지만, 신체 조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색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이 지닌 수준 높은 조형성을 퇴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비록 채색이 화려하여 보는 사람의 시야를 가리긴 하지만, 팔과 무릎을 덮고 있는 법의 자락의 부드럽고 유기적인 조형은 수준 높은 장인의 솜씨를 짐작하게 해 준다.

한편 정면을 응시하면서 조용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은 오랜 기간 수행에만 정진하던 승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희랑대사좌상은 상의 조형적인 특징은 물론, 그 이면에 있는 정신적인 면까지 잘 표현된 수준 높은 작품이다. 상에 보이는 비례와 표현 등 조형적인 특징은 희랑대사좌상이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희랑대사좌상은 우리나라 전시기에 걸쳐 현존하는 유일한 진영조각상이자 최초의 목심건칠조각상(木心乾漆彫刻像)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해인사 목조희랑대사상 보수·보존처리사업』, 합천군·법보종찰 해인사, 2009.
2. 『목조불1 본문』, 문화재청, 2013, pp.40-77.
3. 『목조불2 도판』, 문화재청, 2013, 도1-4, 97-100.

<사진자료>



사진1. 희랑대사좌상 정면과 후면



사진2. 희랑대사좌상 측면



사진3. 희랑대사좌상 밑면



사진4. 희랑대사좌상 부분



사진5. 희랑대사좌상 부분



사진6. 희랑대사좌상 부분



사진 7. 희랑대사 부분



사진8. 희랑대사좌상 부분



○ 현 상

- 합천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희랑대사상은 엑스선 촬영 사진을 통해 두부·신부의 뒷면, 밑면 등은 나무로 제작되었고, 상의 앞면은 건칠(칠포)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슴과 복부, 하반신 등에 설치된 다량의 격쇠는 나무판에 漆布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나무판과 칠포가 결합된 건칠불상 제작 기법이 제작 당시의 기법인지 아니면 후대의 보수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 상은 현존 最古의 승려초상 조각으로 부분적인 안료 탈락, 틀어짐 등 손상이 있지만,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불보살상 등 불교의 造像 규정에 따라 제작된 상들과 달리 실제 승려의 개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 결가부좌로 앉아 두 손은 배 앞에 叉手하고 있으며, 목은 앞으로 약간 숙이고 있으나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긴 얼굴에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턱도 뾰족하다. 이마, 눈가, 입 주위 등에 음각된 자연스러운 주름을 통해 노년에 접어든 고승의 이미지가 잘 표현되어 있다. 선정에 들지 않은 평시의 눈과 부드럽게 다물고 있어 입에서 평온하게 늙은 대사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
- 옷은 안쪽에 長衫(또는 直裰)을 입었고, 바깥쪽에는 田文相이 그려진 가사를 착용하고 있다. 가사는 몇 條 가사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每條 四長一短의 上品 袈裟로 판단된다. 大衣는 편단우견 방식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左肩 아래 앞뒤에는 鈎紐가 장착되어 있다.
- 현재의 채색은 조선시대 18세기 말 이후에 베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에 해인사를 방문했던 儒者들의 기행문에 모두 검은색 옷칠로 마감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조상은 늦어도 조선 18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희랑조사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그러나, 조선 후기 관리인 유척기의 기행문인 「游伽倻記」에 의하면 1712년 당시까지 고려 光宗이 희랑대사에게 諡號를 내린 教旨 등 희랑조사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으며, 희랑에 대한

1차 기록물이 남겨져 있던 시기에 이 조상이 희랑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실은 조상과 기록물의 관계가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케 한다.

- 희랑의 만년에 대한 기록 중 「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碑」(944년)에 院主로 등장하고 있으며(院主 希朗長老……甲辰六月十七日立), 조선시대 兪拓基(1691-1767)의 「游伽倻記」(1712년)에 희랑에게 시호를 내린 教旨(己酉五月日=949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들 두 기록에 의하면 희랑은 944년 6월 이후에서 949년 5월 이전의 어느 해에 입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초상 조각이라는 특성, 그리고 희랑의 성품과 개성까지 잘 묘사된 희랑대사상의 조형적 특징으로 보아, 이 상은 희랑의 입적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기에, 10세기 중엽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碑」; 兪拓基, 「游伽倻記」, 『知守齋集』; 金道洙, 「南遊記」, 『春洲遺稿』; 崔興遠, 「遊伽倻山錄」, 『百弗庵集』; 河鎮兌, 「遊伽倻錄」, 『杏亭文集』; 李德懋, 「伽倻山記」, 『雅亭遺稿』 (정소라, p. 37)

* 兪拓基, 「游伽倻記」, 『知守齋集』 권15: “壬辰(1712)……八月……至海印寺……大寂光殿……殿下有解行堂. 安希朗祖師木像. 卽高麗名僧云.……高麗時. 賜希朗祖師諡號教旨亦有之. 書曰贈海印尊師圓融無導不動常寂緣起相由照揚始祖大智尊者. 下書己酉五月日. 安寶而篆以高麗王印.”

* 李德懋, 「伽倻山記」, 『雅亭遺稿』 권3: “壬寅(1782)二月…十九日……佛堂西有眞常殿……右北壁下. 安羅末希朗禪師木雕像. 面手髹漆. 筋骨戍削. 襟披胸現. 乳間有竅容櫻. 或象伊人生時中腕灸痕. 或是雕造多年. 腐蠹成窟.……”

○ 참고문헌

1. 『목조불1 본문』, 문화재청, 2013.
2. 정소라,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은 2012년 제3차 동산문화재분과 위원회 국보승격 관련 검토안건으로 부의되었으나, 제작기법에 대한 자료 부족, 내부 구조에 대한 확인, 희랑대상의 역사성 등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된 뒤 국보지정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희랑대사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함께 매우 중시되고 있는 해인사의 聖像으로 외부 노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지만, 2018년 12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대고려 특별전에 특별히 출품되어 전국민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희랑대사는 후삼국 쟁탈기 해인사에서 북악을 이끌며 왕건을 지지하여 후삼국 통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그는 9세기 말 해인사에서 화엄학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음을 최치원이 지은 여섯 수의 시에서 확인된다. 후삼국 통일 이후 왕건의 스승으로 후삼국 통일에 기여했던 희랑대사의 위상은 더 높아졌고, 그에 따른 해인사에 대한 고려왕실의 지원도 컸다. 희랑대사 초상조각이 만들어지는 배경도 이와 유관하다. 희랑대사의 입적연대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척기의 「유가야기」에 기록된 諡號教旨를 내린 시기인 949년경으로 추정되며, 희랑대사상도 입적을 전후한 시기 그를 추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승려의 초상조각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다. 첫째 승려의 시신을 그대로 固化하는 肉身像, 둘째 이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肉身像 위에 베를 입혀 칠을 하는 加漆肉身像, 셋째 屍身을 화장하여 유해를 흙과 섞어 조각하는 遺灰像이 있다.⁴⁾ 중국 경우 승려의 육신상을 봉안한 사례가 3세기 말부터 등장하지만 현전하는 상은 없다. 가칠육신상으로는 713년 제작으로 알려진 六祖慧能大師像이 알려져 있는데, 이 상은 미라(Mirra)화된 혜능의 육신 위에 제자들이 옷칠을 하고 철대로 보강한 것이라고 하며 현재 광동성 南華寺 祖殿에 모셔져 있다. 일본의 경우 763년 탈환건칠로 제작된 鑑眞和尚像(688~763)이 가장 오래된 사례이며, 이 상은 도쇼다이(唐招提寺) 봉안되어 있다. 원래 영당에 감진의 유해를 안치하였다가 미라화에 실패하자 유해는 화장하고 건칠초상조각으로 제작하여 안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희상은 신라인이었던 無相(680~756)과 僧伽(617~710)의 제자 木叉, 그리고 東草師의 사례가 『宋高僧傳』에 기록되어 있고, 현존하는 예로는 둔황 막고굴 제17굴에 있는 洪諱(?~862)의 소조상이 남아 있다.

4) 小杉一雄, 「肉身像及遺灰像の研究」, 『東洋學報』 24-3, 1937



도409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정면



도410 좌측면



도411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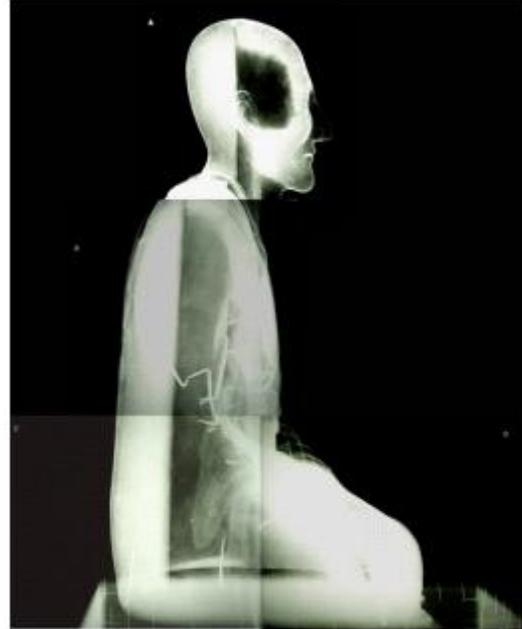


도412 배면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한 원효대사의 유해를 흙에 섞어 초상조각을 만들어 분황사에 봉안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며, 이 상은 고려 중기까지 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외 경주 흥륜사 금당에도 신라시대 十聖[我道, 猷鬻, 惠宿, 安舍, 義湘(이상 동벽), 表訓, 蛇巴, 元曉, 空慧, 慈藏(이상 서벽)]을 소조상으로 만들어 봉안하였다고 하지만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10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상은 현존 最古의 초상 조각임에는 분명하다.



도410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X-RAY 촬영(정면)



도 411 측면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위에서 언급한 초상조각의 제작방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드러나는 기법과 재료의 특성상 독특한 제작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현재 X-RAY 필름상 일반적인 건칠기법에서 보이는 식물과 칠의 누적된 층위가 확인되지 않고, 塑造像처럼 여러 재료를 혼합·반죽하여 만든 가소성의 재료로 성형한 것처럼 보인다. 파괴분석이 불가능한 현재 몸체를 이루고 있는 이 가소성의 재료의 성분과 탄소연대 측정을 통한 연대분석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인문학적 분석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이 상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실시한 엑스선 조사, 표면 성분분석, 그리고 금번에 실시한 내시경을 통한 내부조사를 통해 ‘半乾漆半木材’로 제작된 제작기법과 전통안료로 채색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조각사에 기법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像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반건반목’이라는 지금껏 한국조각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제

작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건칠기법의 원류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사실 이 상은 통건칠에서 여러 세월을 거치는 동안 뒷부분이 훼손되어 나무로 보수한 상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내시경 조사와 엑스레이 조사를 종합한 결과 앞뒷면은 제작 당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상 상이 파손되어 후대에 보수하게 되면, 파손된 부위 위주로 유사한 재료나 다른 재료로 보강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다른 재료로 보강할 경우 연결 부위를 못이나 꺾쇠로 고정하는 경우가 많다. 해인사 회랑대사의 경우 앞면과 뒷면을 정확히 분할하였는데, 이는 의도된 분할로 생각된다. 더불어 분할면은 전통접착제를 이용하여 면과 면을 이어붙이고, 결합 면을 이격을 막기 위해 직물로 배접하고 최종적으로 채색을 올려 마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앞면과 뒷면을 다른 소재로 제작하여 이어붙이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X-RAY 필름상 표면의 균데균데 확인되는 못과 꺾쇠는 반죽으로 성형한 건칠재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용된 못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제작기법을 취한 건칠불상은 나말여초로 추정되는 봉화 청량사 건칠 약사여래좌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재질과 만드는 과정이 약간 다르지만 나말여초 철불의 제작방식도 이러한 기법의 원류를 고찰하는데 참조가 된다. 철불은 진흙으로 원형을 만든 뒤 표면에 분리제를 바르고 바깥 틀을 제작하고, 다시 바깥 틀을 분리하여 주조하고자 하는 두께만큼 원형을 일정한 두께로 깎아 내고 다시 분리된 외형을 이어 붙이고 내틀과 단단히 고정한 다음 쇳물을 부어 제작하는 방식을 취한다. 근본적인 제작방식은 차이는 있겠으나 틀을 분리하여 다시 이어 붙인다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같은 시기에 행해진 유사한 제작 방식이 건칠불상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참고문헌

- 최성은, 「『삼국유사』를 통해 본 芬皇寺의 중대신라 불교미술」, 『문화재』 4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 정소라, 「해인사 건칠회랑대사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6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0-05-002

2. 간이벽온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

가. 심의사항

‘간이벽온방(언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로부터 ‘간이벽온방(언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8.6.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2.19.) 및 보완조사(’20.3.1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8.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9.7.~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간이벽온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
- 소 유 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 수 량 : 1권 1책(25장)
- 규 격 : 半郭 22.1×15.2cm, 32.3×20.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乙亥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578년(선조 11) 이전 추정



그림 18. 간이벽은방(언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중종 20(1525)년에 醫官 金順蒙(?~?)·劉永貞(?~?)·朴世學(?~?) 등이 왕명을 받아 瘟疫(돌림병)의 치료에 필요한 處方文을 모아 漢文과 아울러 한글로 諺解하여 중종 20(1525)년에 간행된 單卷의 韓醫學 專門書를 저본으로 하여 선조 11(1578)년 이전에 乙亥字로 간행된 版本이다.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에는 “宣賜之記”와 「內賜記」를 통하여 成均館博士 金緝(1610~?)에게 頒賜된 것과 본서가 늦어도 선조 11(1578)년 정월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 중에서 가장 앞선 판본으로 그 전래가 매우 희귀하며, 특히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지정된 가천박물관 소장의 『簡易辟瘟方(諺解)』는 국립한글박물관 所藏의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諺解)』보다 35年이나 뒤에 刊行된 版本이다.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韓醫學뿐 아니라 國語學·書誌學·民俗學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활용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그 가치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국립한글박물관 所藏의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이상과 같은 稀貴性과 貴重性을 지닌 만큼,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기준>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지정된 가천박물관 소장의 『簡易辟瘟方(諺解)』는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諺解)』보다 35년이나 뒤에 刊行된 版本인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간이벽온방』은 1578년(선조 11)년에 을해자(乙亥字)로 중간된 판본에서 찍은 책이다. 이 책의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으므로 가장 앞선 책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책의 권두에는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찍혀 있고, 앞 표지 이면에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尹[手決]”의 내사기(內賜記)가 있어 1578년(선조 11, 만력 6)년 정월에 당시의 도승지였던 윤두수(尹斗壽, 1533~1601)에 의하여 성균관박사 김집(金緝, 1610~?)에게 반사(頒賜)된 책이라는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조사본은 이미 지정된 보물 제1249호 『간이벽온방』이 1613년(광해군 5)에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로 간행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30여 년 이상 앞서 간행된 책이라는 점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조사본 『간이벽온방』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신청본은 중종 20(1525)년에 醫官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등이 왕명으로 瘟疫(전염병)의 치료에 필요한 處方文을 漢文 원문과 한글로 諺解하여 간행한 1卷1冊의 韓醫學書 「簡易辟瘟方」을 저본으로, 선조 11 (1578)년 이전에 乙亥字로 간행한 重刊本이다. 간행시기는 선조 11(1578)년 정월에 成均館博士 金緝(1530-1580)에게 頒賜되었다는 ‘內賜記’를 근거로 본서가 선조 11(1578)년 정월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簡易辟瘟方」은 현존하는 『簡易辟瘟方』의 版本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희귀한 판본이며, 기지정된 가천박물관 소장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호 「簡易辟瘟方(諺解)」 보다 35년이나 앞서 간행된 판본이다. 또한 「簡易辟瘟方」은

중세 한의학 연구 및 국어학, 서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귀중한 판본이므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연구하고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및 現狀

현재까지 전하는 乙亥字本 系列 및 訓鍊都監字本 系列의 모든 『簡易辟瘟方[諺解]』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乙亥字本 系列의 書誌記述]

□ 日本 宮內廳 書陵部 所藏本 (未實查)⁵⁾

簡易辟瘟方[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敎撰.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中宗 36(1541) 印出].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2×15.3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28.2×19.2cm. 韓紙(楮紙). 線裝(四針眼訂法, 改裝). (藏號: 555-16).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合 綴: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諺解]

印 文: 陽松, 佐伯侯毛利高標字培松藏書畫之印, 帝室圖書之章.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

5) 韓國海外典籍文化財調查研究會 編, 『海外典籍文化財調查目錄: 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 目錄』. 서울: 韓國海外典籍文化財調查研究會, 2001. p.69.

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
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
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啓 文: 書寫成冊令校書館十九件刻日印出十件乙良本曹及典牲署司畜署五部典醫監惠民署爲等
如分上九件乙良開城府及八道急速分送令各道即時刻板多印分送于各官染疫爲迫平…嘉
靖二十(1541, 중종 36)十一月二十五日左承旨臣權應昌次知啓依允. (牛馬羊猪染疫
病治療方).

□ 國立한글博物館 所藏本 (實查)

簡易辟瘟方[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金屬活字(乙亥
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
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3×20.2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藏號: 000113-00000).

表 題: 簡易[辟瘟方 缺落].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六(1578)年正月日」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命除謝」恩」都承旨臣
尹[手決]. (당시 都承旨는 尹斗壽이다).

印 文: 宣賜之記, 日休堂, 孳印.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
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飭/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
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墨 書: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 (後表紙 裏面).

所藏歷: 국립한글박물관이 2013년에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遺物이다. (유물취득경위서 참
간).

現 狀: 表紙와 本文 사이의 空紙에 다소의 變色과 해진 흔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漏濕의 흔
적이 있으나 그 나머지는 保存의 狀態가 良好한 편이다.

評 價: 本書는 선조 11(1578)년 正月 以前の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6세기 國語學 研
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보다 35년이나 늦게 간행된 訓鍊都監字本이 현재 國家指
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高麗大學校 晚松文庫 所藏本(1) (未實查)

簡易辟瘟方[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金屬活字(乙亥
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0×15.1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

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1.8×19.3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晚松 貴203).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六(1578)年正月日」內賜行副護軍李仲樸簡易辟瘟方一件」命除謝」恩」都承旨臣尹[手決]. (당시 都承旨는 尹斗壽이다).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中宗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선조 11(1578)년 正月 以前의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6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보다 35년이나 늦게 간행된 訓練都監字本이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2)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1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1.8×19.9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大學院 貴203A).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無].

印 文: [無].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中宗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선조 11(1578)년 이전의 重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6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보다 35년이나 늦게 간행된 訓練都監字本이 현재 國家指

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訓練都監字本 系列의 書誌記述]

□ 嘉泉博物館 所藏本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敎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3×14.9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2×18.7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寶物 第1249號).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繇/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敎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의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價値가 높다.

既指定: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奎章閣 韓國學研究院 所藏本(1)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敎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3.0×21.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奎 3199).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四十一年(1613)正月日」內賜辟瘟方一件五臺山上」右承旨臣李[手決]. (前表紙裏面). (당시 右承旨는 李信元이다).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의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本(2)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3.0×21.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奎 5277).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四十一(1613)年正月日」內賜辟瘟方一件校書館上」右承旨臣李[手決]. (前表紙裏面). (당시 右承旨는 李信元이다).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의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本(3)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3×20.2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藏號: 奎 5696).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四十一年(1613)年正月日」內賜辟瘟方一件太白山上」右承旨臣李[手決]. (前表紙裏面). (당시 右承旨는 李信元이다).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の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本(4) (未實查)

簡易辟瘟方[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敎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3.0×21.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奎 7850).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印 文: 宣賜之記, 弘文館, 帝室圖書之章.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の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 (實查)

簡易辟瘟方[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3×14.6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2×19.7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藏號: 奎 3199).

表 題: 簡易[辟瘟方].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印 文: 宣賜之記(8.2×8.2cm, 字徑 5.0cm), 清陰, 尹錫昌印.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馱/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中宗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所藏歷: 1979년에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이 창설되고 1980년 무렵에 尹錫昌으로부터 구입한 8,000여 책 중의 일부.

現 狀: 비교적 양호함.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の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調查者 個人 實查)

簡易辟瘟方[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4×14.7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1.3×19.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四十一(1613)年二月日」內賜辟瘟方一件■上」右承旨臣李[手決]. (前表紙 裏面). (■부분은 漆墨되어 있으나 機關名인 듯하며, 당시 右承旨는 李信元이다).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墨 書: 冊主新安曹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所藏歷: 購入.

現 狀: 表紙를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함.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の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所藏本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敎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3×14.7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5×20.3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615.3202김순몽ㄱ).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四十一年(1613)年正月日」內賜刑曹參議尹銑辟瘟方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決]. (前表紙 裏面).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の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現 狀

국립한글박물관 所藏의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診解)』는 表紙와 本文 사이의 空

紙에 다소의 變色과 헤진 흔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漏濕의 흔적이 있으나 그 나머지는 保存의 狀態가 良好한 편이다.

○ 內容 및 特徵

『簡易辟瘟方(諺解)』는 중종 20(1525)년에 醫官 金順蒙(?~?)·劉永貞(?~?)·朴世舉(?~?) 등이 왕명을 받아 瘟疫(돌림병)의 치료에 필요한 處方文을 모아 漢文과 아울러 한글로 諺解하여 엮은 單卷의 韓醫學 專門書이다.⁶⁾

『簡易辟瘟方(諺解)』의 卷頭에 수록된 金希壽(1475~1527)의 「序文」에 의하면 중종 19(1524)년 가을부터 이듬해(1525) 봄까지 平安道 全域에 傳染性이 강한 熱病人 厲疫이 크게 번져 많은 百姓이 病死하자, 국왕이 行副護軍 金順蒙 등에게 溫疫에 필요한 모든 方文을 뽑아서 엮고 한글로 翻譯하도록 하여 편찬된 것⁷⁾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중종 20(1525)년 5월에 이를 간행하여 널리 보급한 것⁸⁾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簡易辟瘟方(諺解)』의 초간으로 乙亥字의 金屬活字로 간행되었다. 현재 이 초간본은 日本의 宮內廳 書陵部 所藏⁹⁾되고 있을 뿐 국내에 전해지는 판본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簡易辟瘟方(諺解)』는 그 후로 선조 11(1578)년에 乙亥字의 금속활자로 간행되 바 있으며, 광해군 4(1612)년에 訓鍊都監 木活字로 간행된 판본도 있다. 『광해군일기』에 의하면 광해군 4(1612)년 12월에 “政院에서 ‘지금 厲疫이 극성한 데, (咸境과 江原의 兩道 뿐 아니라 都城 및 諸道에 이미 전염되었으며, 다른 곳도 다 그러합니다. 앞으로의 걱정도 지금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니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辟瘟方』이란 서적은 長數가 많지 않아 만들기가 쉽습니다. 속히 校書館으로 하여금 많은 다수를 印出하게 하여 中外에 널리 배포하여 위급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자,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¹⁰⁾고 기록하

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1月 23(壬午)日條.

下新抄辟瘟方于政院曰 此方書 藥名甚多 依前例 諺解印出可也 但待印出 則似乎遲緩 姑傳寫 竝辟瘟藥 下送于咸鏡 平安等道 且印出辟瘟方 宜令色承旨 略序首尾於篇末 使後世 知某時所著 前有辟瘟方 此則可名以續辟瘟方也.

7) 金順蒙 等 奉教撰, 『簡易辟瘟方』, 金屬活字(乙亥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中宗 36(1541) 印出]. 簡易辟瘟方序'條.

歲甲申(1524, 中宗 19)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繙/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中宗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5月 6(甲子)日條.

頒賜辟瘟方于中外.

9) 韓國海外典籍文化財調查研究會 編, 『海外典籍文化財調查目錄: 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 目錄』, 서울: 韓國海外典籍文化財調查研究會, 2001. p.69.

1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4年 12月 22(辛亥)日條.

壬子十二月二十二日辛亥政院啓曰 目今厲疫熾發 (非但咸鏡·江原兩道 如京城及諸道 已爲傳染 處處皆然 將來之

고 있다. 이러한 전교에 따라 간행된 『簡易辟瘟方(諺解)』이 訓鍊都監 木活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簡易辟瘟方(諺解)』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은 金順蒙·劉永貞·朴世舉 등 주로 燕山君朝와 中宗朝에 활약한 醫官들로 이들의 자세한 傳記資料가 전하지 않아 정확한 生沒年代는 알 수 없다.

金順蒙은 中宗年間의 의원으로 후일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로 惠民署 提調御醫를 역임한 河宗海(1500~1571)와 더불어 許琮(1434~1494)의 門下生이었으며, 중종 11(1516)년에 內醫院 提調가 되고 중종 12(1517)년에는 大妃移御所의 侍藥醫員을 지내며 腫氣의 治療에 뛰어난 名醫로 알려져 중종 14(1519)년 3월에는 晉州까지 파송되어 晉州君 姜渾(1464~1519)의 大腿部에 생긴 종기를 치료한 功勞로 判官에서 堂上官의 서품을 받기도 하였다. 중종 20(1525)년에는 行副護軍의 직책으로 劉永貞·朴世舉 등과 함께 『簡易辟瘟方』을 편찬하였으며, 중종 27(1532)년에는 河宗海·洪沈(?~?)과 함께 궁중에 드나들며 여러 차례 중종의 병을 진료한 인물이다. 劉永貞은 金順蒙보다 이른 燕山君朝부터 의원으로 활약하여 연산군 9(1503)년에 醫學教授로서 東班을 제수되고 중종 2(1507)년에는 縣監으로 임명되었다. 중종 12(1517)년에는 大妃의 질환에 侍藥 醫員으로 金順蒙과 함께 堂上官에 제수되었으나 臺諫의 상소로 취하되고 말았다. 중종 20(1525)년에는 중6품의 禮賓寺主簿로 있으면서 金順蒙·朴世舉 등과 함께 『簡易辟瘟方(諺解)』를 편찬하였다.

朴世舉는 중종 21(1526)년에 內醫院 直長이 되고 중종 20(1525)년에 『簡易辟瘟方』이 간행되던 당시에는 前內醫院正이었다. 중종 27(1532)년부터 왕의 종기를 돌보아 중종 28(1533)년에는 그 功勞가 많다고 하여 准職同知로 加資되었을 뿐 아니라 軍職으로 內醫員을 겸하였다. 중종 37(1542)년에는 行護軍職으로 司猛을 겸하면서, 慕齋 金安國(1478~1543)이 왕명을 받아 瘟疫治療의 醫書인 『分門瘟疫易解方』을 편찬할 때에, 醫司 護軍 朴世舉·司猛 洪沈·內醫院正 文世璉(?~?)·直長 柳之蕃(?~?)·典醫 李侗(?~?)·前直長 鄭樞(?~?)·惠民署 前直長 洪世河(?~?) 등의 內醫院 醫員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分門瘟疫易解方』은 여러 醫書에서 실시하기 쉬운 藥方과 비치하기 쉬운 藥材를 골라 舊抄 60餘方에 다시 40餘方을 보태어 鎮禳·不相傳染·服藥·勞服 등 4門으로 나누고 藥名과 採取法을 더하여 모두 한글로 翻譯·刊行한 것¹¹⁾으로 동년(1542) 6월에 함경도의 肅正·溫正·景元·부

患 亦不止此 不可不預爲之備) 辟瘟方一書 張數不多 工役易就 速令校書館多數印出 廣布中外 以爲救急之地何如 傳曰 允.

11) 金安國 著, 『慕齋先生集』, 卷11. 序. '分門瘟疫易解方序'條.

我聖上之三十七年 適值歲氣流運 癘疫熾發 遍于諸道 聖上惻念 命分遣醫員 考方劑藥治療 猶慮窮村僻鄉 醫或未及 遍歷 民之罹病者 未解治救之方 多致橫札之患 舊存辟瘟兩方抄錄 尙漏禳辟療治 又復混雜 且無藥名採法 蒙患之民 尤所難解 雖有其方 不能濟急 乃命因舊方加抄簡要易解之方 分爲門類 并錄諸藥鄉名採收之法 彙成新方 刊刻中外 務令廣布 俾民人家有而人解 病之未發 預辟之 已發 旋救之 期無札瘥 以納仁壽之域 臣安國實承睿旨而摠之 轉下醫司 行護軍臣朴世舉·行司猛臣洪沈 率內醫院正臣文世璉·直長臣柳之蕃·典醫監前僉正臣李侗·前直長臣鄭樞·惠民署前直長臣洪世河等 掌而哀集 旁搜諸書 方取易施 藥取易備 於舊抄六十餘方 添入四十餘方 分爲四門 首鎮禳 次不相傳染 次服藥 次勞復 繼之以藥名採法 皆翻解諺文 於是 救癘之方 秩然分曉 雖愚夫愚婦 可盡解識而易用

령·경성·경흥·회령 등에 溫疫이 크게 유행하자, 이 醫書를 보내 救療한 사실¹²⁾이 『中宗實錄』에 수록되어 있다. 명종 원(1546)년에는 嘉義大夫 僉知中樞院事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한편, 『簡易辟瘟方(診解)』의 편찬에 앞서 세종 27(1445)년에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한의학 백과사전인 『醫方類聚』에 수록되지 않은 疫病治療의 處方을 뽑아 평안도에 보내 시험하도록 하고 辟瘟에 관한 醫藥을 먼저 평안도와 함경도에 보내었다. 나아가 새로 편찬한 『辟瘟方』은 承政院으로 보내 많은 전례에 따라 翻譯·印出하였으며, 먼저의 『辟瘟方』을 印出할 때에 나중의 『辟瘟方』이 있으면 이것도 『續辟瘟方』이라 이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¹³⁾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감안할 때 『續辟瘟方』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종 20(1525)년에 溫疫에 필요한 모든 方文들을 뽑아서 최종으로 『簡易辟瘟方』을 엮어 보급한 것으로 보인다.

『簡易辟瘟方(診解)』의 記述의 體制는 病의 原因을 먼저 서술하고 그 뒤에 病症과 그에 따른 處方을 기술하였는데 특히 處方에 필요한 藥材名과 調劑法이 자세하다. 方文의 서술은 漢文의 原文을 앞세우고 이어서 診解文을 붙이고 漢文原文의 音을 小字로 적고 있어, 일반 백성들도 處方을 이해할 수 있도록 診解하고 診解에서도 藥材名과 같이 중요한 부분은 誤謬를 줄이기 위하여 漢文을 병기하고 있다.

『簡易辟瘟方(診解)』에 수록된 내용은 疫癘의 病候와 藥名 및 治法 등을 간명하게 서술하고 각각의 항목마다 註釋을 붙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疫癘病의 徵候와 豫·處方法, (2) 獄溫·傷溫·墓溫·廟溫·社溫·山溫·海溫·家溫·竈溫·歲溫·天溫·地溫 등의 原因과 豫·處方法, (3) 蘇合香元의 效能과 服用法, (4) 石雄黃의 효능과 복용법, (5) 香蘇散의 효능과 복용법, (6) 十神湯의 효능과 복용법, (7) 升麻葛根湯의 효능과 복용법, (8) 屠蘇酒의 효능과 복용법, (9) 螢火丸의 효능과 복용법, (10) 虎頭殺鬼元의 효능과 복용법, (11) 神明散의 효능과 복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疫病의 治療藥으로 湯약은 ‘湯’으로 가루약은 ‘散’ 알약은 ‘丸’으로 나누어 그 제조법 및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방법 외에도 “又方”이라 하여 별도로 33가지의 간결한 處方法과 豫防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1) 病者의 의복이나 그릇을 깨끗이 하라, (2) 술잎을 갈아 술에 한 손갈씩 풀어 하루 3회 복용하라, (3) 病者가 누운 자리에 쭉뚝을 뜨라, (4) 따뜻한 무즙이나 박즙을

遂繕寫以進 賜名曰分門瘟疫易解方 臣竊惟 天地運化 唯以生物爲心 帝王承天莅位 其所施設 孰非仁民愛物之政 制爲醫藥 救活物命 所係尤切 況諸病之中 癘疫之作 薰染轉熾 淫于一家一鄉 以至被于遠邇 橫斃滅門者相踵 爲毒最亟 言之慘痛 聖上軫念至此 眞能體天地生物之心 而吾東方百萬億蒼生 永受其賜於萬世 保命遂性 熙熙樂生 休和充洽 殃沴自消 皇天降鸞 靈祚無窮 嗚呼至矣 內而若書局 若醫司 外而若監司 若守令 苟能體聖上至仁之政 盡心鉅梓 期永流布 則活人之善 亦應感動於天 而與蒙其垂祐矣 嘉靖二十一年蒼龍壬寅五月下澣 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臣金安國拜手稽首謹序。

1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6月 13(壬辰)日條.

咸鏡道 鍾城·穩城·慶源·富寧·鏡城·慶興·會寧等邑 癘疫熾發 溫疫易解方 下送救療.

1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1月 23(壬午)日條.

下新抄辟瘟方于政院曰 此方書 藥名甚多 依前例 診解印出可也 但待印出 則似乎遲緩 姑傳寫 竝辟瘟藥 下送于咸鏡 平安等道 且印出辟瘟方 宜令色承旨 略序首尾於篇末 使後世 知某時所著 前有辟瘟方 此則可名以續辟瘟方也.

먹어라, (5) 설날 아침에 파·염규·마늘·해채·생강 등 五辛蔬를 먹어라, (6) 人糞은 여러 가지 毒을 없애준다, (7) 여자의 月經도 좋다 등과 같은 것이다.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현재까지 傳來의 현황(<表 1>) 및 版本別 文化財指定 現況(<表 2>·<表 3>)은 다음과 같다.

<表 1>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傳來

區 分	中宗朝 刊本	宣祖朝 刊本	光海君朝 刊本	備考
書 名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版 本	[不明](未實查)	乙亥字本(金屬活字本)	訓鍊都監字本(木活字本)	
刊 年	[中宗 20(1525)年 5月] ¹⁴⁾	宣祖 11(1578)年 1月 以前 ¹⁵⁾	光海君 5(1613)年 ¹⁶⁾¹⁷⁾¹⁸⁾	
卷冊數	[不分卷 1冊]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	
邊 欄	[不明](未實查)	四周雙邊	四周雙邊	
匡 郭	[不明](未實查)	22.1×15.2cm 內外	22.3×15.5cm 內外	
界 線	[不明](未實查)	有界	有界	
行字數	[不明](未實查)	漢文 9行 17字 諺解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板 口	[不明](未實查)	白口	白口	
魚 尾	[不明](未實查)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所藏處	·[日本 宮內廳 書陵部]	·國立한글博物館(實查) ·高麗大學校(2)(未實查)	·嘉泉博物館(未實查) ·奎章閣韓國學研究院(4)(未實查)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實查) ·淸州古印刷博物館(實查) ·啓明大學校童山圖書館(未實查)	

1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5月 6(甲子)日條.

頒賜辟瘟方于中外.

15) 金順蒙 等 奉教撰, 『簡易辟瘟方』, 金屬活字(乙亥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印出]. 前表紙裏面. ‘內賜記’條.

萬曆六(1578, 선조 11)年正月 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 恩/ 都承旨臣尹[手決].

1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4年 12月 22(辛亥)日條.

壬子十二月二十二日辛酉政院啓曰 日今癘疫熾發 (非但咸鏡·江原兩道 如京城及諸道 已爲傳染 處處皆然 將來之患 亦不止此 不可不預爲之備) 辟瘟方一書 張數不多 工役易就 速令校書館多數印出 廣布中外 以爲救急之地何如 傳曰 允.

1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5年 1月 3(辛酉)日條.

癸丑正月初三日辛酉政院啓曰 實錄奉安處 例藏他古今書籍 已覺充棟 慮有浩汗之弊 惟我國纂定事跡草集·傳記·諸家述作·中朝所無書籍 不可不分藏 以備文獻之徵 從之.

1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5年 2月 22(庚戌)日條.

癸丑二月二十二日庚戌咸鏡監司狀啓 ‘自今年正月以後 安邊等八邑 癘疫死亡者 一百二十人’ 云.

<表 2> 宣祖朝 刊行『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文化財指定 現況

區 分	日本 宮内廳 書陵部	國立한글博物館	高麗大學校晚松文庫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備考
書 名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版 本	乙亥字(金屬活字)本	乙亥字(金屬活字)本	乙亥字(金屬活字)本	乙亥字(金屬活字)本	
刊 年	中宗 36(1541)年 11月 25日 以前	宣祖 11(1578)年 正月 以前	宣祖 11(1578)年 正月 以前	宣祖 11(1578)年	
卷冊數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邊 欄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匡 郭	22.2×15.3cm	22.1×15.2cm	22.0×15.1cm	22.1×15.1cm	
界 線	有界	有界	有界	有界	
行字數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板 口	白口	白口	白口	白口	
魚 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規 格	28.2×19.2cm	32.3×20.2cm	31.8×19.3cm	31.8×19.9cm	
內賜印	-	宣賜」之記	宣賜」之記	-	
內賜記	啓: 書寫成冊令校書館十九件刻日 印出十件乙良本曹及典牲署司 畜署五部典醫監惠民署爲等如 分上九件乙良開城府及八道急 速分送令各道卽時刻板多印分 送于各官染疫爲追平…嘉靖二 十(1541, 중종 36)年十一月二十五日左承旨臣 權應昌次知啓依允.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 易辟瘟方一件」命除謝」 恩」都承旨臣尹[手決]	萬曆六年正月日」 內賜行副護軍李仲樾簡 易辟瘟方一件」命除謝」 恩」都承旨臣尹[手決]	-	
印 文	-	日休堂, 葶印	-	-	
藏 號	合綴: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000113-00000	晚松 貴203	大學院 貴203A	
指 定	非指定	指定申請本	非指定	非指定	

<表 3> 光海君朝 刊行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文化財指定

區 分	嘉泉博物館	奎章閣韓國學研究院 (1)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	奎章閣韓國學研究院 (3)	備考
書 名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版 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刊 年	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	
卷冊數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邊 欄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匡 郭	22.3×14.9cm	22.1×15.2cm	22.1×15.2cm	22.1×15.2cm	
界 線	有界	有界	有界	有界	
行字數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板 口	白口	白口	白口	白口	
魚 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規 格	32.2×18.7cm	33.0×21.0cm	33.0×21.0cm	33.0×21.0cm	
內賜印	宣賜」之記	宣賜」之記	宣賜」之記	宣賜」之記	
內賜記	-	萬曆四十一年正月日」 內賜辟瘟方一件五臺山上 」右承旨臣李[手決]	萬曆四十一年正月日」 內賜辟瘟方一件校書館上 」右承旨臣李[手決]	萬曆四十一年正月日」 內賜辟瘟方一件太白山上 」右承旨臣李[手決]	
印 文	-	-	-	-	
藏 號	-	奎 3199	奎 5227	奎 5696	
指 定	寶物 第1249號	非指定	非指定	非指定	

區分	奎章閣韓國學研究院 (4)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	清州古印刷博物館	啓明大學校童山圖書館	備考
書名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版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刊年	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	
卷冊數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邊欄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匡郭	22.1×15.2cm	22.3×14.6cm	22.4×14.7cm	22.3×15.5cm	
界線	有界	有界	有界	有界	
行字數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板口	白口	白口	白口	白口	
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規格	33.0×21.0cm	32.2×19.7cm	31.3×19.0cm	32.5×20.3cm	
內賜印	宣賜」之記	宣賜」之記 (方 8.2cm) (자경 5.0cm)	宣賜」之記	宣賜」之記	
內賜記	-	-	萬曆四十一年二月日」 內賜辟瘟方一件■上」 右承旨臣李[手決]	萬曆四十一年正月日」 內賜刑曹參議尹銑辟瘟方 一件」命除謝」恩」 右承旨臣李[手決]	
印文	弘文館, 帝室圖書之章	淸陰, 尹錫昌印	-	-	
藏號	奎 7850	C7-71	-	615.3202김순몽 ㄱ	
指定	非指定	非指定	忠北有形 第371號	非指定	

한편,傳來되는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國家指定文化財 指定의 現況은 [<表 2> 宣祖朝 刊行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文化財指定 現況]과

[<表 3> 光海君朝 刊行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文化財指定]에서 나타나듯이, 中宗 20(1525)년 5월에 간행된 『簡易辟瘟方(諺解)』의 初刊本은 傳來되지 않으며, 현재 傳來되는 版本은 선조 11(1578)년 이전의 乙亥字本과 광해군 5(1613)년의 乙亥字가 混入된 訓鍊都監字本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선조 11(1578)년 이전에 乙亥字로 간행된 것으로 卷頭에 “宣賜之記”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內賜本임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前表紙 裏面에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尹[手決]”의 「內賜記」를 통하여, 선조 11(1578, 만력 6)년 정월에 당시의 도승지였던 尹斗壽(1533~1601)에 의하여 成均館博士 金緝(1430~1580)에게 頒賜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內賜記」의 內賜年度는 본 판본이 늦어도 선조 11(1578)년 정월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序文 3장과 本文 22장의 도합 25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序題와 卷頭題 및 卷尾題는 ‘簡易辟瘟方’이고 版心題는 ‘辟瘟方’이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은 세로 22.1cm 가로 15.2cm이며 界線이 있다. 半葉의 行字數는 漢文은 9行17字이고 諺解文은 9行16字이며 註文은 雙行이다. 版心의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3葉花紋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2.3cm 가로 20.2cm이고 지질은 韓紙(楮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으로 表紙는 改裝된 듯하다.

表紙 裏面에는 書寫者를 알 수 없는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의 詩句가 墨書가 되어 있다.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의 詩句는 南宋의 詩人 趙師秀(1170~1219)가 지은 七言詩 “中夜清寒入緇袍 一杯山茗當香醪 鳥飛竹葉霜初下 人立梅花月正高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春來擬約蕭閑伴 重上天台看海濤”라는 「呈蔣薛二友」의 일부이며,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의 詩句는 北宋의 哲學家요 易學家인 邵雍(1011~1077)이 지은 七言詩 “物理人情自可明 何嘗感感向平生 卷舒在我有成算 用舍隨時無定名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惊] 侯門見說深如海 三十年來掉臂行”이라는 「龍門道中作」의 일부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 계통에서 국내에 소장된 판본으로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이와 동일한 乙亥字本은 현재 국내에는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과 국외에는 日本의 宮內廳書陵部に 소장된 것이 전부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전래가 매우 희귀하다. 특히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지정된 嘉泉博物館의 『簡易辟

瘧方(諺解)』는 국립한글박물관 所藏의 指定申請本 『簡易辟瘧方(諺解)』보다 35年이나 뒤에 刊行된 版本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簡易辟瘧方(諺解)』는 韓醫學 뿐 아니라 國語學·書誌學·民俗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활용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그 가치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稀貴性和 貴重性を 지닌 판본인 만큼,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等奉命撰, 『簡易辟瘧方(諺解)』. 金屬活字(乙亥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國立한글博物館 所藏本.
-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等奉命撰, 『簡易辟瘧方(諺解)』. 木活字(訓鍊都監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
-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等奉命撰, 『簡易辟瘧方(諺解)』. 木活字(訓鍊都監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06. 07.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이완우·옥영정)>.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jpg.snu.ac.kr/home/>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其 他

국립한글박물관 所藏의 指定申請本 『簡易辟瘧方(諺解)』는 국립한글박물관이 2013년에 개인으로부터 買入한 遺物이다. (유물취득경위서 참간)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지정신청본 『簡易辟瘧方(諺解)』와 동일한 乙亥字本은 현재 국내에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晩松文庫와 국외에는 日本의 宮內廳書陵部에 소

장된 것이 전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지정된 嘉泉博物館 소장의 『簡易辟瘟方(諺解)』는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보다 35년이나 뒤에 刊行된 版本인 것으로 판단된다.

□

書誌事項

簡易辟瘟方 /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等奉命撰.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推定].

1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3×20.2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 題: 簡易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六年正月 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 恩/ 都承旨臣尹[手決]. (前表紙 裏面).

印 文: 宣賜之記, 日休堂, 孳印.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學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吁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墨 書: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 (後表紙 裏面).

○ 현 상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지정신청본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은 표지와 본문 사이의 공지에 다소의 변색과 헤진 흔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있으나 그 나머지는 보존의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간이벽온방』은 1525년(중종 20)년에 의관 김순몽(金順蒙, ?~?)·유영정(劉永貞, ?~?)·박세거(朴世舉, ?~?) 등이 왕명을 받아 온역(瘟疫, 돌림병)의 치료에 필요한 처방문을 모아 한문과 아울러 한글로 언해하여 엮은 단권의 한의학 전문서이다.

『간이벽온방』의 권두에 수록된 김희수(金希壽, 1475~1527)의 「서문」에 의하면 중종 19(1524)년 가을부터 이듬해(1525) 봄까지 평안도 전역에 전염성이 강한 열병인 여역(厲疫)이 크게 번져 많은 백성이 병사하자 국왕이 항부호군 김순몽 등에게 온역에 필요한 모든 방문을 뽑아서 엮고 한글로 번역하도록 하여, 동년(1525) 5월에 이를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다음과 같다.

갑신(甲申, 1524) 가을에 관서로(關西路)에 역병이 크게 일어나 전염되니 백성들이 죽어 나갔다. 을유(乙酉, 1525) 봄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으니 임금께서 아침저녁으로 근심하여 무릇 제사까지도 거행하셨다. 또 의관(醫官)까지 나누어 파견하여 약(藥餌)을 가지고 와 구휼하도록 하셨으나 두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염려하셨다. 이에 특별히 행부호군(行副護軍) 신(臣) 김순몽(金順蒙), 예빈시 주부(禮賓寺主簿) 신(臣) 유영정(劉永貞), 전 내의원정(前內醫院正) 신(臣) 박세거(朴世舉) 등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처방 가운데 온병을 치료하는 법(瘟之法)을 모아 1편으로 하여 이름을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이라 이름하였다. 방언(方言)으로 번역하여 인쇄하여 중외에 반포하니 사람마다 쉽게 깨닫고, 비록 궁촌벽향(窮村僻

巷)이라도 모두 처방에 의하여 살방도를 구하게 하셨다. 진실로 성상의 덕(好生之德, 순임금의 好生德)과 인(如傷之仁, 문왕의 視民如傷)이 아니라면 어찌 이에까지 이르겠는가. 감탄스럽도다 그 지극하심이여.

가정(嘉靖) 4년 을유(1525, 중종 20) 정월 25일 통정대부 승정원도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신 김희수(金希壽) 봉교근서.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學抄諸方治/ 瘧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瘧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吁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간이벽온방』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은 김순몽·류영정·박세거 등 주로 연산군 조와 중종조에 활약한 의관들로 이들의 자세한 전기자료가 전하지 않아 정확한 생몰년대는 알 수 없다.

김순몽은 중종연간의 의원으로 후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혜민서(惠民署) 제조어의를 역임한 하종해(河宗海, 1500~1571)와 더불어 허중(許琮, 1434~1494)의 문하생이었으며, 중종 11(1516)년에 내의원 제조가 되고 중종 12(1517)년에는 대비 이어소의 시약의원을 지내며 종기(腫氣)의 치료에 뛰어난 명의로 알려져, 중종 14(1519)년 3월에는 진죽(晉州)까지 파송되어 진천군(晉州君) 강혼(姜渾, 1464~1519)의 대퇴부에 생긴 종기를 치료한 공로로 판관에서 당상관의 서품을 받기도 하였다. 중종 20(1525)년에는 행부호군직에 있으면서 류영정·박세거 등과 함께 『간역벽온방』을 편찬하였으며, 중종 27(1532)년에는 하종해·홍침(洪沈, ?~?)과 함께 궁중에 드나들며 여러 차례 중종의 병을 진료하였던 인물이다.

류영정은 김순몽보다 이른 연산군조부터 의원으로 활약하여 연산군 9(1503)년에 의학교수로서 동반을 제수되고 중종 2(1507)년에는 현감으로 임명되었다. 중종 12(1517)년에는 대비의 질환에 시약 의원으로 김순몽과 함께 당상관에 제수되었으나 대간의 끈질긴 상소로 취하되고 말았다. 중종 20(1525)년에는 중6품의 예빈시 주부로 있으면서 김순몽·박세거 등과 함께 『간역벽온방』을 편찬하였다.

박세거는 중종 21(1526)년에 내의원 직장이 되고 중종 20(1525)년에 『간이벽온방』이 간행되던 당시에는 전내의원정이었다. 중종 27(1532)년부터 왕의 종기를 돌보아 중종 28(1533)년에는 그 공로가 많다고 하여 준직동지로 가자되었을 뿐 아니라

군직으로 내의원을 겸하였다. 중종 37(1542)년에는 행호군직으로 사명을 겸하면서,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이 왕명을 받아 온역 치료의 의서인 『분문온역역해방(分門瘟疫易解方)』을 편찬할 때에, 의사 호군 박세거·사맹 홍침·내의원정 문세련(文世璉, ?~?)·직장 류지번(柳之蕃, ?~?)·전의 이척(李倜, ?~?)·전직장 정추(鄭樞, ?~?)·혜민서 전직장 홍세하(洪世河, ?~?) 등의 내의원 의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분문온역역해방』은 여러 의서에서 실시하기 쉬운 약방과 비치하기 쉬운 약재를 골라 이전의 60여방문에 다시 40여 방문을 보태어 진양(鎭穰)·불상전염(不相傳染)·복약(服藥)·노복(勞服) 등 4문(門)으로 나누고 약명과 채취법을 더하여 모두 한글로 번역·간행한 것으로 동년(1542) 6월에 함경도의 종성·온성·경원·부령·경성·경흥·회령 등에 온역이 크게 유행하자, 이 의서를 보내 구료한 사실이 『중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명종 원(1546)년에는 가의대부 첨지중추원사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간이벽온방』에는 여러 가지 역려(疫癘)의 병후와 약명 및 처방 등을 간명하게 서술하고 각각의 항목마다 주석을 붙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역려병(疫癘病)의 징후와 예·처방법, (2) 옥온(獄溫)·상온(傷溫)·묘온(墓溫)·묘온(廟溫)·사온(社溫)·산온(山溫)·해온(海溫)·가온(家溫)·조온(竈溫)·세온(歲溫)·천온(天溫)·지온(地溫) 등의 원인과 예·처방법, (3) 소합향원(蘇合香元)의 효능과 복용법, (4) 석웅황(石雄黃)의 효능과 복용법, (5) 향소산(香蘇散)의 효능과 복용법, (6) 십신탕(十神湯)의 효능과 복용법, (7)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의 효능과 복용법, (8) 도소주(屠蘇酒)의 효능과 복용법, (9) 형화환(螢火丸)의 효능과 복용법, (10) 호두살귀원(虎頭殺鬼元)의 효능과 복용법, (11) 신명산(神明散)의 효능과 복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역병의 치료약으로 탕약은 ‘탕(湯)’으로 가루약은 ‘산(散)’ 알약은 ‘환(丸)’으로 나누어 그 제조법 및 사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방법 외에도 “우방(又方)”이라 하여 별도로 33가지의 간결한 처방과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1) 병자의 의복이나 그릇을 깨끗이 하라, (2) 술임을 갈아 술에 한 손가락씩 풀어 하루 3회 복용하라, (3) 병자가 누운 자리에 쭉뚝을 뜨라, (4) 따뜻한 무즙이나 박즙을 먹어라, (5) 설날 아침에 파·염구·마늘·해채·생강 등 오신소(五辛蔬)를 먹어라, (6) 인분(人糞)은 여러 가지 독을 없애준다, (7) 여자의 월경(月經)도 좋다 등과 같은 것이다.

이같이 『간이벽온방』은 병의 원인을 먼저 서술하고 그 뒤에 병증과 그에 따른 처방을 기술하였고, 특히 처방에 필요한 약재명과 조제법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方文)의 서술은 한문의 원문을 앞세우고 이어서 언해문(諺解文)을 붙이고 한문 원문의 음을 소자(小字)로 적어 놓았다.

『간이벽온방』의 간행은 1525년(중종 20)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간본(初刊本)은 전래되지 않고 1578년(선조 11)년에 을해자(乙亥字)로 중간된

판본과 1613년(광해군 5)년에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로 중간된 판본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조사본 『간이벽은방』은 1578년(선조 11)년 이전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것으로 권두(卷頭)에 “선사지기(宣賜之記)”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내사본(內賜本)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앞 표지 이면에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尹[手決]”의 「내사기(內賜記)」를 통하여, 선조 11(1578, 만력 6)년 정월에 당시의 도승지였던 윤두수(尹斗壽, 1533~1601)에 의하여 성균관박사 김집(金緝, 1610~?)에게 반사(頒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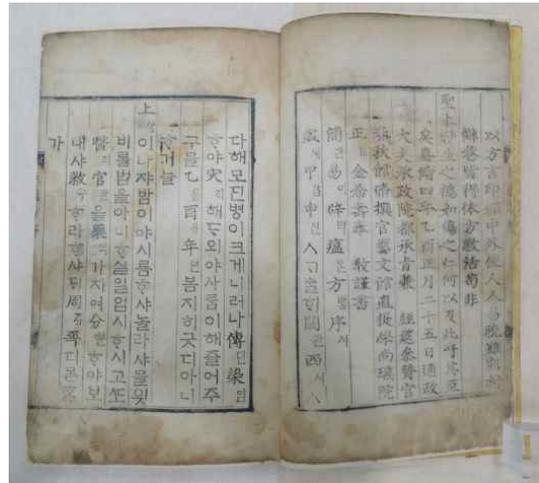


조사본은 서문 3장과 본문 22장으로 모두 25장이다. 서제(序題)와 권두제(卷頭題) 및 권미제(卷尾題)는 ‘簡易辟瘟方’이고 판심제(版心題)는 ‘辟瘟方’이다. 판식(版式)의 변란(邊欄)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半郭)은 세로 22.1cm 가로 15.2cm이며 계선(界線)이 있다. 반엽(半葉)의 행자수는 한문은 9행17자이고 언해문은 9행16자이며 주문(註文)은 쌍행이다. 판심의 판구(版口)는 백구(白口)이고 어미는 상하내향3엽화문어미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2.3cm 가로 20.2cm이고 지질은 한지(저지)이며, 장정은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의 선장으로 표지는 개장되었다.

뒷 표지 이면에는 쓴 사람을 알 수 없는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의 시구가 묵서되어 있다.



간이벽온방 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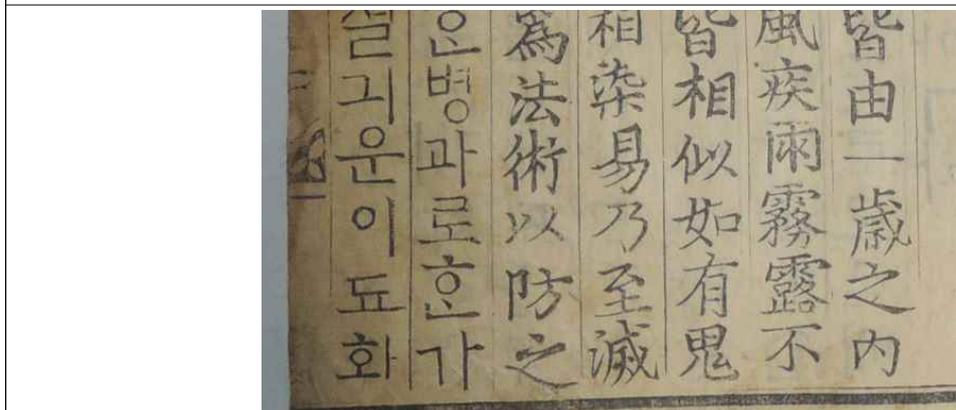


간이벽온방 서문

조사본은 현재까지 알려진 『간이벽온방』의 판본 가운데 ‘乙亥字本’으로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이와 동일한 판본으로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晚松文庫와 日本의 宮内廳書陵部に 소장된 것이 알려져 있다. 현재 보물 제1249호로 지정된 『간이벽온방』(가천박물관 소장본)은 1613년(광해군 5)년에 간행된 책으로 을해자와 함께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가 함께 사용되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조사본(을해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훈련도감자)

區分	中宗朝 刊本	宣祖朝 刊本	光海君朝 刊本
書名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版本	[不明]	乙亥字本	[乙亥字混入]訓鍊都監字本
刊年	中宗 20年(1525년 5월)	宣祖 11(1578)年 1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卷冊數	1卷1冊	1卷1冊(25張)	1卷1冊
邊欄	[不明]	四周雙邊	四周雙邊
匡郭	[不明]	22.1×15.2cm, 有界	22.3×15.5cm, 有界
行字數	[不明]	漢文 9行 17字, 諺解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板口	[不明]	白口	白口
魚尾	[不明]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規格	[不明]	32.3×20.2cm	32.5×20.3cm
所藏處	[不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立한글博物館 · 高麗大學校 - 晚松文庫(만송貴203) - 漢籍室(대학원貴203A) · 日本 宮內廳書陵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嘉泉博物館(보물 제1249호) · 淸州古印刷博物館(충북유형 제371호) · 奎章閣韓國學研究院(奎 3199) · 啓明大 童山圖書館(이귀 615.3202 김순몽기) ·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04_C07-0071)

조사본 『간이벽은방』은 한의학 뿐 아니라 국어학·서지학·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된다.

○ 文獻資料

-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06. 07.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이완우·옥영정)>.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 書誌記述

簡易辟瘟方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奉命撰. -- 金屬活字本(乙亥字).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1卷1冊(25張, 序文3張, 本文22張) : 四周雙邊 半郭 22.1×15.2 cm, 有界, 漢文 9行17字, 諺
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內向3葉花紋魚尾 ; 32.3×20.2 cm

表 題: 簡易

序 題: 簡易辟瘟方

卷首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前表紙 裏面): 萬曆六年正月 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 恩 都
承旨臣尹(手決)

印 文(卷頭): 宣賜之記, 日休堂, 擘印

序 文: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
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
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 以方言印頒中外使人
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
四年乙酉(1525)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
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墨書(後表紙 裏面):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

裝 訂: 線裝本(五針眼訂, 表紙改裝)

所藏歷: 2013년 공개유물구입 절차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매입

狀 態: 표지가 후대에 改裝되었고, 전체적으로 漏濕에 의한 변색의 흔적이 있으나 보존상
태는 良好함

評 價: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은 선조 11(1578)년 이전 乙亥字로 간행된 重刊本으로 韓
醫學 및 16세기 國語學 研究를 위한 자료로 가치가 높음

既指定: 寶物 第 1249號(광해 5(1613) 訓練都監字本)

傳來歷:

	乙亥字本(金屬活字)	訓練都監字本(木活字)
刊 年	宣祖 11(1578)年 1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1月 以前
所藏處	- 국립한글박물관(지정신청본, 000113-00000) - 고려대학교도서관(만송귀203, 대학원귀 203A)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04_C07-0071) - 日本 宮內廳書陵部	-奎章閣韓國學研究院(奎3199, 奎5227, 奎5696, 奎7850)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이귀 615.3202 김순몽ㄱ)
既指定		-嘉泉博物館(寶物 第1249號) -清州古印刷博物館(충북유형 제371호)

○ 현 상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은 表紙가 후대에 改裝되었고, 전체적으로 本文과 책 하단에 漏濕으로 인한 변색의 흔적이 있으며, 표지와 본문 사이의 空紙도 漏濕으로 汚損되었으나 보존 상태는 良好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簡易辟瘟方」은 조선 中宗 19년(1524) 평안도 지방에 瘟疫(전염병)이 창궐하여 피해가 커지자 이듬해인 中宗 20년(1525)에 醫官 金順蒙(?-?)·劉永貞(?-?)·朴世舉(?-?) 등이 왕명으로 瘟疫 치료에 필요한 處方文을 한문과 한글로 諺解하여 간행한 1卷1冊(25張)의 韓醫學書이다.

金希壽(1475-1527)의 序文에 의하면 中宗 19년(1524) 가을부터 이듬해(1525) 봄까지 평안도 전역에 전염성 열병인 厲疫이 크게 번져 많은 백성들이 병사하자 中宗이 行副護軍 金順蒙 등에게 瘟疫 치료에 필요한 모든 處方文을 뽑아서 엮고 諺解하도록 하고, 같은 해 5월에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편찬에 참여한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등은 주로 燕山君과 中宗年間に 활약한 醫官들로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다.

金順蒙은 河宗海(?-?)와 더불어 許琮(1434-1494)의 門下生이었으며, 中宗 11년(1516)에 內醫院 提調가 되고 中宗 12년(1517)에는 大妃移御所의 侍藥醫員을 지냈고 中宗 14년(1519) 3월에는 晉州까지 파송되어 晉州君 姜渾(1464-1519)의 中기를 치료한 공로로 判官에서 堂上醫官의 서품을 받기도 하였다. 中宗 20(1525)년에는 行副護軍職에 있으면서 劉永貞, 朴世舉 등과 함께 「簡易辟瘟方」을 편찬했고 中宗 27(1532)년에는 河宗海, 洪沈(?-?)과 함께 궁중에 드나들며 여러 차례 中宗의 병을 진료하였다.

劉永貞은 燕山君 9(1503)년에 醫學教授로서 東班, 즉 文臣에 제수되고 中宗 2년(1507)에 縣監으로 임명되었다. 中宗 12(1517)년에는 大妃의 질환에 侍藥 醫員으로 봉직한 공로로 堂上官에 제수되었으나 臺諫의 끈질긴 상소로 취하되었고, 中宗 20(1525)년에는 中6품 禮賓寺主簿로 있으면서 金順蒙·朴世舉 등과 함께 「簡易辟瘟方」을 편찬하였다.

朴世舉는 前 內醫院 正으로 「簡易辟瘟方」 편찬에 參與했고 中宗 21년(1526)에 內醫院 直長이 되었다. 中宗 23년(1528)년에는 세자빈의 病을 돌보아 말 한필을 하사

받았다. 중종 27(1532)년부터 왕의 종기를 치료하고 중종 28(1533)년에는 내의로 왕실 진료에 공이 많다고 하여 准職同知로 加資되었을 뿐 아니라 軍職으로 內醫員을 겸하였다. 중종 37(1542)년에는 行護軍職으로 司猛을 겸하면서, 金安國(1478-1543)이 왕명을 받아 瘟疫治療書 「分門瘟疫易解方」을 편찬할 때 司猛 洪沈, 內醫院正 文世璉(?-?), 直長 柳之蕃(?-?), 典醫 李倜(?-?), 前直長 鄭樞(?-?), 惠民署 前直長 洪世河(?-?) 등 내의원 의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明宗 원년(1546)에는 벼슬이 嘉義大夫 僉知中樞院事에 이르렀다.

「簡易辟瘟方」의 편찬 체제는 먼저 病의 원인을 서술하고 이어서 病과 증상에 따른 處方に 필요한 藥材名과 調劑法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處方文은 漢文 原文을 기술하고 이어 일반 백성들도 쉽게 처방을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언문으로 해석한 諺解文을 붙였으며, 언해문에는 한문 원문의 음을 小字로 병기해서 藥材名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수록된 내용은 疫癘의 病候와 藥材名 및 치료법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각각의 항목마다 註釋을 붙이고 있다.

(1) 疫癘病의 徵候와 예방 및 처방법 (2) 獄溫, 傷溫, 廟溫·社溫·山溫·海溫·家溫·竈溫·歲溫·天溫·地溫 등의 原因과 豫·處方法, (3) 蘇合香元の 效能과 服用法, (4) 石雄黃의 효능과 복용법, (5) 香蘇散의 효능과 복용법, (6) 十神湯의 효능과 복용법, (7) 升麻葛根湯의 효능과 복용법, (8) 屠蘇酒의 효능과 복용법, (9) 螢火丸의 효능과 복용법, (10) 虎頭殺鬼元の 효능과 복용법, (11) 神明散의 효능과 복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治療藥으로 湯약은 ‘湯’으로 가루약은 ‘散’ 알약은 ‘丸’으로 구분하여 제조법 및 사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又方”이라 하여 33가지의 간결한 처방법과 예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1) 病者의 의복이나 그릇을 깨끗이 하라 (2) 술잎을 갈아 술에 한 손가락씩 풀어 하루 3회 복용하라 (3) 病者가 누운 자리에 쭉뚝을 뜨라 (4) 따뜻한 무즙이나 박즙을 먹어라 (5) 설날 아침에 파·염규·마늘·해채·생강 등 五辛蔬를 먹어라 (6) 人糞은 여러 가지 毒을 없애준다 (7) 여자의 月經도 좋다 등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은 선조 11(1578)년 이전에 乙亥字로 간행된 것으로 卷頭に “宣賜之記”가 찍혀 있고 앞표지 이면에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尹”의 기록이 있어 內賜本임을 알 수 있다. 즉 萬曆 6年인 선조 11(1578)년 정월에 당시 도승지였던 尹斗壽(1533-1601)에

의해 成均館博士 金緝(1530-1580)에게 頒賜되었다는 사실과, 內賜年度로 미루어 본서가 선조 11(1578)년 정월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정신청본은 1卷1冊, 25張(序文 3장, 本文 2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序題와 卷頭題 및 卷尾題는 ‘簡易辟瘟方’이고 版心題는 ‘辟瘟方’이다. 版式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은 세로 22.1cm 가로 15.2cm이며 界線이 있고 行字數는 漢文은 9行17字, 諺解文은 9行16字, 註雙行이고 版口는 白口, 魚尾는 內向3葉花紋魚尾이다. 책 크기는 세로 32.3cm 가로 20.2cm, 지질은 楮紙, 裝訂은 五針眼訂法の 線裝이고 表紙는 후대에 改裝되었다.

뒤표지 이면에 쓰인 墨書의 앞부분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는 南宋의 詩人 趙師秀(?-?)가 지은 七言詩 「呈蔣薛二友」의 일부이며, 뒷부분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의 詩句는 北宋의 哲學家 邵雍(1011-1077)이 지은 七言詩 「龍門道中」의 일부이고 書寫者는 알 수 없다.

현재 중종 20(1525)년에 간행된 「簡易辟瘟方」 初刊本은 전하지 않고 선조 11(1578)년에 乙亥字로 重刊된 판본과 광해군 5(1613)년에 訓練都監字로 重刊된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지정신청본은 국내 소장 판본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乙亥字本이며, 동일한 판본으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日本 宮內廳書陵部 소장본만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특히 기존에 寶物 第1249號로 지정된 가천박물관 소장 「簡易辟瘟方」보다 35年이나 앞서 刊行된 版本이다.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은 중세 韓醫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료이며 國語學, 書誌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貴重한 판본이므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 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奉命撰, 『簡易辟瘟方』. 金屬活字(乙亥字)本.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국립한글박물관 所藏本.
-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06. 07.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이완우·옥영정)>.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https://mlibrary.kmu.ac.kr>
- 고려대학교도서관: <http://kjg.snu.ac.kr/home/>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library.korea.ac.kr>
- 청주고인쇄박물관: <https://cheongju.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은 국립한글박물관이 2013년 공개유물구입 절차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遺物이다.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乙亥字本은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日本 宮内廳書陵部 소장 자료만 알려져 있으며,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기지정된 가천박물관 소장 「簡易辟瘟方」보다 35年이나 앞서 간행된 귀중한 版本이다.

3.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屏風)

가. 심의사항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시장으로부터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8.7.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5.12.) 및 보완조사(’20.6.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8.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9.7.~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6호(2014.9.24. 지정)
- 명 칭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屏風)
-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수 량 : 1좌(4폭)
- 규 격 : 전체(병풍틀 포함) 179.4×312.4cm, 각 화폭 110.0×61.6~62.0cm
- 재 질 : 삼베에 수묵채색
- 형 식 : 병풍(屏風)
- 조성연대 : 1604년(선조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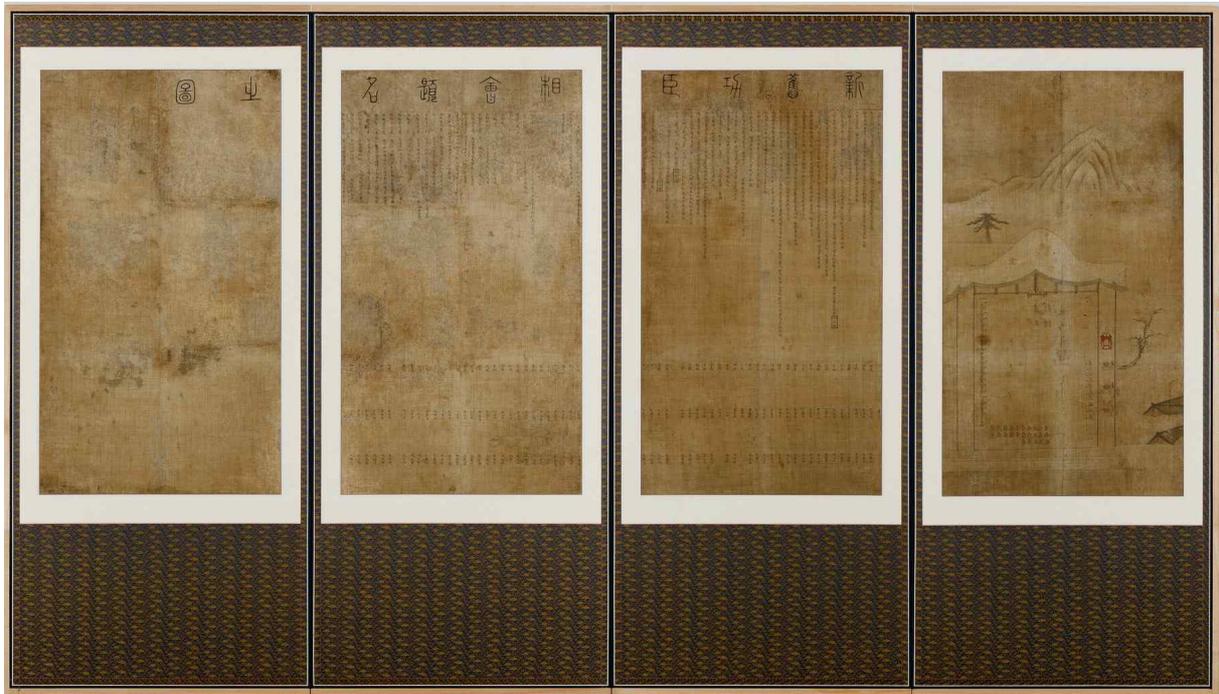


그림 27.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신구공신상회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는 선조 연간 녹훈된 신공신과 구공신들이 1604년(선조 37) 11월 12일 충훈부(忠勳府)에서 가졌던 상회연(相會宴)을 기념하여 참석한 공신들에게 제작 하사된 기록화이다.
- <신구공신상회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는 <태평회맹도>(보물 제668-3호)와 거의 동일한 작품으로 함께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선시대 공신녹훈 관련한 회화로서 공신초상화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공신 상회연을 기록한 유일한 사례로서 희소성이 높다.
- 공신관련 기록화로서 제작 시기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커다란 화면으로 이루어져 회화사적 가치가 높다.
-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1.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는 선조연간에 녹훈된 신구공신들이 1604년 11월 12일 충훈부에서 법은(法醢)을 하사받았던 상회연을 주제로 한 궁중행사 기록화이다. 4폭 병풍으로 제1폭은 상회연 장면이고, 제2폭과 제3폭은 신구공신 63명의 약력을 적은 좌목(座目)이며, 제4폭은 빈 여백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제2폭과 제4

폭의 상단을 붉은색으로 구획하고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라는 표제(標題)가 전서체로 적혀 있다. 이러한 구성은 계회도(契會圖) 형식을 병풍에 적용한 특이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상회연을 다룬 보기 드문 궁중행사 기록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 1604년은 전란 직후 왕권이 실추되고 사회적 혼란도 심각했던 때이다. 상회연 이틀 전인 11월 11일 선조의 탄일이었지만 축하연도 간략하게 치르고, 다음날 자신이 녹훈한 신구공신 63명에게 충훈부(忠勳府)에서 법온을 하사하는 상회연을 거행하였다. 이는 왕권 강화나 국가 기강의 정립과정에서 신하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연회 관련 사실을 실록에 남기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는지 『선조실록』에는 선조 37년 갑진(1604) 11월 13일에 상회연 답례로 다음날 이항복과 유영경이 올린 감사의 전문(箋文)만 확인된다.

3.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평난·국광의 구공신과 호위·선무·청난의 신공신 총 63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제1폭의 연회 장면은 58명만 참석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신구공신이 착석한 자리에서 우측의 10명 가운데 끝부분에 위치한 3명은 복식이 전혀 달라 사복시 소속의 마부로 호성공신에 녹훈된 전룡(全龍), 오련(吳連), 이희령(李希齡)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선조실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상회연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은 물론 신구공신들의 정확한 정보까지 알려주는 역사적 사료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현재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6호인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조선시대 궁중행사 가운데 ‘상회연’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다룬 희소한 사례로서 보물로 승격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문화재라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는 선조 37년(1604) 음력 10월 28일과 29일에 걸쳐 열린 신구 5공신들의 회맹 의례 이후 11월 12일에 열린 상회연(相會宴)을 재현한 기념 계병이다. 공신회집 기록화로서 가장 오래된 자료이자 왕명으로 제작되어 하사된 최초의 행사 기록화 병풍이다. 또한 ‘제명지도’라는 표제가 적힌 유일한 화적이다.
- 동일 행사를 재현한 <태평회맹도>가 남아 있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와 비교가 가능하다. 현재 <태평회맹도>는 보물 제 668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와 달리 표제가 생략됐고, 공신에서 삭훈된 인물 표기도 없다.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공신회집을 기록한 계병일 뿐만 아니라 상회연이

열린 경북궁 옛 터와 눈 덮인 백악산의 풍경이 표현된 17세기 실경산수화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것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의 미술사적인 의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행사를 재현한 <태평회맹도>는 보물 제 668호로 지정된 만큼, 이 작품 역시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 이 작품은 현재 4폭 병풍으로 장황되어 있는데, 제1폭은 모임 장면을 그린 것이고 제2폭과 제3폭은 참가자의 명단을 작성한 것이며, 제4폭은 위쪽의 제목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다. 각 폭은 비단 2쪽을 위에서 아래로 길게 이어 붙였으며, 제2폭부터 제4폭까지 위쪽에 붉은 선을 그어 구획을 하고 그 안에 전서체로 제목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를 적었다.
- 제1폭에는 왕의 선은(宣醞)을 하사받는 장면으로 돌로 만든 3단의 기단 위에서 흰 장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다. 오른쪽 아래에는 안개 위로 솟은 건물 두 채의 기와지붕이 보이고 그 위로 양상한 가지의 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히 서있다. 장막 위 왼편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서있는데 밑둥치와 꼭대기는 안개에 덮여 있다. 다시 위쪽으로 커다란 산봉우리를 그렸다.
기단 위에는 여섯 폭 병풍이 일자로 펼쳐져 있고, 그 앞쪽에 탁자와 술항아리 네 개가 놓여있다. 그림 속 병풍에는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 탁자 아래에서는 두 인물이 나란히 앞뒤로 앉아 두 손을 모아들고 있어 마치 술잔을 떠받드는 것 같다. 두 사람 옆으로는 각각 서있는 관리와 그 뒤에 서 있는 작은 인물이 배치되었다. 인물들의 의복은 연한 분홍색을 띤다. 병풍 가까운 곳에는 네 개의 빈 자리가 있는데 아마도 술잔을 든 두 사람과 옆에 서있는 두 사람의 자리인 듯하다. 오른쪽에는 10명이 일렬로 앉아 있는 모습을 측면으로 묘사했는데 각자 앞에는 주칠반상이 놓여 있다. 왼편에는 21명이 같은 방식으로 앉아 있다.

아래 쪽에는 3줄로 25명의 인물이 등을 보이며 앉아 있다. 가운데 공간에는 시중을 드는 인물 5명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등을 구부린 측면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우측 나무 옆에는 붉은 호족형 주정(酒亭)에 뚜껑이 덮인 항아리 두 개가 놓여 있다. 그 아래로는 커다란 향로 세 개를 놓고 음식을 데우는 사람 세 명을 그렸다.

- 제2쪽, 제3쪽에는 참석 대상자 63명의 좌목을 품계 순서에 따라 적었다. 공신호, 문무관 품계, 작호와 관직, 자(字), 생년, 본관을 해서로 단정하게 적었다. 흥미롭게도 광해군 대에 삭훈된 유영경(柳永慶), 고언백(高彦伯), 박명현(朴名賢)의 경우에는 이름에 네모난 칸을 둘러 표시했다. <태평회맹도>에는 이런 표시가 없다.
- 유물의 상태는 최근의 과학적 조사에 의하면 바탕이 마모되거나, 얼룩과 변색이 된 부분이 여기저기 있으며 충해가 심하다. 특히 제3쪽과 제4쪽은 각각 1/6 정도가 삼베를 덧대어 보수했다. 그 결과 제목의 “題名之圖”와 일부 묵서는 덧댄 삼베 위에 새로 쓴 것이다. 제1쪽의 주봉, 건물지붕 일부분도 보수되었다. 그런데 덧댄 삼베 부분 역시 마모되었고 충해가 있어 매우 오래 전에 보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래의 병풍을 한번 보수하고 나서, 근래에 다시 현재의 병풍으로 다시 장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장황 상태는 1990년 이전의 것이다.
-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상회연에 참석했던 권응수(權應銖)의 후손 소장 <태평회맹도>(보물 제668-3호)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태평회맹도>에는 제목이 적혀 있지 않다.

○ 내용 및 특징 (그림 부분의 회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서술함)

- 선조대에는 1590년 1월 평난공신(平難功臣)과 광국공신(光國功臣)을 책훈하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04년 6월 호성공신(扈聖功臣), 선무공신(宣武功臣), 청난공신(淸難功臣)을 다시 책훈했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사람은 선무공신, 선조를 의주까지 모시고 피난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은 호성공신에 봉해졌다. 또한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을 청난공신으로 봉했다. 세 공신을 녹훈하기 위해서 1601부터 1604년까지 공신 선별 심사가 진행되어 109명을 정했고, “도형후수(圖形後垂)”의 관례에 따라 생존해 있는 64명을 위해 공신상을 제작하여 수여했다. 이를 기념하여 1604년 10월 28일에 회맹제를 거행했다. 그리고 11월 12일 충훈부의 주관으로 신구 다섯 공신 가운데 생존자 63인을 대상으로 상회연을 거행했다. 이때 이산해(李山海), 류성룡(柳成龍), 정탁(鄭琢), 이운룡(李雲龍), 남절(南截) 등 5명은 노환과 상중 등의 사정으로 불참했다. 따라서 최종 참석자는 구공신 9명, 신공신 49명으로 도합 58명이었다. 이 사실은

그림에 그려진 인물은 58명의 숫자와 일치한다.

- 조선시대를 통틀어 공신녹훈은 28회 책봉되었다. 이때마다 공신들은 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공신 간의 의리를 피로써 맹세했는데 이것이 바로 회맹이다. 회맹의례와 관련해서는 회맹문, 회맹첩, 회맹록, 회맹축 등 각종 기록물이 다수 전하고 있지만, 상회연과 관련된 기록화로는 이 작품과 보물 제668-3호 <태평회맹도>가 유일하다. 심지어 공신녹훈과 관련된 기록화로서도 1728년 영조가 분무공신에게 교서를 내리고 선운을 베푼 장면을 그린 <공신교서부도(功臣敎書附圖)>(규장각 소장) 정도만 알려져 있고, 녹훈도감 관원들의 계획도가 몇 점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거행된 상회연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는 이 작품과 <태평회맹도>뿐이라서 매우 희소한 가치가 있다.
-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공신관련 기록화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커다란 화면으로 당시 기록화의 장대한 면모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참고문헌

홍선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신구공신상회제명도》」, 『미술사논단』 48 (2019)
신윤희, 「태평회맹도의 역사적 배경」, 『미술자료』 85 (2014)
동아대학교, 고창문화보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보존상태 진단 용역 보고서』 (2018)
장서각, 『조선의 공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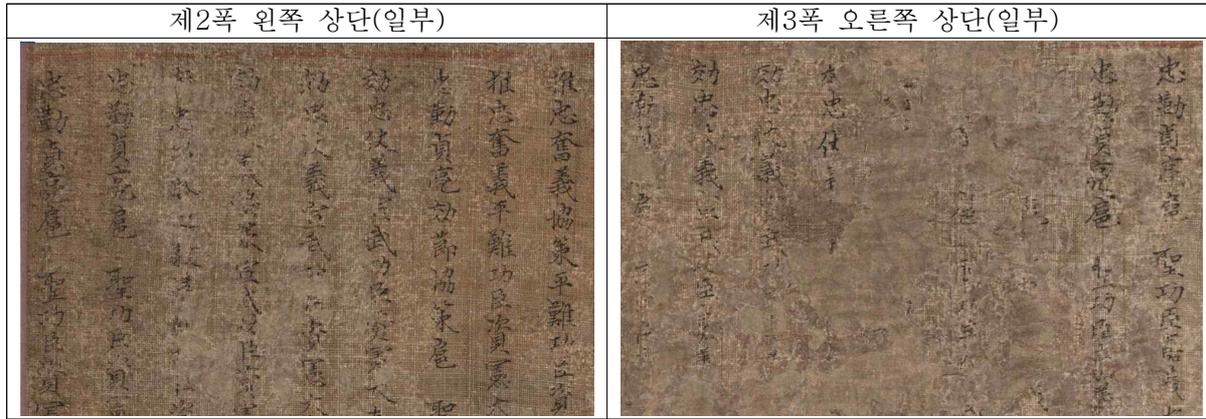
○ 현 상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4폭 병풍은 선조연간(재위 1567~1608)에 녹훈된 신(新)공신과 구(舊)공신들이 1604년(선조 37) 11월 12일 충훈부(忠勳府)에서 가졌던 상회연(相會宴)을 기념하여 참석한 공신들에게 제작 하사된 조선시대 궁중행사 기록화이다.



작가미상,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1604년, 삼베 바탕에 수묵채색, 전체 179.4×312.4cm,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제1폭은 폭 30.5cm의 삼베 2장을, 제2폭~제4폭은 폭 31.0cm의 삼베 2장을 잇대어 꿰맨 것으로 화면이 어두운 편이며, 바탕재인 삼베가 훼손된 곳들이 다수 발견된다.
- 제1폭은 신구공신 58명이 참석한 상회연(相會宴) 장면이고, 제2폭과 제3폭은 좌목(座目)으로 신구공신 63명의 이름과 녹훈명칭·자(字)·출생연도·본관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제4폭은 빈 여백으로 남겨져 있다.
- 제2폭부터 제4폭까지의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구획된 공간에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라는 표제(標題)가 전서체로 적혀 있으며, 먹색이 짙고 보필(補筆)의 흔적이 보이므로 나중에 적은 것이라 추정된다.
- 제2폭에는 호성공신2등으로 선조의 다섯째 아들 이부(李瑄, 1580~1616)를 시작으로 호성공신3등의 내시 민희건(閔希騫)까지 총 32명, 제3폭에는 선무공신3등의 무관 이광악(李光岳, 1557~1608)을 시작으로 호성공신3등의 마부 이희령(李希齡, 1545~?)까지 총 31명의 약력이 계선(界線) 없이 소해(小楷)로 적혀 있다. 특히 제2폭의 왼쪽 상단과 제3폭의 오른쪽 상단은 바탕재의 심한 훼손은 글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 제2쪽의 좌목 가운데 7번째 줄 유영경(柳永慶, 1550~1608)과 28번째 줄 고언백(高彦伯, ?~1608), 30번째 줄 박명현(朴名賢, ?~1608)의 이름 위로 네모 칸이 둘러져 있다. 이들은 광해군 즉위 초에 역적으로 몰리면서 처형되고 삭훈(削勳)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먹선을 둘러 다른 공신들과 구분한 것이라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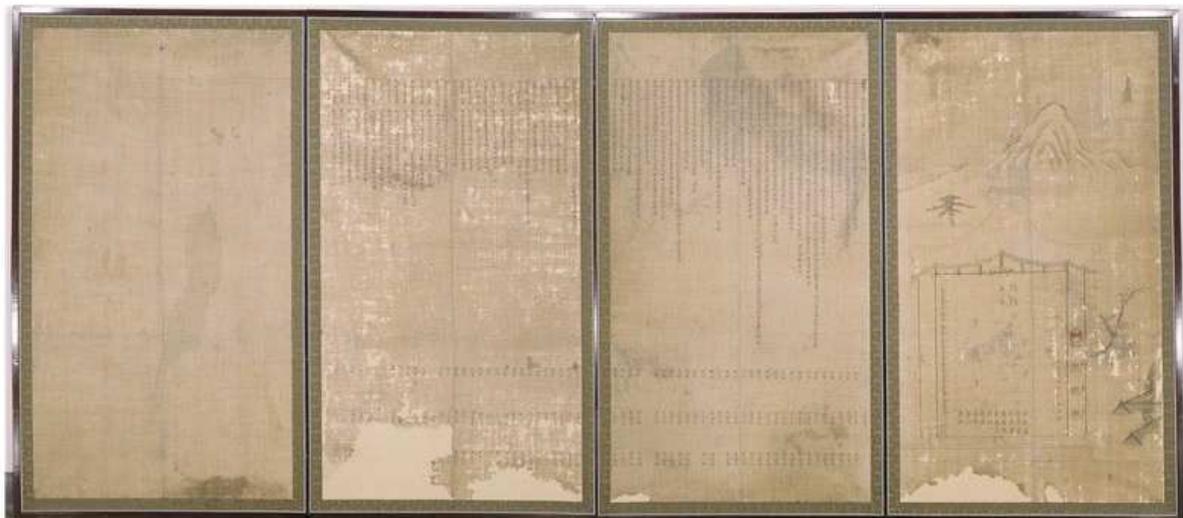


- 제2쪽과 제3쪽의 좌목 내용을 정리한 다음의 <표 1>과 <표 2>는 2020년 5월 12일 (화) 실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근간으로 현재의 원문 상태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읽을 수 없는 글자는 '□'로 처리하였다.

		표제	공신명칭		자	생년	본관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定遠君 瑀			汝受	庚辰生	本韓山
		輸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鵝城府院君李山海			而見	壬寅生	本豐山
		忠勤貞亮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西原府院君鄭琢			子精	丙戌生	本清州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完平府院君李元翼			公勵	丁未生	本全州
		推忠奮義平難忠勤貞亮竭誠劾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鰲城府院君李恒福			子常	丙辰生	本慶州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全陽府院君柳永慶			善餘	庚戌生	本全州
		輸忠翼謨修紀光國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海平府院君兼知經筵事尹根壽			子固	丁酉生	本海平
		輸忠翼謨修紀光國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清平府院君兼知經筵事韓應寅			春卿	甲寅生	本清州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唐興府院君兼知經筵事洪進			希古	辛丑生	本南陽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完陽府院君李忠元			元夫	丁酉生	本全州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陵府院君兼知經筵事李好閔			孝彥	癸丑生	本延安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原府院君李光庭			德輝	壬子生	本延安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判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晉原君柳根			晦夫	己酉生	本晉州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崇祿大夫平川君兼春秋館事申稷			伯峻	辛丑生	本平山
		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崇祿大夫完山君李軸			子任	戊戌生	本全州
		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陽平君許浚			清源	己亥生	本陽川
		忠勤貞亮扈聖功臣崇祿大夫寧城君金鳳			雲卿	甲寅生	本金海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崇憲大夫五衛都摠府都總管順寧君 景儉			子文	癸亥生	
		奮忠出氣合謨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			興道	辛丑生	本南陽
		忠勤貞亮扈聖功臣正憲大夫眞城君金起文			斐仲	乙巳生	本三陟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正承大夫順義君景溫			汝剛	己酉生	
		輸忠翼謨修紀光國功臣資憲大夫茂城君尹洞			而遠	己酉生	本茂松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全城君李準			平卿	乙巳生	本全州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資憲大夫晉興君兼知義禁府春秋館事姜紳			勉卿	癸卯生	本晉山
		忠勤貞亮劾節協策扈聖功臣資憲大夫錦溪君兼知春秋館事朴東亮			子龍	己巳生	本羅州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行黃海道兵馬水軍節度使豐壤君趙徹			士惕	辛丑生	本豐壤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濟興君高彥伯					
		効忠仗義協策宣武功臣資憲大夫花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權應銖			仲平	丙午生	本安東
		奮忠出氣迪毅清難功臣資憲大夫延昌君朴名賢			君聘	辛酉生	本竹山
		忠勤貞亮扈聖功臣資憲大夫武陽君安彥鳳			仲仁	戊申生	本耽津
		忠勤貞亮扈聖功臣資憲大夫驪原君閔希養			孝伯	壬戌生	本驪州

표 4. 《태평회맹도》의 제3폭 좌목(국립진주박물관 보관)

		공신 명칭		자	생년	본관
	효	忠	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行水原都護府使兼京畿防禦使廣南君李先岳	鎮之	丁巳生	本廣陵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月城君崔彥俊	大美	丙辰生	本慶州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清河君鄭漢璣	太珉	己丑生	本河東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奈城君辛大容	德器	甲子生	本寧越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伽城君金秀源	選元	丙寅生	本全州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鰲原君朴忠敬	誠直	甲子生	本慶州
	効	忠	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永昌君兼五衛都摠府副摠管訓練院都正權俊	彥卿	丁未生	本安東
	効	忠	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戶曹參判吉原君權恢	思省	癸丑生	本安東
	効	忠	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文興君柳思瑗	景梧	辛丑生	本文化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晉昌君姜綱	仁卿	乙卯生	本晉山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和城君崔應淑	而激	辛卯生	本本順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花川君金禮禎	景和	乙丑生	本本川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花城君趙龜壽	健叟	壬戌生	本本橫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益城君金俊榮	仁吉	甲寅生	本本金海
	忠	勤	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樂城君金璽信	君實	乙卯生	本本慶州
	効	忠	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息城君李雲龍	景見	壬戌生	本本載寧
	奮	忠	出氣清難功臣通政大夫行長興都護府使辛景行	伯道	丁未生	本本高靈
	奮	忠	出氣清難功臣折衝將軍行忠清水營虞候林得義	子房	戊午生	本本澤
	忠	勤	貞亮扈 聖功臣通政大夫行順天都護府使奇孝福		甲辰生	本本州
	忠	勤	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果崔世俊	士吳	丙申生	本本
	忠	勤	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兼五衛將李士恭	仲敬	丙寅生	本本
	忠	勤	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兼五衛將呂定邦	彦佑	丙寅生	本本
	忠	勤	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平安虞候李應順	善陵	丙寅生	本本
	忠	勤	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柳肇生	應	甲子生	本本
	忠	勤	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龍騎衛副護軍楊舜民		甲子生	本本
	忠	勤	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金繼韓	繼叔	丙寅生	本本
	推	忠	奮義協策平難功臣禦侮將軍忠壯衛大護軍南嶽	仲秀	辛卯生	本本
	○	勤	貞亮扈 聖功臣通政大行司僕寺判官全龍	汝見	己未生	本本
	忠	勤	貞亮扈 聖功臣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果洪澤	宣叔	辛酉生	本本
	忠	勤	貞亮扈 聖功臣保功將軍行龍騎衛副司果吳連	達之	己亥生	本本
	忠	勤	貞亮扈 聖功臣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勇李希齡	汝鷹	乙巳生	本本



작가미상, 《태평회맹도(太平會盟圖)》, 1604년, 국립진주박물관 보관(보물 제668호)

- 《태평회맹도》는 선무공신2등에 녹훈된 권응수(權應銖, 1546~1608) 장군에게

하사된 것이며, 1980년 8월 23일 권응수장군의 유물들 가운데 하나로 보물 제 668호로 지정되어 국립진주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이때 회맹제(會盟祭: 임금이 공신(功臣)들과 산 짐승을 잡아 하늘에 제사지내고 그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며 단결을 맹세하던 의식)와 관련한 기록화로 오인되면서 ‘태평회맹제’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 앞으로 검토를 거쳐 오류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 각각의 화면은 폭 30.4~32.5cm의 삼베 2장이 세로로 꿰매져 있고, 후대에 다시 장황을 하면서 미색 바탕재를 배접지로 사용하여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보다 전반적으로 밝은 인상을 준다.
- 구성이나 내용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와 동일하지만, 제2폭부터 제4폭까지의 상단을 붉은색으로 구획한 공간에는 표제가 적혀 있지 않다.
- 《태평회맹도》 제2폭의 좌목에는 유영경, 고언백, 박명현의 이름에 먹선이 둘러져 있지 않으며,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의 제2폭 소해(小楷)와 비교하면 전자의 글씨는 왕희체(王羲之體)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빼침이 강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 《태평회맹도》는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준다.



○ 내용 및 특징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4폭 병풍은 1604년 11월 12일 선조연간에 녹훈된 신구공신들이 1604년 11월 12일 충훈부에서 가졌던 상회연을 다룬 궁중행사 기록화이다. 하지만 상회연 관련 기록은 『선조실록』 선조 37년 갑진(1604) 11월 13일(기축)에 「임금이 하사한 술을 받고 오성 부원군 이항복 등이 사례하여 올린 전문(箋文)」만이 실려 있다. 이는 전란 직후에 왕권이 실추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며 연회를 공식적으로 베푸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항복 등이 올린 전문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이번 신·구(新舊)의 모임은 예전에도 행한 것이므로 동맹한 날이 지나자 구레

(舊禮)를 지키는 뜻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난리를 겪은 지 오래지 않으므로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닌 줄 잘 아는데, 거듭되는 상은(上恩)을 입고 놀랍게도 거듭 중사(中使)를 보내셨습니다. (후략)”

- 제2폭과 제3폭의 좌목에는 평난(平難)·광국(光國)의 구공신과 호성(扈聖)·선무(宣武)·청난(淸難)의 신공신 63명의 약력이 소해로 적혀 있다. 평난공신은 1590년 1월 정여립 모반사건 평정에서 공을 세운 22명을 책훈한 것이며, 광국공신은 1590년 8월 명나라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에 잘못된 이성계의 가계 기록을 바로 잡는데 공을 세운 20명을 책훈한 것이다. 신공신은 모두 1604년 6월 책훈한 것으로 호성공신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위하는 공을 세운 86명이고, 선무공신은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과 관련해 공을 세운 18명이며, 청난공신은 이몽학의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5명이다. 좌목의 신구공신 63명은 1604년 11월 12일 상회연 때 생존했던 인물들이며, 제2폭과 제3폭의 좌목에 적혀 있는 인물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閔希騫	安彦鳳	朴名賢	權應銖	高彦伯	趙徹	朴東亮	姜紳	李準	尹洞	順義君 景溫	金起文	洪可臣	順寧君 景儉	金鳳	許浚	李軸	申礪	柳根	李光庭	李好閔	李忠元	洪進	韓應寅	尹根壽	柳永慶	李恒福	李元翼	鄭琢	柳成龍	李山海	定遠君 李瑄	제2폭 공신명단
호성 3등	호성 3등	청난 2등	선무 2등	선무 3등	선무 3등	호성 2등	평난 3등	평난 2등	광국 2등	호성 2등	호성 3등	청난 1등	호성 2등	호성 3등	호성 3등	평난 1등	호성 2등	광국 2등	광국 1등	호성 2등	호성 2등	평난 3등	호성 3등	광국 3등	광국 3등	호성 2등	호성 2등					

李希齡	吳連	洪澤	全龍	南翬	金繼韓	楊舜民	柳肇生	李應順	呂定邦	李士恭	崔世俊	奇孝福	林得義	辛景行	李雲龍	金璽信	金俊榮	趙龜壽	金禮禎	崔應淑	姜網	柳思瑗	權恢	權俊	朴忠敬	金秀源	辛大容	鄭漢璣	崔彦俊	李光岳	제3폭 공신명단
호성 3등	호성 3등	호성 3등	호성 3등	평난 2등	호성 3등	청난 3등	청난 3등	선무 3등	호성 3등	선무 3등	선무 3등	선무 3등	호성 3등	선무 3등																	

- 제1폭은 충훈부에서 선조가 법은(法醞)을 하사했던 상회연 장면을 그린 것이다. 배경의 설산(雪山)은 상회연이 열린 1604년 11월 12일의 계절과 일치하며, 충훈부가 있었던 인사동 방면에서 보이는 백안산(白岳山)을 그린 것이라 추정된다.
- 하얀색 대형 차일이 드리워진 공간을 보면 북쪽 상단에 붉은색 다리가 있는 병장(屏帳)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왕이 내린 법은을 담은 주준(酒樽) 4동이가 상 위에 진설되어 있다.



- 차일이 드러진 공간의 우측 상단에 빈 방석은 범온을 가져온 승지들이 앉았던 자리이며, 좌측의 빈 방석은 중앙에서 예(禮)를 갖추고 있는 공신 2명의 자리이다. 화면 중앙을 보면 승지 2명이 예를 갖춘 공신 2명에게 범온을 전달하고 있다.
- 신구공신들은 북향해 ‘ㄱ’자 형태로 앉아 있으며, 좌측에는 상단의 빈 방석 2좌를 포함해 주칠원형의 단독상을 앞에 둔 23명이, 하단에는 25명, 우측에는 10명으로 총 58명만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신구공신 63명 가운데 5명의 불참 사실도 알 수 있다.
- 신구공신들은 거의 시복(侍服) 차림이지만, 오른쪽 10명 가운데 마지막 3명은 복장이 다른 것으로 보아 직급이 낮았던 사복시(司僕侍) 소속으로 말을 관리했던 전룡(全龍), 오련(吳連), 이희령(李希齡)으로 추정된다.
- 제2폭부터 제4폭에 걸쳐 “신구공신(新舊功臣)”, “상회제명(相會題名)”, “지도(之圖)”라는 표제가 나뉘어 전서체로 적혀 있다. 전반적으로 먹색이 짙고, 동일한 내용을 다룬 국립진주박물관 보관의 《태평회맹도》 4폭 병풍에는 표제가 적혀 있지 않아 후대에 적은 것이라 판단된다.
- 선조는 1604년 11월 11일 탄일이었지만 전란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축하연도 간략하게 하였다. 하지만 향후 국가 기강을 바로 잡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신하들의 협조가 절실하였으므로, 다음날인 11월 12일 충훈부에서 자신이 녹훈한 신구공신들에게 범온을 하사하는 상회연을 통해 군신(君臣) 간의 단합을 도모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과 문자로 남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계획도(契會圖) 형식을 빌려 국가 행사를 그린 보기 드문 역사기록화라는 점에서 역사적,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문헌자료

『선조실록(宣祖實錄)』

權應銖, 『白雲齋實記』 권4, 「內賜屏風題名」, 국립중앙도서관

辛景行, 『釣隱先生文集』 권2, 「內賜屏風題名」,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원

○ 참고문헌

신윤희, 「宣祖의 임진왜란 功臣策勳 배경과 그 의미」, 『慶尙史學』 26, 慶尙史學會, 2010.12, pp. 1-27.

신윤희, 「태평회맹도(太平會盟圖)의 역사적 배경」, 『美術資料』 85, 2014.6, pp. 80-93.

홍선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신구공신상회제명도》」, 『美術史論壇』 제48호, 한국미술연구소, 2019.06, pp. 71-89.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46호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보존상태 진단 용역 보고서』, 동아대학교·고창문화재보존, 2018.



I. 현 상

○ 본 작품은 삼베에 수묵 채색으로 완성된 4폭 병풍화다. 소장처의 유물 보관 내역에 따르면, 1959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 입수하여 2014년 9월 24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됐다. 현재의 상황도 2014년도에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병풍의 각 화면은 가로 30.5-32cm의 비단 2장을 이어 붙인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제1폭은 상태가 양호한 반면, 제3폭은 박락이 심하여 바탕지의 훼손이 그대로 드러난다. 비단의 울이 어긋나거나 틀어졌다. 화면 바탕이 곰팡이로 오염된 흔적이 있고, 바탕 견이 결락되어 보건(補絹) 처리한 부분이 있다.

○ 제1폭에는 왕의 법을 받은 하사받은 상회연(相會宴) 장면이 묘사됐다. 제2폭과 3폭에는 참석자의 좌목인 제명록과 전서체의 표제가 적혀 있다. 표제의 경우, 화면 상단에서 10m 가량 밑에 주선이 가로로 구획됐고, 그 위에 농묵의 전서체로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라고 적혀 있다. 마지막 4폭은 빈 화면이고, 상단에 표제의 마지막 두 글자인 ‘之圖’가 적혀 있다. 표제의 서체나 농도가 좌목의 서체나 농도와 달라, 작품이 완성된 이후 표기됐음을 알 수 있다.

II. 조사 내용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는 선조 37년(1604) 음력 10월

과 11월에 열린 신구 5공신들의 회맹 의례의 상회연(相會宴)을 재현한 일종의 계병(袞屏)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종결되자 선조 34년(1601)에 공신의 책훈 문제가 거론됐다. 그리고 3년 뒤인 1604년 10월 28일과 29일에 신구공신회맹 의례가 열렸다. 이 의례는 임진왜란 직전과 직후에 녹훈된 5공신 가운데 생존자 63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행사였다.

선조 23년(1590년) 2월 1일자로 녹훈된 구공신은 광국(光國), 평난(平難) 공신이며, 선조 37년(1604년) 6월 25일자로 녹훈된 신공신은 호성(扈聖), 선무(宣武), 청난(淸難) 공신이다. 먼저 구공신을 살펴보면, 광국공신은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된 이성계의 계보를 정정한 공신이며, 평난공신은 정여립 사건을 평정한 공신이다. 신공신에 포함된 호성공신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했던 공신이고, 선무공신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거나 후방을 지원했던 공신이며, 청난공신은 전쟁 중에 발생한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공신이다.

신공신이 1964년 2월 1일에 녹훈되자 10월 28일 북단에서 회맹제를 가진 뒤, 이튿날인 29일에 공신 교서와 녹권을 받았다. 그 후 11월 12일 충훈부 주관의 상회연이 열렸다. 이 연회가 끝난 뒤 기념으로 계병을 제작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신구 5공신은 모두 146명인데, 당시 생존자는 제2폭과 제3폭에 기재된 63명이다. 그러나 충훈부에서 주관한 상회연에 참석한 신구공신은 모두 58명이고, 불참한 공신은 5명이었다. 불참 공신은 광국, 평난공신 이산해(李山海, 1539-1609), 광국, 호성공신 류성룡(柳成龍, 1542-1607), 호성공신 정탁(鄭琢, 1526-1605), 선무공신 이운룡(李雲龍, 1562-1610), 평난공신 남절이다. 66세인 이산해는 5개월 전 부인상을 당한 상황에서 병색이 깊었고, 63세인 류성룡과 79세인 정탁은 노환으로 은퇴하여 낙향한 상태였다. 64세의 남절도 노환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43세였던 이운룡은 상중이었다.

○ 제1폭 신구공신상회연도를 살펴본다. 왕 앞에서 신하들의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인 공신회맹제는 경복궁 신무문 북쪽의 회맹단에서 거행됐고, 왕이 하사한 상회연은 충훈부(忠勳府)에서 열렸다. 제1폭은 상회연 장면이다. 백악산을 배경으로 커다란 차일을 치고 왕이 하사한 선운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악공과 기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연(賜宴) 형식은 아니며, 선조가 선운만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화면에 등장하는 58명의 신구공신은 좌측에 21명, 하단에 25명, 우측에 10명, 중앙 상단에 2명이 시복차림으로 북향 배례를 하고 있다. 오른 쪽 상석의 경우 2명의 자리가 배치되고 간격을 두고 10명이 앉아 있다. 산에는 흰 눈이 쌓여 있고, 화면 오른쪽에 서 있는 나무에 잎이 없어, 음력 11월의 겨울 풍경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계획도 성격의 기록화이지만, 17세기 초의 궁중 화원이 그린 실경산수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제2쪽과 3쪽에는 상회연 참석 대상인 신구 5공신 63명의 공신호와 문무관 품계, 작호와 관직, 자(字), 생년, 본관이 적혀 있다. 제2첩에는 정원군(定遠君) 부(瑀)를 비롯한 32명, 제3첩에는 수원도호부사 이광악(李光岳)을 비롯한 31명의 인적 사항이 기록됐다. 좌목의 순서는 공신 명칭에 상관없이 품계순이다. 서체는 작고 깔끔한 소해체이다. 일부 글자가 박락되었고, 가필의 흔적도 남아 있다. 그중에서 제2쪽 7번째 행의 유영경(柳永慶, 1550-1608), 28째 행의 고언백(高彦伯, ?-1608), 30째 행의 박명현(朴名賢, ?-1608)의 이름에는 검은 사각형이 구획되어 있다. 이들은 광해군 즉위 초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고 삭훈된 인물들이다. 마지막 제4쪽에는 공백으로 남겨진 빈 화면에 표제의 마지막 부분인 ‘之圖’만 상단부에 적혀 있다.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된 <태평회맹도>(보물 제 668-3호)와 동일한 행사를 기록한 작품이다. <태평회맹도>는 선무공신 2등에 책훈된 권응수(權應銖, 1546-1608)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병풍이다. 조선시대 무신이었던 권응수는 선조 17년(1584)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무찌르는 등 많은 활약을 한 장군이다. 권응수가 쓰던 물건 및 국왕의 하사품, 그리고 집안에 내려오던 유품은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이전됐다.

권응수 유품에 포함되어 있는 <태평회맹도>는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보다 세로 2cm 정도 더 크다.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의 경우 상단(특히 3쪽)의 박락이 심한 반면, <태평회맹도>은 하단(특히 1, 3쪽)의 박락이 심하다. 특히 <태평회맹도>는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와 달리 화면 상단의 표제가 없다. 그러나 그림 솜씨나 서체가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보다 뛰어난 점, 국왕이 직접 권응수에게 하사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태평회맹도>가 원본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의 표제는 나중에 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 명 문

제2쪽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定遠君李瑀 庚辰生

輸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鵝城府院君李山海 汝受 己亥生 本韓山

輸忠翼謨光國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 崇祿大夫豊原府院君柳成龍 而見 壬寅生 本豊山

忠勤貞亮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西原府院君鄭琢 子精 丙戌生 本淸州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完平府院君李元翼 公勵 丁未生 本全

州

推忠奮義平難忠勤貞亮竭誠効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鰲城府院君李恒福
子常 丙辰生 本慶州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
春秋館觀象

監事 世子師全陽府院君 柳永慶 善餘 庚戌生 本全州

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海平府院君兼知 經
筵事尹根壽子固 丁酉生 本海平

輸忠翼謨修紀光國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清平府院君兼知 經筵事韓
應寅 春卿 甲寅生 本清州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唐興府院君兼知經筵事洪進 希古 辛丑生
本南陽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完陽府院君李忠元 元夫 丁酉生 本全州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陵府院君兼同知 經筵事李好閔 孝彥 癸
丑生 本延安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原府院君李光庭 德輝 壬子生 本延安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崇祿大夫行議政府左叅贊兼判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
館大提學知

春秋館成均館事晉原君柳根 晦夫 己酉生 本晉州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崇祿大夫平川君兼知春秋館事申礪 伯峻 辛丑生 本平山

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崇政大夫完山君李軸 子任 戊戌生 本全州

忠勤貞亮扈 聖功臣崇政大夫陽平君許浚 清源 己亥生 本陽川

忠勤貞亮扈 聖功臣崇政大夫寧城君金鳳 雲卿 甲寅生 本金海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崇政大夫五衛都摠府都摠管順寧君 景儉 子文 癸亥生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 興道 辛丑生 本南陽

忠勤貞亮扈 聖功臣正憲大夫眞城君金起文 斐仲 己巳生 本三陟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正憲大夫順義君 景溫 汝剛 己酉生

輸忠翼謨修紀光國功臣資憲大夫茂城君尹澗 而遠 己酉生 本茂松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全城君李
準 平卿 乙巳生 本全州

推忠奮義平難功臣資憲大夫晉興君兼知義禁府春秋館事姜紳 勉卿 癸卯生 本晉山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資憲大夫錦溪君兼知春秋館事朴東亮 子龍 己巳生 本羅州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行黃海道兵馬水軍節度使豐壤君趙傲 士惕 辛丑生 本豐壤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濟興君 高彦伯

効忠仗義協策宣武功臣資憲大夫花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權應銖 仲平 丙午生 本安東

奮忠出氣迪毅清難功臣資憲大夫延昌君 朴名賢 君聘 辛酉生 本竹山

忠勤貞亮扈 聖功臣資憲大夫武陽君安彦鳳 仲仁 戊申生 本耽津

忠勤貞亮扈 聖功臣資憲大夫驪原君閔希騫 孝伯 壬戌生 本驪州

제3쪽

効忠仗義宣武功臣嘉義大夫水原都護府使兼京畿防禦使廣南君李光岳 鎮之 丁巳生 本廣陵

忠勤貞亮扈 聖功臣資憲大夫月城君崔彦俊 大美 丙辰生 本慶州

忠勤貞亮扈 聖功臣資憲大夫□□□鄭漢璣 太珉 己丑生 本河東

忠勤貞亮扈 聖功臣資憲大夫□□君辛大容 德器 甲子生 本寧越

忠勤貞亮扈 聖功臣資憲大夫□□□金秀源 選元 丙寅生 本全州

忠勤貞亮扈□□□□□□□□□□□□朴忠敬 誠直 甲子生 本慶州

効忠仗義宣武功臣嘉義□□□□□□□□□君□五衛都摠府副摠管訓練院都正權俊 彦
卿 丁未生 本安東

効忠仗義宣武功臣嘉義□□□□曹叅判吉昌君權俠 思省 癸丑生 本安東

効忠仗義宣武功臣□□□□□□君柳思瑗 景悟 辛丑生 本文化

忠勤貞亮扈 聖功臣□□□□□□□□姜綱 仁卿 乙卯生 本晉山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崔應淑 而激 辛丑生 本和順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花□君金禮禎 景和 乙丑生 本伊川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花城□趙龜壽 健叟 壬戌生 本橫城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金俊榮 仁吉 甲寅生 本金海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樂城君金璽信 君實 乙卯生 本慶州

効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息城君李雲龍 景見 壬戌生 本載寧

奮忠出氣清難功臣通政大夫行長興都護府使辛景行 伯道 丁未生 本高靈

奮忠出氣清難功臣折衝將軍行忠清水營虞侯林得義 子房 戊午生 本平澤

忠勤貞亮扈 聖功臣通政大夫□□天都護府使奇孝福 甲辰生 本幸州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果崔世俊 士吳 丙申生 本慶州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武衛副護軍□五衛將李士恭 仲敬 甲寅生 本慶州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衛將呂定邦 彦佑 乙巳生 本咸陽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李應順 善陵乙丑生 本原州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衛□護軍柳肇生 應時 甲子生 本全州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楊舜民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金繼韓 繼叔 癸丑生 本延安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禦侮將軍忠佐衛大護軍南嶽 仲秀 辛卯生 本宜寧
 忠勤貞亮扈 聖功臣通訓大夫行司僕寺判官全龍 汝見 己未生 本臨河
 忠勤貞亮扈 聖功臣宣略將軍行□□□□副司果洪澤 宣叔 辛酉生 本南陽
 忠勤貞亮扈 聖功臣保功將軍行□□□衛副司果吳連 達之 己亥生 本石城
 忠勤貞亮扈 聖功臣禦侮將軍行忠武衛副□勇李希齡 汝膺 乙巳生 本海州

Ⅲ. 참고문헌 및 도판

- 『선조실록』 37년(1604) 11월 13일 조
- 신윤희, 「태평회맹도의 역사적 배경」, 『미술자료』85, 국립중앙박물관, 2014.
- 尹軫暎,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홍선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신구공신상회제명도》」, 『美術史論壇』 48, 한국미술연구소, 2019.



그림 1.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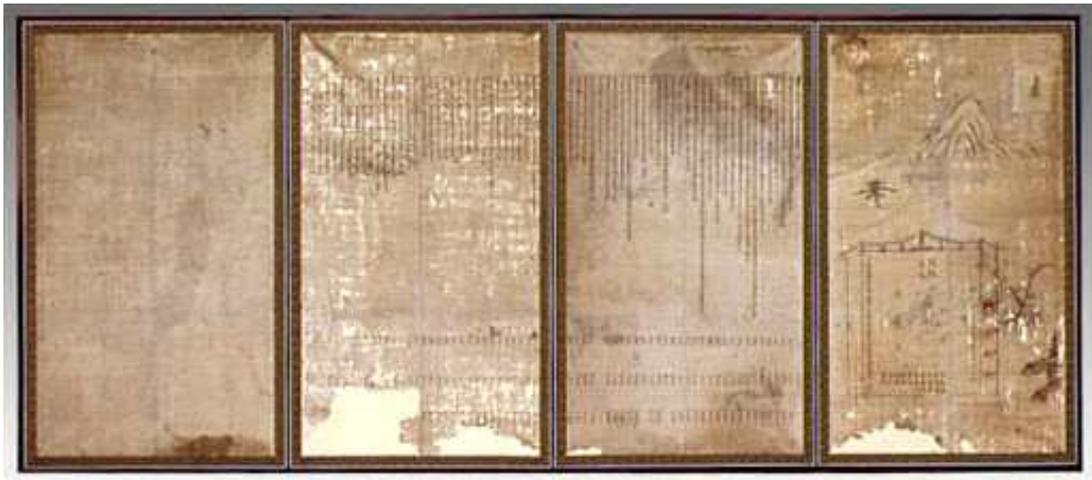


그림 2. <태평회맹도>, 국립진주박물관

4.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金海 大成洞 七十六號墳 出土 頸飾)

가. 심의사항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가치 규명’의 일환으로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조사 대상 추천이 있어(‘18.9.28.) 관계 전문가 조사(‘19.4.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8.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9.7.~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金海 大成洞 七十六號墳 出土 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대성동고분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26, 대성동고분박물관
- 수 량 : 1건 3조 2,473점(3줄로 복원된 2,471점 + 별도 유리곡옥 2점)
 - 수정제 곡옥 2점, 수정제 다면옥 8점.
 - 마노제 다면옥 74점, 마노제 환옥 3점.
 - 유리제 곡옥 3점, 소형 유리 구슬 2,383점.
- 규 격 : 전체 연결 길이 A (95.5) + B (61.2) + C (53.7) = 210.4cm
 - ① A : 수정 곡옥 1점 + 마노 다면옥 34점 + 유리 구슬 1,111점 = 1,146점
중앙 수정 곡옥 크기 : 길이 22.9mm, 두께 8.1mm.

마노 다면옥 1 : 높이 7.7mm, 최대폭 12.7mm.

마노 다면옥 2 : 높이 5.2mm, 최대폭 8.3mm.

유리구슬 1 : 높이 4.4mm, 지름 6.0mm.

유리구슬 2 : 높이 2.7mm, 지름 4.5mm.

② B : 유리 곡옥 1점 + 수정 다면옥 6점 + 마노 다면옥 33점 + 유리 구슬 614점 = 654점

중앙 유리 곡옥 크기 : 길이 26.0 mm. 두께 8.5mm.

수정 다면옥 1 : 높이 32.3mm, 최대폭 40.5mm.

마노 다면옥 1 : 높이 6.6mm, 최대폭 10.4mm.

③ C : 수정 곡옥 1점 + 수정 다면옥 2점 + 마노 다면옥 10점 + 유리 구슬 658점 = 671점

중앙 수정곡옥 크기 : 길이 23.1mm, 두께 8.1mm.

수정 다면옥 1 : 높이 8.8mm, 최대폭 15.3mm.

수정 다면옥 2 : 높이 10.3mm, 최대폭 15.9mm.

마노 다면옥 1 : 높이 5.2mm, 최대폭 7.3mm.

마노 다면옥 2 : 높이 6.8mm, 최대폭 10.7mm.

○ 재 질 : 수정, 마노, 유리

○ 형 식 : 수정, 유리 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 목걸이

○ 조성시기 : 3~4세기



그림 44.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2011년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조사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의 목곽묘에서 토기나 철기 등의 공반 유물과 함께 발굴되어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장신구로서 출토지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토된 목걸이는 수정구슬 10점, 마노구슬 77점, 각종 유리제 구슬 2,386점 등 총 2,473점인데, 하나의 유적에서 한꺼번에 발견되었으며 그동안 금관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목걸이 중 가장 많은 수량의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착장자의 신분적 위상이나 지배계층의 위세와 권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학술적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예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목걸이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맑고 투명한 수정과 주황색 마노 및 파란색 유리와 같이 다종다양한 재질과 색감이 조화로운 재료를 선택하고 그것을 곡옥이나 다면체로 섬세하게 가공하고 세밀하게 구멍을 뚫어 펜다거나 표면을 깔끔하게 다듬어 조형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당시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적인 성취가 우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와 유물의 내역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다종다양한 재료를 정교하게 가공하는 기술과 색상과 질감의 조화로 당시 복식 문화의 세련된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이 목걸이는 김해지역의 금관가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대성동76호분 중앙부에서 출토된 것으로,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환옥, 유리제 곡옥과 구슬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로 가야목걸이 중 가장 많은 수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가야목걸이 중 가장 많은 수의 구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A, B, C 세 가지 형태로 켜어 관리하고 있다.

2)전체구성은 수정제 곡옥 2점, 수정제 다면옥 8점, 마노제 다면옥 74점, 마노제 환옥 3점, 유리제 곡옥 3점, 소형 유리구슬 2,383점으로 전체 2,473점으로 되어 있다.

3)목걸이의 규모는 전체 연결 길이가 271.6cm(A 122.4)+B 95.5)+(C 53.7)이며, 부분적으로는 A: 중앙 유리곡옥-1.36×0.85cm, 수정다면옥-0.32×0.40cm, B: 중앙 수정

곡옥-0.23×0.08cm, 마노다면옥-0.77×0.12cm, 유리구슬-0.6×0.44cm. C: 중앙 수정 곡옥-0.23×0.08cm, 수정다면옥-0.15×0.08cm, 마노다면옥-0.73×0.52cm(모든 구슬은 각기 크기가 달라 각 부분 대표적인 구슬만 측정함).

4)전체적으로 화려한 목걸이로써, 붉은색의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구슬,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된 무색투명한 수정 구슬들의 조화가 뛰어나며, 마노와 수정의 세공 솜씨 또한 뛰어난 작품이며, 조형성이 뛰어난 가야목걸이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6)이와 같이 이 목걸이는 가장 많은 수의 구슬로 구성되었고, 세공솜씨도 뛰어나고 예술적으로도 매우 우수하고 아름다운 형태이며, 가야를 대표할 만한 장신구로써, 국가지정유물(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구슬 목걸이 일괄품은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로 제작된 수정 구슬 10점, 마노 구슬 77점, 각종 유리제 구슬 2386점 등 총 2473점의 구슬로 이루어졌다. 이 목걸이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위세품으로서, 가야시대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공예품이며, 현존하는 가야의 목걸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구슬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 지역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만큼 많은 수량의 구슬이 한 곳에서 한꺼번에 발견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목걸이는 다양한 형태의 수정, 마노, 유리 구슬의 형태 및 색채의 조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신구로서, 금관가야 지배계층이 선호하던 미감과 장신구 문화 양식을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고가의 보석과 섬세한 유리 세공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이 목걸이는 금관가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대성동 76호분은 4세기 초의 금관가야 지배세력의 목곽묘이고, 이를 나타내는 위세품으로서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뛰어난 목걸이가 출토되었다.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구슬 10점, 마노구슬 77점, 각종 유리제 구슬 2386점 등 총 2473점으로 이루어졌다. 이 목걸이는 곡옥·다면옥 형태의 수정, 다면옥 형태의 마노,

곡옥과 환옥 형태의 유리구슬로 이루어졌고, 투명한 수정구슬과 질거나 밝은 마노, 그리고 녹색과 청색의 유리구슬이 색채의 조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신구로서, 가야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김해 대성동 76호분 목걸이는 지금까지 출토된 김해의 금관가야 목걸이들 중에서 구슬의 수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세공기술이 뛰어난 가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김해 대성동 76호 목걸이 3종 일체



김해 대성동 고분 유적의 원경



김해 대성동 고분 제1차 발굴조사 전경

○ 형 식

김해 대성동 76호 고분 출토 목걸이[頸飾]는 김해지역의 가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것 중 크고 작은 수정(水晶)으로 만든 다면옥(多面玉)과 곡옥(曲玉), 마노(瑪瑙)로 만든 다면옥과 환옥, 유리로 만든 곡옥과 구슬 총 2,473점으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굴 당시 각종 구슬들은 흩뿌려진 상태여서 그 원래의 형태를 알기 어려운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에 2,473점에 달하는 출토 구슬은 전체를 목걸이로서 재배열하여, 그 중에서 비교적 크기가 크고 형태가 좋은 곡옥이나 수정 및 마노 등을 중심에 배치하고 나머지 구슬들을 빙 둘러 좌우 대칭적으로 꿰었다. 이에 현재 상태는 출토된 구슬을 3중 목걸이로 보기 좋게 재구성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 조성연대

김해 대성동 76호 고분은 발굴 결과 대형의 목곽묘임이 확인되었고 이 곳에서 철촉이나 토기 등의 공반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것들은 4세기 초로 편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걸이의 제작 시기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로 비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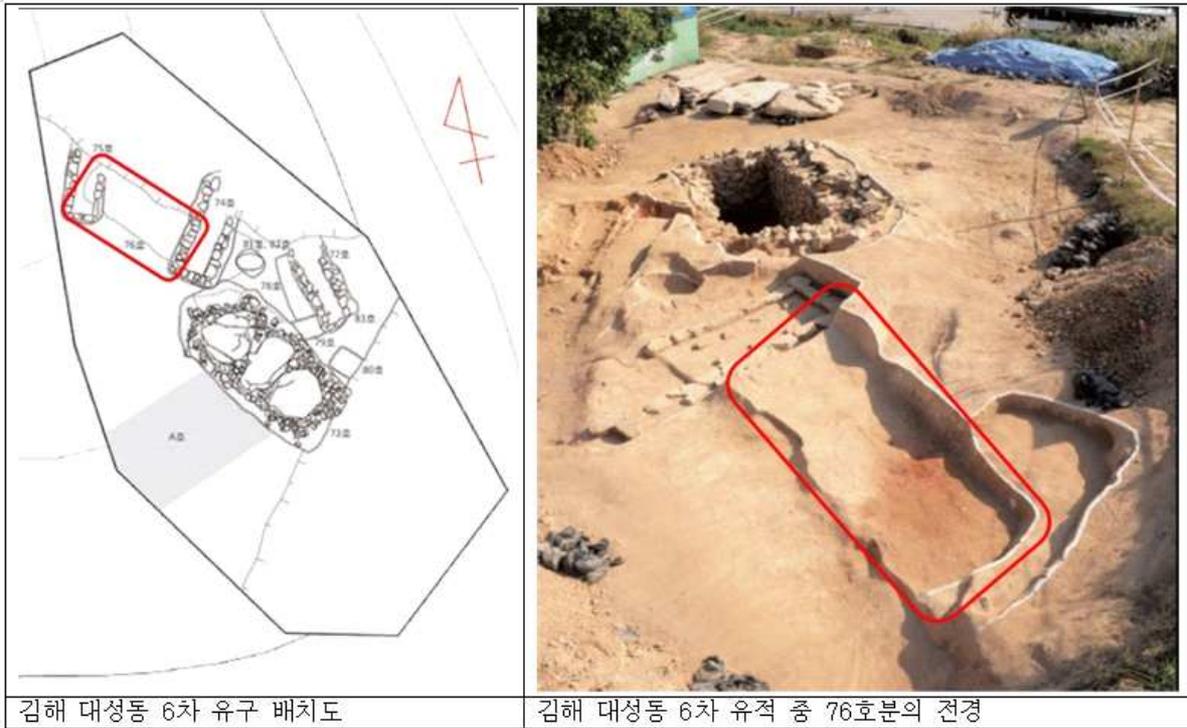
○ 유물의 출토 상황

김해대성동 고분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에 위치한 구릉에 위치하며, 이곳으로부터 약 600m 정도 북쪽에 가야의 건국설화가 깃들어 있는 구지봉(龜旨峰)이, 동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김수로왕릉이 위치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애꼬(꾸)지’, ‘애구지’ 등 작은 구지봉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이전까지는 밭으로 개간되다가 일제강점기부터 철저히 도굴 파괴되어 전체적인 유적의 보존 상태는 나쁜 편이다. 이곳에 대해서는 1990년 6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1차 발굴을 통해 대형 목곽분인 1호분과 2호분을 발굴하였고, 같은 해 1990년 11월에 사적 제341호로 지정되었다.

2011년 7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는 6차 발굴을 하게 되었다. 당시의 6차 발굴은 대성동 고분군에 시행했던 기존의 1-5차에 걸친 발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조성된 대형무덤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당시 대성동고분군은 구릉의 축조 순서상으로 미루어 볼 때 남동쪽의 비스듬한 위치[斜面]에 5세기 후반대에 조성된 대형무덤이 존재할 가능성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에 제6차 발굴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개목 관묘 1기(84호), 삼한시대 목관묘 2기(79, 80호), 삼국시대 목곽묘 2기(76호와 78호), 수혈식석곽묘 4기(73호, 74호, 75호, 77호), 옹관묘 3기(81호, 82호, 83호) 등 모두 12기의 분묘와 시기불명 수혈 1기, 삼가마 1기가 추가로 조사하게 되었다.

특히 대성동 76호분은 목곽묘이었는데, 그 좌우에 수혈식 석곽묘인 74호분과 75호분이 축조되면서 파손되었다. 때문에 묘광의 상태는 그다지 좋지 못했으며, 일부분은 도굴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 대성동 76호 무덤은 제 6차 발굴 조사를 통해 기원 후 4세기 1/4분기의 대형 목곽묘인 것이 확인되었다. 발굴 당시 묘광이 놓여 있던 중앙의 목곽부에서는 철기류나 토기류 등이 다수 출토되어 무덤의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해 대성동 76호분의 목곽 중앙부에서는 각종 곡옥과 다면옥, 환옥 등이 수정, 마노, 유리 등의 구슬이 다수 흩뿌려진 채 출토되었다.



중앙부에 산재된 채 출토된 구슬류의 유물은 총 2,473개이며, 이것들은 수정으로 만든 다면옥이나 곡옥을 비롯하여 유리로 만든 곡옥이나 환옥 등이었다. 출토된 구슬류 전체 유물은 수습한 이후 이것들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존처리 후 이것들을 보기 좋게 3줄의 목걸이로 재구성하여 꿰었다.

		A	B	C	A+B+C
사진					
	구경	1,031	614	648	2,293
유리	청록	80	.	10	90
다면체	수정	.	6	2	8
	마노	34	다면옥30+환옥3	10	77
곡옥		1 (수정)	1(유리)	1 (수정)	3
합계		1,146	654	671	2,471 +2(별도)
길이두께	수정	-	큰 것 2.8*1.6 작은 것 1.8*1.1 둥근 것 1.2*1.0	1.6*1.0	
	마노	큰 것 1.2*0.8 작은 것 0.9*0.6	1.2/0.7	-	
	곡옥	2.3*0.7	2.6*0.8	2.1*0.8	
전체 길이		94	61	52	

<표> 김해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수량

(단위: cm)

출토된 구슬들의 재질은 수정, 마노, 포타쉬 유리와 소다 유리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맑고 투명한 수정이나 주홍색의 마노는 비교적 단단한 재질의 것이어서 출토 당시부터 상태가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 곡옥의 경우 수정과 유리로 만든 것들이 총5점이었고, 그중 유리제 곡옥 3점 중 발견 당시부터 상태도 좋지 않은 데다가 부식이 진행된 2점은 목걸이에 끼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총2,471점의 다종다양한 구슬류는 크기가 크고 형태나 모양이 아름다운 수정제 곡옥이나 다면체 수정옥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그 좌우로 마노와 파란색 유리제 구슬을 연결하는 등 보기 좋게 배치하여 A, B, C 3개의 목걸이로 연출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처럼 김해 대성동 76호분 목걸이는 지금까지 출토된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시대 목걸이들 중에서도 출토된 구슬의 수량이 가장 많아 화려하고, 그 재료는 크고 투명한 무색의 수정을 비롯하여 붉은색을 띄는 마노, 푸른색을 보이는 유리 등 다종 다양하며, 수정과 마노를 다면체로 컷팅하고 각각 양쪽에서 구멍을 뚫어 꿰어 다는 기술적인 수준도 우수한 편이다.

○ 문헌자료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의 기록을 보면, “구슬(瓊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 사람들이 구슬[瓊珠]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기 타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2011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제6차 발굴 당시 출토되어 국가에 귀속된 이후,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가야자료총서 03, 『가야발굴조사 자료편 I』,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국립김해박물관, 『양동리, 가야를 보다』, 2012 기획특별전도록. 2012.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2018.

대성동고분박물관, 『金海 大成洞古墳群東 - 73호분 ~ 84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대성동고분박물관, 『비밀의 문 다시 두드리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재개관 기념도록,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동의대학교박물관, 「김해 양동리고분군 발굴조사(제3차)약보고서」, 1994.



○ 현 상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환옥, 유리제 곡옥과 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로 A, B, C 세 가지 형태로 켜어 관리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대성동76호분 목곽중앙부에서 출토된 것이다.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환옥, 유리제 곡옥과 구슬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로 가야목걸이 중 가장 많은 수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구성은 수정제 곡옥 2점, 수정제 다면옥 8점, 마노제 다면옥 74점, 마노제 환옥 3점, 유리제 곡옥 3점, 소형 유리 구슬 2383점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목걸이로써, 붉은색의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구슬,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된 무색투명한 수정 구슬들의 조화가 뛰어나며, 마노와 수정의 세공 솜씨 또한 뛰어난 작품이며, 조형성이 뛰어난 가야목걸이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 문헌자료

大成洞古墳博物館, 2013, 『金海 大成洞古墳群 -73호분~84호분』

□

○ 형 식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환옥, 유리제 곡옥과 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頸飾)로, 김해 지역의 가야 고분들에서 출토된 목걸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량의 구슬이 발견되어 주목된다(그림 1). 출토 당시에는 각종 구슬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원래의 목걸이 형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는 유물 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3줄 목걸이로 재구성된 상태이다. 김해 지역에서는 대성동 고분군 이외에도 양동리 고분군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각종 구슬로 만들어진 목걸이나 장신구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성동 76호분 출토 구슬 목걸이는 최대 수량의 구슬들이 확인된 예로서 주목된다.

○ 조성연대

이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대성동 76호분은 목곽묘로서, 공반된 토기의 형식에 의해서 4세기 초로 편년되고 있다. 한편, 함께 출토된 철촉이나 와질단경호는 앞시기 요소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⁹⁾ 같은 고분에서는 훨씬 이른 시기의 후한대 추정 청동제 삼족정도 함께 출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목걸이의 제작 시기는 유적 연대를 고려해볼 때, 유적 편년기보다 조금 이른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 현 상

이 구슬 목걸이 일괄품은 2011년 7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루어진 김해 대성동 고분군 제 6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제 76호분의 묘광 중앙부근에서 집중하여 출토되었다. 목곽묘인 대성동 76호분은 인근의 75호분과 74호분이 축조되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묘광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했으며, 일부분은 도굴도 당했다(그림 2). 이 구슬들은 목곽의 중앙부에서 다량의 흙 속에 각종 수정제 곡옥과 다면옥, 유리제 곡옥과 환옥 등이 무더기로 함께 출토되었다고 한다(그림 2, 3, 4).²⁰⁾



그림 1. 김해 대성동 76호분 목걸이 일괄. 대성동 고분박물관 소장.

19)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金海 大成洞古墳群 - 73호분 ~ 84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p.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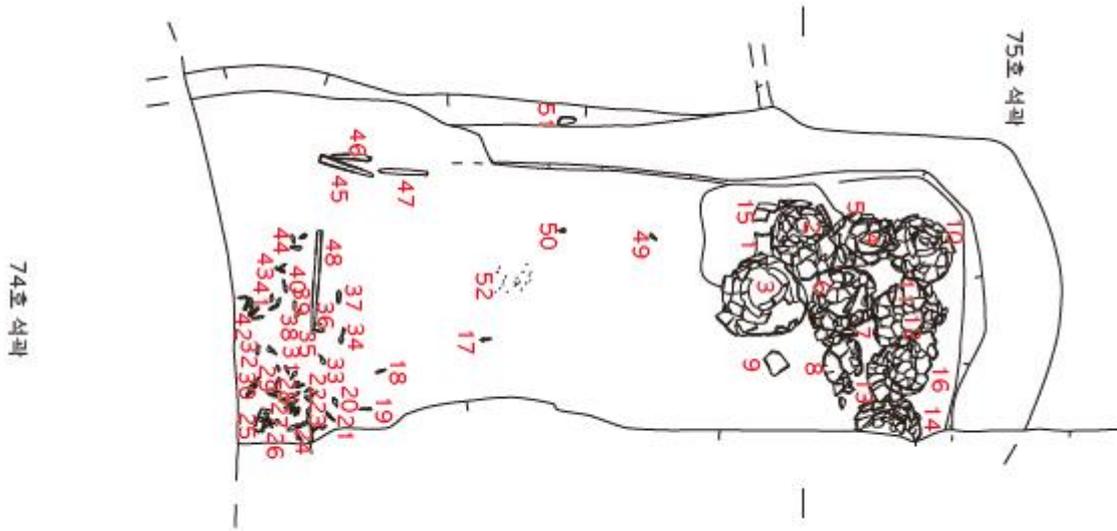


그림 2. 김해 대성동 76호분 유물 출토 상태 도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이 구슬들은 보존처리 과정에서 전체 구슬의 규모가 2000여점 이상이 되는 것이 밝혀졌으며, 재질은 수정, 마노, 유리 등으로 다양함이 확인되었다. 유리의 경우에는 포타쉬 유리와 소다 유리가 모두 확인되었다고 한다.²¹⁾ 현재는 보존과 전시를 위해서 곡옥을 중심으로 3개의 목걸이로 재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별도의



그림 3. 김해 대성동 76호분 수정구슬 출토 상태. 대성동고분박물관.



그림 4. 김해 대성동 76호분 각종 구슬 출토 상태. 대성동고분박물관.

유리 곡옥 2개가 따로 보관되고 있다. 별도 보관중인 유리 곡옥 2점과 현재 목걸이 A의 중앙에 있는 유리 곡옥 1점 등 총 3점의 유리 곡옥은 모두 표면 부식이 심하게

20) 위의 책, p. 59; 73.

21) 강형태, 윤은영, 2013, 「김해 대성동고분군 출토 유리구슬의 과학 분석」, 『金海 大成洞古墳群 - 73호분 ~ 84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부록 p. 31.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다(그림 5, 6). 그러나 그외의 다른 수정과 마노 구슬들과 소형 유리구슬들의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림 5. 별도 보관 중인 유리 곡옥 2점.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대성동 고분박물관 소장.



그림 6. 유리 곡옥,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대성동 고분박물관 소장.

김해 대성동 76호분 목걸이는 지금까지 출토된 김해의 금관가야 시대 구슬 목걸이들 중에서 출토 구슬의 수량이 최대에 달하는 화려한 목걸이로서, 붉은색의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구슬,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된 무색 투명한 수정 구슬들의 조화가 뛰어나며, 마노와 수정의 세공 솜씨 또한 뛰어난 작품으로서 주목된다.

○ 문헌자료

3세기의 중국 문헌기록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 조에 의하면 당시 삼한의 사람들은 “구슬(瓔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²²⁾고 하여, 구슬을 매우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반도 남부의 삼한(三韓) 사람들이 영주(瓔珠), 즉 구슬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이러한 중국의 기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재질의 구슬 사용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문헌기록이다.

○ 기 타

2011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조사한 대성동 76호분에서 출토된 이후, 계속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관리해오고 있으며, 국가귀속 역시 대성동고분박물관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같은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음.

22) "以瓔珠爲財寶，或以綴衣爲飾，或以縣頸垂耳，不以金銀錦繡爲珍. 『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傳 韓條.

○ 주요 도판 출판 현황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金海 大成洞古墳群東 - 73호분 ~ 84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p. 189, 도 69.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비밀의 문 다시 두드리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재개관 기념도록,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p. 105, 도 46.

국립김해박물관, 2018,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p. 62-63, 도 86.

□

○ 형 식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환옥, 유리제 곡옥과 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긴 목걸이로,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구슬로 이루어졌다. 출토 당시에는 각종 구슬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원래의 목걸이 형태와 구슬 배치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3개로 켜어 있다. 김해를 포함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는 대성동 고분군 이외의 여러 고분군에서 각종 구슬로 만들어진 목걸이나 장신구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성동 76호분 출토 구슬 목걸이는 최대 수량의 구슬로 이루어졌고, 이 시기의 가야 장신구를 상징하는 목걸이로서 주목된다.

○ 조성연대

이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대성동 76호분은 목곽묘로서, 공반된 유물의 구성과 형식에 의해서 4세기 초로 편년되지만, 철축이나 와질단경호 등은 앞 시기 요소가 남아 있어서,²³⁾ 이 목걸이의 제작 시기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 현 상

이 구슬 목걸이 일괄품은 2011년 7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루어진 김해 대성동 고분군 제 6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제 76호분의 목곽 중앙부의 서측에 집중하여 출토되었다. 76호분은 파괴가 심해 전체의 1/4정도만 남아 있었다.

목걸이는 현재 보존과 전시를 위해서 곡옥을 중심으로 3개의 목걸이로 켜어 있으며, 유리 곡옥 2점이 따로 보관되고 있다. 별도 보관중인 유리 곡옥 2점과 현재 목걸이 A의 중앙에 있는 유리 곡옥 1점 등 총 3점의 유리 곡옥은 모두 표면 부식이 심하게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외의 다른 수정과 마노 구슬들과 소형 유

23)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金海 大成洞古墳群 - 73호분 ~ 84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p. 105.

리구슬들의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 문헌자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金海 大成洞古墳群東 - 73호분 ~ 84호분』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비밀의 문 다시 두드리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재개관 기념도록

○ 기 타

2011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조사한 대성동 76호분에서 출토된 이후,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해오고 있으며,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음.

5.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金海 良洞里 二百七十號墳 出土 水晶頸飾)

가. 심의사항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8.2.26.) 관계 전문가 조사(’18.8.31.) 및 보완조사(’19.8.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8.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9.7.~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金海 良洞里 二百七十號墳 出土 水晶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1건 146점
(수정제 다면옥 20점, 수정제 주판옥 120점, 수정제 곡옥 6점)
- 규 격 : 전체 연결 길이 142.6cm.
 - ① 중앙 최대 다면옥 크기 : 높이 35.8mm. 최대 폭 32.3mm.
 - ② 주판옥 크기 : 높이 13.0mm × 최대 지름 13.1mm
높이 6.5mm × 최대 지름 7.6mm.
 - ③ 곡옥 크기 : 향좌측 중앙 대형 : 길이 34.5mm, 두께 18.9mm.
향좌측 최소형 : 길이 21.9mm, 두께 14.0mm.
- 재 질 : 수정

- 형 식 : 수정제 다면옥과 주판옥, 곡옥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 조성연대 : 3세기 추정



그림 55.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제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1992년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이 지역의 제2차 발굴 조사 중 토광목곽묘에서 발굴하였는데, 이 유구는 근처에 있던 여러 고분과 겹쳐 있어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으나 고배를 비롯한 토기류나 철제 유물이 공반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목걸이는 수정제 다면옥 20점과 주판옥 120점, 곡옥 6점, 총 146점의 수정으로 이뤄진 142.6cm의 길이에, 육각다면체형, 주판알형, 곡옥형 등 형태가 다양하고, 색채에 있어 맑고 투명한 무색과 황색 및 갈색 등의 다채로운 색상의 수정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세공 기술 또한 우수하여 조형적인 가치 또한 뛰어나다. 이러한 이 목걸이를 구성하는 수정은 이 지역에서 채취하기도 하여 3세기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지배계층의 위세품

으로서 학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수정 목걸이는 이 시기 가야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지만, 이 목걸이처럼 수정의 형태와 색채가 다양하면서도 146점의 많은 수량이 출토된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여서 주목된다. 이처럼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와 유물의 내역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다종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형태로 정교하게 가공하거나 구멍을 뚫는 공예기술과 다채로운 색상과 질감을 조화시켜 당시 복식 문화의 세련된 수준을 엿볼 수 있는 3세기 김해지역의 금관가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 1) 이 수정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 270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여러 목곽묘들이 중복되고 파괴가 심하여 출토양상이 불량하지만 고분의 주인공이 착상하고 있었던 유물로 보인다. 출토상황이 좋지 않지만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 2) 맑고 투명한 수정을 대중소 3종류로 절단하여 6각의 주판알모양 장식을 모두 140개를 만들었다. 장식은 길이로 중앙에 구멍을 뚫어 실로 꿰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한 같은 수정으로 소형의 곡옥6개를 아래 중앙부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 3)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어 2줄로 겹쳐 목에 거는데 아래중심의 장식수정은 3.58×3.23cm로 수정 출토품 중 가장 큰 것에 속한다.
- 4) 목걸이의 전체길이는 142.6cm, 가장 큰 수정장식 3.58×3.23cm, 가장 작은 수정장식 0.76cm×0.65cm이며, 곡옥 길이2.19cm이다.
- 5) 질 좋은 수정을 대중소로 나누어 6각형으로 다듬고 소형→중형→대형순서로 배치하고, 대형장식을 목걸이 중앙 아래에 오도록 한 다음 그 사이에 곡옥을 끼워넣어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 6) 이와 같이 이 목걸이는 수정을 다듬은 기술력과 조형성이 뛰어나 예술적으로도 매우 우수하고 아름다운 형태이며, 가야를 대표할 만한 장신구이다. 또한 고고학 자료로도 높은 가치가 있어 국가지정유물(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 일괄품은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로 제작된 수정제 구슬 146점으로 이루어진 3세기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위세 품으로서, 가야시대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공예품이다. 김해 지역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처럼 많은 수량과 종류의 수정제 구슬을 사용한 예는 많지 않다. 또한 이 목걸이는 수정 구슬의 형태가 육각다면체형, 주판알형, 곡옥형 등 여러 종류로 다양하고 표면 마연 상태 및 구슬의 세공 솜씨가 매우 우수하여, 3세기의 대표적인 장신구로서 주목된다. 구슬의 형태, 세공 솜씨, 보존 상태, 고가의 보석 재질 사용 등으로 볼 때, 금관가야 지역의 3세기 지배계층의 문화를 대표하는 이 수정제 목걸이는 가야의 대표적인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 일괄품은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로 제작된 수정제 구슬 146점으로 이루어진 3세기 가야의 대표적인 장신구로서, 가야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공예품이다. 김해 지역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처럼 많은 수량과 종류의 수정제 구슬을 사용한 예는 많지 않다. 또한 이 목걸이는 수정 구슬의 형태가 육각다면체형, 주판알형, 곡옥형 등 여러 종류로 다양하고 표면 마연 상태 및 구슬의 세공 솜씨가 매우 우수하여, 삼국시대 목걸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공기법과 상태를 보여주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또한 목걸이 중앙의 수정은 현존하는 동시대 수정 구슬들 중에서 최대 크기에 해당하는 귀중한 보석으로서 가치가 크다. 그러므로 이 목걸이는 가야는 물론 삼국시대 공예품과 장신구를 대표하는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형 식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제 다면옥 20점과 주판옥 120점, 곡옥 6점, 총146점으로 이루어진 수정 목걸이 142.6cm이다. 출토 당시 이 목걸이와 작은 청색 유리구슬이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착장지에는 동시에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에서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목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들은 기원전 3세



기경부터 시작하여 기원후 3-4세기까지 유행하였다. 특히 현존하는 수정제 구

슬들의 대다수가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 지역의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데, 그중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는 특별히 크고 맑고 투명하며 품질이 우수한 수정제 구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조성연대

김해 양동리 270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로서, 3세기 금관가야에 조성되었는데 여러 유구가 중복되어 훼손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고분의 축조방식이나 공반 출토된 고배를 비롯한 각종 토기나 철제 유물 등으로 미루어 이 목걸이는 3세기 금관가야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 출토 현황

1990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는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중 제 2차 조사인 1992년에 토광목곽묘인 김해 양동리 270호분을 발굴하였다. 발굴 이후 발굴보고서가 미간행 상태여서 해당 고분의 발굴 상황이나 유물의 출토 상황도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 간략한 보고서가 간행되어 당시 상황이 파악된다.

발굴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이 고분은 바로 근처에 있던 제 187호, 219호, 266호, 269호 고분과 중복하여 유구가 겹쳐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때문에 유구의 대부분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고배나 손잡이 있는 잔 등 토기류와 농기구와 같은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고, 이와 함께 수정제 목걸이와 유리 목걸이가 공반하여 출토되었다.



김해 양동리 270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는 출토 당시 주변에서는 여러 색의 작은 유리구슬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에 피장자는 수백 점의 색유리 구슬과 이 수정목걸이를 함께 착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색유리 구슬은 크기가 작고 파손이 심해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는 수정제 목걸이와 색유리 목걸이로 구분하여 각각 보관하고 있다.

○ 목걸이의 내용 및 특징

1) 수정제 목걸이의 재료와 수량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과 유리로 제작되어 있으며, 색상은 수정제는 무색 투명하고, 유리제는 파란색이다. 수정제 다면옥 20점, 수정제 주판옥 120점, 수정제 곡옥 6점을 연결하여 총길이는 142.6cm이다.

수정은 산화규소(SiO₂)를 주성분으로 한 석영질의 광물질로, 옛날부터 무색투명하고 강도가 높아서 고급 장신구로 사용된 보석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정을 이용하여 목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이며, 기원후 3-4세기까지 유행하였다. 수정제 장신구의 출토 지역은 한반도 서북부 지역, 서남부지역, 동남부지역 등인데, 그중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들은 금관가야에 해당되는 김해 지역의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그중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는 특별히 크고 품질 좋은 수정 구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맑고 투명한

수정의 품질과 그것을 정교하게 가공하여 기술적 수준도 높은 편이다.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는 맑고 투명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부의 수정 구슬은 황색이나 연갈색 및 약간 어두운 갈색을 띠거나 수정 속에 독특한 이물질이 포함되는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2) 수정제 목걸이의 크기와 형태

김해 양동리 270호 출토 목걸이는 가장 큰 다면체의 크기를 보면 높이 35.8mm에 최대폭은 32.3mm이다. 주판알처럼 생긴 주판옥의 경우 높이는 13.0mm이고, 가장 큰 것의 지름은 13.1mm이고, 작은 것은 높이 6.5mm에 지름은 7.6mm이다. 곡옥의 크기는 왼쪽 중앙에 있는 대형의 것은 길이 34.5mm에 두께 18.9mm이고, 가장 작은 것은 길이 21.9mm에 두께 14.0mm이다.

현재 재구성하여 목걸이의 가장 중앙 아래쪽에 달려 있고 가장 크기가 큰 다면옥 3점의 경우 단면은 육각형의 다각형 구슬이다. 이것들을 목걸이로 꿰기 위해서는

구슬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 두께가 두꺼워 한 방향으로 구멍을 뚫기 어려워 철제 천공구를 이용해서 구슬의 아래쪽과 위쪽의 양쪽에서 각각 구멍을 뚫었다. 이 때문에 기구를 넣은 양쪽 끝의 구멍은 연장을 돌리면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굵기가 굵어졌고, 구멍이 만나는 구슬 중앙 부분은 가장자리보다 구멍의 두께가 얇은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및 주판알의 구멍 뚫은 상태

다면옥의 양쪽 구멍 뚫은 상태

그러나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은 주판옥이나 곡옥의 경우에는 구멍을 한쪽 방향에서만 뚫었기 때문에 구멍의 두께가 일정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어쨌든 수정제 목걸이는 단단한 수정 원석을 하나마다 깎고 구멍을 뚫고 표면을 깔끔하게 갈아서 맑고 투명하게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연질의 유리구슬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품도 많이 드는 최고급 보석이었다.

크기가 다소 큰 다면옥과 곡옥들에 비해서, 작은 크기의 주판옥들은 주판알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주판알 모양 구슬, 혹은 주판옥(珠板玉), 산반옥(算盤玉) 등으로 부르는데, 다면옥과 비슷한 형태지만 중앙을 중심으로 각이 없이 둥글게 마연한 형태가 특징이다(그림 5). 이 주판옥들은 크기와 형태가 모두 조금씩 달라서, 하나씩 손으로 깎고 마연한 후, 구멍을 뚫어서 만든 값비싼 보석 공예품들이다. 따라서 이 목걸이는 수정의 숫자도 많고 3점의 다면옥과 6점의 곡옥 및 주판옥 60점 등 종류도 다양하여 피장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3) 수정제 목걸이의 특징

김해 양동리 270호 출토 목걸이와 같이 수정제 구슬을 꿰 목걸이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후 3-4세기 경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었다. 경도가 7인 수정은 단단한 광물이어서 철제 공구로 구멍을 뚫거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다면체나 주판알이나 곡옥으로 만들면서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세공 기술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가야시대의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수정제 구슬이 다수 출토되었지만, 270호분 출토 목걸이처럼 다량의 품질 좋은 수정 목걸이가 발견된 예는 많지 않다. 더욱이 이 지역은 수정을 채취했던 기록과 함께 인근에 있는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 수정 원석을 채취한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의 남부지역에서 수정을 자체 조달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이 수정 목걸이는 이 지역에서 제작하여 3세기 금관가야의 지배층이 애호했던 위세품으로 여겨진다.

○ 문헌자료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의 기록을 보면, “구슬(瓔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 사람들이 구슬[瓔珠]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기 타

1992년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김해 양동리 유적에 대한 제 2차 발굴조사를 통해 양동리 270호분을 발굴한 이후 이 목걸이는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가 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가야 지역 출토 유리 I -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 연구 자료집 I, 국립김해박물관, 2019.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2018.

국립김해박물관,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2012.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 칼과 현』, 국립중앙박물관, 2019.

東義大學校博物館,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동의대학교박물관, 2017.

복천박물관,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복천박물관, 2013.

신숙, 「한국 고대 보석장식 공예품과 국제교류」,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현 상

맑고 투명한 수정을 6각의 주판알 모양과 곡옥모양으로 다듬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목에 걸도록 한 목걸이로 주판알 장식이 대중소 140개, 곡옥장식 8개로 이루어져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270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목걸이이다. 맑고 투명한 수정을 잘라 6면체의 주판알모양으로 다듬고, 가운데 연결구멍을 뚫어 실에 꿰어 목에 걸도록 되어있다. 주판알장식은 대중소의 140개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쪽으로 중심에 6개의 소형곡옥으로 장식하였다.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어 2줄로 겹쳐 목에 거는데 아래중심의 장식수정은 3.58×3.23cm로 수정 출토품 중 가장 큰 것에 속한다. 수정수가 많고 조형성이 뛰어난 가야목걸이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 문헌자료

조현복 외,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Ⅱ』, 東義大學校博物館.



○ 형 식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주판옥, 곡옥으로 이루어진 목걸이(頸飾)로, 김해 양동리 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고 발전된 양식을 보여주는 목걸이이다(그림 1).

수정(水晶, rock crystal)은 산화규소(SiO₂)를 주성분으로 한 석영질의 광물질로, 옛날부터 무색투명하고 강도가 높아서 꾸준히 값비싼 고급 장신구의 재질로 사용되는 보석의 일종이다. 한반도에서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며, 고대 수정제 장신구들이 출토되는 지역은 한반도 서북부지역, 서남부지역, 동남부지역 등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현존하는 가장 이른 한반도 출토 수정제 장신구는 전북 전주 원장동 G유적 초기철기시대 1호 토광목관묘에서 출토된 수정제 환옥이다.²⁴⁾ 초기철기시대부터 애용된 수정제 구슬을 이용한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후 3-4세기경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다. 특히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들의 대다수는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 지역의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는 특별히 크고 품질 좋은 수정 구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서 중요하다. 수정제 구슬을 이용한 목걸이는 삼국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으나, 삼국시대 이후에는 그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형태를 달리한 각종 수정제 장신구들의 존재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통일신라시대부터는 수정제 사리장엄구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는 수정이 한국의 전통적인 보석이자 중요

24) 양아림, 2019, 「한반도 출토 수정제 장신구와 김해 양동리 고분군」, 『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 · 동의대학교박물관, pp. 3-6.

한 장신구 재질로 꾸준히 애호되어 왔음을 뜻한다.



그림 1.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 일괄.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김해 74791).



그림 2.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유리구슬 장식 일괄.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김해 74790).

김해 양동리 270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는 피장자의 목 부분으로 추정되는 위쪽에서 일괄 출토되었으며, 이 위쪽 부분에서는 유리구슬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대신 유리구슬들은 같은 피장자의 몸 아래쪽 부분에서 별도로 출토되었다(그림 2, 3, 4). 이러한 출토 상태로 볼 때, 양동리 270호분의 수정 목걸이는 피장자의 목 부분을 장식했던 독특한 수정제 장신구로서, 일반적인 가야의 목걸이들이 수정과 유리로 구성된 점과는 다른 착장 방식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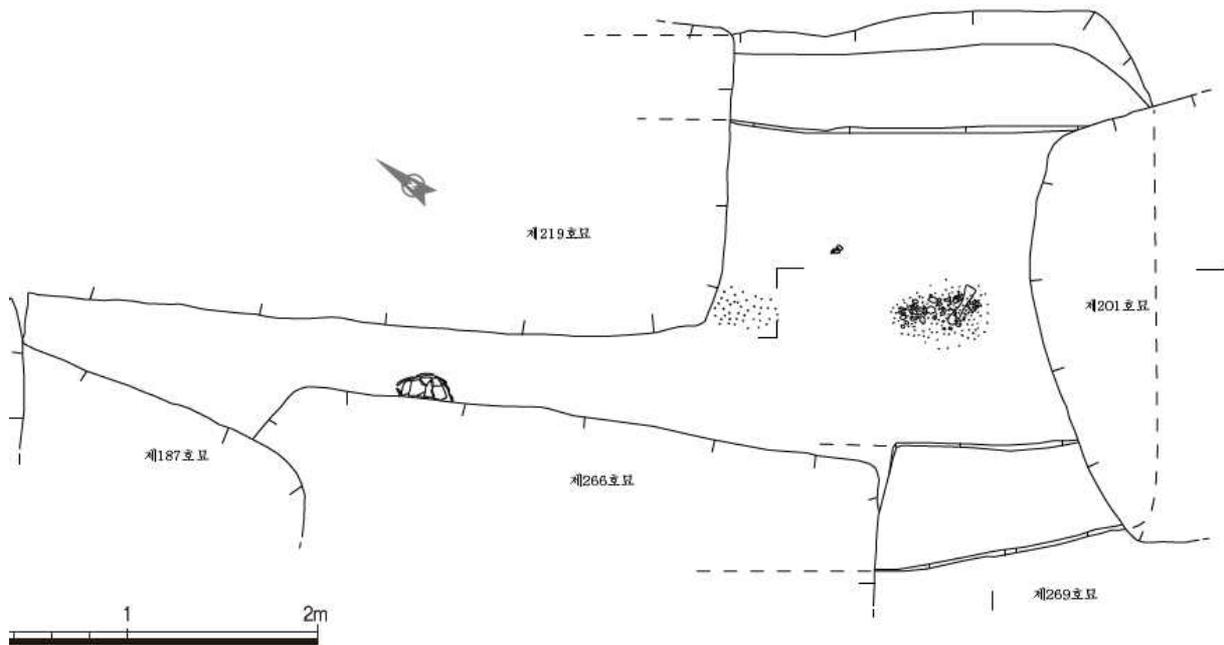


그림 3. 김해 양동리 270호분 구슬 출토 상태. 동의대학교박물관.



그림 4. 김해 양동리 270호분 수정제 구슬 (그림 1) 출토 상태. 동의대학교박물관.



그림 5. 김해 양동리 270호분 유리구슬 (그림 2) 출토 상태. 동의대학교 박물관.

현재 피장자의 몸 아래쪽에서 나온 색유리 구슬로 만든 목걸이는 파손이 심하고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여 정확한 유리 구슬의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유리 구슬들을 보면, 각종 파란색 및 적갈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²⁵⁾

이렇게 다종다양한 수정과 유리 구슬로 만든 목걸이들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인근의 분묘 유적들에서 다수 출토되고

25) 국립김해박물관, 2019, 『가야 지역 출토 유리 I -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 연구 자료집 I, 국립김해박물관, p. 54, 유물번호 김해 74790.

있다. 특히 김해 양동리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목걸이들이 수십 여점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유리 구슬로 제작되어 파손이 심하고 원래의 형태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리에 비해 단단한 보석인 수정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그림 1)는 같은 시기의 구슬 목걸이들 중에서도 비교적 완전한 형식을 보여주며, 최고가(最高價)의 품질과 수준높은 보석 세공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270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로서, 인근의 제 187호, 219호, 266호, 269호 고분과 중복된 상태로 발견된 고분이다. 다른 유구들과 중복되면서, 유구의 대부분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²⁶⁾ 함께 출토된 와질토기와 철기, 그리고 유구의 중복 상태로 볼 때, 금관가야 시대 3세기경에 조성된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수정제 목걸이도 역시 고분의 축조 연대를 고려하여 3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이 수정제 목걸이는 1990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시행한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중 제 2차 조사인 1992년에 출토되었다. 아쉽게도 양동리 유적의 발굴보고서가 최근까지 대부분 미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정제 목걸이의 출토 상황에 대해서도 그다지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다량의 유리 구슬들과 함께 출토되었으며, 현재까지 출토된 김해 지역의 가야 시대 고분들 중에서 발견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상당히 큰 다면옥들이 세 점 포함되어 있고, 수정제 구슬의 숫자도 다른 고분들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피장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 목걸이는 현재 크기가 다른 수정제 곡옥 6점, 수정제 다면옥 20점, 수정제 주판옥 120점 등 총 146점의 수정제 구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수정 구슬들의 상태는 상당히 좋으며, 표면은 잘 마연되어 광택이 잘 난다. 천공 솜씨도 매끄러워서 상당히 뛰어난 세공 솜씨를 보여준다.

이중에서 중앙 아래쪽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3점의 다면옥은 단면 육각형의 다각형 구슬로서, 이 구슬들 중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들이다. 구슬들의 구멍을 뚫는 방식은 구슬 아래쪽과 위쪽 양쪽에서 뾰족한 천공구(穿孔具)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었음이 확인된다(그림 6). 이러한 수정제 구슬들은 원석에서 하나씩 깎고 구멍을 뚫어서 제작하는 수공예품들로서, 다량 제작할 수 있는 유리

26)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111.

구슬들에 비해서 훨씬 값비싸고 중요한 보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중앙 하단부.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 세부.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그림 7. 수정제 주판옥.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 세부.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크기가 다소 큰 다면옥과 곡옥들에 비해서, 작은 크기의 주판옥들은 주판알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주판알 모양 구슬, 혹은 주판옥(珠板玉), 산반옥(算盤玉) 등으로 부르는데, 다면옥과 비슷한 형태지만 중앙을 중심으로 각이 없이 둥글게 마연한 형태가 특징이다(그림 7). 이 주판옥들은 크기와 형태가 모두 조금씩 달라서, 하나씩 손으로 꺾고 마연한 후, 구멍을 뚫어서 만든 값비싼 보석 공예품들이다. 수정의 품질과 색상은 대부분 투명하고 우수하지만, 일부 수정 구슬 중에서는 약간 어두운 갈색을 띤 예도 있고, 수정 속에 독특한 이물질이 포함된 예도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 내용 및 특징

무색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각종 구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기 시작한 장신구의 일종이다. 경도가 7인 수정은 여러 종류의 보석 중에서도 상당히 단단한 광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제 공구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수정제 구슬 및 각종 장신구들은 철기시대의 중요한 위세품으로 알려져 있다. 가야 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 일대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270호분 출토품과 같이 다량의 품질 좋은 수정제 구슬들로만 목걸이를 구성한 예나, 이렇게 많은 양의 수정제 구슬이 한꺼번에 발견된 예는 매우 드물다. 또한 이 고분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유리 구슬들로 구성된 장식을 별도로 착장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가야시대 상류 계급의 다양한 구슬 장신구 착장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쉽게도 피장자의

배나 가슴 아래부분을 장식했던 유리 구슬들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수량과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정제 목걸이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양식과 세공 기술을 가진 장신구 제작과 사용 문화가 3세기 김해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보석들과는 달리 수정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산출되었다는 기록과 실제 광석 채취 사례 등이 알려져 있다.²⁷⁾ 그러므로 이러한 수정제 구슬들의 제작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자체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한국의 고대 수정제 장신구의 제작지 관련 유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전남 보성 도안리 석평 유적에서 수정제 구슬 제작 관련 유적이 발견된바 있으며, 최근 김해 양동리 고분군 인근에 있는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도 수정 원석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었다.²⁸⁾ 이러한 예들로 보아, 이 수정제 구슬들은 김해 인근 지역이거나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제작되어 가야의 지배계층이 애호했던 3-4세기경의 중요한 위세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3세기의 중국 문헌기록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 조에 의하면 당시 삼한의 사람들은 “구슬(瓊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²⁹⁾고 하여, 구슬을 매우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반도 남부의 삼한(三韓) 사람들이 영주(瓊珠), 즉 구슬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이러한 중국의 기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재질의 구슬 사용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문헌기록이다.

○ 기 타

1990년대 발굴된 이후로 내내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주요 도판 출판 현황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p. 69, 도 082.

복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복천박물관, p. 121.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554,

27) 최근 국내의 옥류 원석 조사 연구에 의하면, 국내산 자수정과 무색투명 등이 있는데, 울주군 언양읍 작괘천,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등에 원석 채집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홍국, 2018, 「옥류(玉類) 원석 탐사」, 『야외고고학』 33, p. 99 <표 1>의 6번 수정 항목 참조.

28) 양아림, 2019, 위의 논문, pp. 13-16.

29) "以瓊珠爲財寶，或以綴衣爲飾，或以縣頸垂耳，不以金銀錦繡爲珍. 『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傳 韓條.

도판 87-③; 도판 198-⑩.

국립김해박물관, 2018,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p. 59. 도 84.

국립중앙박물관, 2019, 『가야본성 - 칼과 현』, 국립중앙박물관, p. 127, 도 107.

□

○ 형 식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주판옥, 곡옥으로 이루어진 목걸이로, 가야고분군에서 출토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목걸이이다(그림 1). 출토 당시에는 작은 청색 유리구슬들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색이 다른 청색 유리구슬 목걸이와 투명한 수정제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함께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들의 대다수는 낙동강 하류의 김해와 부산 지역의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는 특별히 크고 품질이 매우 좋은 수정 구슬들로 만들어져 있다.

김해 양동리 270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는 출토 당시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색의 작은 유리구슬들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그림 3), 원래 피장자는 수백점이 넘는 엄청난 양의 색유리 구슬로 만든 다른 목걸이와 이 수정제 목걸이를 함께 겹쳐서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 색유리 구슬로 만든 목걸이는 파손이 심해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여 정확한 유리구슬의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남아 있는 유리구슬들은 각종 파란색 및 적갈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³⁰⁾

30) 국립김해박물관, 2019, 『가야 지역 출토 유리 I -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 연구 자료집 I, 국립김해박물관, p. 54.



그림 1.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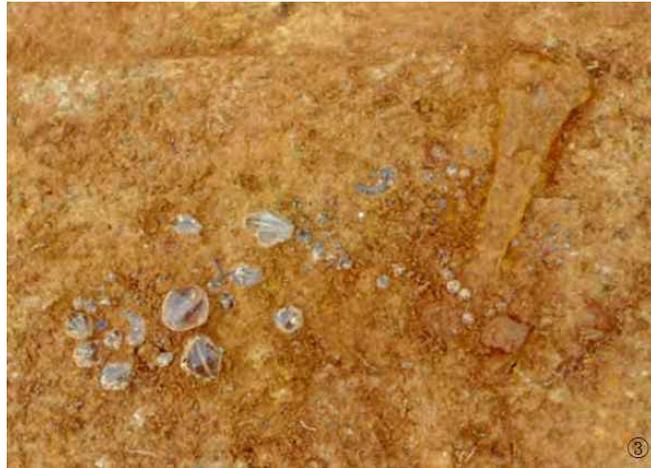


그림 3. 김해 양동리 270호분 목걸이 출토상태.

김해 양동리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목걸이들이 수십 여점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유리 구슬로 제작되어 파손이 심하고 원래의 형태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리에 비해 단단한 보석인 수정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는 같은 시기의 구슬 목걸이들 중에서도 비교적 완전한 형식을 보여주며, 최고가(最高價)의 품질과 수준 높은 보석 세공 양식을 보여주는 수작(秀作)이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270호분은 장방형의 목곽묘로서, 제187호, 219호, 266호, 269호 고분에 의해 유구의 대부분은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³¹⁾ 함께 출토된 와질토기와 철기 등의 유물 구성과 형식 등을 고려하면 3세기경에 조성된 목곽묘로 추정된다. 이 수정제 목걸이도 역시 고분의 축조 연대를 고려하여 3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이 수정제 목걸이는 1990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시행한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중 제 2차 조사인 1992년에 출토되었다. 목걸이를 구성한 수정들은 투명하고, 표면에 마연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균열이나 결실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이다. 이 수정제 목걸이는 다량의 유리구슬들과 함께 출토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상당히 큰 다면옥들이 세 점 포함되어 있고, 수정제 구슬의 숫자도 다른 고분들보다 월등하게 많다.

31)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111.

이 목걸이는 현재 크기가 다른 수정제 곡옥 6점, 수정제 다면옥 20점, 수정제 주판옥 120점 등 총 146점의 수정제 구슬로 구성되어 있다. 구슬들의 구멍을 뚫는 방식은 구슬 아래쪽과 위쪽 양쪽에서 뾰족한 천공구(穿孔具)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었음이 확인된다.

크기가 다소 큰 다면옥과 곡옥들에 비해서, 작은 크기의 주판옥들은 주판알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주판알 모양 구슬, 혹은 주판옥(珠板玉), 산반옥(算盤玉) 등으로 부르는데, 다면옥과 비슷한 형태지만 중앙을 중심으로 각이 없이 둥글게 마연한 형태가 특징이다(그림 3). 이 주판옥들은 크기와 형태가 모두 조금씩 달라서, 하나씩 손으로 짚고 마연한 후,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다. 수정의 품질과 색상은 대부분 투명하고 우수하지만, 일부 수정 구슬 중에서는 약간 어두운 갈색을 띤 예도 있고, 수정 속에 독특한 이물질이 포함된 예도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3. 김해 양동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의 수정제 주판옥

○ 내용 및 특징

무색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각종 구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기 시작한 장신구의 일종이다. 가야 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 등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270호분 출토품과 같이 다량의 품질 좋은 수정제 구슬들이 함께 발견된 예는 많지 않다. 또한 이 고분에서는 파란색 소형 유리구슬들도 함께 출토되어 투명한 수정과 파란 유리구슬로 만든 여러 줄의 목걸이가 함께 사용되어 가야의 장신구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유리구슬들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수량과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정제 목걸이는 좋은 재질과 뛰어난 세공 기술을 가진 장신구 제작과 사용 문화가 2~3세기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수정제 장신구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전남 보성 도안리 석평 유적에서 수정제 구슬 제작 관련 유적이 발견된바 있으며, 최근 김해 양동리 고분군 인근에 있는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도 수정 원석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었다.³²⁾ 이러한 예들로 보아, 이 수정제 구슬들은 김해 인근 지역에서

제작되어 가야 지배층이 착장형 장신구로 애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북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 기 타

1990년대 동의대학교박물관 조사에서 출토되었고,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32) 양아림, 2019, 「한반도 출토 수정제 장신구와 김해 양동리 고분군」, 『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동의대학교박물관, pp. 3-6. pp. 13-16.

6.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金海 良洞里 三百二十二號墳 出土 頸飾)

가. 심의사항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가치 규명’의 일환으로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조사 대상 추천이 있어(‘18.9.28.) 관계전문가 조사(‘19.8.26.) 및 보완조사(‘20.5.20.)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8.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9.7.~10.6.)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金海 良洞里 三百二十二號墳 出土 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박물관
- 수 량 : 1건 2조 574점
 - 수정제 다면옥 2점, 수정제 곡옥 147점.
 - 유리 곡옥 1점, 마노 환옥 6점, 소형 유리 환옥 418점.
- 규 격 : 총 길이 164cm(수정 목걸이 99.1cm + 유리 환옥 목걸이 64.7cm)
 - 중앙 유리질 곡옥 : 길이 47.1mm. 두께 16.6mm.
 - 수정 다면옥 1 : 높이 27.9mm. 최대 폭 40.2mm.
 - 수정 다면옥 2 : 높이 21.8mm. 최대 폭 41.0mm.

마노 환옥 1 : 높이 11.8mm. 최대 지름 13.4mm.

마노 환옥 2 : 높이 9.0mm. 최대 지름 11.8mm.

마노 환옥 3 : 높이 4.9mm. 최대 지름 6.5mm.

수정 곡옥 1 : 길이 14.7mm. 두께 5mm.

수정 곡옥 2 : 길이 16.4mm. 두께 6.6mm.

소형 유리 환옥 : 높이 1.8mm. 지름 2.3mm.

- 재 질 : 수정, 마노, 유리
- 형 식 : 수정과 마노, 유리 등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 조성연대 : 3세기 추정



그림 67.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1994년까지 동의대 박물관에 의해 2차 발굴 조사한 목곽묘에서 명문에 의해 중국 한나라 시기의 청동 예기로 밝혀진 세발 솥 [鼎] 등과 함께 공반 출토되어 3세기 금관가야의 유물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목걸이는 수정제 곡옥 147점,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 마노

환옥 6점, 대형 유리제 곡옥 1점, 소형 파란 유리 환옥 418점 등 다종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보석 총 574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경도 7의 수정을 다루어 다면체로 가공하거나 많은 수량의 곡옥으로 섬세하게 가동하는 공예 기술적인 수준은 매우 탁월하다. 수정이나 마노 및 유리 등 여러 종류의 보석을 섬세하게 다룬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보석세공품으로서 복식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특히 김해 지역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는 하나의 고분에서 수정제 곡옥 147점이 한꺼번에 출토되었다는 점의 유례가 없는 사례이다. 이처럼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와 유물의 내역이 분명할 뿐 아니라 수정제 곡옥이나 대형 유리제 곡옥이 한꺼번에 발견된 희귀한 사례로서, 수정을 정교하게 가공하는 기술과 다채로운 색채와 질감이 조화를 이룬 조형의식이 돋보여 당시 복식 문화의 세련된 수준을 엿볼 수 있어 3세기 금관가야의 지배층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귀중한 장신구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 1)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대성동322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출토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 고분에서 한대의 명문이 새겨진 청동정이 같이 출토된바 있다.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환옥, 유리제 곡옥과 소형의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이다. 출토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제 곡옥이 중심이 된 수정목걸이와 소형유리구슬로 이루어진 유리구슬 목걸이로 관리하고 있다.
- 2) 전체구성은 유리제 곡옥 1점을 중심으로 수정제 곡옥 146점, 수정제 다면옥 2점, 마노제 환옥 6점으로 된 수정목걸이와 소형 유리구슬 418점으로 구성된 유리구슬 목걸이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에 짙은 남색의 유리제 곡옥을 중심으로 마노제 환옥, 수정제 곡옥을 배치하고, 수정제다면옥을 중간에 배치하고 있다. 별도로 관리하는 소형유리구슬418점으로 구성된 유리구슬목걸이는 파란색을 띠고 있다.
- 3) 목걸이의 규모는 전체 연결 길이가 164cm(수정목걸이 99.1cm+유리구슬목걸이 64.7cm)이며, 각 부분의 규모는 중앙 유리곡옥-0.47×0.16cm, 수정다면옥-0.27cm×0.40cm, 마노환옥-0.13×0.11cm, 수정곡옥-0.14×0.05cm, 소형유리구슬-0.23×0.18cm.(각 부분 대표적인 구슬만 측정함).

- 4) 전체적으로 화려한 목걸이로써, 투명한 수정곡옥과 붉은색의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곡옥의 조화가 뛰어나며, 세공 솜씨 또한 우수한 가야목걸이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 5) 따라서 이 목걸이는 출토지가 명확하고 예술적으로도 매우 우수하고 아름다운 형태이며, 가야를 대표할 만한 장신구로써, 국가지정유물(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일괄품은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로 제작된 수정제 곡옥 147점과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 그리고 마노 환옥 6점, 대형의 유리질 곡옥 1점, 소형 유리 환옥 418점 등 총 57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슬 목걸이는 마노, 수정, 유리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3세기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위세품으로서, 가야시대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공예품이다. 김해 지역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제 곡옥이 최대 수량으로 출토되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예에 속한다. 이 목걸이는 전반적으로 다채로운 색채와 뛰어난 수정의 조형성이 강조된 공예품으로, 수정제 곡옥들의 마연 상태나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양식과 품질을 보여주는 이 목걸이는 3세기 금관가야의 지배계층에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장신구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로 제작된 수정제 곡옥 146점과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 그리고 마노 환옥 6점, 대형 유리제 곡옥 1점 등으로 이루어진 3세기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위세품으로서, 가야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지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처럼 다량의 수정제 곡옥과 대형 유리제 곡옥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드문 편이다. 이 목걸이는 수정을 다면옥과 곡옥 형태로 가공해서 만든 가야의 목걸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수정제 곡옥을 포함한 뛰어난 작품으로 우수한 보석 세공 솜씨와 세련된 색상 배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목걸이로서,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형 식 :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유리 곡옥 1점과 마노 환옥



6점, 맑고 투명한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과 수정제 곡옥 147점 및 소형의 유리 환옥 418점으로 총 57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걸이는 특히 단단하면서도 투명한 무색의 수정으로 비교적 크기가 큰 다면옥 2점과 147점의 곡옥의 숫자가 가장 많이 출토되어 수정 목걸이의 길이가 99.1cm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322호분은 장방형의 3세기 경의 토광목곽묘이며, 중국 한대 양식을 따르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세 발 술과 공반 출토되어 3세기 금관가야의 작품으로 비정된다.

○ 목걸이 발굴 현황



김해 양동리 제322호분 발굴 당시

양동리 제322호분 목걸이 출토 위치

김해 양동리 고분군은 김해시 영동리 산3번지 일대의 가곡마을 뒤 야산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1970년대에 마형검과두식과 사신박국경을 비롯한 일군의 유물이 발굴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 대한 발굴 조사는 1984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하여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5차례 발굴을 하였고, 국립김해박물관과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의 공동조사가 1차례 있었으며,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8차례의 발굴이 이뤄졌다.

1993년 9월 20일부터 1994년 5월 5일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는 김해 양동리 유적에 대한 3차 발굴을 시행하였다. 당시 발굴된 김해 양동리 322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로서, 인근에 있는 316호, 323, 324호분과 중복된 상태이다. 이로 미



김해 양동리 제322호분 공반 출토 유물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청동 세발 솥



김해 양동리 322호분 목걸이 출토 상태

루어 322호분은 316호보다 먼저 조성되었고, 323호와 324호보다는 나중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분의 형식은 대체로 3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굴 당시에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자세한 현황을 알기 어려웠다.

최근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으나 보고서는 몇 컷의 사진자료와 출토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출토 유물은 매우 간략해서 유물의 구체적인 출토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크고 작은 다수의 구슬들이 출토되었다. 더욱이 147점의 수정제 곡옥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단일 고분에서 출토된 곡옥의 사례로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서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 목걸이의 내용 및 특징

1) 재료와 수량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과 마노 및 유리로 제작되어 있으며, 색상

은 유리제는 파란색이고, 마노는 붉은색이며, 수정제는 무색 투명하다. 크기가 다른 수정제 곡옥 147점, 수정제 다면옥 2점, 마노제 환옥 6점, 유리제 곡옥 1점, 소형 유리 환옥 418점 등 총 57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연결하면 수정제 목걸이는 99.1cm, 유리 환옥 목걸이는 64.7cm로서 최대로 연장한 총길이는 164cm이다.

수정은 경도가 7로서 여러 종류의 보석 중에서도 매우 단단한 광물질이어서, 이것을 가공하려면 철제 공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정제 구슬이나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어 위세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보석이다. 가야 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 일대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322호분 출토품과 같이 품질 좋은 수정제 곡옥들이 백여점 이상 한꺼번에 발견된 예는 매우 드물다. 유리 구슬들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수량과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정제 목걸이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양식과 세공 기술을 가진 장신구 제작과 사용 문화가 3세기 김해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정은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지금까지 자수정이 산출됐다는 기록도 있고, 우리나라가 자수정의 산지라는 실제 울주군 언양읍 작패천이나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등의 광산에서 수정옥을 채취했다는 사례도 있으며. 전남 보성 도안리 석평 유적에서는 수정제 구슬을 제작한 유적이 발견되었다. 또 최근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도 수정 원석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어 김해 양동리 출토 수정은 국내산 원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재료별 크기와 내용

발굴 당시 흩어져 있던 보석류를 보관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목걸이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그중 중앙에 배치한 유리질 곡옥의 경우 길이 47.1mm에 두께 16.6mm이며 불빛에 빛나는 파란색을 띄고 있다. 그 좌우에는 마노 환옥 3개를 좌우에 배치하고 있다. 크기에 따라 가장 큰 것은 높이 11.8mm, 최대 지름 13.4mm이고, 중간 크기의 것은 높이 9.0mm, 최대 지름 11.8mm이며, 작은 것은 높이 4.9mm에 최대 지름 6.5mm이다.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정으로 만든 148점의 곡옥이 하나의 고분에서 출토된 점이다. 수정(水晶, rock crystal)은 산화규소(SiO_2)를 주성분으로 한 석영질의 광물질이다. 무색 투명하면서도 강도가 높아 고급 장신구로 주로 사용된 것이다. 그동안 가야 고분을 비롯하여 신라 고분이나 백제 고분에서 다수의 목걸이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이렇게 다량의 수정제 곡옥이 사용되어 출토된 사례가 없어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현지 조사 당시 수정제 곡옥 2점을 실측하였는데, 그 길이는 14.7-16.4mm에 해당되었고, 두께는 5-6.6mm 정도였다.



수정제 곡옥과 다면옥의 구성 사례

한편 김해 양동리 322호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정제로 만든 다면옥 2점이다. 둘 중 큰 것은 높이 27.9mm에 최대 폭 40.2mm이고, 그보다 조금 작은 것은 높이 21.8mm에 최대 폭 41.0mm이다. 지름 4cm, 두께 2.5cm 정도의 수정 다면옥은 국내에서 출토 발견된 것 중에서 매우 큰 사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정제 곡옥들은 표면의 상태가 매끈하고 투명도가 높으며 조각도 정교하여 뛰어난 가야 옥석 공예의 조형성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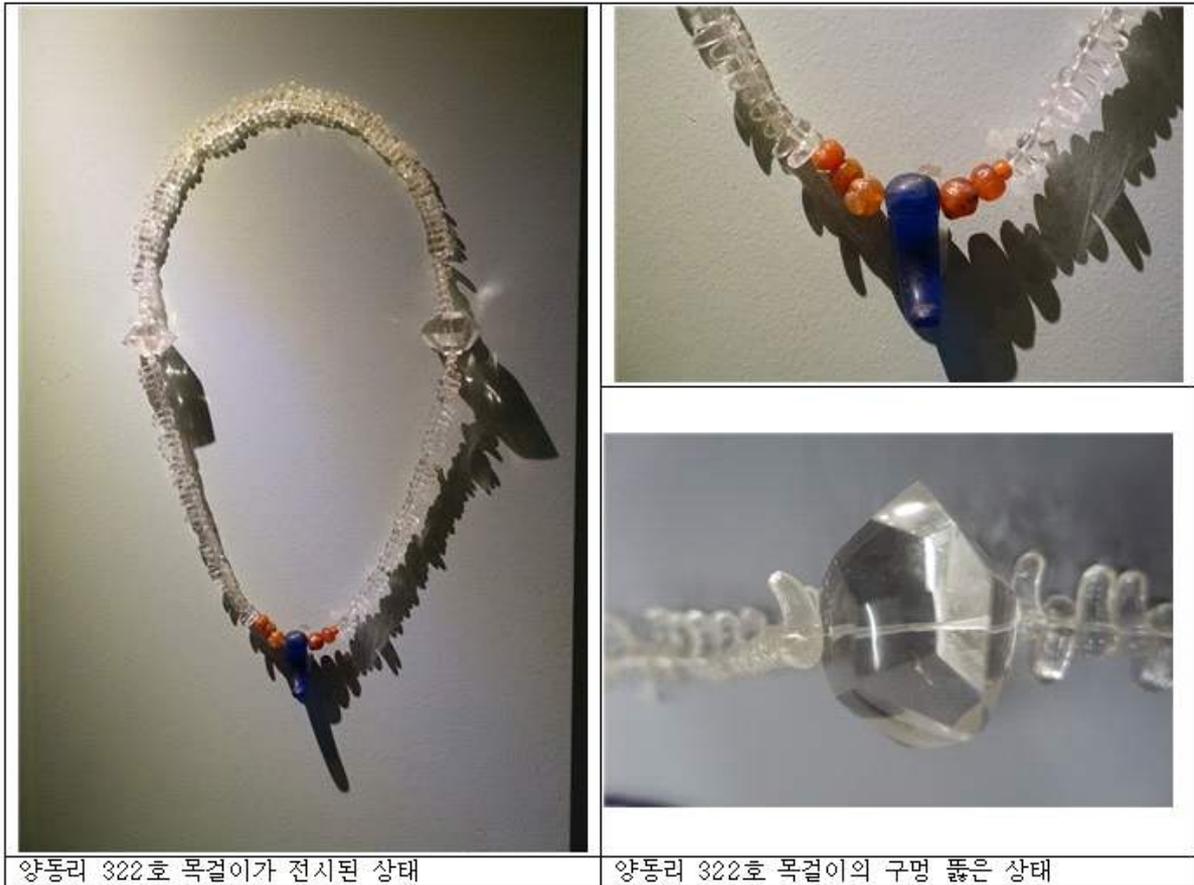


특히 수정제의 크기가 크고 두꺼운 다면체 옥의 경우 구멍을 뚫을 때 상하 2군데에서 각각 뚫어 중앙에서 일치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구멍이 시작되는 입구 쪽은 구멍이 큰데 비해 양쪽의 구멍이 만나는 가운데 부분은 굵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곡옥이나 환옥처럼 그다지 두께가 두껍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두께의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밖에 이러한 수정제 곡옥과 다면옥 이외에 소형의 유리도 다수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리로 만든 환옥은 파란색이며, 높이 1.8mm에 지름 2.3mm이며, 총 418점이다. 이것들은 크기가 크고 알이 굵은 수정제 곡옥이나 다면옥 목걸이와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3) 수정제 목걸이의 양식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목걸이 중에서도 우수한 수준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출토된 수정제 장신구들은 한반도 서북부지역, 서남부지역, 동남부지역 등 세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기원후 3-4세기경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수정목걸이들은 삼국시대 이후 그 수가 줄어든다.



양동리 322호 목걸이가 전시된 상태

양동리 322호 목걸이의 구멍 뚫은 상태

○ 문헌자료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의 기록을 보면, “구슬(瓔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 사람들이 구슬[瓔珠]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기 타

1990년대 발굴된 이후로 내내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에 귀속되었고, 현재에는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보관 및 전시 중이다.

○ 참고문헌

- 국립김해박물관,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2012..
-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2018.
- 동의대학교박물관, 『金海良洞里古墳文化』, 2000.

동의대학교박물관, 『金海良洞里古墳群』Ⅲ, 2019.

박홍국, 「옥류(玉類) 원석 탐사」, 『야외고고학』 33, 2018.

복천박물관,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복천박물관, 2013.

□

○ 현 상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유리제곡옥, 마노제 환옥, 소형유리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로 곡옥, 수정, 마노로 구성된 큰 목걸이와 소형 유리구슬로만 연결된 형태로 짝어 관리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322호분에서 출토된 것이나 출토상태가 명확하지 않다. 146점의 수정제 곡옥과 2개의 대형 수정제 다면옥, 그리고 마노제 환옥, 파란색 유리 곡옥 및 다수의 소형 유리 환옥으로 구성된 목걸이이다. 전체구성은 중앙에 짙은 남색의 유리제 곡옥을 중심으로 마노제 환옥, 수정제 곡옥을 배치하고, 수정제다면옥을 중간에 배치하고 있다. 별도로 관리하는 소형유리구슬418점으로 구성된 유리구슬목걸이는 파란색을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목걸이로써, 투명한 수정곡옥과 붉은색의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곡옥의 조화가 뛰어나며, 세공 솜씨 또한 우수한 가야목걸이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 문헌자료

東義大學校博物館, 2019, 『金海良洞里古墳群 Ⅲ』.

□

○ 형 식

다수의 수정제 곡옥과 2개의 대형 수정제 다면옥, 그리고 마노제 환옥, 파란색 유리질 곡옥 및 다수의 소형 유리 환옥으로 구성된 목걸이이다(그림 1, 2). 김해 양동리 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수정제 곡옥의 양이 가장 많은 예로서 중요하다. 또한 수정제 다면옥도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들 중에서는 그 크기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여 매우 진귀한 목걸이 형식에 속한다.

수정(水晶, rock crystal)은 산화규소(SiO₂)를 주성분으로 한 석영질의 광물질로, 옛날부터 무색투명하고 강도가 높아서 꾸준히 값비싼 고급 장신구의 재질로 사용되는 보석의 일종이다. 한반도에서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김해 양동리 지역에서 출토된 수정

제 목걸이들은 이러한 초기 수정제 장신구들 중에서 가장 발달된 목걸이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현존하는 한반도 출토 고대 수정제 장신구들은 한반도 서북부지역, 서남부지역, 동남부지역 등 세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현존하는 가장 이른 수정제 장신구는 전북 전주 원장동 G유적 초기철기시대 1호 토광목관묘에서 출토된 수정제 환옥이 있다. 또한 김해 농소리에서는 수정 원석을 가공했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해서, 김해 지역에 수정 제작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³³⁾ 초기철기시대부터 애용되었던 각종 수정제 구슬을 이용한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후 3-4세기경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형태의 수정제 목걸이들은 삼국시대 이후에는 그 수가 줄어든다. 그러나 통일신라



그림 1. 양동리 322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동의대학교박물관 소재.



그림 2. 양동리 322호분 출토 수정 및 유리목걸이.

33) 양아림, 2019, 「한반도 출토 수정제 장신구와 김해 양동리 고분군」, 『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 · 동의대학교박물관, pp. 3-6.

시대의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에서는 전통적인 수정구슬 제작기법을 따라 제작된 수정제 사리병이 확인되고 있으며(그림 3),³⁴⁾ 이러한 수정제 사리장엄구는 고려시대까지 계속 제작되었다. 이러한 수정제 장신구나 사리장엄구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사용되었으므로(그림 4), 수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보석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애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수정제 사리병.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통일신라 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 수정제 귀걸이. 서울 은평뉴타운 제2지구C공구 체육시설부지내 유적 출토.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5. 양동리 322호분 목걸이 출토상태.

김해 양동리 322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는 출토 당시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색의 작은 파란색 유리 구슬들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그림 5),³⁵⁾ 양동리의 다른 고분들과 마찬가지로 유리 구슬 목걸이와 수정 목걸이를 함께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유리와 수정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는 다소 모호한 상태이며, 지금은 유리와 수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

34) 주경미, 2019, 「신라 사리장엄구와 중국 불교문화의 상관성 연구」, 『불교학연구』 61, pp. 223-224.

35) 東義大學校博物館, 2019, 『金海良洞里古墳群 I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201, 도판 29-⑤.

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리구슬은 대부분 이 시기에 흔히 보이는 균청색 계통의 둥글고 작은 구슬들이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322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로서, 인근의 316호, 323, 324호분과 중복된 상태인데, 316호보다는 먼저 조성되었고, 323호와 324호보다는 나중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22호분에서는 중국 한대 양식을 따르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정(靑銅鼎, 그림 6)이 함께 출토되었으나, 고분의 형식은 대체로 3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목걸이도 역시 3세기 경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6. 명문 청동정. 양동리 322호분 출토.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 현 상

이 수정제 목걸이는 1993년 9월 20일부터 1994년 5월 5일까지 진행된 동의대학교 박물관의 제 3차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최근 발굴조사 보고서가 간행되기는 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소략하여 구체적인 출토 상태는 다소 모호하다. 다만 피장자의 상반신 부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정과 유리 구슬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목걸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7). 이 목걸이에 포함된 수정제 곡옥은 총 147개나 되어, 현재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예 중에서는 한꺼번에 가장 많은 수정제 곡옥이 출토된 최대 규모의 예로서 주목된다. 또한 함께 발견된 2점의 수정제 다면옥도 상당히 크고 세공 솜씨가 우수한 편으로 중요하다.

이 목걸이는 현재 크기가 다른 수정제 곡옥 146점, 수정제 다면옥 2점, 유리질 곡옥 1점, 마노제 환옥 6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보관되는 4백여개의 유리 환옥으로 목걸이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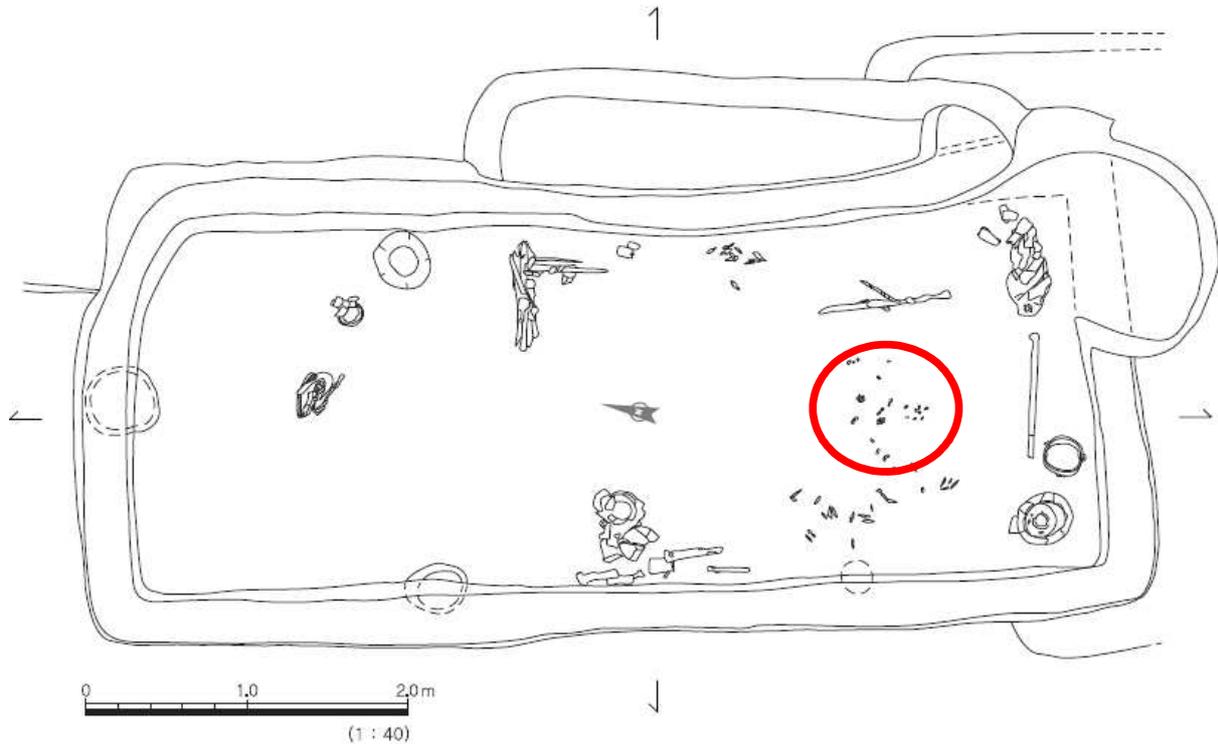


그림 7. 김해 양동리 322호분 유물 배치도. (붉은선 부분이 목걸이 출토 위치) 동의대학교박물관.

중앙의 유리질 곡옥은 주조기법으로 제작한 유리 곡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곡옥의 경우에는 표면에 어자문정과 비슷한 C자형 정으로 친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고, 곡옥의 구멍도 뾰족한 천공구를 이용하여 파낸 흔적이 확인되어(그림 8), 주조한 유리 구슬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 최근 이 구슬보다는 조금 색이 옅긴 하지만 낙랑시대의 평양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비슷한 성격의 구슬은 유리질 광물로 판단되었던 예가 있으므로,³⁶⁾ 이 유리질 곡옥의 재질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유리질 곡옥의 표면에 찍힌 C자형 정의 흔적은 함께 발견된 수정제 다면옥의 표면에서도 확인되므로(그림 10), 고대 보석 세공 기법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유리질 광물질이나 수정과 같은 고대의 보석 세공기법에 대해서는 지금

36) 국립중앙박물관, 2018, 『平壤 石巖里 9號墳』, 국립중앙박물관, pp. 414-415; 482-483.



그림 10. 수정제 다면옥의 표면 세부.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동의대학교박물관.

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으로 연구 및 조사될 필요가 있다. 수정제 다면옥들은 가운데 구멍의 상태로 볼 때, 양쪽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서 연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수정제 곡옥들은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수정 곡옥들의 조각 상태와 표면 광택 마연 상태는 매우 정교하고

투명도가 높고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수정 곡옥 중에는 마연이 마무리되지 않은 면들이 드물게 확인되기도 한다. 이 수정제 구슬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뛰어난 조형양식과 세공 솜씨를 보여주는 한국 고대의 뛰어난 보석세공품으로서 주목된다.

○ 내용 및 특징

무색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각종 구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기 시작한 장신구의 일종이다. 경도가 7인 수정은 여러 종류의 보석 중에서도 상당히 단단한 광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제 공구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수정제 구슬 및 각종 장신구들은 철기시대의 중요한 위세품으로 알려져 있다. 가야 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 일대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322호분 출토품과 같이 품질 좋은 수정제 곡옥들이 백여점 이상 한꺼번에 발견된 예는 매우 드물다. 아쉽게도 유리 구슬들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수량과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정제 목걸이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양식과 세공 기술을 가진 장신구 제작과 사용 문화가 3세기 김해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보석들과는 달리 수정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산출되었다는 기록과 실제 광석 채취 사례 등이 알려져 있다.³⁷⁾ 그러므로 이러한 수정제 구슬들의 제작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자체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수정제 장신구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37) 최근 국내의 옥류 원석 조사 연구에 의하면, 국내산 자수정과 무색투명 등이 있는데, 울주군 언양읍 작괘천,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등에 원석 채집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홍국, 2018, 「옥류(玉類) 원석 탐사」, 『야의고고학』 33, p. 99 <표 1>의 6번 수정 항목 참조.

없지만, 전남 보성 도안리 석평 유적에서 수정제 구슬 제작 관련 유적이 발견된바 있으며, 최근 김해 양동리 고분군 인근에 있는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도 수정 원석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었다.³⁸⁾ 이러한 예들로 보아, 이 수정제 구슬들은 김해 인근 지역이거나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제작되어 가야의 지배계층들에게 애호되었던 3세기경의 중요한 위세품으로 볼 수 있다.

○ 문헌자료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韓條에 의하면 당시 삼한의 사람들은 금은이나 비단보다 구슬을 귀중하게 여겨서, 몸과 의복에 드리워 장식하는 데에 썼다고 알려져 있다. 삼한시대 사람들이 영주(瓔珠), 즉 구슬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이러한 중국측 기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각종 재질의 구슬 사용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기 타

1990년대 발굴된 이후로 내내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었음. 현재는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보관 및 전시 중임.

○ 주요 도판 출판 현황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p. 71, 도 084.

북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p. 128.

東義大學校博物館, 2019, 『金海良洞里古墳群 I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322, 도판 150-③.

국립김해박물관, 2018,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p. 60. 도 85.



○ 형 식

146점의 수정제 곡옥과 2개의 대형 수정제 다면옥, 그리고 6점의 마노제 환옥, 1점의 파란색 유리 곡옥 및 다수의 소형 유리 환옥으로 구성된 목걸이이다(그림 1, 2). 김해 양동리고분군을 포함해 가야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들 중에서 수정제 곡옥의 수가 가장 많은 예이다. 또한 수정제 다면옥도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

38) 양아림, 2019, 위의 논문, pp. 13-16.

들 중에서는 그 크기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여 매우 진귀한 목걸이에 속한다.

수정(水晶, rock crystal)은 산화규소(SiO₂)를 주성분으로 한 석영질의 광물질로, 옛날부터 무색투명하고 강도가 높아서 꾸준히 값비싼 고급 장신구의 재질로 사용되는 보석의 일종이다. 한반도에서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김해 양동리 지역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들은 이러한 초기 수정제 장신구들 중에서 가장 발달된 목걸이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양동리고분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 수정 원석을 가공했던 유구에서 수정 원석과 도구들이 발견되기도 해서, 김해 지역에 수정 제작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³⁹⁾ 김해 양동리 322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는 출토 당시에 주변에서 작은 파란색 유리구슬들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정구슬과 유리구슬이 함께 나온 양동리의 고분들과 마찬가지로 유리구슬 목걸이와 수정 목걸이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발굴조사 당시의 출토 상황으로 볼 때, 유리와 수정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는 모호한 상태이며, 지금은 유리와 수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깨어져 있다. 유리구슬은 대부분 이 시기에 흔히 보이는 군청색 계통의 둥글고 작은 구슬들이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322호분은 장방형의 목곽묘로서, 제316호, 323, 324호분과 중복된 상태인데, 316호보다는 먼저 조성되었고, 323호와 324호보다는 나중에 조성되었다. 322호분에서는 중국 한대 양식을 따르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정(靑銅鼎, 그림 4)이 함께 출토되었으나, 목곽묘는 대체로 3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목걸이도 역시 3세기의 것으로 편년할 수 있다.

○ 현 상

이 목걸이는 현재 크기가 다른 수정제 곡옥 146점, 수정제 다면옥 2점, 유리제 곡옥 1점, 마노제 환옥 6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보관되는 4백여개의 유리 환옥으로 목걸이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수정 곡옥들의 제작 상태는 매우 정교하고 투명도가 높고 우수하여 전체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수정제 목걸이는 1993년 9월 20일부터 1994년 5월 5일까지 진행된 동의대학교박물관의 제 3차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의 322호분에서 출토되었다. 322호

39) 양아림, 2019, 「한반도 출토 수정제 장신구와 김해 양동리 고분군」, 『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동의대학교박물관, pp. 3-6.

분 출토 목걸이는 4백여 점의 소형 유리구슬들과 함께 다수의 수정제 구슬들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수정제 곡옥의 숫자가 146점으로 현재까지 단일 고분에서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된 예로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2점의 수정제 다면옥도 크고 세공 솜씨가 우수하다. 중앙의 유리제 곡옥은 주조기법으로 제작되었고 크다.

김해를 포함한 영남의 동남부 지역의 고분들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지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품과 같이 품질 좋은 수정제 곡옥들이 백여점 이상 한꺼번에 발견된 예는 매우 드물다. 아쉽게도 유리 구슬들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수량과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정제 목걸이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양식과 세공 기술을 가진 장신구 제작과 사용 문화가 3세기 김해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수정제 장신구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최근 김해 양동리고분군 인근에 위치한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도 수정 원석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예들로 보아, 이 수정제 구슬들은 김해 인근 지역이거나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제작되어 가야의 지배층들에게 애호되었던 중요한 장식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복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복천박물관

東義大學校博物館, 2019, 『金海良洞里古墳群 I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2018,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 기 타

1990년대 동의대학교박물관 조사에서 출토되었고,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Ⅲ.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안건번호 등산 2020-05-007

7.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昌慶宮 自擊漏) 명칭변경

가. 심의사항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의 지정명칭 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 명칭에 대한 변경 신청(‘20.7.1.) 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7.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8.13.)에서 명칭변경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예고(‘20.9.7.~10.6.)하고, 변경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해당 문화재 개요

명칭	지정사항	사진
창경궁 자격루 (昌慶宮 自擊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번호 : 국보 제229호 ○ 지정일자 : 1985. 8. 9. ○ 소유자 : 국유 ○ 관리자 : 국립고궁박물관 ○ 조성연대 : 1536년(중종 31) ○ 수 량 : 1건 5점(파수호3 및 수수호2) 	

라. 신청 내용

신청자 (신청일시)	변경신청 내용	신청사유
국립고궁박물관장 (2020. 7. 1.)	(변경전) 창경궁 자격루 (변경후) 창경궁 자격루 파수호 및 수수호	자격루를 구성하는 부재가 완전히 남아 있지 않음에도 현재 명칭으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변경 필요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현황

보루각(報漏閣) 자격루(自擊漏)는 조선 세종16년(1434년)에 만들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조선 중종 31년(1536년) 때 만든 것이다. 조선 후기까지 창경궁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덕수궁의 야외에 전시되어 왔다.

『세종실록』 속의 자격루는 크게 물의 양이나 유속 등을 조절하는 ‘수량 제어 장치’와 이를 바탕으로 시간을 알리는 ‘시보 장치’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자격루 수량 제어장치인 대파수호(大播水壺) 1점, 중파수호(中播水壺) 1점, 소파수호(小播水壺) 1점, 수수호(受水壺) 2점 등 모두 5점만 남아있다.

최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2018.8.30.~2020.3.31. 동안 창경궁 자격루에 대한 보존처리를 마쳤으며,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 지정명칭에 대한 종합 의견

조선 중종 보루각(報漏閣) 자격루(自擊漏)는 1985년 3월 국보 제229호로 지정되면서 ‘보루각 자격루(報漏閣 自擊漏)’로 명명되었으며, 2011년 현재의 명칭인 ‘창경루 자격루’로 변경되었다.

1985년 국보 지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칭이 ‘보루각 자격루’ 줄여서 ‘자격루’로 불려왔으나 현재 ‘수량 제어 장치’만 남아 있고, 시간을 알리는 ‘시보 장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격루의 완전한 구성물이 아닌 상태에서 ‘자격루’라는 명칭이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소장처에서 제시한 명칭변경 신청내용인 ‘창경궁 자격루 파수호와 수수호’는 현재 자격루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 하나 하나를 이르는 명칭이며, 더하여 파수호와 수수호라는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격루에 대한 명칭은 『세종실록』 권107, 세종 27년(1445년) 기사 및 이순지(李純之)의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 발문 기사에 ‘보루각루(報漏閣漏)’로 쓰고 있으며, 이칭으로 ‘자격궁루(自擊宮漏)’, ‘자격루(自擊漏)’, ‘금루(禁漏)’ 등이 사용되었다.

명칭 변경에서 경복궁 자격루와 구별하기 위해 창경궁 자격루 즉 창경궁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자격루’ 명칭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은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명칭에는 ‘창경궁 자격루’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창경궁 자격루의 ‘파수호와 수수호’를 지칭하는 명칭이 필

요한데, ‘누기(漏器)’는 물시계 그릇이므로 파수호와 수수호를 통칭해서 ‘누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된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이 누기에 자격장치인 시보장치가 더해지면 자격공루라고 해야 하고 이것을 공식화하면 보루각루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격루 누기라는 명칭은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를 대신할 명칭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창경궁 자격루를 촬영한 유리원판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禁漏器 금누기’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1 참조).

특이한 점은, 그동안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자격루 유리원판 사진을 보면 파수호와 수수호의 배치가 대파수호 아랫단에 중파수호와 소파수호를 2열로 나란히 두고 배치되어 있다(사진 2 참조). 이와 달리 ‘금누기 표기 자격루 사진’은 파수호와 수수호를 일직선상인 1열로 두고 배치되고, 파수호에서 수수호로 물이 흘러들어가도록 도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수호에 잣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격루의 파수호와 수수호의 정확한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열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치는 그간 창경궁 누궁과 덕수궁에 놓여있던 모습인 자격루 중파수호 소파수호가 같은 단에 나란히 2열로 배열된 상태와는 배치되는 모습으로 자격루 원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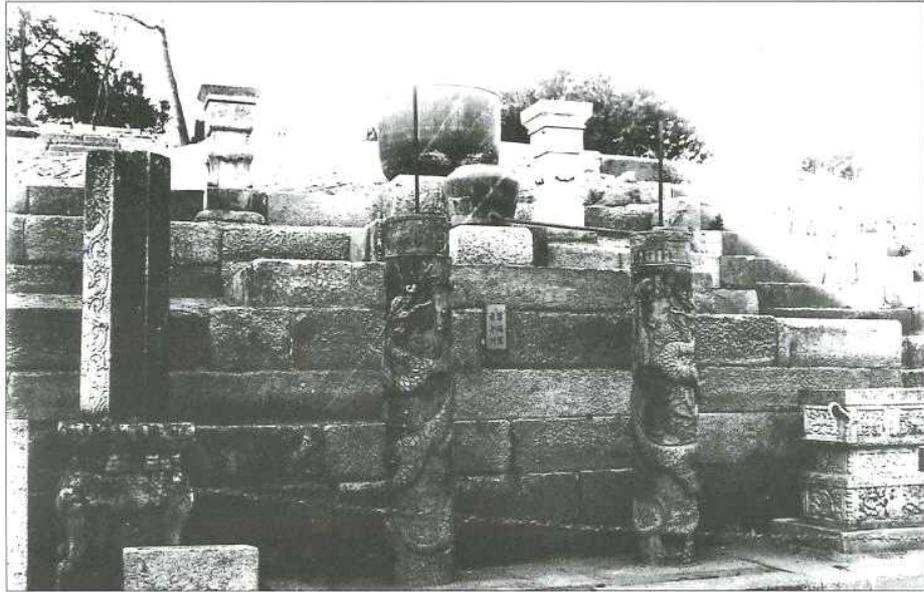
따라서 관련 문헌 및 ‘禁漏器 금누기’ 자격루의 옛 사진 속에서 확인된 용어 등을 고려하여 ‘창경궁 자격루 누기(昌慶宮 自擊漏 漏器)’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붙임. 참고 사진 1부.

[참고 사진]



자 격 루

< 사진 1 > '禁漏器 금누기' 표기 자격루



보루각 자격루(9-1)



< 사진 2 > 그간 창경궁 자격루와 덕수궁 자격루 배치 오류 모습

8.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靑陽 雲藏庵 金銅菩薩坐像) 명칭변경

가. 심의사항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의 지정명칭 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명칭에 대한 변경 신청(‘20.4.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7.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4차 회의(‘20.8.13.)에서 명칭변경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예고(‘20.9.7.~10.6.)하고, 변경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해당 문화재 개요

명칭	지정사항	사진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靑陽 雲藏庵 金銅菩薩坐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번호 : 보물 제986호 ○ 지정일자 : 1989. 4. 10.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운장암 ○ 조성연대 : 고려 후기 ○ 수 량 : 보살상 1구 	

라. 신청 내용

신청자 (신청일시)	변경신청 내용	신청사유
충청남도지사 (2020. 4. 8.)	(변경전)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변경후) 청양 운장암 금동 관음 보살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불상의 ‘중수발원문’에 ‘관음’으로 표기 • 1965년 간행 『靑陽郡誌』에 ‘관음’으로 표기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현황

- 1) 청양 운장암의 창건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조선시대 편찬된 각종 지리지에도 등장하지 않음. 다만, 조선 후기 학자인 柳振漢(1712-1791)의 『晚華集』 卷1에 운장암에 관한 詩가 한편 수록되어 있으나 동일사찰인지 불분명함.
- 2) 근대기 불교학자 權相老가(1879-1965) 편찬한 『조선사찰전서』에는 “雲藏菴 在忠淸南道靑陽郡斜陽面白華山 大本寺麻谷寺末寺”라고 기록되어 있음. 1965년에 편찬한 『청양군지』에는 운장암을 일명사지에 근래 재건한 암자로 소개하면서 중요 유물로 “金銅觀音菩薩坐像”을 수록하고 있음.
- 3) 1970년대 중반 금동보살좌상의 복장유물에 대한 도난사건이 있었다고 하며, 그때 수습한 일부의 복장유물이 현전하고 있음. 복장유물 중에는 元 大德9年(1305) 刊記가 있는 『금강경』을 비롯하여, 조선 전기의 『수능엄경』(天順6年, 1462年刊), 묘법연화경(嘉靖7年, 1528年刊)과 조선 후기의 주서다라니, 탑다라니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1610년 보살상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觀音重修發願文’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 자료를 통해 이 보살좌상은 고려 후기(14세기) 조성된 이래 몇 차례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4) 현재 이 금동보살좌상은 운장암의 주불전인 관음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음.
- 5)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재 공식적인 지정 명칭은 ‘금동보살좌상’이지만, 보물로 지정된 이후 과학조사를 거쳐 ‘청양 운장암 철보살좌상’에서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으로 명칭 변경된 이력이 있음.

○ 명칭 관련 종합 의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에서 ‘금동보살좌상’에서 ‘금동관음보살’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첫째, 1965년 청양군지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사찰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음보살로 신앙되어 왔고 청양군에서도 관음보살로 파악하고 있었음.

둘째, 권상로의 조선사찰전서에서 기록한바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산 이름이 白華山으로, 백화산은 곧 관음보살이 머무는 백화도량을 의미하므로 이 관음보살상의 조성과의 연관이 큰 山名으로 생각됨.

셋째, 복장에서 수습된 중수발원문에도 ‘觀音重修發願文’이라고 하여 중수 주체(觀音)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넷째, 이 보살상은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려 설법인을 짓고 있는데. 이러한 도상적 특징은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조성된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양양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등 유사시기 존명이 확실한 관음보살좌상과 같은 도상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상과 같이 현재의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에서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로 명칭변경을 하여 존상이 갖고 있는 본래의 신앙과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붙임. 참고자료 1부.

[참고 1] 중수발원문(16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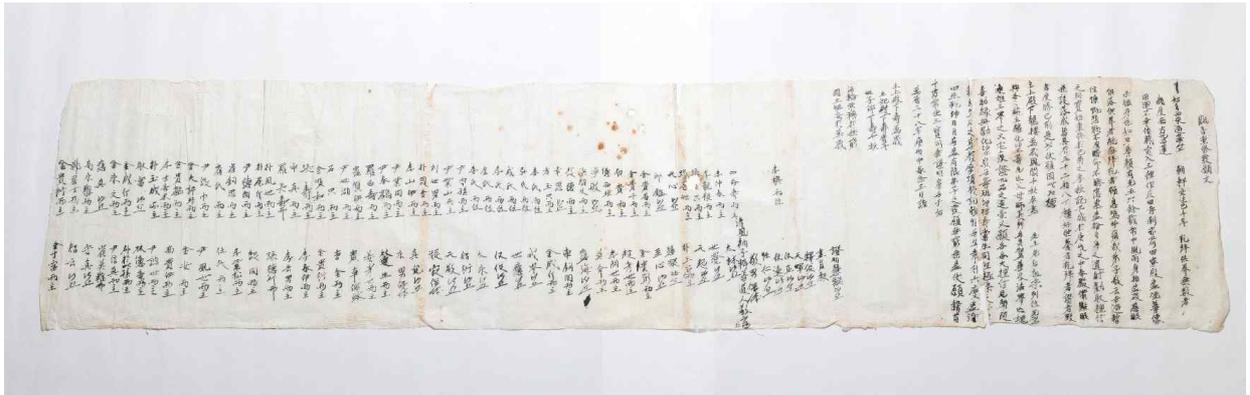


그림 87. 중수발원문(전체), 16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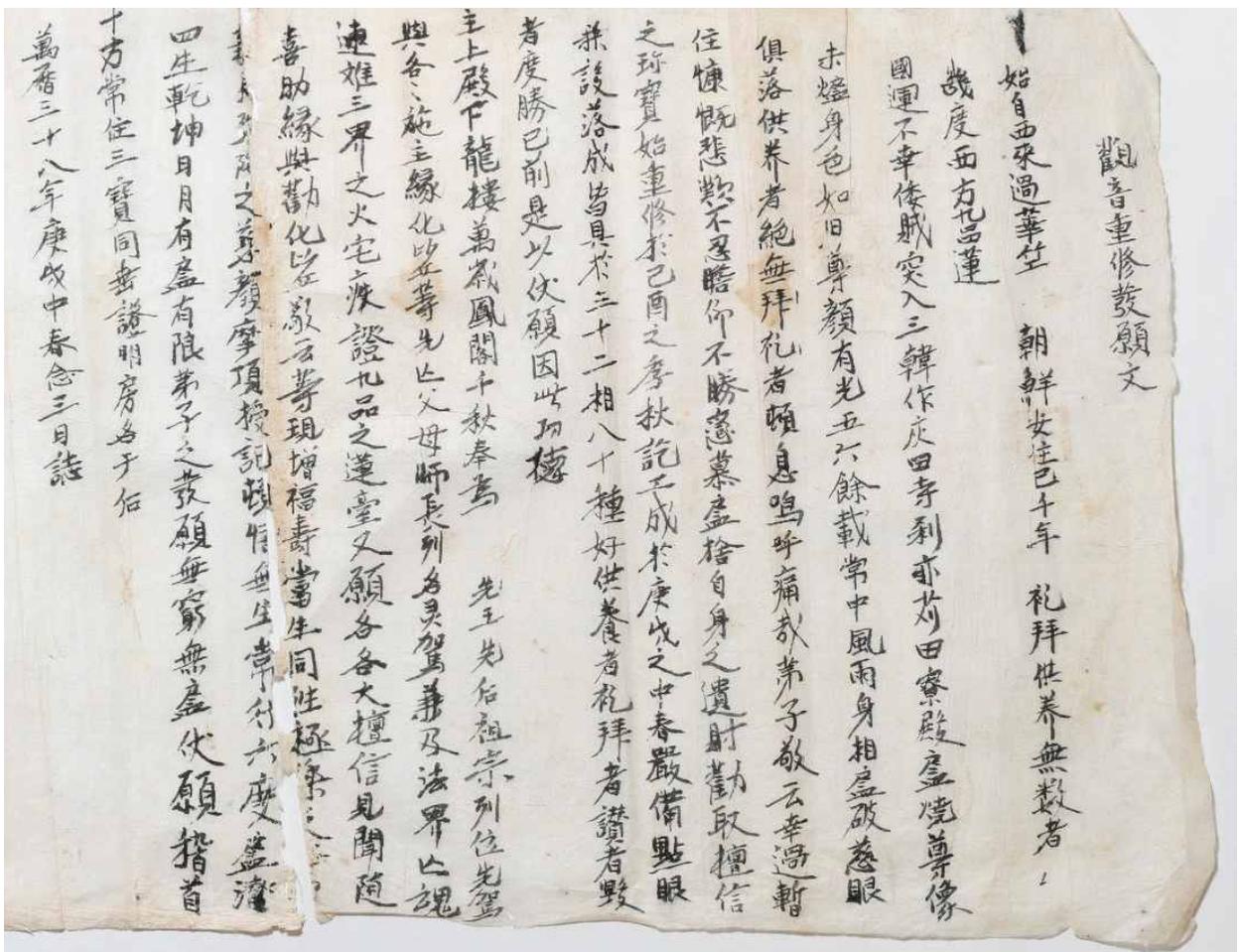


그림 88. 중수발원문 세부

[참고 2] 중수발원문(1610년) 번역문

원문	한글 번역	비고
始自西來過華竺 朝鮮安住已千年 禮拜供養無數者 幾度西方九品蓮	처음 서쪽 인도에서 나와 중국을 지나 조선에 안주한 지 이미 천 년일세 예배하고 공양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 얼마나 서방정도 구품연대에 올랐나.	
國運不幸, 倭賊突入, 三韓作灰, 舊寺刹亦, 荷田寮殿盡燒, 尊像未 燼, 身色如舊, 尊顏有 光, 五六餘載, 常中風 雨, 身相盡破, 慈眼俱 落, 供養者絕無, 禮拜 者頓息, 嗚呼痛哉!	국운이 불행해지고 왜적이 갑자기 침입하여 삼한 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옛 사찰도 연밭과 요사채와 전각이 모두 불탔으나 존상만은 타지 않고 신색이 옛날과 같으며 존안에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여 섯 해 동안 비바람 속에 방치되어 신상이 모두 깨 지고 자비로운 눈동자도 함께 떨어져 나가서 공양 하는 사람도 짝 없어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딱 끊 어지니, 아아, 슬픕니다!	

원문	한글 번역	비고
弟子敬云, 幸過暫住, 慷 慨悲歎, 不忍瞻仰, 不勝 戀慕, 盡捨自身之遺財, 勸取檀信之珍寶, 始重修 於己酉之季秋, 訖工成於 庚戌之中 ¹⁾ 春, 嚴備點眼, 兼設落成, 皆具於三十二 相八十種好, 供養者, 禮 拜者, 讚者, 致者, 度勝 以前, 是以, 伏願, 因此 功德,	제자 경운이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다가 잠시 머 물렀는데, 울분이 끊어올라 슬피 탄식하며 차마 우 러러볼 수도 없었고 그렇고 사모하는 심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희사하고 단월과 신도의 보물을 가져오도록 권하 여, 기유년(1609) 9월에 중수를 시작하여 경술년 (1610) 2월에 공역을 끝마쳤습니다. 엄숙히 점안 식을 준비하고 아울러 낙성식을 베푸니, 32상과 80중호가 모두 갖추어져서 공양하는 사람, 예배하 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치성드리는 사람들이 그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仲의 오자이다.
主上殿下, 龍樓萬歲, 鳳 閣千秋, 奉爲先王先后, 祖宗列位先駕, 與各各施 主緣化比丘等, 先亡父母 師長, 列名靈駕, 兼及法 界亡魂, 遭難三界之火 宅, 疾證九品之蓮臺,	그래서, 엿드려 바라건대, 이 공덕으로 인하여 주상전하께서는 만세를 누리시고, 세자저하는 천세 를 누리시며, 선왕과 선후, 조종의 열위 선가와, 각각의 시주 모연 화주한 비구 등의 먼저 돌아가 신 부모와 스승의 열명 영가와 아울러 법계의 죽 은 영혼, 삼계의 화택에서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구품의 연대를 빨리 증득하게 하시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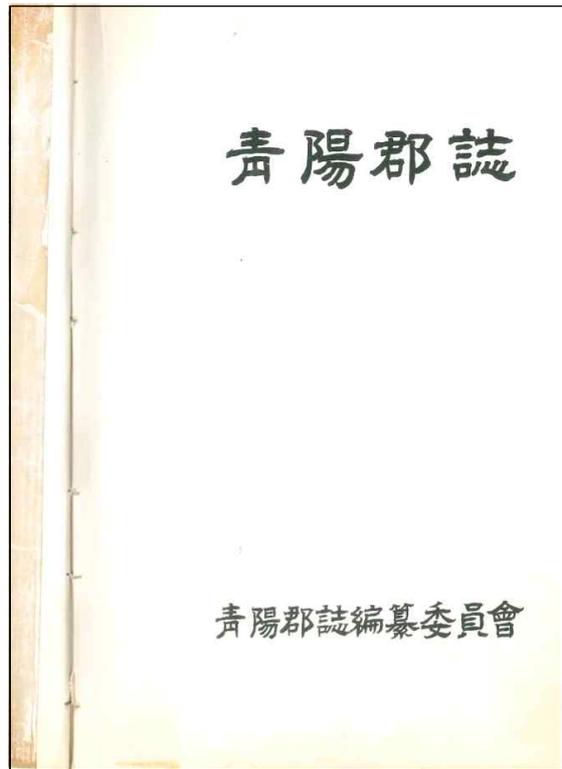
<p>又願，各各大檀信，見聞隨喜，助緣與勸化，比丘敬云等，現增福壽，當生同往極樂之(淨土)，親見彌陀之慈顏，摩頂授記，頓悟無生，常行六度，盡渡四生，乾坤日月，有盡有限，弟子之發願，無窮無盡，伏願，稽首十方常住三寶，同垂證明房名于后。 萬曆 三十八年 庚戌 中 3)春 念三日 誌</p>	<p>또 바라건대, 각각의 큰 단월과 신도들이 보고 들으며 모두 기뻐하고, 모연을 돕고 화주를 권한 비구 경운 등의 현세 복과 수명이 늘어나고, 마땅히 극락정토에 함께 가서 태어나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얼굴을 뵈옵고 마정수기를 받으며, 단박에 깨달아 생사를 없애고 항상 욕도를 실천하며, 네 가지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천지와 일월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으나 제자의 발원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사오니, 앞드려 바라옵건대,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삼보께 머리 숙이옵고, 증명(證明)과 방명(房名)이 모두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라옵니다. 만력 38년 경술 2월 23일에 적다.</p>	<p>3) 仲의 오자이다.</p>
---	--	--------------------

원문	한글 번역	비고
<p>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法輪常轉於無窮 國土恒安於萬歲</p>	<p>주상전하께서는 만세를 누리시며 왕비전하께서는 그와 같은 수명을 누리시며 세자저하께서는 천세를 누리소서 법의 수레바퀴는 항상 무궁하게 돌아가고 국토는 만세에 언제나 편안하소서</p>	

원문	한글 번역
<p>李穰 兩位 嚴命壽兩主 李仲春兩主 李龍福兩主 張□ 只兩主 張芾世兩主 无心比丘 印鑑比丘 金貴番兩主 金貴千兩主 南貴兩主 億西非兩主 淨敏比丘 梁閔失 兩主 懿德兩主 幸思比丘 香玉只兩主 李氏兩位 張氏 兩位 成氏兩位 李氏兩位 金氏兩位 尹內乙孫兩主 尹 業山兩主 劉世男兩主 朴恩金兩主 李山伊兩主 尹業 同兩主 尹奉鶴兩主 羅白壽兩主 崔順伊兩主 尹世湖 兩主 石只兩主 金順和兩主 張壽兩主 申眞兩主 羅長 壽兩主 朴風世兩主 朴芾斤兩主 尹德閑兩主 崔釗忠 兩主 崔氏兩主 隄巾兩主 金夫許非兩主 金貴鶴兩主 李古音米兩主 朴玉成兩主 取富比丘 金成斤兩主 金 永文兩主 應眞比丘 高永鶴兩主 鄭居士兩主 金貴衍 兩主 太林比丘 世澄比丘 天起比丘 朴玉石兩主 慧凝 比丘 至心比丘 金貴弼兩主 趙彥世兩主 李閑世兩主 莫介兩主 應海比丘 車釗同兩主 金成斤兩主 戒岑比 丘 世應比丘 僅俊比丘 太永比丘 智行比丘 天敬比丘 凝寂保體 眞覺比丘 永男保體 林□生兩主 姜彥兩 主 貴卓保體 曹金兩主 金貴衍兩主 李春伊兩主 李去</p>	<p>이익양위 엄명수양주 이중춘양주 이용복양주 장□지양 주 윤돌세양주 무심비구 인감비구 김귀반양주 김 남귀 양주 억서비양주 정민비구 양윤화양주 엇덕양주 행사 비구 향옥지양주 이씨양위 장씨양위 성씨양위 이씨양 위 김씨양위 윤넬순양주 윤업산양주 박세남양주 박은 규 양주 이산이양주 윤업동양주 윤봉학양주 라백수양 주 최순이양주 윤세호양주 석지양주 김순화양주 장수 양주 신진양주 라장수양주 박풍세양주 박돌근양주 윤 덕한양주 최쇠충양주 최씨양주 윤곳건양주 김부허비양 주 김귀학 양주 이곰미양주 박옥성양주 취부비구 김성 근양주 김영문양주 응진비구 고영학양주 정거사양주 김귀연양주 태림비구 세경비구 천기비구 박옥석양주 혜응비구 지심 비구 김귀필양주 초연세양주 이한세양 주 막계양주 응해 비구 차쇠동양주 김성근양주 계잠비 구 세응비구 근준 비구 태영비구 지행비구 천경비구 응적보체 진각비구 영남보체 임□생양주 강연세양주 귀탁보체 조짐양주 김귀연양주 이훈이양주 이거남양주</p>

<p>男兩主 張德竹兩主 靛同兩主 李業松兩主 任氏兩主 尹風世兩主 金安兩主 南貴伊兩主 尹訥世兩主 林億 龜兩主 朴齡孫兩主 尹信眞兩主 崔莫難兩主 守眞比 丘 智云比丘 金丁富兩主 證明慧凝比丘 畫員秩 釋俊比丘 天暉比丘 僅正比丘 休逸比丘 性仁比丘 敬 男保體 淸風衲子幹善道人敬云書</p>	<p>장덕대양주 갓동양주 이업송양주 임씨양주 윤희세양주 김안양주 남귀이양주 윤눌세양주 임억구양주 박엇손양 주 윤신진양주 최막난 양주 수진비구 지운비구 김정부 양주 증명 혜응 비구 화원 명단 석준비구 천휘비구 근정비구 휴일비구 성인비구 경남 보체 淸풍납자 간선도인 경운비구 쓰다.</p>
---	---

[참고 2] 청양군지(1965년) 해당 부분



— 420 — 名勝古蹟

長谷寺	1.鐵造藥師如來座像. 2.鐵造毘盧舍那佛座像. 3.金銅藥師如來座像. 4.上大雄殿. 5.下大雄殿 (以上指定文化財) 1.鐵造如來座像. 2.爐殿. 3.雲鶴樓. 4.蓮花紋磚. 5.石塔破片. 6.石燈破片. 7.座臺破片 (以上重要遺物)	新羅統一時代	大峙面長谷里七甲山
梧桐寺		李朝末	定山面西亭里梧桐山
鷄鳳寺	三層石塔一基(再建)	鷄鳳寺址에 近來再建함	定山面鷄鳳山
定慧寺	金銅佛像	定慧寺址에 近來再建함	赤谷面花山里七甲山
雲藏庵	金銅觀音菩薩座像	逸名寺址에 近來再建함 庵子	斜陽面溫岩里
華藏寺		和鼎寺址에 1959년에再建	斜陽面新旺里
圓覺寺			化城面九在里
文博寺		李朝末	飛鳳面中黑里

검 토 사 항

IV.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5-009

9.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耆社契帖)

가. 검토사항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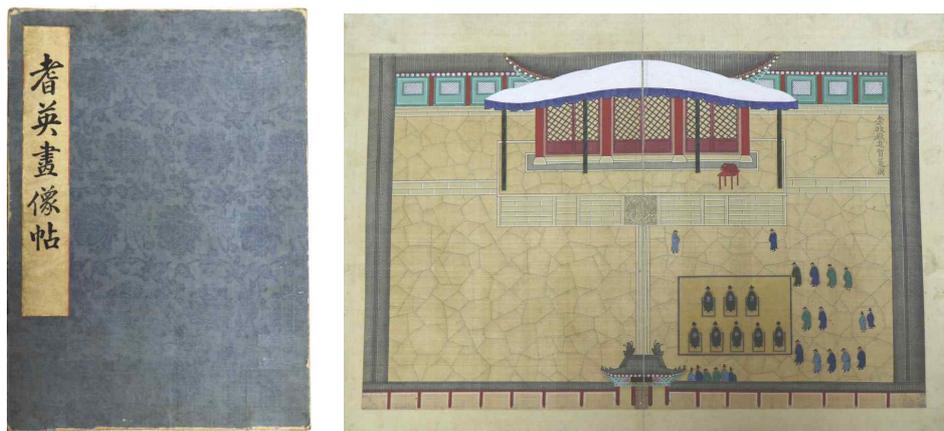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2017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17.5.2.)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된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에 대해 관계전문가 조사('19.3.27./5.31.) 및 과학조사('19.3.27./5.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제2차 회의('20.4.13.) 검토사항으로 부의했으나, 역사 및 서예 분야 보완조사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관계전문가 보완조사('20.7.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재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639호(1978.12.7.)
- 명 칭 : 기사계첩(耆社契帖)
- 소유자(관리자) : 홍**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휴대세교길 257-7(배방읍)
- 수 량 : 화첩 1첩, 내함 1점, 호갑 1점, 외케 1점
- 규 격 : 화첩 전체 53.3×37.5cm, 외케 46.5×63.3×11.5cm, 내함 41.0×56.0×5.3cm, 호갑 접은상태 59.5×57.5cm, 호갑 펼친상태 117.0×105.8cm
- 재 질 : 비단에 채색(화첩), 목재(케, 함), 호갑(직물, 종이, 가죽)

- 조성연대 : 1719~1720년(숙종 45~숙종 46)
- 제작자 : 김진여(金振汝),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許倣) 등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표지 및 송정전진하전도)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화첩 관련>

○ (지정 가치 있음)

1. 이 화첩은 1719년 숙종이 59세의 나이에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기로소에서 제작을 주관한 계첩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궁중기록화이다. 11명의 기로신에게 1본씩 반사하고 기로소에도 보관하였으므로 총 12본이 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보 제325호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하여 여러 소장본이 전한다. 《기사계첩》은 내용 면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높고 인정되며 제작 화원과 서사관 등을 알 수 있어서 17세기 전반 궁중 채색화 연구에 귀한 학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2. 조사 대상인 《기사계첩》의 그림은 사실적인 묘사와 생동감 있는 필치로 높은 화격을 보여준다. 특히 그림을 그린 화원은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들로서 기로신들의 초상화는 18세기 전반의 전형적인 화법으로 그려졌다. 또한 경현당 석연에서 차운한 기로신들의 축하시는 모두 자필로 쓰여 있어서 각자의 개성적인 서풍도 확인할 수 있다.
3. 다른 현전하는 《기사계첩》에서는 볼 수 없는 제1-2면의 “晚退堂藏”, 제53-54면의 “傳家寶藏” 글씨는 이 계첩이 1719년 당시 행사에 참여한 기로신 중의 한 사람인 홍만조의 소장품이었음을 말해준다. 원래는 공란인 상태로 제작된 것인데 나중에 집안에서 누군가가 글씨를 쓴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이 작품은 풍산홍씨 종중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작품의 전승 경위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내용

으로서 주목된다.

4. 이 계첩을 포장하고 있는 내함, 호갑, 외함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점은 희소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유물의 완전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이 내함, 호갑, 외함은 계첩과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물의 봉과(封裹) 방식을 알려주고 세부적인 공예 제작기법에 대해서도 귀한 정보를 알려준다. 마땅히 “기사계첩 및 함”으로 같이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
5. 화첩 제목의 문제이다. 겉장의 표제가 “耆英畫像帖”으로 붙어 있지만 기사계첩의 표제는 “己亥耆社帖”(국보 제325호)이나 “耆社契帖”(이화여대박물관본, 보물 제929호) 처럼 소장처마다 다르다. 그 외의 소장본에도 표지 형식은 동일하나 표제가 “耆老所契帖”, “親臨己亥耆社契帖” 등으로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표제를 쓸 흰 제첩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두고 반사한 때문이라 생각한다. 현재 이 유물은 “기사계첩”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국보 제325호도 “기사계첩”으로 지정되었다. 이 계첩은 기로소에서 기로신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해서 만든 계첩 제작의 전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지금까지 불리어 온 “기사계첩”이라는 제목은 작품의 성격을 대변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정 명칭은 “기사계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6.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인소장의 《기사계첩》은 숙종의 기로소 입소라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으며 제작시기 및 제작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서 학술적으로 중요하다. 또 기로신들의 시문은 자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은 높은 완성도와 화격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할만 한 예술성도 갖추었다. 아울러 계첩과 동시기에 같이 만들어진 함(내함, 호갑, 외함)도 공예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함께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기사계첩>은 국왕이 기로소에 들어간 일과 기로연을 베푸는 일을 기록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 행사 장면을 화려하고 상세하게 그림으로 재현했으며, 참석자의 초상화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 참석자들이 지은 시가 거의 모두 자필로 적혀있어 문학사, 서예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화재이다.
-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보 제325호 보다도 상태가 양호하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외함, 내함, 호갑이 함께 전하고 있기에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개인소장 기사계첩은 초상화와 기록화가 함께 있는 구성, 기록화에서 일상의 행인 모습의 표현, 선염법으로 입체감 표현 등에서 새로운 형식을 띠는 계첩이다. 또한 시문의 글씨를 통해 당시 서예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화첩을 동일한 목적으로 제작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비교해보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첩이나 인물과 기물 등의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며, 화격이 다소 낮은 편이다. 그리고 흥만조의 축하시 제목이 빠져 있다. 그럼에도 이 첩은 다른 소장본에 비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계첩은 국보로 승격될만한 가치를 갖는다.

<궤, 함, 호갑 관련>

○ (지정 가치 있음)

<기영화상첩>이라는 표제를 가진 <기사계첩>은 1719년에 김창집을 비롯한 10명의 대신들의 계회를 글과 그림으로 그린 50면의 화첩으로 1978년 보물 제639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화첩은 제작 당시의 상황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첩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화첩을 넣은 흑칠내함, 이것을 싼 쪽빛무명호갑, 양자를 담은 흑칠외궤까지 모두 갖추어 18세기 초에 회화를 보관하기 위한 3중 구조의 회화 봉과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대연대를 가진 목공예품이나 섬유공예품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공예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기영화상첩은 1719년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면에서 당시의 배첩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가 되고, 그와 함께 흑칠내함과 쪽빛무명호갑 및 흑칠외궤의 3중 수납구가 조합되는 봉과식은 조선왕실의 의궤 등의 기록에 해당되는 이른 시기의 사례로서, 이후 왕실과 사대부가에서 함과 갑의 2중 구조로 회화나 서책을 보관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쳐 학술적 영향과 가치가 뛰어나다.

공예기술적인 면에서 화상첩을 넣었던 내함과 호갑 및 외궤는 18세기 초 목공예, 금속공예, 염직공예 및 가죽공예의 기술적 성취를 엿볼 수 있다. 내함과 외궤는 백골에서 맞댄과 띄엄사개 짜임이 발견되고, 안팎의 옷칠을 달리하되 내함에는 종이싸개 위에 흑칠을 하고 표면을 정교하게 마연하였고, 천판 뚜껑을 반단이하거나 별도로 빼달는 방식으로 다양한 목공예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금속 소재로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황동 및 시우쇠를 사용해서 간결한 거멀 장식이나 사각 경첩 및 낙목과 배목 그리고 시우쇠로 8엽 국화동 시우쇠 손잡이를 달아 목재를 보강하는 금속공예기술도 엿볼 수 있다. 쪽빛무명호갑은 안팎 무명 사이에 서너 겹의 한지를 배접하거나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가죽으로 싸고 휘감아 직물의 취약성을 보강한 점과 빛에 강한 쪽염을 해서 직물유물의 보존성을 높인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기영화상첩과 함께 제작되어 화첩을 담고 싼 흑칠내함과 쪽빛무명호갑 및

흑칠외계 일괄은 조선 숙종 45년, 1719년 당시 제작되었다는 역사적 가치, 3중 구조의 봉과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학술적 가치, 당시 목공예, 금속공예, 염직공예, 가죽공예를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공예기술사적 가치 등에서 볼 때, 현재 보물 제639호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재 명칭 변경의 필요성

본 화첩은 내함과 호갑 및 외계 등이 함께 제작되었으므로 이것을 포괄하는 ‘기사계첩 및 함’으로 명칭 변경이 요구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계** : 기사계첩의 외계에 부착된 띠장문은 19세기의 돈계와 뒤주에 사용된 띠장문 양식으로 알려져 왔다. 기사계첩 외계의 제작년도가 1719년이므로 이때에 이미 띠장문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목가구 편년자료에 중요한 자료이다.

- **함** : 숙종 31년(1705)에 제작한 보·인록의 장식 양식과 같아 숙종년간에 제작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두석으로 장식을 하였다. 보·인록의 장식은 두석 위에 조이하고 도금하였다.

2) 경첩은 상하의 크기가 동일하다. 보록의 경첩은 불로초형태에 연화문과 어자지문을 조이하고 도금을 하였으나 상하의 크기는 같다. 숙종 이후부터 경첩의 밑짝이 길어진다.

3) 낙목은 나비머리에 죽절채를 한 숙종년간의 특징을 보인다. 보·인록의 낙목머리에는 양단에 작은 투공이 하나씩 있으나 숙종 후기에는 이 투공이 없다.

이상 보물 제 639호 기사계첩을 보관한 외계와 내함은 기사계첩과 제작시기가 동일하며 숙종년간의 목가구 양식을 잘 나타내는 중요한 유물로서 기사계첩과 함께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 역사적·학술적·공예적 가치 인정

-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耆社契帖)》은 《기영화상첩(耆英畫像帖)》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가로 53.0cm, 세로 37.5cm 크기의 화첩.

- 10명의 초상화와 축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화원 명단이 들어 있어 당시 화풍과 서체 연구는 물론, 관복제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직물사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유물이라고 판단됨. 겉표지에 연화문단 혹은 연화만초문단이라고 부르는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음. 이 문양은 현재까지 공개된 유물 중에서 1684년(숙종 10년) 『선묘보감(宣廟寶

鑑)』의 책의부터 1745년(영조 21) 『세종영릉표석영건청의궤』까지 확인되는 문양임. 1720년(경종 즉위년) 《기영화상첩》은 『선묘보감』 외에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에 해당됨.

- 그 외에 화첩을 담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흑칠내함과 내함을 보호할 호갑, 외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화첩만 남아 있는 다른 《기사계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호갑은 훼손 부분에 대해 보존처리가 필요함.

- **봉과물을 갖춘 유일한 《기사계첩》이므로 국보 지정 가치 있음.**

-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에 추가된 봉과물의 제작 근거는 부족하지만 제작 연대가 화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봉과물을 갖춘 유일한 《기사계첩》이므로 국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 명칭 변경의 필요성**

- 내함·외궤, 호갑 등이 추가되었으므로 봉과물을 포함할 수 있는 "기사계첩 및 함" 등 문화재 명칭을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 있다고 생각됨.

마. 보완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기사계첩』은 조선 국왕의 기로소 입소를 당대에 기록한 최초의 기록물이면서 이후 영조와 고종이 기로소에 입소할 때 전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기사계첩』 가운데 전승 과정이 분명하고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점, 화첩을 온전히 보관하기 위한 3중의 보존 장치가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명칭을 ‘기사계첩 및 함’으로 하여 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기사계첩(耆社契帖) 및 함’은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서화첩을 보관한 내함·호갑·외함이 잘 갖추어져 있다. 앞표지의 표제 ‘耆英畫像帖’과 제1-2면의 ‘晚退堂藏’ 및 제53-54면의 ‘傳家寶藏’은 전승 경위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수록된 「契帖序」와 「御帖跋」은 기사(耆社)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이고, 그림이나 진영(眞影)은 풍속사와 회화사의 귀중한 자료이며, 기신(耆臣)들의 자필은 서예사의 실물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분명하고 서화와 함(내함·호갑·외함)은 역사적, 풍속사적, 회화사적, 서예사적,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서예사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 화첩의 국보 지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시대 서예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탁월하며, 예술적 가치 역시 높다고 보아 지정의 가치가 있다.

2. 숙종 후기의 조선 서예는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서예 고전을 학습할 방법으로 서첩학을 수용하게 되었는데, 이 화첩에 글씨를 남긴 기로신들은 모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주요 문인들이었으며 서예를 생활화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일상에서 구사했던 서풍은 그 시대의 서풍을 가장 잘 반영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첩에서 볼 수 있는 바는 심미적 취향이 반영되고 개성을 볼 수 있는 서풍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3. 동시대에 활동한 서예 명가들의 작품들을 제외하고, 시대의 서풍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유례가 매우 희귀하며, 그 점에서 이 글씨들은 이 화첩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함을 담보하고 있다.

4. 화첩의 현상도 지정할 가치가 현저하다. 이 화첩은 원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미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본이 거친 보존처리 과정 이전의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현존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필요성도 있고, 그 보존으로 인하여 담보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근거 기준>

-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에 해당함
- 2. 제작 연대가 300년이 넘었으며, 훌륭한 품질로 현재까지 보존이 잘 되어왔음
- 3. 조선왕조에서 국왕이 주도하여 기로회를 조직하고 그 기록물을 만든 예가 희귀함
- 4. 18세기 초, 문화와 정치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들과 관련이 매우 깊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예고함

1차 조사보고서

<화첩 관련>



○ 현상 및 내용 특징

전반적으로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례적으로 화첩을 넣은 내함, 내함을 싼 호갑, 호갑을 보관하는 외함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기사계첩》의 내용을 이미 국보 제325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사계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보승격 조사 대상 유물	기 국보지정 유물과 비교
순서 (면)	보물 제639호 <기사계첩> (개인소장)	국보 제325호 <기사계첩> (국립중앙박물관)
앞표지	표제: “耆英畫像帖”	표제: “己亥耆社帖”
1-2	“晚退堂藏”	空欄
3-4	“契帖序” : 1720년 12월 상순에 任墜 지음	左同
5	空欄	좌동
6	“肅宗大王御製”	좌동
7-8	“御帖跋” : 金樛 지음	좌동
9-10	어첩 봉안부터 기로소 사연까지 각 행사의 참여자의 명단	좌동
11-12	<御帖奉安圖>	좌동
13-14	<崇政殿進賀箋圖>	좌동
15-16	<景賢堂錫宴圖>	좌동
17-18	<奉盃歸社圖>	좌동
19-20	<耆社私宴圖>	좌동
21-22	“座目” : 기로신 11명의 명단	좌동
23	<領府事鹿川李公七十五歲眞> 李濡(1645-1721)의 반신초상	좌동
24	<領議政夢窩金公七十二歲眞> 金昌集(1648-1722)의 반신초상	좌동
25	<行判府事甲峯金公七十一歲眞> 金字杭(1649-1723)의 반신초상	좌동
26	<行知事黃公八十歲眞> 黃欽(1639-1730)의 반신초상	좌동
27	<行知事白閣姜公七十歲眞> 姜覲(1650-1733)의 반신초상	좌동
28	<行司直晚退洪公七十五歲眞> 洪萬朝(1645-1725)의 반신초상	좌동
29	<行副司直六松李公七十四歲眞>	좌동

	국보승격 조사 대상 유물	기 국보지정 유물과 비교
	李善溥(1646-1721)의 반신초상	
30	<判尹丈巖鄭公七十二歲眞> 鄭澮(1648-1736)의 반신초상	좌동
31	<右參贊竹里申公八十一歲眞> 申鉞(1639-1725)의 반신초상	좌동
32	<知事水村任公八十歲眞> 任墜(1640-1724)의 반신초상	좌동
33	김창집이 칠언시 3수 「耆社志喜」, 「賀班」, 「謹次洪尙書賀班韻」	좌동
34	이유의 칠언시 「敬次耆社志喜韻」	좌동
35	김우항의 칠언시 2수 「謹次領相金公耆社志喜韻」, 「謹次洪尙書賀班韻」	좌동
36	황흠의 칠언시 「謹次首相耆社志慶韻」	좌동
37	강현의 칠언시 「敬次耆社志喜韻」, 「敬次賀班韻」	좌동
38	홍만조의 칠언시 2수 「敬次首相耆社韻」, 「陳賀日口占志喜錄呈求和」	좌동
39	이선부의 칠언시 「敬次」 2수	좌동
40	정호의 칠언시 2수 「敬次元輔夢窩金公耆社志慶韻」, 「敬次賀班韻」	좌동
41	신임의 칠언시 4수	좌동
42	임방의 칠언시 2수 「耆老錫宴後以首輔命唱呈二律」	좌동
43	이유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	좌동
44	김창집의 칠언시 「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	좌동
45	김우항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	좌동
46	황흠의 칠언시 「謹此耆社諸公韻」	좌동
47	강현의 칠언시 「敬次」	좌동
48	홍만조의 칠언시 : 제목이 없음	좌동: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 라는 제목 있음
49	이선부의 칠언시 「敬次」	좌동
50	정호의 칠언시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	좌동
51	신임의 칠언시 「親臨錫宴後次任知樞詩韻」	좌동
52	화첩 제작 참여자 명단	좌동
53-54	“傳家寶藏”	空欄
뒷표지	뒷표지	좌동

표제는 “기영화상첩(耆英畫像帖)”이다. 제1-2면에는 한 면에 두 글자씩 “만퇴당장(晩退堂藏)”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 화첩은 만퇴당 홍만조(洪萬朝, 1645-1725)의 소장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글씨가 있는 면은 모두 붉은 안료로 인찰하였는데,

다만숙종의 어제가 있는 제5-6면은 바탕이 홍색 비단으로써 황색 안료로 인찰하였다. 기록화 5폭의 제목은 화면 우측에 쓰인 것을 따른 것으로서 다른 기사계첩과 동일하다.

제39면 이선부의 칠언시 <敬次> 두 번째 수의 “協”자 부분은 네모나게 잘라내고 다시 써서 붙인 흔적이 있으며 제41면 신임의 칠언시 4수 중 “言同樂駐東流” 부분은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있다. 또 제 44면 김창집 칠언시의 “領議政金昌集” 부분에는 무언가 붙였던 흔적이 보인다.

52면에 쓰인 화첩 제작에 참여한 감조관(監造官) 고정삼(高挺參), 서사관(書寫官) 이의방(李義芳), 화원(畫員) 김진여(金振汝),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장득만(張得萬), 허숙(許倣) 등의 명단은 다른 기록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내용으로서 이 화첩의 그림을 그린 화가의 실체와 궁중기록화의 실질적인 제작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귀한 자료가 된다.

제 53-54면에는 “전가보장(傳家寶藏)”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 글씨는 제 1-2면의 “만퇴당장(晩退堂藏)”과 함께 다른 기사계첩에는 없는 부분으로 이 화첩의 전승 경위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다.

□

○ 현 상

- 옷칠한 나무상자에 금구가 부착된 외함이 있고, 그 안에는 바깥에 남색 비단에 황색 가죽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안쪽에 황색 직물을 덧댄 호갑(護匣)으로 싼 내함이 있다. 내함 역시 옷칠한 나무상자에 금구가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내함 속에 들어있는 한 권의 첩(帖)으로 이루어져 있다.
- 외함은 윗부분 2/3 정도가 꺾이어 뒤로 넘겨 열 수 있는 형태이다. 들리는 부분은 현재 분리되는데 경첩이 없어서 원래의 방식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흑색 옷칠이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마모로 인하여 광택이 흐리다. 여기저기 금구가 부착되어 있는데 양 옆면에는 들쇠가 한 개씩 있고 모서리에 거털잡이가 있으며 앞면에는 배목이 있고 길목은 없어졌다. 뒤쪽 한 귀퉁이에는 쥐가 갇아먹은 부분이 있다.
- 호갑은 십자 모양으로 가운데 직사각형 부분이 있고 네 변에는 반원에 가까운 날개가 붙은 형상이다. 짧은 변 한쪽 날개의 가운데에 기다란 가죽 끈이 달려 있다. 테두리와 네 귀퉁이에 가죽을 대어 보강했으며 앞면에 작은 구멍이 뚫려있고 역시 테두리에 가죽을 대었다. 내함의 길목에 대응하는 부분이다. 긴 변 한쪽에도 가죽 끈이 붙어 있었던 흔적이 있다. 외피는 남색의 직물 여러 쪽을 이어서 만들었고, 내피는 황색 직물을 사용했다. 직물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외함의 쥐가 갇아먹은 곳에 해당하는 부분이 결실되었고, 가죽 부분은 오염되어 검게 때가 묻

어 있다.

- 내함은 외함과 같은 형태인데 윗부분 6/7 정도가 꺾이어 뒤로 넘겨 열 수 있는 형태이다. 들리는 부분은 목재가 살짝 휘었으며 위에 금속 경첩이 두 개 붙어 있다. 바깥쪽은 흑색 옷칠이 되어 있는데 광택이 선명하고, 안쪽은 붉은색 옷칠이 되어 있다. 여기저기 금구가 부착되어 있는데 거멸잡이, 배목, 길목, 앞바탕 등이다.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화첩은 호접장 형태로 한 장씩 넘기면 좌우 양면이 펼쳐진다. 앞뒤 표지는 연꽃 넝쿨무늬가 있는 쪽빛 비단으로 장식했다. 앞표지에는 화초문이 있는 흰 비단에 “耆英畫像帖”이라고 먹으로 적은 제첩이 붙어 있다. 표지는 낚아서 가장자리가 일부 닳았다.
- 성되어 있다. 5점의 기록화는 좌우 양면에 걸쳐 이어진다. 회장은 흰 비단을 사용했는데, 열화되어 담황색이다.
- 화첩의 크기, 장황형식 및 전체의 구성 순서는 국보325호와 거의 동일하다. 일부 차이는 다음과 같다.

앞표지 “耆英畫像帖” (36.8x6.0cm) <국보325호는 “己亥耆社帖” (36.7x5.9cm)>

1-2면: 대자묵서 “晚退堂藏” 만퇴당은 기사연에 참석하고 화첩을 받았던 홍만조의 호이다. <국보325호는 空欄>

7면: 12월의 “延祔君吟”의 글자 吟을 가리지 않았다. <국보325호는 위에 붉은 비단을 붙여 가렸다>

11-20면: <御帖奉安圖> 이하 5점의 그림은 국보325호와 거의 같으나 세부적인 필치가 약간 차이가 나며 인물 복식의 색채 배분이 조금씩 다르다.

24면: 김창집의 반신초상의 회장 부분에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39면: 이선부의 칠언시 <敬次> 두 번째 수의 3월 글씨 “協”자 부분을 네모나게 잘라내고 다시 써서 붙였다.

41면: 신임의 칠언시 4수 중 “言同樂駐東流” 부분을 지우고 다시 적은 흔적이 있다.

44면: 김창집의 칠언시 맨 끝의 “領議政金昌集”부분에도 테두리에 무언가를 붙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53-54면: 대자묵서 “傳家寶藏” <국보325호는 空欄>

○ 내용 및 특징

- 전체적인 내용과 특징은 위의 차이점을 제외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국보 325호)와 거의 동일하며, 상태는 좀 더 양호하다.
- 이 화첩 이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국보325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

장본(보물 제638호), 삼성미술관리움본이 있다. 이들 가운데서 이 개인 소장본은 원형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상태도 가장 좋다. 더욱이 화첩과 함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외함, 내함, 호갑이 함께 전하고 있는 점도 매우 희소한 사례로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내함의 경우 조선시대 서류함 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1750년에 제작된 이삼(李森)의 분무공신화상첩과 함께 전하는 목함과 유사하다.

○ 참고문헌

『기사계첩』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76)

김문식,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사학지』 40권, 2008

『삼성미술관 리움소장 고서화 제발 해설집 III』 (삼성미술관리움, 2009)

『조선시대 초상화 III』 (국립중앙박물관, 2009)

○ 기 타

- 1978년 12월 7일에 보물 제639호로 지정되었으며, 기로사연에 참석했던 홍만조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다.



○ 현 상

기사계첩은 기로신에게 나눠 줄 11부와 기로소에 보관할 1부를 합쳐 모두 12부가 제작되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리움 소장본이 알려져 있다.

조사대상인 개인 소장본에는 서문, 어제(御題), 발문, 의식별 참석자 명단, 기록화 5폭, 좌목(座目), 초상화 10폭, 축시 19편, 제작 참여자 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첩의 앞의 1·2면과 뒤의 51·52면에는 후대에 쓴 글씨가 있다.

첩의 각 면에는 수흔과 유흔이 보이지만 해충에 의한 손상 없이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제작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선조는 59세 때인 1719년에 태조가 기로소에 들어간 일을 계승하려는 취지로 기로소에 입소하였다. 본 계첩은 이를 기념하고자 제작되었다. 서문은 임방(任墜)이 하였고 발문은 김유(金樛)가 하였다. 어제는 숙종의 눈 질환 때문에 세자(경종)가 대사(代寫)하였다. 좌목에 실린 기로신은 이유(李濡, 1645~1721), 김창집(金昌集, 1648~1722), 김우항(金宇杭, 1649~1723), 황흠(黃欽, 1639~1730), 최규서(崔奎

瑞, 1650~1735), 강현(姜覲, 1650~1733), 홍만조(洪萬朝, 1645~1725), 이선부(李善溥, 1645~1721), 정호(鄭澐, 1648~1736), 신임(申鉞, 1639~1725), 임방(任墜, 1640~1724)이다.

첩에는 기로신이 경희궁 흥정당에서 제작한 어첩을 봉안하러 가는 행렬이 표현된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 기로신이 진하례를 올리는 장면이 그려진 <숭정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 기로신에게 내려진 친림 사연 모습이 담긴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기로신이 경현당 석연에서 하사받은 은배를 받들고 기로소로 돌아가는 행렬이 묘사된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기로소에서 열린 기로연이 표현된 <기사사연도(耆社賜宴圖)>가 있다. 이 기록화들에서는 부감이나 부감과 정면을 혼합한 시점이 사용되었으며, 행렬 장면에는 기존의 궁중기록화에 등장하지 않았던 구경하는 행인이 묘사되었다. 이 첩과 국보 325호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사계첩>과는 건축물, 인물, 그리고 기물의 표현에서 약간씩 차이가 난다.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를 비교하면 국립중앙박물관본에서는 인물의 흥배가 표현되어 있으며 옷주름 등의 표현이 자세하며 자연스럽다. 또한 기물의 표현이나 건물의 처마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된 편이다. 반면에 개인 소장본은 명암법이 휘장 아래의 단 주름이나 지붕과 건물의 기단 등에 구사되었다.

첩에는 최규서를 제외한 10명의 초상화가 있다. 당시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았기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초상의 인물은 모두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반신상으로, 사모에 단령을 착용하였다. 이 계첩의 제작에는 주관화사로 보이는 김진여(金振汝, 1675~1760)를 비롯해 장태흥(張泰興), 박동보(朴東普, 1663~1735 이후), 장득만(張得萬, 1684~1764), 허숙(許倣, 1688~1729 이후)이 참여하였다. 여러 화원의 참여로 인해 초상화 제작 기법이 차이가 나는데,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우선 이유훈·김창집 등의 초상에서는 먹과 연백을 중첩하여 명암과 양감을 나타냈다. 그리고 주름이 선으로 묘사되지 않고 부드럽게 면으로 처리하였다. 서양화법의 영향인 이 방식은 김진여가 주로 이용한 화법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황흠·신임 등의 초상에는 먹을 이용한 명암법이 사용되었으며 주름이 자세히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강현·이선보의 초상에는 얇은 선염으로 입체감을 나타냈는데, 18세기부터 보이는 화법이다. 아울러 선묘를 추가하여 이목구비와 주름이 묘사되었다. 이 초상화들의 상단에는 전서로 대상 인물의 관직, 호, 나이가 적혀 있다.

첩의 뒤쪽에는 다양한 서풍으로 쓴 기로신의 자필 축시가 있는데, 왕의 기로소 입소 축하시는 최규서와 임방을 제외한 9명이 썼으며, 석연 후 쓴 시는 기로신이 된 임방을 포함하여 10명이 지었다. 이 첩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비교하면 홍만조의 축하시 제목이 없다. 계첩의 좌목 등은 서사관 이의방(李義芳)이 썼다.

첩의 앞뒤에는 행서기가 가미된 해서가 있다. 앞에는 홍만조의 당호인 만퇴당(晩退堂)이며 뒤에는 전가보장(傳家寶藏)이다. 두툼한 필획 등으로 미루어 후대에 썼을 것으로 보인다.

<함, 궤, 호갑 관련>



○ 규격 상세

1) 흑칠내함

-세로 41.0cm x 가로 57.0cm, 높이 5.3cm

2) 쪽빛무명호갑

-펼친 상태 : 세로 117.0cm x 가로 105.8cm, 끈길이 30.8cm

-접은 상태 : 세로 44.0cm x 가로 57.5cm, 높이 5.5cm

3) 흑칠외궤

-세로 46.5cm x 가로 63.3cm, 높이 11.5cm

○ 재 질 :

1) 내함 ; 잣나무, 옷칠, 황동제

2) 호갑 ; 무명, 종이, 서피, 녹비, 삼실

3) 외궤 ; 소나무, 옷칠, 철제

○ 형 식

<기사계첩(耆社契帖)>은 숙종 45년(1719)에 소속이 같은 70세 이상의 김창집(金昌集)을 비롯한 10명의 대신들이 단령을 입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풍류를 즐겼던 계회(契會)를 기념하기 위해 글과 그림으로 만든 50면의 화첩이다. <기영화상첩(耆英畫像帖)>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화첩은 계회에 참석한 10명의 초상화와 자필로 쓴 축시, 박동보·장득민·허숙 등 초상화를 그린 화원의 명단이 들어 있으며, 1978년 12월 7일 보물 제639호로 지정되었다. 함께 지정된 보물 제638호인 <기사계첩>이 2면을 1면으로 붙인 데 반해 이 화첩은 제작 당시의 상황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회화작품일 뿐 아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보존하고자 화첩을 흑칠내함에 넣고, 이것을 쪽빛무명호갑으로 싸고 가죽끈으로 묶은 후 다시 흑칠외궤에 넣는 등 3중 보존장치에 넣어 보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흑칠내함



쪽빛무명호갑



흑칠외궤



기영화상첩



기사계첩을 넣은 내함



내함을 싸기 위해 호갑을 펼친 모습



호갑의 좌우로 내함을 싸기



내함을 호갑으로 싼 모습



내함과 호갑을 넣은 외궤

<기사계첩을 흑칠내함, 호갑, 외궤의 순서로 넣고 싸는 순서>

○ 조성연대 : 1719년(숙종 45년)

○ 형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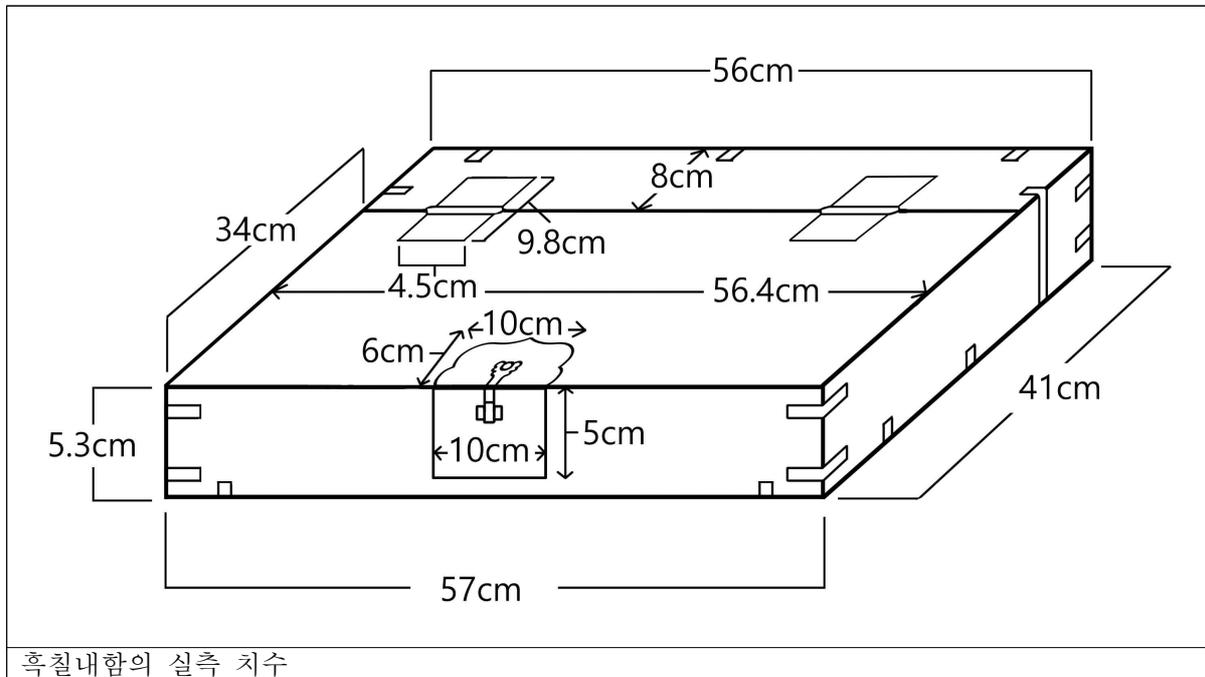
1) 흑칠내함 ;

<기사계첩>을 넣어 보관하는 내함은 세로 41.0 x 가로 57.0cm, 높이 5.3cm의 직육면체의 상자 형태로 천판의 1/4 부분을 상하로 절개하고 경첩을 달아 아래쪽 뚜껑을 위로 제끼고 수납하도록 되어 있는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다.

(1) 재료와 형태

내함의 경우 질이 좋은 잣나무를 두께 1cm 로 썬 판재를 사용하고 있다. 바닥면의 밑널과 옆면의 측널, 측널과 천판의 판재는 각각 ‘맞댐’으로 연결하고 있다.

밑널은 41 x 57cm이고, 측널은 높이 5.3cm이다. 천판은 전체면을 앞뒤쪽에서 둘로 나누어 뒤쪽 1/4에 해당되는 8 x 57cm, 앞쪽 3/4에 해당되는 34 x 57cm의 널판으로 각각 나누고, 뒤쪽은 측널에 고정시키고 좌우에 각각 9.8 x 4.5cm 크기의 경첩을 달아 앞쪽을 문짝으로 사용해서 열 수 있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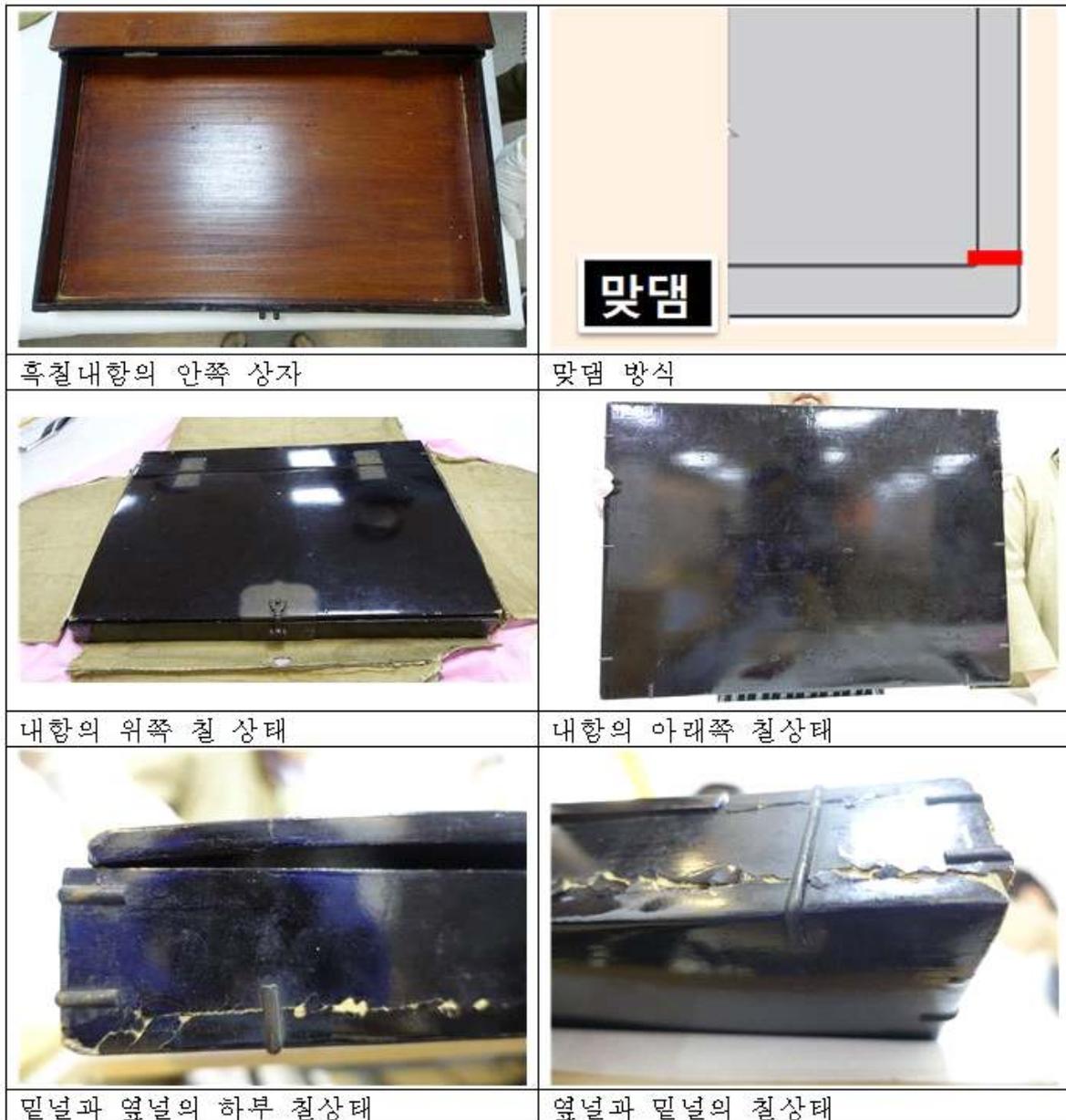


(2) 칠

흑칠내함은 밑널과 측널 및 천판을 각각 판재와 판재를 사개물림이 아닌 맞댐으로 붙인 다음, 내부 면은 소지 위에 그대로 생칠을 발라 마감하고 바깥면은 종이를 바른 후 표면에 흑칠을 발랐다. 현재 안쪽의 생칠 상태나 천판 위 흑칠의 상태가 깨끗하고 좋은 편이다. 전통적으로 왕실 유물의 경우 내함의 안쪽 면에 붉은색으로 염색한 한지를 바르는 것과 다른 방식이다.

겉면에 흑칠을 바른 천판과 밑널은 둘다 원래 바른 흑칠의 상태가 매우 좋은 편

이다. 특히 측널과 함께 감잡이로 고정된 밑널은 형태 변형이 없이 원래의 형태 변형이나 칠의 변형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나 안팎에 각기 다른 조건의 칠을 바르되 측널과 함께 고정된 부분과 문짝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잡이로 고정되지 않는 부분의 형태는 차이를 보였다. 천판 뚜껑의 위쪽 1/4는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3/4 아래쪽은 안팎 칠의 팽창률이나 함수율이 다르기 때문인지 전체적으로 바깥쪽 위로 볼록하게 휘어 배가 부르게 변형되어 있는 편이다.



맞댐 형식으로 내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옆면을 보면 밑널과 측널이 서로 연결된 하단부가 <기사계첩>을 수납하거나 놀리면서 연결 부위에 옷칠이 떨어져 나가

훼손된 것이 확인된다. 향후 부분적인 보존처리가 요구된다. 이에 비해 직육면체 상자형 몸체는 하단부의 후철은 사용하면서 굵힌 자국이 약간 보일 뿐 윗면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칠면의 상태가 매우 우수하다.

3) 금속제 장식

목재 널판을 고정하기 위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금속제 장식을 부착하고 있다. 금속 장식의 경우 천판의 두 군데에 사각형 경첩을 달아 문짝을 연결하고, 직사각 문짝의 윗바탕에 뺨침대가 달리고, 앞바탕에 배목이 달려 맞물리는 것이다.

모서리의 거멸장식이나 뚜껑의 윗쪽을 여닫을 사각경첩 및 배목과 낙목은 구리와 아연의 주성분에 납과 주석을 합금한 황동제를 사용하고 있다. 금속 장식의 경우 천판의 두 군데에 사각형 경첩을 달아 문짝을 연결하고, 직사각 문짝의 윗바탕에 뺨침대가 달리고, 앞바탕에 배목이 달려 맞물리는 구조이다.

밑널과 측널, 측널과 측널, 측널과 천판 등의 연결부는 길고 짧은 거멸 감잡이로 보강되어 있다. 측널과 측널은 모서리마다 상하 2개씩 총 8개의 짧은 거멸 감잡이로 마감되어 있다. 밑널과 측널은 앞쪽은 2개, 좌우쪽은 2개의 짧은 거멸 감잡이로 마감되어 있다. 독특한 곳은 뒤쪽으로 밑널과 옆널 및 천판을 한꺼번에 고정할 수 있도록 긴 국수형 거멸 감잡이로 마감하였는데, 옆쪽은 좌우 1개씩, 뒤쪽은 3개로 고정시키고 있다.

뚜껑에 해당되는 천판의 앞뒤는 9.8 x 4.5cm의 사각경첩으로 여닫을 수 있게 처리되어 있다. 앞쪽 문판에는 위쪽 윗바탕은 제비초리형이고, 아래쪽은 방형 바탕에 배목이 부착되고, ㄱ자형 뺨침대가 달려 있다.



앞널의 앞바탕과 뺨침대와 배목

측널의 거멸 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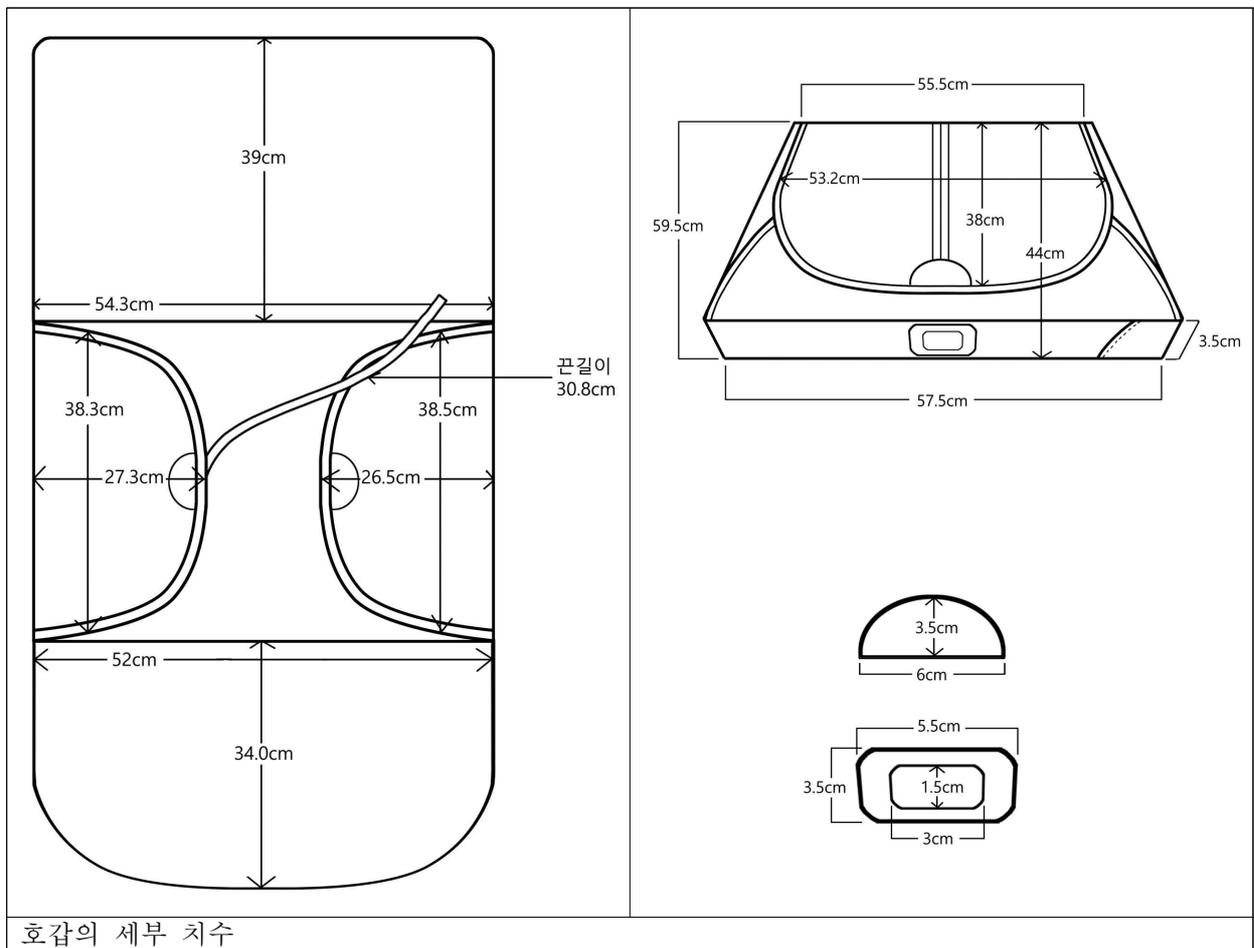
모서리의 거멸장식이나 뚜껑의 윗쪽을 여닫을 사각경첩 및 배목과 낙목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황동제로 약간 검은 때가 묻었지만 녹슨 흔적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 다만 낙목을 고정시킨 것이 자물쇠나 비너못이었는지 유실되어 알 수 없다.

2) 쪽빛 무명 호갑 ;

호갑은 흑칠내함을 넣을 수 있도록 무명으로 만든 보호형 갑이다. 세로 44.0 x 가로 57.5cm, 높이 5.5cm의 직육면체 형태이고, 뚜껑 부분은 위쪽 네 면에서 반원형의 날개처럼 펼쳐서 26.5-26.5cm, 38.3-38.5cm 길이의 좌우날개를 먼저 덮고, 34.0-39.0cm의 상하날개를 덮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다.

(1) 재료와 규격

직육면체 상자 형태의 호갑은 펼친 상태는 세로 117.0 x 가로 105.8cm이고, 접은 상태는 세로 44.0 x 가로 57.5cm, 높이 5.5cm이다. 겉감은 청색 무명으로 상하 덮개는 28cm 무명 2폭을 중앙에서 연결하였고, 좌우 덮개는 무명 27cm 폭과 12cm 폭을 연결해서 만들었다.



호갑의 겉감은 쪽색 평직 무명이고, 안감은 소색의 평직 무명이며 테두리 및 모서리에는 옷칠한 가죽을 덧대었다. 안감은 소색 무명인데, 1폭은 27cm였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속감은 한지를 넣었고, 연결 부위는 삼실로 꿰매었다. 덮개의 가장자

리는 옷칠한 가죽을 둘러서 마감하였다. 덮개의 끝 부분은 세로 3.5 x 가로 6cm의 반원형을 가죽으로 덧대고 여기에 길이 30.8cm의 가죽끈을 매달아서 묶을 수 있게 만들었다.



호갑의 안쪽의 소색 무명

호갑의 안팎과 내함의 수납

쪽빛무명호갑의 바닥면과 옆면 및 네 날개로 펼친 상태

(2) 마름질과 바느질

호갑의 경우 안팎은 무명 직물이며, 그 사이에는 3-4겹의 한지를 속심으로 사용한 배접천(쪽 무명 겹감+ 한지 속감+ 소지무명 안감) 5판을 오려 사용한다.



호갑의 재료 ; 겉감 ; 쪽빛 무명 / 속 한지 3-4겹의 배접 / 안감 ; 소색 무명

이렇게 안팎 무명 속에 서너 겹의 한지를 속감으로 넣어준 배접천은 일정한 두께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죽과 같은 강도와 질감을 갖게 된다.

배접천으로 호갑을 만들 때 부드러운 섬유와 성격과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형태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호갑의 크기는 1) 내함을 넣을 수 있도록 그보다 약간 큰 세로 44.0 x 가로 57.5cm 직사각형의 크기에 높이 5.5cm로 올리기 위해 27-28cm 폭의 배접천으로 일정 크기를 채고, 2) 옆면의 모서리를 세울 5cm 높이만큼 겹칠 부분까지 포함하여 마름질한다. 이렇게 바닥과 옆면이 작업이 되었으며 이제 3) 사방으로 덮개용 날개를 붙이는데, 1)과 2)는 1개의 판으로 마름질하고, 3)은 각각 4개의 판을 좌우 날개는 26.5-27.3cm로 마름질하고, 위아래 날개는 34.0-39.0cm로 마름질해서 총5장의 판을 만들어 바느질하여 붙이는 것이다.



1) 바닥과 2) 옆면을 만들어 모서리를 잘라낸 뒤, 3) 사방 날개 만들어 붙이기

안팎 무명천에 속심을 넣은 배접천은 이미 충분히 두껍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잇대어 꿰매는 방식은 가죽을 꿰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우선 가죽을 꿰맬 때 처럼 1cm 정도의 일정한 간격마다 구멍을 뚫고 바늘 두 개로 구멍에 넣어 한 땀 한 땀 꿰매는 방식을 사용하여 꿰매었다.

(3) 가죽으로 모서리와 끈 장식 마감하기

배접천으로 만든 호갑을 단단하고 질기게 만들기 위해, 가죽을 이용하여 보강을 해준다. 목가구에 거털장식이나 경첩 등 금속제 장식으로 보강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우선 밑판과 옆면이 연결된 네 모서리에 표면이 오돌도돌한 질감이 있고 길고 단단한 서피를 세로×가로 각 12cm 정도, 밑면의 한 변 6cm 정도로 오려낸 다음 대준다. 밑면은 반지름 6cm의 1/4원으로 둥글게 처리하고 옆면까지 바느질한다. 배접천과 가죽까지 함께 바느질하려면 두꺼워서 바늘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미리 뚫어놓은 후 바늘 2개로 ∞자로 한 구멍씩 교차하는 방식으로 꿰맨다. 모서리를 맞댄 부분은 감침질로 마감한다.



배접천으로 만든 전후좌우 네 방향의 날개는 모서리를 둥글게 오려낸 다음, 먼저 부드러운 사슴가죽으로 끈을 만든다. 끈은 4개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나비 1.2cm에 길이 30.8cm로 왼쪽 덧개의 것 1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끈을 고정시키기 위해 덧개 중앙에는 세로 3~3.5cm 가로 6cm 정도의 1/2 원형 바대를 만들고 바늘 2개로 ∞자로 한 구멍씩 교차하는 방식으로 꿰맨다.

다음으로 배접천의 가장자리의 울퉁퉁을 막기 위하여 가장자리 부분의 안팎을 서

피가죽으로 각각 1cm 두께로 빙 두르며 감싸준다. 이를 위해 먼저 바깥쪽 쪽빛무명 쪽에 가죽을 올려 놓고 2cm 정도의 넓게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시침을 해서 고정시키고 난 후 안쪽 소색 무명쪽에는 1cm 정도의 간격으로 감침질을 해서 마감한다. 앞쪽 낙목과 양쪽 쇠가 튀어나온 곳은 처리하기 위해 바깥쪽 3.5x5.5 cm, 안쪽 1.5x3.0cm 구멍을 내고 가죽을 대어 마감한다.



앞쪽 낙목의 튀어나온 곳을 가죽으로 마감한 부분의 안팎

(4) 호갑의 끈 고정하기



뒤쪽 끈을 둘러 뺀 곳의 결면

뒤쪽 안쪽면에 가죽을 삼실로 꿰매기

호갑은 좌우 날개의 녹비 끈을 먼저 묶어 고정시키는 데, 현재 왼쪽 1끈만 남아있다. 아래쪽과 위쪽 날개에 끈을 둘러 뒤쪽으로 뺀 곳은 안쪽면에 가죽을 대고 삼실로 꿰매어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 앞뒤 끈은 결실되어 있다.

(5) 훼손 상태

쪽빛 무명 호갑의 경우 직물과 가죽 제품으로 이뤄져 있어 오랜 300년의 세월동안 훼손이 된 상태이다. 형태적으로 볼 때 내함을 덮는 아래쪽 날개의 일정 부분이 유실되었다. 바닥의 경우 두 군데가 떨어져서 안팎과 함께 내부의 속심이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직물의 특성상 오랜 시간이 지나 소색이나 쪽색이 변색되거나 퇴색되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덮개의 경우 바닥면

이나 좌우 덮개 및 안쪽으로 들어가는 덮개보다 맨 위에 놓이는 덮개의 변색과 오염이 심한 편이다. 부분적으로 모서리를 박은 실은 삭아서 다른 실로 꿰매거나 삼실로 꿰맨 실밥이 뜯어져 있기도 하다. 가죽의 경우 오랜 시간 경화되어 딱딱해지고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편이다. 네 군데 모서리 부분에 반원형으로 돌린 가죽 중 왼쪽 모서리의 경우 가죽이 일부 훼손되었고, 대개는 모서리의 연결부위가 터진 경우가 있다. 4개의 날개를 빙둘러 돌린 띠의 경우 모서리에 가까운 부분이 떨어져 나가 끝이 잘리고 돌돌 말려 있는데, 이것은 내함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생긴 손상이다. 호갑을 묶는 사슴가죽 끈은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결실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지만 제작 당시인 18세기 초의 원형을 잘 가지고 있다.

3) 흑철외곽;

화첩을 넣은 내함을 호갑으로 싸서 넣는 외곽은 세로 46.5cm x 가로 63.3cm, 높이 11.5cm 크기이며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의 상자형이다. 외곽의 판재 두께는 1cm이고, 아래쪽 판면의 두께 또한 1cm여서 외곽의 깊이는 10cm 이다.



흑철외곽의 실측과 조사 당시 외곽

(1) 백골과 짜임

외곽을 제작한 백골의 경우 비교적 표면이 거친 소나무를 사용해서 1cm 두께의 판재로 켜진 것을 재료로 삼아 제작하였다. 상자형으로 만들기 위해 아랫판과 옆판 및 윗판과 윗판의 판재끼리의 결합은 맞댐으로 처리하였다. 옆면의 경우 백골은 ‘떡엄사개’라 하여 사개짜임 중 촘촘하지 않은 사개로 짜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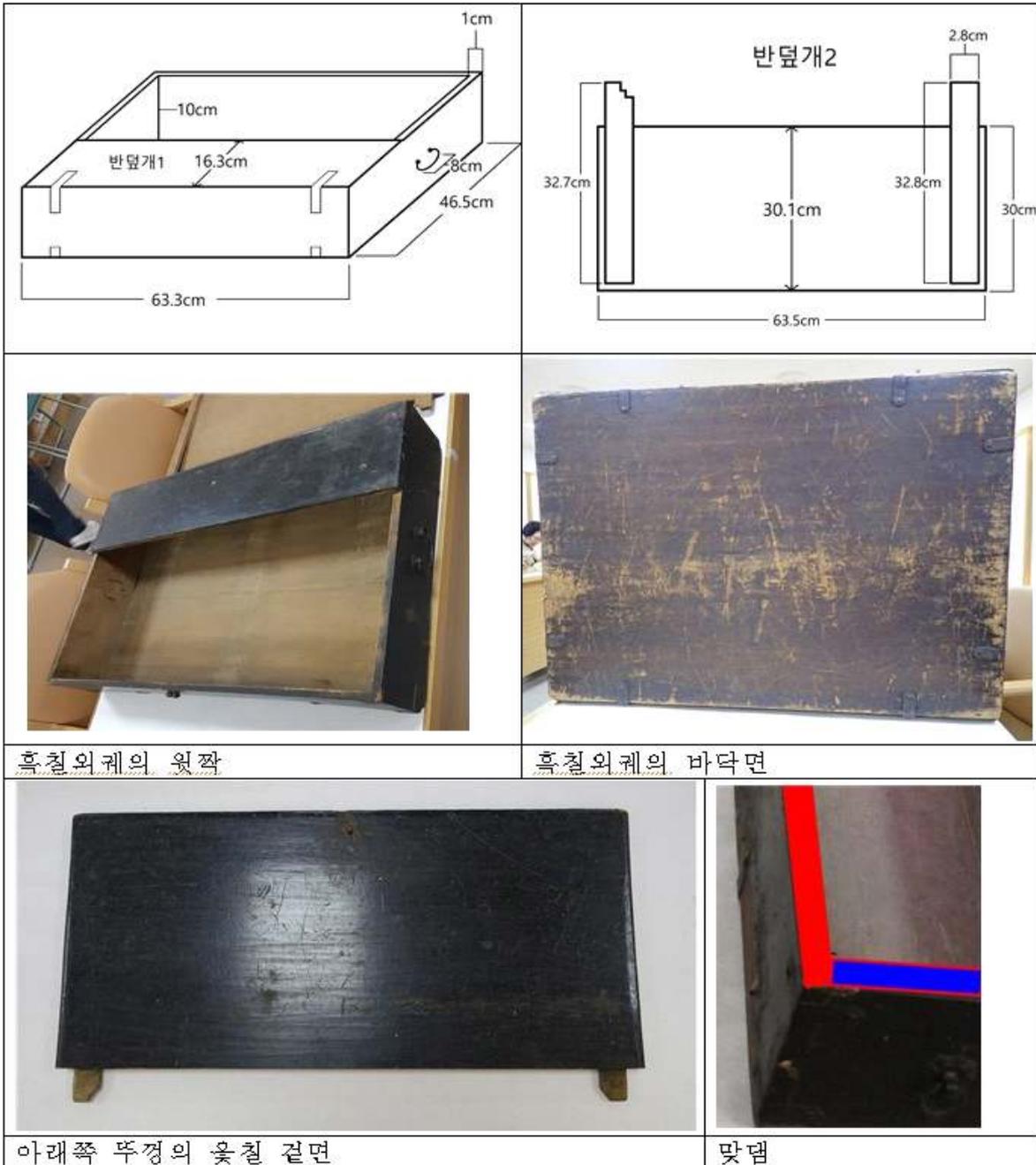


외궤 옆면의 락업사개(노란선) 짜임과 상하면의 맞댐 처리

(2) 외궤의 구조와 형식

외궤의 형태는 내함과 마찬가지로인데, 다만 외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천판의 구조와 형태가 다른 편이다. 외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천판 부분은 1/3 위쪽과 2/3 아래쪽 판으로 절개되어 있고 이동에 편리하도록 좌우에 철제 손잡이가 달려 있다.

외궤의 전체 크기는 세로 46.5cm x 가로 63.3cm, 높이 11.5cm 크기이며 이중 천판은 전체 46.5cm 길이를 위와 아래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하여 옆널에 고정시키는 부분은 전체 길이 중 1/3에 해당되는 윗뚜껑은 16.3 cm이고, 2/3에 해당되는 아랫뚜껑은 30.1cm이다.



아래쪽의 뚜껑은 안쪽의 좌우 옆면에 2.8 x 32.7cm 크기의 부목[띠장]을 덧댄 형식으로서, 뚜껑이 몸체에서 분리되어 뺏다 끼웠다 하는 형식이다. 덧댄 부목이 빠져 튀어나온 쪽을 고정된 뚜껑 쪽으로 밀어 넣어 고정시키는 것이다. 뚜껑을 열기 위해서는 뚜껑 부분을 앞쪽으로 빼서 열도록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여닫이 뚜껑의 경우 위로 여닫는 것과 비교된다.

이와 같이 부목을 덧댄 뚜껑의 형식은 조선 후기 돈궤나 뒤주 등에서 많이 발견된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궤에서도 뚜껑의 상하를 분리한 후 앞쪽 뚜껑 안

쪽에 부목을 좌우에 덧댄 형식까지 일치한다. 다만 후자의 궤는 뚜껑의 상하를 경첩에 의해 연결하여 반닫이처럼 여닫을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



아래쪽 뚜껑의 안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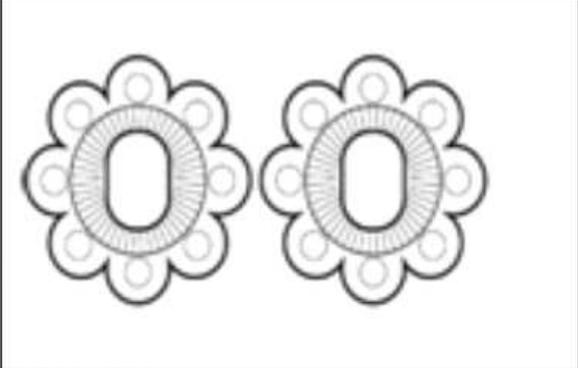
덧대에 박힌 못



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023485

(3) 금속 장식

외궤의 밑널과 옆널은 맞댐으로 되어 있으며, 양자는 각 면에 2개씩의 시우쇠 장식
석이 부착하고 그곳을 다시 두정으로 박았다. 천판의 위쪽 1/4은 윗널을 옆널에
고정시킬 때 좌우에 각 1개씩의 시우쇠 장식을 붙이고 다시 두정으로 박았다.
좌우 옆널에는 각각 겹국화동을 배치하고 8cm의 손잡이를 배목으로 사용하였다.
외궤의 아래쪽 뚜껑 정면 앞쪽에는 시우쇠로 만든 8엽 국화동 위에 고리를 박았
고 안쪽 면에서 보면 좌우로 벌려져 있다.

	
<p>접국화동과 손잡이</p>	<p>접 국화동</p>
	
<p>몸체 앞쪽의 양배와 뚜껑 앞쪽 국화동 위 고리</p>	<p>양배 안쪽 못</p>

(4) 훼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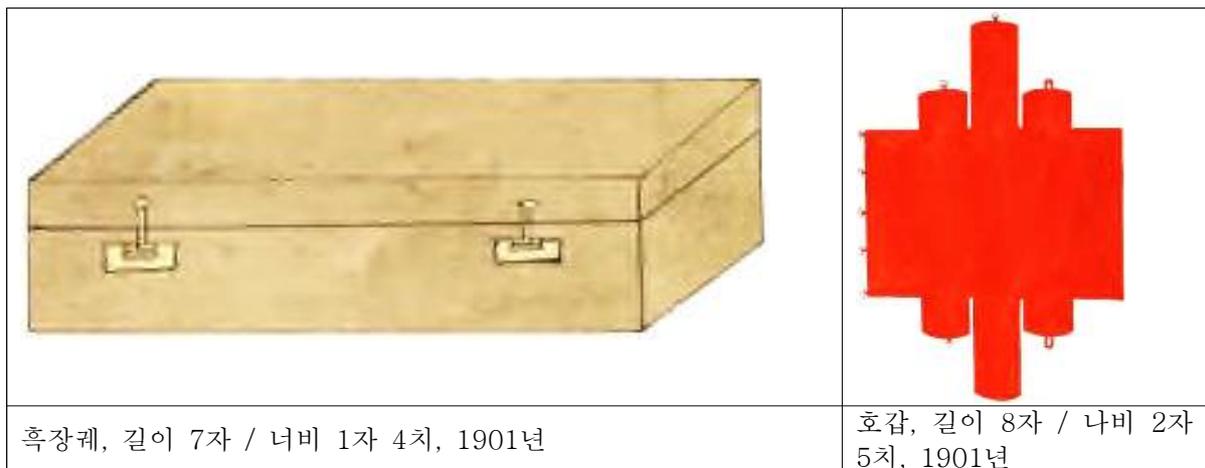
외케는 바닥 부분의 옷칠이 긁히거나 조금 훼손되고, 뚜껑과 앞면의 자물쇠 부분이 유실된 것 외에는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양식적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기사계첩>은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 먼저 내함에 화첩을 넣고 그것을 호갑으로 싨 다음 다시 외케에 넣는 내함, 호갑, 외케의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봉과식 방식은 1800년에 거행된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 궤』(규13121)에서 죽책을 보관하기 위해 홍화주로 죽책갑을 십자형으로 제작하여 싸고, 이것을 흑칠내케에 두석장식으로 자물쇠를 만들어 담고, 흑칠외케 또한 두석장식으로 자물쇠를 만들어 담았다. 이처럼 양자가 3중 구조인 점은 같으나, 죽책은 화첩과 달리 1) 비단 죽책갑으로 싸고 2) 죽책내케에 담고, 3) 죽책외케에 넣는 순서가 달랐다.



아울러 1901년 태조, 숙종, 영조, 정조, 순조, 문조, 헌종의 <영정>을 모사하는 전말을 기록한 『영정모사도감의궤』(규13990)도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영정을 흑장궤에 담고, 이것을 다시 호갑으로 싸는데, 전자와 달리 2중 구조로서 영정을 1) 흑장궤에 담은 다음 2) 호갑으로 싸는 방식이었다. 기사계첩이 내함과 호갑 및 외궤로 3중 구조로 구성되는 반면 외궤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1604년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된 이산보(李山甫, 1539~1594)에게 내린 <공신교서>를 예로 들 수 있다. 이것은 한산이씨 충간공파 종택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의 봉과방식은 영정을 1) 내궤에 담고, 2) 호갑으로 싸는 방식이다. 이것은 영정을 담을 때 흑장궤에 담고 호갑으로 싸는 2중구조와 유사하다. 다만 <기사계첩> 호갑이 무명으로 제작하는 것과 달리 <이산보 교서> 호갑은 가죽으로 만들고 있어 재료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구성 면에서 볼 때 전자는 1) 내함에 넣고 2) 호갑으로 싸고, 3) 외궤에 담는 3중 구조인 반면, 후자는 1) 내함에 넣고 2) 호갑으로 싸 2중 구조로 된 점이다.



한편 1869년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50세가 되던 해인 1869년 이한철이 얼굴을 그리고 유숙이 금관조복을 그린 이하응초상이다. 이 족자는 1) 흑칠궤에 담겨 2) 청색비단으로 두르고 3) 호갑으로 싸는 구조로 되어 있다. 양자는 모두 3중 구조인 점은 일치하였으나 전자가 청색 무명인 것과 달리 후자는 청색 비단으로 되어 있고, 전자가 흑칠외궤인 것과 달리 후자는 검은 호갑인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 참고문헌

- 『순조왕세자관례책저도감의궤』 (규13121), 1800년
『태조숙종영조정조순조문조헌종영정모사도감의궤』 (규13990), 1901년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 어책조사 학술연구결과보고서』, 1, 2012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 어책조사 학술연구결과보고서』, 2, 2013.
김미라, 「조선왕실 옥책내함 제작시기 연구」, 『고궁문화』 9, 2016.12.
김미라, 「조선왕실 제작 옥책 내함의 편년과 활용」, 『동양미술사학』 제7호, 2018.9.
김삼대자,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보인록 연구」, 『조선왕실의 어보』 2, 국립고궁박물관, 2010.
김희수·김삼기, 『목가구』, 국립민속박물관, 2003.
도환주, 「조선조 뒤주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1999.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의 공신』. 2012.
허상호, 「조선후기 명문 패불케 연구」, 『불교미술사학』 제28집, 2019.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
서울역사박물관 <http://www.museum.seoul.go.kr/>



○ 현 상

- 외케와 내함 두점 모두 보수흔적 없이 양호함

○ 내용 및 특징

외케는 소나무에 시우쇠로 장철하였으며 뚜껑에 띠장을 댄 띠장문이 부착되어 있다. 띠장문은 조선 후기에 돈케와 뒤주에 설치한 뚜껑문의 형태이다. 띠장문이란 천판을 반으로 절개하여 앞쪽을 뚜껑으로 삼고 뚜껑 안쪽에 긴 띠장을 대어 뚜껑을 닫으면 띠장이 뒤에 고정된 천판 밑까지 가 뚜껑을 위로 열지 못하고 앞으로 빼서 열도록 한 뚜껑문의 양식이다. 내함은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는 함, 보록 등 상자류의 주재료 였던 잣나무로 만들었고 두석으로 장식을 하였다. 장식 중 경첩은 상하의 크기가 동일하며 낙목은 나비머리에 죽절채를 한 숙종년간의 특징을 보인다.

○ 참고문헌

『조선왕실의 어보』 제2책(국립고궁박물관, 2010).



○형 식

좌우, 상하 날개를 순서대로 접고 날개에 달린 끈으로 묶는 형식



【그림 116】 <<기사계첩>> 호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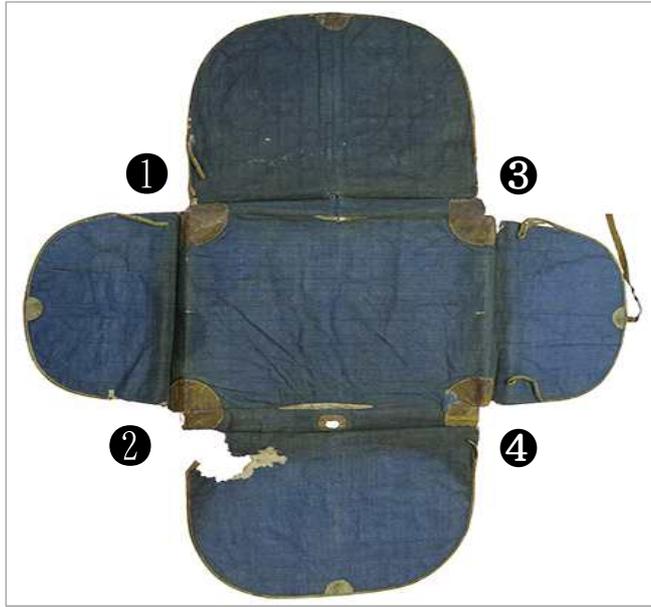
○ 조성연대 : 18세기 전기(조선 숙종 45년, 1719)

○ 현 상 : 부분적 파손. 보수 필요한 상태(그림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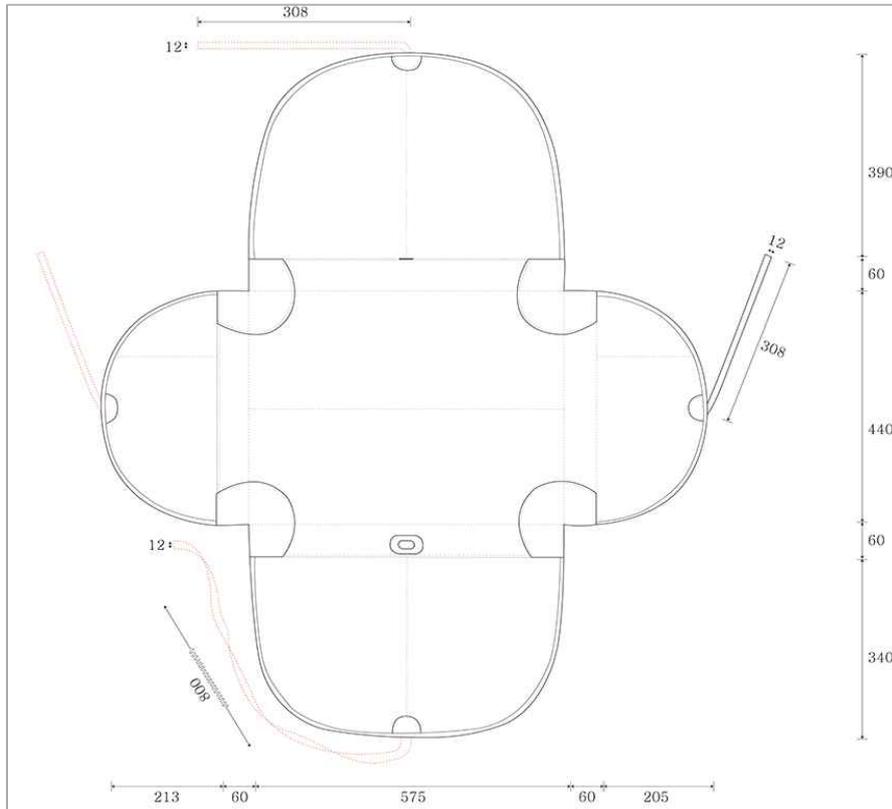
- ①모서리 한 부분 온전, ②한 부분 파손, ③·④두 모서리 박음선 풀림.
- 네 모서리 부분의 회장은 몸체와 분리된 상태.
- 묶는 네 끈 중 하나만 남은 상태.

○ 용 도 : 화첩 담은 내함(흑칠함)을 싸서 보호하는 용도

○ 전개도(그림 176·177)



【그림 117】 호갑 펼친상태(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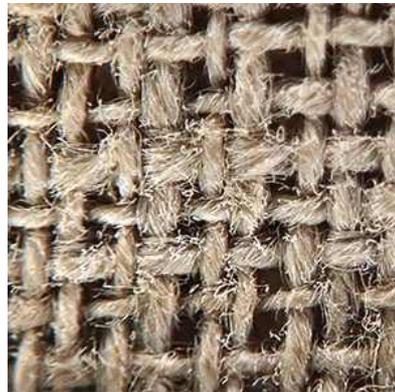
【그림 118】 호갑 실측도(겉)

○ 소재⁴⁰⁾

- 겉감[外拱] : 청목(靑木, 청색 무명, 1폭 30cm, 밀도 20×14/cm, 그림 78)
 - 세로 폭 : 28cm 2폭으로 만들었는데 중앙에서 연결함.
 - 좌우 날개[端] : 27cm 폭과 12cm 폭을 연결함.
- 안감[內拱] : 소색 무명(1폭 27cm, 밀도 18×14/cm, 그림 179)
- 배접지[漿] : 한지(그림 180)
- 실[縫作] : 삼실[麻絲](그림 181)
- 바대[錢]·회장(回裝) : 옷칠한 갈색 서피(黍皮)(그림 182)



【그림 119】 겉감(四方 5mm)



【그림 120】 안감(사방 5mm)



【그림 121】 종이(사방 5mm)



【그림 122】 삼실(사방 5mm)

40) 『寶印所儀軌』(奎 14212) 호갑 명칭과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등의 기록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호갑 유물 등을 참고하였음.



【그림 123】 옷칠한 서피 회장(겉너비 0.6cm, 안너비 0.9cm)

○ 제작법

- 겉감 청목 폭을 이어붙인 후 밑판과 날개 4조각(5조각) 재단.
- 소색 무명 안감 역시 폭을 이어붙인 후 겉감과 동일한 형태로 재단.
- 겉감과 안감 사이에 한지 배접(그림 183).



【그림 124】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은 종이 2~3겹 배접

- 밑판에 자물쇠 두석 낙목(落日)과 양배(兩排, 가로 2.4cm, 세로 1cm)를 내놓을 수 있는 구멍 만들기(그림 184~185).
 - [외경] 가로 5.5cm, 세로 3.5cm [내경]가로 3.0cm, 세로 1.5cm
- 윗날개에 아래쪽 덮개 끈을 관통시킬 수 있는 구멍 만들기(그림 186).



【그림 125】 내함의 낙목·양배를 내놓을 호갑의 구멍(겉·안)



【그림 126】 내함의
낙목·양배와 호갑의 구멍



【그림 127】 아랫쪽 날개의
끈을 끼울 윗변의 구멍

- 밑판의 네 모서리에 녹피 바대(가로×세로 각 12cm 정도, 밑판 한 변 길이 6cm, 높이 6cm)를 꿰매고 세로선을 박아 상자 만들기(그림 187).



【그림 128】 밑판 모서리 서피 바대(그림 2 ①·②)

- 네 날개의 둥근 가장자리 중앙에 서피 끈바대(가로 6cm, 세로 3~3.5cm)를 상침으로 고정시킴(그림 188).
- 네 날개에 끈 고정하기 : 현재 남아 있는 길이 30.8cm, 너비 1.2cm
 - 아래쪽 날개 : 큰 구멍 쪽 날개의 끈은 돌띠고름처럼 한 바퀴를 돌려야 하므로 80~90cm 정도로 길이어야 함.
 - 나머지 두 날개 : 현재 남아 있는 끈 정도의 길이(30.8cm)면 가능.
- 겉면에 서피 회장을 두른 후 끈 위치에 구멍을 뚫어 끈(그림 189)을 끼운 후 안쪽에서 회장의 가장자리를 감침질로 고정시킴(그림 190).



【그림 129】 서피 끈바대(가로 6cm,
세로 3~3.5cm)와 회장



【그림 130】 녹피끈
(길이 30.8cm, 너비 1.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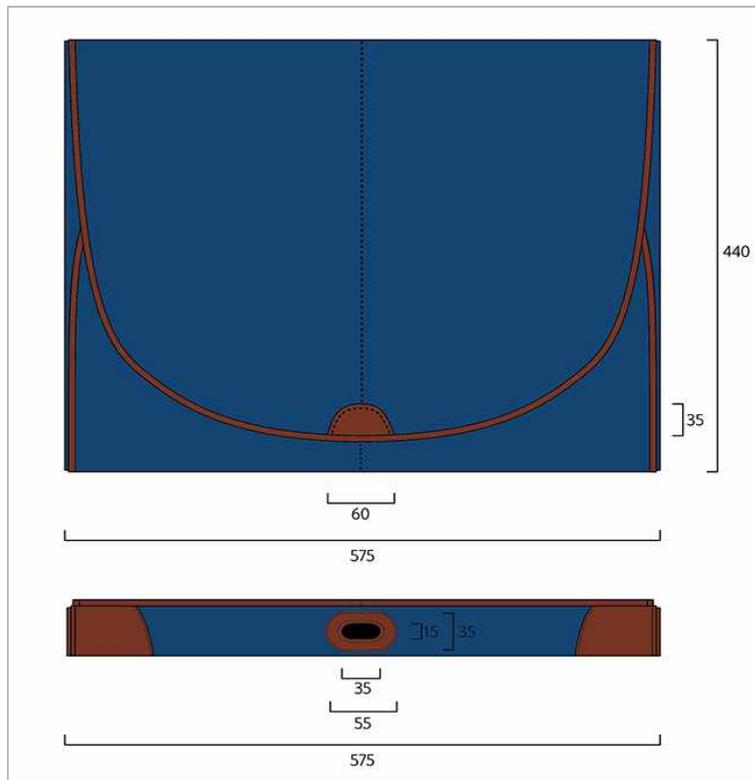
【그림 131】 서피 회장의 안쪽 바느질 상태(좌)와 뜯어진 부분(우)

- 밑판 네 가장자리에 완성된 네 날개를 각각 연결하여 호갑 완성시킴.
- 호갑의 사용 방식(그림 191)
- 좌·우 날개를 접는다.
 - 아래 날개를 접어 위쪽 구멍에 끈을 끼워 아래로 돌려 감는다.
 - 윗날개를 덮고 상·하 날개의 양 끈을 묶는다.



【그림 132】 호갑 사용법

○ 완성된 호갑의 도식화(그림 193)



【그림 133】 접은 상태의 호갑 도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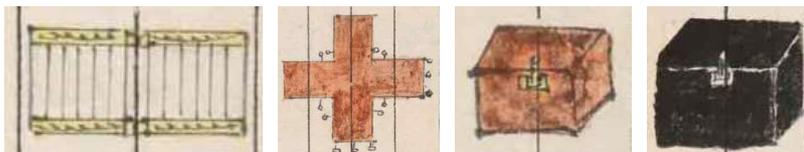
○ 참고 유물

- 이산보 호성공신 교서함과 호갑(그림 194)
 - 1604년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된 이산보(李山甫, 1539~1594)에게 내린 공신교서와 교서함, 호갑이 한산이씨 중간공파 종택에 보관되어 있음.
 - 용도의 공통점 : 《기사계첩》의 호갑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함.
 - 소재의 차이점 : 사진상으로 이산보 호갑은 가죽으로 판단되며 《기사계첩》은 청색 무명으로 제작하여 소재의 차이를 보임.
 - 구성법의 차이점 : 두 호갑의 제작 구성법을 비교해 볼 때, 이산보 교서함 호갑은 날개를 미리 밑판에 연결한 후 전체를 한꺼번에 둘러 회장의 훼손이 적은 반면, 《기사계첩》 호갑의 회장은 네 날개에만 둘러서 밑판과 연결했기 때문에 밑판 모서리 부분이 훼손되면서 회장도 함께 훼손되어 몸체와 분리되었음. 따라서 훼손여부로 볼 때 이산보 교서함 호갑 구성법이 더 튼튼한 구성법으로 판단됨.



【그림 134】 이산보 교서와 교서함, 호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2, p. 102)

- 1759년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110~111쪽) 三房儀軌 옥책 봉과물
 - ①玉冊 ②匣 ③袂袱 ④結纓子 ⑤倭朱紅漆內函 ⑥袂袱 ⑦黑漆外櫃 ⑧外裹單袱
 - 옥책 관련 봉과물 도상(그림 94)



【그림 135】 ①玉冊 ②匣 ⑤倭朱紅漆內函 ⑦黑漆外櫃

- 匣一件所入 【外用紅廣織 內藍廣織 槩用草注紙 長廣從貼數多少造作 而用象牙作丹樞 以冊盛於匣內 先以上端下摺 次以下端上摺以樞鎖之 又以右端左摺 次左端右摺 亦以樞鎖之 用布帛尺】
- 《기사계첩》 호갑과의 봉과물 구성 유사성
 - 옥책 봉과물 종류 8종 중 4종에 해당.
- 《기사계첩》 호갑과 옥책감의 소재 사용법 유사
 - 곁감과 안감, 그 사이에 종이 넣는 방식 접는 방식 유사함.
- 《기사계첩》 호갑과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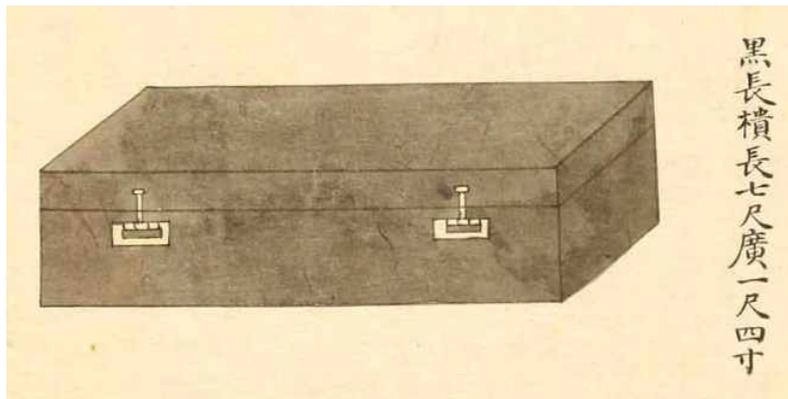
- 옥책 같은 상자 단추로 맺는 방식인 반면, 《기사계첩》 호갑은 끈으로 묶는 방식임.

- 1860년대 이하응(李昞應, 1820~1898) 초상 흑장궤 호갑(서울역사박물관 소장)
 - 흑색 문단(겉)과 청색 문단(안) 두 겹으로 제작한 호갑.(그림 95)
 - 종이 배접 가능성 있음.
 - 끈 대신 상자 단추를 사용하여 여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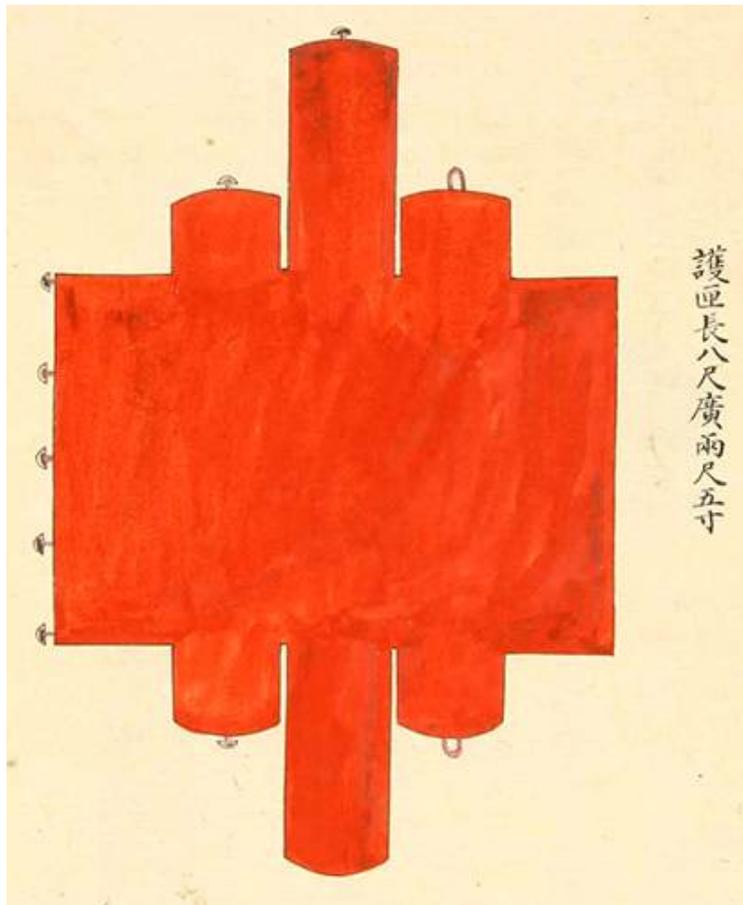


【그림 136】 이하응 초상 흑장궤 호갑
(국립고궁박물관 2015: 120~121, 123)

- 1901년 『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影幀摸寫都監儀軌』(奎 13990) 궤와 호갑



【그림 137】 1901년 흑장궤 도상
(『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影幀摸寫都監儀軌』 001책: 136)



【그림 138】 1901년 호갑 도상
 (『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影幀摸寫都監儀軌』 001책: 136)

○ 참고자료

- 『寶印所儀軌』 (奎 14212)
- 『尙方定例』
- 『世宗英陵表石營建廳儀軌』 (외규160)
-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下)』 (奎 13102)
- 『太祖肅宗英祖正祖純祖文祖憲宗影幀摸寫都監儀軌』 (奎 13990)
-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
- 국립고궁박물관, 2015, 『국역 보인서의궤』 .
- 국립고궁박물관, 2015, 『宮祿 궁중보자기』 .
- 국립고궁박물관, 2016, 『國朝寶鑑』 .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 문화재청 <http://www.heritage.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2, 『조선의 공신』 .

보완조사보고서



○ 주요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국왕이 기로소(耆老所)에 입소한 경우는 총 네 번이 있었다. 1394년(태조 3) 태조가 60세가 되었을 때, 1719년(숙종 45) 숙종이 59세가 되었을 때, 1744년(영조 20) 영조가 51세가 되었을 때, 1902년(광무 6) 고종이 51세가 되었을 때가 그것이다.

태조가 기로소에 입소한 행사는 당대의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고, 심희수(沈喜壽)와 김육(金堉)이 작성한 「기로소선생안서(耆老所先生案序)」와 유근(柳根)이 작성한 「문충공이원익사궤장서(文忠公李元翼賜几杖序)」에 나타난다. 태조의 기로소 입소에 관한 당대 기록은 왜란이나 호란 때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태조 이후 60세를 넘긴 국왕은 나오지 않았고, 광해군은 67세까지 생존했지만 49세에 왕위에서 밀려났으므로 기로소에 입소하지 못했다.

숙종이 59세가 되던 1719년 새해에 국왕의 기로소 입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왕세자(경종)가 기로소 입소를 요청하자, 숙종은 자신이 60세가 되면 태조의 행적을 따라 기로소에 입소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강화도에 보관된 실록을 검토해도 관련 기록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은 심희수, 김육, 유근의 기록을 바탕으로 망육(望六, 59세)이 되는 1719년에 국왕이 기로소에 입소하고 기로신을 위한 기로연을 열기로 하였다. 또한 태조가 어필로 제명(題名)한 『기로소선생안(耆老所先生案)』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므로, 새 책자를 만들어 제일 앞에 태조의 묘호(廟號)를 쓰고, 그 다음 장에 숙종의 존호(尊號)를 쓰기로 결정했다. 다만 숙종은 당시 눈병을 심하게 앓아 직접 존호를 쓸 수 없었으므로 왕세자가 국왕을 대신하여 쓰기로 했다.

1719년 2월 11일에 숙종은 경덕궁(慶德宮, 경희궁) 흥정당(興政堂)에서 기로소 입소식을 거행했다. 영의정 김창집이 책자를 올리자 왕세자가 “耆老所御帖”이란 제목을 쓰고, 태조의 시호와 숙종의 존호(顯義 光儉 睿聖 英烈王), 기로소에 들어간 일자를 기록했다. 기록을 마치자 이 책자를 기로소로 가져가 건물 벽에 있는 감실에 봉안했다. 6월 9일에 기로소의 영수각(靈壽閣) 건물이 완성되자, 6월 24일에 『기로소서첩』을 기로소 감실에서 영수각으로 옮겨 봉안하였다.

2월 12일에는 경덕궁 승정전(崇政殿)에서 국왕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는 진하(進

賀)가 있었다. 왕세자가 문무백관을 인솔하고 나아가 경사를 축하하는 전문(箋文)을 올렸고, 숙종은 70세 이상의 관리와 80세 이상의 백성들에게 자급(資級)을 올려주는 혜택을 내렸다.

4월 18일에 숙종은 경덕궁의 편전인 경현당(景賢堂)에서 기로신에게 기로연(耆老宴)을 베풀었다. 기로연의 절차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나오는 「양로연의(養老宴儀)」를 응용했다. 이날 숙종은 “賜耆老所”라 새겨진 은배(銀杯)를 하사하며 기로신들에게 다섯 번째 술잔은 이 술잔으로 마시게 했다. 숙종은 어제시를 지은 다음에 이를 새긴 현판을 기로소에 걸게 했다. 숙종의 어제시 제목은 ‘경현당에 직접 가서 기로신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날 짓다[親臨景賢堂耆老諸臣錫宴日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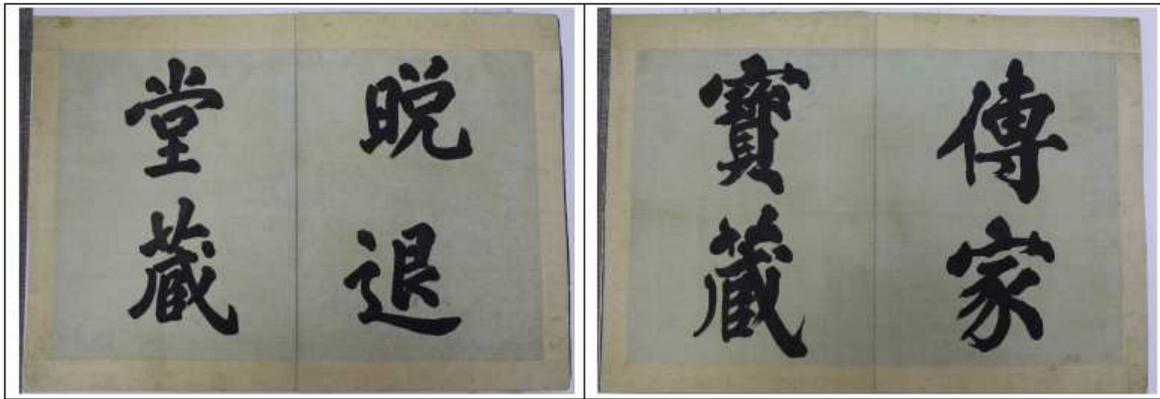
4월 18일의 기로연이 끝나자 영의정 김창집은 국왕이 내린 은배를 가지고 기로소로 가서 잔치를 계속하겠다고 아뢰었다. 숙종은 기로연에 참석했던 악부(樂部)를 데려가도록 허락했고, 기로신 10인은 기로소에 이동하여 잔치를 계속했다. 9월 28일에 경덕궁 경현당에서 숙종을 위한 진연(進宴)이 거행되었다. 이날 숙종에게는 9잔의 술잔 대신에 7잔의 술잔을 올리는 것으로 행사를 간소화했으며, 진연에 관한 기록은 『숙종기해진연의궤(肅宗己亥進宴儀軌)』로 정리되었다.

『기사계첩(己巳契帖)』은 1719년에 있었던 숙종의 기로소 입소와 기로신에게 내린 기로연을 기록한 것으로, 4월 18일 기로연이 끝난 후 작성되기 시작하여 1720년 12월에 완성되었다. 『기사계첩』은 총 12부가 작성되었으며, 1부는 기로소에 보관하고 11부는 기로신 11인이 한 부씩 나눠가졌다.

『기사계첩』의 제일 앞에는 임방(任墜)이 지은 계첩서(契帖序), 숙종의 어제시인 숙종대왕어제(肅宗大王御製), 김유(金樛)가 지은 어첩발(御帖跋)이 있다. 다음에는 1719년의 각 행사에 참여한 관리의 명단과 행사를 시간 순으로 그린 어첩봉안도(御帖奉安圖), 승정전진하전도(崇政殿進賀箋圖), 경현당석연도(景賢堂錫宴圖), 봉배귀사도(奉盃歸社圖), 기사사연도(耆社私宴圖)가 있다. 그 다음에는 기로신 11명의 명단과 최규서를 제외한 기로신 10인의 반신초상이 있다. 당시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아서 초상을 그릴 때 참석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김창집을 비롯한 기로신 19인의 칠언시가 수록되어 있다. 숙종의 기로소 입소를 축하하는 시는 최규서와 임방을 제외한 9인의 기로신이 작성하였고, 기로연에 참석한 후에 지은 시는 최규서를 제외한 10인의 기로신이 작성하였다. 이 계첩의 마지막에는 『기사계첩』을 제작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

보물 제639호인 『기사계첩』은 표지의 제목이 “耆英畫像帖”으로 되어 있어, 국보 제325호의 제목인 “己亥耆社帖”과 보물 제929호의 제목인 “耆社契帖”과는 다르다. 이 『기사계첩』의 제1면과 제2면에는 “晩退堂藏”, 제53면과 제54면에는 “傳家寶藏”

이란 글씨가 있어, 1719년 행사에 참여한 기로신 가운데 홍만조(洪萬朝)가 소장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계첩은 지금도 풍산 홍씨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어 그 전승 과정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 이 『기사계첩』은 다른 소장본에 비해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 국보 제325호에 없는 계첩을 제작한 참여자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사계첩』은 책자를 온전히 보관하기 위한 흑칠내함, 쪽빛무명호갑, 흑칠외개를 완전히 갖추고 있어, 계첩만 남아있는 다른 유물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 참고자료

『기사계첩』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76)

김문식,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사학지』 40, 2008.

김문식, 「1902년 고종황제의 기로소 입소」, 『국왕 의례 정치』, 태학사, 2009.

□

○ 현 상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기사계첩(耆社契帖) 및 함’은 54면으로 구성되었다. 제작 당시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서화첩을 보관한 내함·호갑·외함이 잘 갖춰져 있다. 제24면 김창집 반신 초상의 회장 부분에 돌아가면서 무언가를 붙였던 흔적이 보이고, 제39면 이선부의 <敬此> 두 번째 시에서 ‘協’자는 네모나게 잘라내어 다시 써서 붙였다. 제41면 신임의 칠언시에서 ‘言同樂駐東流’는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보이고, 제44면 김창집의 칠언시 끝부분 ‘領議政金昌集’에는 무언가를 붙였던 흔적이 보인다. 54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앞표지 : 耆英畫像帖(36.8x6.0cm)이란 표제가 있음.

제1-2면 : 제1면에 ‘晚退’, 제2면에 ‘堂藏’이 각각 1행 2자.

- 제3-4면 : 契帖序 2면.
 제5-6면 : 모두 홍색 비단이나 제5면은 공간이고, 제6면은 肅宗大王御製임.
 제7-8면 : 御帖跋 2면.
 제9-10면 : 契會 행사 때 陪進한 人名 2면.
 제11-12면 : 御帖奉安圖 2면.
 제13-14면 : 崇政殿進賀箋圖 2면.
 제15-16면 : 景賢堂錫宴圖 2면.
 제17-18면 : 奉盃歸社圖 2면.
 제19-20면 : 耆社私宴圖 2면.
 제21-22면 : 座目 2면.
 제23-24면 : 李濡·金昌集의 眞影.
 제25-26면 : 金字杭·黃欽의 眞影.
 제27-28면 : 姜覲·洪萬朝의 眞影.
 제29-30면 : 李善溥·鄭滌의 眞影.
 제31-32면 : 申鉉·任墮의 眞影.
 제33-34면 : 金昌集·李濡의 祝詩.
 제35-36면 : 金字杭·黃欽의 祝詩.
 제37-38면 : 姜覲·洪萬朝의 祝詩.
 제39-40면 : 李善溥·鄭滌의 祝詩.
 제41-42면 : 申鉉·任墮의 祝詩.
 제43-44면 : 李濡·金昌集의 祝詩.
 제45-46면 : 金字杭·黃欽의 祝詩.
 제47-48면 : 姜覲·洪萬朝의 祝詩.
 제49-50면 : 李善溥·鄭滌의 祝詩.
 제51-52면 : 제51면은 申鉉의 祝詩, 제52면은 계첩 작성의 監造官·書寫官·
 畫員의 명단.
 제53-54면 : 제53면에 ‘傳家’, 제54면에 ‘寶藏’이 각각 1행 2자.
 뒤표지 :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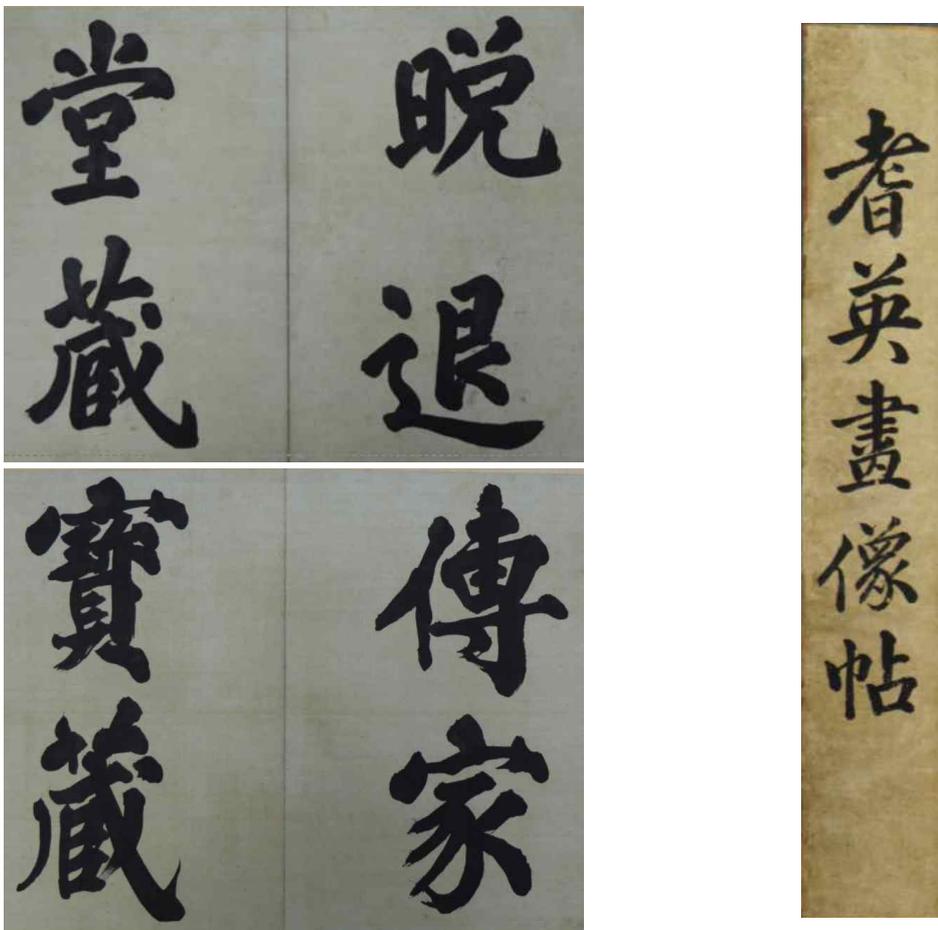
이 중에서 앞표지의 표제 ‘耆英畫像帖’과 제1-2면의 ‘晚退堂藏’ 및 제53-54면의 ‘傳家寶藏’은 다른 기사계첩에 없는 것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전승 경위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를 제외한 총 50면은 서예와 그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서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3-4면의 契帖序, 제6면의 肅宗大王御製, 제7-8면의 御帖跋, 제9-10면의 契會 행사 때 陪進한 人名, 제21-22면의 座目, 제33-51면의 耆

臣들의 祝詩, 제52면의 계첩 작성의 監造官·書寫官·畫員의 명단 등이다. 이를 서사자로 구분하면 크게 어필, 기신(耆臣)의 자필(自筆), 서사관의 글씨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기신들의 자필은 각자의 서체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서예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외의 것은 모두 그림에 속하니, 여기에서는 서예에 속하는 부분만 대상으로 삼아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겠다.

○ 내용 및 특징

서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먼저 앞표지의 ‘耆英畫像帖’, 제1-2면의 ‘晚退堂藏’, 제53-54면의 ‘傳家寶藏’은 서풍이 서로 다르고, 다른 기사계첩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임방(任墜, 1640~1724)이 쓴 「契帖序」에 의하면, “계첩은 12부이고, 그중의 하나는 기소에 소장하였으며, 나머지는 기신(耆臣)의 여러 집에 나누었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11명이나 초상을 그린 것이 10명인 것은 신하 최규서(崔奎瑞, 1650~1735)가 은퇴하여 고향 집에 있어서 임금에게 나아가 볼 수 없었던 까닭이다[帖凡十二, 其一藏於耆所, 餘則分於諸家. 名錄爲十一人, 而圖像則爲十者, 臣奎瑞以退處田

廬, 不得登筵, 故也.]”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11부를 반사(頒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반사할 때 제첨(題簽)은 공간으로 비워두는 것이 통례이다. 현재 기사계첩 제첨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耆英畫像帖’ 이외에 ‘己亥耆社帖’(국보 제325호), ‘耆社契帖’(이화여대박물관본, 보물 제929호), ‘耆老所契帖’, ‘親臨己亥耆社契帖’ 등이 있다. 이는 소장처가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晚退堂藏’에서 만퇴(晩退)는 홍만조(洪萬朝, 1645-1725)의 호이고, ‘傳家寶藏’은 집안에 전하여 보물로 소장한다는 뜻으로 ‘耆英畫像帖’이 기신(耆臣)의 한 사람인 홍만조 소장품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현재 풍산홍씨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으므로 작품의 경위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내용이라 하겠다.

‘耆英畫像帖’의 글씨는 ‘肅宗大王御製’를 본받은 것 같으나 이보다 필획이 정확하고 단정하며 굳센 것이 특징이다. ‘晚退堂藏’은 둥근 필획의 원필(圓筆)을 주로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은 있으나 골력보다 살집이 많아서 점잖고 의젓한 유생의 문인 글씨와 같다. 이에 비해 ‘傳家寶藏’은 모나거나 둥근 방필(方筆)과 원필을 사용하여 능각(稜角)을 나타내는 굳센 느낌과 힘찬 필획에서 굳세고 단호하며 호방한 무인의 글씨와 같아 ‘晚退堂藏’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제3-4면의 契帖序는 임방의 글씨로 제42면의 耆老錫宴後以首輔命唱呈二律과 비교하여 설명하겠다. 전자는 파리하고 필획의 굵기가 거의 일정하며, 후자는 살지고 필획이 굳세면서 가로획보다 세로획을 더욱 굳세고 곧게 처리하며 골격을 나타내었다. 서체는 해서로 약간 행서 필의를 더하여 활발함을 나타내었고, 필세는 자간보다 행간이 넓어 중세를 나타내었다. 서체는 장식적인 미와 필력이 결핍된 송설체에서 벗어나 왕희지 서체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웅건하고 훈후한 안진경 서체를 본받았다. 전자와 후자의 유사성은 ‘彡·灬·彳’ 등의 부수를 행서 필의로 처리한 것, ‘事·前’에서 마지막 세로획을 길게 빼지 않으면서 중심을 중궁(中宮)에 두었다는 것, ‘卍’의 필순·형체·각도가 유사하다는 것,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서사한 ‘墮’에서 ‘防’의 자형·위치·각도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제6면의 肅宗大王御製는 숙종의 어필이 아니니, 당시 숙종은 시력이 약해져서 왕세자(즉 경종)가 대신 서사한 것이다. 이는 임방의 契帖序에서 “금상전하(즉 경종)께서 춘궁에 계실 때 왕명을 받들어 어첩 머리에 태조대왕의 시호를 적으셨다 [今上殿下在春宮, 承命寫御帖首題, 太祖大王諡號].”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다시 다음에 보이는 김유(金樛, 1653-1719)의 御帖跋에서 “예부의 신이 건언하길, ‘마땅히 하나의 첩자를 만들어 왕세자(즉 경종)께서 친히 태조의 존호와 연월일을 쓰시고, 그 아래에 우리 전하의 존호와 연월일을 써서 들이시며, 들임을 마치면 승지 예부 신은 의장을 갖추어 본 기소(耆所)에 봉안하십시오.’라고 하자 상은 옳

다고 하셨다[禮部臣建言, 宜作一帖子, 春宮親寫, 太祖尊號, 某年月日, 入其下書, 我殿下尊號, 某年月日, 入訖, 承旨禮臣, 具儀仗奉安本所, 上可之].”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보면, 肅宗大王御製는 숙종이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왕세자였던 경종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숙종이 을해년(1719) 태조대왕의 고사에 따라 기소(耆所)에 납시고 4월 18일 경덕궁 경현당에서 기신(耆臣)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었으며, 특히 은잔을 하사하시어 은총을 내리셨다는 것이다. 글씨는 부친 숙종의 글씨를 닮았으며, 법도가 단정하고 의젓하며 부드러운 서풍은 왕실에서 용인한 조맹부나 한호의 송설체(松雪體)와 석봉체(石峯體)를 학습한 면모가 보인다.

제7-8면의 御帖跋은 당시 이조참판으로 대제학을 겸하였던 김유가 쓴 것으로 내용은 계첩의 자초지종을 자세히 기록하여 기사(耆社)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글씨는 필획의 변화가 많지 않고 간가(間架)는 너그러워 균색하지 않으며, 살지거나 파리함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중화미(中和美)를 나타낸 여유롭고 의젓한 문인의 필치이다. 서풍은 자형과 적획(趯畫)·날획(捺畫)·과획(戈畫)·ㄷ 등에서 송설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9-10면의 契會 행사 때 陪進한 人名은 서사관이 썼다. 그는 제52면의 기록을 통해 서사관상호군(書寫官上護軍) 이의방(李義芳, 생몰 미상)이란 성명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사적은 자세하지 않다. 이외에 제21-22면의 座目, 제52면의 계첩 작성의 監造官·書寫官·畫員의 명단 등도 서사관이 쓴 것으로 함께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사전에 의하면, 서사관(書寫官)은 각 관아에서 필사하는 일을 하였던 잡직의 구실아치이고, 사자관(寫字官)은 조선시대 승문원·규장각에 속하여 문서를 베끼는 일을 맡아보던 말단 벼슬이라 하였다. 이를 보면, 서사관은 사자관보다 낮은 하급관리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서사관의 임무는 오로지 올바르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서사하는 실용서예에 충실히 하는 것이어서 작가의 성정을 나타내는 예술서예와 구별이 있다. 따라서 서사관 이의방이 쓴 글씨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행서 필획이 전혀 없는 방정한 해서로 자형과 필획은 변화가 없고 자간과 행간은 일정하며, 필획 사이의 간가(間架)는 고르고 한결같아 마치 판에 박은 듯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하며 천편일률적이어서 보기에 좋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제33면은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의 칠언시 「耆社志喜」·「賀班」·「謹次洪尙書賀班韻」 3수인데, 제44면의 「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는 김상헌(金尙憲)의 증손자이고 김수항(金壽恒)의 아들이며, 동생 김창협(金昌協)·김창흡(金昌翕)·김창업(金昌業)·김창집(金昌緝)·김창립(金昌立)과 함께 문장의 대가로 육창(六昌)이라 불렸다. 그의 백부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중국 송나라 구양수(歐陽脩, 1107-1072)가 역대 금석문을 모아 『집고록발미(集古錄跋尾)』를 편찬한 것처럼 우리나라 금석문을 모아 『금석총(金石叢)』 180권을 이루어 금석학사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김수증은 유독 예서를 천착하였는데, 이는 남인의 핵심이었던 허목이 선진유학과 고문에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고전(古篆)을 깊이 천착한 것에 비하여 그는 서인의 핵심이었던 송시열과 긴밀하여 한나라 훈고학의 연구 방법을 취하여 진·한나라의 소전·예서를 중시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예서 전통은 가학으로 전해져서 12대손 김충현(金忠顯, 1921-2006)에 이르러 더욱 꽃을 피웠다. 이러한 예서의 영향은 김창집에게도 전해져서 편방형의 넓직한 자형이 많이 보인다. 이는 마치 예서에서 해서로 변천하는 과도기 시기에 중국 종요(鍾繇, 151-230)의 <천계직표(薦季直表)>·<선시표(宣示表)> 등에 나타나는 예서의 필의를 띤 넓직한 자형의 질박한 서풍과도 같다. 예를 들면, ‘帖·安·錄·社·宮·邀·遐·韻·古·昭·次·任·酒·陪·闕·樓·寵·新’자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글자들은 일반적으로 장방형이나 아무리 키를 작게 하여도 정방형에 가까운 자형을 나타내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그는 자간보다 행간이 넓은 종세(縱勢)의 필세 바탕 위에 이러한 글자들은 적당하게 안배하여 종세 가운데 횡세(橫勢)를 나타내는 착락(錯落)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것은 당시의 유행서풍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성정과 정취를 나타낸 독특한 서풍이라 하겠다.



예서 필의를 나타낸 편방형(扁方形)의 자형

제34면은 영중추부사 이유(李濡, 1645-1721)의 「敬次耆社志喜韻」으로 제43면의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와 함께 살펴보겠다. 점과 필획의 안배는 가지런하여 안온한 느낌이 들고, 자간을 조금 넓게 하여 답답하지 않으면서 여유로운 운치를 나타내었다. 자형은 장방형을 주로 하면서 자간보다 행간이 넓어 종세(縱勢)의 필세를 나타내었고, 서풍은 규범적인 한호의 석봉체와 유사하다. 장방형을 이루는 전형적인 해서는 위가 긴밀하고 아래가 성근 상밀하소(上密下疏)를 운영하여 키가 흰칠하고 시원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의 일부 자형은 위아래를 고르게 안배하고 중심이 중궁(中宮)에 있는 정방형을 나타내어 안정감은 있으나 생동한 느낌은 떨어진다. 이러한 예는 ‘敬·韻·齡·同·謹·尙·將’ 등의 글자에서 보인다.



위아래를 고르게 안배하고 중심이 중궁(中宮)에 있는 자형

제35면은 김우항(金字杭, 1649-1723)의 「謹次領相金公耆社志喜韻」·「謹次洪尙書賀班韻」으로 제45면의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과 함께 살펴보겠다. 해서에 행서 필의를 섞은 해행서로 왕희지 서체를 본받았으나 가로획은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어 활발한 기운보다 안정감을 나타내었다. 자간이 조금 넓어 글자마다 독립되어 서체는 비록 해행서이지만, 왕희지 글자를 집자하여 쓴 것처럼 필세가 연결되지 않고 판에 박은 듯한 느낌이 든다. 한 글자마다 필법을 준수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꼬박꼬박 쓴 것에서 평생 청빈한 삶과 근엄한 문인의 절조가 느껴진다.

제36면은 황흠(黃欽, 1636-1730)의 「謹次首相耆社志慶韻」으로 제46면의 「謹此耆社諸公韻」과 함께 살펴보겠다. 그의 글씨는 용필과 결구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성을 나타내었다. 해서에서 가로획의 일반적 필법은 기필의 윗부분과 수필의 아랫부분이 수평을 이루어야 위로 향한 듯하면서도 안정감을 나타낸다. 만약 기필의 윗부분과 수필의 윗부분이 수평을 이루면 아래로 처지는 느낌이 들고, 수필의 아랫부분이 기필의 윗부분보다 많이 올라가면 공중에 뜬 느낌이 든다. 황흠의 가로획은 후자에 속하고, 이는 대부분 붓을 비스듬히 누어 쓰는 언필(偃筆)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로 말미암아 자형 또한 쏠리고 기울어진 형태를 형성하였다. 이는 ‘再·有·下·光·翫·工·南·峙·長·拱·丹·共·指·梨·先·留’ 등의 글자에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 송나라 소식(蘇軾, 1037-1101) 서예의 주요 특징으로 바위에 눌린 두꺼비의 형상이라는 놀림이 있었지만, 굳센 필획과 비옥한 살짐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오히려 독특한 서풍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황흠의 글씨를 보면, 소식 서풍의 겉모습만 본받았을 뿐 내면의 진정한 면모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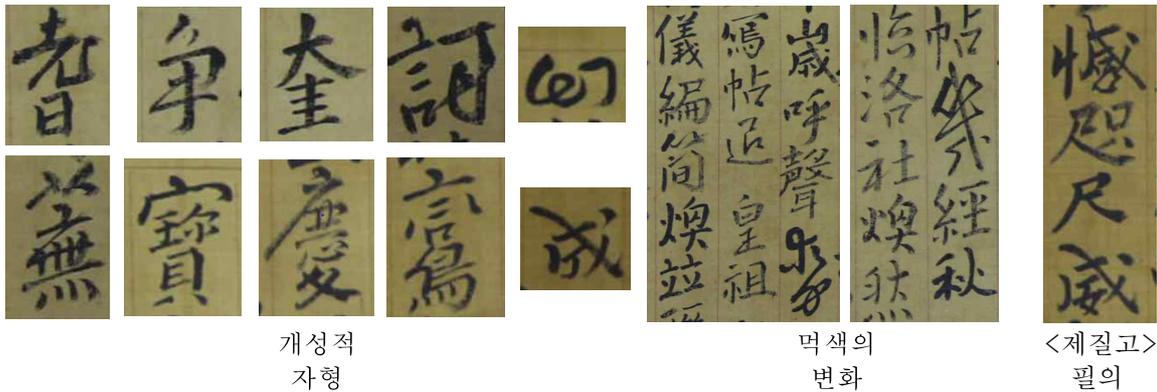


가로획이 지나치게 위로 향하거나 기울어진 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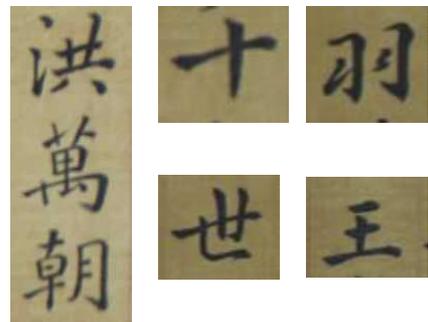
제37면은 행지중추부사 강현(姜鉉, 1650-1733)의 「敬次耆社志喜韻」·「敬次賀班韻」으로 제47면의 「敬次」와 함께 살펴보겠다. 그는 부친 강백년(姜栢年, 1603-1681)

을 이어 아들 강세황(姜世晃, 1713-1791)과 함께 삼대가 기소(耆所)에 들어가 ‘삼세 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의 영광을 누렸다. 특히 강세황은 시·서예·회화 삼절로 유명하고, 높은 감식안을 지닌 서화 평론가로도 명성이 있었다. 집안 대대로 서예의 명성이 있었고, 그는 특히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

그의 글씨는 기신(耆臣)들 자필에서 가장 개성적 색채를 나타내었다. 서체는 해서를 기조(基調)로 삼고, 여기에 행서나 초서 심지어 예서 필의까지 섞어 변화무쌍함을 나타내었다. 비록 때로는 안진경 <제질고> 필의를 띠기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자가풍(自家風)의 서체라 할 수 있다. 용필은 질박하고 법도의 구속을 초탈한 천진함을 나타내면서 지면 가득히 중횡무진 제멋대로 하였으며, 자형에서도 일반적인 격식을 벗어난 자신의 독특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먹색은 진하거나 옅은 농담의 변화가 있고, 필세는 활달한 기상을 유감없이 나타내었으며, 필치는 거칠고 호방한 가운데 섬세한 필법을 갖추면서 유창함과 묘함을 겸하였다. 이러한 글씨는 평소 각 서체를 섭렵하고 오랫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 연마하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나타내며 소식이 말한 “글씨는 처음 아름다움에 뜻이 없어야 아름답게 된다[書初無意於佳乃佳爾].”라는 경지를 체현한 것이라 하겠다.



제38면은 홍만조(洪萬朝, 1645-1725)의 「敬次首相耆社韻」·「陳賀日口占志喜錄呈求和」로 제48면의 「謹次任尙書耆老賜宴後韻」과 함께 살펴볼 것이다. 글씨는 비록 달필이고 노년의 원숙미를 나타내었지만, 골격과 필력이 뛰어나지 못하여 한낱 늙은 선비의 의젓하고 여유로운 자태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일부 몇 글자와 자신의 성명을 서사한 데에서 기개와 절조가 나타나고 있어 충성스러운 선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9면은 이선부(李善溥, 1646-1721)의 「敬次」 2수이고, 제49면에도 「敬次」 1수가 있으나 성명 밑에 2행으로 ‘孫海運 代寫’라 썼으므로 본인의 글씨가 아니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제40면은 한성부관윤 정호(鄭澐, 1648-1736)의 「敬次元輔夢窩金公耆社志慶韻」· 「敬次賀班韻」으로 제50면의 「謹次任尙書耆老錫宴後韻」과 함께 살펴보겠다. 그는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鄭澈, 1536-1593)의 4대손이고,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하생으로 일생을 노론의 선봉 역할을 하였으며, 시문과 서예로도 유명하였다. 그의 글씨는 스승 송시열이 안진경 서체를 배운 뒤 주자를 모방해 개성적인 경지에 이른 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필획은 굵고 강직하며, 운필은 장중하면서도 동태적인미를 나타내어 답답하기보다는 주체성이 강한 면모를 나타내었다. 서풍은 웅건하고 장중하며, 필법에 구애받지 않는 자연스러움은 기교가 없는 질박한 미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과격의 미가 함께 어울려 교묘한 조화를 이루었다. 이는 당시 유약하고 쇠미한 송설체에서 벗어나 서예를 단순한 기예에서 성리학 수양의 범주로 끌어올리며, 조선 서예의 토착화를 모색하는 면모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제41면은 우참찬 신임(申銓, 1639-1725)의 「二聖御帖奉安靈壽閣後廣和領台金相國志喜詩兼呈同社諸公」 2수로 제50면의 「親臨錫宴後次任知樞詩韻」과 함께 살펴보겠다. 그는 시와 서예로 유명하였고, 창덕궁 영수각(靈壽閣)의 편액을 썼을 정도로 당시 명성이 있었다. 글씨는 당나라 우세남의 서풍을 본받아 소쇄하고 운택하며, 외유내강처럼 정신을 안으로 지켜 운치가 뛰어났다. 필획은 단정하고 적획(趨畫)과 날획(捺畫)의 과임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자형은 대체로 키가 큰 장방형이고, 자간보다 행간이 넓은 종세(縱勢)의 필세를 나타내었다. 필치는 비록 유창하지 않지만, 전혀 무리가 없이 서두르지 않고 정성을 다해 서사하면서도 여유와 의젓한 자태를 나타내었다.

○ 문헌자료

-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圖錄(5) 特別展 耆社契帖, 이화여자대학교 1976.
- 광노봉, 『서체』, 다운샘 2015.



○ 현 상

조선의 19대 국왕 숙종의 회갑을 맞아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제작한 계첩 12본 가운데 하나로, 상태가 매우 양호한 계첩과 이를 포장한 호갑, 호갑에 포장하여 계첩 담은 내함 및 총괄하여 보관하기 위한 목재 껍까지 갖추고 있다.

- 청색 비단으로 마감된 표지에는 제첩이 있는데, 여기에 적힌 글씨들은 현전하는 이본마다 내용이 다르다. 이 첩의 경우는 “耆英畫像帖” 다섯 글자가 행기가 있는

해서로 적혀 있다.

- 1, 2면에 해당하는 내지에는 서자 미상의 대자 해서 네 글자가 있다.
 - 3, 4면에는 임방(任墜, 1640~1724)이 지은 서문이 있는데, 해서와 행서를 섞어 서사관 이의방이 쓴 것으로 보인다.
 - 5면은 금니 구획선만 있고 내용은 없으며 6면에 숙종의 어제시 한 수와 관련 사항을 부기하였다.
 - 7, 8면에는 김유(金樞, 1653~1719)가 지은 발문이 있는데, 이 역시 서사관이 쓴 것으로 보인다.
 - 9, 10면은 어첩 봉안과 기로연 등에 참여한 인원의 명단이며 서사관 이의방이 썼다.
 - 11면부터 20면까지는 어첩 봉안부터 기로사에서 연회 장면을 기록한 그림들이다.
 - 21, 22면은 이의방이 쓴 좌목이 있다.
 - 23~32면에는 10인의 기로신 반신상이 있다.
 - 33면에는 당시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자작 시 세 수를 적었다. 김창집의 이름 주위에 접착한 흔적이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본에는 이런 흔적이 없다.
 - 34면은 영중추부사 이유(李濡, 1645~1721)가 짓고, 자필로 쓴 시 한 수가 있다.
 - 35면에는 김우항(金宇杭, 1649~1723)이 자신의 시 세 수를 쓴 것이 있다.
 - 36면에는 황흠(黃欽, 1639~1730)이 짓고 쓴 칠언시 한 수가 있다.
 - 37면에는 강현(姜鉉, 1650~1733)이 짓고 쓴 시 두 수가 있다.
 - 38면에는 홍만조(洪萬朝, 1645~1725)가 짓고 쓴 시 두 수가 있는데, 홍만조는 이 화첩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 39면에 있는 이선부(李善溥, 1646~1721)의 시 두 수는 그의 손자 海運이 대신 썼다.
 - 40면에는 정호(鄭澹, 1648~1736)가 짓고 쓴 칠언시 두 수가 있다.
 - 41면에는 신임(申鉉, 1639~1725)이 짓고 쓴 시 네 수가 있다.
 - 42면에는 임방이 자작시 두 수를 직접 써 놓았다.
 - 43면부터 51면까지는 임방을 제외한 아홉 사람의 시 아홉 수를 지은이들이 직접 썼으며, 그 순서는 임방만 건너뛰어 위의 순서와 같다.
 - 52면에는 제작에 참여한 인원의 명단으로 서사관 이의방이 썼다.
 - 53, 54면에는 대자 행서 ‘傳家寶藏’이 두 글자씩 있다.
- 서사관이 쓴 어제와 서문과 발문을 제외하고 시는 모두 지은이들이 손수 썼다. 39면에 있는 이선부의 시는 그의 손자 이운해가 대필한 것이다. 이 시의 둘째 수에 ‘協’ 자를 수정하기 위해 종이를 따로 붙였고, 41면에 있는 신임이 쓴 시에

서도 오자를 닦아서 지우고 고친 흔적이 있는데 이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본에는 없다.

- 이 첩에는 48면 홍만조의 시에 제목이 없으나, 국립중앙박물관 본에는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첩은 국왕을 비롯하여 기로신 11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하여 한 본씩 소장했던 계첩으로, 중심 행사였던 기로연을 소재로 한 기록화와, 기로신 11인의 반신초상화를 수록하고, 이어서 국왕이 지은 어제시, 기로신들이 어제시의 뜻을 이어 지은 시와 차운시를 담고 있다. 어제시는 당시의 세자가 썼으며 서문과 발문 등 공적인 내용은 서사관 이의방이 맡아서 썼고, 행사에 참석한 기로신들이 지은 시들은 모두 그들이 손수 썼다.

계첩을 반사할 때 표제를 비워 놓았기 때문에 수령한 기로신이나 그 집안에서 제첩에 글씨를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는 미상이다.

또, 앞뒤 표지 안쪽의 내지에는 행기가 있는 대자 해서가 각각 네 글자씩 있다. 주인인 홍만조의 소유임을 밝힌 내용과 ‘집안의 보물로 간직하라’는 당부인데, 앞의 서풍과 뒤의 서풍이 다른 점으로 보아 서자가 다르거나 시점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나 서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다.

이 첩에서 행사에 참석한 기로신들이 국왕 숙종의 시에 화운하여 지은 시를 자필로 쓴 점은 매우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임방이 지은 서문에 의하면 기로연 당시, 기로신들은 모두 임금으로부터 술을 받아 마시는 등, 매우 훈훈한 분위기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분위기는 이들이 자필로 쓴 글씨들이 단정하지만 여유로움에서도 느낄 수 있다. 특히 강현이 분방한 개성을 숨기지 않은 서풍으로 차운시를 쓴 점은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근거로 들 수 있다.

18세기 초의 서사관 이의방이 보여주는 해서의 서풍은 당시의 관각서풍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자료임도 주목할 만하다. 17세기 후반까지 이어오던 석봉체의 전형에서 벗어나 晉唐 해서의 전형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18세기 초기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즉, 이 첩은 글씨 자료들로만 보아도 18세기 초엽의 관각서풍과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에 활동했던 사대부들의 개인서풍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자료는 희귀하여 국가문화재로서 자격이 충분하므로, 국보로 지정하여 보전할 가치가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만든 계첩의 이본이 존재하여 대조할 수 있는데, 일부 내용의 출입은 물론이고, 특수한 조치를 취한 흔적의 여부도 본에 따라 다른데 이는 수령하여 보전한 가문이나 소장자와 연관된 점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시 문

화적 현상의 미시사례로서도 매우 희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 글씨의 특징과 그 의의

이 첩에 수록된 글씨의 특징은 두 가지 면에서 나타난다.

- 첫째, 18세기 초 조선의 관용 서풍과 개인 서풍의 대조이며,
- 둘째, 명확한 제작 경위가 있는 복수의 이본을 비교할 수 있음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면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유물은 희귀하여 국가지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화첩의 공식 서사관 李義芳은 1689년(숙종 15)에 태어나 1732년(영조 8)에 세상을 떠났다. 이 화첩의 글씨를 담당했던 시기에 그는 만 서른 살이었는데, 이 화첩을 제외하면 그의 활동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화첩의 글씨를 맡고 난 뒤의 활동이 기록들에서 보이는데,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던 1724년에 그가 景宗의 신주 글씨를 썼음을 확인할 수 있고(《承政院日記》, 英祖 즉위년 12월 15일 기사), 이후로 主簿와 察訪 등을 지냈던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서사관으로 살았으며, 몇 차례 상급을 받거나 현직에 나아간 사례들도 모두 서사 작업에 대한 보상이었다.

숙종, 경종, 영조에 이르기까지 왕실에서 중요한 의례가 여러 차례 거행되었고, 여기에 소요되는 문서에 이의방과 같은 서사관이 기여할 기회가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첩에 남은 이의방의 서풍이 이전 시대의 그것과 차별되는 점이 선명하지 않은 사실은 같은 화첩에 있는 사대부들의 서풍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여주기기도 한다.

숙종의 재위기간을 거치면서 조선의 서예가 이전과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淸으로부터 수입한 法帖을 통해 다양한 古法을 접하고, 이를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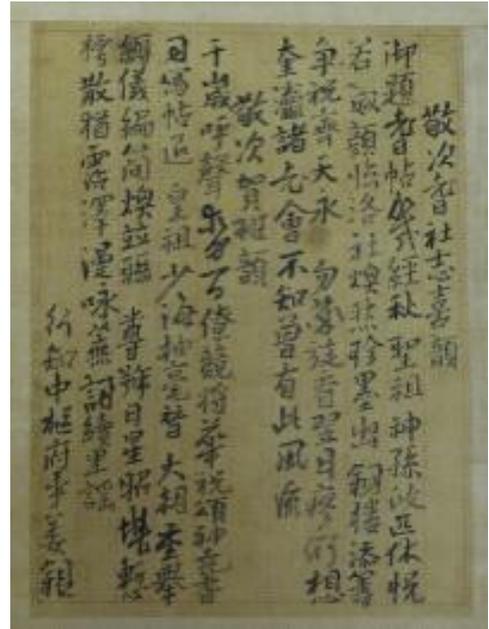


그림 202 姜覲의 자필 시(3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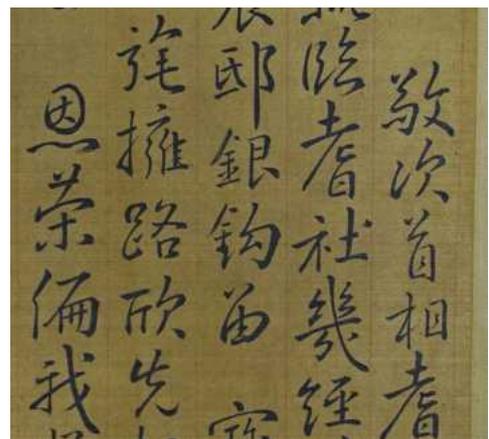


그림 203 洪萬朝의 자필 시(부분, 38면)

하기 시작하는 점이였다. 궁중 서사관들은 변화를 늦게 받아들여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첩에서 이의방의 서풍은 그와 같은 전시대로부터 전래된 격식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사관이 보여주는 보수적 입장과 대조적으로 이 화첩에 글씨를 남긴 기로신들 가운데에는 개인의 흥취를 거리낌 없는 서풍에 담아낸 이들이 눈에 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강현(姜峴, 1650~1733)인데, 김창집의 제안으로 기로신들이 지은 시들을 직접 쓴 목적들 중에 강현의 서풍은 격식에서 자유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이다.(그림 1) 그의 서풍에서 볼 수 있는, 유쾌한 분방함은 그와 함께 자작시를 손수 써서 남긴 기로신들 가운데 단연 돋보인다.

강현이 보여주는 바, 심미적(審美的) 취향의 서풍은 다른 기로신에게서도 부분적으로 보이는데, 홍만조(洪萬朝, 1645~1725)는 강현보다는 소극적이고 단정함에 가까우나 17세기 중기까지 조선의 사대부 서예를 풍미했던 석봉체와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兩宋體와 차별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그림 2)

시대 서풍의 변모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임과 함께, 이 화첩의 글씨들은 이본이 있음으로써 흥미로운 비교작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화첩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을 대조하면, 육필을 남긴 기로신들은 글자를 구성하는 방식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자간과 글자 크기는 일정함을 유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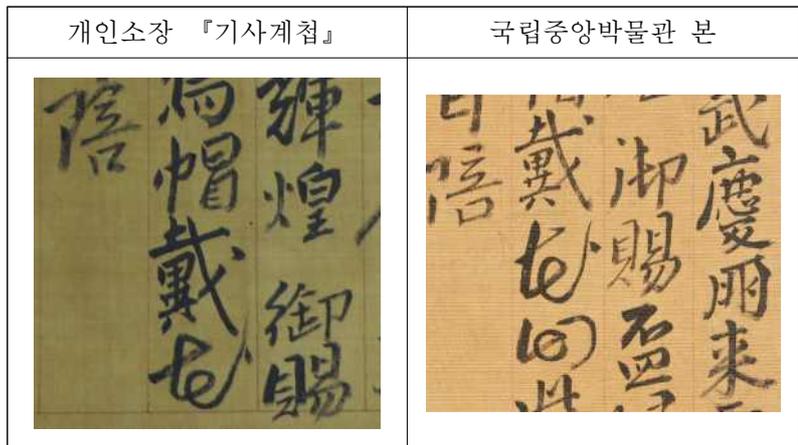


표 1 이본 간 장법 등의 차이를 살필 수 있는 사례

기가 어려워 이본 사이에 章法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예를 들면, 강현은 같은 시를 열두 차례나 써야 했으므로 운필을 균일하게 하기가 불가능했을 텐데, 표 1은 그런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상은 강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로신들의 글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화첩처럼 보존 상태가 좋은 본이 있음으로써 그 양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본간의 상이점에서 특별한 상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여럿인 점도 이 화첩의 특징이자 담보하고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서첩에 시를 각자 짓고 써서 남기자는 제안을 한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은 노론의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이본에 따라 그의 이름이 가려진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 화첩에는 종지와 같은 것으로 가렸다가 떨어진 흔적이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본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 이 사실은 동일한 화첩을 복수로 만들어 각자 소유했지만, 그 주체나 후손의 입장에 따라 화첩의 구성요소에 변화를 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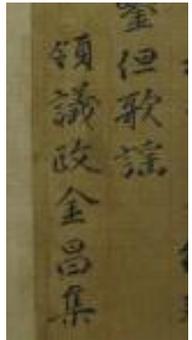
개인소장 『기사계첩』	국립중앙박물관 본
	

표 2 이름을 가렸던 흔적

○ 문헌자료

- 『기사계첩』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76)
- 『조선시대 초상화 III』 (국립중앙박물관, 2009)
- 김문식, 「1719년 숙종의 기로연 행사」, 『사학지』 40권(단국사학회, 2008)
- 이완우, 「조선후기의 서예」, 『한국서예이천년 특강논문집』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2000)

- 《기사계첩》 수록 원문 국역
(『기사계첩』, 이화여대 박물관, 1976.)

2. 제 1 면

○原文

契帖序

崇禎紀元後九十二年即我
肅宗大王臨御之四十五年己亥也以明年 聖算恰滿六旬式遵
太祖大王甲戌故事以 至尊而屈入耆社實我朝 三百年再有之大慶而
歷代帝王之所未行也今 上殿 下在春宮承 命寫御帖首題
太祖大王諡號 蓋以西樓舊題歲久無傳也次題 先大王尊號俱係以入社
年月承旨禮官即 奉安于本所耆老諸臣亦皆陪進翌日拜箋稱賀是
年四月十八日 上特設宴于慶德宮之景賢堂引耆臣十人竟日同樂酒凡
五行五酌將舉 上親賜銀盃一具盃心鑄以金字曰賜耆老所仍 命五
酌用此盃杯甚大而諸臣不敢辭皆爛醉宴訖諸 臣趨入 榻前拜前稽申謝
意而 上各問飲多小諸臣以次前對仍請奉 賜盃歸飲社中則又 命
撤御樂而導之於是諸臣頭戴 恩花前列 伶人相與扶醉而出笙歌溢路
榮動一時觀者填咽莫不欽歎及至掌宴者供以餘饌諸 耆臣子孫亦來與
盡懼而罷遂相顧榮感曰此事不可不張大以垂不朽也函謀作帖子先書
御帖跋文及五圖仍列耆諸臣名爵而繼寫小真又以賀班宴席志喜諸篇載
其下既而得 御製一律於 先大王 陟方之後即臨宴日所作也諸臣
奉 玩摧咽益不自勝敬寫一本弁諸帖首屬臣 璽 識之嗚呼 先大王以大
德 大位克享大壽以增光 烈祖之盛休而臣等際千載一遇之會共依
日月之光采切闕陵之祝不意 寶命方新真遊遠遠蒲柳之質苟存人世未
克攀龍而尊蟻其為哀恨固萬々於在 廷百僚而若臣璽尤荷曠絕之 寵
眷驟躡卿月之班功需雲之澤雖糜粉殞結未足以酬其萬一則區區窮
大之痛當復如何今於序帖之文義不敢以不文辭遂披血而書之如此
嗚呼悲哉是帖始於前歲今乃得成蓋因繪事之 久未就終未以此 一本
仰塵於 先大王睿覽此又諸臣之痛恨無窮者也帖凡十二其一藏於
耆所餘則分於諸家名錄為十一人而圖像則為十者臣奎瑞以退處
田廬不得登筵故也噫契帖之作世亦多有而若斯帖者固未之
見也此豈但各傳子孫以為鎮家之寶而已哉將使千百世之後亦
得以仰

寧考繩武之烈知臣等遭逢之盛云庚子季冬上浣 資憲大夫議
政府左參贊任璽謹序

○해석

계첩서

승정기원 후 九十二년은 우리나라 숙종대왕이 즉위하신지 四十五년이 되는 기해년(1719-역자)이다. 그 다음 해에 대왕의 나이가 六十이 되시므로 태조 대왕의 갑술년(1354-역자)의 고사에 따라 지존의 지위를 굽히시고 기사①에 나시었으니 실로 우리 왕조 三백년간에 두번째의 큰 경사이며 역대의 제왕께서 일찌기 행하지 못하시던 일이다.

금상전하(경종-역자)께서 동궁에 계실 때 왕명을 받들어 어첩(御帖)에 기록하시니 먼저 대조대왕의 시호(諡號)를 적으셨다. 이는 본래 서루(西樓)②에 적혀 있던 것이 세월이 오래 되어 전하지 못하게 된 때문이다. 다음에 선대왕(先大王)(숙종-역자)의 존호를 적으시고 아울러 기사(耆社)에 나시던 연월도 기록하시었다.

승지와 예관이 어첩을 본소에 봉안할 때 기로 제신도 모두 배진(陪進)하였고 다음 날 배전칭하(拜箋稱賀)하니 그 해 四월十八일이 었다. 상께서는 경덕궁(慶德宮)③ 경현당(景賢堂)에 연석을 베푸시고 기신 十인을 초대하시어 종일토록 같이 즐기시니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다섯 잔씩 들었다. 주연에 앞서 상께서는 친히 은잔 하나씩을 하사하셨으니 그 속 바닥에는 금자로 「사기로소(賜耆老所)」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다섯잔을 들 때 이 은잔으로 마시도록 명하셨다. 술잔이 매우 크고 여러 신하들이 감히 사양할 수 없었으므로 모두 매우 취하였다.

주연이 끝난 다음 제신들은 임금의 자리 앞에 나아가 업드려 고마운 말을 드리니 임금께서는 한 사람마다 얼마나 마셨는가를 물으시고 제신은 차례로 대답하였다. 이어서 하사 받은 은잔을 받들고 기사에 돌아가서 마실 것을 청하니 임금께서는 어악(御樂)을 멈추게 하시고 기사로 인도하기를 명하시었다. 이에 제신들은 머리에 은화(恩花)④를 꽂고 악인들을 앞세우고 서로 취한 몸을 부축하며 나아갔다. 음악소리는 거리에 넘치고 영예로운 한 때를 이루니 바라보는 사람들도 목이 메여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기사에 이르러 주연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차려 놓았으며 여러 기신의 자손들도 함께 모여 즐거움을 한껏 나누었다. 연회가 끝나자 모두 서로 바라보며 영광된 감격을 느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크게 벌려서 오래도록 전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하고 속히 첩자를 만들어 먼저 어첩의 발문과 오도(五圖)⑤를 수록하고 그 다음에 기로 제신의 이름과 벼슬을 배열하고 이어서 초상화와 연석을 축하하는 각자의 시를 적어 그 뒤에 실기로 작성하였다.

얼마 후에는 또한 숙종대왕의 어제한 수를 선대왕(先大王)이 승하하신 뒤에 얻게 되었으니 바로 연석에 나시던 날에 지으신 시였다. 제신은 받들어 보고 슬픔에 목메여 견디지 못한 채 삼가 一부씩을 적어 여러 첩자 앞에 실기로 하고 신 임방(任昞)에게는 서문을 적을 것을 위촉하였다.

오호! 선대왕께서는 대덕과 대위(大位)를 지니시고 대수를 누리시어 열조(烈祖)의 경사에 빛을 더 하시었다. 신들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당하여 함께 밝고 크신 은혜를 믿고 높고 깊은 영광을 누리고져 하였다. 뜻밖에도 선왕의 천명은 아직도 창창하신데 급히 멀리 떠나가시고 허약한 이 몸은 오히려 이 세상에 남아 살며 임금을 따라 뵈시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슬프고 한스러움이 그지없다. 조정의 수많은 신하들 가운데서도 신 임방(任墜)은 더욱 넓고 큰 은혜를 입어 외람되게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연락의 혜택도 받았으니 비록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그 은혜의 만의 일도 갚지 못하거늘 이 간절하고 기막히는 아픔을 또한 어찌 당할 것인가. 이제 첩자의 서문을 적게 되니 어쩔 수 없이 글을 꾸미거니와 드디어 피눈물을 닦으며 이와 같이 쓴다.

오호! 슬프다. 이 첩자는 전 해에 비롯하여 이제야 이루어졌으니 이는 그림이 오래 걸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한 책조차 선대왕의 어람에 반치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제신들의 통한이 그지없는 바이다.

첩자는 모두 12부로 그 중 1부는 기소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기신들 집에 나누었다. 명단에 수록된 것은 11인이나 그림이 10이 된 것은 신규서(奎瑞)가 시골에 은퇴하여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문이다.

아! 제첩을 만드는 일은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나 이 첩자와 같은 것은 일찌기 본적이 없다. 이는 어찌 다만 자손에게 전하여 진가(鎭家)의 보물을 삼고자 할 따름이겠는가, 장차 천백세 뒤에라도 역대 성왕의 은덕을 우러러 보고 신들이 만년 영광의 성대함을 알리고자 함이다.

경자(1720 —역자) 12월 상순

자헌대부의정부좌참찬 임방 삼가 씀

[주]

① 耆老社 또는 耆所·耆老所라고도 하며 벼슬이 正二品이상이고 七〇세가 넘은 중신들의 모임이다. 太祖 三년(1394)에 비로소 설치하였고 肅宗과 英祖도 太祖 때의 故事를 따랐다.

② 景福宮 안에 隆文樓·隆武樓가 있어 隆文樓를 東樓, 隆武樓를 西樓라고 하였다. 이 건물은 太祖 四년(1395)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③ 지금의 서울고등학교에 있던 궁궐이다. 光海君 八년(1616)에 건립하였고 英祖 三六년(1760)에는 慶熙宮이라고 개칭하였다. 仁祖反正 이후 昌德宮을 東闕, 慶德宮을 西闕이라고 하였으나 1829년 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었다.

④ 恩花는 곧 御賜花로서 원래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임금이 주던 꽃이다. 길이 약 90cm의 참대에 푸른 종이를 감고 다홍색·보라색·노랑색의 세 송이 무궁화 종이 꽃을 달아서 모자 뒤에 꽂는 것이다.

⑤ 五圖란 이 契帖에 수록되어 있는 御帖奉安圖, 崇政殿進賀羹圖, 景賢堂錫宴圖, 奉盃歸社圖, 耆社私宴圖의 다섯 폭 그림을 말한다. 또 崇政殿은 光海君 一〇년(1618)에 건립된 慶德宮의 外正殿이다. 1829년 화재 때에 다행히 재난을 면했으나 1926년 불타되어 지금은 동국대학교 구내로 옮겼다.

3. 제 2 면

○原文

肅宗大王御製

親臨景賢堂耆老諸臣錫宴日作
 不覺吾年及六旬親參耆社舊章遵強
 狗陸殿羣官集作樂行醴十老踈錯字
 金盃光似玉挿花烏帽髮如銀斯筵本
 出尊高意滿酌何妨到手頻
 恭惟我

先大王於去年己亥運

太祖大王故事 入耆老所以四月十八日燕耆老諸臣於慶德宮之景

賢堂特 賜銀杯以寵之及今 公取上賓之後 慈聖命下

先大王御製于朝其中有此一律巨等奉讀悲咽遂敢以繡板揭諸耆社

壁上以寓弓銀之愴

○해석

숙종대왕 어제

숙종대왕께서 친히 경현당(景賢堂)에서 기로제신에게 베푸신 연석에 나시던 날 지으셨다.

어느덧 내 나이 六十이 되었구나 기사에 나아감은 옛 성왕의 본보기

아픈 몸이 오른 전(殿)에 군신이 모여 있고

풍악 속에 잔을 드는 열 분 늙은이

글자 새긴 금잔은 옥과 같이 빛나고

꽃 꽃은 새털 모자에 수염은 은빛

늙은이를 모시려는 뜻 깊은 자리

거듭되는 그득한 잔 누가 막으리

삼가 생각하면

선대왕(숙종-역자)께서 작년 올해(1719-역자)에 태조대왕의 고사에 따라 기로소에 나시고 四월 十八일에 기로제신에게 경덕궁(慶德宮) 경현당(景賢堂)에서 연회를 베푸셨으며 특히 은잔을 하사하여 은총을 내리셨다.

이제 선대왕께서 승하하신 뒤에 금상(경종-역자)께서 선대왕의 어제를 조정에 내리게 하시니 그 중에 이 한 수가 있었다. 신들은 봉독하고 슬픔에 목메었으며 드디어 수판(繡板)으로 꾸며 기사의 벽에 걸어 두고 간절한 서러움을 외탁하고저 하였다.

4. 제 3 면

○原文

御帖跋

耆英之會非古也實自唐白居易始而後踵以行之者可計而數也
而人君與臣僚結社蓋未聞焉惟我
太祖康獻大王創業之越三年甲戌以 寶算六十 倍就耆社親寫 御
諱于西樓壁上護以紗籠不幸逸于壬辰之亂其說具載故議政臣沈
喜壽金瑋等先生案序及故府院君柳根所著文忠公李元翼賜几杖
序中喜壽根元翼皆仕亂前是必翔實而不妄也 今我
殿下英明神聖同符 太祖即位之越四十五年己亥而 寶算亦五十
九我 春宮邸下以愛日之誠累請用 太祖故事 上故謙讓不居
會有前直長李楫者上書請而又申前懇筵臣亦為之言 上意肯命
考實錄而還言無有狀 上乃言曰信史無微不宜輕舉其已之宗臣
密昌君楳等東善君炳等延弼君吟等後先上章援據甚悉且曰國初
史牒多漏今未可準
宣廟末年亦嘗擬待六旬追踵故事而未及則亦足為證今 殿下不率
典 太祖盛事懿跡將永混于世 上感其言遂許施行於是禮部臣
建言宜作一帖子 春宮親寫 太祖尊號某年月日入其下書我
殿下尊號某年月日入訖承旨禮臣具儀仗奉安本所 上可之禮部臣
復建言宜告 廟頌慶 上又可之三百年再有之儀今乃夫觀天地
垂祐臣民歡躍太平萬世自今維新以臣忝官太史 命撰跋文詳記
願末臣承 命謹恐伏而思之 殿下茲事一舉而三善具焉繼志而
述事也敬老而尊年也上下之同樂也率 太祖已行之軌而成
宣廟未及之志孝莫大焉貴而能卑尊而能屈敬莫尚焉不私於一己而
普恩於八方仁莫盛焉以孝教而親親之道正以敬教而長長之風興
以仁教而熙熙之俗成何者魯哀公問於孔子曰二三大夫勸寡人隆
敬於高年何也孔子對曰君言之及此將天下賴之昔有虞氏貴德而
尚齒夏后氏貴爵而尚齒殷人貴富而尚齒周人貴親而尚齒年之貴
乎天下久矣於戲我 聖祖尚齒之義蓋得於此而我 殿下寶違之
前聖後聖其揆一也況躬三善以教於民而民斯倣矣春臺壽域永永
無疆可拱而頌是為跋 教可

吏曹參判兼大提學

金樛奉 教製進

○해석

어침발

기영의 회는 오랜 옛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실은 당나라 백거이(낙천-역자)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 뒤 이어서 행해진 것은 헤아릴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임금과 신하가 결사(結社)한 일은 일찌기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오직 우리 태조 강헌대왕(康獻大王)께서 창업하신지 三년되던 갑술년(1394—역자)에 보령이 六十이 되셨을 때 기사에 나서서 친히 어휘(御諱)를 서루(西樓) 벽 위에 적으신 일이 있어 사룡(紗籠)으로 간직하였더니 불행히도 임진란에 없어지고 말았다. 이에 관한 기록은 여러 곳에 실려 있거니와 옛 의정신(議政臣) 심희수(沈喜壽)(1548—1622—역자), 김육(金瑬)(1580—1658—역자) 등 선생께서 적어 놓은 서문과 또 옛 부원군(府院君) 유근(柳根)(1549—1627—역자)의 저서, 문충공(文忠公) 이원익(李元翼)(1547—1634—역자)이 궤장(几杖)을 하사받은 기록의 서문에 보인다. 심희수·유근·이원익은 모두 임진란 전에 벼슬하던 분들이므로 필연코 사실을 밝힌 일일 것이며 합부로 꾸민 일은 아니리라.

이제 우리 전하(숙종—역자)께서는 영명 신성하심이 태조대왕과 상부하시며 즉위하신지 四十五年되시는 기해년(1719—역자)에 또한 五十九가 되셨다. 동궁(위의 경종—역자)께서는 지극하신 효성으로써 여러번 태조의 고사를 따르시기를 청하였으나 상께서는 굳이 겸양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마침 전의 직장(直長) 이즙(李楫)(1668—1731—역자)이 상서하여 다시 같은 뜻을 엮주었고 연신(筵臣)도 또한 진언하는 바 있어 상께서 허락하실 뜻을 가지시고 실록을 조사하기를 명한 바 있었으나 그 기록이 자세하지 못함을 알려드렸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서에 비추어 증거가 없다면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하시어 그만 두었다.

종신인 밀창군(密昌君) 직(楫) 등, 동선군(東善君) 병(炳) 등, 연기군(延杞君) 금(鎔) 등이 선례를 조사하여 글을 올리게 되니 증거를 들어냄이 매우 자세하였다. 그 글에서 이르기를 「국초의 사서는 소루함이 많으므로 이제와서 준거할 수 없으나 선조대왕 말년에는 일찌기 六十을 기다려 고사를 따르려 하시다가 이루지 못한 일이 있으므로 역시 증거로 삼을만 합니다. 전하께서 만약에 옛 사례를 따르지 아니하신다면 태조대왕의 성사와 훌륭한 사례는 장차 영구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였다. 상께서는 그 말에 감복하시고 드디어 시행할 것을 허락하셨다.

이에 예부의 신이 진언하기를 칙자를 만들어 동궁이 친서하되 먼저 태조의 존호와 연월일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하의 존호와 연월일을 적어 승지 예신(禮臣)이 의장을 갖춘 뒤에 본 기소에 봉안하기를 청하였던 바 상의 윤허를 받았다. 예부의 신은 또 이 사실을 종묘에 고하여 경축의 뜻을 널리 퍼기를 다시 진언하니 상께서도 윤허하시었다. 이리하여 왕조 三백년래 두번째의 큰 의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천지를 두루 살피시고 은혜를 신민에게 내리시니 그 기쁨은 그지없고 태평만세는 이제 더욱 새로워 지리라.

신에게 태사(太史)의 관을 내리시고 발문을 찬하여 전말을 자세히 기록하라 하시니 신은 명을 받고 두렵기만 하다.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의 자혜로운 행사는 한번에 삼선(三善)을 갖추는 일이다. 옛 뜻을 이어 행사를 펴는 일이며, 경로하여 노인을 받드는 일이며, 상하가 함께 즐기는 일이다.

태조께서 일찌기 행하신 사례를 따르시고 선조께서 미쳐 이루지 못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은 그 효(孝)가 막대(莫大)한 것이며, 귀하신 몸을 낮추시고 지존의 자리를 굽히실 수 있는 것은 경(敬)이 막상(莫尚)한 것이며, 한 개인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팔방에 퍼시는 일은 인(仁)의 막성(莫盛)한 것이다. 그리하여 효교(孝教)로써 아버이를 섬기는 도(道)를 바로 하시고, 경교(敬教)로써 어른을 받드는 풍(風)을 일으키시고, 인교(仁教)로써 화목하는 속(俗)을 이룩하셨다.

옛 연고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물기를 「몇 사람의 대부(大夫)가 과인에게 고령자를 공경할 것을 권하였으니 무슨 까닭이오」 하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으니 장차 온 천하가 든든할 것이오. 예전에 유우씨(有虞氏)는 덕을 귀히 하여 노인을 받들었고 하후씨(夏后氏)는 벼슬을 귀히 하여 노인을 받들었으며 은인(殷人)은 재산을 귀히 하여 노인을 받들었고 월주인(月周人)은 가까움을 귀히 하여 노인을 받들었다고 하니 천하에 나이 많음을 귀히 여긴지는 오래 되었읍니다」고 하였다. 태조대왕께서 노인을 받드신 뜻은 이곳에 있었으며 우리 전하께서 또한 그 뜻을 따르셨으니 전성(前聖)과 후성(後聖)이 같음이로다. 하물며 친히 삼선(三善)을 행하시여 백성을 가르치시니 백성은 다만 따를 뿐이로다. 태평성세는 영영무강하리니 다만, 앉아 기다리노라. 이로써 위의 윤희를 받아 발문을 삼는다.

이조참판겸대제학 김유 명을 받들어 지어 올린다.

[주]

- ① 白居易(백거이 772—846)는 중국 唐代의 詩人이다. 官道에도 올랐으나 만년에는 불교 도교에 뜻이 있어 세속을 떠났다. 그의 시는 풍자에 넘치고 시대사조에 맞는 바 많아 서민들이 즐겨 불렀다.
- ② 大臣이나 重臣이 늙어서 벼슬을 그만 둘 때 임금의 하사하시던 几와 杖이다. 几(계)는 앉을 때 팔을 기대어 몸을 편하게 하는데 쓰이는 물건이고 杖(장)은 지팡이다.
- ③ 조선시대 관직의 하나.

5. 제 4 면

○原文

御帖奉安時
堂上七員 進
行判中樞府事金宇杭 病不能陪從預待本所
議政府左參贊黃 欽 病不能陪從預待本所
行判教寧府事崔奎瑞 在外
陪從人員
右承旨申思詰
檢閱朴師聖
假注書黃粹
行禮書判書閔鐵厚

禮曹佐郎李安國
 崇政殿進箋時
 堂上八員 進
 議政府左參贊黃欽 禮曹稱慶物諸陪進
 行判敦寧府事崔奎瑞 在外
 景賢堂 錫宴時
 堂上十員 進
 知中樞府事任 墜 特命加資進參
 行判敦寧府事崔奎瑞 在外
 賜盃掃社時
 堂上十員 進
 行判敦寧府事崔奎瑞 在外
 奉盃本所藥房高挺參
 本所宴會時
 堂上十員 進
 行判敦寧府事崔奎瑞 在外
 行戶曹判書宋相琦 回設宴來參
 堂上子弟
 司僕寺食正金濟謙
 社稷署令黃瑞河
 龍仁縣令洪重徵
 司憲府監察申思遠
 繕工監假監役任 嘉元

○해석

어첩 봉안 때 당상관(堂上官) ①七명이 모시었는데 행판중추부사 김우항(行判中樞府事 金宇杭)은 병으로 모시고 따라가지 못함으로 미리 기로소에서 기다렸고 의정부 좌참찬 황흥(議政府左參贊 黃欽)도 병으로 모시고 따르지 못하여 미리 기로소에서 기다렸고 행판돈녕부사 최규서(行判敦寧府事 崔奎瑞)는 서울에 있지 않았다. 이밖에 모시고 따라간 사람은 우승지 신사철(右承旨 申思詰), 검열 박사성(檢閱 朴思聖), 가주서 황재(假注書 黃粹), 행예조판서 민진후(行禮曹判書 閔鎭厚), 예조좌랑 이안국(禮曹佐郎 李安國)이었다.

숭정전(崇政殿)진전(進箋)때는 당상관 八명이 모시었는데 의정부좌참찬 황흥은 예조에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갔으며 행판돈녕부사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았다.

경현당(景賢堂)석연(錫宴)때에는 당상관 十명이 나아갔는데 지중추부사 임방(知中樞府事 任墜)은 특명으로 품계(品階)를 올려 참례하였고 행판돈녕부사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았다.

하사 받은 잔을 받들고 기로사에 돌아올 때는 당상관 十명이었는데 행판돈녕부사 최규서는 서울에 있지 않았고 기로소 약방(藥房)의 고정참(高挺參)이 잔을 받들었다.

기로소의 연회 때는 당상관 十명이 있었는데 행판돈녕부사 최규서는 서울에 없었

고 병호조판서 송상기(行戶曹判書 宋相琦)는 석연(錫宴)할 때의 자리를 거두어 가지. 와서 참례하였다. 또 이 때 참례한 당상관 자제들은 사부시첨정 김제겸(司僕寺僉 金濟謙), 사직서령 황서하(社稷署令 黃瑞河), 용인현령 홍중증(龍仁縣令 洪重徵), 현부감찰 신사원(司憲府監察 申思遠), 선공감가감역 임정원(繕工監假監役 任鼎元)이었다.

[주]

① 正三品 이상의 문무관

7. 제 5 면

○ 原文

御帖奉安圖

○ 해석

어첩을 봉안하는 장면의 그림

8. 제 6 면

○ 原文

崇政殿進貢箋圖

○ 해석

승정전에서 축하하는 글을 올리는 장면의 그림

9. 제 7 면

○ 原文

景賢堂錫宴圖

○ 해석

경현당에서 사연(賜宴)을 베푸는 장면의 그림

10 제 8 면

○ 原文

奉孟壇社圖

○해석

하사받은 잔을 받들고 기로사로 돌아가는 장면의 그림

11. 제 9면

○原文

香社私宴圖

○해석

기로서에서 사연(私宴)을 베푸는 장면의 그림

12. 제10면

○原文

座目

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 李 滿^{子雨 乙酉} 鹿川戊申別試 完山人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 金昌集^{故成 戊子} 夢窩

癸丑進士 安東人
甲子庭試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 金宇杭^{西仲 己丑} 甲峯^{己酉 辛酉} 金海人

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兼知 經筵事 黃 欽^{敬之 己卯} 癸卯生員 昌原人
庚申別試

輔國崇祿大夫行判敦寧府事兼弘文館提學 崔奎瑞^{文叔 庚寅} 龍湖^{己酉 庚申} 海州人
別試

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 姜 錫^{子精 庚寅} 白閣^{乙卯 庚申} 晉山人
進士 魁 重試

正憲大夫行龍驤衛司直 洪萬朝^{宗之 乙酉} 晚退堂^{己酉 戊午} 豐山人
生員 增廣

正憲大夫行義興衛副司直 李善溥^{公甫 丙戌} 六松 癸丑春場試 德水人

正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春秋館事 鄭 繼^{仲淳 戊子} 丈巖^{壬戌 甲子} 迎日人
進士 庭試

正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知義禁府事同知 經筵成均館事 申 鉉^{華仲 己卯} 竹里^{丁酉 丙寅} 平山人
進士 別試

資憲大夫知中樞府事任 諫^{大仲 庚辰} 水村^{癸卯 壬午} 豐川人
進士 庭試

○해석

명단

대광보국승록대부영중추부사 이유, 자는 자우, 을유생, 호는 녹천, 무신년 별시①에 급제하였고 본관은 완산(전주-역자).

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 영의정겸영경연홍문관에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 김창집, 자는 여성, 무자생, 호는 몽와, 계축년에 진사②가 되고 갑자년 정시③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안동.

대광보국승록대부행관중추부사 김우항, 자는 제중, 을축생, 호는 갑봉, 기유년에 생원④이 되고 신유년 식년과⑤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김해.

보국승록대부행지중추부사겸지경연사 황흠, 자는 경지, 기묘생, 계묘년에 생원이 되고 경신년 별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창원.

보국승록대부행판돈녕부사겸홍문관제학 최규서, 자는 문숙, 경인생, 호는 용호, 기유년에 진사가 되고 경신년 별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해주.

승록대부행지중추부사 강현, 자는 자정, 경인생, 호는 백각, 을묘년에 수석으로 진사가 되었고 경신년 춘당대시⑥, 병인년 증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진산(전주-역자)

정현대부행용양위사직 홍만조, 자는 중지, 을유생, 호는 만퇴당, 기유에 생원이 되고 무오 증광시⑦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풍산.

정현대부행의홍부부사직 이선부, 자는 공보, 병술생, 호는 육송, 계축년 춘당대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덕수.

정현대부한성부판윤겸지춘추관사 정호, 자는 중순, 무자생, 호는 장암, 임술년에 진사가 되고 갑자년 정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영일.

정현대부의정부우참찬겸지의금부사동지경연 성균관사 신임, 자는 화중, 기묘생, 호는 죽리, 정유년에 진사가 되고 병인년 별시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평산

자현대부 지중추부사 임방, 자는 대중, 경진생, 호는 수촌, 계묘년에 진사가 되고 임오년 알성시⑧에 급제하였다. 본관은 풍천.

[주]

- ① 조선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으면 임시로 서울에서만 보이던 과거.
- ② 조선시대에 初試와 覆試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진사는 선비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하급관료에 취임하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 ③ 조선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보이던 과거, 이 과거는 특별히 궁전 뜰에서 보이므로 庭試라고 하였다.
- ④ 조선시대에 生員試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生員試는 과거의 예비고사와 같은 성격이며 생원은 선비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성균관에 입학하는 자격 및 하급관료에 취임하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 ⑤ 子·午·卯·酉의 간지가 들어 있는 해에 보이던 과거.

- ⑥ 조선시대에 왕실에 경사가 있을 때 또는 儒生을 시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문무과의 과거, 1572년(1572) 처음으로 임금이 昌慶宮 春塘臺에 친림하여 과거를 보였으므로 그 이름이다.
- ⑦ 조선시대에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보이던 임시과거제도, 예컨대 光海君 四年(1612)의 德宮 낙성, 顯宗 三年(1662)의 元子 탄생 등의 경사 때 실시하였다.
- ⑧ 일명 謁聖科라고도 하며 임금이 文廟에 참배할 때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文科와 武科의 시험, 1414년 太宗 一四年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13. 제11면 우

○原文

領府事 鹿川李公七十五歲眞

○해석

영부사 경천 이공의 七十五세 때 진영

14. 제11면 좌

○原文

領議政 夢窩金公七十二歲眞

○해석

영의정 몽와 김공의 七十二세 때 진영

15. 제12면 우

○原文

行判府事 甲峯金公七十一歲眞

○해석

행판부사 갑봉 김공의 七十一세 때 진영

16. 제12면 좌

○原文

知事 黃公八十一歲眞

○해석

지사 황공의 八十一세 때 진영

17. 제13면 우

○原文

知事 白蘭姜公七十歲眞

○해석

지사 백각 강공의 七十세 때 진영

18. 제13면 좌

○原文

行司直晚退洪公七十五歲眞

○해석

사직 만퇴 홍공의 七十五세 때 진영

19 제14면 우

○原文

行副司直六松李公七十四歲眞

○해석

부사직 육송 이공의 七十四세 때 진영

20. 제14면 좌

○原文

判尹丈巖鄭公七十二歲眞

○해석

판윤 장암 정공의 七十二세 때 진영

21. 제15면 우

○原文

右參贊竹里申公八十一歲眞

○해석

우참찬 죽리 신공의 八十一세 때 진영

21. 제15면 좌

○原文

知事水村任公八十歲眞

○해석

지사 수촌 임공의 八十세 때 진영

22. 제16면 우

○原文

御帖奉安後口占一律志喜錄奉同社諸公求和
吾王五十九春秋入社遙承聖祖休南極明星垂北
闕東宮寶墨煥西樓同時鮎背權相作翌日龍顏
喜乃瘳從古榮光今代最洛陽誰道是風流

賀班

春開閭闔麗暉遲臣庶爭先覩盛儀伏出銅闈瞻鶴
駕班聯玉佩向龍墀岡陵共獻遐齡祝雷雨仍看大霽
隨更賀重瞳康復慶紫宸長奉萬年卮

謹次洪尚書賀班詩

小臣班忝揔廷僚敢效封人祝帝堯好事肇稱前後
聖盛儀應曠古今朝高年加禮思之至大德延齡理
孔昭更荷田間歸一物太平耕鑿但歌謠

領議政 金昌集

○해석

금상(숙종)의 어첩을 봉안한 뒤에 사울 일수를 지어 기쁨을 표하고 기로사 제공
에게 기록해 주어 화답을 구함.

우리 임금 나이 五十九세인데
기로사에 들어감은 멀리 성조의 자취이었는데
남극의 노인성은 북궐에 비치이고
동궁의 보묵(寶墨) 서루(西樓)에 빛났다
한때의 기로들은 좋아라고 춤을 추고
이튿날 용안에는 병 나오심이 기쁘도다
예로부터 영광이 이번에 제일이니
낙양(洛陽)에서 그 뉘가 이런 풍류를 말할손가
반열에서 하례함.

궁궐에 봄이 드니 따스한 햇빛 더더구나
서민들 앞을 다뒀 거룩한 의식을 구경하네
의장대 금마문(金馬門)을 나오매 학가(鶴駕)①를 보았고
반열에는 옥패소리 연달아 용루로 향하도다
남산 같은 수명을 모두 비유는데
우뢰소리 비바람은 장차 큰 풍년 점치리
다시 우리 님의 회춘하신 경사를 하례하니
이 궁안에 길이 만년술을 드리고저

홍판서의 하반운(賀班韻)을 차운함

이 몸이 백관의 우두머리에 있어서 감히 옛날 화봉인(華封人)의 요임금 비는 것을
본받으리

좋은 일은 비로소 앞 뒤의 성인을 일켜르고
성대한 의식은 열성조에 드문 일이라
고령자에 응승한 예우 더하니 은택이 지극하고

큰 덕이 장수를 누리니 천리가 헛되지 않도다
 전원(田園)에 돌아가려는 이 몸에 은총을 베푸시니
 강구연월(康衢煙月)의 격양가를 노래할 뿐이로다
 영의정 김창집

23. 제16면 좌

○原文

敬次耆社志喜韻
 堯齡常祝八千秋耆社今逢億
 萬休題出 銅闥追故事藏來
 寶帖起新樓彤庭已獻呼當賀
 玉體仍聞勿藥瘳何幸身親叨
 盛際需雲解澤與同流
 領中樞府事 李滯

○해석

기로사 기쁨을 축하한 시를 삼가 차운함
 요임금 연령을 언제나 8천년을 빌었더니
 기로사에서 지금 억만가지 좋은 일만났네
 동궁에서 글자를 내어 옛일을 모방했고
 보첩(寶牒)을 봉안하매 누각을 새로 지었구나
 필내에서 벌써 만세의 하례를 드렸고
 옥체는 약 안 쓰고도 나오신줄 내 들었네
 다행히 이 몸이 태평성대 만났으니
 성대한 연회와 큰 은택이 함께 흐르네
 영중추부사 이 유

24. 제17면 우

○原文

謹次領相金公耆社志喜韻
 甲戌于今幾百秋遠追皇祖事齊休
 親書盛舉憑前案御帖珍藏做舊樓耆
 社榮光前後最吾 王疾病庶幾瘳懼呼
 爭獻南山祝喜溢寧區澤遍流
 謹次洪尚書賀班韻
 彤庭瑞日會群僚動地僦聲競祝堯 聖
 祖題樓聞故事神孫入社見今朝 重
 宸寶曆千年永 貳極銀鈎百代昭何辛

小臣逢盛際春臺壽域聽謳謠

金字杭

○해석

영의정 김공이 기로사에 입사한 것을 축하한 시를 차운함
 갑술년이 여태껏 몇 백년이나 되었던가
 멀리 태조의 사적 따라 이름다움을 이었도다
 옛 구례 좇아 기로회 제첩에 친히 서명하였고
 어침을 받들어 영수각 다락에 고이 간직하였네
 기로사의 영광은 고금에 으뜸인데
 우리 님의 병환도 거의 나은셨네
 천세를 불러서 남산의 수를 비오니
 온 누리에 기쁨이 넘치고 은택이 흐르리
 흥관서 하반운을 삼가 차운함
 좋은 날 궁궐 안에 백관이 모여서
 땅이 꺼지도록 환호하는 소리 우리 님 장수를 빌었네
 거룩하신 태조께서 다락에 제명(題名)하신 일 예전부터 전해왔는데
 신성하신 후손이 기로사에 들어가심을 우리 세대에 보겠네
 임금님 나이는 천년이나 길 것이요
 세자의 필적은 백대(百代)에 빛나리
 어찌타 이 몸이 이런 성대 만나서
 춘대(春臺)②의 수역(壽域)에서 태평가를 듣겠네

김우항

25. 제17면 좌

○原文

謹次 首相香社志慶韻
 老臣蒲質已望秋幸觀吾 邦再
 有休爭喜 靈籙添海屋旋擊
 寶帖下銅樓光增洛社耆年會慶
 卜 周宮翌日瘳扞手群工齊歡
 祝終南高峰漢長流

黃 欽

해석

영의정의 기로사 경사를 축하하는 운을 삼가 차운함
 불초한 이 몸이 어느덧 쇠경(衰境)에 들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두번째 있는 경사를 보는구나

신령스러운 산대(簫)가 해옥(海屋)③에 쌓임을 기뻐했고
 다시 보첩을 받들어 동궁(銅宮)에 간직하였네
 영광은 낙사(洛社)④의 기영회(耆英會)⑤보다 더 빛나고
 경사는 월내에서 이튿날 환후 나오실 것을 점쳤구나
 두 손 모아 백관들 함께 축수드리니 종남산(終南山)같이 높고 한강수 같이 길리로다
황 흠

26. 제18면 우

○原文

敬次耆社志喜韻
 御製耆帖幾經秋 聖祖 神孫政匹休
 悅若 威顏臨洛社 煥然珍墨出銅樓 添
 簫爭祝齊天永 勿藥旋着翌日瘳 仍
 想奎 流 諸老會 不知曾有此風流
 敬次賀班韻
 千歲呼聲動百僚 競將華祝頌神堯 香
 司寫帖追 皇朝少海抽毫鬻 大朝重
 舉緝儀編簡煥竝聯 尊號日星昭堪
 慚愕散猶霑澤 漫咏燕詞續里誦
 行知中樞府事 葵鏡

○해석

기로사 기쁨을 축하하는 시를 차운함
 기로사 어첩에 친히 제명하신지 몇해런가
 거룩한 성조(聖祖)와 신성한 후손이 정히 짝이 되었네
 황홀하게 천안이 낙사(洛社)에 친림한 것 같고
 빛나는 보묵(寶墨)은 동궁(東宮)에서 나왔도다
 산대를 더하니 하늘같은 수를 빌었고
 약을 쓰지 않아도 이튿날 병환이 쾌히 나오시리
 신선들의 여러 노인회를 손꼽아 보아도
 일찌기 이만한 풍류 있는 것 듣지 못했네
 하반운(賀班韻)을 삼가 차운함
 천새를 부르는 소리 백관에서 우러 나오니
 화봉인(華封人)의 비는 바로 우리님께 다투어 송축하였네
 기로사 제명첩은 태조 때를 모방하고
 소해(少海)⑥의 휘두른 붓 대왕님을 대신 했도다
 두번째의 의식은 역사에 빛이 나고
 함께 실린 존호는 해와 별 같이 빛나도다
 노후한 이몸도 오히려 온택 입으니
 부질없이 거친 글로 민요에 이었네

행지중추부사 강 현

27. 제18면 좌

○原文

敬次首相耆社詔 兼呈 領府事 判府事 申四幸

親臨耆社幾經秋 神聖遐齡即匹休
 農邸銀鈎留 寶牒尚方鳩杖進 龍樓
 羽旋擁路欣先覩 簪佩盈庭賀 聖彞曠
 世 恩榮備我輩四公中表埜名流
 陳賀日口占志喜錄呈求和
 彤庭款賀集群僚爭道吾 王壽似堯
 御帖初安耆老社舊儀重覩 聖明朝
 東宮喜氣方春煖南極星光此夜明 簪履
 小臣何所補太平烟月採民謠

洪萬朝

○해석

영의정 기사운을 삼가 차운함
 겹해서 영부사 판부사 신사재(四宰)에게 올림
 기로사에 친림하신지 몇해나 지났던가
 신성하신 높은 수(壽)가 곧 좋은 짝 되었도다
 동궁의 필적은 보첩에 남아있고
 상방(尙方)의 지팡이는 용루(龍樓)에 올렸네
 기치가 웅위한 길기에는 먼저 보기를 다투었고
 백관은 뜰에 가득해서 성후의 회춘하심을 하례하도다
 세상에 드문 은총 우리들에 치우쳤으니
 영의정과 영부사의 내외종이 모두 명류들일세
 진하하는 날 입으로 기쁨을 축하하고 화답함을 구함
 궁전에서 하례하는데 백관들 모여
 우리님의 수명이 요임금 같다 다투어 칭송하네
 어첩을 처음으로 기로사에 봉안하니
 옛날 의식은 다시 성명의 조정에서 보겠도다
 동궁의 기쁜 기색 봄날 같이 따스하고
 남극의 노인성 이 밤에 유득 밝고나
 불초한 이 몸 무엇을 보필할까 보냐
 태평연월의 노래나 모아 불까 하노라

홍만조

28. 제19면 우

○原文

敬次

烈祖曾當六十秋香英社裏撫鴻休 神
孫趾美光前牒 御手題名傲古樓已見
壽星迎歲曜旋開 聖疾應期瘳老臣盡
日摸天什思贊春臺化澤流

敬次

五雲多處序千僚時屬 重華攝 帝堯
盛事遠徵開瓶世緝儀今舉泰平朝歆雷
動地天應協 仁壽如山理孔昭爭道康
衢傾老幼會看微服應歌謠

李善淳 孫海運
代寫

○해석

삼가 차운함

선왕께서 六十세 되어
기로사에 들어 큰 은혜 베풀셨네
거룩한 그 후손 자취를 이어 보첩(宝牒)에 빛내고
손수 성명을 써서 옛 다락에 간직했도다
노인성은 새해 맞아 더욱 빛나고
님의 환후 때맞춰 나오신 줄 기쁘고야
늙은 이 몸 하늘같은 님의 공덕 형용 해 내어
성대에 은택을 찬미할까 하노라

삼가 차운함

오색 구름 궁궐 속에 백관이 늘어 섰는데
때는 마침 세자가 섭정을 맡았도다
성대한 행사는 멀리 개국할 때 본뜨고
거룩한 의식은 이제 태평성대를 빛냈네
우뢰같은 기꺼움 지축 흔들니 하늘도 응당 감화하였고
어진 수복 산과 같으니 천리가 원래 밝았도다
강구연월을 사람마다 칭송하니
우리님 남몰래 이 노래 듣고 계시길

이 선부손자 해운 대신 씀

29. 제19면 좌

○原文

敬次元輔夢窩金公耆社志慶韵
 千歲為春千歲秋我 王申受上天休耆英
 好事光臨社 烈朝遺力驗記樓可但君臣
 慶同樂更欣民困病仍瘳餘生延得須更命
 扶杖均霑溼澤流

敬次賀班韵

浮生不用歎衰遲何幸躬瞻曠世儀 御帖題
 封侯玉檢賀班權抹溢瑤壻獨憐痼疾纏
 身在孤負周行接武隨漢殿前頭開法酒會
 須同奉 萬壽卮

漢城府判尹 鄭浩

○해석

영의정 몽와 김공의 기로사 자축운을 삼가 차운함
 천년을 봄으로 삼고 천년을 가을로 삼았으니
 거룩하신 우리님 상제(上帝)의 음우(陰佑)를 받으셨네
 기영회 좋은 모임 기로사에 친림하시고
 성조께서 끼치신 규모 영수각(靈壽閣)⑨에 남아 있도다
 임금과 신하가 한 자리에 즐기는 것 좋을시고
 만백성이 성환(聖患)의 나으심을 기뻐하네
 남은 여생 잠시나마 더 이어
 크신 은혜 고루 적시고져

하반운(賀班韻)을 삼가 차운함

뜬 세상 인생이 어찌 늙음을 탄식하라
 다행히 세상에 보기 드문 의식 몸소 보았노라
 어첩에 제명(題名)함은 옥책문에 비겼고
 하례의 반열에 환호성은 옥 섬돌에 넘쳤고야
 애닦다 이 몸이 고질에 감기어
 거룩한 의식을 헛되이 저버렸고나
 앞으로 궁궐 안에서 법주의 모임 연다면
 그때에야 만년의 현수배를 드리오리

한성부판윤 정 호

30. 제20면 우

○原文

二聖御帖奉安靈壽閣後慶和領台金相國志喜詩兼同

社諸公二首

露承 祖武幾春秋耆社 徵題更匹休 御帖傳宣由鳳掖
 緝儀隨學賀 龍樓退齡正叶呼嵩祝 聖候爭欣勿樂
 瘳垂死老臣叨盛際願言同樂駐東流 右次韻
 聖祖 神孫壽考年降同耆會曠無前歡騰昔日猶今日
 運合先天與後天 少海書明金牒上老人星照玉樓邊
 時際遇光千古盛事登歌永世傳

奉安後翌日賀班領台有詩一律謹次却呈
 春殿晴開畫漏遲鴻臚傳唱引朝儀千官北極鳴環佩萬
 壽南山拱玉輝翼日乃瘳天實佑 洪恩一霽雨相隨共垂
 白髮稱耆老將護 春宮獻賀屆 賀禮時閣下

錫宴日醉中口占追次洪尚書前日賀班詩韻
 登筵耆老列仙儔爭效華封祝帝堯壽耀呈祥多此夜
 親臨賜宴繼 先朝床邊鳩杖讀如畫酒後 龍顏喜轉昭
 鳳吹鸞歌鍾鼓饗上林黃鳥亦相謠

右參贊 申 鉉

○해석

두 임금의 어휘 보첩을 영수각에 봉안한 뒤 영의정 김상국의 기념시에 화답하
 고 겸하여 기로사 여러분에게 올림 二首

신뢰이 선왕을 보우한지 몇해런가
 기로사 제명이 다시 없는 영광일세
 보첩은 한 쌍의 궁인으로 전해졌고
 거룩한 의식은 용루에서 하례하네
 높으신 연령이 만세축하 합당하고
 환후는 자연히 약 안 써도 나올세라
 늙은 이 몸 태평성대 만났으니
 원컨대 같이 즐겨 가는 세월 잡아 매고저 이상은 차운
 성조(聖祖)와 신손(神孫) 수고(壽考)의 나이에
 기로회 함께한 일 전고에 드물었네
 기꺼운 오늘이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운수는 선천수 후천수가 꼭 같을세
 소해(少海)의 글씨는 금첩(金牒)위에 뚜렷했고
 노인성 별 빛은 옥루(玉樓)가에 비추었네
 한 때에 서로 모여 천고에 빛났으니
 거룩한 기록이 악부 올라 영원하리

어첩을 봉안한 후 이튿날 하례의 반열에서 영의정의 사물시가 있어서 삼가 차
 운 하여 올림
 봄 궁궐 활짝 개고 낮 누수(漏水)는 더디인데

홍로관 긴 소리 조회한다 전갈하네
 천관의 옥패소리 궁궐 안을 진동하고
 남산의 만세소리 옥계절에 엮디었네
 이튿날 나으심은 하느님의 도우시고
 거룩한 은총이란 비와 함께 내렸어라
 성성한 백발을 드리운 기로들은
 세자를 옹호하고 축하의 잔 올리었네
 사연(賜宴)하던 날 취중에 입으로 불러 흥판서의 전일 하반운(賀班韻)을 차운
 자리에 오른 기로들은 신선이 하강한 듯
 서로들 다튀 우리 님 수복을 축하하네
 노인성 별 빛 상서로움 이 밤에 유독한데
 이 자리 천림 태조대왕 뒤를 이었도다
 상 옆의 괴상 쳐다보니 그림과 같았고
 한 순배 뒤에 용안에는 기쁨이 만면코야
 난봉(鸞鳳)의 노래 풍악이 진창 울리니
 상림원(上林苑)⑩ 씨꼬리도 역시 맞추어 노래하네

우참찬 신 입

31. 제20면 좌

○原文

耆老 錫宴後以首輔命唱呈二律
 黼座高臨別殿開 老人星帶十人來一堂
 同樂南薰奏 萬壽爭稱北斗杯 太祖
 盛儀歡再觀 聖朝休運賀重回 徽臣最
 沐如天 濯猴擢三資末席陪
 同醉 堯樽酒五行社籟歸 詔賜杯榮
 眼前仙樂從天降 頭上 恩花映日明文
 高未會當此盛 狄盧何獨擅其名滿城觀
 者紛如織 爭頌東方壽域成

己亥孟夏下浣 任 璽

○해석

기로사 사연 후 영의정 본부로 사을 두수를 지어 올림
 옥좌가 별전에 천림해 어연(御宴)을 베푸시니
 노인성 띠고 열 사람이 같이 모였네
 한 자리에서 고전음악 함께 즐기고
 천세 축수는 북두칠성 술잔을 다투어 올리네
 태조 때 성대한 의식을 다시 보았고

성조(聖朝)의 길운이 거듭 돌아옴을 하례했도다
 하치않은 이 몸이 하늘같은 은총 입어
 외람되게 재신(宰臣) 자리에 올라 말석에 모시었구나
 님의 술잔 함께 취해 다섯 순배 들렀는데
 기로사에 돌아와 은배(銀盃) 내린 영광을 자랑한다
 눈 앞에 신선의 풍악은 하늘에서 내려온 듯
 머리 위에 꽃은 꽃은 햇빛에 더욱 밝구나
 문부(文富)⑩의 제공(諸公)들이 일찌기 이런 성사(盛事) 없었는데
 적로(狄盧)⑪만이 어찌 그 이름 홀로 천명했던고
 장안에 관광객들 인산인해 이뤘는데
 우리나라에 수성(壽星)이 비친다 다투어 칭송하네
기해년 사월 상순 임 방

32. 제21면 우

○原文

謹次任尚書耆老 錫宴後韵
 眷願耆臣 御宴開 先朝盛事此重來
 恩光挿遍新裁萼 聖澤斟深別 賜杯
 近觀 天顏知有喜齊歌 湛露欲無回更
 將不盡同歡意長祝千秋萬歲陪
 特許移筵帶樂行古今曾有此 恩榮方
 知善養諸耆老何幸生逢我 聖明一社
 風流斯已極 兩朝休德誰能名伊言盛
 美真堪繪却恐丹青寫不成

領中樞府事 李 滂

○해석

임판서의 기로사 사연후의 시를 삼가 차운함
 기로사 제신을 사랑하와 어연을 열었으니
 개국 때 장한 일 이 자리에 또다시 보았네
 영광의 은총은 어사화틀 두루 꽃았고
 거룩한 은택은 내려주신 은잔에 술을 부었네
 천안을 가깝게 대해 보니 기쁜 빛 뚜렷했고
 담로(湛露)⑫의 가사(歌詞)를 높이 불러 떠날줄 모르겠네
 끝 없이 함께 즐긴 마음 가실줄 몰라서
 천 가을 만년 봄 님의 앞을 되시고저
 고마우신 문부 자리 옮겨 풍악 잡히니
 예로부터 이런 은총 일찌기 있었던가
 여러 기로에 공양 잘 함을 이제야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성상 함께 만났도다
 한 모임 풍류는 이만하면 더 할 수 없었고
 두 분의 거룩한 성덕을 어찌라 이룰까
 성대한 잔치 그림 그려 전하려 하나
 아마도 단청으로 이루지 못할까 하노라
 영중추부사 이 유

33. 제21면 좌

○原文

次任尚書耆老 錫宴後約
 翠幕排雲宿雨開鶯歌先報 釋發來香
 臣入座初傳鱗 聖主臨筵屢舉盃黃帕
 酒盞隨量飲烏紗花重載 恩回昭融際
 會無斯盛更喜 前星盡日陪
 十翁扶醉並興行擘出銀盃不世榮 北
 闕登筵身悅德西樓得社路分明句天廣
 樂仍承 龍平地神仙取得名瞻仰萬年
 靈壽閣擬携諸老落新成

領議政 金昌集

○해석

임관서 기로 사연 한 후에 지은 시를 차운함
 푸른 장막 반공에 솟고 내리던 비 개었는데
 췌꼬리 노래 님 거동하심을 먼저 알려 주노라
 기로사 노인들 자리에 들매 성찬이 상에 오르고
 님이 오시자 술잔이 여러 순배 도누나
 푸른 빛 장막에 술이 익으니 양대로 마시고
 사모 위에 어사화 꽃았으니 은총 띄고 돌아왔네
 그 임금 그 신하 이런 기회 다시 없는데
 종일토록 세자가 옆에 모시니 더욱 기뻐라
 열 노인이 부축 받아 가즈란히 나가는데
 은잔 하나씩 하사하는 양 다시 없는 영광일세
 복덕 대궐에 님을 모시니 이 몸이 황홀하고
 서쪽 다락을 다시 찾으니 길이 뚜렷하고나
 균천(鈞天)의 풍악은 들도 없는 은총이며
 평지에 신선이란 이름 입을 모아 말하네
 만년 남을 영수작을 높이 쳐다보니
 여러 동지 다 함께 낙성되는 것 보고파라

영의정 김창집

34. 제22면 우

○原文

謹次任尚書耆老 錫宴後韻
 親臨別殿盛筵開樂奏簫韶悅鳳來咫尺
 承 顏躡玉座四三行酒 賜金杯勺天
 法譜¹ 加恩錫斜日霽司倚醉回千古君
 臣無此樂須更不死幸叨陪
 耆英勝集古人行 御宴陪歡較孰榮醉
 後登 筵尤休惕歸時會社不分明 天
 威特許同堂樂 聖教親承善飲名擬待
 金罍仍大熟南山北斗獻秋成

金字杭

○해석

임판서의 기로 사연한 뒤의 시를 삼가 차운함
 님께서 친히 별전에 남시어 잔치를 베푸사
 소소(簫韶)^⑤의 풍악을 잡히니 봉황이 온 듯 하여라
 지척에서 천안을 뵈고 옥좌를 우러렀는데
 세 네 순배 선온(宣醞)^⑥에 금잔까지 주시네
 균천(鈞天)의 풍악을 앞에 잡히고
 저물게 기로사에서 술이 취해 돌아오누나
 천고에 군신의 이런 즐거움 없으니
 잠깐이라도 죽지 않고 영광되게 되시고저

기로사 장한 모임 옛날에도 있었는데
 어연을 모시고 기꺼움이 누가 더 영광될는지
 취한 뒤에 자리에 오르니 송구한 마음 간절하고
 돌아올 때 기로사 모임 꿈 속만 같았으나
 님께서 존엄하시니 한 방에서 즐거움 허락하시고
 술 잘 마신다는 분부 친히 들었네
 우순풍조 이 강산에 풍년들기 기다려
 신곡으로 술을 비져 북두(北斗)의 잔으로 남산수(南山壽) 올리고저

김우항

35. 제22면 좌

○原文

謹次耆社 諸公韻
 衰袍擁拱法筵開諸老皆從壽域來仙樂嘈
 嘈鳴玉管香烟細繞金盃丹心共托風雲
 契白髮均然雨露迴何幸小臣逢 盛際猥

將衰劣亦叨陪
 醉裏人如畫裏行途傍指點詫 思榮梨園
 法譜隨身簡 壽閣新題入眼明辦事
 先朝今繼述 御杯他日永留名璫 宸欲獻
 岡陵祝筆遲還慚句未成

黃 欽

○해석

기로사 여러분의 시를 삼가 차운함
 곤룡포 단정하게 법연이 열렸는데
 기로사 여러분이 노인성 띄고 모여들었네
 신선외 풍악은 옥룡소 울리었고
 향기로운 연기는 금잔을 둘러었네
 일편단심은 함께 풍운의 계합(契合)을 맺었고
 흰 머리털은 고무 우로의 은택에 젖어 있구나
 요행하게도 소신이 태평성대 만나서
 외람히도 늙은 몸이 지척에 모시었네
 술 취한 노인들 그림 가운데 신선 같으니
 길 가는 사람들이 영광이라 손짓하네
 악부의 풍악은 가는 곳마다 구성지게 울리고
 영수각에 새로 쓰인 글씨 눈이 부시네
 성조 때 거룩한 일 이제 다시 이었는데
 이번의 어연(御宴)은 영원히 이름을 남기리
 용상을 우러러 남산수(南山壽)를 빌고져
 붓을 던지매 도리어 글귀가 부끄럽구나

황 흠

36. 제23면 우

○原文

敬次
 寶座天臨法宴開老臣聯武慶朋來
 霜毛掩映耆英席金字輝煌 御賜盃盤
 社鬻笙隨柳嘯退烏帽載花回此生
 雖死猶無憾尺威顏竟日陪
 漏盡鐘鳴尚夜行暮季偏荷 聖朝榮
 東宮獲近前星彩 南極欣瞻壽曜明皇
 美 高穹知有相親乎 至德蕩無名諸公
 英笑歸田請自是疎慵讓老成

姜 鏡

○해석

삼가 차운함

옥좌가 친림하사 법연이 열렸는데
 늙은 신하들 연줄달아 모여 들었네
 백발은 기로연 자리에 휘날렸고
 금빛 글자는 하사하신 술잔에 황홀하구나
 기로사로 돌아가는 풍악은 버들거리에 울리고
 조정에서 물러나는 오사모(烏紗帽)는 꽃을 꽃고 돌아오네
 이 생애 비록 죽어도 아무 유감이 없으니
 지척에서 천안을 종일토록 모시었네

누수(漏水)가 다하고 밤 종이 우는데 그래도 다니니
 늙은 나이에 성군의 은총을 입었도다
 세자를 가까이 대하니 전성(前星)이 빛을 내고
 남극의 노인성은 수할 증조가 역력하다
 드높구나 하늘은 도와줄 것을 알것이며
 거룩하고 지극한 덕은 무엇이랴 이름할 수 없구나
 그대들은 내가 시골 가려는 것을 비웃지 마소
 이로부터 용열한 몸 노성(老成)들에게 양보하려네

37. 제23면 좌

강 현

○原文

謹次任尚書耆老 賜宴後韻
 仗移便殿法樽開 鈿背委蛇與宴來 頭戴
 御香花瑛帽 口含 天澤字鏤杯 需筵可
 但茲辰設 寶算將看舊甲回 喜極祝疑
 身是夢十年今始 聖顏陪
 盛舉曾聞 太祖行 豈知吾輩荷茲榮 庭
 陳法樂 天顏穆座列 耆英雪鬢明 堂構
 更題靈壽額 風流誰詫酒 仙名此身宛在
 春臺裡 但把歌謠信口成

洪萬朝

○해석

임관서 기로사 사연한 뒤의 운을 삼가 차운함
 넘겨서 편전에 남시어 법연을 열었으니
 노인들 회회낙낙하여 잔치에 모여드네
 머리에 어사화 꽃았으니 향기는 사모에 가득하고
 입으로는 선운(宣醞)을 마시니 글자가 술잔에 새겨졌도다
 진수성찬은 이 잔치를 위해서 베풀어 졌는데

성수(聖壽)는 옛 갑년(甲年)이 되돌아 온 것을 장차 보겠구나
 너무 기쁘니 황홀하기가 꿈 꾸는 것만 같아서
 십년만에 처음 용안을 뵈옵게 되었네

성대한 의식은 태조께서 치르신 것 일찌기 들었으나
 우리들이 이 영광 볼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궁정에 법악(法樂)을 벌렸으니 천안이 화평하시고
 좌석엔 기로들 앉았으니 백설같은 머리털이 환하도다.
 누각을 지어 영수각이란 편액을 새로 달았고
 풍류노름엔 그 뉘가 주선(酒仙)이란 이름을 자랑할고
 이 몸이 완전히 춘대(春臺) 가운데 있는 것 같으니
 노래가락 맞추어 입에서 나오는대로 불러 보았네

홍만조

38. 제24면 우

○原文

敬次

三百年周景運開廣庭仙樂九天來 輔
 筵肅穆瓊雙 座香醞薰濃馨五杯河海
 闕陵齊頌祝風雲日月競昭回試看唐宋
 香英會能得 龍顏密通陪
 上雲之樂昇天行法譜新添十老榮壓帽
 頰花承露重 當筵錫爵鏤心明休光共
 際熙熙運 靈壽爭瞻蕩蕩名不醉無歸
 咏周雅萬年燭道鳳韶成

孫海運
 李普濤 代寫

○해석

삼가 차운함

삼백년만에 좋은 운수 다시 돌아와
 넓은 길내에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왔고나
 옥좌는 엄숙한데 임금과 세자 두 분을 뵈옵고
 법주는 무루 익어 다섯 잔을 기우렸네
 하해같은 은덕 남산같은 수명을 모두 칭송했고
 풍운의 계합(契會)과 일월의 제회(際會)가 밝게 돌아왔네
 옛날 당송(唐宋)의 기영회를 시험해 보라
 용안을 가까이 모신 일 있었던가

구름 위에 솟는 풍악 소리 하늘로 올라가니
 악보(樂譜)에 열 분 신선의 곡조 새로 올랐네
 사모에 꽃은 어사화는 이슬에 젖어 무겁고
 기로연에 주는 술잔 마음에 새겨서 밝았네
 아름다운 영광은 함께 밝은 세대를 만났고

신령스런 수명(壽命)은 무한한 긴 이름 남기리로다
 취하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고 시전을 읊으니
 만년 헌수잔은 요순의 풍악으로 드리고져
 이선부 손자 해운이 대신 씀

39. 제24면 좌

○原文

謹次任尚書耆老 錫宴後韻
 今日青丘泰運開休徵勝鑿自天來權聽
 南曜明 宸極穩挹東溟注壽盃禮罷初
 筵千載曠 思隨法樂一時回社中仍常
 需雲澤醉裏猶疑 黼座陪
 五雲深處詠周行十老筵前共拜榮 內
 賜金盃 恩更侈中饋寶字眼偏明耆英
 曾有吾侪事壽德誰如我后名可但春臺
 躋一世從茲復覩至治成

漢城府判尹 鄭澍

○해석

임판서 기로 사연한 후의 시를 삼가 차운함
 우리나라 태평 운수 오늘에야 열렸으니
 좋은 징조 하늘에서 내려주었네
 남극의 노인성은 궁궐 안에 밝아 있고
 동해 물 끌어들여 범주를 비졌도다
 첫 연회 예식을 파하니 천추에 드문 일이요
 은총은 법악을 잡혀 한꺼번에 돌아왔네
 기로사 가운데 다시 성연을 베풀어 주시니
 취한 중에도 님의 옆을 모신 듯 하여라

오색 구름 깊은 곳에 거룩한 의식 베풀으니
 열 신선이 자리 앞에 함께 영광됨을 하례하네
 하사하신 금잔은 은총이 너무나 과분하고
 깊게 새긴 글자는 눈이 활짝 밝아진다
 기로사 모임은 전에도 우리 제배(侪輩) 있었으니
 수와 덕이 그 뉘가 우리 님과 같을소냐
 다만 태평성대에서 한 평생 넘겼으니
 이로부터 지극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리

한성부판 윤 정 호

40. 제25면 우

○原文

親臨錫宴後次任知樞詩韻二首
 親臨養老法筵開十輩耆臣戴白來便殿盃逢
 稀世典一堂同醉五行孟九重天上需雲起三
 百年前泰運回且待春宮騰賀日壽樽仙
 樂更追陪
 宴罷軒輿簇路行轉尋耆社詫恩榮醉敲紗
 帽簪花亞拜領銀杯鏤字明分外更歡天樂
 賜老來贏得地仙名儀容掩入丹青裏歌詠相酬
 八韻成 伊日儀寧十老
 眞像蘇畫帖中

右參贊 申 鉉

○해석

친림해서 사연한 뒤에 임지중추부사의 시를 차운함 二首
 님께서 친히 거등하사 양로의 잔치를 베푸시니
 열명의 기로들 흥안 백발 모였도다
 편전에선 외람되이 세상에 드문 은총 받았고
 한 자리에서 다섯 순배 술잔에 다 함께 취했구나
 구중궁궐에는 오색 구름 감돌고
 삼백년전의 태평한 운수는 다시 돌아오도다
 또 다시 동궁의 하례하는 날을 기다리
 현수하는 술잔과 신선의 풍악을 거듭보겠구나
 잔치를 파한 후 초헌 타고 길을 이어나가
 다시 기로사를 찾아서 은총을 자랑하네
 술에 취해 사모가 비켰으니 어사화 내려 놀렸고
 감사하게 받은 은잔에 새긴 글자 뚜렷하구나
 분수밖에 다시 아악의 풍류를 하사하시니
 늙은 이 몸을 신선이라 남들이 부러워하네
 이 얼굴 모두 화첩(畫帖) 속에 들어가니
 가사를 서로 읊어 팔운(八韻)을 이루었네
 이 날 열분 늙은이에 얼굴을 이 화첩 속에 그리다.

우찬참 신 입

[주]

- ① 동궁의 행차를 말함
- ② 춘당대(春塘臺), 창경궁(昌慶宮)에 있음
- ③ 바다 심에 있는 신선의 집
- ④ 낙양(洛陽)의 뜻
- ⑤ 송(宋)나라 때 문언박(文彦博)·부필(富弼)·사마광(司馬光) 등 十三인이 낙양에서 만든 모임
- ⑥ 세자의 별칭
- ⑦ 이조 때 의정부의 우찬참의 뜻

- ⑧ 임금이 일용에 쓰는 물건을 보관함을 말함
- ⑨ 기로소 안에 있어 어첩(御帖)을 두던 누각
- ⑩ (1)진(秦) 때의 어원(御苑)
(2)창덕궁 요금문(耀金門) 밖에 있던 어원. 서원(西苑)이라고도 함
- ⑪ 문언박(文彦博)과 부필(富弼)의 두 사람을 말함. 주 ⑤ 참조
- ⑫ 당(唐)대 사람인 적인걸(狄仁傑)과 노조린(盧照隣)의 두 사람을 말함
- ⑬ 시경(詩經)에 담로장(湛露章)이 있어 임금의 은혜가 어질고 깊음을 말함
- ⑭ 하늘의 증앙을 뜻함. 전하여 상제(上帝)의 서운
- ⑮ 순(舜)임금이 읊던 풍악
- ⑯ 임금이 신하에게 술을 하사 하시던 일 또는 그 술
- ⑰ 태자의 뜻

41. 제25면 좌

○原文

監造官本所藥房	副司勇	高挺參
書寫官上	護軍	李義芳
畫員	前萬戶	金振汝
	前萬戶	張泰興
	副司果	朴東晉
	副司果	張得萬
	副司果	許倣

○해석

감조관	기로소약방	부사용	고정참
서사관		상호군	이의방
화원		전만호	김진여
		전만호	장태홍
		부사과	박동진
		부사과	장득만
		부사과	허숙

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5-010

10.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上一之二)

가. 검토사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에 대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6.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上一之二)
-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26.2×17.0cm(반곽 19.8×13.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乙酉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65년(세조 11) 경



그림 239.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1의 2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조사본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권상 1의2는 佛陀多羅(?~?)가 漢譯하고 宗密(780~841)이 疏鈔한 것을 세조 11(1465)년에 刊經都監의 國譯本을 底本으로 經文의 한글口訣 부분만을 편집하여 鑄字所에서 乙酉字로 印出한 金屬活字本이다.

乙酉字는 주로 佛經을 刊行할 목적으로 鑄成되었던 까닭에 당시 儒臣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고 甲辰字 鑄造時에 이를 녹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 傳本이 그다지 많지 않아 오히려 貴重本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은 初印本이라 인쇄상태도 깨끗하여 귀중한 판본에 속하며 15세기 國語學과 書誌學 및 金屬活字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조사본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은 稀貴性和 貴重性を 지닌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기준>

世祖 11(1465)년에 乙酉字로 간행된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판본의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93호(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 좌상 복장유물, 월정사 소장), 보물 제1219호(아단문고), 보물 제1219-1호(권상1의2·권하1의1~2의2, 아단문고 소장), 보물 제1219-2호(권상2의2·권하3의1~2, 김민영), 보물 제1219-3호(권하1의1~2·권하2의1~2, 부산 취정사), 보물 제1514호(권상1의1, 장서각 소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 1의2는 중국 당의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의 소초본(疏鈔本)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口訣)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세조 11년(1465)에 주자소(鑄字所)에서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을유자로 인출된 판본은 활자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종 15년(1484)에 갑진자(甲辰字)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서 사용하여 그 종류도 많지 않다. 더욱이 조사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는 완질(完帙)도 전해지지 않으며 전래본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 동일한 을유자본 가운데 일부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등 몇 곳에 책의 일부가 전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조사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권상 1의2는 전래되는 판본이 적은 귀중본으로서, 15세기 國語學과 書誌學 및 金屬活字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신라시대 승려인 惠居(899-944)가 『원각경』을 강의한 기록이 있으므로 신라시대에는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 知訥이 『원각경』을 신봉한 후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조선에서는 승려교육의 교재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조선 후기 선종 강원의 학제는 沙彌科·四集科·四教科·大教科의 4단계였으며, 이외에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隨意科가 있었다. 사교과에서는 고등교육과정으로 『楞嚴經』·『大乘起信論』·『金剛般若經』·『圓覺經』을 이수하였다. 『원각경』 즉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四教科의 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많이 간행되고 유통되었다. 이들 간본을 체제에 따라 크게 ‘한문본’·‘주석본’·‘언해본’·‘구결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문본’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원각경』의 판

본은 고려시대에는 대장도감판, 우왕 6(1380)년 간본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대장도감판은 고종 28(1241)년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하여 “辛丑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간기가 판각되어 있다. 그 판목이 해인사에 수장되어 있으며, 후쇄본이 동국대학교 등에 수장되어 있다. 우왕 6(1380)년판에는 송나라 효종황제의 주석과 李穡의 발문, 시주질, 간행기록이 실려 있다. 북촌박물관 수장본(보물 1518-1호)과 부산 삼광사 수장본(보물1518-2호)이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한문본’은 을해자본과 간경도감판이 있다. 을해자본은 간경도감 설치 이전인 세조 3(1457)년 9월에서 세조 7(1461)년 초 사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전래본이 극히 적어 계명대와 고려대에 전부 합해 잔본 6책이 전래되고 있다. 번각은 여러 판종이 전래되고 있다. 또 세조 8(1462)년 간경도감에서 고려 선종 10(1093)년 교장도감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판본도 있다. 이는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주석본’은 涵虛得通의 주석본으로 세조 10(1464)년 강희안의 필적을 登梓本으로 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하였다. 번각본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수장본과 조병순 구장본이 알려져 있다.

‘언해본’은 세조 11(1465)년 간경도감판이다. 세조가 구결을 달고 信眉, 孝寧大君, 韓繼禧, 成任, 姜布孟 등이 한글로 번역하였다. 간경도감판 언해본에는 본경, 본경의 언해, 요해, 요해의 주석, 요해의 언해를 수록한 체제의 목판본이다. 번각본도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수장되어 있다.

조사대상인 ‘구결본’은 세조 11(1465)년 원각사를 준공한 기념으로 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을유자로 인출한 판본이다. 이 판본에는 언해는 없고, 본경과 요해에 한글 구결만 붙인 것이다. 간경도감의 목판본 언해본과 구분하여 ‘원각경구결본’이나 ‘을유자원각경’으로 불리기도 한다. 구결본은 宗密의 『圓覺經大疏鈔』를 저본으로 하였는데, 본경과 疏鈔에는 세조가 한글로 구결을 단 것이다. 을유자는 세조 11(1465)년 정난중이 쓴 松雪體의 글자를 바탕으로 대·중·소로 주조한 동활자이다. 구결용의 한글활자도 주조하였다. 이 활자는 불경을 인출하기 위해 주조하였기 때문에 유신들이 싫어하여 『圓覺經』·『金剛經』·『碧巖錄』·『兵將說』·『唐書』등을 인출하였으나, 갑진자(1485) 주조 후 대체되었으므로 인본이 많지 않아 중시되고 있다. 현재 을유자본 『원각경』의 완질은 확인되지 않았고, 국립중앙도서관·국립고궁박물관·고려대·영남대·한국학중앙연구원·아단문고·호림박물관 등에 잔본이 수장되어 있을 뿐이다. 완질은 전래되지 않지만, 각각의 잔본을 합하면 한 질이 될 수 있다. 그 전래본은 <표>와 같다.

<표> 을유자본 원각경의 현전본 현황

연번	구분	장수	수장처		수장처
1	圓覺經略鈔書	111			한국학중앙연구원 (보물 1514호)
	圓覺經略疏序				
	圓覺經序				
	上一之一		고려대 만송문고		
2	上一之二	10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 규장각 아단문고(보물 1219-1호) 조병순 구장본
3	上二之一	29	호림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신암문고 조병순 구장본
	上二之二	90	하남시 광덕사 (보물 1219-2호)	월정사 (2 : 장27-90) (3 : 장1-28)	
	上二之三	28			
4	下一之一	38	기장군 취정사(보물 1219-3호)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만송문고 아단문고(보물 1219-1호) 조병순 구장본
	下一之二	33			
	下二之一	34	영남대		국립중앙도서관 하남시 광덕사(보물 1219-2호) 고려대 경화당문고 조병순 구장본
	下二之二	32	기장군 취정사(보물 1219-3호)		
	下三之一	78			
	下三之二	61			

이후는 선초의 판본을 저본으로 번각본이 많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구결본의 번각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언해본에는 구결도 달리고 언해도 되었기 때문에 구결본보다는 수요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을유자본 『원각경』의 간행처가 어디인가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을유자본 『원각경』에는 간경도감판과 같은 형식의 간기가 없고, 을해자본 『楞嚴經』이 교서관에서 간행된 바 있으므로 교서관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권상1-2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수장된 서적이 보물 제1514호로 지정된 바 있으므로 복본이 있다. 그러나 을유자로 인출된 서적이 극히 적고, 활자의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인본이 깨끗한 편이나 전래과정에 마멸이 생기게 되었다. 구결에는 15세기 국어가 반영되어 있어 국어학은 물론 서지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을유자본 『원각경』은 이미 여러 차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및 現狀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卷上 1의2)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卷上 1之2 / 佛陀多羅(?~?, 唐朝) 漢譯 ; 宗密(780~841, 唐朝) 疏鈔 ; 世祖(1417~1468, 朝鮮朝) 懸吐. -- 金屬活字(乙酉字)本. -- [漢城] : [鑄字所], [世祖 11(1465) 推定].

1卷1冊(卷上 1之2) : 四周單邊, 半郭 19.8×13.2cm, 有界, 半葉 大字 6行13字單行, 中字 6行19字雙行, 小字註 6行19字四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6.2×17.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卷頭題: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版心題: 圓覺.

卷尾題: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墨 書: 欄外註 等.

內 容: 指定申請本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은 宗密의 疏鈔本을 底本으로 하여 收錄된 經文은 “如是我聞 一時 婆伽婆 入於神通大光明藏 三昧正受 一切如來 光嚴住持 是諸衆生 清淨覺地 身心寂滅 平等本際 圓滿十方 不二隨順 於不二境 現諸淨土 與大菩薩摩訶薩 十萬人俱 其名曰 文殊舍利菩薩 普賢菩薩 普眼菩薩 金剛藏菩薩 彌勒菩薩 清淨慧菩薩 威德自在菩薩 辨音菩薩 淨諸業障菩薩 普覺菩薩 圓覺菩薩 賢善首菩薩 等 而爲上首 與諸眷屬 皆入三昧 同住如來 平等法會 於是 文殊舍利菩薩 在大衆中 卽從座起 頂禮佛足 右繞三匝 長跪叉手 而白佛言 大悲世尊 願爲此會 諸來法衆 說於如來 本起清淨 因地法行 及說菩薩 於大乘中 發清淨心 遠離諸病 能使未來末世衆生 求大乘者 不墮邪見”까지이다.

乙酉字: … 그 뒤 을유(1465)년에 [세조께서] 『圓覺經』을 印行하고자 鄭蘭宗에게 下命하여 [父字本을] 쓰도록 하였으나 그 字體가 고르지 못하였는데 이름을 ‘乙酉字’라 하였다. (… 其後乙酉年 [世祖] 欲印圓覺經 命鄭蘭宗書之 字體不整 名曰 乙酉字 … (成俔 『慵齋叢話』, 卷7. 活字條)

… 成化 乙酉(1465)년에 鑄成된 것을 ‘乙酉字’라 하니 鄭蘭宗이 [父字本을] 書寫한 것이며, 이들[乙亥字·乙酉字]은 지금 바야흐로 병용되고 있다. 甲辰(1484)年 가을 8월에 承政院에 傳旨를 내려 ‘甲寅字와 乙亥字는 매우 精好하나 字體가 너무 커서 印行하는 서적이 簡帙이라도 繁重하다. 또한, 이미 세월이 오래되어 散落되고 없어져서 補鑄하여 사용하려고 하여도 그 처음의 乙酉字와는 比길 바 되지 못하니, 그 字體가 端正하지 못하여 사용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成於成化乙酉年 字 謂之乙酉字 鄭蘭宗之所書 今方竝用焉 甲辰秋八月 我殿下傳旨于承政院 若曰 甲寅·乙亥字極爲精好 然而字體差大 所印之書 簡帙繁重 且已歲久散落 將盡雖補鑄 … 金宗直, <新鑄字跋[甲辰字]>條.)

所藏歷: 指定申請本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88년에 구입한 遺物이다. (유물취득경위서 참간).

現 狀: 전반적으로 漏濕으로 다소의 變色과 헤진 곳이 있으나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원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表紙는 후대에 改裝된 듯하다.

他藏處: 指定申請本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과 동일한 乙酉字本이 국립중앙도서관(권상1의2(2)·권상2의1~2의3(3)·권하1의1~2의3(4)·권하3의1~삼의2(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신암貴442·경화당貴443·만송貴44A1·만송貴44A2), 성암문고(4책), 아단문고(권상1의2·권하1의1~2의2),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월정사, 장서각(권상1의1), 취정사(권하1의1~2·권하2의1~2), 호림박물관 등에 일부 소장되고 있다.

既指定: 指定申請本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과 동일한 乙酉字本이 보물 제793호(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월정사 소장), 보물 제1219-1호(권상1의2·권하1의1~2의2, 아단문고 소장), 보물 제1219-2호(권상2의2·권하3의1~2, 김민영), 보물 제1219-3호(권하1의1~2·권하2의1~2, 부산 취정사), 보물 제1514호(권상1의1, 장서각 소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 現 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의 지정신청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권상 1의 2는 전반적으로 漏濕으로 인한 다소의 變色과 헤진 곳이 있으나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원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表紙는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 內容 및 特徵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唐朝에 北印度 罽賓國의 고승인 佛陀多羅(?~?)가 漢譯한 佛經으로 크고[大] 방정하며[方] 광대한[廣] 圓覺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修多羅 중에서 으뜸이 되는 經典이라는 뜻이며, 불교의 수행에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경전이다. 그러나 산스크리트어의 原本이 없어 중국에서의 僞作된 經典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釋迦牟尼가 文殊菩薩·普賢菩薩·普眼菩薩·金剛藏菩薩·彌勒菩薩·淸淨慧菩薩·威德自在菩薩·辯音菩薩·淨諸業障菩薩·普覺菩薩·圓覺菩薩·賢善首菩 등 12菩薩과 圓覺의 妙理와 그 觀行을 문답한 내용을 각 1章씩 수록하여 전체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장의 「文殊菩薩章」은 經의 眼目이 되는 부분으로 如來因行의 근본과 果相을 설하고 있는데, 이는 因地에 圓覺을 닦는 자가 모든 현실이 허공의 꽃이요 夢幻임을 알면 곧 生死의 윤회가 없어질 뿐 아니라, 生死가 곧 涅槃이고 輪回가 곧 解脫이라는 것이다. 제2장의 「普賢菩薩章」 이하는 圓覺을 닦고 證得하는 데에 필요한 觀行을 설하고 있다. 제2장의 「普賢菩薩章」에서는 중생들이 圓覺의 淸淨한 境界를 듣고 수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하고 있으며, 제3장의 「普眼菩薩章」에서는 중생들이 어떻게 사유하고 住持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하고 있다. 제4장의 「金剛藏菩薩章」에서는

① 만일 중생이 본래 成佛이면 왜 다시 일체 無明을 설하였는가? ② 만일 無明이 중생이 본래 가졌다면 어떤 인연으로 본래 成佛이라 설하였는가? ③ 만일 본래 佛道를 이루고 다시 無明을 일으켰다면 如來는 어느 때 다시 일체 번뇌를 일으킬 것인가? 등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5장의 「彌勒菩薩章」에서는 輪回를 끊는 방법을 설하고 있으며, 제6장의 「淸淨慧菩薩章」에서는 聲聞性·緣覺性·菩薩性·如來性·外道性 등 五性の 所證 差別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제7장의 「威德自在菩薩章」에서는 중생의 세 가지 根性에 따른 修行의 방법을 설하고 있으며, 제8장의 「辯音菩薩章」에서는 圓覺門에 의하여 修習하는 길에 대해 설하고 있다. 제9장의 「淨諸業障菩薩章」에서는 末世의 衆生을 위한 將來眼에 관하여 설하고 있으며, 제10장의 「普覺菩薩章」에서는 수행하는 자가 닦아야 할 法과 行, 제거해야 할 病과 發心하는 방법, 邪見에 떨어지지 않는 법 등을 설하고 있다. 제11장의 「圓覺菩薩章」에서는 圓覺境界를 닦기 위하여 安居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으며, 제12장의 「賢善首菩薩章」에서는 本經의 이름과 信受·奉行하는 방법, 本經을 受持하는 功德과 利益 등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은 고려조의 知訥(1158~1210)이 깊이 신봉하여 ‘了義經’이라 하면서 크게 유통되고, 조선조 초기에 涵虛 得通和尚(1376~1433)이 『圓覺經疏』를 짓고 그 뒤에 有一禪師(1720~1799)와 義沾禪師(1746~1796)가 각각 『圓覺私記』를 지으면서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같이 『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이 널리 讀誦·研究되고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져서 불교 수행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은 經典의 내용이 훌륭한 이론과 실천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文體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며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고려조 우왕 6(1380)년에 李穡(1328~1396)이 지은 跋文이 있는 판본을 비롯하여 조선조 世祖年間에는 乙亥字로 간행된 판본과 세조 10(1464)년에 涵虛 得通의 註釋을 붙여 간행된 刊經都監의 판본 및 세조 11(1465)년에 乙酉字로 간행된 판본이 있다. 선조 3(1570)년의 全羅道 安心寺版은 刊經都監版의 覆刻이고 선조 8(1575)년의 全羅道 安心寺版은 乙酉字本의 覆刻이며, 광해군 3(1611)년의 智異山 雙溪寺版은 乙亥字本의 覆刻이다. 이 밖에도 인조 12(1634)년의 京畿道 龍腹寺版, 효종 6(1655)년의 順天 仙巖寺版, 현종 2(1661)년의 密陽 靈井寺版(現 表忠寺), 숙종 7(1681)년의 寧邊 普賢寺版, 영조 34(1758)년에 寫字官이 板下本을 쓰고 校書館에서 새긴 金剛山 乾鳳寺版 등이 있다. 그 뒤로도 철종 12(1861)년의 乾鳳寺版, 고종 19(1882)년의 甘露社版과 고종 20(1883)년의 涵虛 得通의 註釋이 있는 楊州 奉印寺版, 1926년의 新文館 新鉛活字 版本도 있다.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현존하는 經板으로는 선조 21(1588)년의 淸道 雲門寺의 經板과 광해군 3(1611)년의 河東 雙溪寺의 經板 및 효종 6(1655)년의 順天 仙巖寺의 經板 등이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는 唐朝의 圭峰 宗密(780~841)의 疏鈔本에 세조가 한글로 口訣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세조 11(1465)년에 鑄字所에서 乙酉字의 金屬活字로 간행된 版本이다. 乙酉字版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이 간행되기 전에 세조는 이미 즉위 7(1461)년에는 각종 佛經을 諺解하여 刊行하기 위한 刊經都監을 설치⁴¹⁾하고 즉위 10(1464)년에는 圓覺寺를 설치⁴²⁾하였으며, 즉위 11(1465)년에는 孝寧大君(1396~1486)과 韓繼禧(1423~1482) 및 信眉(1403~1480) 등에 의하여 諺解·校正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을 刊經都監에서 木版으로 간행⁴³⁾하기도 하였다.

乙酉字本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刊經都監版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을 底本으로 하여 간행된 판본으로 한글活字의 併用이 문제가 되었던 듯, 本文의 諺解의 部分은 생략되고 經文과 註釋의 한글口訣 部分만 편집하여 인출된 연유로 口訣만은 刊經都監版과 일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乙酉字版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刊經都監版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와의 구별을 위하여 ‘圓覺經口訣本’ 또는 ‘乙酉字圓覺經’으로 稱名되기도 한다.

을유자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의 체제는 「序文」과 본문의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크게 1·2로 나누고 상권1을 다시 1·2로 나누고 상권2를 1·2·3으로 나누었으며, 하권은 크게 1·2·3으로 나누고 각각 1·2로 구분하였다. 결국, 「서문」을 제외하고 본문은 모두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乙酉字本의 卷上 1의2이다. 「序文」은 경전의 본문에서 설할 내용이 요약·제시된 글로 裴休(797~870)의 「圓覺經略疏序」와 그의 스승인 圭峰 宗密의 「圓覺經序」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圭峰 宗密의 「圓

4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7年 6月 16(乙酉)日條.
初設刊經都監 置都提調·提調·使·副使·判官.

4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0年 5月 3(乙卯)日條.
幸興福寺與王世子及孝寧大君補·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永順君溥·領議政申叔舟·左議政具致寬·雲城府院君朴從愚·南陽府院君洪達孫·領中樞院事沈滄·兵曹判書尹子雲·戶曹判書金國光·中樞院副使金漚·商山君黃孝源議創圓覺寺 以補·璆·琰·溥·叔舟·致寬·從愚·河城尉鄭顯祖等爲造成都提調 禮曹判書元孝然及子雲·國光·漚爲提調 以僉知中樞院事尹岑·崔善復·都承旨盧思慎等爲副提調 初興福寺廢爲樂學都監 人呼爲大寺.

4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1年 3月 9(丙辰)日條.
孝寧大君補 嘗讎校圓覺經 至是事訖 上御思政殿設宴慰之 王世子與補·臨瀛大君璆·永膺大君琰·永順君溥·龜城君浚·原川卿宜·河城尉鄭顯祖·巨濟正徹·河東府院君鄭麟趾·蓬原府院君鄭昌孫·領議政申叔舟·上黨府院君韓明滄·左議政具致寬·右議政黃守身·南陽府院君洪達孫·領中樞院事沈滄·判中樞院事沈決·左贊成尹士盼·右贊成朴元亨·右參贊崔恒·工曹判書金守溫·吏曹判書梁誠之·禮曹判書元孝然·吏曹參判洪應·禮曹參判任元濬·兵曹參判宋文琳等入侍 對馬州 宗彥七郎·灑文多難等亦入侍 上賜宗彥七郎大紅羅藍羅各一匹 白苧布十四 黑麻布十四 虎皮一張 豹皮一張 油紙席一張 其餘賜物有差 宗彥七郎等 下庭拜謝 又賜酒肉 送至其館 命入侍宰宗以次進酒 仍命叔舟·元亨 兵曹判書尹子雲·刑曹判書金頌等子弟中加一資 以韓繼禧爲吏曹判書 梁誠之知中樞院事 姜希孟仁順府尹 韓致仁僉知中樞院事 吳凝司憲執義 繼禧·希孟以譯圓覺經功也.

覺經序」는 경전의 특징과 중요성 그리고 註釋書의 성립 배경과 이에 얽힌 일화 등이 밝혀져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에 수록된 經文은 “如是我聞 一時 婆伽婆 入於神通大光明藏 三昧正受 一切如來 光嚴住持 是諸衆生 清淨覺地 身心寂滅 平等本際 圓滿十方 不二隨順 於不二境 現諸淨土 與大菩薩摩訶薩 十萬人俱 其名曰 文殊舍利菩薩 普賢菩薩 普眼菩薩 金剛藏菩薩 彌勒菩薩 清淨慧菩薩 威德自在菩薩 辨音菩薩 淨諸業障菩薩 普覺菩薩 圓覺菩薩 賢善首菩薩 等 而爲上首 與諸眷屬 皆入三昧 同住如來 平等法會 於是 文殊舍利菩薩 在大衆中 卽從座起 頂禮佛足 右繞三匝 長跪叉手 而白佛言 大悲世尊 願爲此會 諸來法衆 說於如來 本起清淨 因地法行 及說菩薩 於大乘中 發清淨心 遠離諸病 能使未來末世衆生 求大乘者 不墮邪見” 까지이며, 經文에는 한글口訣이 있어 讀經의 편리성이 도모되어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卷上 1之2의 1책으로 卷頭題와 卷尾題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고 版心題는 ‘圓覺’이다. 版式の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19.8cm 가로 13.2cm이며 界線이 있다. 半葉의 行字數는 大字의 경우 6行 13字의 單行이고 中字의 경우 6行 19字의 雙行이며 小字註의 경우 6行 19字의 4行이다. 版心の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며, 규격은 세로 26.2cm 가로 17.0cm이다. 紙質은 미색으로 염색된 전형적인 印經韓紙로 간혹 藁精紙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裝訂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이는 거의 같은 시기에 간행된 刊經都監版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의 경우에 版式の 변란이 四周雙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2.2cm 가로 18.5cm이며 界線이 있는 점과 半葉의 行字數는 大字는 9行 17字이고 中·小字는 9行 21字에 小字는 雙行인 점 및 版心の 版口가 上下大黑口이고 魚尾가 上下內向黑魚尾인 점 등과는 크기나 판형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乙酉字는 세조 11년(1465)에 虛白堂 鄭蘭宗(1433~1489)이 松雪體를 바탕으로 서사한 父字本으로 大·中·小字의 金屬(銅)活字가 구조된 것이며, 口訣을 인쇄하기 위하여 한글활자도 구조되었다. 乙酉字의 鑄字事實은 成倪(1439~1504)의 『慵齋叢話』에서 “... 그 뒤 을유(1465, 세조 11)년에 [世祖께서] 『圓覺經』을 印行하고자 鄭蘭宗에게 下命하여 [父字本을] 쓰도록 하였으나 그 字體가 고르지 못하였는데 이름을 ‘乙酉字’라 하였다.(... 其後乙酉年 [世祖] 欲印圓覺經 命鄭蘭宗書之 字體不整 名曰 乙酉字 ... (成倪 『慵齋叢話』. 卷7. 活字條)”는 기록과 金宗直(1431~1492)의 『新鑄字跋[甲辰字]』의 “... 成化 을유(1465)년에 鑄成된 것을 ‘乙酉字’라 하니 鄭蘭宗이 [父字本을] 書寫한 것이며, 이들[乙亥字·乙酉字]은 지금 바야흐로 병용되고 있다. 갑진(1484)년 가을 8월에 承政院에 傳旨를 내려 ‘甲寅字와 乙亥字는 매우 精好하나 字體가 너무 커서 印行하는 서적이 簡帙이라도 繁重하다. 또한, 이미

세월이 오래되어 散落되고 없어져서 補鑄하여 사용하려고 하여도 그 처음의 乙酉字와는 비길 바 되지 못하니, 그 字體가 端正하지 못하여 사용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成於成化乙酉年字 謂之乙酉字 鄭蘭宗之所書 今方竝用焉 甲辰秋八月 我殿下傳旨于承政院 若曰 甲寅·乙亥字極爲精好 然而字體差大 所印之書 簡帙繁重 且已歲久散落 將盡雖補鑄 … 金宗直, <新鑄字跋[甲辰字]>條)”는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세조는 즉위 10(1464)년에 圓覺寺를 짓기 시작하는 한편 孝寧大君 李補에게 명하여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讎校하게 하였으며, 다시 이를 간행하기 위하여 乙酉字를 鑄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虛白堂 鄭蘭宗은 松雪體의 楷書에 능하여 昌德宮의 여러 殿門의 扁額과 奉先寺의 鐘銘 등을 썼던 당대의 명필가였다. 그러나 松雪體는 晋體처럼 楷正하지도 못하며 그 자체를 바탕으로 시급히 주조된 乙酉字도 端正하지 못하여 당시 儒臣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종 15(1484)년에 甲辰字를 새로 鑄造할 때 녹여서 사용되고 말았다. 나아가 乙酉字는 字樣이 단정하지 못하여 인쇄하기를 꺼려서 겨우 20년밖에 사용되지 않아 그 印本의 종류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乙酉字로 인출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의 完帙도 전해지지 않으며 傳來本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라 오히려 귀중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과 동일한 乙酉字本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권상1의2·권상2의1~2의3·권하1의1~2의3·권하3의1~삼의2), 고려대학교도서관(신암貴442·경화당貴443·만송貴44A1·만송貴44A2), 성암문고(4책), 아단문고(권상1의2·권하1의1~2의2), 영남대학교도서관, 월정사, 장서각(권상1의1), 취정사(권하1의1~2·권하2의1~2), 호림박물관 등에 부분적으로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과 동일한 乙酉字本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793호(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월정사 소장), 보물 제1219-1호(권상1의2·권하1의1~2의2, 아단문고 소장), 보물 제1219-2호(권상2의2·권하3의1~2, 개인), 보물 제1219-3호(권하1의1~2·권하2의1~2, 부산 취정사), 보물 제1514호(권상1의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은 初印本이라 인쇄상태도 깨끗하여 귀중한 판본에 속하며 15세기 國語學과 書誌學 및 金屬活字 분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동일한 판본들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 조사본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도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佛陀多羅 漢譯, 宗密 疏鈔, 世祖 懸吐,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乙酉字本. [漢城]: [鑄字所], [世祖 11(1465) 推定].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所藏本.
-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寶庫社, 1993.
-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옥영정·서정문)>.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pageNo=1_1_1_1
- 국립중앙도서관: <https://nl.go.kr/>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dongguk.edu/>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其 他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88년에 구입한 遺物이다.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판본인 乙酉字本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권상1의2(2)·권상2의1~2의3(3)·권하1의1~2의3(4)·권하3의1~삼의2(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신암貴442·경화당貴443·만송貴44A1·만송貴44A2), 성암문고(4책), 아단문고(권상1의2·권하1의1~2의2),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월정사, 장서각(권상1의1), 취정사(권하1의1~2·권하2의1~2), 호림박물관 등에 일부 소장되고 있다.

또한, 지정신청본의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와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 793호(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월정사 소장), 보물 제1219-1호(권상1의2·권하1의1~2의2, 아단문고 소장), 보물 제1219-2호(권상2의2·권하3의1~2, 김민영), 보물 제1219-3호(권하1의1~2·권하2의1~2, 부산 취정사), 보물 제 1514호(권상1의1, 장서각 소장)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 書誌事項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卷上 1之2 / 佛陀多羅(?~?, 唐朝) 漢譯 ; 宗密(780~841, 唐朝) 疏鈔 ; 世祖(1417~1468, 朝鮮朝) 懸吐. -- 金屬活字(乙酉字)本. -- [漢城] : [鑄字所], [世祖 11(1465) 推定].

1卷1冊(卷上 1之2) : 四周單邊, 半郭 19.8×13.2cm, 有界, 半葉 大字 6行13字單行, 中字 6行19字雙行, 小字註 6行19字四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6.2×17.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卷頭題: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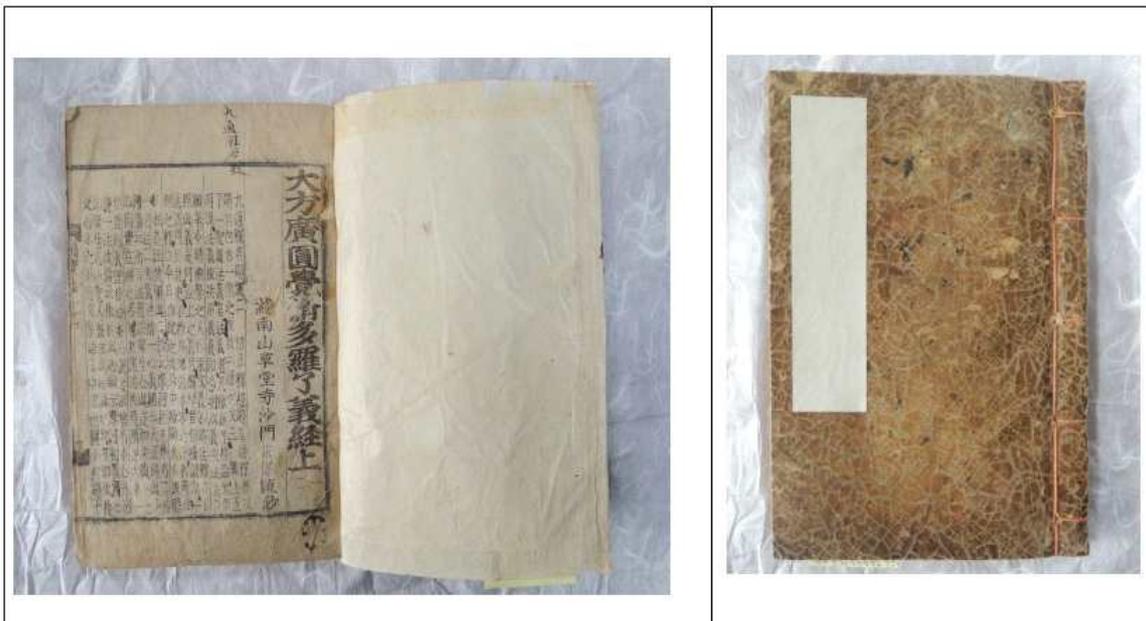
版心題: 圓覺.

卷尾題: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

墨 書: 欄外註 等.

○ 現 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은 1988년에 구입한 유물이다. 책은 누습과 오염으로 인해 일부 변색이 있으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매우 좋다. 표지는 본래의 것이 아닌 후대 개장된 것이다.



○ 內容 및 特徵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脩多羅了儀經)』은 중국 당대 북인도 계빈국(闍賓國)의 고승인 불타다라(佛陀多羅, ?~?)가 한역한 불경으로 크고[大] 방정하며[方] 광대한[廣] 원각(圓覺)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수다라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경전이다. 일명 『원각경』이라고도 하며 달리 『대방광원각경』·『원각수다라요의경』·『원각요의경』이라

고도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불교전문강원 사교과(四敎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경전의 내용은 석가여래가 12명의 보살과 문답을 통해 원각의 묘리(妙理)와 그 관행(觀行)을 설하는 것으로 문수보살장(文殊菩薩章), 보현보살장(普賢菩薩章), 보안보살장(普眼菩薩章), 금강장보살장(金剛藏菩薩章), 미륵보살장(彌勒菩薩章), 청정혜보살장(淸淨慧菩薩章), 위덕자재보살장(威德自在菩薩章), 변음보살장(辯音菩薩章), 정제업보살장(淨諸業障菩薩章), 보각보살장(普覺菩薩章), 원각보살장(圓覺菩薩章), 현선수보살장(賢善首菩薩章) 등 전체 12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의 「문수보살장」은 경전의 안목(眼目)이 되는 부분으로 여래인행(如來因行)의 근본과 과상(果相)을 설하고 있다. 제2장의 「보현보살장」에서는 원각(圓覺)을 닦고 증득(證得)하는 데에 필요한 관행(觀行)을 설하고 있다. 제3장의 「보안보살장」에서는 중생들이 어떻게 사유하고 주지(住持)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하고 있다. 제4장의 「금강장보살장」에서는 무명(無明)을 중심으로 성불(成佛)과 불도(佛道)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하고 있다. 제5장의 「미륵보살장」에서는 윤회를 끊는 방법을 설하고 있다. 제6장의 「청정혜보살장」에서는 성문성(聲聞性)·연각성(緣覺性)·보살성(菩薩性)·여래성(如來性)·외도성(外道性) 등 5성(五性)의 소증 차별(所證差別)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제7장의 「위덕자재보살장」에서는 중생의 세 가지 근성에 따른 수행의 방법을 설하고 있다. 제8장의 「변음보살장」에서는 원각문(圓覺門)에 의하여 수습(修習)하는 길에 대해 설하고 있다. 제9장의 「정제업장보살장」에서는 말세의 중생을 위한 장래안(將來眼)에 관하여 설하고 있다. 제10장의 「보각보살장」에서는 수행하는 자가 닦아야 할 법(法)과 행(行), 제거해야 할 병(病)과 발심(發心)하는 방법, 사견(邪見)에 떨어지지 않는 법 등을 설하고 있다. 제11장의 「원각보살장」에서는 원각경계(圓覺境界)를 닦기 위하여 안거(安居)하는 방법을 설하고 있다. 마지막 제12장의 「현선수보살장」에서는 본경(本經)의 이름과 신수(信受)·봉행(奉行)하는 방법, 본경(本經)을 수지(受持)하는 공덕과 이익 등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원각경』은 고려의 지눌(知訥, 1158~1210)이 깊이 신봉하여 『원각요의경』이라 하면서 크게 유통되었고, 조선초기에는 함허 득통(涵虛得通, 1376~1433)이 『원각경소(圓覺經疏)』를 짓고 그 뒤에 유일(有一, 1720~1799)과 의침(義沾, 1746~1796)의 두 선사가 각각 『원각사기(圓覺私記)』를 지으면서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원각경』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고려 우왕 6년(1380)에 이색(李穡, 1328~

1396)이 지은 발문(跋文)이 있는 판본을 비롯하여 조선 세조대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판본과 세조 10년(1464)에 함허 득통의 주석을 붙여 간행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판본 및 세조 11년(1465)에 을유자(乙酉字)로 간행된 판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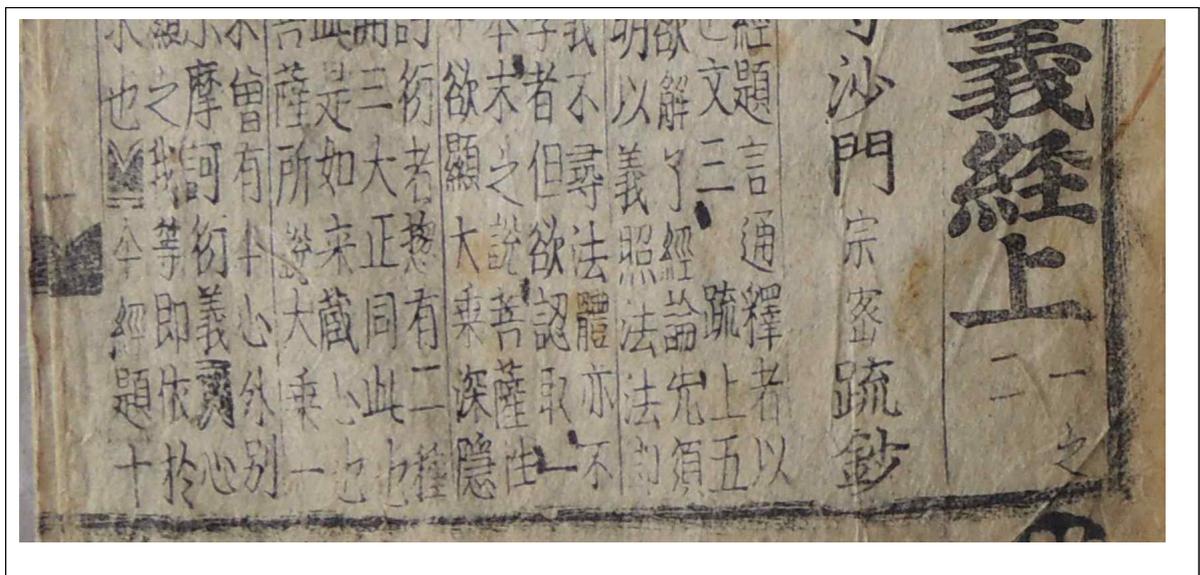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라도 안심사에서는 선조 3년(1570)에는 간경도감판의 복각판을 간행하였고, 선조 8년(1575)에는 을유자본의 복각판을 간행하였다. 한편 지리산 쌍계사에서는 광해군 3년(1611)에 을해자본의 복각판을 간행하였고, 이후 인조 12년(1634)의 경기도 용복사판(龍腹寺版), 효종 6년(1655)의 순천 선암사판(仙巖寺版), 현종 2년(1661)의 밀양 영정사판(靈井寺版), 숙종 7년(1681)의 영변 보현사판(普賢寺版), 영조 34년(1758)에 사자관(寫字官)이 판하본(板下本)을 쓰고 교서관(校書館)에서 새긴 금강산 건봉사판(乾鳳寺版) 등이 있다. 또한 철종 12년(1861)의 건봉사판(乾鳳寺版), 고종 19년(1882)의 감로사판(甘露社版), 고종 20년(1883)의 함허 득통의 주석이 있는 양주 봉인사판(奉印寺版) 그리고 1926년에 신연활자로 신문관(新文館)에서 간행한 판본까지 상당히 많은 판본이 유행되었다.

한편 『원각경』의 현존하는 경판(經板)으로는 선조 21년(1588)에 만들어진 청도 운문사(雲門寺)의 경판과 광해군 3년(1611)에 하동 쌍계사(雙溪寺)에서 만들어진 경판 및 효종 6년(1655)에 순천 선암사(仙巖寺)에서 만들어진 경판 등이 있다. 조사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는 중국 당의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의 소초본(疏鈔本)에 세조가 한글로 구결(口訣)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세조 11년(1465)에 주자소(鑄字所)에서 금속활자인 ‘을유자(乙酉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이미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과 한계희(韓繼禧, 1423~1482) 및 신미(信眉, 1403~1480) 등에 의하여 언해·교정된 목판본으로 간행된 바가 있었다.(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3월 9일 병진)

을유자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는 간경도감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판본으로서, 본문(本文)의 언해(諺解)는 생략되었고 경문(經文)과 주석(註釋)의 한글로 이루어진 구결(口訣) 부분만 편집하여 인출되었다. 따라서 을유자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는 ‘원각경 구결본(圓覺經口訣本)’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을유자본 『원각경(언해)』의 체제는 「서문」과 본문의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은 크게 1·2로 나누고 권상 1을 다시 ‘一之一’과 ‘一之二’의 두 편으로 나누고, 권상 2를 ‘二之一’과 ‘二之二’ 그리고 ‘二之三’의 3편으로 나누었다. 하권은 크게 1·2·3으로 나누고 각각 ‘一’과 ‘二’로 구분하여 6편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본 『원각경(언해)』는 그 가운데 권상 ‘一之二’에 해당한다.



조사본의 「서문」은 경전의 본문에서 설할 내용이 요약·제시된 글로 배휴(裴休, 797~870)의 「원각경약소서(圓覺經略疏序)」와 그의 스승인 규봉 종필의 「원각경서(圓覺經序)」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본 권상 ‘一之二’에 수록된 경문(經文)은 제1장의 「문수보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래인행(如來因行)의 근본과 과상(果相)을 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바가바(婆伽婆)께서神通대광명장(神通大光明藏)에 드시어 삼매로 바로 수용하시니, 일체 여래의 빛나고 장엄하게 머무시는 자리며, 모든 중생들의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며, 몸과 마음이 적멸하여 평등한 근본 자리이다. 시방에 원만하여 불이(不二)를 수순하시며, 불이의 경계에서 모든 정토를 나투시어 대보살마하살 십만 인과 함께 하시었다. 그 이름은 文殊師利菩薩·普賢菩薩·普眼菩薩·金剛藏菩薩·彌勒菩薩·清淨慧菩薩·威德自在菩薩·辯音菩薩·淨諸業障菩薩·普覺菩薩·圓覺菩薩·賢善首菩薩 로서, 그들이 으뜸이 되어 여러 권속들과 함께 삼매에 들어가 여래의 평등한 법회에 함께 하였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앞드려 절하며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이 법회에 온 모든 대중을 위하여 여래께서 본래 일으키신 청정한 인지법행을 말씀해 주소서. 그리고 보살들이 대승에 청정한 마음을 일으켜 모든 병을 멀리 여움을 설하시어, 미래의 말세 중생으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사견(邪見)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체를 땅에 대어 절하며 이같이 세 번 거듭 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재선재로다.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여래의 인지법행을 물으며, 또 말세의 일체 중생들 가운데 대승을 구하는 이들을 위하여 바르게 주지함을 얻어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그대는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를 위하여 설하리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선남자여, 위없는 법왕의 대타라니문이 있으니 원각(圓覺)이라 한다. 일체 청정한 진여 보리와 열반과 파라밀을 흘려내어 보살을 가르쳐 주시나니, 일체 여래께서 본래 일으키신 인지(因地)에서 청정각상(淸淨覺相)을 원만히 비춤에 의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셨느니라. 어떤 것이 무명(無明)인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비롯함이 없는 예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사방을 장소를 바꾼 것과 같아서, 사대(四大)를 잘못 알아 자기의 몸이라 하며, 육진(六塵)의 그림자를 자기의 마음이라 한다. 비유하면 병든 눈이 허공 꽃이나 제 이(二)의 달을 보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허공에는 실제로 꽃이 없는데 병든 자가 망령되이 집착을 하나니, 허망한 집착 때문에 허공의 자성을 미혹할 뿐 아니라, 또한 실제의 꽃이 나는 곳도 미혹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허망하게 생사에 해매임이 있으니 그러므로 무명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무명이란 것은 실제로 체(體)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꿀 때는 없지 아니하나 꿈을 깨고 나서는 마침내 얻을 바가 없는 것과 같으며, 못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지나 일정하게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하지 못함과 같다. 왜냐하면 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 남이 없는 가운데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니, 그러므로 생사에 해만다고 이름 하느니라.

선남자여, 아래의 인지(因地)에서 원각(圓覺)을 닦는 이가 이것이 공화(空華)인 줄 알면 곧 룬전(輪轉)이 없을 것이며, 또한 몸과 마음이 생사를 받음도 없으리니, 짓는 까닭에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없기 때문이니라. 지각하는 것도 허공과 같으며,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곧 허공 꽃의 모양이로되, 또한 지각하는 성품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 있고 없음을 함께 보내면 이를 곧 청정정각(淸淨正覺)에 수순(隨順)한다고 이름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요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여래장(如來藏) 중에 일어나고 멸함이 없기 때문이며, 보고 듣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법계의 성품이 구경(究竟)에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한 것과 같기 때문이니, 이것을 인지법행(因地法行)이라 하느니라. 보살이 이에 의하여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말세중생이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사건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펴시려고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문수여,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여래께서 본래의 인지(因地)로부터 다 지혜의 깨달음으로써 무명(無明)을 요달(了達)하셨느니라. 그것이 허공 꽃인 줄 알면 곧 능히 유전(流轉)을 면할 것이며 마치 꿈꾸는 사람이 깬 때에 얻을 수 없음과 같느니라. 깨달음이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여 움직여 구르지 않으니 깨달음이 시방계(十方界)에 두루하면 곧 불도를 얻으리라. 못 환(幻)이 멸하여도 처소가 없으며 도를 이룸도 또한 얻음이 없으니 본성이 원만한 때문이니라. 보살이 이 가운데서 능히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키나니 말세 모든 중생들도 이를 닦으면 사건을 면하리라

如是我聞 一時 婆伽婆 入於神通大光明藏 三昧正受 一切如來 光嚴住持 是諸衆生 淸淨覺地 身心寂滅 平等本際 圓滿十方 不二隨順 於不二境 現諸淨土 與大菩薩摩訶薩 十萬人俱 其名曰 文殊師利菩薩 普賢菩薩 普眼菩薩 金剛藏菩薩 彌勒菩薩 淸淨慧菩薩 威德自在菩薩 辯音菩薩 淨諸業障菩薩 普覺菩薩 圓覺菩薩 賢善首菩薩 等而爲上首 與諸眷屬 皆入三昧 同住如來 平等法會

於是 文殊師利菩薩 在大眾中 卽從座起 頂禮佛足 右繞三匝 長跪叉手 而白佛言 大悲世尊 願爲此會 諸來法衆 說於如來 本起清淨 因地法行 及說菩薩 於大乘中 發清淨心 遠離諸病 能使未來末世衆生 求大乘者 不墮邪見 作是語已 五體投地 如是三請 終而復始

爾時 世尊 告文殊師利菩薩言 善哉善哉 善男子 汝等 乃能爲諸菩薩 諮詢如來因地法行 及爲末世一切衆生 求大乘者 得正住持 不墮邪見 汝今諦聽 當爲汝說 時 文殊師利菩薩 奉教歡喜 及諸大眾 默然而聽

善男子 無上法王 有大陀羅尼門 名爲圓覺 流出一切清淨眞如 菩提涅槃 及波羅蜜 教授菩薩 一切如來本起因地 皆依圓照清淨覺相 永斷無明 方成佛道 云何無明 善男子 一切衆生 從無始來 種種顛倒 猶如迷人 四方易處 妄認四大 爲自身相 六塵緣影 爲自心相 譬彼病目 見空中華 及第二月

善男子 空實無華 病者妄執 由妄執故 非唯惑此虛空自性 亦復迷彼實華生處 由此妄有輪轉生死 故名無明

善男子 此無明者 非實有體 如夢中人 夢時非無 及至於醒 了無所得 如衆空華 滅於虛空 不可說言 有定滅處 何以故 無生處故 一切衆生 於無生中 妄見生滅 是故說名輪轉生死

善男子 如來因地 修圓覺者 知是空華 卽無輪轉 亦無身心 受彼生死 非作故無本性無故 彼知覺者 猶如虛空 知虛空者 卽空華相 亦不可說無知覺性 有無俱遣 是則名爲淨覺隨順 何以故 虛空性故 常不動故 如來藏中 無起滅故無知見故 如法界性 究竟圓滿 遍十方故 是則名爲因地法行 菩薩因此 於大乘中 發清淨心 末世衆生 依此修行 不墮邪見 爾時 世尊 欲重宣此義 而說偈言

文殊汝當知 一切諸如來 從於本因地 皆以智慧覺 了達於無明 知彼如空華 卽能免流轉 又如夢中人 醒時不可得 覺者如虛空 平等不動轉 覺遍十方界 卽得成佛道 衆幻滅無處 成道亦無得 本性圓滿故 菩薩於此中 能發菩提心 末世諸衆生 修此免邪見

조사본 『원각경(언해)』의 판식은 다음과 같다. 권두제와 권미제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고 판심제는 ‘圓覺’이다. 판식(版式)의 변란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19.8cm 가로 13.2cm이며 계선이 있다. 반엽(半葉)의 항자수는 대자(大字)의 경우 6行 13字의 단행이고 중자(中字)의 경우 6行 19字의 쌍행이며 소자주(小字註)의 경우 6行 19字의 4행이다. 판심의 판구(版口)는 백구(白口)이고 어미(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며, 규격은 세로 26.2cm 가로 17.0cm이다. 지질은 미색으로 염색된 전형적인 인경한지(印經韓紙)와 함께 고정지(藁精紙)가 함께 사용되었다. 장정은 오침안정법의 선장으로 개장되어 있다.



을유자(乙酉字)는 세조 11년(1465)에 허백당(虛白堂) 정난종(鄭蘭宗, 1433~1489)이 송설체(松雪體)를 바탕으로 大·中·小字의 활자를 주조하였고, 구결(口訣)을 인쇄하기 위하여 한글활자도 주조되었다. 그러나 이 서체는 단정(端正)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당시 유신(儒臣)들의 강한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종 15년(1484)에 갑진자(甲辰字)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서 사용하여 을유자로 인쇄한 책은 종류도 많지 않다.

조사본 『원각경(언해)』은 완질(完帙)도 전해지지 않으며 전래본도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동일한 을유자본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권상1의2·권상2의1~2의3·권하1의1~2의3·권하3의1~삼의2), 고려대학교도서관(신암貴442·경화당貴443·만송貴44A1·만송貴44A2), 성암문고(4책), 아단문고(권상1의2·권하1의1~2의2), 영남대학교도서관, 월정사, 장서각(권상1의1), 취정사(권하1의1~2·권하2의1~2), 호림박물관 등에 부분적으로 소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文獻資料

- 佛陀多羅 漢譯, 宗密 疏鈔, 世祖 懸吐,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諺解)』. 乙酉字本. [漢城]: [鑄字所], [世祖 11(1465) 推定].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所藏本.
- 서울특별시장,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옥영정·서정문)>.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지정사례

보물 제1219-1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2, 권하1의1~2의2 (1995.04.03. 지정)

보물 제1219-2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2의2, 권하3의1~2 (2008.06.27. 지정)

보물 제1219-3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하1의1~2·권하2의1~2 (2015.03.04. 지정)

보물 제1514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상1의1, (2007.04.20. 지정)

보물 제793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1984.10.15. 지정)



○ 현 상

조사대상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上 1-2는 세조 11(1465)년 을유자와 을유한글자로 간행한 책이다. 이 경전은 一乘圓頓의 教義와 觀法의 실천을 기록하고, 석가여래의 원만한 각성을 밝힌 책이다. 을유자는 불경을 간행할 목적으로 세조 11(1465)년 주조한 활자이며, 성종 16(1485)년 갑진자를 주조할 때까지 20년간 사용하였다. 따라서 전래본이 많지 않으며, 완질의 전래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서는 인쇄상태도 깨끗하며, 한글 구결이 달려 15세기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서지사항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上 1-2 / 佛陀多羅(唐) 譯; 宗密(唐) 疏鈔; 信眉(朝鮮) 等受命編.

金屬活字本(乙酉字). [世祖 11(1465)年] 26.2 × 17.0 cm.

1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19.8 × 13.2 cm. 有界, 6行 大字13字, 小字19字.

內向黑魚尾.

版心題: 圓覺.

○ 내용 및 특징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한국 불교의 大乘經典 가운데 하나이다. 약칭해서 ‘大方廣圓覺經’, ‘圓覺修多羅了義經’, ‘圓覺了義經’으로도 불리지만, 일반적으로 ‘圓覺經’이라 불린다. 서명에서 大方은 “여러 방향으로 크게 퍼져나가 시원시원한”,

廣圓은 “넓고 원만한”, 覺은 “깨달음”, 修多羅는 Sūtra를 음차한 것으로 “經”이라는 뜻이고, 了義는 핵심만 ‘요약한’으로 풀이된다. 즉 一乘圓頓의 教義와 觀法의 실천을 기록하고 석가여래의 원만한 각성을 밝힌 책이다.

중국 唐나라 때 북인도 罽賓國의 고승 佛陀多羅가 와서 번역한 한역본이나,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어 당나라 때 만든 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또한 『首楞嚴經』도 예로부터 위경이라는 의혹이 있었고, 『大乘起信論』도 중국에서 찬술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본경 내용의 많은 부분이 『수릉엄경』이나 『대승기신론』과 같기 때문이다. 위경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지만 대승불교의 사상과 수행 방법에 대한 일체가 포함되어 있어 疑經이라 하여 찬술의 진위와 관계없이 널리 읽혔다.

『원각경』은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천을 논하였을 뿐 아니라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원하여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도 뛰어나다고 한다. 주된 내용은 석가여래가 12명의 보살과 문답을 통해 圓覺의 妙理와 그 觀行을 설한 내용이다. 중요한 주석서는 당대의 宗密(780-841)이 주석한 『圓覺經大疏』 12권, 송대 효종의 『御注圓覺經』 2권, 行霆의 『圓覺經類解』 8권, 보경 3(1227)년 智聰이 지은 『圓覺經心鏡』 6권 등이 있다.

疏鈔를 한 圭峰 宗密은 장경 3(823)년 『圓覺經大疏』를 지은 후 이어 『圓覺經大疏鈔』를 지어 이전의 취지를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유교와 도교의 전적도 빈번하게 인용되어 있다. 이 책은 『禪源諸詮集都序』와 『禪門師資承襲圖』와 함께 중국 선종사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말 知訥 이후 크게 신봉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한문본·주석본·언해본·구결본이 간행되었다. 또한 선초에 涵虛堂 得通이 『圓覺經疏』를 짓고, 有一과 義瞻이 각각 『圓覺經私記』를 지은 뒤 승려 교육의 교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조사대상본은 세조 11(1465)년 원각사를 준공한 기념으로 세조의 명을 받아 鄭蘭宗의 서체를 字本으로 해서 만든 乙酉字로 인출되어 있다. 을유자 『원각경』의 체제는 서문과 본문의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의 분권은 다소 복잡하다. 상권은 1·2, 하권은 1·2·3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권 1은 다시 1·2로, 상권 2는 1·2·3으로 구분되어 있고, 하권 1·2·3은 각각 1·2로 구분되어 있다. 결국 서문을 제외하고 모두 11편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권상의 1·2이다. 표지는 개장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누습되어 변색된 부분이 많다.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원형이 유지되어 있다.

본서는 구결본으로서 본경과 요해만 있고, 언해는 없다. 본경은 대자, 본경의 구결과 요해는 중자, 요해의 구결과 주석은 소자로 수록되어 있다. 한자는 대·중·소 3종이 사용되었으나, 한글은 중·소자가 사용된 것이다. 본경과 요해에는 한글 구결이 있고, 요해의 주석에는 구결이 없다. 본경은 대자 단행, 요해는 중자 쌍행,

요해의 주석은 소자 4행으로 조판되어 있어서 특이하다. 한편 간경도감판은 언해본으로서, 본경·본경의 언해·요해·요해의 주석·요해의 언해 순으로 수록된 것과는 다른 체제이다. 조사대상본에는 권두에 수록될 ‘鈔書’, ‘疏序’와 ‘序’가 수록되지 않았으나, 보물 제1514호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은 본경의 상권 1의 1·2 앞에 鈔書, 疏序, 序가 다 있어 완전하다.

○ 문헌자료

옥영정, 장서각 소장 보물 『楞嚴經』과 『圓覺經』의 인쇄문화적 가치. 장서각 20. 2008.10. 5-31.

金美京·姜順愛, 『圓覺經』 版本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46. 2010.09. 329-370.

남권희, 장서각 소장 불교 典籍文化財의 書誌 연구. 장서각 29. 2013.04. 10-43.

○ 기 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88년 2월15일 개인 소장본을 구입한 경전이다.

○ 지정사례

보물 제1219-1호. 을유자. 上1之2, 下1之1·2, 下2之1·2. 아단문고 소장. (1995.04.03. 지정)

보물 제1219-2호. 을유자. 上2之2, 下3之1·2. 하남시 광덕사 소장. (2008.06.27. 지정)

보물 제1219-3호. 을유자. 下1之1·2, 下2之1·2. 기장군 취정사 소장. (2015.03.04. 지정)

보물 제1514호. 을유자. 卷頭·上1之1.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2007.04.20. 지정)

11.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

가. 검토사항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6.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分類杜工部詩[諺解] 卷十一)
- 소유자(관리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수 량 : 1권 1책
- 규 격 : 28.0×19.0cm(半郭 21.8×14.6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乙亥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81년(성종 12) 추정



그림 244.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조사본 『分類杜工部詩(諺解)』는 唐朝의 시인 杜甫(712~770)의 『杜工部詩』를 成宗 12(1481)년에 弘文館典翰 柳允謙(1420~?)·曹偉(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義砮(?~?) 등이 왕명을 받들어 諸註를 參訂한 漢詩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글로 譯編한 杜詩의 註譯書로 成宗 12(1481)년에 乙亥字와 乙亥字 併用 한글字로 初刊된 판본이다.

조사본 『分類杜工部詩(諺解)』는 최초의 國譯 漢詩集으로 原作에 충실하면서도 韓國語의 표현력을 탁월하게 구사한 좋은 翻譯이라 평가되고 있다. 諺解文에는 表記法과 文法 및 構文의 構造面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翻譯文學과 國語 및 國語史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며, 金屬活字印刷文化에 있어서도 乙亥字와 乙亥字 한글금속활자의 併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의 『分類杜工部詩(諺解)』의 권11에는 보물 제 1051-2호(권11~12, 계명대학교도서관 소장)에서 缺落된 권11의 제1~8장에 해당하는 <節序>의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 등 작품이 온

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한층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稀貴性과 貴重性을 동시에 지닌 판본인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기준>

조사본 『分類杜工部詩(諺解)』와 동일한 초간본이 보물 제1051-1호(권13, 경기도 박물관, 1990.09.20), 보물 제1051-2호(권11-12, 계명대학교도서관, 2001.08.03), 보물 제1051-3호(권21,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05.07), 보물 제1051-4호(권17-19, 토지주택박물관, 2011.11.01)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성종 12년(1481)에 홍문관 전한(典翰) 류윤겸(柳允謙, 1420~?)·조위(曹偉, 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의침(義砮, ?~?) 등이 왕명을 받들어 여러 주석을 참정(參訂)한 한시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사본은 乙亥字와 乙亥字 併用 한글字로 간행된 초간본으로서 그 중 권11은 이미 지정된 보물 제1051-2호 가운데 권11만이 동일 권차로서 유일하다. 더욱 이미 지정된 권11에는 제1장부터 제8장까지가 결락된 상태로 전하고 있으나, 조사본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節序>의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 등 작품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

또한 조사본은 半齒音(△), 傍點, 牙音(ㅇ) 등이 사용되고 있어 표기법과 문법 및 구문의 구조면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조사본은 완질이 전하지 않고 동일한 권차도 없다는 희소성과 초기 한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로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두보 사상의 바탕은 修己治人과 忠君愛民의 유가정신이였다. 두보는 성정에 바탕을 둔 올바른 인간정신을 연마된 형식으로 세련되게 표현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조선에서는 이백보다 두보가 더 많이 읽혔다. 성종년간 간행한 『두시언해』는 송대 강서시파의 말풍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학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두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국가 공인의 표준화된 체계로 만든 결과물이었다. 두보의 시를 통해 문학과 도학의 상관성을 설파하여 조선 후기 도학의 발전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두보의 시는 우리말로 정밀하고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다.

『두시언해』는 인쇄사적 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을해자 뿐 아니라 을해자 한글 활자도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최초로 간행한 번역시집으로서, 을해자와 을해한글자로 인출되어 인쇄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의 활자본은 한정판이었으므로 인출한 부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해판한 후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었으므로, 많은 수요가 있을 때는 새로 조판하거나 판각해야 했다. 수요가 많아 중간할 때는 목판으로 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에 『두시언해』의 을해자본의 전래본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두시언해』 을해자본의 현전본

권차	수장처	간행년도
권1,2,4	失傳?	
권3	李謙魯 구장본 보성고등학교(石南 구장본)	
권5	개인 소장	
권6	서울대 가람문고(교정본) 연세대 도서관	
권7	서울대 가람문고(교정본) 서울대 일석문고 김종오(金亨奎 구장본) 李謙魯 구장본	
권8	李謙魯 구장본	
권9	李謙魯 구장본	
권10	한국학중앙연구원 李謙魯 구장본 李丙疇 문우서방(李能雨 구장본)	성종 12(1481)년
권11	서울대 일반고도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李丙疇 구장본) 계명대 도서관(보물 1051-2호)	
권12	계명대 도서관(보물 1051-2호) 개인	
권13	간송미술관 경기도박물관(보물 1051-1호)	
권14	趙參衍	
권15	서울대 가람문고 鄭喆	

권차	수장처	간행년도
권16	서울대 가람문고 鄭喆 李謙魯 구장본	
권17	국립중앙박물관(교정본) 동경대 소창문고 李謙魯 구장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보물 1051-4호)	
권18	국립중앙박물관(교정본) 崔鉉培 구장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보물 1051-4호)	
권19	국립중앙박물관(교정본) 李謙魯(이인영) 구장본 개인 소장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보물 1051-4호)	
권20	동국대 李謙魯 구장본	
권21	동국대 청주고인쇄박물관(보물 1051-3호) 李謙魯 구장본	
권22	李謙魯 구장본 김지현(승문각)	
권23	李謙魯 구장본 김지현(승문각)	
권24	서울대 일사문고	
권25	동국대(李丙疇 구장본) 李寬求	
중간본 (완질)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서강대학교 도서관 서울대 심약문고 한국학중앙연구원(윤석창 구장본) 등	인조 10(1632)년

『두시언해』는 최초의 국역 한시집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번역문학 서적으로서 가치가 있다. 세종의 한글창제에서 예종연간까지는 『東國正韻』(1448), 『周易傳義口訣』(1466), 『救急方諺解』(1466년경)을 제외하고는 불경언해가 중심이었다. 성종연간에 들어 한글사용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한글문헌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여전히 불경 언해본의 인출은 지속되었고, 성종 13(1482)년부터 성종 20(1489)년 사이에 최초의 한글언해 시집인 『두시언해』가 간행되었다. 이외 『救急方諺解』, 『救急撮要諺解』 등 전염병예방과 치료, 기근구제 등의 한글문헌이 계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후 선조연간 후반에는 『小學諺解』, 『四書諺解』 등의 번역으로 이어진다.

『두시언해』는 국문학과 국어학 연구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두시언해』도 중간본은 목판본이다. 인조 10(1632)년 경상도관찰사 吳翮(1592-1634)이 대구부사 金尙宓의 도움으로 초간본을 교정하여 영남의 여러 고을에 나누어 판각한 중간본은

25권 완질이 전래되고 있다. 초간본에는 15세기 국어가 반영된 데 비해, 중간본은 초간본을 단순하게 복각한 것이 아니라 교정해 간행한 것이므로 17세기 국어가 반영되어 있다.

국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는 이유는 한글로 표현된 유창한 문체와 풍부한 어휘에 있다. 순수 고유어가 풍부하게 쓰였고, 중간본에 비해 지금은 사라진 순수 고유어가 풍부하게 구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문체에서도 운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점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또 일반적인 두시의 해설에서는 창작 배경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삭제시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표준화된 번역과 간결하고 분명한 字意를 전달하게 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언어학적으로는 초간본에는 방점과 “△”·“.”·옛이음“ㅇ”·“ㅎ”이 사용되어 있고, 자음접변 현상은 뚜렷하지 않으며, 모음조화는 잘 지켜지고 있으며, 구개음화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중간본에서는 ‘△’이 ‘ㅇ’으로 바뀌고, 받침 ‘ㄷ’이 ‘ㅅ’으로 변화되었다. 또 자음접변 현상이 두드러지고, 모음조화 현상은 무너지고 있으며, 구개음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5세기 국어와 17세기 국어에 있어 음운과 어휘의 변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중간본은 25권 완질이 전래되지만, 초간본은 권1·2·4는 전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모아도 완질이 되지 않는다. 보물로 지정된 권차는 권11-12, 13, 17-19, 21이다. 조사대상본인 권11은 본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 서울대 일반고도서와 계명대(보물 1051-2호)의 3책이 전래되고 있다. 계명대 소장본에는 장1-8이 결락되어 있고, 서울대 일반고도서본에는 장52와 54가 필사되어 있으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에는 장22·24·46·54가 결락되어 필사하여 보충되어 있다. 이 3책을 합하면 결장을 보완할 수 있다.

을해자본의 다른 권차가 보물로 지정된 바 있으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존이란 관점에서 수리한 서적이 아니어서 새로 수리할 필요는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및 現狀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1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1 / 杜甫(712-770, 唐朝) 著, 柳允謙(1420-?) 等奉命 諺解編次.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成宗 12(1481) 推定].

1卷1冊(54張): 四周單邊, 半郭 21.8×14.6cm, 有界, 半葉 本文 8行17字, 諺解·註文 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8.0×19.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題: 分類杜工部詩諺解.

卷頭題: 分類杜工部詩.

版心題: 杜詩.

卷尾題: [分類杜工部詩].

序文: [杜詩序; 詩自風騷而下盛稱李杜然其元氣渾茫辭語艱澁故箋註雖多而人愈病其難曉成化辛丑秋上命弘文館典翰臣柳允謙等若曰杜詩諸家之註詳矣然會箋繁而失之謬須溪簡而失之略衆說紛紜互相牴牾不可不研覈而一爾其纂之於是廣摭諸註芟繁釐枉地里人物字義之難解者逐節略疏以便考閱又以諺語譯其意旨向之所謂艱澁者一覽瞭然書成繕寫以進命臣序臣竊惟詩道之關於世教也大矣上而郊廟之作歌詠盛德下而民俗之謠美刺時政者皆足以感發懲創人之善惡此孔子所以刪定三百篇有無邪之訓也詩至六朝極爲浮靡三百篇之音墜地子美生於盛唐能抉剔障塞振起頽風沈鬱頓挫力去淫艷華靡之習至於亂離奔竄之際傷時愛君之言出於至誠忠憤激烈足以聳動百世其所以感發懲創人者實與三百篇相爲表裏而指事陳實號稱詩史則豈後世朝風詠月刻削性情者之所可擬議耶然則聖上之留意是詩者亦孔子刪定三百篇之意其嘉惠來學挽回詩道也至矣噫三百篇一刪於孔子而大明於朱氏之輯註今是詩也又因聖上而發揮焉學詩者苟能模範乎此臻無邪之域以抵三百篇之藩垣則豈徒制作之妙高出百代而已耶我聖上溫柔敦厚之教亦將陶冶一世其有補於風化也爲如何哉成化十七(1481, 성종 12)年十二月上澣承訓郎弘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臣曹偉謹序] [曹偉, 『梅溪先生文集』. 卷4. 序].

總目次: 一卷1; 紀行上(古詩40首). 一卷2; 紀行下(律詩37首)·述懷上(古詩24首). 一卷3; 述懷下(律詩53首)·疾病(古詩2首 律詩2首)·懷古(古詩13首 律詩5首). 一卷4; 時事上(古詩31首). 一卷5; 時事下(律詩44首)·邊塞(古詩17首)·將帥(古詩4首 律詩6首)·軍旅(古詩2首 律詩7首). 一卷6; 宮殿(古詩2首 律詩15首)·省守(律詩5首)·陵廟(古詩2首 律詩14首)·居室上(古詩11首). 一卷7; 居室下(律詩38首)·題人居壁(古詩5首 律詩7首)·田園(古詩2首 律詩5首). 一卷8; 皇族(古詩8首 律詩1首)·世胄(古詩4首 律詩2首)·宗族(古詩6首 律詩32首)·外族(古詩3首 律詩6首)·婚姻(古詩2首 律詩1首). 一卷9; 仙道(古詩3首 律詩1首)·隱逸(古詩2首 律詩4首)·釋老(古詩8首 律詩8首)·寺觀(古詩4首 律詩15首). 一卷10; 四時(古詩1首 律詩39首)·夏(古詩3首 律詩4首)·秋(古詩5首 律詩20首)·冬(古詩4首 律詩9首). 一卷11; 節序(古詩·律詩 共50首)·晝夜(古詩2首 律詩21首)·夢(古詩2首 律詩2首). 一卷12; 詩(月·江·雨·晴·雪 等詩)·雲雷(古詩1首 律詩2首). 一卷13; 山嶽(古詩3首 律詩3首)·江河(古詩9首)·都邑(古詩2首 律詩35首). 一卷14; 樓閣(古詩4首 律詩35首)·眺望(律詩9首)·亭榭(古

詩3首 律詩3首). 一卷15; 園林(古詩3首 律詩24首)·池沼(律詩9首)·舟楫(律詩12首)·橋梁(律詩3首)·燕飲(古詩7首 律詩20首). 一卷16; 文章(古詩2首 律詩14首)·書畫(古詩18首 律詩6首)·音樂(古詩3首 律詩5首)·器用(古詩4首 律詩3首)·食物(古詩8首 律詩4首). 一卷17; 鳥(古詩11首 律詩25首)·獸(古詩8首 律詩5首)·蟲(律詩3首)·魚(律詩2首). 一卷18; 花(古詩3首 律詩13首)·草(古詩1首 律詩2首)·竹(律詩3首)·木(古詩7首 律詩7首). 一卷19; 投贈(古詩1首 律詩6首)·寄簡上(古詩17首). 一卷20; 寄簡中(律詩13首). 一卷21; 寄簡下(律詩52首)·懷舊(古詩3首 律詩9首). 一卷22; 詩(懷舊詩13首)·酬寄(律詩9首)·惠貺(古詩1首 律詩3首)·送別上(古詩19首). 一卷23; 送別下(律詩80首). 一卷24; 慶賀(古詩1首 律詩4首)·傷悼(古詩8首 律詩22首). 一卷25; 雜賦(古詩13首 律詩6首 絕句27首 詞9首 行17首).

卷目次: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에는 <節序>(古詩·律詩共50首)와 <晝夜>(古詩2首 律詩21首, 夢附 古詩2首 律詩2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節序(古詩·律詩 共50首)>에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杜日兩篇」·「熟食日示宗文宗武」·「又示兩兒」·「小寒食舟中作(前寒食一日也)」·「寒食」·「清明」·「清明二首」·「哀江豆」·「麗人行」·「曲江二首」·「曲江對酒」·「曲江值雨」·「曲江陪鄭八丈南史飲」·「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端午日賜衣」·「牽牛織女」·「九日寄岑參」·「九日曲江」·「九日楊奉先會白水崔明府」·「雲安九日鄭十八携酒陪諸公宴」·「九日五首」·「九日諸人集于林」·「九日登梓州城」·「九日奉寄嚴大夫」·「巴嶺答杜二見憶(御史大夫嚴武)」·「九日」·「九日藍田崔氏莊」·「絕句」·「小至」·「至日遣興奉寄北省舊閣老兩院故人二首」·「冬至」·「臘日」·「杜位宅守歲」·「千秋節有感二首」 등이 수록되어 있고 <晝夜>(古詩2首 律詩21首)에는 「今夕行」·「夜歸」·「朝二首」·「晚」·「反照」·「暝」·「向夕」·「薄暮」·「日暮」·「日暮」·「夜二首」·「夜」·「中夜」·「中宵」·「不寐」·「倦夜」·「夜」·「東屯月夜」·「將曉二首」·「曉望」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夢附>(古詩2首 律詩2首)에는 「夢李白二首」·「歸夢」·「晝夢」 등이 수록되어 있다.

缺 張: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에는 제22AB·24AB·46AB·51B~53AB 등에 缺落張이 있으며, 제22AB·24AB·46AB 등은 他本에서의 복사물로 대체되어 있고 제46AB~54AB 중의 제51A를 제외한 缺落張은 他本の 제53AB의 복사물로 대체되어 있다.

缺 文: 제22AB장; 「曲江陪鄭八丈南史飲」(雀啄江頭黃柳花 鳩鵲鸚鵡滿晴沙 自知白髮非春事 且盡芳樽戀物華 近侍即今難浪跡 此身那得更無家 丈人才力猶強健 豈傍青門學種瓜), 「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鬢毛垂頷白花藥 亞枝紅 欹倒衰年廢招尋 令節同 薄衣臨積水 吹面受和風 有喜留攀桂 無勞問轉蓬), 「端午日賜衣」(宮衣亦有名 端午被恩榮 細葛含風軟 香羅疊雪輕 自天題處濕 當暑著來清 意內稱長短 終身荷聖情). 제24AB장; 「牽牛織女」(牽牛出河西 織女處其東 萬古永相望 七夕誰見同 神光竟難候 此事終朦朧 颯然積靈合 何必秋遂通 亭亭新粧立 龍駕具層空 世人亦爲爾 祈請走兒童 稱家隨豐儉 白屋達公宮 膳夫翼堂殿 鳴玉淒房櫳 曝衣遍天下 曳月揚微風 蛛絲小人態 曲綴瓜果中 初筵滷重露 日出甘所終 嗟汝未嫁女 秉心鬱忡忡 防身動如律 竭力機杼中 雖無姑舅事 敢昧織作功 明明君臣契 咫尺或未容 義無棄禮法 恩始夫婦恭 小大有佳期 戒之在至公 方圓苟齟齬 丈夫多英雄). 제46AB장; 「夜二首」(白晝月休弦 燈花半委眠 號山無定鹿 落樹有驚蟬 暫憶江東繪 兼懷

雪下船 蠻歌犯星起重覺在天邊 城郭悲笳暮村墟過翼稀 甲兵年數久賦劍夜深歸 暗樹依巖落明河繞塞微 斗斜人更望月細鵲休飛), 「中夜」(中夜江山靜危樓望北辰 長為萬里客有愧百年身 故國風雲氣高堂戰伐塵 胡雛負恩澤嗟爾太平人). 제51B장; 「李白二首」(死別已吞聲生別常惻惻 江南瘴癘地逐客無消息 故人入我夢明我長相憶 恐非平生魂路遠不可測 魂來楓林青魂返關塞黑). 제52AB장; (今君在羅網何以有羽翼 落月滿屋梁猶疑照顏色 水深波浪闊無使蛟龍得, 浮雲終日行遊子久不至 三夜頻夢君情親見君意 告歸常局促苦道來不易 江湖多風波舟楫恐失墜 出門搔白首若負平生志 冠蓋滿京華斯人獨憔悴 孰云網恢恢將老身反累 千秋萬歲名寂寞身後事). 제53A장; 「歸夢」(道路時通塞江山日寂寥 偷生唯一老伐叛已三朝 雨急青楓暮雲深黑水遙 夢魂歸未得不用楚辭招). 제53장B; 「晝夢」(二月饒睡昏昏然不獨夜短晝分眠 桃花氣暖眼自醉春落日落夢相牽 故鄉門巷荊棘底中原君臣豺虎邊 安得務農息戰鬥普天). 제54AB장; 無吏橫索錢. (결장된 제54장에 끼워진 복사본은 제53장의 복사본임).

現 狀: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는 전체가 補接되어 있으며, 전체 54장의 본문 중 제22장, 제24장, 제46장, 제54장 등은 缺落되고 본문의 末尾에는 일부 낙장이 있다. 전반적으로 漏濕으로 다소 많이 變色되고 헤진 흔적이 있으며 일부 흐리게 인쇄된 글자도 있으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지정신청본의 表紙는 후대에 改裝된 듯하다. 차후 지류문화재 보존처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所藏歷: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77년에 전 동국대학교 李丙疇 교수로부터 購入한 遺物이다. (유물취득경위서 참간).

評 價: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는 최초의 國譯 漢詩集으로 諺解文에는 表記法과 文法 및 構文의 構造面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翻譯文學과 國語 및 國語史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 또한, 보물 제1051-2호에서 缺落된 권11의 제1~8장에 해당하는 <節序>의 「大歲日」, 「立春(在雲安作)」, 「元日寄韋氏妹」, 「元日示宗武」, 「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 「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 「人日兩篇」 등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한층 높게 평가될 수 있다.

所藏處: 『分類杜工部詩(諺解)』의 初刊本은 권01; 無傳. 권02; 無傳. 권03; 通文館(石南 舊藏). 권04; 無傳. 권05; 個人. 권06;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延世大學校圖書館. 권07; 김종오(金亨奎 舊藏),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石文庫, 通文館. 권08; 通文館. 권09; 通文館. 권10; 文友書林(李能雨 舊藏), 李丙疇, 通文館, 韓國學中央研究院. 권11;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서울大學校圖書館, 李丙疇. 권12;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個人. 권13; 澗松美術館(全濬弼 舊藏), 최영란(보물 1051), 경기도박물관(보물 제1051-1호). 권14; 趙參衍. 권15;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권16;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通文館. 권17; 國立中央博物館(校本), 東京大學校圖書館 小倉文庫, 通文館,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18; 國立中央博物館(校本, 崔鉉培 舊藏),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19; 國立中央博物館(校本), 通文館(李仁榮 舊藏), 個人,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20; 東國大學校圖書館, 通文館. 권21; 東國大學校圖書館, 淸州古印刷博物館(보물 제1051-3호), 通文館. 권22; 김지현(承文閣), 通文館. 권23; 김지현(承文閣), 通文館. 권24;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簣文庫. 권25; 東國大學校圖書館(李丙疇 舊藏), 李寬

求 등에 소장되어 있다. 現存本 중 권3·9·18·19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1954~1959년에 通文館에서, 1976·1978년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84년 弘文閣 등에서 각각 影印된 바 있다.

既指定: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판본이 보물 제1051-1호(권13, 경기도박물관, 1990.09.20), 보물 제1051-2호(권11~12, 계명대학교도서관, 2001.08.03), 보물 제1051-3호(권21,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05.07), 보물 제1051-4호(권17~19, 토지주택박물관, 2011.11.01)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參 考: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270面, 418面.

○現 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전체가 襟接되어 있으며, 전체 54장의 본문 중 제22장, 제24장, 제46장, 제54장 등은 缺落되고 본문의 末尾에는 일부 落張이 있다. 전반적으로 漏濕으로 다소 많이 變色되고 헤진 흔적이 있으며 일부 흐리게 인쇄된 글자도 있으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지정신청본의 表紙는 後代에 改裝된 듯하다.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가 절실히 요구된다.

○ 內容 및 特徵

『分類杜工部詩』는 唐朝의 ‘詩聖’·‘詩史’로 칭송되는 杜甫(712~770)의 全詩集이다. 杜甫는 河南省 鞏縣 출신으로 字는 子美이고 號는 少陵이며, 晉代의 杜預, 祖父 杜審言 등이 그의 선조이다. 李白(701~762)·高適(707~765) 등의 詩人들과 교유하여 李白과 함께 ‘李·杜’로 並稱되기도 한다. 44세에 安祿山(703~757)의 亂이 일어나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長安에 연금되었으나 1년 만에 탈출하여 肅宗의 行在所로 달려가자, 그 공으로 左拾遺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관군이 長安을 회복하자 장안으로 돌아와 조정에 出仕하였으나, 1년 만에 華州의 지방관으로 좌천되었다. 48세에 관직을 버리고 秦州 등을 거쳐 四川省의 成都에 정착하여 浣花草堂을 지었다. 이 무렵에 成都의 節度使 嚴武(726~765)의 幕僚로 工部員外郎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이로 인하여 ‘杜工部’라 불리게 되었다. 54세에 歸鄉의 뜻을 품고 成都를 떠나 揚子江을 하행하여 55세에 四川省의 夔州의 협곡에 이르러 2년 동안 寓居하였다. 이 시기의 詩들은 杜詩의 가장 완숙한 경지의 작품들로 평가되어 이 시기의 전문적인 硏究書들도 출간되었다. 다시 夔州에서 벗어나 방황하다 潭州와 岳州의 사이에서 59세의 나이로 病死하였다.

杜詩에 관한 전문적인 評論과 註本 등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杜詩學’이 나타날 정도로 杜詩의 영향은 지대하였다. 唐朝와 宋朝를 거쳐 淸朝에 이르기까지 整理·

註釋된 專門書만도 무려 700~800여 종류에 이르렀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만도 200여 종류에 이르고 있다. 杜詩의 정리작업은 編年·分類·集註·評點 등의 각종 유형과 계통을 형성하며 발전하였으며, 杜詩에 대한 評說과 分析도 각종 관념과 학파를 형성하였다. 唐朝에서 北宋朝까지 杜詩는 定本이 없이 搜集·輯佚·校勘·整理·編纂 등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王洙(997~1057)의 『杜工部集』 20권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杜集의 定本과 評註에 있어서 祖本이 되는 판본이다. 南宋朝에는 輯佚本과 編纂本을 기초로 하여 編年·分類·集注·評點·年譜·詩話 등이 대량으로 나타나 趙次公(?~?), 蔡夢弼(?~?), 郭知達(?~?), 黃希(?~?), 黃鶴(?~?) 등이 頭角을 나타냈으며, 특히 劉辰翁(1232~1297)의 評點本은 杜詩學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元朝와 明朝에서는 選註와 評點을 중심으로 하여 趙沄(1319~1369), 單復(?~?), 胡震亨(?~?) 등의 저술이 있으며, 杜律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시기이다. 明末에서 淸初까지는 杜詩가 集大成된 時期로 王嗣奭(1566~1648)의 『杜臆』을 비롯하여 錢謙益(1582~1664)의 『箋註杜詩』, 朱鶴齡(1606~1683)의 『杜工部集輯注』, 浦起龍(1679~1762)의 『讀杜心解』, 沈德潛(1673~1769)의 『杜詩偶評』, 楊倫(1747~1803)의 『杜詩鏡銓』 등의 저작이 쏟아져 나왔다. 校勘·考證·系年·註釋·解意·評論 등의 여러 방면에 걸출한 저작들이 나왔으며, 특히 仇兆鰲(1638~1717)의 『杜詩詳註』는 杜詩의 評註本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乾隆·嘉慶年間 이후로 여러 종류의 杜詩集이 나왔으나, 律詩 혹은 한 방면에 중점을 둔 연구성으로 淸初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詩話·筆記·雜說類의 저작들도 쏟아져 沈檀(1645~1730)의 『李杜詩話』, 翁方綱(1733~1818)의 『杜詩附記』 등의 저작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杜詩의 간행은 朝鮮朝 初期에 宋朝의 魯崑(1100~1176)이 編次하고 蔡夢弼(?~?)이 會箋한 『杜工部草堂詩箋』이 세종 13(1431)년에 慶尙道 密陽에서 開刊된 바, 이는 編年體의 杜詩集이다. 이어서 『纂註分類杜詩』가 編次되고 甲辰字·丙子字·甲寅字·訓練都監字 등의 活字本과 覆刻本으로 간행되었다. 『纂註分類杜詩』는 宋朝 徐居仁(?~?)의 『集千家註分門杜工部詩』에 따라 편차하고 劉辰翁의 批點을 달아 元朝 高崇蘭(?~?)의 『集千家註分類杜詩』의 批點도 인쇄하면서 여러 註釋을 참고하고 새로이 편집하여 『分類杜工部詩(諺解)』의 底本이 되기도 하였다. 虞集(1272~1348)의 『虞註杜律』, 趙沄의 『類選杜詩五言律』이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范梈(1272~1330)의 『杜工部詩范德機批選』, 明朝 單復의 『讀杜詩愚得』, 元朝 劉辰翁(1232~1297)의 『須溪先生批點杜工部排律』과 『須溪先生批點杜工部七言律詩』, 明朝 邵寶(1460~1527) 集註의 『杜少陵先生詩集註抄』가 간행되었다. 특히,

澤堂 李植(1584~1647)의 『纂註杜詩澤風堂批解』는 編年으로 엮어 諸家の 註에 자신의 批解를 붙인 것으로 조선조 杜詩學의 큰 성과이다. 潛谷 金堉(1580~1658)은 李白과 韓愈(768~824)의 詩를 함께 모아 句讀點이나 吐를 달지 않은 白文으로 『三大家詩全集』(杜詩는 권1~4)을 간행하였으며, 正祖의 명으로 『杜陸千選』 8권과 『杜律分韻』 5권이 간행된 바도 있다. 이러한 刊本들 뿐만 아니라, 各處의 杜詩와 관련된 각종 寫本은 조선조에 杜詩를 熱讀한 盛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分類杜工部詩(諺解)』는 唐朝의 시인 杜甫(712~770)의 『杜工部詩』를 成宗 12(1481)년에 弘文館典翰 柳允謙(1420~?)·曹偉(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義砮(?~?) 등이 왕명을 받들어 諸註를 參訂한 漢詩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글로 譯編한 杜詩의 註譯書이다. 原作에 충실하면서도 韓國語의 표현력을 탁월하게 구사한 좋은 翻譯이라 평가되고 있다. 成宗 12(1481)년에 乙亥字와 乙亥字 併用 한글字로 初刊⁴⁴⁾되었으나, 전체 25권 중 권1·2·4는 전하지 않는다.

仁祖 10(1632)년에 慶尙監司 吳翮(1592~1634)이 大丘府使 金尙宓(1573~1652)에게 부탁하여 25권을 관하의 各邑에서 목판에 나누어 새기도록 하여 重刊하기도 하였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초간과 관련된 기록은 『王朝實錄』의 각종 기사⁴⁵⁾⁴⁶⁾⁴⁷⁾를 비롯하여 重刊本의 卷頭와 曹偉(1454~1503)의 문집인 『梅溪先生文集』에 수록되어 전하는 「杜詩序」⁴⁸⁾ 및 張維(1587~1638)의 문집인 『谿谷先生集』에

4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3(1482)年 7月 6(癸酉)日條.

弘文館副提學柳允謙等上劄子曰 臣等伏見聖上 留意經史 孜孜靡怠 凡在見聞 莫不欣慶 但今年之旱 無異去年 連歲飢饉 近古未有 方務救荒之不暇 而如四傳·春秋·綱目新增·文翰類選·杜詩·李白詩·庸學口訣 皆設局 而供億隨之 若論一日之費 則些少 積日計之 則乃活飢民之若干資 恐非今日之急務也 且綱目 朱文公一從春秋書法 片言隻字 皆寓褒貶 撫採諸儒之論 參酌而附 皆有深意存焉 誠千萬世之大典 不能贊一辭者也 今雖附入諸論 不無詳略重複之病 伏惟聖鑑停罷 臣等心有所懷 不能默默 傳曰 爾等豈以我之好學爲非哉 只爲供億之費耳 今從爾等之言停之 仍傳曰 前日命撰綱目新增者 以諸書汗漫 不能遍覽 故欲撫取諸論 以爲一書耳 撰後予獨覽之 勿頒于外.

4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宗 25(1443)年 4月 21(丙午)日條.

命購杜詩諸家註于中外 時令集賢殿參校杜詩諸家註釋 會粹爲一故 求購之.

4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11(1480)年 10月 26(壬申)日條.

御書講 講訖 侍讀官李昌臣啓曰 詞章 雖若不關於治國 中朝使臣 如張寧·祈順輩出來 則必與唱和 詞章不可視爲餘事 而不習之也 杜詩 詩家之祖 前司成柳允謙 傳受其父方善 頗精熟 請今年少文臣受業 上曰 可.

4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0(1489)年 8月 26(辛亥)日條.

禮曹啓曰 本國使臣求書冊 只與論語·孟子何如 傳曰 醫方所以活人也 今客人所索多 而只許此書 無乃不可乎 如得效方·東坡·杜詩·黃山谷·詩學大成等冊許之 無乃可乎.

48) 曹偉, 『梅溪先生文集』. 卷4. 序. 「杜詩序」條.

詩自風騷而下盛稱李杜然其元氣渾茫辭語艱澁 故箋註雖多而人愈病其難曉成化辛丑秋上命弘 文館典翰臣柳允謙等若曰杜詩諸家之註詳矣然 會箋繁而失之謬須溪簡而失之略衆說紛紜互相 牴牾不可不研覈而一爾其纂之於是廣摭諸註芟 繁釐枉地里人物字義之難解者逐節略疏以便考 閱又以諺語譯其意旨向之所謂艱澁者一覽瞭然 書成繕寫以進命臣序臣竊惟詩道之關於世教 也大矣上而郊廟之作歌詠盛德下而民俗之謠美 刺時政者皆足以感發懲創人之善惡此孔子所以 刪定三百篇有無邪之訓也詩至六朝極爲浮靡三 百篇之音墜地子美生於盛唐能扶別障塞振起頹 風沈鬱頓挫力去淫艷華靡之習至於亂離奔竄 之際際時愛君之言出於至誠忠憤激烈足以聳動百 世其所以感發懲創人者實與三百篇相爲表裏而 指事陳實號稱詩史則豈後世朝風詠月刻削性情 者之所可擬議耶然則聖上之留意是詩者亦孔 子刪定三百篇之意其嘉惠來學挽回詩道也至矣 噫三百篇一刪於孔子而大明於朱氏之輯註今是 詩也又因聖上而發揮焉學詩者苟能模範乎此 臻無邪之域以抵三百篇之藩垣則豈

수록되어 전하는 「重刻杜詩諺解序」⁴⁹⁾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본문의 체제는 대체로 杜詩 原文 2구씩을 大文으로 수록하고 註釋文과 諺解는 雙行의 小文으로 諺解 혹은 懸吐하여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註釋文과 本文의 諺解는 白圈으로 구분하였다. 杜詩의 原文은 『纂註分類杜詩』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부분적인 글자의 출입이 보이며, 註釋文도 『纂註分類杜詩』의 註釋文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새로운 註釋을 添加·修正한 경우가 있다. 傍點은 註釋에 國文이 섞여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표기되어 있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初刊本에는 半齒音(△), 傍點, 牙音(○) 등이 사용되어 있어, 初·重刊本의 언어의 차이에 의한 國語 및 國語史의 가치는 물론 최초의 國譯 漢詩集이라는 점과 지금은 사라져 버린 순수한 固有語를 풍부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文體에 있어 韻文의 성격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국어국문학 연구의 중요한 문헌으로 看做되고 있을 뿐 아니라 15세기 당시의 언어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總目次는 권1에 <紀行上>(古詩40首), 권2에 <紀行下>(律詩37首)와 <述懷上>(古詩24首), 권3에 <述懷下>(律詩53首)와 <疾病>(古詩2首 律詩2首) 및 <懷古>(古詩13首 律詩5首), 권4에 <時事上>(古詩31首), 권5에 <時事下>(律詩44首)를 비롯한 <邊塞>(古詩17首)과 <將帥>(古詩4首 律詩6首) 및 <軍旅>(古詩2首 律詩7首)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6에 <宮殿>(古詩2首 律詩15首)을 비롯한 <省守>(律詩5首)와 <陵廟>(古詩2首 律詩14首) 및 <居室上>(古詩11首), 권7에 <居室下>(律詩38首)와 <題人居壁>(古詩5首 律詩7首) 및 <田園>(古詩2首 律詩5首), 권8에 <皇族>(古詩哀王孫等 律詩送李卿華等)과 <世胄>(古詩4首 律詩2首)를 비롯한 <宗族>(古詩6首 律詩32首)과 <外族>(古詩3首 律詩 6首) 및 <婚姻>(古詩2首 律詩1首), 권9에 <仙道>(古詩3首 律詩1首)을 비롯한 <隱逸>(古詩2首 律詩4首)과 <釋老>(古詩8首 律詩8首) 및 <寺觀>(古詩4首 律詩15首), 권10에 <四時>(古詩1首 律詩39首)를 비롯한 <夏>(古詩3首 律詩4首)와 <秋>(古詩5首 律詩20

徒制作之妙」高出百代而已耶我聖上溫柔敦厚之教亦將陶治一世其有補於風化也爲如何哉成化十七年十」二月上澣承訓郎弘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承文院校檢臣曹偉謹序]

49) 張維, 『谿谷先生集』, 卷6. 序. 「重刻杜詩諺解序」條.

詩須心會 何事箋解 解猶無所事 況譯之以方言乎 自達識論之 是固然矣 爲學者謀之 心有所未會 烏可無解 解有所未暢 譯亦何可已也 此杜詩諺解之所以有功於詩家也 詩至杜少陵 古今之能事畢矣 庀材也極其博 用意也極其深 造語也極其變 古人謂胸中無國子監 不可看杜詩 詎不信歟 註解者稱千家 謂其多也 至其密義粵語 鮮有發明 讀者病之久矣 成化年間 成廟命玉堂詞臣參訂諸註 以諺語譯其義 凡舊說之所未達 一覽曉然 梅溪曹學士偉奉教序之 然其印本之行於世者甚鮮 記余少時 嘗從人一倩讀之 既而欲再觀 而終不可得 常以爲恨 今年天坡吳公翻按節嶺南 購得一本 繕寫校定 分刊於列邑 而大丘府使金侯尙必實相其役 既成 走書屬序於余 嗚呼 比興之義 謂無與於斯文 詩直可廢也 詩有未可廢者 則杜詩何可不讀 讀杜而有諺解 其不猶迷塗之指南乎 況是編也 成廟所嘗留神 以嘉惠後學者也 重刊而廣布 使學詩者 戶藏而人誦之 以裨聖朝溫柔敦厚之教 此誠觀民風者所宜先也 吳公嗜學工文詞 又敏於吏職 乃能於蕃宣鞅掌之餘 加意斯文 百年垂廢之書 煥然復新 甚盛舉也 余既重吳公之請 又自喜及其未老 將復睹舊所欲觀而未得者 遂不辭爲之序.

首) 및 <冬>(古詩4首 律詩9首) 등의 수록되어 있다. 권11에는 <節序>(古詩律詩共 50首)와 <晝夜>(古詩2首 律詩21首) 및 <夢>(古詩2首 律詩2首), 권12에는 <詩>(月·江·雨·晴·雪·雷·雲 等), 권13에는 <山嶽>(古詩3首 律詩3首)과 <江河>(古詩9首) 및 <都邑>(古詩2首 律詩35首), 권14에는 <樓閣>(古詩4首 律詩35首)과 <眺望>(律詩9首) 및 <亭榭>(古詩3首 律詩3首), 권15에는 <園林>(古詩3首 律詩24首)과 <池沼>(律詩9首)를 비롯한 <舟楫>(律詩12首)과 <橋梁>(律詩3首) 및 <燕飲>(古詩7首 律詩20首)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16에는 <文章>(古詩2首 律詩14首)>과 <書畫>(古詩18首 律詩6首)를 비롯한 <音樂>(古詩3首 律詩5首)과 <器用>(古詩4首 律詩3首) 및 食物(古詩8首 律詩4首), 권17에는 <鳥>(古詩11首 律詩25首)를 비롯한 <獸>(古詩8首 律詩5首)와 <蟲>(律詩3首) 및 <魚>(律詩2首), 권18에는 <花>(古詩3首 律詩13首)를 비롯한 <草>(古詩1首 律詩2首)와 <竹>(律詩3首) 및 <木>(古詩7首 律詩7首), 권19에는 <投贈>(古詩1首 律詩6首)과 <寄簡上>(古詩17首), 권20에는 <寄簡中>(律詩13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21에는 <寄簡下>(律詩52首)와 <懷舊>(古詩3首 律詩9首), 권22에는 <詩>(13首)를 비롯하여 <酬寄>(律詩9首)와 <惠貺>(古詩1首 律詩3首) 및 <送別上>(古詩19首), 권23에는 <送別下>(律詩80首), 권24에는 <慶賀>(古詩1首 律詩4首)와 <傷悼>(古詩8首 律詩22首), 권25에는 <雜賦>(古詩13首 律詩6首 絕句27首 謔9首 行17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分類杜工部詩(諺解)』에는 杜甫의 詩 1451首와 王維, 岑參 등 杜詩와 관련하여 酬唱 혹은 次韻한 詩 16首에 註釋을 달고 풀이하였으며, 內容은 主題에 따라 紀行·述懷·懷古 등 數十門으로 分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의 表題는 ‘分類杜工部詩諺解’이고 卷頭題와 卷尾題는 ‘分類杜工部詩’이며 版心題는 ‘杜詩’이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單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세로 21.8cm 가로 14.6cm이며 界線이 있다. 半葉의 行字數는 本文은 8行 17字이며 諺解와 註文은 雙行이다. 版心의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黑魚尾이며, 規格은 세로 28.0cm 세로 19.0cm이다. 紙質은 韓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으로 改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의 권11에 수록된 杜詩는 <節序>의 古詩와 律詩 共50首와 <晝夜>의 古詩 2首와 律詩 21首 및 <附夢>의 古詩 2首 律詩 2首이다. 구체적으로는 <節序>에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杜日兩篇」·「熟食日示宗文宗武」·「又示兩兒」·「小寒食舟中作(前寒食一日也)」·「寒食」·「清明」·「清明二首」·「哀江豆」·「麗人行」·「曲江二首」·「曲江對酒」·「曲江值

雨」·「曲江陪鄭八丈南史飲」·「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端午日賜衣」·「牽牛織女」·「九日寄岑參」·「九日曲江」·「九日楊奉先會白水崔明府」·「雲安九日鄭十八携酒陪諸公宴」·「九日五首」·「九日諸人集于林」·「九日登梓州城」·「九日奉寄嚴大夫」·「巴嶺答杜二見憶(御史大夫嚴武)」·「九日」·「九日藍田崔氏莊」·「絕句」·「小至」·「至日遣興奉寄北省舊閣老兩院故人二首」·「冬至」·「臘日」·「杜位宅守歲」·「千秋節有感二首」 등이 수록되어 있고 <晝夜>에 「今夕行」·「夜歸」·「朝二首」·「晚」·「反照」·「暝」·「向夕」·「薄暮」·「日暮」·「日暮」·「夜二首」·「夜」·「中夜」·「中宵」·「不寐」·「倦夜」·「夜」·「東屯月夜」·「將曉二首」·「曉望」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夢>에는 「李白二首」·「歸夢」·「晝夢」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의 권11에는 제22AB·24AB·46AB·51B~53AB장 등에 缺落張이 있으며, 제22AB·24AB·46AB장은 他本の 복사물로 대체되어 있고 제46AB~54AB장 중의 제51A장을 제외한 缺落張은 他本の 제53AB장의 복사물로 대체되어 있다. 결락된 제22AB장의 缺文은 「曲江陪鄭八丈南史飲」의 “… 近侍卽今難浪跡此身那得更無家 丈人才力猶強健豈傍青門學種瓜”와 「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의 “鬢毛垂頷白花藥亞枝紅 欹倒衰年廢招尋令節同 薄衣臨積水吹面受和風 有喜留攀桂無勞問轉蓬”의 전체 및 「端午日賜衣」의 “宮衣亦有名端午被恩榮 …”까지이며, 제24AB장의 缺文은 「牽牛織女」의 “… 稱家隨豐儉白屋達公宮 膳夫翼堂殿鳴玉淒房櫳 曝衣遍天下曳月揚微風 蛛絲小人態曲綴瓜果中, 初筵浥重露日出甘所終 嗟汝未嫁女秉心鬱忡忡 防身動如律竭力機杼中 雖無姑舅事敢昧織作功 明明君臣契 …”까지이다. 제46AB장의 缺文은 「夜二首」의 “… 斗斜人更望月細鵲休飛”와 「中夜」의 “中夜江山靜危樓望北辰 長爲萬里客有愧百年身 故國風雲氣高堂戰伐塵 …”까지이다.

제51B장의 缺文은 「李白二首」의 “死別已吞聲生別常惻惻 江南瘴癘地逐客無消息 故人入我夢明我長相憶 恐非平生魂路遠不可測 魂來楓林青魂返關塞黑”이며, 제52AB장의 缺文은 “今君在羅網何以有羽翼 落月滿屋梁猶疑照顏色 水深波浪闊無使蛟龍得, 浮雲終日行遊子久不至 三夜頻夢君情親見君意 告歸常局促苦道來不易 江湖多風波舟楫恐失墜 出門搔白首若負平生志 冠蓋滿京華斯人獨憔悴 孰云網恢恢將老身反累 千秋萬歲名寂寞身後事”이다. 제53A장의 缺文은 「歸夢」의 “道路時通塞江山日寂寥 偷生唯一老伐叛已三朝 雨急青楓暮雲深黑水遙 夢魂歸未得不用楚辭招”이며, 제54B장의 缺文은 「晝夢」의 “… 無吏橫索錢”이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國家文化財指定 現況은 다음과 같다.

<表> 『分類杜工部詩(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國家文化財指定 現況

	金屬活字本(初刊)	木版本(重刊)	備考
書名	分類杜工部詩	分類杜工部詩	
版本	金屬活字(乙亥字 및 竝用 한글字)本	木版本	
刊年	成宗 12(1481)年 鑄字所	仁祖 10(1632)年 慶尙道	
卷冊數	25卷	25卷 17冊	
所藏處	下記 參看	國立中央圖書館, 서울大學校圖書館 心岳文庫, 韓國學中央研究院(尹錫昌 舊藏) 等	
初刊本の 所藏處 및 文化財指定 現況	卷01 無傳. 卷02 無傳. 卷03 通文館(石南 舊藏, 李謙魯 舊藏). 卷04 無傳. 卷05 個人. 卷06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延世大學校圖書館. 卷07 김종오(金亨奎 舊藏),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石文庫, 通文館. 卷08 通文館. 卷09 通文館. 卷10 文友書林(李能雨 舊藏), 李丙疇, 通文館, 韓國學中央研究院. 卷11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서울大學校圖書館, 李丙疇. 卷12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個人. 卷13 潤松美術館(全濬弼 舊藏), 최영란 (보물 1051), 京畿道博物館(보물 제1051-1호).	卷14 趙參衍. 卷15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卷16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通文館. 卷17 國立中央博物館(校本), 東京大學校圖書館 小倉文庫, 通文館,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卷18 國立中央博物館(校本, 崔鉉培 舊藏),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卷19 國立中央博物館(校本), 通文館(李仁榮 舊藏), 個人,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卷20 東國大學校圖書館, 通文館. 卷21 東國大學校圖書館, 淸州古印刷博物館 (보물 제1051-3호), 通文館. 卷22 김지현(承文閣), 通文館. 卷23 김지현(承文閣), 通文館. 卷24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簣文庫. 卷25 東國大學校圖書館(李丙疇 舊藏), 李寬求.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는 최초의 國譯 漢詩集으로 諺解文에는 表記法과 文法 및 構文의 構造面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翻譯文學과 國語 및 國語史 연구에 중요한 문헌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金屬活字印刷文化에 있어서도 乙亥字와 乙亥字 한글금속 활자의 併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의 권11에는 보물 제1051-2호(권11~12, 계명대학교도서관 소장)에서 缺落된 권11의 제1~8장에 해당하는 <節序>의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 등 작품이 온전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한층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의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이
 상과 같은 稀貴性과 貴重性을 지닌 판본인 만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
 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杜甫 著, 柳允謙 等奉命 諺解編次,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1. 乙亥字本. [刊行
 地不明] : [刊行處不明], [成宗 12(1481) 推定].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所藏本.
- 李仁榮 著, 『淸芬室書目』. 影印本. 서울 : 寶庫社, 1993.
-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옥영정·서정문)>.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pageNo=1_1_1_1
- 국립중앙도서관: <https://nl.go.kr/>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dongguk.edu/>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snu.ac.kr/>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其 他

지정신청본은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77년에 購入
 한 遺物이다. 『分類杜工部詩(諺解)』의 初刊本은 권01; 無傳. 권02; 無傳. 권03; 通
 文館(石南 舊藏). 권04; 無傳. 권05; 個人. 권06;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延世大學校圖書館. 권07; 김중오(金亨奎 舊藏),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校本),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石文庫, 通文館. 권08; 通文館. 권09; 通文館. 권10; 文友書林
 (李能雨 舊藏), 李丙疇, 通文館, 韓國學中央研究院. 권11;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호). 서울大學校圖書館, 李丙疇. 권12; 啓明大學校圖書館(보물 제1051-2
 호), 個人. 권13; 潤松美術館(全滄弼 舊藏), 최영란(보물 1051), 京畿道博物館(보물
 제1051-1호). 권14; 趙參衍. 권15; 서울大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권16; 서울大
 學校圖書館 嘉藍文庫, 鄭喆, 通文館. 권17; 國立中央博物館(校本), 東京大學校圖書
 館 小倉文庫, 通文館,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18; 國立中央博物館(校
 本, 崔鉉培 舊藏),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19; 國立中央博物館(校本),

通文館(李仁榮 舊藏), 個人, 土地住宅博物館(보물 제1051-4호). 권20; 東國大學校圖書館, 通文館. 권21; 東國大學校圖書館, 淸州古印刷博物館(보물 제1051-3호), 通文館. 권22; 김지현(承文閣), 通文館. 권23; 김지현(承文閣), 通文館. 권24; 서울大學校圖書館 一簣文庫. 권25; 東國大學校圖書館(李丙疇 舊藏), 李寬求.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現存本 중 권3·9·18·19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1954~1959년에 通文館에서, 1976·1978년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1984년에 弘文閣 등에서 각각 影印된 바 있다.

또한, 지정신청본 『分類杜工部詩(諺解)』와 동일한 초간본이 보물 제1051-1호(권13, 경기도박물관, 1990.09.20), 보물 제1051-2호(권11~12, 계명대학교도서관, 2001.08.03), 보물 제1051-3호(권21, 청주고인쇄박물관, 2004.05.07), 보물 제1051-4호(권17~19, 토지주택박물관, 2011.11.01)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書誌事項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1 / 杜甫(712-770, 唐朝) 著, 柳允謙(1420-?) 等奉命 諺解 編次.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成宗 12(1481) 推定]. 1卷1冊(54張): 四周單邊, 半郭 21.8×14.6cm, 有界, 半葉 本文 8行17字, 諺解·註文 雙行, 白口, 上下內向黑魚尾, 28.0×19.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題: 分類杜工部詩諺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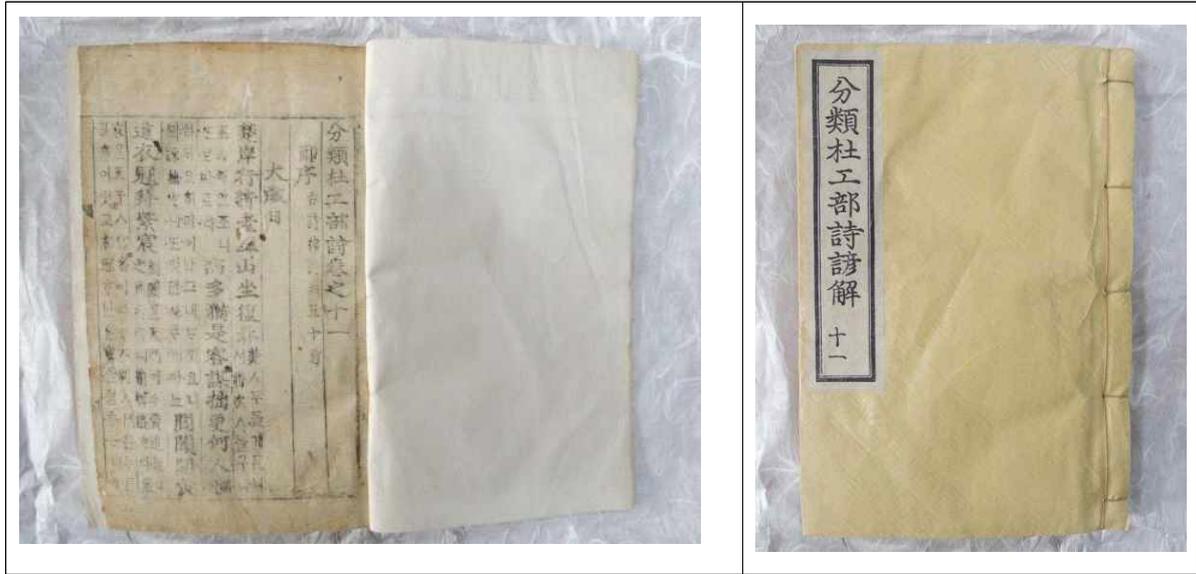
卷頭題: 分類杜工部詩.

版心題: 杜詩.

卷尾題: [分類杜工部詩]

○ 現狀

조사본 『분류두공부시(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1977년에 전 동국대학교 李丙疇 교수로부터 구입한 유물이다. 전체가 배접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누습으로 인한 변색과 섬유 열화 등이 확인된다. 전체 54장의 본문 중 제22장, 제24장, 제46장, 제54장 등은 결락(缺落)되고 본문의 말미에는 일부 낙장(落張)이 있다.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 内容 및 特徵

『분류두공부시(分類杜工部詩)』는 중국 당대의 ‘시성(詩聖)’·‘시사(詩史)’로 칭송되는 두보(杜甫, 712~770)의 시 전집이다. 두보는 하남성(河南省) 공현(鞏縣) 출신으로 자는 자미(子美)이고 호는 소릉(少陵)이다. 이백(李白, 701~762)·고적(高適, 707~765) 등의 시인들과 교유하며 문명을 널리 알렸다. 44세에 안록산(安祿山, 703~757)의 난이 일어나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되었으나 1년 만에 탈출하여 숙종(肅宗)의 행재소로 달려가자, 그 공으로 좌습유(左拾遺)의 관직에 오르게 되었다. 관군이 장안을 회복하자 장안으로 돌아와 조정에 출사하였으나, 1년 만에 화주(華州)의 지방관으로 좌천되었다. 48세에 관직을 버리고 진주(秦州) 등을 거쳐 사천성의 성도(成都)에 정착하여 완화초당(浣花草堂)을 지었다. 이 무렵에 성도의 절도사 엄무(嚴武, 726~765)의 막료로 공부원외랑(工部員外郎)의 관직을 지냈으므로 이로 인하여 ‘두공부(杜工部)’라 불리게 되었다. 54세에 귀향의 뜻을 품고 성도를 떠나 양자강을 하행하여 55세에 사천성의 기주(夔州)의 협곡에 이르러 2년 동안 우거하였다. 이후 기주에서 벗어나 방황하다 담주(潭州)와 악주(岳州)의 사이에서 59세의 나이로 病死하였다.

두시(杜詩)의 정리작업은 편년·분류·집주(集註)·평점(評點) 등의 각종 유형과 계통을 형성하며 발전하였으며, 두시에 대한 평설(評說)과 분석도 각종 관념과 학파를 형성하였다. 중국 당대 왕수(王洙, 997~1057)의 『두공부집(杜工部集)』 20권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으로 두집(杜集)의 정본(定本)과 평주(評註)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판본이다. 한편 남송대에는 집일본(輯佚本)과 편찬본(編纂本)을 기초로 하여 편년·분류·집주·평점·연보·시화(詩話) 등이 대량으로 나타나 조차공(趙次公, ?~?), 채몽필(蔡夢弼, ?~?), 곽지달(郭知達, ?~?), 황희(黃希,

?~?), 황학(黃鶴, ?~?) 등이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유진옹(劉辰翁, 1232~1297)의 평점본(評點本)은 두시학(杜詩學)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원대와 명대에는 선주(選註)와 평점을 중심으로 하여 조방(趙沔, 1319~1369), 단복(單復, ?~?), 호진형(胡震亨, ?~?) 등의 저술이 있으며, 두율(杜律)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시기이다. 명대 말기에서 청대까지는 두시가 집대성된 시기로 왕사석(王嗣奭, 1566~1648)의 『두역(杜臆)』을 비롯하여 전겸익(錢謙益, 1582~1664)의 『전주두시(箋註杜詩)』, 주학령(朱鶴齡, 1606~1683)의 『두공부집집주(杜工部集輯注)』, 포기룡(浦起龍, 1679~1762)의 『독두심해(讀杜心解)』, 침덕잠(沈德潛, 1673~1769)의 『두시우평(杜詩偶評)』, 양륜(楊倫, 1747~1803)의 『두시경전(杜詩鏡銓)』, 침단(沈檀, 1645~1730)의 『이두시화(李杜詩話)』,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의 『두시부기(杜詩附記)』 등의 저작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13년(1431)에 중국 송대의 노은(魯崧, 1100~1176)이 편차하고 채몽필(蔡夢弼, ?~?)이 회전(會箋)한 『두공부초당시전(杜工部草堂詩箋)』이 경상도 밀양에서 편년체의 두시집으로 간행되었고,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가 편차되고 甲辰字·丙子字·甲寅字·訓鍊都監字 등의 활자본과 복각본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후에 원대 고승란(高崇蘭, ?~?)의 『집천가주분류두시(集千家註分類杜詩)』의 비점(批點)과 여러 주석을 참고하고 새로이 편집하면서 『분류두공부시』(언해)의 저본으로서 참고되었다.

또한 우집(虞集, 1272~1348)의 『우주두율(虞註杜律)』, 조방(趙沔)의 『유선두시오언율(類選杜詩五言律)』, 범곽(范梈, 1272~1330)의 『두공부시범덕기비선(杜工部詩范德機批選)』, 단복(單復)의 『독두시우득(讀杜詩愚得)』, 유진옹(劉辰翁, 1232~1297)의 『수계선생비점두공부배율(須溪先生批點杜工部排律)』과 『수계선생비점두공부칠언율시(須溪先生批點杜工部七言律詩)』, 소보(邵寶, 1460~1527) 집주의 『두소릉선생시집주초(杜少陵先生詩集註抄)』 등이 간행되었다.

이같은 중국 자료들 외에 우리가 편찬한 자료도 적지 않다. 그 중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의 『찬주두시택풍당비해(纂註杜詩澤風堂批解)』는 편년으로 엮어 여러 간행본의 주석에 더하여 자신의 비해(批解)를 붙인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잠곡(潛谷) 김육(金堉, 1580~1658)은 이백(李白)과 한유(韓愈, 768~824)의 시를 함께 모아 구두점이나 토를 달지 않은 백문(白文)으로 『삼대가시전집(三大家詩全集)』을 간행하였고, 정조의 명에 의해 『두륙천선(杜陸千選)』 8권과 『두율분운(杜律分韻)』 5권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조사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은 성종 12년(1481)에 홍문관 전한(典翰) 류윤겸(柳允謙, 1420~?)·조위(曹偉, 1454~1503) 등의 문신들과 승려 의침(義砮, ?~?) 등이 왕명을 받들어 여러 주석을 참정(參訂)한 한시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책이다. 乙亥字와 乙亥字 併用 한글자로 처음 간행되었다. 표제는 ‘分類杜工部詩諺解’이고 권두제와 권미제는 ‘分類杜工部詩’이며 판심제는 ‘杜詩’이다. 판식(版式)의 변란(邊欄)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세로 21.8cm 가로 14.6cm이며 계선이 있다. 반엽(半葉)의 행자수는 본문은 8행 17자이며 언해와 주문(注文)은 쌍행이다. 판심의 판구(版口)는 백구(白口)이고 어미(魚尾)는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이며, 규격은 세로 28.0cm 세로 19.0cm이다. 지질은 한지이며 장정은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의 선장으로 개장되어 있다.



조사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에는 「節序」에 해당하는 古詩와 律詩 모두 50편과 「晝夜」에 古詩 2首와 律詩 21首 그리고 「夢附」에 古詩 2首와 律詩 2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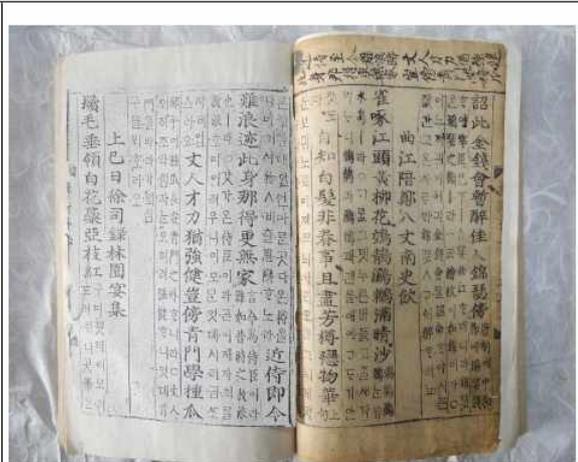
「節序」에는 「大歲日」·「立春(在雲安作)」·「元日寄韋氏妹」·「元日示宗武」·「人日寄杜二拾遺(蜀州刺史高適)」·「追酬故高蜀州人日見寄」·「人日兩篇」·「杜日兩篇」·「熟食日示宗文宗武」·「又示兩兒」·「小寒食舟中作(前寒食一日也)」·「寒食」·「清明」·「清明二首」·「哀江豆」·「麗人行」·「曲江二首」·「曲江對酒」·「曲江值雨」·「曲江陪鄭八丈南史飲」·「上巳日徐司錄林園宴集」·「端午日賜衣」·「牽牛織女」·「九日寄岑參」·「九日曲江」·「九日楊奉先會白水崔明府」·「雲安九日鄭十八携酒陪諸公宴」·「九日五首」·「九日諸人集于林」·「九日登梓州城」·「九日奉寄嚴大夫」·「巴嶺答杜二見憶(御史大夫嚴武)」·「九日」·「九日藍田崔氏莊」·「絕句」·「小至」·「至日遣興奉寄北省舊閣老兩院故人二首」·「冬至」·「臘日」·「杜位宅守歲」·「千秋節有感二首」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晝夜」에는 「今夕行」·「夜歸」·「朝二首」·「晚」·「反照」·「暝」·「向夕」·「薄暮」·「日暮」·「日暮」·「夜二首」·「夜」·「中夜」·「中宵」·「不寐」·「倦夜」·「夜」

- 「東屯月夜」· 「將曉二首」· 「曉望」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夢」에는 「李白二首」· 「歸夢」· 「晝夢」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46장 B면



제22장 A면

다만, 권11의 내용 가운데 제22장 AB·제24장 AB·제46장 AB·제51장 B·제52장 AB·제53장 AB장·제54장 A 등은 결락된 상태로서 해당 부분은 다른 판본의 복사물로 보완하였다.

조사본에는 半齒音(△), 傍點, 牙音(○) 등이 사용되고 있어 표기법과 문법 및 구문의 구조면에서 초기 한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체제는 대체로 杜詩原文 2구씩을 大文으로 수록하고 註釋文과 諺解는 쌍행의 小文으로 諺解 혹은 懸吐하여 국·한문 혼용으로 수록하고 있으며, 주석문과 본문의 언해는 백권(白圈)으로 구분하였다. 두시의 원문과 주석은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부분적인 글자의 출입과 새로운 주석 내용이 첨가·수정한 경우도 확인된다.

조사본의 문화재적 가치는 무엇보다 앞부분 제1장부터 제8장까지의 존재이다. 초간본으로서 동일한 권차는 이미 지정된 보물 제1051-2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12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지정본의 권11에는 앞부분 8장이 결실된 상태이다. 초기 한글의 특징을 반영하는 이 책에서 한 장 한 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바 기지정본에서 결실된 내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제8장 B면 / 제9장 A면	보물 제1051-2호 권11 제9장 A면

○ 文獻資料

- 杜甫 著, 柳允謙 等奉命 諺解編次, 『分類杜工部詩(諺解)』, 卷11. 乙亥字本.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成宗 12(1481) 推定].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所藏本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옥영정·서정문)>.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11. 23.

○ 지정사례

- 보물 제1051-1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3, (1990.09.20. 지정)
- 보물 제1051-2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1-12. (2001.08.03. 지정)
- 보물 제1051-3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21. (2004.05.07. 지정)
- 보물 제1051-4호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7~19. (2011.11.01. 지정)

□

○ 현 상

조사대상 『分類杜工部詩[諺解]』는 성종 12(1481)년경 왕명을 받은 홍문관의 典翰 柳允謙 등이 杜甫의 시를 언해하고 편차하여, 을해자와 을해한글자로 성종 13(1482)년부터 성종 20(1489)년 사이에 간행한 책이다. 두보의 시에 대한 연구는

물론 간행시점인 15세기의 언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며, 을해자 연구의 자료이기도 하다. 기 지정된 권11(보물 제1051-2호)에 결락된 책장(1-8)이 조사대상본에는 온전하게 남아있어 중요하다.

서지사항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 / 杜甫(唐) 著 ; 柳允謙(朝鮮) 等受命釋解.
金屬活字本(乙亥字,乙亥한글字). [成宗 20(1489)年 以前] 28.0 × 19.0cm.
1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21.8 × 14.6cm. 有界, 8行17字. 上下內向黑魚尾.
版心書名 : 杜詩.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본의 서명은 『分類杜工部詩』이다. 본서에는 한문 원문 외에 언해가 부가되어 있으므로, 한문본과 서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分類杜工部詩[諺解]』라고 표기한다. ‘번역두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杜詩諺解』라고 불러왔다. 『두시언해』는 최초의 국역 한시집이며, 국어국문학 연구의 중요한 문헌이다. 이는 唐나라의 시인 杜甫(712-770)의 시를 주제로 분류하고 한글로 번역한 시집이다.

저자 杜甫의 자는 子美이며, 호는 少陵이다. 두보는 생존연간에 명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사후 명성이 높아져 詩聖이라 불리고, 그의 시는 詩史라고 불리고 있다. 또 중국 최고의 현실주의 시인으로 그 영향이 지대하여 李白과는 “李杜”라 불린다. 소년시절부터 시를 잘 지었으나, 몇 차례 응시에도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하였다. 현종이 그의 문재를 인정하여 등용하였으나, 安祿山의 포로가 되어 장안에 연금(755)된 지 1년 만에 탈출해 현종을 이어 즉위한 숙종의 행재소로 갔으므로 左拾遺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재상 房瑄의 죄를 변론하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1년 뒤에 華州司功參軍으로 좌천되었다. 관군이 장안을 회복한 후 대기근을 만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거친 후 成都에 정착하였다. 성도 교외 浣花溪가에 草堂을 짓고 절도사인 嚴武의 막료로서 工部員外郎의 관직을 지내다가 암수가 사망한 후 다시 방랑하였다. 대력 3(768)년에 배를 타고 낙양으로 가던 중 전란과 홍수에 막혀 대력 5(770)년 洞庭湖 근방에서 59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각지를 방랑하는 과정에 李白이나 高適 등과 교류하기도 하였다.

인간애를 바탕으로 광범한 사회상을 담고 있는 그의 시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憂國愛民의 걱정이 담겨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당시대를 지나 안녹산의 반란을 계기로 전환기에 처한 당나라는 통치계급의 부패와 무능이 극심했다. 두보는 사회의 혼란에다 전란의 비참함이 더해져 난세에 시달리

는 백성의 수난을 목도했고, 개인적으로는 가난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이에 민생의 파탄과 생명과 가정의 위협을 고발하고 규탄하면서, 이를 승화시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평민적이며 인간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이백은 天上의 시인이라 하고, 두보는 地上의 시인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전래되고 있는 두보 시는 대략 1,470여 수이다. 두시의 정리작업은 編年·分類·集注·評點 등의 형태로 발전해왔다. 북송 보원 2(1039)년 王洙가 편찬하고 가우 4(1059)년 王琪가 항주에서 간행한 『杜工部集』 20권이 현존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이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전존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宋元 간본의 복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선초에 송나라 魯崑이 편차하고 蔡夢弼이 會箋한 『杜工部草堂詩箋』이 세종 13(1431)년에 密陽에서 개간되었다. 이어 세종의 명으로 송나라 徐居仁이 편차한 『集千家注分類杜工部詩』의 編次와 원대의 高崇蘭이 편차한 『集千家注批點分類杜工部詩集』의 評點을 주로 참고로 하고, 여타 서적을 대조 교정하여 補註를 붙인 『纂註分類杜詩』를 편찬했는데, 이는 甲辰字·丙子字·甲寅字·訓練都監字로 여러 차례 간행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 杜詩의 언해는 세종연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성종연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간행되었다. 성종 12(1481)년경 왕명으로 柳允謙·柳休復·曹偉·義砮 등이 여러 주석을 參訂하고 한글로 번역했으며, 성종 후기에 간행될 수 있었다. 서명의 “杜工部詩”는 두보가 工部員外郎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이며, “分類”라 표현한 것은 송대의 『分門集注杜工部詩』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纂註分類杜詩』를 저본으로 두보의 시 1,647편에 주석을 달고 한글로 언해한 책이다. 권두에 있는 曹偉의 서문에는 世敎를 위해 본서를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선초부터 두시를 언해하고자 한 것은 유교적 내용으로 교훈적이고, 우국적인 정서가 담겨있어 국가적 사상 확립에 모범이 되기 때문이었다. 조사대상본은 조선 성종 13(1482)년 기록에 간행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그러나 명확한 간행과 반사 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成宗實錄』에 성종 20(1489)년 8월에 일본 사신에게 『杜詩』를 하사했다는 기록을 통해 성종 20(1489)년 8월 이전 을해자 중자와 소자 그리고 한글 활자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본의 표지는 개장되었다. 본문의 장22·24·46·54는 낙장되어 복사본으로 보충되어 있는데, 장54는 없고 장53이 중복으로 삽입되어 있다. 일부는 마멸되어 글자가 흐려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누습으로 인해 다소 변색되었으며, 헤진 흔적은 있지만 본문을 확인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본문의 체재는 대개 두시 원문을 2구씩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해 쌍행으로 주석과 언해를 단 방식이다. 주석문과 언해문 사이에는 권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

글에는 四聲의 傍點이 남아 있어 임란 이전의 국어현상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배접하면서 紙頭를 많이 잘라내었으므로 頭註가 잘려나간 곳이 있다.

○ 문헌자료

『두시언해』 영인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2000. 김영일, 「초간본 『두시언해』 권12의 어학적 고찰」

김남이, 조선전기 杜詩 이해의 지평과 『杜詩諺解』 간행의 문학사적 의미. 동학어문학 58. 2012. 123-164.

○ 기 타

1977년 12월 전 동국대학교 이병주 교수로부터 구입한 서적이다.

○ 지정사례

보물 제1051-1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3. 경기도박물관.(1990.09.20.지정)

보물 제1051-2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1-12. 계명대도서관.(2001.08.03.지정)

보물 제1051-3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21. 청주고인쇄박물관.(2004.05.07.지정)

보물 제1051-4호. 『分類杜工部詩[諺解]』 권17-19. 한국토지공사토지박물관.(2011.11.01.지정)

12. 경진년 연행도첩 (庚辰年 燕行圖帖)

가. 검토사항

‘경진년 연행도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경진년 연행도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8.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7.9.) 및 과학조사(’20.10.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진년 연행도첩(庚辰年 燕行圖帖)
- 소유자(관리자) : 명지대학교(명지-LG한국학자료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LG한국학자료관
- 수 량 : 1첩(21폭)
- 규 격 : 표지 52.9×31.9cm, 펼침면 전체 52.9×63.4cm, 화면 46.0×55.0cm
- 재 질 : 종이에 수묵채색
- 형 식 : 첩(帖)
- 조성연대 : 1761년(영조 37)



그림 251. 《경진년 연행도첩》 중 <산해관도외>, 1761년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760년(영조 36) 11월 2일조 기사에 의하면, 영조는 경현당에서 정사 홍계희 이하 동지 삼사에게 현종 탄강(誕降) 120주년을 맞이하여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기거하던 곳이자 현종의 탄생지인 심관의 옛터를 그려오라고 친필로 지시하였다. 다시 제6쪽(11면)의 <심관구지도> 도설 첫 부분에 ‘신은 조정을 떠나면서 폐하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날에 앞드려 심관의 옛터를 자세히 살피라는 명을 받들었습니다[臣於 陛辭之日伏承藩 館舊址審察之 命].’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영조 어필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글씨는 완숙한 경지에 이른 영조 만년의 필치로 해서에 약간 행서 필의를 섞어 쓴 영조 서풍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친필임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제목을 서사한 제명(題名)과 내용을 설명한 도설(圖說)은 안진경 서체를 본받은 당시 뛰어난 사자관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단정하고 웅건하며 중후한 필치로 전체를 꿰뚫으면서 서의(書儀)의 규범을 준수하고 용필과 결구에서 미묘한 변화를 나타낸 친필이다. 이는 당시 사자관의 서예 수준을 잘 나타내고 있어 서예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상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경진년 연행도첩(庚辰年 燕行圖帖)』은 영조 어필·그림·도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제작 목적과 시기가 분명하고 왕, 문인 관료, 도화서 화원, 사자관 등이 참여한 희귀한 서화첩으로 그림·글씨·장황은 당

시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감상용과 다른 역사적, 미술사적, 서예사적, 공예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1. 《연행도첩(燕行圖帖)》은 경진동지사행(庚辰冬至使行)이 귀국한 1761년 제작된 것으로 영조의 어명을 받은 정사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찾아본 심양관 옛터와 북경의 문묘 및 이룬당 등 유교 사적, 산해관 일대를 수행화원 이필성(李必成, ?-?)이 그린 그림, 건물 안 위패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排班圖), 그림 관련 내용을 정리 기록한 발문(跋文)으로 장황된 서화첩임

2. 《연행도첩》은 경진년(庚辰年), 즉 1760년 11월 2일 출발해 1761년 4월 6일 한양으로 돌아온 경진동지사행의 결과를 영조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면서 영조 어필이 포함되고, 그림과 관련한 배반도 및 발문으로 그림의 이해를 충분히 돕는 특이한 형식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원 이필성의 화풍 및 18세기 중반 실경산수화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3. 본 화첩은 현재 <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가 널리 알려지면서 《심양관도첩(瀋陽館圖帖)》 또는 《연행화첩(燕行畫帖)》이라 명명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연행화첩의 지정도 있을 수 있고 경진동지사행(庚辰冬至使行)을 배경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경진년 연행도첩(庚辰年 燕行圖帖)》이라 제목을 명명할 필요가 있음

○ (지정 가치 있음)

- 《庚辰年 燕行圖帖》은 1761년 홍계희(1703-1771)가 英祖(재위, 1724-1776)의 어명을 받아 庚辰冬至使行에서 심양관을 방문하여 그 일대를 도설과 그림으로 기록한 화첩이다. 홍계희 일행이 심양관을 찾았을 때 이미 옛 자취가 사라졌지만, 그들은 덕성문 내 동쪽 첫 번째 거리에 있는 찰원이 과거 심양관의 구지임을 파악했다. 따라서 이 화첩은 영조의 어명으로 당시 심양관의 풍광을 재현한 화첩이므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 《庚辰年 燕行圖帖》의 그림을 담당한 화원은 이필성으로 판단된다. 『북원록』에 의하면 화원 이필성은 折衝將軍의 직책으로 동지사행에 동참했고, 그 이전에서 궁중회사를 담당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이 화첩은 작가가 규명된 18세기 중반의 기록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 《庚辰年 燕行圖帖》에 수록된 그림은 크게 산수를 중심으로 한 실경산수화와, 건물의 배치를 시각적으로 기록한 궁궐도로 나눌 수 있다. 조선왕실의 궁궐도에서 목격되는 이동시점형 부감법과, 새로운 계획의 화법인 평행사선형 투시도법이 동시에 사용됐다. 또한 18세기 중반 궁중기록화에서만 볼 수 있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옥색이 사용되어 궁중회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 《庚辰年 燕行圖帖》은 제작 목적과 시기, 그림을 그린 화가 등이 분명하고, 작품 상태와 수준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시각물이다. 따라서 이 작품을 보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본 화첩은 영조 36년(경진, 1760)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의 동지사행을 계기로 제작되었다. 사행단의 대표적 인물은 정사 洪啓禧(1703-1771), 부사 趙榮進(1703-1775), 서장관 李徽中(1715-?) 등이고, 화원으로 李必成이 파견되었다. 화첩의 제작 배경에 대해서는, 영조가 특별히 사행 여정 중에 살펴보고 그림으로 그려 올 것을 지시한 정황이 『승정원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화첩에 수록된 자료와 정확히 부합하여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화첩에 수록된 그림은 이필성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산해관외도>를 제외하고는 주로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의 모습을 재현하기보다는, 구조와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제작한 圖形에 가깝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생략되거나 단순화되었다. 다시점을 적용하면서, 정연한 선묘와 채색을 구사하는 전형적인 계획 기법을 보여준다. 화원 이필성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의궤와 사행 등에 차출된 이력으로 보아, 본 화첩에 수록된 그림의 표현기법과 수준에 합당한 화가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화첩 마지막에 수록된 <산해관외도>는 부감시를 적용하여 산해관문을 중심으로 한 경관을 호쾌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18세기 중반 실경산수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기록화 이외에 이필성의 화가로서의 역량을 알려주는 산수화 작품으로서도 중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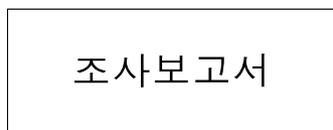
또한 본 화첩은 御覽을 목적으로 제작된 화첩으로서, 전승과정에서 개장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 궁중기록화의 면모를 보여주는 왕실 문화의 실체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

본 화첩은 동일한 종류의 다른 사례가 없고 유사 사례도 드문, 유일본으로서의 가치가 주목되며 조선후기 시대상과 정치, 외교, 문화 등의 양상을 증거하는 자료로서의 의의 또한 탁월하여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보존, 관리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심양관도첩, 연행화첩 등 기존의 명칭은 본 화첩의 종합적인 면모와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새로운 지정명칭으로 “경진연행도첩”을 제안한다. “경진연행도첩”은 경진년(1760)에 있었던 동지사행이 화첩 제작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음을 적시하고 있어, 화첩의 시대성과 역사성을 충실히 반영한다. 기존에 학계에서 통용하여 온 명칭인 ‘심양관도첩’의 경우, 화첩의 일부인 〈심관구지도〉를 대표로 내세운 것으로, 화첩의 전반적 내용과 면모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야기한다. 비록 ‘심양관도첩’이라는 명칭에는, 본 화첩을 발굴하고 미술사적인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는 연구사적 의의를 존중하고, 저간의 연구 성과를 함축하는 의미가 있으나, 이번 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학술적으로 더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선행의 연구성과를 더욱 뜻깊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 현 상

표제지가 마모되어 원제(原題)는 알 수 없고, 사방의 가장자리가 닳아서 청색 안료가 벗겨진 곳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해충에 의한 손상 구멍과 하단 중앙부의 훼손이 심하여 보존처리가 요구됨. 그러나 그림과 글씨의 보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고 서화첩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은 없음.

서화첩은 52.9×31.9cm 크기에 감색 종지로 장황한 앞표지와 뒤표지 안에 21쪽(42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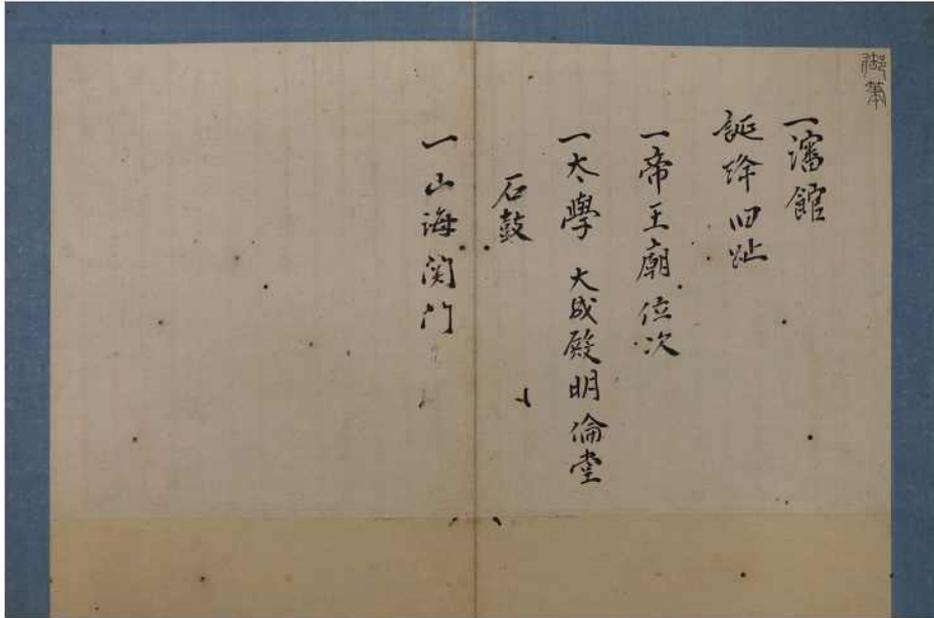
구성은 제1쪽과 제2쪽은 빈 화면이고 바탕 종이에 쪽빛을 칠한 흔적이 있으며, 제3쪽은 5-6면에 영조가 쓴 어필이 있고, 제4쪽은 빈 화면으로 31.9×27.7cm 크기의 종이를 잘라낸 흔적이 있음. 제5쪽은 9-10면에 <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를 그렸고, 제6쪽은 11-12면에 <심관구지도>에 관한 홍계희(洪啓禧, 1703-1771)의 도설(圖說)을 서사하였음. 제7쪽은 13-14면에 <문묘도(文廟圖)>를 그렸고, 제8쪽은 15-16면에 <이륜당도(彝倫堂圖)>를 그렸음. 제9쪽은 17-18면에 <선사묘전내급동서 무위차지도(先師廟殿內及東西廡位次之圖)>의 위차(位次)를 세로와 가로로 장방형과

편방형의 네모 칸 안에 1행의 해서로 적었고, 제10폭은 19-20면에 <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崇聖祠正位及配享位次之圖)>의 위치를 장방형과 편방형 안에 1행의 해서로 적었으며, 제11폭은 21-22면에 문묘의 구성과 문묘를 찾은 경위를 서사한 발문임. 제12폭은 23-24면에 <석고배치도(石鼓排置圖)>를 그렸고, 제13폭은 25면에만 <석고배치도>의 도설을 서사하였을 뿐 26면은 빈 화면임. 제14폭은 27-28면에 <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를 그렸고, 제15폭은 29-30면에 <역대제왕묘위차지도(歷代帝王廟位次之圖)>를 기록하였는데 상단에 제목을 가로글씨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1행을 해서로 썼고, 아래의 위치는 역관 변헌(邊憲)이 역대제왕묘 관리에게 얻어온 것을 첨부하였으며. 제16폭은 31-32에 <역대제왕묘도>의 도설을 서사하였음. 제17폭은 33-34면에 <산해관도(내)(山海關圖(內))>를 그렸고, 제18폭은 35-36면에 <산해관도(외)(山海關圖(外))>를 그렸으며, 제19폭은 37-38면에 <산해관도>의 도설을 서사하였음. 제20폭과 제21폭의 39-42면은 빈 화면임.

따라서 전체 구성은 영조 어필 이후 <심관구지도>와 도설, <문묘도>·<이륜당도>·<선사묘전내급동서무위차지도>·<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와 <문묘도>의 도설, <석고배치도>와 도설, <역대제왕묘도>·<역대제왕묘위차지도>와 도설, <산해관도> 내외와 도설 순으로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어서 이에 관한 도설을 첨부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내용 및 특징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의 『경진년연행도첩(庚辰年燕行圖帖)』은 영조 어필이 있으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이어서 이에 관한 도설(圖說)을 써서 첨부한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서예 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영조 어필, 그림의 제목을 쓴 제명(題名)과 그림을 설명한 도설(圖說) 세 종류이다.



〈영조 어필〉

먼저 영조(1694-1776, 재위 1724-1776) 어필은 영조 36년(1760) 66세에 사행(使行)이 출발하기 전에 중국에서 보아야 할 곳을 해서에 약간 행서 필의를 섞어 써서 준 것이다. 이는 바탕 위에 43.5×54.7cm 크기의 종이를 붙인 6행으로 5면에 5행, 6면에 1행이고, 내용은 一 심관(瀋館)의 탄강구지(誕降舊址), 一 제왕묘위차(帝王廟位次), 一 태학(太學)의 대성전(大成殿)·명륜당(明倫堂)·석고(石鼓), 一 산해관문(山海關門) 등이다. 구지(舊址)를 ‘旧’라는 속자(俗字)와 ‘址’와 통용하는 ‘趾’로 쓴 것이 독특하고, ‘降’자의 ‘β’과 ‘關門’은 행서로 썼다. 이 무렵 영조의 서풍은 완숙한 경지에 이르렀고, 대부분 행초서를 위주로 썼으므로 운필이 이전보다 빠르면서 글자의 결구 또한 자유롭다. 가로획 기필의 말발굽 모양을 한 마제(馬蹄)는 방필(方筆)을 위주로 하여 약간 넓게 벌어진 특징을 나타내고, 파임은 송설체를 답습하여 조금 길게 처리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여기에 쓴 영조 어필은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유연하게 한 필치로 꿰뚫고 있다. 오른쪽 위의 모서리에 가는 필획의 전서로 ‘어필(御筆)’이라 쓴 두 글자는 먹색과 필치가 다르므로 영조가 쓴 것이 아니고 이후에 첨가한 것 같다.

潘館舊址圖

文廟圖

彝倫堂圖

石鼓排置圖

歷代帝王廟圖

山海關圖內

山海關圖外

圖 之 次 位 廡 西 東 及 內 殿 廟 師 先

圖 之 次 位 享 配 及 位 正 祠 聖 崇

圖 之 次 位 廟 王 帝 代 歷

제명(題名)

다음으로 제명은 제5쪽(9면)의 <潘館舊址圖>, 제7쪽(13면)의 <文廟圖>, 제8쪽(15면)의 <彝倫堂圖>, 제9쪽(17-18면)의 <先師廟殿內及東西廡位次之圖>, 제10쪽(19-20면)의 <崇聖祠正位及配享位次之圖>, 제12쪽(23면)의 <石鼓排置圖>, 제14쪽(27면)의 <歷代帝王廟圖>, 제15쪽(29-30면)의 <歷代帝王廟位次之圖>, 제17쪽(33면)의 <山海關圖(內)>, 제18쪽(36면)의 <山海關圖(外)> 등이다.

제명은 필획이 단정하고 장엄하며, 안정된 결구를 갖춘 가운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변화를 나타내었다.

첫째, 용필에서 필획의 강조로 변화를 나타내었다.

가로획은 기필에서 말발굽 모양과 수필에서 누에머리와 같은 마제잠두(馬蹄蠶頭)의 형상을 분명히 하여 절제미를 갖추었고, 세로획은 일정한 굵기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필획을 조금 굵게 처리하여 잔잔한 가운데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圖·關’의 마지막 세로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날획에 속하는 파임은 안진경 서체의 특징인 연미(燕尾)를 운영하여 굳세고 강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둘째, 결구에서 자형의 크기를 조금 달리하여 변화를 나타내었다.

<潘館舊址圖>에서 ‘潘館’은 자형을 조금 크게 하고 ‘舊址圖’의 자형은 ‘潘館’보다 조금 작게 하여 변화를 나타내었다. ‘歷代帝王廟圖’에서 ‘王’자를 상대적으로 다른

글자들보다 조금 작게 처리하여 확실적인 가운데 숨을 한 번 쉬는 여유와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변화는 판에 박히거나 새기는 듯한 단조로움을 피하고, 오랜 기간 각고의 노력을 통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서사자의 역량을 잘 나타내었다.

셋째, 형식에서 서의(書儀)⁵⁰를 통한 변화이다.

이는 <山海關圖>에서 ‘內·外’를 위의 글자에 비해 절반 정도의 크기로 서사한 것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예는 도설에 ‘臣’자를 절반 글자로 서사한 것과 같다.

끝으로 도설은 제6쪽(11-12면)의 <심관구지도> 도설, 제11쪽(21-22면)의 <문묘도> 도설, 제13쪽(25면)의 <석고배치도> 도설, 제16쪽(31-32면)의 <역대제왕묘도> · <역대제왕묘위차지도> 도설, 제19쪽(37-38면)의 <산해관도> 도설 등이다.

<심관구지도> 도설은 46×55cm, <문묘도> 도설은 46.1×28cm, <석고배치도> 도설은 45.8×55cm, <역대제왕묘도> · <역대제왕묘위차지도> 도설은 46×55.1cm, <산해관도> 도설은 46×55.2cm이다. 이 중에서 <문묘도> 도설만 1면이고, 나머지는 모두 2면에다 서사하였다. 제13쪽(25면)의 <석고배치도> 도설에 ‘한유·소식이 가(歌)로 읊은 것이다[韓愈蘇軾所歌咏者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는 당나라 한유(韓愈, 768-824)의 칠언고시 「석고가(石鼓歌)」와 송나라 소식(蘇軾, 1037-1101)의 칠언고시 「석고가(石鼓歌)」를 가리키는데, 중국에서 가(歌)의 형식으로 서예를 논한 논서시(論書詩)의 형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중에서 한유의 「석고가」가 더욱 유명하고, 후세에 심원한 영향을 주었다.⁵¹⁾

도설은 제명과 같이 한 사람이 서사하였으므로 서체·용필·자형·결구·필세·서풍 등에서 일맥상통함이 보이고, 서의(書儀)의 범도를 준수하였다. 서체는 안진경 서체를 위주로 썼으나 가로획과 세로획의 대비가 보이는 면에서 <안근례비(顏勤禮

50) 서의(書儀)는 좁은 의미로 칙독 서사의 행관(行款) 격식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 문자 서사의 각종 규범을 포괄한다. 전국시기 이후 왕조마다 명확한 율령(律令)·격식(格式)·서의(書儀)가 있어 전장제도를 이룬 것은 문화전통의 중요 내용을 체현한 것이다. 표(表)·장(狀)·전(箋)·계(啓)의 서의는 전적으로 공무의 왕래에 사용했고, 이 중에는 지방정권 각 기구 사이의 부하와 상관 또는 신하와 황제의 관계를 다룬 것도 있다. 서의는 서예의 장법·포국·형태에 영향을 주었고, 주로 서체(書體)·방위(方位)·평필(平闕)·규격(規格)·행관(行款)·문헌(文獻)·재료(材料)·검인(鈐印) 등에서 체현하였다. 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말로 대두(擡頭)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글을 쓸 때 경의(敬意)를 표하는 글자를 맨 줄로 바꾸어 다른 줄보다 한 글자 올려 쓰는 것을 말하며, 만약 글의 중간일 때는 한 글자를 띄우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서의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서의가 대두보다 더욱 많은 내용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51) 한유의 「석고가」는 칠언고시로 모두 66구절이다. 처음 4구절은 두보·이백과 같은 재능이 없어 감히 가(歌)를 지을 수 없다는 겸사(謙辭)의 말을 하였고, 『周綱』에서 12구절은 석고(石鼓)의 내력이 오래되었음을 서술하였다. 『公从』에서 10구절은 석고의 문자와 서체의 가치를 서술하였고, 『陋儒』에서 6구절은 『시경』에서 석고문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공자의 세심하지 못한 것이라 하였다. 『忆昔』에서 18구절은 석고의 발견 과정과 태학에 유지하는 것을 건의한 내용이고, 『中朝』에서 10구절은 당국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석고가 없어질까 한탄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6구절은 유학을 숭상하는 시대에서 석고를 태학에 옮길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석고의 진귀함과 보호의 정성이 지극하였다. 문장의 장법은 정제되었고, 글과 뜻은 엄밀하며, 음운은 곱고 낭랑한 소리가 난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

碑)>를 본받았고, 예스럽고 질박하며 단정하면서 너그럽고 풍만함은 <마고선단기(麻姑仙壇記)>를 본받았으며, 정방형의 자형과 주문(籀文)·전서의 필세와 서풍은 <안씨가묘비(顔氏家廟碑)>와 흡사하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고 전체적인 서체와 서풍은 안진경을 본받은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를 나누어 설명하기보다는 전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주요 특징을 서의(書儀)·용필(用筆)·결구(結構) 세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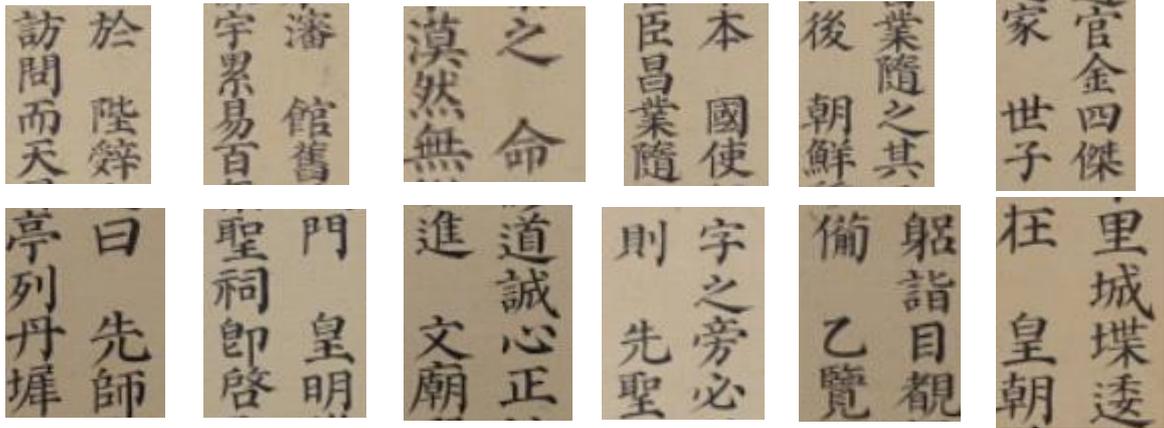
첫째, 서의(書儀)의 특징이다.

이는 ‘臣’자와 ‘南之左門’을 절반 글자로 서사하고, ‘陞·館·命·國·朝鮮·世子·先師·皇明·文廟·先聖·乙覽·皇朝’ 등의 앞은 한 글자를 띄웠으며, ‘孝廟·顯廟·先王·聖教·皇明·神廟’ 등의 앞은 두 글자를 띄웠고, ‘館門·文廟·皇明·神廟’ 등은 한 글자를 올리는 대두(擡頭)를 운용한 데에서 보인다. 이 중에서 같은 ‘皇明’ 이더라도 제11쪽(21면)의 <문묘도> 도설 ‘戟門 皇明後’와 제16쪽(31면)의 <역대제왕묘도>·<역대제왕묘위차지도> 도설 ‘周以前 皇明洪武六年’은 한 글자, ‘元太祖 皇明高皇帝’는 두 글자를 띄웠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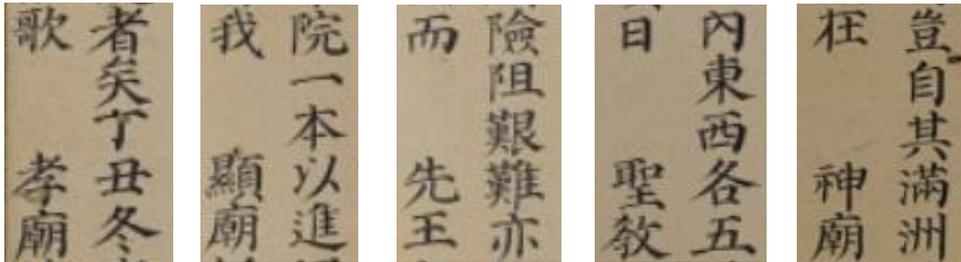


절반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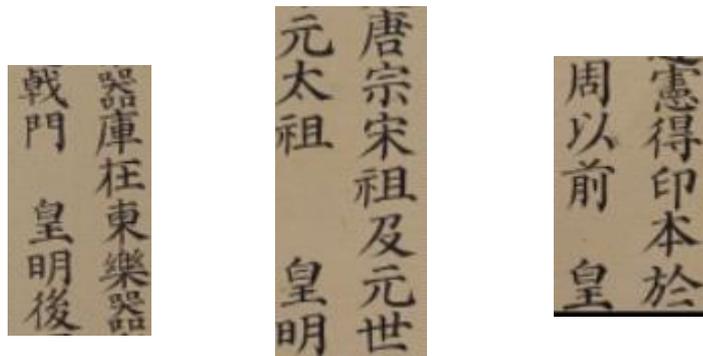
대두(擡頭)



한 글자 띄우기



두 글자 띄우기



‘皇明’의 한 글자와 두 글자 띄우기

둘째, 용필의 특징이다.

용필의 특징은 크게 가로획과 세로획, 가로획에서 세로획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세로획에서 가로획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절(轉折), 갈고리에 해당하는 적획(趯畫), 왼쪽으로 길게 빠치는 약획(掠畫), 오른쪽으로 길게 빠치는 날획(捺畫)의 과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독 ‘焉’자의 끝부분만 행서 필의로 서사한 것도 이채롭다.

가로획의 특징은 기필과 수필로 나눌 수 있다. 기필은 하나같이 필봉을 모나게 꺾어 들이는 절입법(切入法)을 운용하여 가볍고 상쾌하며 깨끗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수필은 필획이 끝나는 곳에서 붓을 가볍게 누른 다음 다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회봉(回鋒)을 통해 누에머리와 같은 잠두(蠶頭)를 형성하여 강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세로획은 두 개 이상일 경우 전체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을 조금 굵게 하여 입체감이 나도록 하였고, ‘門·西·圖·國·祠·有’자 등 갈고리가 있을 때는 조금 더 굵게 하여 강조의 의미와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가로획과 세로획의 굵기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일부 세로획을 굵게 하여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나는 변화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가로획에서 세로획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절’에서 ‘也·方’자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향해 기울어지는 것은 곧바로 모나게 꺾었고, ‘門·有’자 같은 경우는 내리긋는 필획의 안쪽은 곧바르나 바깥쪽 위 모서리는 45° 정도로 꺾은 각도를 보인 다음 내리긋었다. 세로획에서 가로획으로 방향을 바꾸는 ‘전절’에 ‘也·見’자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내었고, 기타 ‘ㄴ’에 해당하는 곳은 조금 사이를 띄우면서 직선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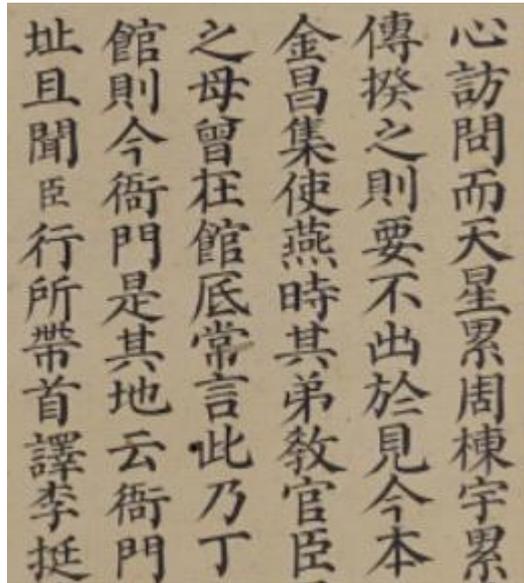
적획은 대체로 안진경 서체를 본받아 세로의 노획(努畫) 필세를 유지하다가 필획 끝에서 왼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고 오른쪽은 45° 정도의 공간을 확보한 뒤 힘을 축적하여 탄성(彈性)으로 필적 뛰어오르며 뽀족한 필봉을 나타내었는데, 대체로 노획과 90°를 유지하였다.

약획은 처음 시작에서 힘을 주어 길게 빼고 중간에서 다시 힘을 기울이며 필세를 유지하다가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쥐꼬리와 같은 서미(鼠尾)를 운용하여 가늘게 처리하였다. 날획에 해당하는 과임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구양순 필법에서 흔히 보이는 일파삼절(一波三折)법으로 처음 시작은 가볍게 붓을 대고 힘을 주며 나아가다가 중간에 이르러 더욱 힘을 주면서 붓털이 완전히 퍼지게 한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필획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사선으로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안진경 필법에서 보이는 것으로 방법은 같으나 끝부분에 이르러 붓을 조금 들어 필획 아랫부분은 조금 공간이 남아있고 윗부분은 감싸면서 마치 제비 꼬리와 같은 연미(燕尾)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안진경 필법을 운용하였다.

셋째, 결구의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자간은 좁고 행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 종세(縱勢)의 필세를 나타내었으며, 필획 사이의 간가(間架)는 고르고 여유가 있어 관후(寬厚)한 안진경 서체를 연상시킨다. 결자(結字)의 중심이 구양순 서체와 같이 가운데의 중궁(中宮)에 있지 않고, 팔궁(八宮)을 가득 채우면서 퍼져 있는 것도 안진경 서체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이다. 자형은 고르면서 정방형이나 편방형이 섞여 있어서 해서가 일반적으로 장방형을 이루는 것에 비해 다소 넓적한 느낌이 든다. 안진경과 동시대의 서호(徐浩, 703-782)는 『논서』에서 “작은 것은 늘려 크게 하고, 큰 것은 오그려 작게 한다.”⁵²⁾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새로운 필법으로 안진경의 <안씨가묘비>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러나 송나라 미불은 이를 옛날 법도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크거나 작음은 각각 구분이 있으니, 한 동아리가 아니다. 서호는 안진경이 초청한 문객으로 서예의 운치는 장욱의 혈맥으로부터 나왔는데, 안진경에게 큰 글씨는 촉박하여 작게 하고, 작은 글씨는 펼쳐 크게 하라고 가르쳤으니, 옛날 법도가 아니다.”⁵³⁾라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제6쪽(11면)의 <심관구지도> 도설을 예로 들면, ‘問·棟·傳·揆·燕’자 등은 정방형이고, ‘心·之·出·地·址’자 등은 편방형이며, ‘累·周·見·曾·所’자 등은 장방형이다. 사자관은 자형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하면서 이러한 정방형·편방형·장방형을 적절하게 안배하며, 판에 새기거나 천편일률적인 데에서 벗어나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제1행을 보면, 같은 크기로 서사하다가 ‘累·周’를 장방형으로 처리하여 획일적인 데에서 벗어났는데, 이러한 예는 제2행의 ‘見·今·本’, 제3행의 ‘官·臣’, 제4행의 ‘曾·在’ 등에서 보인다. 다시 위 글자가 필획이 많아 무거우면 아래 글자는 조금 작게 하여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제1행의 ‘棟’字, 제6행의 ‘譯李’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결구에서 자형의 크기와 형태 변화로 미묘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장기간 각고의 노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안진경 서체를 본받는 것은 글씨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충신 열사이고 인품이 뛰어나며, 글씨가 그 사람과 같다는 서여기인(書如其人)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비를 안진경 서체로 집자한 것도

52) 徐浩, 『論書』: “小長令大, 大臧令小.”

53) 米芾, 『海嶽名言』: “大小各有分, 不一倫. 徐浩爲顏真卿辟客, 書韻自張顛血脈來, 教顏大字促令小, 小子展令大, 非古法也.”

이러한 연유에서 나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영조가 명한 것을 도화서 화원 이필성(李必成)이 그리고, 정사 홍계희(洪啓禧)의 도설을 사자관은 조맹부의 송설체로 서사하지 않고 안진경 서체를 본받아 서사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 문헌자료

- 『승정원일기』 1760년(영조 36) 11월 2일조 기사
- 임기중, (2016년 6차 개정증보판) 『燕行錄叢刊』, 2016.
- 鄭恩主, 「1760년 庚辰冬至燕行과 《瀋陽館圖帖》」, 『明清史研究』 제25집, 明清史學會 2006.
- 박은순, 「朝鮮後記 『瀋陽館圖』 畫帖과 西洋畫法」, 『미술자료』 58, 국립중앙박물관 1997.
- 곽노봉, 『서체』, 다운샘 2015.
- 곽노봉 『서예학의 이해』, 다운샘 2019.

○ 기 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전 국회도서관장 강주진(姜周鎭, 1917-1994)이 이 용희(李容熙, 1811-1878)의 후손으로부터 사들였고, 강주진 사후 1995년 현 소장처인 명지대학교가 문우서림 김영복 대표를 통해 사들였음.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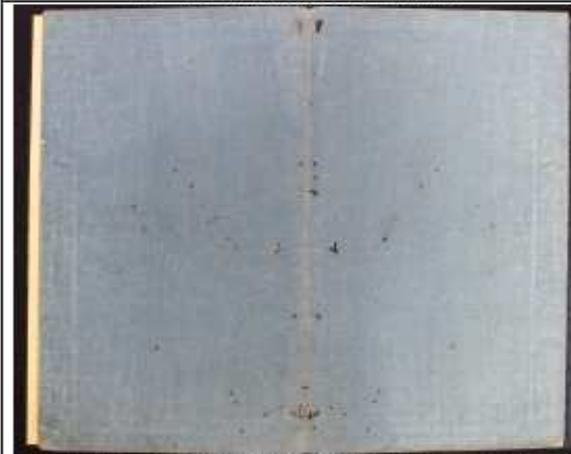
- 《연행도첩(燕行圖帖)》은 경진동지사행(庚辰冬至使行)이 귀국한 1761년 제작된 것으로, 영조의 어명을 받은 정사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찾아본 심양관 옛터를 비롯해 북경의 문묘와 이룬당 및 역대제왕묘 같은 유교 사적, 산해관 일대를 수행화원 이필성(李必成, ?-?)이 그린 그림, 건물 안 위패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排班圖), 그림 관련 내용을 정리 기록한 발문(跋文)으로 장황된 서화첩임
- 화첩의 구성을 각각의 이미지와 현상을 순서대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지는 청록색 능화지로, 오랜 시간 전세(傳世)되는 과정에서 연화문의 요철이 뭉개져 희미해짐 2. 제첩(題簽) 크기는 20.0×4.1cm이며, 바탕이 마모되어 원래 제목의 유무(有無)를 확인할 수 없음 3. 열람으로 인해 화첩 모서리가 닳았으며, 바탕의 청록색이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어두울 뿐만 아니라 하단부가 손때로 인해 다른 곳보다 오염이 심한 편임
<p>1. 표지(앞), 52.9×31.9cm</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 <p>연화문, 표지 세부</p> </div> </div>



2. 빈 화면, 52.9×63.4cm

1. 표지 다음 페이지는 빈 여백이며, 중앙의 절점선 부분이 해충으로 인해 훼손된 곳들이 있음
2. 하단부의 오염은 보관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네 모서리의 오염이 심함



3. 빈 화면(담청색으로 칠함), 52.9×63.4cm

1. 바탕 종이 전체에 담청색이 칠해져 있으며, 그림이나 배반도, 발문의 회장(回裝) 부분에 칠한 색상과 동일함
2. 바탕 전체에 칠한 담청색 안료가 떨어져 나가면서 흐려진 곳들이 있음
3. 절점선을 중심으로 해충에 의해 좌우대칭으로 훼손된 곳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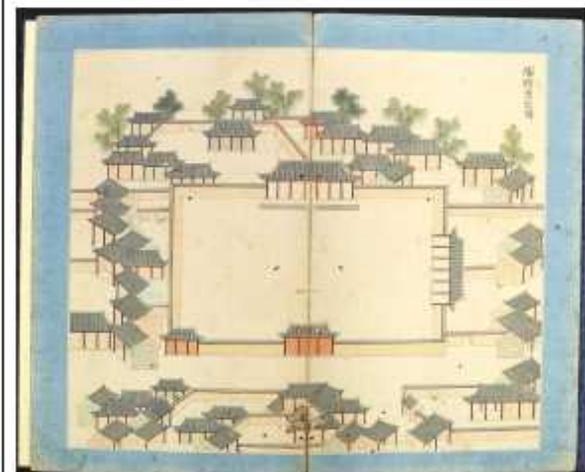
4. 영조 어필, 52.9×63.4cm

1. 바탕 종이 위에 영조의 어필이 있는 별도 종이(43.5×54.7cm)를 붙여 장황함
2. 상단 오른쪽의 '어필(御筆)'은 전서체이며, 그 뒤에 영조가 해행서체로 一 瀋館 誕降舊址 / 一 帝王廟位次 / 一 太學 大成殿 明倫堂 石鼓 / 一 山海關門 內이라 적음
3. 회장(回裝)을 별도의 다른 재료 대신 담청색으로 칠하였는데,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의 담청색 안료가 떨어져 희미한 곳들이 보임
4. 절점선 하단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된 곳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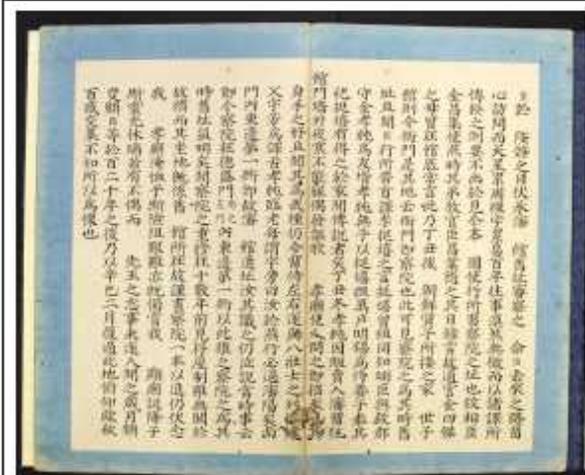
5. 담청색 회장이 된 빈 여백, 52.9×63.4cm

1. 바탕 종이의 오른쪽 상단부가 세로 31.9cm, 가로 27.7cm 크기로 도삭(刀削)됨
2. 빈 여백의 바탕 종이에 회장 부분을 담청색으로 칠하였는데,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의 담청색 안료가 벗겨짐
3. 절첩선의 하단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6. <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 46.0×55.0cm

1.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고, 수행화원 이 필성이 그린 것임
2. 영조의 어명으로 현종이 태어난 심양관을 탐문한 결과, 당시 연행사가 머무는 찰원이 옛터임을 확인하고 그 모습을 그린 것임
3. 그림을 구획한 필선이 남아 있고, 담청색 회장 부분의 안료가 떨어져 바탕지가 보이는 곳들이 있음
5. 절첩선의 하단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7. 심양관(瀋陽館) 발문(跋文), 46.0×5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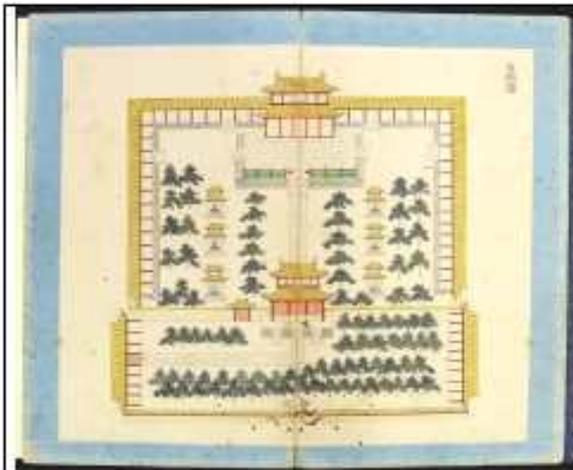
1. 이 화첩의 제작배경과 <심관구지도>를 그리기 위해 옛터를 탐문한 과정을 정리 기록한 발문임
2. 글씨는 안진경(顔眞卿, 709-785) 서풍을 계승한 해서체로 '지(之)'자나 '승(承)'자 등의 오른쪽 삐침에서 연미형(燕尾型) 파책이 보임
3. 회장의 담청색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진 곳들이 있음
4. 절첩선 중앙의 하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7. 심양관(瀋陽館)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

臣於 陸辭之日, 伏承瀋館舊址審察之命, 臣去來之路, 留心訪問, 而天星累周, 棟宇累易, 百年往事, 漠然無徵. 而以諸譯所傳揆之, 則要不出於見今本, 國使行所留察院之址也. 故相臣金昌集使燕時, 其弟教官臣昌業隨之, 其『日錄』言“故通官金四傑之母, 曾在館底, 常言此乃丁丑後朝鮮質子所接之家, 世子館則今衙門是其地云.” 衙門, 卽察院也, 此可見察院之爲其時舊址. 且聞臣行所帶首譯李挺燾之言, 挺燾曾祖同知翊臣, 與故郡守金孝純爲友壻, 孝純無子, 以挺燾祖萬戶明錫爲侍養子, 奉其祀, 挺燾有得之於家閒傳說者矣. 丁丑冬, 孝純因販賣入瀋留住 館門牆外, 夜寒不能寐, 偶發謳歌. 孝廟使人問之, 卽招至, 見其身手之好, 且聞其爲武種, 仍令留侍左右, 遂與八壯士之列. 挺燾父宇芳爲譯舌, 孝純臨老每謂宇芳曰“汝於燕行, 必過瀋陽矣. 南門內東邊第一街, 卽故瀋 館遺址, 汝其識之”, 仍泣說當時事云. 卽今察院, 在德盛門南之左門內東邊第一街, 以此推之, 察院之爲其時舊址益明矣. 聞察院之重修, 在十數年前, 見在屋制, 雖無關於故蹟, 而其坐地, 既係舊館所在, 故謹畫察院一本以進. 仍伏念我 孝廟淹恤于斯, 險阻艱難, 亦既備嘗, 我顯廟誕降于斯, 靈光休瑞, 若有不偶, 而先王之志事未遂, 人閒之歲月頻更. 顧臣等於百二十年之後, 乃以辛巳二月復過此地, 俯仰歎歎, 百感交集, 不知所以爲懷也.

신(臣)이 임금님을 뵈옵고 사행을 떠나던 날, 삼가 엿드려 심관(瀋館)의 옛터[舊址]를 자세히 살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신(臣)은 왕래하는 길에 유념하여 찾아가 물었습니다만 세월이 오래되고 건물도 여러 차례 바뀌고, 백여 년 전의 일이라 막연하여 징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역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행단이 머무는 찰원(察院)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 상신(相臣)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이 연경으로 사행갈 때 동생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이 자체교관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일록(日錄)』에 “옛 통관(通官) 김사걸(金四傑)의 어머니가 일찍이 이 관(館)에 살면서 항상 말하기를 ‘이곳이 바로 1637년(丁丑) 이후 조선의 볼모들이 거처하던 곳이며, 세자관(世子館)은 지금의 아문(衙門)이 있는 곳이다’라고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문이 곧 찰원이니, 이를 통해 찰원이 (심관)의 옛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臣) 사행단의 수역(首譯)인 이정희(李挺燾)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희 증조부인 동지(同知) 이익신(李翊臣)과 옛 군수(郡守) 김효순(金孝純)은 동서[友壻]인데, 김효순이 아들이 없자 이정희의 조부인 만호(萬戶)李明錫을 양자로 삼아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이정희가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정축년 겨울 김효순이 장사를 하러 심양에 갔다가 관문(館門) 담장 밖에 머물렀을 때, 밤의 한기(寒氣)로 잠을 이루지 못해 우연히 구가(謳歌)를 불렀는데 효묘(孝廟, 봉림대군)께서 사람을 시켜 물어보고 곧 불러들여 그의身手(身手)가 좋음을 보시고 또 무종(武種)임을 들으시고는 발탁해 좌우에서 시위케 하니 드디어 팔장사(八壯士)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정희의 아버지 이우방(李宇芳)은 역관이 되었으며, 김효순은 늙어 매번 이우방에게 “네가 연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심양을 지날 것이다. 남문(南門) 안 동쪽 첫 번째 골목이 곧 옛 심관 유지(遺址)이니, 너는 그것을 잘 기억해라.”라고 말하며 울면서 당시의 일을 얘기하곤 했다는 것

입니다. 즉, 지금의 찰원은 덕성문(德盛門) 안 동쪽 첫 번째 골목에 있으니, 이로 미루어 찰원이 그 당시의 옛터임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듣건대 찰원의 중수가 십수 년 전에 있었다고 하니, 현재 남아있는 건물들[屋制]은 비록 고적(古蹟)과 무관하지만, 그 위치는 옛 심관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찰원 1본을 그려서 바칩니다. 이에 삼가 엎드려 생각컨대, 우리 효묘(孝廟)께서 이곳에서 오래도록 우환을 겪으시며 위험과 어려움도 남김 없이 다 받으셨고, 우리 현묘(顯廟)께서 이곳에서 탄강(誕降)하여 신령과 상서로움이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선왕께서 뜻하신 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인간 세상의 해와 달은 빈번히 바뀝니다. 돌아보건대 신(臣) 등은 백이십 년이 지난 1761(辛巳)년 2월 다시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부양(俯仰)하며 탄식하니 만감이 교차하여 마음 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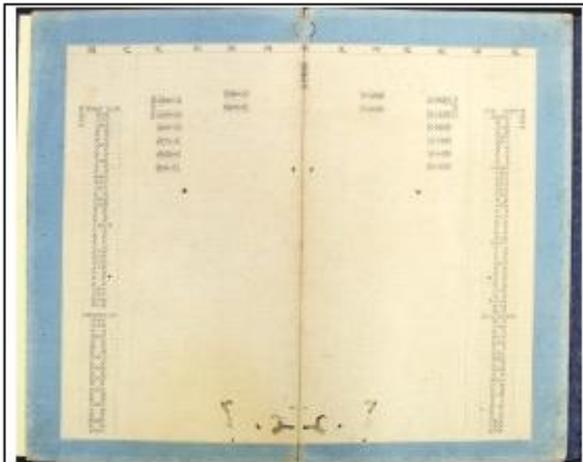
8. <문묘도(文廟圖)>, 45.8×55.0cm

1. 오른쪽 상단에 '문묘도(文廟圖)'라고 해서 쳐로 격혀 있음
2. 북경의 안정문(安定門) 내 국자감 동쪽에 위치한 문묘의 정전, 즉 공자들 비롯해 제자들을 모신 공간을 이필성이 계화기법으로 그린 것임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의 안료가 떨어진 곳들이 있음
4. 결첩선 중앙의 하단부가 해중어 의해 훼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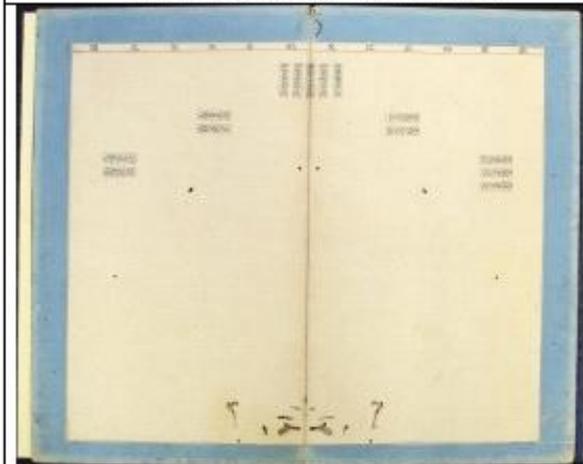
9 <이륜당도(彝倫堂圖)>, 46.0×55.1cm

1. 오른쪽 상단에 '이륜당도(彝倫堂圖)'라고 해서 쳐로 격혀 있음
2. 이륜당은 중국 왕제의 강학 공간으로 우리나라의 명륜당에 해당되며, 이필성이 그린 것임
3. 담청색 회장 부분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다수 떨어져짐
4. 결첩선 중앙 하단의 일부가 해중어 의해 훼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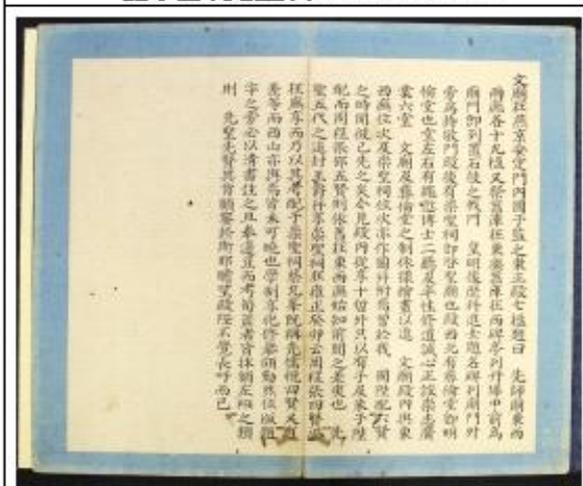
10. <先師廟殿內及東西位次之圖>, 46.0×55.1cm

1. 선사묘전(先師廟殿), 즉 문묘의 정전 안에 공자를 중심으로 안자·목자와 증자·맹자들이 각각 동서로 나뉘어 위패가 안치된 것을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排班圖)임
2. '先師廟殿內及東西位次之圖'라는 제목이 세로 1cm의 공간에 해서체로 적혀 있음
3. 회장의 담청색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져 있음
4. 절점선 중앙 하단의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11. <崇聖祀正位及配享位次之圖>, 46.1×55.2cm

1. 숭성사(崇聖祀)는 유교 성현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나라의 계성사(啓聖祠)에 해당되며, 제향하는 위패의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임
2. '崇聖祀正位及配享位次之圖'라는 제목이 세로 1cm의 공간에 해서체로 적혀 있음
3. 담청색 회장이 반복적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진 곳들이 있음
4. 절점선 중앙의 상단과 하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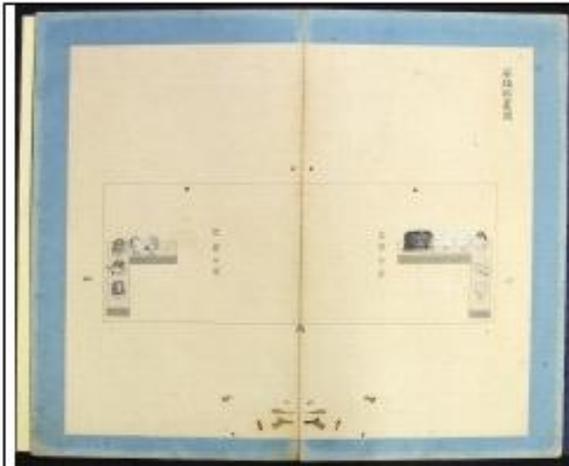
12. 문묘(文廟) 발문, 46.1×55.2cm

1. 문묘의 정전인 선사묘전을 비롯해 이룬당, 숭성사의 위치와 구조, 내부의 제향되는 선현들이 조선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을 정리 기록한 발문임
2. 글씨는 안진경 서품을 계승한 해서체임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져 있음
4. 절점선 중앙의 하단 좌우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12. 문묘(文廟)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

文廟, 在燕京安定門內國子監之東. 正殿七楹, 題曰‘先師廟’. 東西兩廡各十九楹, 又祭器庫在東, 樂器庫在西. 碑亭列丹墀中, 前爲廟門, 卽列置石鼓之戟門. 皇明後歷科進士題名碑列廟門外, 旁爲持敬門, 殿後有崇聖祠, 卽啓聖廟也. 殿西北有彝倫堂, 卽明倫堂也. 堂左右有繩愆·博士二廳及率性·修道·誠心·正誼·崇志·廣業六堂. 文廟及彝倫堂之制, 依樣繪畫以進. 文廟殿內與東西廡位次及崇聖祠位次, 亦作圖并附焉. 曾於我 國陞配六賢之時, 聞彼已先之矣. 今見殿內從享十哲外, 只以有子及朱子陞配, 而周·程·張·邵五賢, 則依舊在東西廡, 始知前聞之差爽也. 先聖五代之追封王爵并享崇聖祠, 在雍正癸卯云. 周·程·張四賢, 尙在廡享, 而乃以其考配于崇聖祠, 蔡九峯既稱先儒, 視四賢又有差等, 而西山亦與焉. 皆未可曉也. 學制享祀, 修舉頗勤. 然位版題字之旁, 必以清書註之, 且奉籩豆而考筭簋者, 皆抹額·左衽之類, 則先聖先賢, 其肯顧饗於斯耶? 瞻望殿陞, 不覺長吁而已.

문묘(文廟)는 연경 안정문(安定門) 안쪽 국자감(國子監)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전(正殿)은 기둥이 7개[楹]이며 ‘선사묘(先師廟)’라고 제(題)하였습니다. 동서 양무(兩廡)는 각각 기둥이 19개입니다. 또한 제기고(祭器庫)는 동쪽에, 악기고(樂器庫)는 서쪽에 있습니다. 비정(碑亭)들은 단지(丹墀) 가운데에 줄지어 있습니다. 앞은 묘문(廟門)이니, 즉 석고(石鼓)들을 줄지어 배치한 극문(戟門)입니다. 명나라 이후 역과진사제명비(歷科進士題名碑)들이 묘문(廟門) 바깥에 줄지어 있습니다. 옆은 지경문(持敬門)이고, 전(殿) 뒤편으로 숭성사(崇聖祠)가 있으니, 즉 계성묘(啓聖廟)입니다. 전(殿)의 서북쪽에 이륜당(彝倫堂) 즉 명륜당(明倫堂)이 있습니다. 이륜당 좌우에는 승건청(繩愆廳)과 박사청(博士廳)의 2청 및 솔성당(率性堂)·수도당(修道堂)·성심당(誠心堂)·정의당(正誼堂)·숭지당(崇志堂)·광업당(廣業堂)의 6당(堂)이 있습니다. 문묘와 이륜당의 모습을 양식에 따라 그려 바칩니다. 문묘전 안과 동서 양무의 위치(位次) 및 숭성사의 위치 또한 그림을 그려서 함께 첨부합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육현(六賢)을 추송해 배치할 때 중국인들이 먼저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전(殿) 내부를 살펴보니 십철(十哲)을 종향(從享)한 외에는 다만 유자(有子)와 주자(朱子)만을 추송 배치하고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장재(張載)·소옹(邵雍)의 육현은 옛 그대로 동서무에 있어서 (선사묘)전에 배치했다고 들었던 것이 착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성(先聖)의 오대(五代)에게 왕작(王爵)을 추봉(追封)하고, 숭성사에 제향(祭享)한 것은 1723년(雍正 1, 癸卯)부터라고 합니다. 주돈이·정호·정이·장재의 사현(四賢)은 여전히 무(廡)에서 제향하지만 곧 그들의 고(考)를 숭성사에 배향(配享)하였고, 채구봉(蔡九峯)은 이미 선유(先儒)라 칭(稱)하였으나 사현(四賢)에 비해 차등이 있으며, 서산(西山) 역시 그러합니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학교 제도에서 향사(享祀)는 수거(修舉)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판(位版)의 제자(題字) 옆에는 반드시 청서(淸書)로 주석을 달았고, 변두(籩豆)를 받들고 순거(筭簋)를 살피는 자들은 모두 말액(抹額)과 좌임(左衽)의 류(類)이니 선성(先聖)과 선현들이 어찌 즐겨 고향(顧饗)하겠는지요? 전폐(殿陞)를 우러러보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길게 탄식이 나올 따름이었습니다.



13 <석고배치도(石鼓排置圖)>, 46.0×55.2cm

1. 화면 오른쪽 상단에 '석고배치도(石鼓排置圖)'라고 해서처로 적혀 있음
2. 문묘의 극문(戟門) 안쪽에 단 위에 올려져 있는 석고 10개와 이를 근거로 음훈(音訓)을 고증한 내용을 검은색 돌에 새긴 것까지 그런 것이며, 검은색 돌의 하단에는 '음훈(音訓)'이라 적혀 있음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의 안료가 벗겨져 있음
4. 절첩선 중앙 하단 좌우의 일부가 해충여 의해 훼손됨



14 석고(石鼓) 발문, 45.8×5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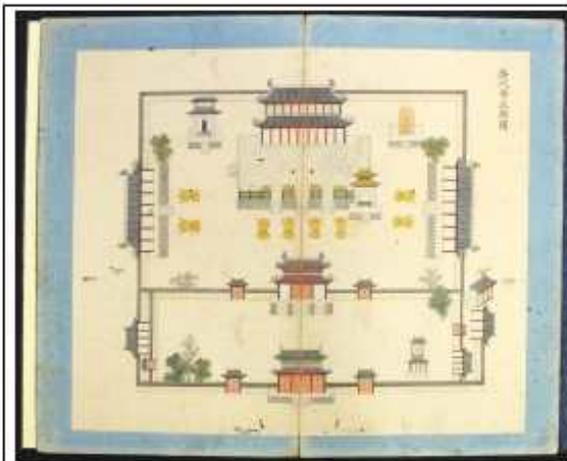
1. 석고(石鼓)의 연원과 전래 경위, 음훈(音訓)어 관한 내용을 정리 기록한 발문임
2. 글씨는 안진경의 서풍을 계승한 해서체임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져 있음
4. 절첩선 중앙 하단의 일부가 해충여 의해 훼손됨

14. 석고(石鼓)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

石鼓，世傳爲周宣王大蒐時作也。鼓凡十。唐鄭餘慶運置縣學，而亾其一，宋皇祐閒得之民間斷爲白者而後十數乃全，卽韓愈蘇軾所歌咏者也。金人輦至燕京，棄泥土中，元虞集移置 文廟戟門之內，東西各五。潘迪·歐陽玄·黃潛等，攷正音訓刻石，并列於鼓旁，頃日 聖教及此，故臣躬詣目覩，榻印一本以來，從當粧潢以進，而先寫其排置形止以備 乙覽。此係姬周舊物，閱歷灰劫，轉輸遷移，而猶能宛然獨存於二千餘年之後，摩挲往蹟，誠不勝金仙銅駝之感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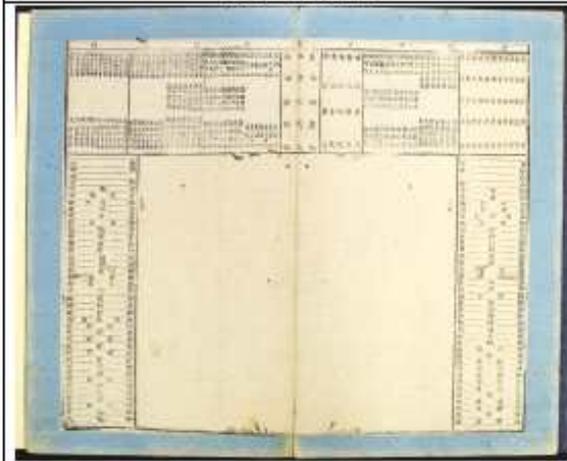
석고(石鼓)는 세상에 전하기를 주(周)나라 선왕(宣王, 재위, B.C. 827-B.C. 782)이 사냥할 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고(鼓)는 모두 10개입니다. 당(唐)나라 정여경(鄭餘慶, 745-820)이 현학(縣學)에 옮겨 두었는데 그 중 1개를 망실하였습니다. 송(宋)나라 황우연간(皇祐 1049-1054)에 민간에서 잘라 절구로 만든 것을 찾으면서 10개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유(韓愈, 768-824)와 소식(蘇軾, 1037-1101)이 노래를 지어 읊은 것입니다. 금(金)나라 사람이 수레로 연경에 가져와 진흙에 버렸고, 원(元)나라 우집(虞集, 1272-1348)이 그것을 문묘 극문(戟門) 안에 옮겨 두니 동쪽과 서쪽에 각각 5개씩입니다. 반적(潘迪), 구

양현(歐陽玄, 1283-1358), 황진(黃潛, 1277-1357) 등이 음훈(音訓) 고정(攷正)한 것을 등에 새겨 석고 옆에 나란히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성교(聖敎)가 여기에 미쳤으므로 신(臣)이 몸소 나아가 목도하고 1본을 탁본하여 가져 왔습니다. 마땅히 장황(粧潢)하여 바쳐야 하겠으나 먼저 배치된 상태를 그려서 을람(乙覽)에 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회주(姬周)의 옛 물건으로 오랫동안 열람하고 전수(轉輸)와 천이(遷移)를 하였으나 오히려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온전히 독존(獨存)할 수 있으니, 지난 자취를 상세히 살피며 진실로 금선(金仙)과 동타(銅駝)가 주는 감흥을 이길 수 없습니다.



15. <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 45.8×55.0cm

1.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음
2. 북경 부성문 안쪽에 위치한 역대제왕묘의 모습은 이필성이 계화기법으로 그림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훼손되어 있음
4. 절점선 중앙 하단의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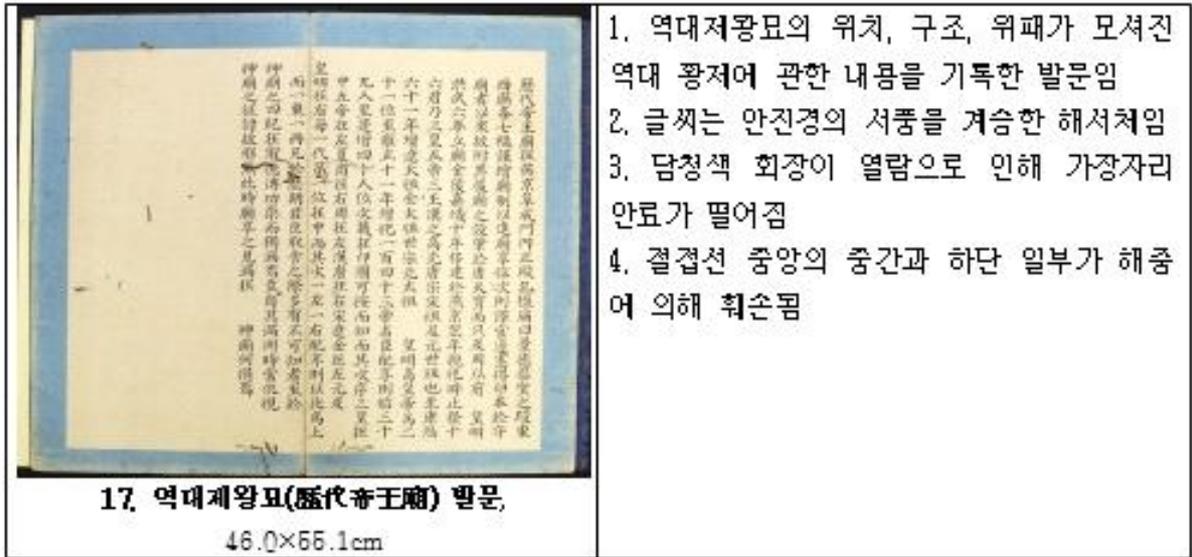
16. <역대제왕묘위차지도(歷代帝王廟位次之圖)>, 46.2×55.4cm

1. 역대제왕묘의 내부에 모셔진 역대 제왕들의 위패 순서를 인쇄한 목판본을 활용한 배반도임
2. '역대제왕묘위차지도(歷代帝王廟位次之圖)'라는 표제(標題)가 세로 1cm로 구획된 공간에 해서체로 적혀 있고, 나머지는 목판본임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짐
4. 절점선 중앙 하단의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17. 역대제왕묘(歷代帝王廟)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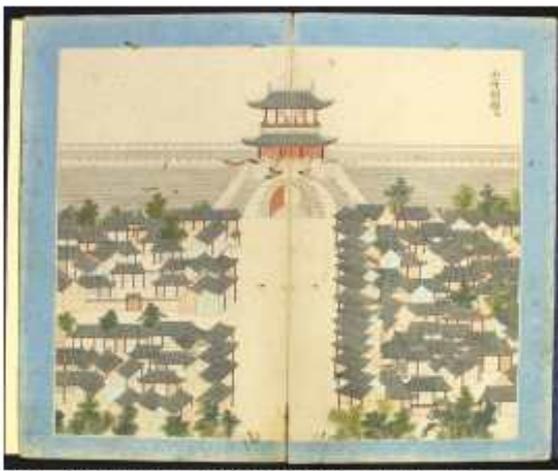
歷代帝王廟，在燕京阜成門內。正殿九楹，扁曰‘景德崇聖之殿’，東西廡各七楹。謹繪廟制以進。廟享位次，則譯官邊憲得印本於守廟者以來，故附其後。廟之設，肇於唐天寶，而只及周以前。皇明洪武六年，立廟金陵，嘉靖十年，移建於燕京，翌年親祀時止祭十六君，乃三皇五帝，三王，

漢之高光，唐宗，宋祖及元世祖也。至康熙六十一年，增遼太祖，金太祖世宗，元太祖，皇明高皇帝，爲二十一位。至雍正十一年，增祀一百四十三帝。名臣配享，則始三十九人，至是增四十人。位次載在印圖，可按而知。其次序，三皇在中，五帝在左，夏商在右，周在左，漢唐在右，宋遼金在左，元及皇明在右。每一代第一位在中，而其次一左一右配享，則以北爲上而一東一西。凡於歷朝君臣取舍之際，多有不可知者，至於神廟之四紀在宥，德溥功崇，而獨漏焉。豈自其滿洲時常仇視 神廟之征討故耶！然此時廟享之見漏，在神廟何損焉。



역대제왕묘(歷代帝王廟)는 연경 부성문(阜成門) 안에 있습니다. 정전(正殿)은 기둥이 9개 [楹]이며, 편(扁)은 ‘경덕숭성지전(景德崇聖之殿)’이라 하였습니다. 동서 무는 각각 기둥이 7개입니다. 삼가 묘제를 그려 바칩니다. 묘향(廟享)의 위치(位次)는 역관 변헌(邊憲, 1707-?)이 묘(廟)를 지키는 자에게서 인본(印本)을 얻어 왔기에 그 뒤에 첨부합니다. 묘의 설립은 당나라 천보연간(天寶, 742-756)에 시작되어 주(周)나라 이전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명나라 1373년(洪武 6) 금릉(金陵)에 묘를 세웠고, 1531년(嘉靖 10)에 연경으로 이 건(移建)하였습니다. 다음해에 황제가 직접 제사할 때 16군(君) 제사에 그쳤으니, 곧 삼황과 오제, 삼왕(三王), 그리고 한(漢)나라의 고종와 광무제, 당나라 태종, 송나라 태조 및 원나라 세조입니다. 1722년(康熙 61)에 이르러 요나라 태조와 금나라 태조와 세종, 원나라의 태조, 그리고 명나라 고황제(高皇帝)를 더하여 21위(位)가 되었습니다. 1733년(雍正 11)부터 143제(帝)로 늘려 제사하였습니다. 명신(名臣) 배향(配享)이 처음에는 39명이었으나, 이에 이르러 40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치는 인도(印圖)에 실려 있으며 그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황이 중앙에, 오제는 왼쪽에 있고 하(夏)·상(商)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주(周)는 왼쪽에 있고 한(漢)·당(唐)은 오른쪽에 있으며, 송(宋)·요(遼)·금(金)은 왼쪽에 있고 원(元)과 황명(皇明)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매번 1대(代)에서 제1위는 중앙에 있으며 그 다음부터는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배향하였으니, 북쪽을 위로 하여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배치한 것입니다. 무릇 역대 왕조의 군신(君臣) 취사(取捨)에서 알

수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48년간 인정(仁政)을 펼친 신묘(神廟)에 이르러서는 덕(德)이 광대하고 공(功)이 높았으나 혼자 누락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만주에 있을 때부터 신묘(神廟)가 정벌한 것을 항시 원수로 여긴 때문인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역대제왕묘의 제사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신묘(神廟)에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p>18. <山海關도(山海關圖)>, 46.0×55.3cm</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산해관도내(山海關圖內)'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음 2.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자리한 군사적 요충지인 산해관의 성곽 안쪽 모습은 수행화원이 필성이 그린 것임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져 있음 4. 절점선 중앙의 종간과 하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p>19. <山海關도(山海關圖)>, 46.4×55.4cm</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면의 왼쪽 상단에 '산해관도외(山海關圖外)'라고 해서체로 적혀 있음 2. 수행화원 이필성이 산해관 성벽의 남쪽 방향을 바깥에서 부감시로 포착해 그린 것이며, 왼쪽의 훼손된 성벽은 오삼계(吳三桂, 1612-1678)가 청군이 북경으로 진군할 수 있도록 무너뜨린 곳을 자랑하듯 그대로 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함 3.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훼손됨 4. 절점선 중앙의 종간과 하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20. 산해관(山海關) 발문의 원문과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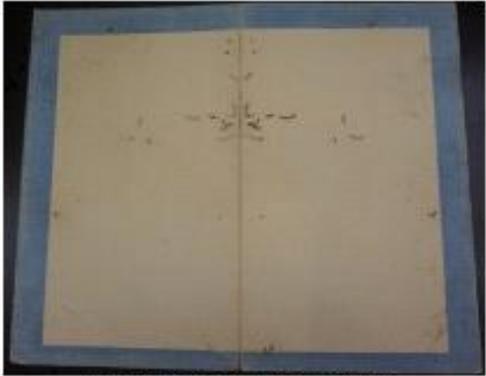
山海關，在永平府臨渝縣，卽秦城盡處也。隋開皇時築渝關，皇明洪武初，徐達承命設山海衛，此山海關之始也。關之上層，扁以‘天下第一關’，未知誰筆，世傳爲李斯書，而殊不知此城非秦築。況秦時豈有楷字耶？自關以南十里，城堞逶迤，入海十數步而止，鎔鐵以錮之，實中州之大關防也。在皇朝時盡力修飭，又於關外數百里，羅絡烟臺，戒嚴不弛。今則烟臺崩圯殆盡，間有一二餘者，可見皇朝之舊。而關南十里之城，自內視之，太半壞毀而不修，至於城南一角，有數十步全體虧缺者，此卽吳三桂請援於順治，毀城引入者也。至今不復補築。若誇示其始有天下之

迹, 而其於重關防之道, 略不致意, 豈以關外爲自己窩窟, 而視中州如逆旅而然耶? 有未可知也. 關之南北大勢, 有不可盡寫, 只從關內外所見, 各繪一本以進焉.

산해관은(山海關)은 영평부(永平府) 임투현(臨渝縣)에 있으니, 즉 진성(秦城)이 다한 곳입니다. 수(隋)나라 개황연간(開皇, 581-600)에 투관(渝館)을 건립하였습니다. 명(明)나라 홍무연간(洪武, 1368-1398) 초에 서달(徐達, 1332-1385)이 황명을 받들어 산해위(山海衛)를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산해관의 시작입니다. 관(關) 꼭대기에는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는 편액이 있습니다. 누구 글씨인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이사(李斯, B.C. 284?-B.C. 208)의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성(城)이 진(秦)나라가 건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진나라 때 어찌 해자체(楷字體)가 있었겠습니까? 관(關)으로부터 남쪽으로 10리(里)에 걸친 성점(城堞)이 구불구불 이어져 바다로 수십 보(步) 들어가 그치고 용철(鎔鐵)로 그것을 견고하게 하였으니, 실로 중주(中州)의 대관방(大關防)입니다. 명나라[皇朝] 때 힘을 다하여 정비[修飭]하였습니다. 또한 관(關) 바깥 수백 리에 걸쳐 연대(烟臺)를 설치하여 경계를 엄하게 하니 해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연대가 거의 무너졌지만, 간간이 한두 개가 남아있어 명나라 당시의 옛 모습을 살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관(關) 남쪽 10리 성(城)은 안에서 보면 태반이 허물어지고 훼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았고, 성(城) 남쪽 한 모퉁이에 이르면 수십 보(步) 전체가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삼계(吳三桂, 1612-1678)가 순치(順治)에게 구원을 청하며 성을 열고 끌어들인 곳으로, 지금까지 다시 쌓지 않았으니 마치 처음 천하를 가지게 된 사적을 과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방(關防)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소략하여 뜻을 다하지 않은 것이니, 아마도 관외(關外)를 자기들의 영역[窩窟]이라 여기고, 중주(中州)는 여행자가 머무는 곳[逆旅]과 같이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관(關)의 남북에 걸친 모든 형세는 모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만 관(關) 내외에서 본 바를 각각 1본씩 그려 바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해관의 설립 역사와 특징적 경관어 대해 설명한 발문임 2. 글씨는 안진경의 서풍을 계승한 해서체임 3. 글씨가 끝난 다음에 왼쪽 페이지의 바탕 종이가 서로 41cm, 가로 10.2cm 크기 정도가 도삭(刀削)됨 4.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벗겨져 있음 5. 절첩선 중앙의 중간과 하단 일부가 해중어 의해 훼손됨
<p>20 산해관(山海關) 발문, 46.0×66.2cm</p>	

- 《연행도첩》은 총 44면으로 어필 1점을 포함해 <심관구지도> · <문묘도> · <이륜당도> · <석고배치도> · <역대제왕묘도> · <산해관도내> · <산해관도외>의 그림 7점, 그림에 관한 경위나 내용을 기록한 발문[圖說] 5점, <선사묘전내 급동서무위차지도> · <송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 · <역대제왕묘위차지도>처럼 위패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배반도(排班圖) 3점으로 총 16점임
- 전반적으로 화첩의 절첩선을 중심으로 해충에 의해 일부가 훼손되었지만, 그림이나 글씨의 수준이 높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내용을 살피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p>21 담청색 회장이 된 여백, 529×63.4cm</p>	<p>1. 빈 여백으로 회장만 담청색으로 칠함 2. 담청색 회장이 열람으로 인해 가장자리 안료가 떨어져 나감 3. 절첩선 중앙의 상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p>
 <p>22 빈 여백, 529×63.4cm</p>	<p>1. 뒷 표지 직전 페이지로 빈 여백이며, 절첩선의 상단 일부가 해충에 의해 훼손됨 2. 화면 전반에 오염이 보이며, 특히 네 모서리 부분이 심함</p>
 <p>23 표지(뒤), 529×31.9cm</p>	<p>1. 뒷면 표지도 청록색 능화지이며, 오랜 시간의 전서과정에서 연화문 요철이 뭉개져서 희미해진 상태임 2. 표지의 청록색이 손때로 인해 어두운 편이며, 특히 하단부의 오염이 다른 곳에 비해 심한 편임</p>

○ 내용 및 특징

- 《연행도첩》은 경진년(庚辰年), 즉 1760년 11월 2일 출발해 1761년 4월 6일 한양으로 돌아온 경진동지사행의 결과를 영조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되면서 어필이 포함된 보기 드문 사례로 주목됨
- “一 瀋館 誕降舊址/ 一 帝王廟位次/ 一 太學 大成殿 明倫堂 石鼓/ 一 山海關門 (內外)”라고 적은 <영조 어필>(1점)은 화첩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목차의 성격을 지니며, 다음에 배치된 그림과 발문[圖說]은 각각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됨
- **먼저 첫 번째 영역인 <심관구지도(瀋館舊址圖)>와 발문(2점)**은 영조의 어명을 받은 홍계희(洪啓禧, 1703-1771)가 심양에서 효종이 볼모로 생활하고, 현종이 태어난 심양관에 대해 탐문한 결과 당시 우리나라 사신들이 머무는 찰원이 그 옛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의 모습과 탐문 사실을 그림과 글로 기록한 것임. 이와 함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36년 11월 2일(壬寅)조의 연행사가 하직 인사를 올릴 때, 영조가 정사 홍계희에게 “玉華關出入舊門, 世子·大君舊館, 顯廟誕降舊館”이라고 적은 어필을 내리자 반드시 그림으로 그려 오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은 발문과 함께 《연행화첩》의 제작배경을 알려줌⁵⁴⁾
- **두 번째 영역의 <문묘도(文廟圖)> · <이륜당도(彝倫堂圖)>와 배반도 <선사묘전내급동서위차지도(先師廟殿內及東西位次之圖)> · <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崇聖祀正位及配享位次之圖)> 및 발문(5점)**은 북경에 있는 대표적 유교 공간인 문묘의 정전과 이륜당의 당시 모습 및 그 위치, 그리고 정전인 선사묘전과 숭성사에서 배향하는 선현들의 위패 위치를 배반도로 상세히 전달함. 발문에서 우리나라 문묘는 6현을 제향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중국의 상황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는 내용도 포함됨.

<문묘도>는 최남단 건축물인 선사문과 최북단에 위치한 숭성사를 생략하고, 공자와 제자들을 모시는 문묘의 정전(正殿) 즉 선사묘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표현함. 따라서 선사묘전의 기둥 7개 중 6개만 그렸을 뿐만 아니라 극문(戟門) 입구 익랑의 동서에 배치된 석고 10점과 ‘석고문음훈비’가 보이지 않고, 앞 마당의 비정(碑亭) 역시 9좌(座)이지만 6좌만 그리는 등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묘사함

<이륜당도>는 우리나라 명륜당에 해당하는 이륜당은 국자감 내에 위치한 황제의 강학 공간이며, 왼쪽에는 원대 국자감 제주(祭酒) 허형(許衡, 1209-1281)이 직접 심었다고 하는 회나무[槐木]가 있고 오른쪽에는 해시계 일구(日晷)가 보임

5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36년 11월 2일(壬寅)조. “庚辰十一月初二日辰時, 上御景賢堂. 冬至三使臣入侍時, 上使洪啓禧, 副使趙榮進, 書狀李徽中, 左承旨沈境, 假注書金宅洙, 記事官李在簡·姜趾煥, 以次進伏. 上曰, 今番則使予聞河清消息也. 啓禧曰, 弓角乃彼中禁物, 而不得已出來者也. 請以咨文後出來, 似好矣. 上曰, 應來之物外, 濫雜者則申飭焉. 上親筆書下玉華關出入舊門, 世子·大君舊館, 顯廟誕降舊館, 諭啓禧曰, 此數件須畫來也.”



<선사묘전내급동서위차지도>는 문묘의 정전인 선사묘전 내부에 공자를 중심으로 안자·목자와 증가·맹자 등의 위패가 동서로 모셔진 상황을 글자로 나타낸 것임

<숭성사정위급배향위차지도>의 숭성사는 유교 성현의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나라의 계성사(啓聖祠)에 해당되며, 제향되는 위패들의 위치를 글자로 나타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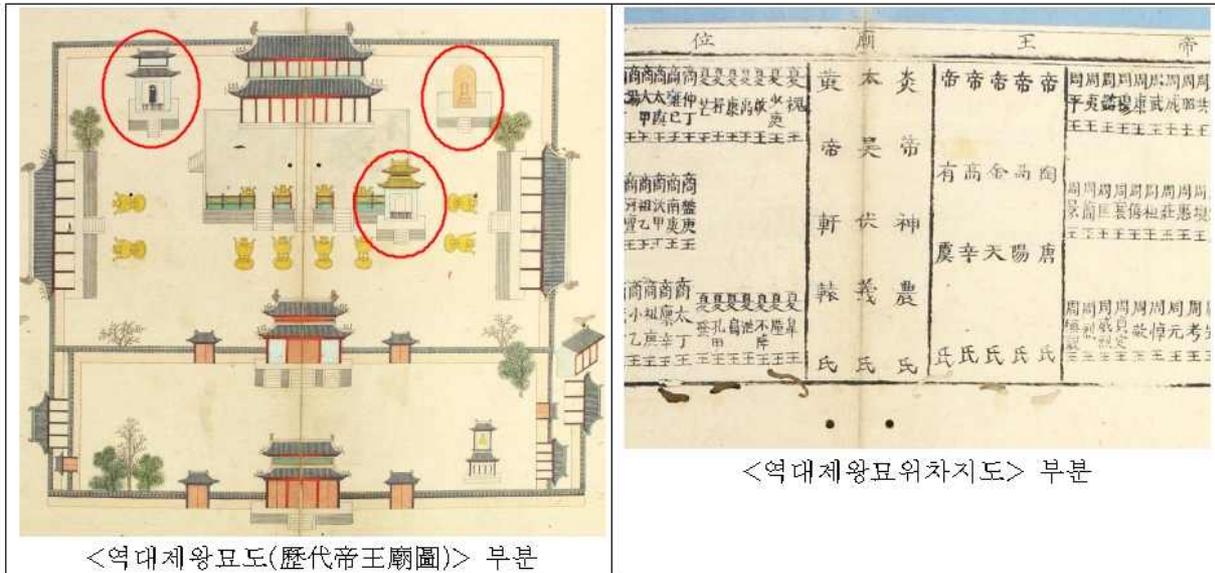
- 세 번째 <석고배치도(石鼓排置圖)>와 발문(2점)은 문묘의 극문(戟門) 안쪽에 동서로 5개씩 나뉘어 안치된 석고와 10번째 석고 옆에 ‘음훈(音訓)’이라 새겨진 검은색 비석을 함께 그린 것임. ‘석고문음훈비(石鼓文音訓碑)’는 경진동지사행의 서장관 이휘중의 아들인 이상봉(李商鳳, 1733-1810)이 지은 『북원록(北轅錄)』에 의하면 원나라 학자 반적(潘迪) 등이 식별 가능한 석고문을 예자(隸字)로 적고 글자마다 음훈을 기록한 것이라고 함



문묘의 극문 안쪽에 배치된 석고 10개

반적 등의 <석고문음훈비>

- 네 번째 <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와 배반도 <역대제왕묘위차지도(歷代帝王廟位次之圖)> 및 발문(3점)은 역대제왕묘의 모습과 1373년 금릉에 세워진 묘가 1531년 북경으로 이진된 이후 배향하는 황제들이 늘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줌. 또한 건물 내부에 모셔진 역대제왕의 위패 위치를 나타낸 인쇄본은 역관 변헌(邊憲, 1707-?)이 중국인 묘지기에게 구해왔다는 것과 명나라 신종(神宗, 재위 1573-1620)의 위패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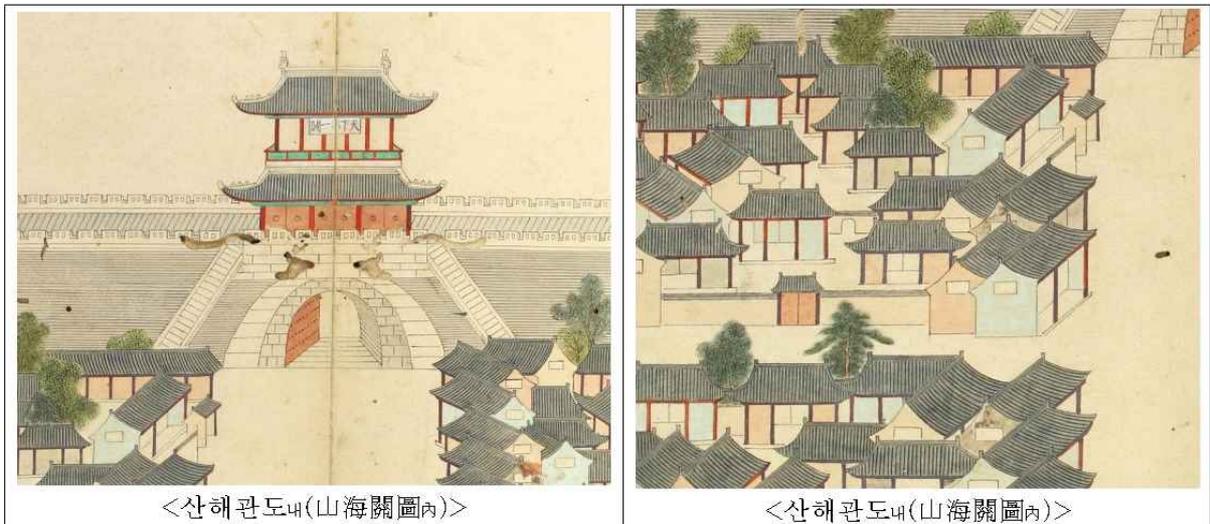
<역대제왕묘도(歷代帝王廟圖)> 부분

<역대제왕묘위차지도> 부분

<역대제왕묘도>에는 삼황오제와 역대 제왕의 위패를 모신 경덕숭성전(景德崇聖殿)을 중심으로 동서에 각각 동배전(東配殿, 역대 공신 40명 신위 봉안)과 서배전(西配殿, 웅정연간 이래의 공신 39명 신위 봉안)이 있고, 중앙을 가로지른 담장의 중앙에 위치한 경덕문(景德門)의 동서에 각문(角門)이 있으며, 화면의 동쪽 하단에는 제사 물품을 보관하는 신고(神庫)와 신주(神廚), 제례 희생물을 보관하는 재생정(宰牲亭)과 종루가 보임. 경덕숭성전 마당에는 청동향로 8기가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각을 중심으로 3기(基)의 비석이 있음. 동쪽에

비정(碑亭)이 없는 비석은 명나라 문인 왕립도(王立道, 1510-1547)가 가경제의 명을 받아 찬한 <신건역대제왕묘비(新建歷代帝王廟碑)>이며, 서쪽에 비정이 있는 것은 가정연간(嘉靖, 1521-1566)에 제작된 <무자비(無字碑)>이고, 동남쪽의 비정이 있는 비는 1733년 옹정제의 명으로 만한합문(滿漢合文)으로 새긴 <어제역대제왕묘문비(御製歷代帝王廟文碑)>임

- 다섯 번째 <산해관도내> · <산해관도외>와 발문(3점)은 연행시 산해관의 실경을 기반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관을 그린 것이며, 산해관이 홍무연간(1368-1398) 황명을 받은 서달(徐達, 1332-1385)에 의해 시작된 이후 명나라 때 주요 군사시설로 연대(煙臺)가 설치되어 국경의 경계하는 주요 군사지역이었지만 현재는 여행자가 머무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함
- <산해관도내>의 정면에 위치한 관문의 누각에 “천하제일관(天下第一關)”이라는 편액이 보이고, 성곽 내부에 즐비한 가옥으로 도시의 번성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주황색과 담청색, 회색의 미묘한 교차 사용으로 산뜻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 화원 이필성이 색채 방면에서 남다른 재능의 소유자였던 것으로 추



정됨

<산해관도외>는 산해관의 성곽 남쪽 방면을 부감시(俯瞰視)로 포착한 것이며, 이때 왼쪽의 일부 성벽이 헐린 것은 오삼계(吳三桂, 1612-1678)가 청군이 북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성벽 일부를 헐어버렸던 사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임. 이로 보아 오른쪽의 험준한 산세를 청록색과 연두색으로 묘사한 부분도 실경에 기반하였을 것이라 판단되어 <산해관도외>는 18세기 중반의 실경산수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산해관도외(山海關圖外)> 부분



<산해관도외(山海關圖外)> 부분

- 이필성(李必成, ?-?)은 영조연간에 활동한 도화서 화원이며, 그의 행적은 1757년 인원왕후(숙종의 계비)와 정성왕후(영조의 비)의 국장도감에서 처음 확인됨. 1760년의 경진동지사행 이외에 1759년 사은주청겸삼절연공사행(謝恩奏請兼三節年貢使行)과 1765년 동지사행(冬至使行)의 수행화원으로, 1773년 부사군관(副使軍官)으로 북경을 네 차례나 다녀온 것으로 보아 그림 실력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임. 1761년 《연행도첩》은 화원 이필성의 화풍을 알려주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도 가치가 있음
- 《연행도첩》에 실린 그림 7점 가운데 <문묘도> · <이륜당도> · <석고배치도> · <역대제왕묘도>는 거의 부감시와 계화기법에 의존하고 특정 경물을 생략하여 간명하게 그렸으므로 이필성의 화풍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실경을 기반으로 한 <심관구지도> · <산해관도내> · <산해관도외>는 그의 실경산수화풍과 뛰어난 색채감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연행도첩》은 7점의 그림 이외에 전각 내부에 모셔진 위패의 위치를 나타낸 배반도 3점, 그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정리 기록한 발문 5점을 추가하여 그림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도 전례가 없는 형식임
- 1761년 완성된 《연행도첩》은 영조 어람을 목적으로 제작되면서 그의 어필이 포함되고, 화원 이필성이 그린 그림과 건물 내의 위패 위치를 나타낸 배반도 및 그림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의 발문으로 그림의 이해를 충분히 돕는 특이한 형식일 뿐만 아니라 18세기 중반 실경산수화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회화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화첩임

○ 문헌자료

- 『承政院日記』 영조 36년

- 李商鳳, 『北轅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韓國歷代書畫家事典』 下, 2011.
- 박은순, 「朝鮮後期 『瀋陽館圖』 畫帖과 西洋畫法」, 『美術資料』 58, 국립중앙박물관, 1997.
- 정은주, 「1760년 庚辰冬至燕行과 《瀋陽館圖帖》」, 『명청사연구』 25, 명청사학회, 2006.
- 김영죽, 「『북원록(北轅錄)』의 1760년 북경 기록: 자제군관과 동아시아 지식인 만남의 재구성」, 『대동문화연구』 90, 대동문화연구원, 2015.

○ 기 타

- 전 국회도서관장 강주진(姜周鎭, 1917-1994)이 조선 말기 무신 이용희(李容熙, 1811-1878) 후손으로부터 구입 소장했다가, 강주진 사망 직후인 1995년 11월 7일 문우서림(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71)의 김영복 대표를 통해 현재 소장처인 명지대학교에서 구입함



I. 현 상

- 본 작품은 종이에 수묵과 채색으로 완성된 화첩이다. 소장처의 유물 보관 내역에 따르면, 1995년 11월 명지대학교 LG 연암문고가 문우서림에서 구입했다. 화첩의 크기는 앞표지를 기준으로 세로 52.9cm, 가로 31.9cm이다. 각 쪽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앞표지 : 크기는 세로 52.9cm, 가로 31.9cm이다.
 검색 종이로 장황된 표지는 일부 박락과 해충의 피해를 입은 상태다. 표지에 표제는 생략된 채 제첩 자리만 남아 있다. 제첩 부분의 크기는 길이 20cm, 폭 4.1cm다.
 - 제1쪽(1-2면) : 빈 화면이다. 절첩 부분에 대칭으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보이고, 가장자리에 얼룩이 보이는 등 일부 오염의 흔적이 있다.
 - 제2쪽(3-4면) : 빈 화면이다. 바탕 종이에 쪽빛을 칠한 흔적이 있다. 해충의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
 - 제3쪽(5-6면) : 바탕 위에 영조의 어필이 적힌 종이(43.5×54.7cm)를 붙였다. 상단 우측에 전서체로 ‘御筆’이, 해서체로 瀋館의 誕降旧址 / 帝王廟位次 / 太學의 大成殿, 明倫堂, 石鼓 / 山海關門(内外)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 제4쪽(7-8면) : 빈 화면이다. 세로 31.9cm, 가로 27.7cm 크기의 종이를 잘라 낸 흔적이 있다.

- 제5쪽(9-10면) : <瀋館舊址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cm다. 그림 가장자리를 검은 필선으로 구획했고, 그림 주변에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6쪽(11-12면) : 洪啓禧(1703-1771) 일행이 심양관 舊址를 찾은 경위 등 필사한 발문이다. 모든 문장은 해서체로 적혀 있다. 필사된 화면은 세로 46cm, 가로 55cm이며,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한 글자의 크기는 '國'을 기준으로 할 때 1.8×1.5cm이다.
- 제7쪽(13-14면) : <文廟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5.5cm, 가로 55cm이고, 화면 가장자리의 검은 필선이 생략됐으며,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8쪽(15-16면) : <彝輪堂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1cm이고, 화면 가장자리의 검은 필선이 생략됐으며,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9쪽(17-18면) : <先師廟殿內及東西廡位次之圖>다. 각각의 위차가 직사각형 안에 해서체로 적혀 나열된 도설이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1cm이고, 제재의 높이는 1cm다. 화면 가장자리는 검은 필선으로 구획됐다. 위차 주변은 쪽빛 냉은지로 둘렀다. 화면 하단에 대칭으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다.
- 제10쪽(19-20면) : <崇聖師祠正位及配亭位次之圖>다. 각각의 위차가 직사각형 안에 해서체로 적혀서 나열된 도설이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1cm, 가로 55.2cm이고, 제재의 높이는 0.9cm다. 화면 가장자리가 검은 필선으로 구획됐다. 위차 주변은 쪽빛 냉은지로 둘렀다. 화면 하단에 대칭으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다.
- 제11쪽(21-22면) : 문묘의 구성 및 문묘를 찾은 경위를 필사한 발문이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1cm, 가로 55.2cm이다. 모든 글자는 해서체로 적혀있다. 안씨 가묘비체가 활용됐다. 필사된 화면 주변에는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화면 하단에 대칭으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다.
- 제12쪽(23-24면) : <石鼓配置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1cm이고, 화면 가장자리의 검은 필선이 생략됐으며,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둘렀다.
- 제13쪽(25-26면) : 석고와 그 문장에 관한 내용을 필사한 발문이다. 그림 크기는 세로 45.8cm, 가로 55cm이다. 모든 글자는 해서체로 적혀있다. 안씨 가묘비체가 활용됐다. 필사된 화면 주변에는 쪽빛 냉은지가 둘러져 있다. 화면 하단에 대칭으로 해충의 피해 흔적이 남아있다.

- 제14쪽(27-28면) : <歷代帝王廟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5.8cm, 가로 55cm이고, 화면 가장자리의 검은 필선이 생략됐으며,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들렀다.
- 제15쪽(29-30면) : <歷代帝王廟位次之圖>다. 화면 상단의 제재는 필사됐으나 나머지 위차는 모두 목판으로 찍은 도설이다. 모든 글씨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5.8cm, 가로 55cm이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들렀다.
- 제16쪽(31-32면) : 역대제왕묘도에 관한 내용을 적은 발문이다. 모든 글씨는 해서체로 적혀 있는데, 문장의 마지막 글자인 ‘焉’자만 행서체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1cm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들렀다.
- 제17쪽(33-34면) : <山海關圖(內)>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3cm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들렀다.
- 제18쪽(35-36면) : <山海關圖(外)>다. 제재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4cm, 가로 55.4cm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들렀다.
- 제19쪽(37-38면) : 산해관과 산해관도에 관한 내용을 적은 발문이다. 모든 글씨는 해서체로 적혀 있다. 그림 크기는 세로 46cm, 가로 55.2cm다. 좌측 화면에 길이 41cm, 폭 10.2cm 크기로 바탕지를 오려낸 자국이 있다. 가지런한 필사를 위해 바탕이 표시한 제선(못자국)이 남아 있는데, 제선 한 칸의 폭은 2.8cm이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들렀다. 곳곳에 해충의 피해 흔적이 있다.
- 제20쪽(39-40면) : 빈 화면이다. 크기는 세로 45.9cm, 가로 55cm다. 주변은 쪽빛 냉은지를 들렀다.
- 제21쪽(41-42면) : 빈 화면이다.
- 뒷표지

II. 조사 내용

○ 《庚辰年 燕行圖帖》의 구성

1. 1쪽의 어필 : 영조가 사신들에게 써준 목록
2. 5쪽의 발문 : 화첩의 제작 경위 및 각 그림에 대한 부연 설명(별첨 참조)
3. 7쪽의 그림 :

① <瀋館舊址圖>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일행이 머물렀던 심관구지이자 1641년 2월 4일 심양관에서 태어난 현종의 탄강구지를 그린 그림이다. 1684년에 간행된 『盛京通志』에 따르면 심양관의 대문은 3칸으로 남향이고 문을 들어서면 5

칸의 정방과 동서 양측에 5칸씩의 廂房이 있었다. 1736년에 찬수된 『盛京通志』에 따르면, 이 무렵에는 이미 방 6칸이 무너졌다. 선학의 연구는 이 그림에 표현된 심관구지가 심양관이 아닌 찰원의 모습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文廟圖>

문묘를 그린 장면이다. 제11쪽(21-22면)의 발문에는 문묘의 위치, 구조에 관한 설명이 적혀 있다. 그림에서는 최남단의 선사문과 최북단의 숭성사가 생략됐다. 묘문을 들어서면 동쪽의 神廚, 宰特亭, 井亭과 서쪽의 神庫, 致齋所, 國子監과 持敬門이 칸수로 구분되어 있다. 선사묘는 정면 7칸 구조로 중층 처마가 드리워진 중국 최고급의 廡殿亭 형식의 건물이다. 선사묘 양 옆으로 동무와 서무가 배치됐고, 그 앞에 나무가 늘어섰으며, 비정이 각각 3좌씩 세워졌다. 조선시대 궁궐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동시점이 활용됐다. 이동시점이란 전각의 향배와 방위에 따라 세 가지 정도의 사른 시점을 혼용한 표현 방식이다. 특히 이는 부감시점과 병용된다. 선사묘의 황색 지붕 기와, 적색의 2층 목구조, 녹색의 난간이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 비정 속에 배치된 비석에는 호분이 사용됐다.

③ <彝輪堂圖>

국자감 내부에 위치한 이륜당을 그린 장면이다. 제11쪽(21-22면)의 발문에는 이륜당의 배치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륜당은 본래 황제의 강학처였다. 그러나 이륜당 앞에 벽옹이 생긴 이후부터 장서를 보관하는 곳으로 기능했다. 앞서 언급한 이동시점형 궁궐도 양식이 활용됐다. 주조색인 균청이 전나무의 녹색과 어우러져 담박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④ <石鼓配置圖>

문묘의 묘문 좌우의 문 앞에 戟門 동서에 각각 5점 씩 총 10점의 주대 석고가 배열됐고, 그 동쪽 끝에 국자감 司業이었던 愜山 潘迪 석고문음 훈비를 도해했다. 기록에 따르면 석고의 높이 3척, 직경 2척 정도의 북처럼 생긴 돌이며 빛깔은 담흑색인데 이리저리 깎여 얼룩이 남아져 있다. 그림에도 이러한 특징이 잘 묘사되어 있다. 제13쪽 발문에는 사신 일행이 석고에 새겨진 음훈을 직접 눈으로 본 뒤, 1본을 탐본하여 귀국해서 장황하여 바쳤고, 그 배치형을 그려왔다고 기록되어있는 데 이 그림이 그 배치본에 해당된다.

⑤ <歷代帝王廟圖>

연경 장성문 안에 위치한 역대제왕묘의 正殿을 그린 것이다. 당시 역대 제왕묘의 정전은 九殿이었고, 동서의 전각은 각각 7楹이었다. 다소 많은 전각과 향로 내외정을 조선시대 궁궐화에서 쉽게 목격되는 이동시점형 부감법으로 표현했다. 정돈된 구도에 주색, 대저, 등황, 백록, 청록, 연백 등의 색상을 풍부하게 사용하여 화면에 생동감을 더했다. 제16쪽에 역대 제왕묘의 구조가 자세하게 적혀 있다.

⑥ <山海關圖(內)>

중국 만리장성 동쪽 관문인 산해관성 내외에서 바라본 경관을 표현한 장면으로, 심양관과 산해관을 방문하지 못한 영조에게 그곳의 경관을 알려주기 위해 포함됐다. 화첩 발문에 “산해관 남북의 대세를 다 그릴 수 없어 산해관 안과 밖에서 본 광경을 각각 한 본씩 그려 바쳤다”고 적혀 있다. 산해관내 경관은 화면 2/3정도까지 가득 채워져 있다. 특히 뻥뻥하게 들어선 가옥들은 평행사선형 투시도법으로 표현됐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담록색의 나무들이 배치되어 거리감을 부여하고 있다. 누각의 현판에는 “天下第一門”이라고 적혀있다.

⑦ <山海關圖(外)>

산해 관문과 성벽을 관문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렸다. 동쪽 성류 옆에 부서진 채 방치된 성벽이 있는데, 발문에 “관의 남으로 10리의 성 안에서 그것을 보면 태반이 훼손됐으나 수리하지 않았고 성 남쪽 한편에 이르면 수 십보 전체가 훼손된 것이 있다. 이는 吳三桂(1612-1678)가 순치 황제에게 구원을 청하여 성을 헐고 들어간 것인데 지금까지 다시 보충하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관문과 성곽의 사실적인 표현과 달리 성문 앞의 정경은 다소 생략됐다. 물가를 따라 수양버들이 연이에 표현되어 서정적 분위기를 자아낸 반면, 관문은 웅장하게 표현되어 물가 표현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건물 묘사에서 서양화법이 일부 도입되어 명암과 입체감이 드러난다.

4. 3쪽의 도설 :

① <先師廟殿內及東西位次之圖>

선사묘 내부에 향사된 신위를 표시한 도설이다. 먼저 ‘至聖先師孔子之位’라는 공자의 신위가 주향했고, 안회 자사 증삼 맹자 등 사배가 배향했으며, 동무과 서무에 성현 12철이 종향했다.

② <崇聖師社正位及配亭位次之圖>

1530년 공자 오대 선조의 가묘로 건립된 숭성사의 전당 내부를 도해한 도설이다.

③ <歷代帝王廟位次之圖>

역대 제왕묘의 정전인 경덕숭성전 7실에 중국의 역대 제왕과 동서배전에 공신의 신주 순서를 도면으로 기록한 도설이다.

○ 《庚辰年 燕行圖帖》의 제작 배경 및 사료적 가치

홍계희를 정사로 한 경진동지사절단이 영조에게 그려 바친 화첩이다. 이 화첩이 제작된 경위는 『승정원일기』 영조 36년 11월 2일조에 적혀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760년 11월 영조는 경현당에서 정사 홍계희 이하 동지 삼사를 인견하여 심양의 조선관 출입을 지시하면서 소현세자와 봉림 대군이 기거하던 구관, 현종이 탄강한 구관 등을 그려오라고 친필로 하명했다.

병자호란 이후 17세기 초, 조선과 청의 민감한 대외 관계 속에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머물던 심양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청이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삼학사 이하의 관원 180명을 인질로 삼아 청의 수도 심양으로 압송했고, 이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일행이 만 8년간 심양 조선관에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현종은 봉림대군이 당시 유폐됐던 심양관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영조에게 심양관은 효종과 현종 양대 선조가 겪은 고난과 청에 대한 모욕감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영조는 현종 탄강 1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홍계희에게 심양관 방문을 지시한 것이다.

홍계희 일행이 심양관을 찾았을 때 이미 옛 자취는 사라졌고 당시 덕성문 내 동쪽 첫 번째 거리에 있는 찰원이 과거 심양관의 구지임을 파악했다. 이미 오래 전에 찰원의 중수가 마무리되어 과거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홍계희 일행은 변함없는 위치에 중수된 찰원의 모습을 그려 영조의 뜻에 부응했던 것이다.

『北轅錄』에 의하면 홍계희 일행은 1761년 2월 29일에 심양에 들어가 찰원을 지났다. 화첩에도 현종이 탄강한 지 120년 후인 1761년 2월 심양관 옛터를 다시 찾았다는 내용이 있어 『북원록』의 기록을 뒷받침할뿐더러 이 화첩의 제작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 《庚辰年 燕行圖帖》 그림의 필자

이 화첩에 수록된 그림의 필자는 화원 이필성으로 판단된다. 『북원록』에 의하면 화원 이필성은 折衝將軍의 직책으로 동지사행에 동참했다. 절충장군은 정3품의 당상관 서반직인데 화원에게는 이례적으로 부여된 직책이었다. 그는 1757년 인원왕후와 정성왕후의 국장도감의궤에도 참여했고, 1759년과 1762년 영조 정순왕후와 정조 효의왕후의 가례도감의궤 제작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 화첩을 그린 화원은 홍계희 동지사 일행이 연행 시 대동했던 이필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庚辰年 燕行圖帖》의 미술사적 의의

이 화첩에 수록된 그림은 크게 산수를 중심으로 한 실경산수화와, 건물의 배치와 시각적으로 기록한 궁궐도로 나눌 수 있다. 조선왕실의 궁궐도에서 목격되는 이동시점형 부감법과, 새로운 계획의 화법인 평행사선형 투시도법이 동시에 사용됐다. 특히 후자의 경우 서양 원근투시도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변형한 방식이다. 채색 사용에 있어서도 18세기 중반 궁중기록화에서만 볼 수 있는 명도와 채도가 높은 옥색이 사용되어 궁중회화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현 학계에서 유통되는 이 화첩의 작품명은 《瀋陽館圖帖》, 《燕行圖帖》 등 다양하다. 《瀋陽館圖帖》의 경우, 심양관 장면이 <瀋館舊址圖> 한 폭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치 않고, 《燕行圖帖》의 경우, 타 연행도첩과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첩은 경진 동지사행에 관한 시각적 기록이므로, 《庚辰年 燕行圖帖》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별첨_ 화첩에 수록된 발문과 번역문

· 제6쪽(11-12면)

臣於 陛辭之日, 伏承瀋 館舊址審察之 命, 臣去來之路, 留心訪問, 而天星累周, 棟宇累易, 百年往事, 漠然無徵. 而以諸譯所傳揆之, 則要不出於見今本國使行所留察院之址也. 故相臣金昌集使燕時, 其弟教官臣昌業隨之, 其『日錄』言“故通官金四傑之母, 曾在館底, 常言此乃丁丑後 朝鮮質子所接之家, 世子館則今衙門是其地云.” 衙門, 卽察院也, 此可見察院之爲其時舊址. 且聞臣行所帶首譯李挺燾之言, 挺燾曾祖同知翊臣, 與故郡守金孝純爲友壻, 孝純無子, 以挺燾祖萬戶明錫爲侍養子, 奉其祀, 挺燾有得之於家閒傳說者矣. 丁丑冬, 孝純因販賣入瀋留住 館門牆外, 夜寒不能寐, 偶發謳歌. 孝廟使人問之, 卽招至, 見其身手之好, 且聞其爲武種, 仍令留侍左右, 遂與八壯士之列. 挺燾父宇芳爲譯舌, 孝純臨老每謂宇芳曰“汝於燕行, 必過瀋陽矣. 南門內東邊第一街, 卽故瀋

館遺址，汝其識之”，仍泣說當時事云。卽今察院，在德盛門<南之左門>內東邊第一街，以此推之，察院之爲其時舊址益明矣。聞察院之重修，在十數年前，見在屋制，雖無關於故蹟，而其坐地，既係舊館所在，故謹畫察院一本以進。仍伏念我孝廟淹恤于斯，險阻艱難，亦既備嘗，我顯廟誕降于斯，靈光休瑞，若有不偶，而先王之志事未遂，人間之歲月頻更。顧臣等於百二十年之後，乃以辛巳二月復過此地，俯仰歔歔，百感交集，不知所以爲懷也。

臣이 임금님을 뵈옵고 조정을 떠나 使行을 가던 날에 엿드려 삼가 瀋館의 舊址를 자세히 살피라는 命을 받들었습니다. 臣은 왕래하는 길에 유념하여 찾아가서 물었습니다만 세월이 오래되어 건물도 누차 바뀌었고, 백 여 년 전의 일이라 漠然하여 徵驗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譯官들이 전하는 바로 살펴보면, 요컨대 현재 本國의 使行이 머무는 察院의 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옛 相臣 金昌集(1648-1722)이 燕京으로 使行을 갔을 때 그의 아우 金昌業(1658-1721)이 子弟教官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日錄』에 “ 옛 通官 金四傑의 어머니가 일찍이 이 館에 살면서 늘 말하기를 ‘이곳이 곧 丁丑(1637년) 후 조선의 인질들이 거처하던 곳이며, 世子館은 지금의 衙門이 그곳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衙門은 곧 察院이니, 이를 통해 察院이 그 당시(심관)의 舊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臣 使行의 首譯인 李挺燾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李挺燾의 증조부인 同知 李翊臣과 옛 郡守 金孝純은 友壻로서, 金孝順이 아들이 없자 李挺燾의 祖父인 萬戶 李明錫을 侍養子로 삼아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 李挺燾는 그 집안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즉 丁丑年 겨울 金孝純이 장사 차 瀋陽에 들어가 館門 담장 밖에서 머물렀을 때, 밤의 寒氣로 잠을 이룰 수 없어 우연히 謳歌를 불렀는데 孝廟께서 사람을 시켜 물어보시고 곧 불러들여 그가 身手가 좋음을 보시고 또 그가 武種임을 들으시고는 발탁해 좌우에서 侍衛하게 하니 드디어 八壯士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李挺燾의 아버지 李宇芳은 譯官이 되었는데, 金孝純은 늙었을 때 매양 李宇芳에게 “네가 燕行을 할 때에는 반드시 瀋陽을 지날 것이다. 南門 안 동쪽 첫 번째 골목이 곧 옛 瀋館 遺址이니, 너는 그것을 잘 기억하도록 해라.”라고 말하고서 곧 울면서 당시의 일을 얘기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察院은 德盛門 안 동쪽 첫 번째 골목에 있으니, 이로서 미루어 보건대, 察院이 그 당시의 舊址였음은 더욱 분명한 것입니다.

듣건대 察院의 重修가 십 수 년 전에 있었다고 하니, 현재 남아있는 건

물들[屋制]은 비록 古蹟과는 무관하나, 그 위치는 옛 館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察院 한 本을 그려서 바칩니다. 이에 엮드려 삼가 생각건대, 우리 孝廟께서 이곳에서 오래도록 憂患을 겪으셨고 險阻와 艱難을 또한 이미 남김없이 다 받으셨으니, 우리 顯廟께서 이곳에서 誕降하셔서 靈光과 休瑞가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듯합니다. 先王께서 뜻하신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간 세상의 해와 달은 빈번히 바뀌었습니다. 돌아보건대 臣 등은 백 이십 년 후 곧 辛巳(1761)년 2월 다시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俯仰하며 탄식하니 萬感이 교차하여 마음 들 곳을 모르겠습니다.

· 제11쪽(21-22면)

文廟, 在燕京安定門內國子監之東. 正殿七楹, 題曰‘先師廟’. 東·西兩廡, 各十九楹, 又祭器庫在東, 樂器庫在西. 碑亭列丹墀中, 前爲廟門, 卽列置石鼓之戟門. 皇明後歷科進士題名碑列廟門外, 旁爲持敬門, 殿後有崇聖祠, 卽啓聖廟也.

殿西北有彝倫堂, 卽明倫堂也. 堂左右有繩愆·博士二廳及率性·修道·誠心·正誼·崇志·廣業六堂. 文廟及彝倫堂之制, 依樣繪畫以進. 文廟殿內與東·西廡位次及崇聖祠位次, 亦作圖并附焉.

曾於我 國陞配六賢之時, 聞彼已先之矣. 今見殿內從享十哲外, 只以有子及朱子陞配, 而周·程·張·邵五賢, 則依舊在東·西廡, 始知前聞之差爽也. 先聖五代之追封王爵并享崇聖祠, 在雍正癸卯云. 周·程·張四賢, 尙在廡享, 而乃以其考配于崇聖祠, 蔡九峯旣稱先儒, 視四賢又有差等, 而西山亦與焉. 皆未可曉也. 學制享祀, 修舉頗勤. 然位版題字之旁, 必以清書註之, 且奉籩豆而考筭籩者, 皆抹額·左衽之類, 則 先聖先賢, 其肯顧饗於斯耶? 瞻望殿陞, 不覺長吁而已.

文廟는 燕京 安定門 안 國子監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正殿은 7楹으로서 題하여 ‘先師廟’라고 하였습니다. 東·西 兩廡는 각각 19楹입니다. 또한 祭器庫가 동쪽에 있고, 樂器庫가 서쪽에 있습니다. 碑亭들은 丹墀 가운데에 줄지어 있습니다. 앞은 廟門이니, 즉 石鼓들을 줄지어 배치한 戟門입니다. 皇明 以後 歷科進士題名碑들이 廟門의 바깥에 줄지어 있습니다. 옆은 持敬門이고, 殿 뒤편으로 崇聖祠가 있으니, 즉 啓聖廟입니다. 殿의 서북쪽에 彝倫堂 즉 明倫堂이 있습니다. 堂의 좌우에는 繩愆廳과 博士廳의 二廳 및 率性堂·修道堂·誠心堂·正誼堂·崇志堂·廣業堂의 6堂이 있습니다. 文廟와 彝倫堂의 생김새는 양식에 따라 그려서 바칩니다. 文廟殿 안과 東·西 兩廡의 位次 및 崇聖祠의 位次 또한 圖를 그려서 함께 첨부합니다.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六賢을 陞拜할 때 그들이 이미 앞서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殿 내부를 살펴보니 十哲을 從享한 외에는 다만 有子와 朱子만을 陞拜하고 周敦頤·程顥·程頤·張載·邵雍의 五賢은 옛 그대로 東·西廡에 두고 있어서, 비로소 전에 들었던 것이 착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先聖의 五代에게 王爵을 追封하고 아울러 崇聖祠에 祭享한 것은 雍正 癸卯(1723)年에서라고 합니다. 周敦頤·程顥·程頤·張載의 四賢은 여전히 廡에서 祭享하지만 곧 그들의 考를 崇聖祠에 配享하고 있었고, 蔡九峯은 이미 先儒라 稱하고 있으나 四賢에 비하면 또한 差等이 있는데 西山이 또한 거기에 들었습니다.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學校의 제도에서 享祀함에는 修學함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位版의 題字의 옆에는 반드시 淸書로 주석을 달았고, 또한 籩豆를 받들고 筓簋를 살피는 자들은 모두 抹額과 左衽의 類이니 先聖과 先賢들이 이에 즐겨 顧嚮하겠는지요? 殿陞를 우러러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길게 탄식이 나올 따름이었습니다.

· 제13쪽(25-26면)

石鼓, 世傳爲周宣王大蒐時作也. 鼓凡十. 唐鄭餘慶運置縣學, 而亾其一, 宋皇祐間得之民間斷爲亾者而後十數乃全, 卽韓愈蘇軾所歌咏者也. 金人輦至燕京, 棄泥土中, 元虞集移置 文廟戟門之內, 東西各五. 潘迪·歐陽玄·黃潛等, 攷正音訓刻石, 并列於鼓旁, 頃日 聖教及此, 故臣躬詣目覩, 榻印一本以來, 從當粧潢以進, 而先寫其排置形止以備 乙覽. 此係姬周舊物, 閱歷灰劫, 轉輸遷移, 而猶能宛然獨存於二千餘年之後, 摩挲往蹟, 誠不勝金仙銅駝之感也.

石鼓는 세상에서 전하기를 周나라 宣王(재위, B.C. 827-B.C. 782)이 大蒐할 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鼓는 모두 10개입니다. 唐나라 鄭餘慶(745-820)이 縣學에 옮겨두었는데 그 중 한 개를 亡失하였습니다. 宋나라 皇祐(1049-1054) 연간에 民間에서 잘라서 亾로 만든 것에서 그것을 얻었으니, 그런 후에 十數가 곧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韓愈(768-824)와 蘇軾(1037-1101)이 노래지어 읊은 바의 것입니다. 金나라 사람이 수레로 燕京에 가져와서 泥土 중에 버렸는데, 元나라 虞集(1272-1348)이 그것을 文廟戟門의 안에 옮겨 두었으니 동쪽과 서쪽에 각각 다섯 개씩입니다. 潘迪, 歐陽玄(1283-1358), 黃潛(1277-1357) 등이 音訓을 攷正한 것을 돌에 새겨 石鼓들 옆에 함께 배열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聖教가 여기에 미쳤으므로, 臣이 몸소 나아가 目睹하고 한 本을 榻本[榻印]하여 가져 왔습니다. 마땅히 粧潢하여 바쳐야 하여야 하겠으나 먼저 配置한 形止를 그려서 乙覽에 대비

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姬周의 옛 물건으로서, 灰劫과 轉輸와 遷移를 閱歷하였으나 오히려 이 천 년이 흐른 뒤에도 宛然히 獨存할 수 있었으니, 지난 자취를 어루만짐에 진실로 金仙과 銅駝이 주는 감흥을 이기지 못합니다.

· 제16쪽(31-32면)

歷代帝王廟, 在燕京阜成門內. 正殿九楹, 扁曰‘景德崇聖之殿’, 東·西廡各七楹. 謹繪廟制以進. 廟享位次, 則譯官邊憲得印本於守廟者以來, 故附其後.

廟之設, 肇於唐天寶, 而只及周以前. 皇明洪武六年, 立廟金陵, 嘉靖十年, 移建於燕京, 翌年親祀時止祭十六君, 乃三皇五帝, 三王, 漢之高·光, 唐宗, 宋祖及元世祖也. 至康熙六十一年, 增遼太祖, 金太祖·世宗, 元太祖, 皇明高皇帝, 爲二十一位. 至雍正十一年, 增祀一百四十三帝. 名臣配享, 則始三十九人, 至是增四十人. 位次載在印圖, 可按而知.

其次序, 三皇在中, 五帝在左, 夏·商在右, 周在左, 漢·唐在右, 宋·遼·金在左, 元及 皇明在右. 每一代第一位在中, 而其次一左一右配享, 則以北爲上而一東一西. 凡於歷朝君臣取舍之際, 多有不可知者, 至於 神廟之四紀在宥, 德溥功崇, 而獨漏焉. 豈自其滿洲時常仇視 神廟之征討故耶! 然此時廟享之見漏, 在神廟何損焉.

歷代帝王廟는 燕京 阜成門 안에 있습니다. 正殿은 9楹인데 扁하여 ‘景德崇聖之殿’이라고 하였습니다. 東·西廡는 각각 기둥이 일곱 개입니다. 삼가 廟制를 그려서 바칩니다. 廟享의 位次는 譯官 邊憲(1707-?)이 廟를 지키는 자에게서 印本을 얻어서 가져 왔기에 그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廟의 설립은 唐나라 天寶(742-756) 연간에 시작되었는데 다만 周나라 이전에만 미쳤습니다. 皇明 洪武 6년(1373년)에 金陵에 廟를 세웠고, 嘉靖 10년(1531년)에 燕京으로 移建하였습니다. 그 다음해에 황제가 친히 祭祀할 때 16君을 제사하는데 그쳤으니, 곧 三皇과 五帝, 三王, 그리고 漢나라의 高祖와 光武帝, 唐나라 太宗, 宋나라 太祖 및 元나라 世祖입니다. 康熙 61년(1722년)에 이르러 遼나라 太祖와 金나라의 太祖와 世宗, 元나라의 太祖, 그리고 皇明 高皇帝를 더하여 21위가 되었습니다. 雍正 11년(1733년)에 143帝를 增祀하였습니다. 名臣을 配享한 것은 처음에는 39人이었는데 이에 이르러서 40人을 더하였습니다. 位次는 印圖에 실려 있으므로 그 次序를 살펴보아 알 수 있습니다. 三皇이 중앙에 있으며, 五帝는 왼쪽에 있고 夏·商은 오른쪽에 있으며, 周는 왼쪽에 있고 漢·唐은 오른쪽에 있으며, 宋·遼·金은 왼쪽에 있고 元과 皇明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每一代에서 第一位는 중앙에 있으며 그

다음부터는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配享하였으니, 북쪽을 上으로 하여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배치한 것입니다. 무릇 歷朝의 君臣을 取捨함에 있어서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48년간 仁政을 펼쳤던 神廟에 이르러서는 德이 광대하고 功이 높았으나 유독 누락시켰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滿洲에 있을 때부터 神廟가 征討하였던 것을 항상 仇視한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廟享이 누락되었다 한들 神廟에 무슨 손상이 되겠습니까?

• 제19쪽(37-38면)

山海關，在永平府臨渝縣，卽秦城盡處也。隋開皇時築渝關，皇明洪武初，徐達承命設山海衛，此山海關之始也。關之上層，扁以‘天下第一關’，未知誰筆，世傳爲李斯書，而殊不知此城非秦築。況秦時豈有楷字耶？自關以南十里，城堞逶迤，入海十數步而止，鎔鐵以錮之，實中州之大關防也。在皇朝時盡力修飭，又於關外數百里，羅絡烟臺，戒嚴不弛。今則烟臺崩圯殆盡，間有一二餘者，可見皇朝之舊。而關南十里之城，自內視之，大半壞毀而不修，至於城南一角，有數十步全體虧缺者，此卽吳三桂請援於順治，毀城引入者也。至今不復補築。若誇示其始有天下之迹，而其於重關防之道，略不致意，豈以關外爲自己窩窟，而視中州如逆旅而然耶？有未可知也。關之南北大勢，有不可盡寫，只從關內外所見，各繪一本以進焉。

山海關은 永平府 臨渝縣에 있으니, 곧 秦城이 다한 곳입니다. 隋나라 開皇(581-600) 때에 渝館을 건축하였습니다. 皇明 洪武(1368-1398) 初에 徐達(1332-1385)이 命을 받들어 山海衛를 설치하였으니, 이것이 山海關의 시작입니다. 關의 上層에 ‘天下第一關’이라 扁額하였습니다. 누구의 글씨인지 알지 못하나 세상에서는 李斯(B.C. 284?-B.C. 208)의 글씨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城이 秦나라가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물며 秦나라 때에 어찌 楷字體가 있었겠습니까? 關으로부터 南쪽으로 10리에 걸쳐 城堞이 구불구불 이어져서 바다로 數十步 들어가 그쳤으며, 鎔鐵로써 그것을 견고하게 하였으니, 실로 中州의 大關防입니다. 皇朝 때에는 힘을 다하여 修飭하였으며, 또한 關 바깥 數百里에 걸쳐 烟臺를 羅絡함으로써 경계를 엄하게 하여 해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烟臺가 거의 다 崩圯하였고 간간히 한두 개 남은 것이 있어 皇朝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關 남쪽 十里의 城은 안으로부터 보면 태반이 허물어지고 훼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았고, 城 남쪽 한 모퉁이에 이르면 數十步 전체가 虧缺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吳三桂(1612-1678)가 順治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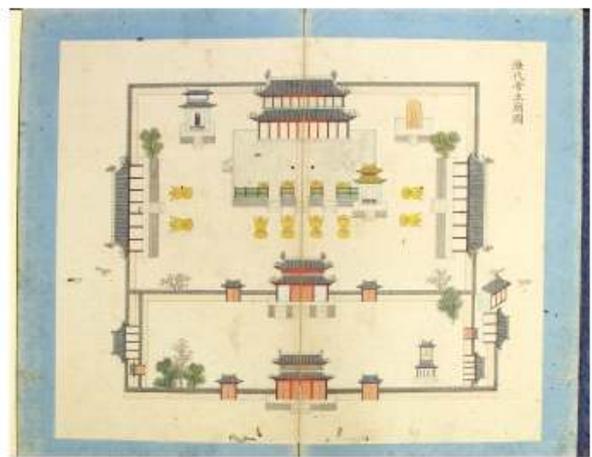
게 구원을 청하여 城을 헐고 끌어 들인 곳인데 지금까지 다시 補築하지 않았으니 마치 그 처음 천하를 가지게 된 사적을 과시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關防을 중시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소략하여 뜻을 다하지 않은 것이니, 아마도 關外를 자기들의 窩窟로 여기고, 中州는 逆旅와 같이 보아서 그런 것인지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關의 南北 大勢는 다 그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關의 內·外로부터 본 바를 각각 한 本씩 그려서 바칩니다.

IV. 참고문헌 및 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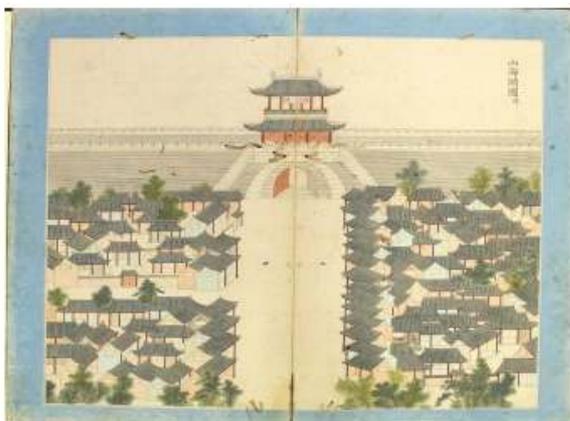
- 『승정원일기』
- 박은순, 「朝鮮後期 『瀋陽館圖』 畫帖과 西洋畫法」, 『미술자료』58, 국립중앙박물관, 1997
- 정은주, 「1760년 庚辰冬至燕行과 《瀋陽館圖帖》」, 『명청사연구』25, 명청사학회, 2006



<도 1> 영조 어필



<도 2> 역대제왕묘도



<도 3> 산해관도 내



<도 4> 산해관도 외



○ 현 상

1760~1761년의 동지사행과 관련하여, 사행 여정에 포함된 장소 중 영조가 친히 그려오라 지시한 곳의 그림과 관련 자료 및 기록을 모은 화첩. 표지와 앞뒤 면지를 제외한 내지 17면[영조 어필 1면, 어필 다음의 빈 면이 1면, 그림 7면, 배반도 3면, 그림과 관련된 글 5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재질은 전체 종이로, 어필부터 다음의 빈 면을 포함하여 마지막 글까지 내지 17면은 청색으로 회장을 둘러 장황하였다. 회장을 제외한 각 면의 크기는 화면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략 가로 55cm, 세로 46cm 내외이다. 앞표지의 면지는 전체 청색이며, 뒷표지의 면지는 흰 면이다. 표지는 전체적으로 연화능화문이 압출된 두꺼운 진녹색 장지이다. 앞표지 좌상단에 제첩이 있는데, 마모되어 거의 보이지 않으나 글씨의 흔적이 있다. 표지 우하단에 종이를 붙였다 떼어낸 흔적이 있으며, 남아 있는 아래쪽 종이 자국에 도장 일부가 찍혀져 있으나 인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화첩은 전반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화첩 여러 면을 관통하여 좀먹은 자국이 여러 군데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화첩 전반부는 주로 중앙 하단부, 화첩 후반부는 주로 중앙 상단부의 그림과 글씨 일부에 결손이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표지는 가장자리와 모서리에 충식과 마모로 인한 결손이 약간 있다.

충식 이외에 화첩 하단면에 습해가 있으며, 청색 회장지 외변을 따라 약 0.7mm 정도의 일정한 폭으로 색바래미 있고, 약간의 마모가 있다. 뒷표지의 면지 네 귀퉁이에 손때가 심하며, 어필면의 제목과 마지막 행, 심관구지도의 제목 옆에 연필 글씨가 있다. 어필 다음의 빈 면 우측 하부에 가로 27.5cm, 세로 31.5cm 정도로 바탕 종이를 오려낸 자국이 있고, 내지 마지막 면 글의 끝행 바로 왼쪽에 폭 10cm 정도로 길게 오려낸 자국이 있다. 연유는 알 수 없다. 이외에는 큰 오염이나 가필, 가채로 인한 훼손이 거의 없으며, 당시의 장황을 개장하지 않아 화첩 전체적으로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1) 영조어필: ‘一 瀋館 誕降舊址, 一 帝王廟位次, 一 太學 大成殿明倫堂 石鼓, 一 山海關門’이라 적혀 있다. 목록 형식의 이 글은 『승정원일기』 영조 36년(1760) 11월 2일(壬寅)의 기록에 의해, 영조가 직접 써서 사행단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영조가 동지정사 洪啓禧(1703-1771)에게 이 글을 주면서 그림을 그려오도록 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행단은 영조의 명을 받들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화첩으로 꾸미면서, 이 일의 시

행에 근거가 된 영조의 글을 첫머리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화첩 크기에 맞추기 위해, 종이 아래에 별지를 대어 화면을 늘여 배접하였다. 화면 우상단 귀퉁이에 쓴 ‘御筆’ 글씨는 화첩을 꾸밀 때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빈 면: 다른 면과 같이 청색 회장지를 들렀으나 아무 내용이 없는 빈 면이다. 비워 둔 이유는 알 수 없다.

3) 瀋館舊址圖: 심양관은 주지하듯이 병자호란으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 황실에 볼모로 가 1637년부터 1645년 2월까지 거했던 곳이었다. 훗날 효종이 된 봉림대군의 장자 현종이 심양관에서 태어났기에, 이듬해 현종 탄강 120주년(1761)을 앞둔 영조는 경진년(1760) 冬至使 일행을 불러 ‘玉華館 出入舊門’, ‘世子大君舊館’, ‘顯廟誕降舊館’이라고 상세히 지시하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했다(『승정원일기』). 사신들이 심양에 도착하여 찾아갔을 때 심양관은 이미 없어진 후였기에, 그 자리에 새로 세워진 察院을 심양관 대신 그린 것이 이 그림이다. 우측변 상단에 ‘瀋館舊址圖’라고 제목을 적었다. 그림은 찰원의 전체 모습과 주변의 도로, 가옥들을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려졌다. 정면 7칸의 계단이 있는 건물과 우측 정면 6칸의 건물을 사각형으로 둘러싼 담장과 대문, 좌측 모퉁이에 있는 또 하나의 문이 찰원의 주요 건물인 듯하다. 본관 건물과 대문, 대문이 있는 담장은 정면이나, 우측 건물과 내부 담장은 바깥으로 눕혀진 것처럼 그려졌다. 기타 주변의 건물은 정면 또는 좌·우측사면으로 그려져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건물의 생김새가 비교적 일정하고 배치가 정연하며, 필선이 곧고 흐트러짐이 없는 단정한 界畫의 필치를 보여준다. 지붕은 먹으로 얹게 칠하고 기왓골을 가지런하게 넣었으며, 기둥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벽면은 담홍, 담록으로 연하게 담채하였다. 찰원의 대문은 적갈색으로 채색하여 두드러진다.

4) 글: 앞면의 〈심관구지도〉에 대한 일종의 보고문이다. 글 첫머리에 ‘臣’을 쓴 것으로 보아 화첩의 열람자는 영조였음이 분명하다. 이로써 이 화첩은 어명에 대한 일종의 결과 보고로서 제작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조 어필에 적힌 목록은 심관 탄강구지, 즉 심양관에 있던 현종의 탄생 장소였다. 그러나 심양 현지에 가보니 옛 건물은 이미 없어졌기에, 같은 위치에 세워진 찰원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당시의 찰원이 옛 심관 자리임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글의 상당 부분은 여러 근거를 들어 이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었다. 또한 현재 찰원의 건물 구조는 옛 자취와는 무관하며 다만 그 위치가 심관의 소재와 연관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의 제목에 영조의 목록과는 달리 ‘탄강’을 쓰지 못하고 그저 심관 구지, 즉 심관의 옛터라고 붙인 이유가 될 것이다.

5) 文廟圖: 북경에 있는 공자의 사당인 文廟(先師廟)를 그린 그림이다. 문묘는 전

체 공간구조로 볼 때 남쪽의 先師門으로 들어가 廟門을 통해 正殿(大成殿)에 이르도록 건축되었다. 정전 북쪽에는 공자의 선조를 모신 崇聖祠가 있다. 國子監의 동쪽에 위치한 문묘는 선사문 안 서쪽의 持敬門을 통해 국자감과 이어진다. 그림에서는 지경문에서 들어와 위로 꺾여 묘문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하였고, 남쪽의 선사문은 생략한 채 담장만을 그리고 문 안 공간을 침엽수로 무성하게 채웠다. 정전으로 들어가는 묘문은 중층의 매우 화려한 문으로 문 양측 翼廊에 石鼓가 배열되어 있으나 그림에서는 생략하였다. 묘문 안 정전 앞마당에는 좌우로 碑亭이 늘어서 있고 비정 양옆으로 침엽수를 정연하게 그려 넣었다. 월대 위에 세운 정전은 중층 건물에 현관이 걸려 있는 모습이다. 문묘를 설명하는 제9면의 글에 적은 ‘先師廟’ 현판일 것이다. 정전의 양옆으로 회랑처럼 이어진 건물은 東西 兩廡로 유교의 先賢, 先儒를 배향하는 공간이다. 글에는 이외에도 동쪽 祭器庫, 서쪽 樂器庫, 묘문 밖 歷科進士題名碑, 정전 뒷편의 숭성사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림에는 보이지 않는다. 문묘 정전과 동서 양무에 모신 인물들은 따로 排班圖 형식으로 도해하여 수록하였다. 그림은 문헌의 圖說 등에 그려지는 전형적인 건물 그림의 형식을 따라 간결하면서도 정연하게 그려졌으나, 동서편 건물을 바깥으로 눕혀 표현하였고, 묘문 담장 양끝과 동서 양무의 지붕이 이어지는 곳 등은 실제 공간 구조와 무관하게 관념적,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등 현장 기록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간을 시각적으로 정확히 재현하려는 의도는 거의 없다. 기록에는 정전의 건물 규모를 7楹(칸에 해당)으로, 동서 양무를 19영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림과는 맞지 않는다. 지붕은 모두 중국의 중요한 건축에 사용하는 황색 기와를 올렸다.

6) 彝倫堂圖: 彝倫堂(明倫堂)은 국자감에 속한 건물로 황제의 강학처였다. 문묘 정전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1784년 璧雍을 지으면서 이륵당이 장서 공간으로 바뀐 이후의 국자감 그림에는 벽옹이 중심적으로 나타나지만, 1761년 당시 국자감의 대표 건물로서 화첩에 수록된 듯하다. 제9면의 기록에는 이륵당에 인접한 繩愆廳, 博士廳 및 率性堂·修道堂·誠心堂·正誼堂·崇志堂·廣業堂 등도 거론되어 있으나 그림에는 이륵당에 이어지는 회랑 같은 모습으로 뭉뚱그려서 간략하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남쪽 담장에는 문(현재의 太學門으로 추정)을 그렸고 앞마당을 침엽수로 정연하게 채웠으며, 이륵당 앞 낮은 臺의 동남 모서리에는 해시계 1기를, 반대편 대 아래에는 고목 한 그루를 그렸다. 건물의 표현 방식은 문묘도와 유사하며 지붕은 연청색으로 문묘의 건물과는 차별된다.

7) 先師廟殿內及東西廡位次之圖: 문묘 정전인 선사묘 안에 모신 위패의 위치와 동서 양무에 모신 선현의 배열 순서와 위치를 문자로 표현한 일종의 배반도이다. 화면 전체에 사각형 윤곽을 그리고 상단에 칸을 마련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거의 등간격으로 띄어 썼다. 배반도 표제를 쓰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표제

아래 정중앙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 좁고 긴 사각형을 세로로 구획하고 ‘先聖孔子之位’라고 썼다. 사각형 구획을 여백 없이 채웠다. 그 아래 열 우측에는 ‘復聖顏子之位’, ‘述聖子思子之位’, 좌측에는 ‘宗聖曾子之位’, ‘亞聖孟子之位’를 세로로 쓴 사각형을 옆으로 눕혀 위아래로 배치하였다. 그 좌우 열은 선현들의 자리인데, 우측은 우변을 위로 하여 ‘殿內東從享’이라 좌에서 우로 눕혀 쓰고, 각각 ‘先賢閔子之位’, ‘先賢冉子之位’, ‘先賢端子之位’, ‘先賢仲子之位’, ‘先賢卜子之位’, ‘先賢有子之位’를 쓴 사각형을 위아래로 배치하였다. 반대편은 좌변을 위로 하여 오른쪽 면과 대칭을 이루도록 ‘殿內西從享’을 우에서 좌로 쓰고 先賢 冉子, 宰子, 冉子, 言子, 顓孫子, 朱子의 位를 쓴 사각형을 위아래로 배치하였다. 그 좌우로는 선을 그어 공간을 분리한 다음 오른쪽 면에는 東廡從享 ‘先賢蘧 瑗之位’ 다음 38위와 ‘先賢公羊高之位’ 다음 22위를 칸을 쳐서 우변을 위로 하여 세로로 적었고, 왼쪽 면에는 西廡從享 ‘先賢林 放之位’ 다음 37위와 ‘先賢穀梁赤之位’ 다음 22위를 칸을 쳐서 좌변을 위로 하여 세로로 적었다. 정중앙 ‘先聖孔子之位’를 제외한 위패는 모두 동서향으로 안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崇聖祠正位及配享位次之圖: 선사묘 북쪽에 있는 공자 선조의 사당 崇聖祠에 모신 인물의 배치와 배향된 先賢과 先儒의 위치를 알려주는 배반도이다. 앞면과 같은 형식으로, 사각의 화면을 구획하고 상단에 칸을 쳐서 표제를 쓰고, 각 위를 좁고 긴 사각형 안에 여백없이 써 넣었다. 정중앙에 위치한 5대조 ‘昌聖王佰夏公之位’, ‘裕聖王斯父公之位’, ‘肇聖王木公金父之位’, ‘詒聖王防叔公之位’, ‘啓聖王叔梁公之位’ 다섯 위만 세로로 정서하고, 아래 좌우의 선현과 선유의 위는 좌우변을 위로 하여 세로로 적었다. 선유의 위는 선현 아래 열에 좌우로 배치하여 위계가 드러난다. 오른쪽은 ‘先賢顏子之位’, ‘先賢孔氏之位’, ‘先儒周氏之位’, ‘先儒朱氏之位’, ‘先儒蔡氏之位’ 등 다섯 위이고, 왼쪽은 ‘先賢曾氏之位’, ‘先賢孟氏之位’, ‘先儒張氏之位’, ‘先儒程氏之位’ 등 네 위이다.

9) 글: 〈문묘도〉와 〈이륜당도〉 및 위치도 2점을 설명하는 글이다. 북경 安定門 안 국자감 동쪽에 위치한 문묘(선사묘)와 숭성사(啓聖廟), 숭성사 서북쪽에 있는 이륜당(명륜당)의 위치 관계와 건물 구성을 밝히고 있다. 봉안한 인물들의 위치는 도해하여 첨부하였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향사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와 다른 청나라의 방식에 의문을 피력하는 등 유학자로서의 관심이 드러난다.

10) 石鼓配置圖: 문묘의 묘문 좌우 戟門 동서에 각 5점씩 배치된 周代의 석고와 동쪽 끝에 있는 潘迪[원 至元(1264-1294) 연간에 국자감 司業과 集賢學士를 지냄], 歐陽玄(1037-1101), 黃潛(1277-1357) 등이 석고문을 교정한 音訓碑를 그린 그림이다. 화면 중앙에 가로로 긴 사각형을 구획하고, 좌우 아래로 치우쳐 ㄱ 모양의 단을 배치하고 그 위에 놓인 석고를 그렸다. 왼쪽 면의 석고에는 맨 아래 석고에서

시작하여 一부터 五까지, 오른쪽 면의 석고에는 마찬가지로 六부터 十까지 숫자를 붙였다. 오른쪽 화면에는 마지막 석고 옆에 碑를 그리고, 아래에 ‘音訓’이라고 적었다. 석고를 놓은 양쪽 단 앞에는 의장용 창[戟]이 늘어서 있었던 듯하나 그리지는 않고 ‘列戟于此’라고 써서 표시하였다. 석고의 모양은 오른쪽 단 맨 아래 석고(六)만 뚫린 면을 위쪽으로 두었고, 나머지 9기의 석고는 覆鉢形으로 그렸다. 음훈비는 기단 위에 윗면을 모죽임한 낮은 사각형의 비신을 갖추었고 검은 빛의 얼룩덜룩한 표면을 표현했다. 석고는 흰 바탕에 검은 얼룩이 있는 모습이다. 석고가 놓인 단은 정면 부감으로 측면에 가로줄을 등간격으로 넣고 먹으로 넓게 칠하였다.

11) 글: 석고와 그것이 문묘에 옮겨지고 음훈비가 세워진 내력을 설명한 글이다. 영조의 명에 따라 현장에 와서 보고 음훈비를 탁본하였는데 탁본을 장황하여 바치기 전에 우선 화첩에 배치도를 수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

12) 歷代帝王廟圖: 북경에 있는 삼황오제를 비롯한 중국 역대 제왕을 향사하는 사당을 그린 그림이다. 북경의 역대제왕묘는 1531년에 짓기 시작하여 1532년에 완성되었고, 이후에도 증축과 추가 제향이 이루어졌다. 그림에는 정전인 景德崇聖殿과 月臺, 景德門, 廟門이 중앙에 정면 남북축으로 배치되어 있다. 정면 9칸의 중층 건물인 숭정전의 서쪽에는 가정 초년에 세운 無字碑와 碑亭이 있고, 동쪽에는 명대 王立道가 가정제의 명으로 찬한 新建歷代帝王廟碑가 비정 없이 세워져 있다. 월대 동남쪽의 비정에는 1733년에 건립된 歷代帝王廟文碑가 있다. 월대 남쪽에는 난간이 있고 난간 안쪽과 월대 아래에 療爐가 4기씩 놓여 있다. 월대 좌우의, 동서로 마주 보고 옆으로 누워 있는 정면 7칸의 단층 건물은 東西配殿으로, 동배전에 40인, 서배전에 39인의 역대제왕의 공신을 陪祀하는 건물이다. 동서배전 앞에도 療爐가 2기씩 놓여 있다. 묘문과 경덕문 사이 공간 동남쪽에는 종루가 있고, 좌우 담장 밖으로는 제사를 위한 부속 건물이 있는데, 현재의 건물 배치로 미루어 보아 동쪽에는 神庫, 神廚, 宰牲亭 등이, 서쪽에는 樂舞執事房 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쪽 담장 문 옆의 건물은 실수로 담장 안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동쪽 건물군 맨 위에 있는 神庫로 추정되는 건물은 화면에서 유일하게 측사면으로 그려져 있다.

13) 歷代帝王廟位次之圖: 숭정전의 역대제왕과 동서배전의 공신의 신위 배열을 보여주는 일종의 배반도이다. 필사본인 앞서의 배반도와 달리 목판인쇄본이다. 다음에 수록된 글에 의하면, 사행단의 역관 邊憲이 묘를 지키는 자에게 얻은 印本을 첨부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부합한다. 앞서의 배반도와 같이 화면 전체에 사각을 구획하고 맨 위에 좁게 칸을 내어 왼쪽에서 오른쪽 등간격으로 제목 글자를 배치했다. 제왕의 신주는 모두 165위로 중앙에 삼황, 바로 우측에 오제의 칸을 마련했고 그 옆에 왕대별로 칸을 두어 제왕의 묘호를 기록하였다. 삼황 옆으로 夏 14위와 商 26위가 한 칸에, 그 좌측으로 漢 21위와 唐 15위가 한 칸에, 마지막 칸에

元 11위와 明 13위가 기록되어 있다. 오제 옆으로는 周 32위와 宋 14위가 한 칸에, 마지막 칸에 遼 6위와 金 5위가 기록되어 있다. 상단 제왕의 칸 좌우 양끝 아래 옆으로 칸을 치고 배향공신을 좌우변을 위로 하여 세로로 적었다. 동배전은 40위, 서배전은 39위이다.

14) 글: 역대제왕묘의 송성전(9영)과 동서배전(각7영)의 건물 규모를 적고, 건물의 배치는 그림으로, 신위의 위치는 인본을 첨부하여 역대제왕의 묘제를 해설하였음을 적었다. 묘의 건립과 향사하는 제왕이 추가된 내력 등을 밝히고 있고, 인본에 보이는 왕대를 좌우로 나누어 해설하였고, 각 왕대별로 신위가 좌우 순서로 배열된 것은 북쪽을 뒷자리로 하여 동서의 차례임을 밝혔다. 앞장에 수록한 위치지도의 배열과 같으나, 위치지도에는 165위의 제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글에는 옹정 11년(1733) 본래 있던 21위에 143위가 추가되어 모두 164위라고 한 점은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명 神宗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역시 崇明 의식의 일단으로 여겨진다.

15) 山海關圖(內): 산해관 성 안의 경관을 그렸다. 문루에 ‘天下第一關’ 현판이 그려져 있다. 성문으로 난 직선 대로와 갈래진 길로 주위의 건물을 빼곡하게 채워 넣었다. 실제 경관을 재현했다기보다는 건물이 밀집된 모습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건물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형태에도 불구하고 정면과 측사면의 두 시점을 섞어서 배치하고 군데군데 수목을 넣어 단조롭지 않고 리듬감이 느껴진다.

16) 山海關圖(外): 산해관 외성과 대강의 경관을 조감하였다. 평원 시점의 다른 그림과는 달리 부감시의 전경에서 오는 호방한 원근감과 공간감이 뚜렷하다. 제17면의 글에서 ‘산해관의 남북 대세는 다 그럴 수가 없고 관의 내외에서 본 바를 한 본씩 그린다’라고 쓴 대로 상세한 지세와 경물보다는 대략의 인상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7면의 글에서 吳三桂(1615-1681)가 북경의 李自成을 치기 위해 順治帝에게 求請하였던 일을 거론하고, 그림에서도 이 때 헐린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을 왼쪽 화면의 성벽 중간에 표현하는 등 당시 관료들의 역사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성첩과 문루, 기타 건물들은 정연한 필치로 차분하게 묘사하였고 산세와 수목은 청색과 녹색 위주의 담채로 청신하게 표현하였다.

17) 글: 산해관의 역사와 형상을 간단히 기록하였다. 關防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명대에 잘 관리되던 것이 청조 이후 훼손되고 방치된 모습을 지적한 내용에서 명과 청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본 화첩은 영조가 지시한 장소의 그림과 관련 자료, 이를 설명하는 글이 하나의 항목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영조의 지시 내용은 화첩의 맨 앞에 실린 메모 형식의 어필이다. 모두 4항목으로 1) 심양의 현종 탄생 장소, 2) 북경의 역대제왕묘, 3) 국

자감과 문묘의 대성전, 명륜당, 석고, 4) 하북성의 산해관이 대상이다. 영조가 지시한 항목을 각 화면과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항목은 제3~4면 심관구 지도와 글이다. 두 번째 항목은 역대제왕묘와 관련된 제12~14면에 해당하는데, 세 번째 항목인 국자감과 문묘 다음에 수록되어 순서가 달라졌다. 세 번째 항목은 문묘도와 이륜당도 관련인 제5~9면과 석고배치도 관련인 제10~11면에 해당하는데, 목록과는 달리 한 항목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마지막 네 번째 산해관 항목은 제15~17면이다.

13.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가. 검토사항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불교문화재연구소장으로부터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의 결과로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5.12.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8.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21호(1979.1.25.)
- 명 칭 :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聞慶 鳳巖寺 磨崖彌勒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가운데 원북길 313, 봉암사
- 수 량 : 1좌
- 규 격 : 상 높이 539.6cm, 무릎 폭 502.6cm
- 재 질 : 석조
- 형 식 : 용화수(龍華樹) 가지를 들고 있는 마애미륵여래
- 조성연대 : 1663년(현종 4)
- 발 원 자 : 환적당 의천(幻寂堂 義天)
- 지정구역 : 19.89㎡(보호구역 : 301.47㎡)

○ 소재지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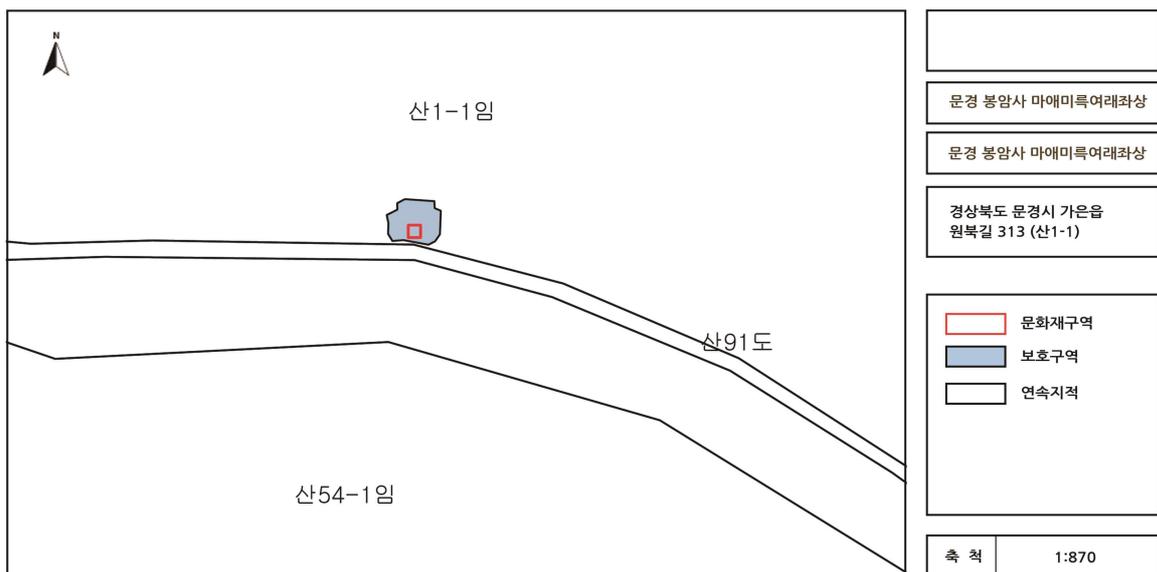
○ 지정구역 면적 : 19.89m²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임야	14,224,846	19.89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계				19.89				

○ 보호구역 면적 : 301.47m²

연번	소재지 / 지 번	지목	지적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임야	14,224,846	301.47	대한불교조계종 봉암사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485	
계				301.47			

○ 지정도면 :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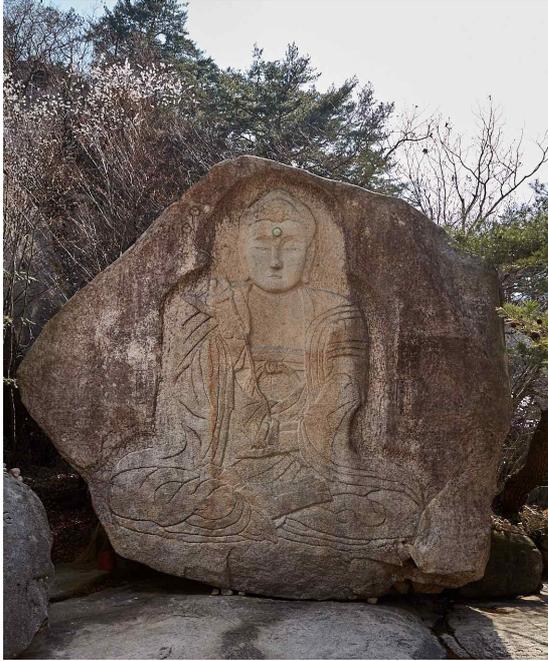


그림 311.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참고) 문경 봉암사마애미륵여래좌상 3차원 스캔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문경 봉암사의 마애미륵여래좌상은 1663년에 제작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마애불이다. 문자 자료를 통해 1663년에 환적당 의천이 발원하여 마애미륵여래좌상을 완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 자료이다. 그의 제자인 풍계 명찰(楓溪明察, 1640-1708)의 행장을 통해 “60세에 경상도 문경현 회양산 봉암사로 가서 지냈고, 61세에는 봉암사의 서쪽 백운대에 미륵상을 조각하고 사적비를 세웠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적당 의천은 60세되던 1662년부터 61세까지 문경 봉암사에 머물면서 봉암사 백운대에 높이 5m가 넘는 미륵불좌상을 조성하고 사적비를 세웠다. 마애미륵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는 백운대는 신라 말 최치원이 노닐던 곳이기도 한데, 의천은 바로 그 아래에 환적암을 세우고 지내기도 했다.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흥미롭게도 봉암사 마애불은 같은 시기 괘불과 매우 닮았다. 이런 이유로 봉암사 마애불은 괘불을 모본으로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괘불을 대신하여 야외법회를 위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봉암사 마애불은 괘불처럼 행사 때마다 걸어 사용한 후 다시 말아 보관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며, ‘돌’의 내구성으로 조성하고 나면 그 무엇보다도 오래 지속된다는 큰 장점

이 있다. 실제로 봉암사 마애불 앞의 너른 공간에서 야외법회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봉암사 마애불은 조계종 특별선원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여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작품의 완성도도 뛰어나 조선 후기 작품 양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봉암사 마애불은 기록에 의해 환적당 의천에 의해 1663년에 미륵불로 조성되었음이 확인되어 조선시대 마애불의 절대편년자료 및 도상적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이러한 마애불이 조성되는 정황 및 계기를 이 문헌자료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마애불이 있으나 대부분 명확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 우리나라 조각사 연구사에 있어 드문 사례로서 주목된다. 특히 민간의 출입이 비교적 제한된 깊은 계곡의 계류 옆에 조성되어 이러한 자리를 찾아 수행하던 당시 선승들의 전통을 엿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그 풍광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매우 드문 경우라 하겠다. 옥천암 마애불, 삼천사 마애불이 이처럼 계류 바로 옆에 조성된 마애불의 사례이지만,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변형된 것에 비해 봉암사 마애불은 원래의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소중하다.

더불어 이 마애불은 조성기법이 뛰어나 마애불의 비례, 세부표현, 착의형식 등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앳된 얼굴의 이목구비 표현은 이후 내소사 괘불탱(1700년작)을 예견하는 듯하고, 정교하게 꽃줄기를 잡은 손의 묘사 등은 17세기 괘불탱에서 유행한 꽃을 들고 있는 불·보살의 표현을 마애불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어서 그 유기적 연관성 또한 주목된다.



서울 봉천동 마에미륵불, 1630년



안양 삼막사 마에치성광여래삼존불, 1763년

봉암사 마애불은 이보다 조금 앞서 1630년 서울 관악산 봉천동 마에미륵불의 전통을 계승한 것인데, 봉천동 마에미륵불이 미륵불로서의 특별한 도상적 특징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비해, 봉암사 마애불은 용화가지를 들고 있고, 보다 입체적인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이후 100년 뒤인 1763년 안양 삼막사에 조성된 치성광마애삼존불은 봉암사 마애불보다 더 도식적이고 경직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16세기와 17세기의 양식적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나아가 통도사 지장암 마에아미타여래삼존상은 19세기에 조성된 조선시대의 마애불인데, 오히려 다시금 16세기 봉암사 마애불에 더 가까운 양식으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마애불 조성에 일종의 모범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추정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시대에는 전대에 비해 손꼽을 정도로 마애불상의 수가 적다. 그것은 수행환경이 변경된 탓도 있겠으나 크고 거친 바위표면을 다듬어 불상을 새기는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봉암사 마에미륵여래좌상은 규모 면에서나 조형 면에서나 조선시대 마애불 중 수작으로 손꼽힌다. 이 마에미륵여래좌상은 고려시대 작품으로 여겨질 만큼 불상이 갖고 있는 세부표현에 있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이 작품이 단순히 불교조각적인 측면에서 고찰되었기 때문일 것이며, 불화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서 보면 조선후기 17세기 불화와 연관성이 더욱 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마에미륵여래좌상은 조각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목각탱)과 마찬가지로 불화승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의 마애조각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애미륵여래좌상의 얼굴은 높게 돌을새김하여 입체화시키고, 신체로 내려오면서 점차 얇게 조각하여 上高下低의 전통적인 마애불 조성 기법을 따르고 있다. 상호의 세부표현과 옷 주름은 불화를 보는 듯 회회성 짙은 묘사력을 선보인다. 이는 마애불상의 기본 설계도가 되는 草를 당시 뛰어난 불화승이 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화승과의 교류는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의 보조화원으로 참여한 道祐, 여수 흥국사 영산회상도를 그린 天信 등의 예에서 보듯이 당시로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만남이자 조합이었으며, 조각승과 불화승의 합작에 의해서 이 마애불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미술사적 의의를 지닌다.

봉암사 마애불상은 평생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으로 전념한 조선후기 고승 환적당 의천이 자신의 믿고 의지했던 미륵불을 발원, 조성한 역사적인 불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자료를 통해 제작주체는 물론 1663년이라는 제작시기, 미륵불이라는 존상 명칭까지 분명히 알 수 있어 조선 후기 마애불 연구뿐만 아니라 미륵불상의 도상 연구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자료이다. 특히 이 마애미륵여래좌상이 결한 龍華手印은 고려시대 이후 미륵의 중요 도상으로 정립되어 온 바, 이러한 미륵도상의 전통이 조선후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이 불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크다. 따라서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위와 같은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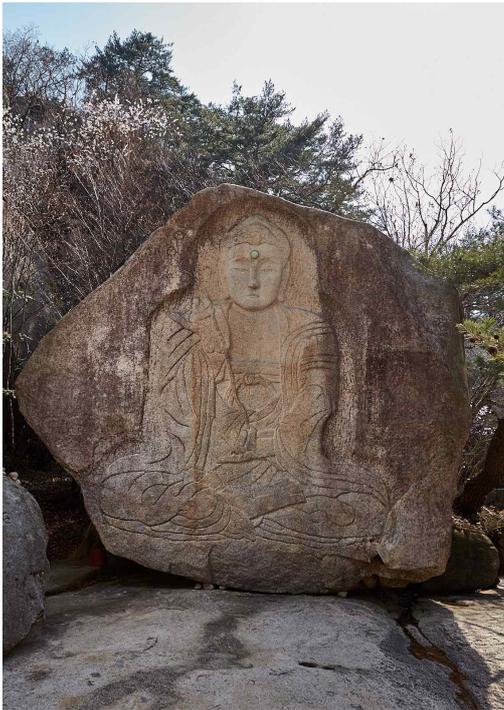
조사보고서

□

○ 현 상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봉암사 경내 입구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500여m가량 이동하면 만나게 되는 옥석대(백운대라고도 한다)에 있다(도1). 예부터 이곳을 백운대라 불렀으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기로 유명하다. 봉암사 마애불의 제작자는 백운대에 있는 커다란 암벽면을 최대한 활용해 화면 가득 마애불좌상을 새겼다. 5m

가 넓은 불좌상의 주변을 7-10cm 가량 파들어가 광배로 삼았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배모양[舟形] 혹은 키 모양이라고 부르는 광배이다. 광배 안쪽에는 선각으로 또 하나의 광배를 새겨 광배를 이중으로 표현했다.



<도1> 봉암사 마애미륵보살좌상



<도316>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사진

■ 당당한 신체에 꽃을 든 미륵불



<도3> 용화가지

연화좌 위에 가부좌를 튼 마애불좌상은 근엄한 얼굴에 당당한 신체가 특징이다. 특히 넓은 어깨를 직각으로 표현한 것은 이 마애불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삼도(三道)는 목이 아니라 가슴 쪽으로 내려 새겼는데, 이는 목이 짧아 삼도를 새길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육계는 위로 솟았으며, 머리카락 중앙에는 반달 모양의 큼직한 중심계주가 있다. 이마 위 발제선이 굴곡져 있는 것도 이 시기 불화에는 있지만 불교조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점이다. 입과 코는 작지만, 눈은 상대적으로 크다. 귀의 표현도 흥미로운데 귀의 구멍을 구슬처럼 동글동글하게 조각했다. 미간 백호는 일제강점기의 유리건판 사진에는 흠으로만 파둔 것으로 봐서 후대에 새로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도 2 일제강점기 사진 참조).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봉암사 마애불좌상의 이러한 특징은 같은 시기 괘불과 형식 및 양식

에 새로 조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도 2 일제강점기 사진 참조).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봉암사 마애불좌상의 이러한 특징은 같은 시기 괘불과 형식 및 양식

을 공유하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양손으로 작은 꽃가지를 쥐고 있는 점도 특별하다. 왼손바닥으로 꽃가지의 끝을 받치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엄지와 중지, 약지를 맞대 꽃가지를 쥐었다. 쥐고 있는 꽃가지에는 꽃이 두 송이만 피었는데, 마애불의 크기에 비해 작다(도 3).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은 꽃가지를 쥐고 있어 지금까지는 보살상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몸에 가사를 걸쳤고, 머리에는 보관(寶冠)을 쓰지 않았으며, 육계와 중심계가 분명하여 보살이 아니라 불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또 양손으로 쥔 꽃가지는 미래불인 미륵불과 관련있는 용화나무의 꽃가지로 볼 수 있다. 봉암사 마애불상과 마찬가지로 보살형이 아닌 불상형이면서 용화가지를 쥔 예는 고려시대에 청원 운룡사 석불좌상을 비롯해 몇몇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수량이 많지 않다. 조선시대의 대표 예는 1630년 관악산의 마애미륵불상과 바로 이 봉암사 마애미륵불좌상이 있다. 특히 봉암사 마애불보다 30여 년 앞서 조각한 관악산 미륵불좌상은 봉암사 마애불과 마찬가지로 용화가지를 쥐었고, 명문에 “彌勒尊像 崇禎三年庚午四月日 大施主朴山會兩主”라고 음각되어 있어 ‘불상형이면서 꽃가지를 든’ 이러한 유형이 ‘미륵불’을 의도한 것임을 입증해준다.

○ 내용 및 특징

■ 봉암사와 환적당 의천(1603-1690)

봉암사는 경상북도 문경군 가은면 원북리 회양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말사이다. 864년 즉 경문왕 4년에 현계산 안락사(安樂寺)의 주지를 맡고 있던 지증도헌(智證道憲, 824-882)에게 거사 심충(沈忠)이 제자로 칭하면서 회양산에 절 짓기를 청하므로, 881년에 왕이 승통 후공(後恭)과 숙정사(肅正史) 배율문(裴律文)을 보내 절의 경계를 정하게 하고 봉암사라 한 것이 시작이다. 935년 고려 태조 18년에 정진공양(靜眞兢讓, 878-956)이 중창하여 회양산문으로 번창했다. 이후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이 1431년에 절을 중수하였고, 1674년에 소실된 것을 1703년 다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봉암사 마애불은 1674년에 봉암사가 소실되었을 때도 온전히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경내에 있기는 하지만 중심사역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봉암사 마애불은 환적당 의천(1603-1690)이 60세부터 61세까지 했수로 2년간 봉암사에 머물면서 조성한 것이다.

환적당은 1630년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여 88세 되던 1690년에 해인사 백련암에서 입적했다. 평생을 한곳에 머무르지 않고 수행에 전념한 선승으로, 청허휴정의 손법손이며, 서산대사의 법맥을 이은 조선 후기의 고승이다. 환적당이 봉암사에서 처음 수행한 것은 60세(1662년)부터 61세까지로 행장에 의하면 백운대에 바로 이 마애미륵여래좌상을 조성하고, 사적비를 세웠으며 환적암을 지

었다. 환적당 의천은 64세에도 봉암사에서 수행하는데, 당시는 시왕증사(十王證師)의 소임을 맡았다. 봉암사에 봉안된 환적당의 승탑은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3호로 지정돼 있으며(도5와 6), 935년 봉암사를 중창한 정진궁양 승탑(보물 제171호), 1431년 봉암사를 중수한 함허득통 승탑(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134호)과 함께 있다.



<도4> 환적당 승탑과 진영 봉안 사찰



<도5> 봉암사 환적당 승탑



<도6> 환적당 승탑 幻寂堂銘



<도7> 환적당 의천 진영 (해인사 소장)

환적당 승탑은 그의 행장에 의하면 모두 8곳에 건립되었다고 한다(도4). 행장에는 모두 8곳으로 적었지만, 최근 칠곡 대흥사에 또 1기의 승탑이 있음이 알려져 모두 9기의 승탑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춘천 청평사, 문경 봉암사, 제천 덕주사, 합천 해인사, 대구 용연사, 거창 연수사, 봉화 각화사, 의성 대곡사, 그리고 칠곡 대흥사이다(8곳 승탑의 위치는 그림 참조). 한국에서 분사리하여 승탑을 건립하는 일은 고려말 태고보우와 나옹혜근부터 성행하는데, 9곳에 분사리한 환적당 승탑이 현재까지 알려진 분사리 승탑 가운데 가장 많은 예이다.

환적당 진영은 2점이 알려져 있었다. 해인사 백련암과 상주 남장사이다. 해인사 백련암은 환적당이 입적한 사찰이고, 상주 남장사는 42세인 1644년에 동안거를 지낸 사찰이다. 해인사 백련암의 진영은 1990년 무렵 도난당했으나 최근 되찾았다(도7 참조). 남장사 진영은 도난 후 찾지못하여 현재 모사한

진영을 봉안하고 있다.

■ 환적당 의천(1603-1690)과 봉암사 마애미륵불좌상

봉암사 마애미륵불좌상은 환적당 의천이 61세되던 해인 1663년에 제작한 것이다. 관련 내용은 『풍계집』, 「환적당대사행장(幻寂堂大師行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풍계 명찰(楓溪 明察, 1640-1708)은 환적당 의천의 제자로 그가 지은 「환적당대사행장」을 통해 환적당의 법맥과 마애미륵불좌상 조성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문헌 1) 『楓溪集』, 「幻寂堂大師行狀」, 1711년

“…年六十六壬寅秋 來住慶尙道聞慶縣義陽山鳳巖寺過冬 明年癸卯春 寺之西里許白雲臺 乃崔孤雲所嘗遊賞處也 川明石白 怪石崑崙 川邊有天削立石五丈許 顯刻彌勒像 因立記事碑文 文乃驪興閔判書所撰也 碑下建幻寂庵 因過夏…”

“나이 60세 임인(壬寅)년 1662년 가을. 경상도 문경현 회양산 봉암사에 와 살면서 겨울을 지냈다. 이듬해 계묘(癸卯)년 1663년 봄. 봉암사 서쪽 1리쯤 되는 곳에 있는 백운대는 곧 최치원이 유람하고 감상하던 곳이다. 물이 맑고 돌이 희며 기이한 암석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물가에 자연적으로 깎인 다섯 발쭝 되는 입석(立石)이 있어서 미륵상을 새기고 이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으니, 비문은 곧 여흥(驪興) 민판서가 지은 것이다. 비석 아래에 환적암(幻寂庵)을 건립하고 그대로 여름을 지냈다.”

(관련 문헌 2) 『新羅國曦陽山鳳巖寺古今事蹟目錄』, 「白雲臺彌勒碑銘」

“…俾作終老之期 謀建方丈之室 以師景行尙來之佛 歸心彌勒之尊 鑿慳奏功 是謂一佛 出世毫光 現相已見 衆生捧頭…”

“이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작은 암자를 짓기로 하였다. 훌륭한 미래불을 스승 삼아서 미륵존자에게로 마음을 돌렸다. 딱딱한 돌을 파서 완공을 하니, 한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 빛난다고 하였다. 드러난 형상을 보고 나서는 중생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 같은 시기 패불과 형식 및 양식 공유!

봉암사 마애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같은 시기 패불을 모본으로 삼았다는 점이다(도8). 17세기 패불은 방형 얼굴에 각진 어깨를 지닌 체구, 두 장의 가사를 걸친 이중 가사가 특징이며, 굴곡진 발제선(도9), 구슬처럼 동글동글하게 표현한 컷구멍(도11)도 특징이다.



<도8>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과 안동 봉정사 괘불 비교



<도9> (사진 왼쪽부터) 마애불, 괘불, 불상의 발제선 비교



<도10> 마애불과 괘불의 착의형식 비교



<도11> 귀 비교

가슴 아래 띠매듭이 보이는데 이 역시 같은 시기 불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도10). 특히 괘불은 야외에 내걸었을 때 피체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불상의 어깨를 넓고 각지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봉암사 마애불이 그러하다. 비록 봉암사 마애불보다는 제작 시기가 늦지만, 1705년 예천 용문사 괘불, 1710년 안동 봉정사 괘불 등 문경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같은 권역의 괘불과 비교해 보면 봉암사 마애불이 같은 시기 괘불을 모본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130여 점의 괘불화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1622년 제작 보물 제1279호 나주 죽림사 괘불이다. 대부분이 1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인데, 특

히 이 시기에 야외법회가 늘어나고 영산재, 수록재, 예수재와 같은 재의식이 성행



<도12>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전경

한 것과 관련이 깊다. 잘 알려진 것처럼 괘불은 전각 내부에서 치를 수 없는 큰 규모의 야외행사를 위한 불화이다. 특히 1600년부터 1700년까지 야외법회가 자주 개최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 강력한 억불정책을 썼던 조선 전기와 달리 공공연한 법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돌아간 부모·형제, 친척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망자 천도의례를 빈번히 개최하

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봉암사의 마애불은 괘불을 대신하여 야외법회를 위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높다(도12). 봉암사 마애불은 불상 높이만 540cm로 괘불에 버금가는 크기이다. 봉암사 마애불은 괘불처럼 행사 때마다 걸어 사용한 후 다시 말아 보관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며, ‘돌’의 내구성으로 조성하고 나면 그 무엇보다도 오래 지속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봉암사 마애불 앞의 너른 공간에서 야외법회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당시 봉암사의 사세로 미뤄보면 의천스님을 도와 커다란 마애불을 조성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능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 이후 수많은 사찰이 복구되고, 불화가 다수 제작되면서 화승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당시 화승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빠짐없이 동원되어 국가적인 각종 공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의천스님의 영향력 정도면 이 거대한 마애불을 조성하기 위한 화승을 모으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 참고문헌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上, 東國大學校 出版部, 1979.

楓溪明察, 「幻寂堂大師行狀」, 『楓溪集』 卷下, 『韓國佛教全書』 9.

김풍기, 「淸平寺 幻寂堂 浮屠에 대한 一考察」, 江原大學校 江原文化研究所, 『강원문화연구』 11, 1992.

손영문, 「高麗時代 龍華手印 彌勒圖像의 研究」, 『미술사학연구』 252, 한국미술사학회 20, 06.12.

한기문, 「고려시대 봉암사와 회양산과의 추이」, 『불교연구』 34, 한국불교연구원, 201.

홍병화·김성우, 「회양산 봉암사 극락전의 연구」, 『건축역사연구』 16-5, 한국건축

역사학회, 2007.

홍성익, 「조선후기 환적당 팔분사리 부도에 관한 연구」, 『박물관지』 13,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6.

□

○ 현 상

이 마애불은 봉암사 경내 앞을 흐르는 계류인 양산천을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략 500m의 위치에 있는 백운대의 남쪽 바위에 새겨져 있다. 백운대는 양산천을 끼고 넓은 너럭바위가 층단을 이루며 작은 폭포를 이루는 듯한 절경에 위치한 곳으로 일찍부터 많은 시인묵객이 찾아 풍광을 감상하던 장소로 전해진다. 이러한 백운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는 정면이 평평한 독립된 바위면에 마애불을 새겼는데, 북향에 가깝기 때문에 좋은 햇살 아래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이처럼 북향은 불상을 조성하기에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 바위가 백운대에서



봉암사 마애불 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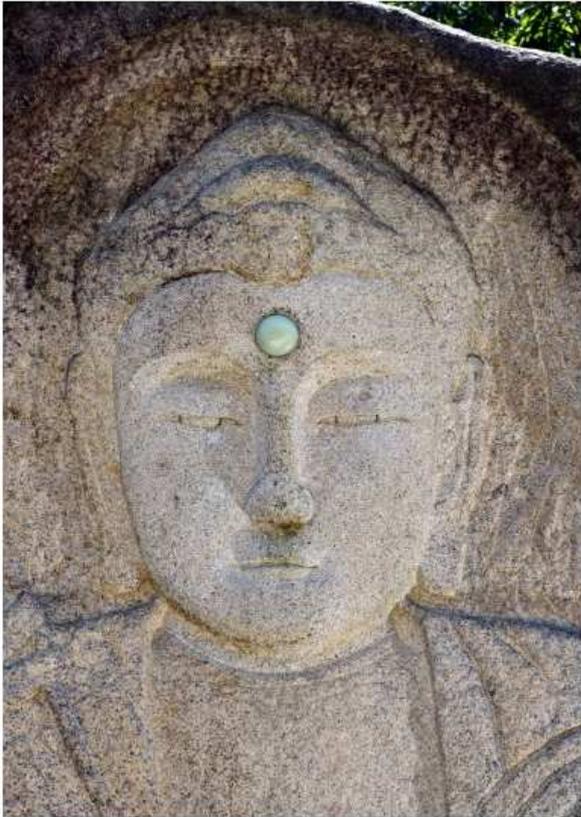
봉암사 마애불 전경



봉암사 마애불 불두 세부

불상을 새기기 가장 적합한 바위이고, 또한 불상을 새긴 뒤 그 앞에서 예불 등의 종교의례를 하기에 적합한 위치이며, 나아가 새겨야 할 불상의 존명이 미륵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방불에서 종종 북쪽에 배치되는 미륵불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러한 북향의 바위를 무리없이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마애불 앞의 너럭바위에는 작은 홈이 패어있는데, 그 주변의 바위는 속이 비어있어 두드리면 목탁처럼 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있다. 마치 밀양 만어사의 바위들이 두드리면 종소리가 난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실제의 현상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흥미롭다.

이 마애불은 현재 명칭이 보살로 되어 있으나, 아마도 꽃가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추정되며, 원래는 불상으로 조성되었음이 도상적으로도, 그리고 사찰에 전해지는 기록으로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불두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언뜻 머리카락 부분이 나발이 표현되지 않은 소발처럼 보이지만, 중간계주 및 발제선의 중간을 보면 둥글둥글한 윤곽선이 분명히 보이고, 그 안쪽으로도 분명하게 나발을 표현하기 위해 선각을 새겨넣은 것이 보인다. 육계는 삼각형에 가깝게 솟아있으나 가운데 둥근 중간계주가 자리잡고 있어 그다지 날카롭게 솟은 느낌을 들지 않는다. 미간에는 상당히 큰 백호가 박혀 있는데, 1935년대의 사진에는 이 백호 자리에 큰 구멍만 있는 것으로 보아 근대기에 새롭게 조성해 넣은 것으로 보인다.



봉암사 마애불 불두 세부



내소사 괘불탱 불두 부분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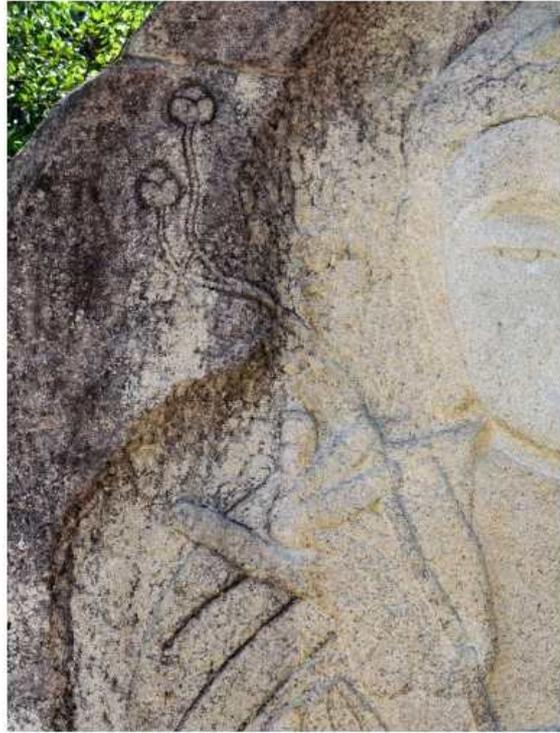
그러나 실제로도 지금과 같은 지름의 백호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만 지금처럼 완연하게 반구형으로 솟은 형태였는지, 재질도 이와 같았는지는 알 수 없다.

마애불의 불안(佛顔)은 언뜻 그들이 드리워졌을 때는 단순하고 도식화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이목구비가 매우 뚜렷하고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정교함을 갖추고 있다. 정면을 응시하는 듯한 부리부리한 눈 안에는 눈동자가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 생동감이 있다. 코는 콧등의 위쪽, 즉 미간 사이가 더 넓고, 아래쪽 콧볼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듯한 다소 특이한 윤곽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는 콧등의 위와 아래가 거의 같은 깊이이지만, 앞에서 볼 때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높게 솟은 느낌이 드는 것도 독특한 기법이라 하겠다. 눈썹에서 눈두덩에 이르는 공간은 깊이 과해서 아래서 올려다 볼 때 눈의 윤곽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했다. 입술은 콧볼의 너비 정도와 유사한 좁은 길이를 지녀 작아보이기도 하지만, 대신 입술에 힘을 주고 입을 꼭 다문 듯한 힘 있는 표정이 느껴지기도 한다. 두 귀는 콧볼의 접힌 모습을 얹은 부조임에도 입체감 있게 묘사했는데, 콧볼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윤곽선이 겹쳐지도록 정교하게 표현한 것이다. 얼굴의 윤곽선은 계란형으로 원만하다. 전반적으로 젊거나 혹은 앳된 인상을 주는 얼굴이어서 유려한 인상을 풍긴다. 1700년에 그려진 내소사 괘불탱의 얼굴 묘사와의 유사성도 엿보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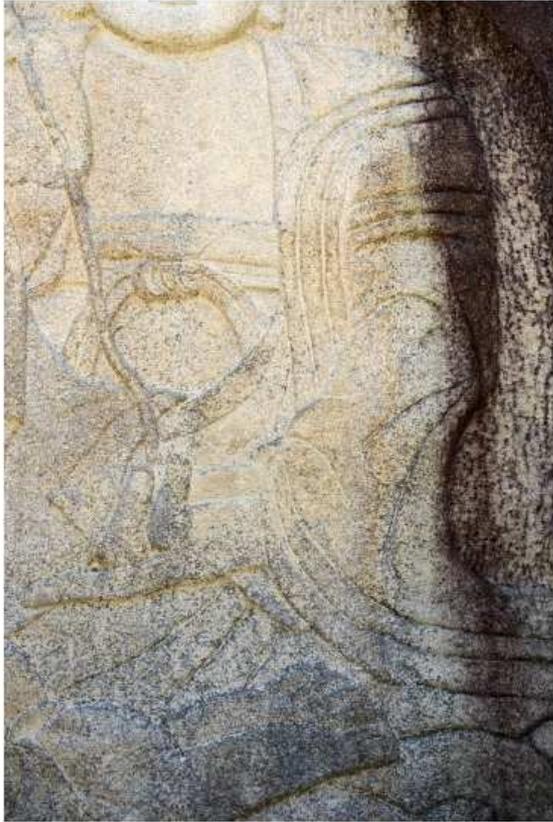


봉암사 마애불 상체



봉암사 마애불 용화가지 세부

착의법은 통견에 가슴 아래로 내의와 이를 묶은 띠매듭이 묘사된 일반적인 여래의 착의법이다. 옷주름은 주요한 옷자락의 흐름을 2~3조의 굵은 선으로 간략하게 묘사했지만, 그 선이 깊고 유기적으로 전체가 이어지는 듯하여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느껴진다. 그러한 가운데 오른손은 어깨 높이로 들어 손바닥을 바깥으로 하고, 왼손은 아랫배 앞에서 들어 손바닥을 위로 하여 그 두 손으로 꽃가지를 들고 있다. 꽃가지의 줄기는 직선에 가까우나 상하 끝단에서 약간씩 구부러지는 형태이고, 꽃은 만개한 형태가 아니라 아직 피지 않은 작은 두 개의 봉오리로 묘사되어 있다. 이 꽃은 뒤에 언급하겠지만 마애불이 미륵불로서 조성된 것이 거의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용화꽃으로 볼 수 있다. 표현 자체는 연꽃 봉오리와 차이는 없으나 염화미소를 의미하는 장면에서 연꽃은 주로 만개한 상태로 표현되거나 혹은 봉오리 자체가 매우 크게 묘사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이것이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줄기를 약간 짧게하고, 작은 봉오리 두 개 대신 하나의 큰 봉오리를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일반적인 연꽃과 차별화하기 위한 용도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아직 완전히 필 준비가 되지 않은



봉암사 마애불 왼팔의 착의상태 및 화엄사 괘불탱(1653년) 본존불 왼팔의 착의상태 비교

봉오리를 묘사하여 미륵불의 미래적·잠재적 성격을 드러낸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 보게 된다.

양쪽 팔뚝을 덮은 가사의 묘사는 일반적인 통견식 착의의 불좌상의 소매 표현과 조금 차이가 있다. 오른쪽 팔은 장삼의 소매로 덮여있고, 어깨 위를 가사가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형식이어서 일반적인 불상 착의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왼쪽 어깨와 팔은 보통 전체적으로 가사로 덮여있는데 반해, 봉암사 마애불은 마치 오른쪽 어깨처럼 어깨를 덮은 가사와 그 아래 장삼의 소매가 구분되듯이 묘사되어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특히 장삼에 덮인 왼팔 팔뚝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이 묘사되어 가사가 얇게 느껴진다. 또한 좌우 소매가 허리 높이에서 몸 안으로 휘어들어감으로 인해 불상의 허리가 잘록해보이는 효과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은 주로 조선시대 불화의 여래 착의법에서 자주 발견되는 형식이다.

꽃가지를 들고 있는 손의 손가락 표현도 매우 섬세하다. 꽃가지만 없으면 마치 하품중생인과 닮은 손의 자세와 손가락의 구부러진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랫배 앞의 왼손은 손가락이 다소 어색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손가락 중에 가장 아래쪽에 길게 뻗고 있는 손가락이 가장 바깥쪽의 엄지손가락이어야 할 위치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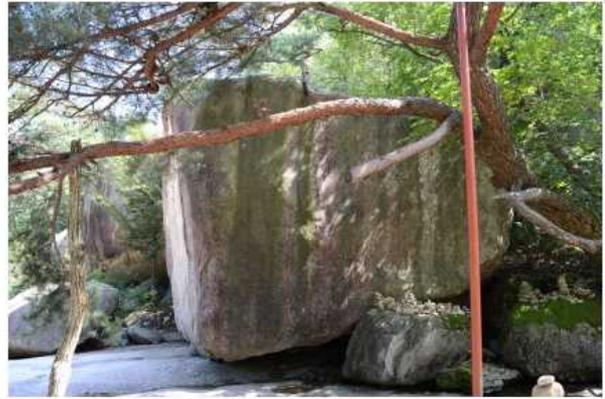
봉암사 마애불 왼손 손가락의 방향배치 및 마곡사 괘불탱 오른손 손가락의 방향배치 비교

짧게 묘사되어야 할 손가락이 이처럼 길게 묘사되어 언뜻 검지손가락처럼 길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구부러진 짧은 손가락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손톱이 다른 손가락들과는 반대 위치에 놓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손가락들과 마찬가지로 왼쪽방향에 손톱이 있어 역시 엄지손가락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모델링은 조각가의 기량 부족으로 원인을 돌리기 쉽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조선시대의 이처럼 꽃가지를 든 괘불탱화의 꽃을 받친 쪽 손의 손가락이 이와 같이 표현된 사례가 자주 발견된다. 아마도 이러한 표현이 불화에서는 일반적이었고, 이 마애불의 초를 잡은 사람이 화승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한편 왼손 손등 아래로 꽃가지의 끝단으로 보이는 줄기가 튀어나와 있어서 왼손바닥으로 줄기를 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괘불탱의 경우 손바닥으로 받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수도사 괘불탱은 봉암사 마애불처럼 줄기가 손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고려시대의 관촉사 은진미륵의 경우는 손가락의 위치가 사실적으로 정상적인 배치를 보이고 있어 고려와 조선의 표현기법의 차이가 흥미롭다.

가부좌한 하체는 오른발을 위에 얹어 오른발 발바닥이 위로 드러나 보인다. 하체를 감싼 옷주름은 아래쪽에 하의가 일부 보이고, 그 위를 장삼의 소매 및 가사가 덮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는데 간략한 음각선이지만 음각선이 평행선을 그리지 않고 구불거리는 묘사가 있어 변화를 주었고 간략한데도 단순하지 않고 유려한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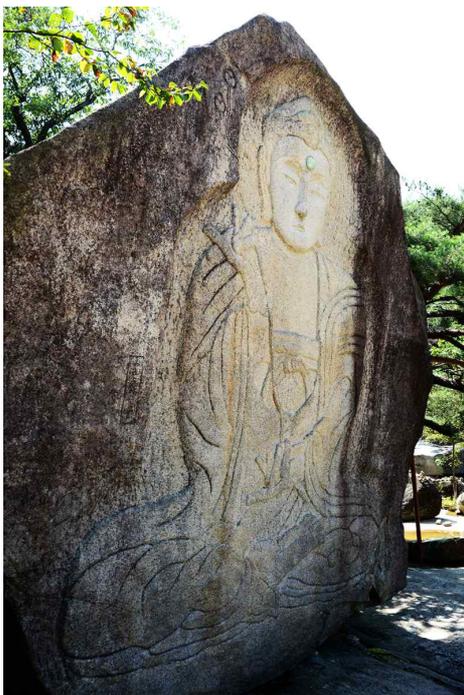
봉암사 마애불 하체 반측면



봉암사 마애불 바위 측면

광배는 별도로 표현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불상을 새기기 위해 마애불 주변을 깊게 파내면서 자연스럽게 불신에 밀착된 두광과 신광처럼 보이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바위면을 파낼 때 생긴 정자국이 마치 화염문의 불꽃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는데,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마애불 아래로 별도의 대좌는 묘사되지 않았다. 마애불의 양쪽 팔굽 높이고 네모난 칸을 만들고 음각으로 내용을 새긴 마애전패가 위치한다. 그밖에 주변에 이 마애불을 보호하기 위해 전각을

세웠음직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아 이처럼 노출된 상태로 오랜 기간 전해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독의 바위이고, 바위 윗면이 좌우로 경사졌기 때문에 빗물이 좌우로 흘러내리고 전면으로는 많은 양의 빗물이 흐를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더구나 전면이 약간 앞으로 기운데다가 마애불 주변의 광배처럼 파놓은 부분이 마치 도랑 같은 역할을 하여 빗물 등이 마애불의 좌우로 흘러나가게 함으로써 전각이 없어도 장기간 마애불의 양호한 보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비록 하체 부분은 빗물이 오랜 세월 흘렀던 흔적이 있지만, 상체, 특히 얼굴 부분은 빗물이 흐르지 않아 보존상태가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봉암사 마애불 전면부 바위 상태



봉암사 마애불 주변 숲 및 계류 원경

○ 내용 및 특징

우선 이 마애불은 양산천이라는 계류 가의 너럭바위 위에 위치하여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마치 하생한 미륵불이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을 하는 장면인 것처럼 바위 주변은 잘 자란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마애불의 주변환경은 아마도 서울 옥천암마애보살좌상, 삼천사 마애여래좌상 등도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옥천암은 그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원래의 풍광을 많이 변모되었고, 삼천사 마애불도 그 앞의 공간의 지면을 높이 돌워 계류가의 마애불이라는 주변 맥락을 상실한 반면, 봉암사 마애불은 원래의 지형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마애불들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관불이나 보살로서 꽃을 든 존상은 많이 발견되는 반면, 불상으로서 꽃을 들고 있는 도상은 그리 많지 않고, 또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존명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 마애불은 기록에 의해 미륵을 조성한 곳이 분명하여 절대적인 기준작이 되고 있다. 즉, 환적당 의천(幻寂堂 義天)의 제자인 풍계(楓溪, 1640~1708)가 지은 『환적당대사행장』에 의해 환적당이 1663년 봉암사에 머물다가 봉암사 서쪽에 미륵상으로서 마애불을 조성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마애불이 1663년 조성되었다는 절대연대와 미륵불이라는 존명이 밝혀져 도상적으로도 분명한 기준작이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원 미륵

리사지의 석불입상 등 꽃을 든 부처의 도상이 미륵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정하는데 단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이 마애불은 조선시대 마애불 중에서도 예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기량을 보이고 있다. 옛된 얼굴은 1700년에 그려진 내소사 괘불탱의 이국적이고 옛된 본존불의 얼굴로 계승되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옷자락 처리에 있어 왼팔을 덮고 있는 소매의 표현과 왼손 손가락의 표현이 일반적인 조선시대 불상 조각상의 묘사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조선시대 불화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러한 마애불의 초를 기본적으로 화승이 잡았음을 추정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덕분에 조각이면서도 회화적으로 유려하고 섬세한 마애불이 조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문헌자료

…年六十六壬寅秋 來住慶尙道聞慶縣義陽山鳳岩寺過冬 明年癸卯春 寺之西里許白雲臺 乃崔孤雲所嘗遊賞處也 川明石白 怪石崑崑 川邊有天削立石五丈許 顯刻彌勒像 因立記事碑文 文乃驪興閔判書所撰也 碑下建幻寂庵 因過夏…

『楓溪集』〈幻寂堂大師行狀〉

[“나이 60세 임인(壬寅)년 1662년 가을. 경상도 문경현 회양산 봉암사에 와 살면서 겨울을 지냈다. 이듬해 계묘(癸卯)년 1663년 봄. 봉암사 서쪽 1리쯤 되는 곳에 있는 백운대는 곧 최치원이 유람하고 감상하던 곳이다. 물이 맑고 돌이 희며 기이한 암석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물가에 자연적으로 깎인 다섯 발췌 되는 입석(立石)이 있어서 미륵상을 새기고 이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으니, 비문은 곧 여흥(驪興) 민판서가 지은 것이다. 비석 아래에 환적암(幻寂庵)을 건립하고 그대로 여름을 지냈다.”

『풍계집』〈환적당대사행장〉]

…俾作終老之期 謀建方丈之室 以師景行尙來之佛 歸心彌勒之尊 鑿慳奏功是謂一佛出世毫光 現相已見 衆生捧頭…

『新羅國曦陽山鳳巖寺古今事蹟目錄』〈白雲臺彌勒碑銘〉

[“이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작은 암자를 짓기로 하였다. 훌륭한 미래불을 스승 삼아서 미륵존자에게로 마음을 돌렸다. 딱딱한 돌을 파서 완공을 하니, 한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 빛난다고 하였다. 드러난 형상을 보고 나서는 중생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신라국회양산봉암사고금사적목록』 〈白雲臺彌勒碑銘〉]



○ 내용 및 특징

봉암사는 구산선문 중 하나인 曦陽山門의 宗刹로서, 879년(헌강왕 5)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智證大師 智誥이 창건하고, 935년(태조 18) 靜眞大師 兢讓이 중창하였다. 조선 1431년(세종 13)에 己和가 중수하였고, 1674년(현종 15) 화재로 소실된 뒤 信和가 중건하였다. 1907에도 가람이 소실되어 1915년에 世旭이 다시 퇴락한 당우를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禪刹이다.

봉암사 경내에서 계곡을 따라 10여분 정도 올라가면 “백운대(白雲臺)”라고 불리는 너른 바위굴이 나타나는데, 마애보살좌상은 이곳 화강암 바위면에 동북 방향으로 양각되어 있다. 보살좌상은 높이가 539.6cm, 너비가 502.6cm 정도이며 머리 주변을 깊게 파서 광배 형상을 만들고, 위는 깊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차 얇은 부조로 처리했다. 불상의 양측에는 王室三殿下에 대한 축원문을 음각해 놓았다.

머리는 소발(素髮)이고 육계와 머리의 경계지점에 송편 모양의 큼직한 중앙계주(髻珠)를 도드라지게 새겨 넣었다. 둥글고 가름한 얼굴에 오뚝한 콧날, 세상을 굽어보는 부드러운 눈매, 단정히 다문 입 등이 잘 조화를 이루며 호남형의 인상을 준다. 버들잎처럼 휘어진 양 눈썹 사이에는 옥색의 둥근 백호(白毫)가 박혀 있다. 이 백호는 일제강점기의 사진에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후대 어느 시점에 새로 해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머리와 육계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으며, 발제선의 중앙에는 쌍방울모양으로 맺힌 애교머리를 표현하였다. 귀는 이륜과 귓볼로 이어 어지는 몇 부분에 곡을 주어 전체적으로 길쭉한 3자 형태를 띠며, 귓구멍은 동글동글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입은 균의와 이를 묶은 띠 매듭과 팔자로 드리운 띠자락이 표현되었다. 왼쪽 어깨로 넘겨진 대의는 어깨부근에서 부채꼴 모양을 형성하였고, 팔꿈치 부근에는 ‘Ω’형 주름잡았다. 무릎을 덮어 내린 대의자락도 바람을 불어넣은 듯 품을 넉넉하게 처리하였다. 이러한 특징 있는 세부표현은 17세기에 제작된 불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소이지만, 나주 죽림사 세존괘불탱(1622)을 비롯하여 구례 화엄사 영산회괘불탱(1653년), 하동 쌍계사 팔상전 영산회상도(1688년), 여수 흥국사 영산회상도(1693년) 등 17세기 전반기 불화에서부터 등장하여 18세기 이후의 불화까지로 이어지는 불화적인 표현요소이다.

목에는 삼도(三道)를 열게 표현했고 양쪽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通肩)이며, 주름은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가슴에는 수평으로 걸친 균의와 이를 묶은 띠 매듭이 표현되었고, 주름은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며 절제감 있게 조각했다. 앉은 모습은 길상좌이며, 노출된 오른발은 불상의 크기와 넓은 무릎에 폭에 비해 작은 편이다. 대좌는 마멸이 심해 불분명하나 단판연화좌(單瓣蓮花座)로 판단하고 있으며, 육안

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 마애불은 전체적으로 얼굴은 작고 신체는 늙름하고 무릎 폭은 넓고 풍성하게 처리하여 안정감 있는 비례 속에 장대한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입체성을 강조한 얼굴은 磨研을 통해 부드럽고 온화한 부처의 본성을 강조하였고, 신체는 선묘 위주의 감각적인 표현기법을 통해 노천에 나투신 부처의 형상도 의도하였다.

이 불상에서 도상적으로 주목되는 점은 수인이다. 불상은 두 손으로 긴 다발형의 꽃가지 받쳐 쥐고 있는 모양이다. 오른손은 어깨 앞에서 꽃가지의 상단부를 쥐었고, 왼손은 배 부근에 두어 꽃가지의 하단부를 받치고 있다. 통상적으로 꽃을 지물로 취할 수 있는 여래는 석가여래와 미륵여래 중 하나로 판단되는데, 풍계가 지은 「환적당의천 행장」에 의해 환적당 의천이 발원·조성한 미륵여래로 확인된다.

미륵불은 석가여래를 이어 56억 7천만년 뒤 이 땅에 하생하여 석가여래가 구제하지 못한 인연중생들을 세 번의 설법을 통해 모두 구제한다는 부처이다. 미륵은 하생하기 전 도솔천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살이므로, 신앙적 구조는 상생과 하생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륵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널리 신앙되고 있는 불교의 대표적인 신앙 중 하나로 불상 등 예배존상으로도 많이 조성되었다. 보통 불상으로 조성될 때는 보살형과 여래형, 그리고 두 도상이 혼합된 복합형으로 표현된다.

봉암사 미륵불은 여래형으로 표현되었으며, 다발형 꽃가지를 지물로 취한 용화수인 미륵불의 도상적 특징을 보인다. 용화수인(龍華手印)의 용화라는 말은, 석가모니불의 입멸 후 56억 7천만 년이 경과하면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교화를 마치고 이 세상의 용화수 아래에 내려와 석가모니불이 구제하지 못한 중생들을 세 번의 설법을 통해 모두 구제한다는 말에서 유래한다. 봉암사 미륵불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다발형 용화수인 미륵도상은 인도 팔라기 미륵도상의 영향을 받아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전기 크게 유행한 미륵도상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그 전통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후기 불상과 불화의 대표적인 용화수인 미륵상은 서울 봉천동 마애미륵여래좌상(1630년), 부여 무량사 미륵불 괘불탱(1627년), 청양 장곡사 미륵불괘불탱(1673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이 마애불은 그동안 고려 초기 뛰어난 마애불로 인식되어 오기도 했다. 하지만 幻寂堂 義天(1603-1690)⁵⁵⁾의 행장이 확인되면서 1663년에 그가 발원·조성한

55) 환적당 의천은 자가 지경(智鏡) 호가 환적(幻寂)이고, 속성은 문씨로 선산(善山) 사람이다. 11세 때 속리산 복천사(福泉寺)의 진정당(塵靜堂) 탁린선사(琢璘禪師)를 따라 출가했고, 14세 때 금강산 정양사(正陽寺)로 서산대사의 제자인 편양당(鞭羊堂) 언기(彦機)를 찾아간다. 1년 후 속리산으로 돌아와 16세 때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남쪽 합천 해인사부터 북쪽 함경도 안변(安邊)의 석왕사(釋王寺)까지 수많은 명산대찰을 유력하다가 말년에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8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오대산 진여원, 환적암, 신성암 등이었고, 그 다음은 처음 출가했던 속리산 삼존동과 견성암이었으며, 기타 해인사(7년), 동화

미륵불임이 분명해졌다.



도465.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도 466 봉암사 미륵여래의 얼굴



도 467 서울 봉천동 마애미륵여래좌상, 1630



도 468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의 본존, 1653년



도 469 여수 홍국사 후불탱의 본존, 1693년

즉 환적당(幻寂堂) 의천(義天)의 제자인 풍계(楓溪) 明察(1640-1798)이 지은 「환적당대사행장」에 의하면, 이 마애불은 1663년(현종 4) 환적당이 60세 가을부터

사(5년), 청량산(5년), 청평사(약4년), 금강산(4년) 등에 비교적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여러 사찰을 유력했던 만큼 여러 곳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특히 재령 장수산, 안변설봉산, 강원도 오대산, 문경 회양산 등 4곳에 환적암(幻寂庵)을 세운 것이 유명하며, 사후에도 합천 해인사를 비롯해 문경 봉암사, 춘천 청평사, 월악산 덕주사, 대구 용연사, 태백산 각화사, 거창 연수사, 인동 대곡사 등 8곳에 사리를 나누어 탑을 세웠다. 김풍기, 『淸平寺 幻寂堂 浮屠에 대한 一考察』, 『강원문화연구』 11(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2), 94-97쪽 참조

61세 여름까지 이곳 봉암사 약 1년간 머무르고 있을 당시 자신의 願佛인 彌勒佛을 조각하고, 관련 사실을 후대에 판서를 역임한 閔黯(1636-1694)이 비문을 지어 비석을 세웠고, 자신은 碑 아래에 幻寂庵이라는 암자를 짓고 그 해 여름을 보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이 60세 임인(壬寅)년 1662년 가을. 경상도 문경현 회양산 봉암사에 와 살면서 겨울을 지냈다. 이듬해 계묘(癸卯)년 1663년 봄. 봉암사 서쪽 1리쯤 되는 곳에 있는 백운대는 곧 최치원이 유람하고 감상하던 곳이다. 물이 맑고 돌이 희며 기이한 암석이 우뚝우뚝 서 있었다. 물가에 자연적으로 깎인 다섯 발췌 되는 입석(立石)이 있어서 미륵상을 새기고 이 사실을 기록한 비석을 세웠으니, 비문은 곧 여흥(驪興) 민판서가 지은 것이다. 비석 아래 환적암(幻寂庵)을 건립하고 그대로 여름을 지냈다.”(… 年六十六壬寅秋 來住慶尙道聞慶縣 義陽山鳳岩寺過冬 明年癸卯春 寺之西里許白雲臺 乃崔孤雲所嘗遊賞處也 川明石白 恠石崑崑 川邊有天削立石五丈許 顯刻彌勒像 因立記事碑文 文乃驪興閔判書所撰也 碑下建幻寂庵 因過夏 …) 『풍계집』, 「幻寂堂大師行狀」 12)

다음으로는 현재 봉암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라국회양산봉암사고금사적목록』에 수록된 「백운대미륵비명」의 기록인데, 내용은 환적당 행적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유사하나 행장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주는 내용이다.

“이 곳에서 여생을 보내려고 작은 암자를 짓기로 하였다. 훌륭한 미래불을 스승 삼아서 미륵존자에게로 마음을 돌렸다. 딱딱한 돌을 파서 완공을 하니, 한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 빛난다고 하였다. 드러난 형상을 보고 나서는 중생들이 머리를 조아렸다.”(… 俾作終老之期 謀建方丈之室 以師景行尙來之佛 歸心彌勒之尊 鑿慳奏功 是謂一佛出世毫光 現相已見 衆生捧頭 …) 『신라국회양산봉암사고금사적목록』, 「白雲臺彌勒碑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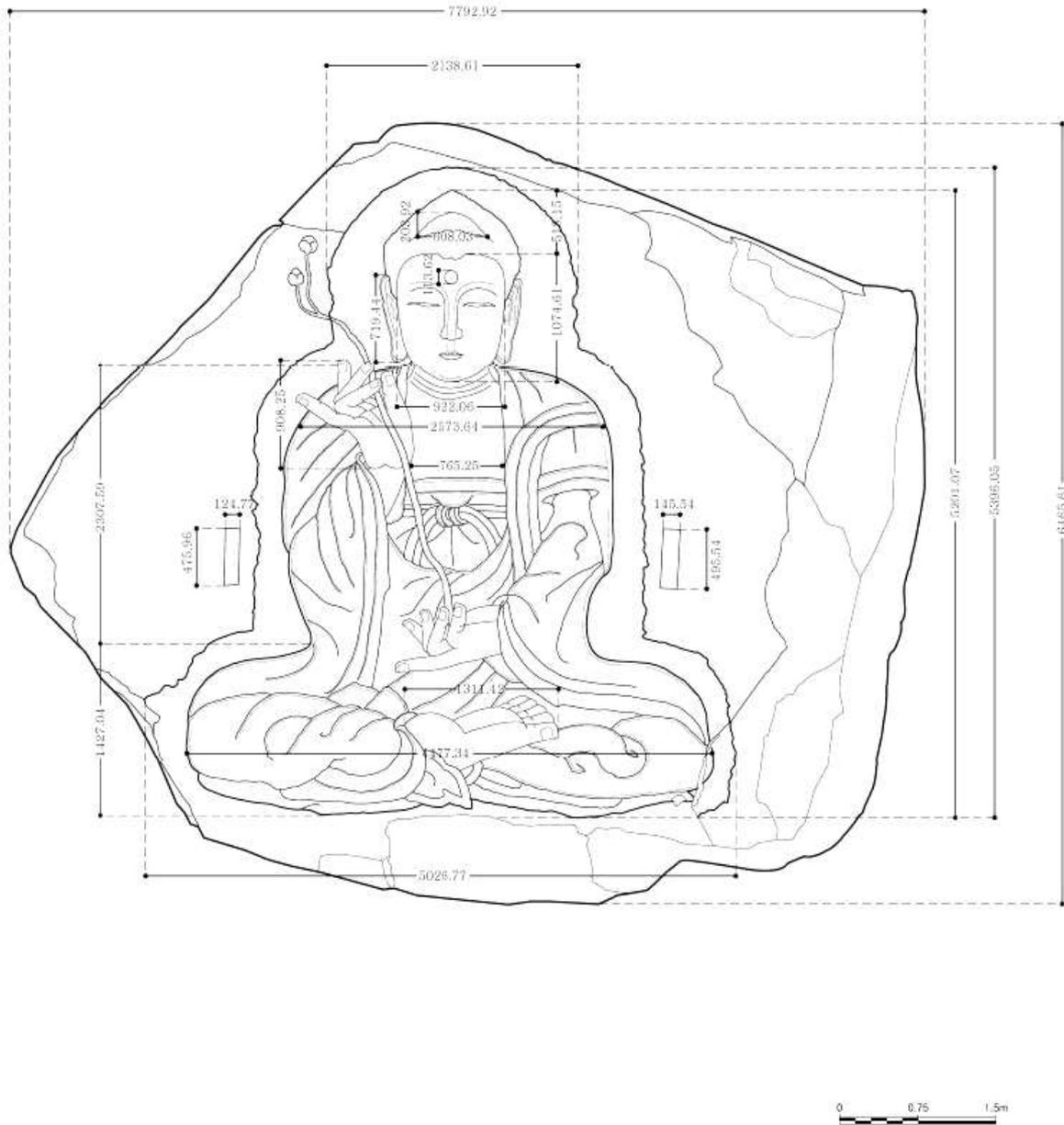


그림 333. 문경 봉암사 마애미륵여래좌상 실측도

○ 참고문헌

金和英, 「鳳巖寺 磨崖佛坐像」, 『美術史學研究』 56·57, 한국미술사학회, 1965.

金豊起, 「清平寺 幻寂堂 浮屠에 대한 一考察」, 『강원문화연구』 11,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2.

손영문, 「고려시대 용화수인 미륵도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52, 한국미술사학회, 2006.

14. '미륵원'명 청동북 ('彌勒院'銘 金鼓)

가. 검토사항

'미륵원명 청동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미륵원명 청동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18.12.24.)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5.27.) 및 과학조사('20.5.27./6.1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미륵원'명 청동북('彌勒院'銘 金鼓)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등구사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축동길 7-40, 등구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지름 53.2cm. 당좌 구경 8.8cm.
앞면 내구경 22.4cm. 중구경 35.7cm. 외구경 52.2cm.
앞면 당좌 지름 8.8cm. 뒷면 내경 40.7cm. 측면폭 10.5cm.
두께 : 고면 4.3mm, 측면 4.7mm, 구연부면 4.8mm.
- 재 질 : 청동(구리 78% : 주석 13% : 납 8%의 3원계 합금)
- 형 식 : 반자형 금고
- 조성연대 : 1190년(고려 명종 20)



그림 334. '미륵원'명 청동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미륵원명 청동북은 12세기 후반의 귀중한 기년명 불교공예품으로서, 동시대의 청동북 중에서도 비교적 큰 크기와 뛰어난 조형성, 그리고 우수한 주조기법 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고려시대의 작품이다. 현재 고려시대의 청동북은 기년명을 가진 12세기의 작품들이 많지 않으며, 13세기의 예들도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청동북은 기지정된 보물 청동북들보다 훨씬 우수한 양식과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확실한 제작 연대와 명칭, 발원자와 사찰명 등이 남아 있는 귀중한 작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전면을 굽은 동심원으로 3부분으로 구획하고, 당좌구와 내구에는 연씨와 연꽃, 외구의 공간에는 역동적인 넝쿨무늬를 배열하여 단조롭지 않은 구성력을 보인다. 이러한 구획은 이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제작된 '大定 19년(1179)명 금고'의 형태미를 계승하면서도 연씨의 개수와 배열방식, 그리고 中區를 여백으로 처리하여 변화를 시도하였다. 동시기의 미적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작가의 새로운 창작 의지도 가미한 金鼓로서 예술성도 우수하다.

국내 현존 고려시대 금고의 수는 약 50여점 헤아려지고, 12세기 이전에 제작된 금고의 대부분은 지름이 30~40cm정도이다. 이 금고의 지름이 51.5cm로 이 시기

다른 金鼓에 비해 단연 돋보인다 하겠다.

이 금고는 측면 음각명문을 통해 明昌 2년 庚戌年(1190) 彌勒院에 걸기 위해 제작된 한 기년명 金鼓로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미륵원은 인제원의 후신으로, 고려시대 잠깐 운영되는 동안 사용되었던 명칭으로 판단되며, 1530년 『新增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될 당시에는 다시 원래의 명칭인 인제원으로 불렸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청동북을 통해, 잠깐동안이지만 공주 차현(차령) 인근에 존속했던 ‘미륵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명문에서 분명히 이 금고를 ‘반자’라는 사용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고려시대 뒷면에 공명구를 설치한 형태를 ‘반자’라고 불렀던 사례와도 맥락이 일치하므로, 고려시대 金鼓史에서 중요시 다루어야 할 학술적 자료임에 틀림없다. 위와 같은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미륵원’명 청동북은 고려시대 1191년 혹은 1190년 12세기 후반의 기년명 자료로서 고려시대 금속공예품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가 있어 보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명문에는 연호와 간지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명창 2년 경술”이라는 정확한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 청동북을 희소한 단어인 ‘鉦子’로 기록한 점, ‘미륵원’이라는 사용처, 무게, 동량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고려시대 청동북 연구에서 귀중한 기준작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이 청동북은 고려시대 주물 제작 기술을 잘 볼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큰 작품이다. 이 청동북의 전체적인 모습은 다소 거친 면이 있지만, 쇳물을 붓는 주입구와 주출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형지의 크기와 위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을 땀을 통해 보수하는 등 고려시대 청동북의 제작 양상을 파악하기에 좋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고려시대 불교공예품 연구에 귀중한 자료인 미륵원명 청동북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고려시대 불교 공예품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형 식

이 금속공예품은 사찰의 일상적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이자 범음구(梵音具)인 청동제 금고(金鼓)로서, 금구, 반자, 청동북, 쇠북 등으로 불리운다. 현존하는 청동북들은 공명구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세 가지 형식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미륵원명 청동북은 뒷면이 뚫려 있는 형식에 속한다(도 1, 2).

이 청동북은 앞면은 중앙의 연꽃 무늬를 중심으로 3단으로 나누어 문양을 배치했는데, 내구에는 연꽃을 양각선으로 새기고, 중구에는 문양이 없다. 외구에는 구름같은 당초문을 양각으로 새겼다.紐는 3군데에 있으며, 뒷면 구연부를 따라 가면서 음각의 명문 44자를 새겨 놓았다. 뒷면에는 공명구가 상당히 넓고 크게 뚫려 있다.



도 1. 미륵원명 청동북 앞면.



도 2. 미륵원명 청동북 뒷면.

○ 조성연대

측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 고려시대 명창(明昌) 2년 경술 11월에 제작된 것이 확인된다. 명창 2년은 고려 명종 21년으로, 서기 1191년에 해당하므로, 12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 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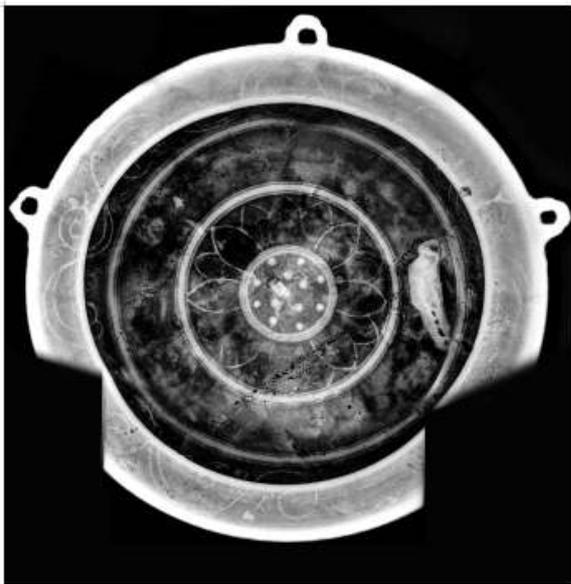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녹청색으로 부식된 상태인데, 육안으로 보면 앞면의 보존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뒷면 내부는 부식이 심한 편이다.

X-ray 조사에 의하면, 주조품의 특징인 주조 기포들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우측 고리 부근에서는 주조 결함으로 인한 구멍도 확인되었다. 또한 X-ray 사진에서 보면 중앙부 우측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밝게 찍힌 부분들이 보이는데(도 3), 이 부분들은 성분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납 함량이 높게 검출되었다. 즉, 이 부분들은 제작 과정이나 사용 중에 발생한 결함들을 납 성분의 땀질로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윗면 중앙부를 비롯하여 9개소에서 방형의 형지(型持) 흔적이 확인되는데(도 4), 역시 형지들도 본체에 비해 납성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청동북은 3개의 뉴를 가진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청동북으로, 사찰에서 사용하는 불교 의례용 범음구이다. 내구에는 16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당좌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당좌 안에는 14개의 연과(蓮顆)가 양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표면



도 3. 미륵원명 금고의 X-ray 사진.



도 4. 미륵원명 금고의 형지 및 땀 부분 분석

(국립문화재연구소)

이 다소 마모되어 녹아래의 원래 금속 색이 드러나 보인다(도 5) 연꽃잎의 조각은 얇게 도드라진 양각으로 표현되었는데, 꽃잎들의 배치가 균형감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



도 5. 당좌와 내구의 연꽃.

중구에는 별다른 문양이 없고, 내구, 중구, 외구의 구획은 3조의 굵은 양각선으로 이루어진 동심원으로 구획하였다. 외구에는 역시 얇게 도드라진 선으로 유려한 당초문을 표현했는데, 자유롭고 활달하면서도 우아한 양식을 보여준다(도 6).



도 6. 외구의 당초문 세부.

뒷면 구연부에 음각으로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원래 이 청동북은 충남 공주(公州)에 있던 인제원에 있던 것으로 나중에 인제원(仁濟院)이 미륵원으로 이름을 고쳤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현재 공주의 인제원, 혹은 미륵원의 위치가 어



도 7. 명문 세부.

디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명문은 축조기법으로 새겼고, 글씨체는 상당히 유려한 편이다(도 7).

이 청동북은 12세기의 청동북들 중에서 비교적 큰 크기의 대형 청동북이며, 문양의 조각 솜씨가 좋고 형지 및 주조 후 수리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 청동기의 제작 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국에서 청동북은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 경부터 제작되기 시작했는데, 기년명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9세기경부터 12세기까지의 기년명 청동북은 십여점에 불과하며, 행방불명된 작품들도 여러 점이 있다. 그중에서 현재 약 3점 정도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13세기의 청동북 중에서도 역시 3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미륵원명 청동북은 12세

기 후반의 기년명을 가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12세기의 청동북들 중에서는 비교적 대형에 속하며, 문양의 선조 양식도 상당히 뛰어난 편으로서 중요한 작품이다.

○ 문헌자료

구연부 측면에 다음과 같은 44자의 명문이 있다.

“明昌二年庚戌十一月日公州土車懸用仁濟院改號弥勒院顯排銚子壹入重肆拾三斤捌兩印 棟梁道人孝安”.

내용은 “명창 2년 경술 11월일에 공주 土車懸에 있는 인제원을 미륵원으로 고쳐부르고 銚子를 사용했으며, 무게는 43근 8량이다. 동량은 도인 효안이다.”라는 것으로, 효안이라는 인명과 사찰 명, 그리고 “銚子”라는 명칭이 나와서 주목된다.

○ 기 타

이 청동북은 서울 종로 소재의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으로, 이후 재미교포인 소 스캇에게 양도되었었다. 이후 2017년 11월 소 스캇이 등구사의 주지 스님인 인담스님께 기증해서 등구사에 소장되었다고 한다.



○ 내용 및 특징

미륵원명 금고의 출토지와 입수 경위는 미상이다. 원래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국 불교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작품이었는데, 이후 재미교포인 소스캇에게 양

도되었다가 다시 해인사 말사인 함양 등구사에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이 금고가 어떻게 발견되어 불교미술박물관에 입수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금고의 측면에 있는 명문에 의해, 처음 봉안된 곳은 충청남도 공주 미륵원에 봉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금고의 상태는 제작당시의 주물 흠과 오랜 세월을 견뎌 온 청동 녹, 그리고 제작 당시 주물 결합 또는 사용하다 고친 흔적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제외하면 금고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금고는 금구, 또는 반자로 불렀는데 뒷면이 일반적으로 명문을 통해 뒤가 뚫린 것은 반자, 앞 뒤면이 다 막힌 것은 금구라고 알려져 있다. 미륵원명 금고는 이른바 뒷면이 크게 열려 있는 반자형 금고이다. 전면과 후면은 편평한 편이며, 측면은 불룩하게 둥글려 전체적으로 납작한 북모양이다. 鼓面은 撞座區, 內區, 中區, 外區로 구획하였다. 구획선은 중간에 굵은 용기선을 두고 그 좌우에는 가는 결 선을 돌린 3중선의 형태이다. 동심원을 이용하여 3-4개의 구획으로 나누는 구획방식은 통일신라시대 금고인 ‘함통 6년명 청동북’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금고 및 조선시대 금고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당나라 義淨三藏이 703년에 번역한 『金剛明最勝王經』 卷3 ‘夢見金鼓懺悔品’에 설하고 있는 내용을 형상화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경전에는 “이때 信相菩薩이 그 날 밤 꿈에 금고를 보았는데 크기가 장대하고 밝음이 널리 비치어 햇빛에 비유되었다. 다시 광명 가운데에 十方 無邊諸佛이 보이고 世尊이 寶樹 아래의 琉璃座에 무량한 百千眷屬에 둘러싸여 앉았는데, 그 소리는 懺悔偈頌의 연설과 같더라”라고 설하고 있다. 즉 金鼓는 이른바 태양의 빛과 관련된 것으로, 부처님의 眞理光明이 十方法界로 퍼져 나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좌구에는 연씨를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연씨는 중심에 하나, 그것을 둘러싸고 다섯, 다시 그것을 둘러싸고 8개를 두어 모두 14개의 연씨를 표현하였다. 그 주위에 내구에는 펜촉모양으로 끝이 뾰족한 연잎을 돌렸다. 내구에는 아무런 문양을 새기지 않았다. 외구에는 ‘S’자형으로 역동적으로 뻗어가는 넝쿨무늬를 시문하였다. 금고의 당좌구부터 외구까지 화려한 문양은 아니지만 내구에 연꽃을, 외구에 넝쿨무늬를 넣어 화려하지도 단조롭지 않게 금고를 장식하였다. 특히 이곳에서 표현된 끝이 뾰족한 8엽의 연꽃과 S자형으로 연결된 넝쿨무늬는 大定 19年銘 청동북(국립중앙박물관, 지름 42.5cm) 등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금고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이 금고 역시 시대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측면의 중앙에는 3줄의 용기선대로 양분하고, 용기선대 위 세 곳에 고리를 달았다. 고리 모양은 능을 준 꽃모양이며, 중앙과 양 어깨부분에 달았다. 중앙 고리와 양 좌측 고리 사이 두 곳에는 주물구의 흔적이 남아 있고, 중구와 입술부분에는 내틀과 외틀을 고정했던 방형의 틀잡이 자국이 관찰된다. 고면(鼓面)은 거의 수평

을 이루고 있고, 측면의 둥글렀다. 입술은 짧아 입(공명구)이 크게 열려있는 상태이며, 입술은 밖으로 벌어진 모습이다. 입술의 끝은 굽은 선을 돌려 마감하였다. 입술부분에는 44자의 음각 명문을 축조기법으로 새겼다. 글씨는 반듯한 해서체의 서풍이며, 고려시대 금고의 명문은 대개 측면부에 많이 새겨지나 입술 부분에 새겨져 있어 주목되는 사례이다. 새겨진 명문은 아래와 같고, 한 두 글자에서 대한 해석과 판독에서 이견이 있다.

明昌二年庚戌十一月日公州土車懸用仁濟院改號弥勒院懸排鉸子壹入重肆拾參斤捌兩印 棟梁道人孝安

① 허흥식 역 : 明昌 경술년 11월 모일 공州 土車懸 땅에 있는 仁濟院의 이름을 弥勒院으로 바꾸고, 鉸子 하나를 걸었다. 무게는 43근 8량이 들어갔다. 棟梁은 道人 孝安이다.

② 채웅석 역 : 明昌 2년 庚戌 11월 일 공州땅 …(해석불명)… 仁濟院을 弥勒院이라고 이름 바꾸고, 鉸子 하나를 걸었습니다. 무게는 43근 8량이 들어갔습니다. 끝. 棟梁은 道人 孝安입니다.

③ 문경호 역 : 명창 2년 경술 11월 일 공주땅 車懸(車峴=차령) 꼭대기에 있는 인제원을 미륵원으로 바꾸고, 반자 하나를 걸었다. 무게는 43근 8량이 들어갔다. 동량은 효안이다.

금고의 명문은 제작시기, 봉안처, 무게, 제작자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명문에 표기된 明昌은 金나라 章宗(完顏璟, 재위 1189-1208)의 연호로, 명창 2년은 고려 명종 21년 1191년에 해당하며, 庚戌은 이보다 한해 앞선 1190년에 해당한다. 대개 연호와 간지가 맞지 않을 때는 간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190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금고를 걸었던 곳은 미륵원으로, 금고를 걸 당시 인제원에서 미륵원으로 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금고의 무게는 48근 8량이며, 제작에 참여한 棟梁은 孝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금고를 처음 걸었던 미륵원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지만, 미륵원으로 이름을 고치기 부르기 전 사용했던 ‘인제원’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된다. 우선 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7, 충청도 공주목 역원조에는 “인제원 주 북쪽 52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仁儲院, 仁智院 등으로 조사되어 있지만, 조선 후기 『公山誌』 등 여러 읍지를 통해 원래는 인제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棟梁은 사중에서 제주와 덕이 뛰어난 대덕으로 특정 불사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이자 분향수도하는 승려를 일컫는 말인데, 고려시대 불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직책이자 용례이다.

대개 쟁점은 연호 다음에 나오는 지명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문경호는 논문에서 허흥식이 해석한 ‘공주땅 토거현(公州土車縣)’은 현재까지의 기록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지명이라는 데 착안하여, 채웅석의 ‘공주땅(公州土) 모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車懸’은 ‘車峴(차령)’으로 해석하고, 같은 한자음을 음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해석은 현재 차령고개 부근에 인제원의 지명이 남아 있는 것과도 맥락이 통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인제원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공주에서 천안으로 넘어가는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뒷말의 절터로 생각되는데, 그곳에는 현재까지도 仁儲院, 仁智院 등의 지명이 남아 있고, 지역주민들은 차령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인제원 고개, 원터 고개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 볼 때 인제원은 명종 19년 미륵원으로 개명되어 한동안 부르다가 이후 어느 시점에 다시 인제원 고쳐 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 1 미륵원명 청동북(1191년) 도 2 미륵원명 청동북 배면



도 3 구연부 명문 1 도 4 구연부 명문 2 도 5 구연부 명문3 도 6 구연부 명문4



도 7 대정 19년(1179년)명 청동북



도 8 北禪院寺銘 청동북, 호암미술관, 1218년

○ 참고문헌

- 최응천, 「高麗時代 靑銅金鼓의 研究」,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8
 문경호, 「公州 彌勒院 飯子の 銘文과 奉安處에 대한 재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21권1호, 역사문화학회, 2018

□

○ 형 식

<미륵원명 청동북>은 사찰의 불교 의례에서 사용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의 한 종류로, 범종(梵鍾), 목어(木魚), 운판(雲板) 등과 함께 사찰 의식 때 범음을 내는 범음구(梵音具)이다. 청동북은 금고(金鼓), 금구(禁口), 반자(盤子), 쇠북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공양(供養) 시간을 알리거나 사람을 모을 때 주로 사용한다. 절의 건물 안팎에 간단하게 만든 나무기둥[架]에 걸어놓거나 처마 밑에 달아 당목(撞木)으로 치면 독특한 고음(高音)이 울린다.



도 2. 앞면(고면)



도 3. 뒷면



도 4. 측면

청동북은 공명구(共鳴口)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청동북의 뒷면을 넓게 뚫어 구연을 좁게 만든 형식과 둘째는 구연이 확장되어 공명구가 좁아지는 형식, 셋째는 앞뒷면이 모두 막혀 측면에 공명구를 뚫은 형식이다. <미륵원명 청동북>은 첫 번째 형식으로, 고려시대 전시기에 걸쳐 가장 많이 제작된 일반적인 형식이다. 이를 반자(盤子, 飯子, 半子, 判子, 般子)라고도 한다.⁵⁶⁾

<미륵원명 청동북>은 앞면인 고면(鼓面)에는 굵고 가는 동심원(同心圓)을 둘러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가장 중앙에 당좌구(撞座區)를 배치하고, 그 옆에 내구(內區), 중구(中區), 외구(外區)가 둘러 있다. 당좌구에는 볼록한 연과(蓮顆)를 1개, 5개, 8개가 에워싸는 형태로 배치하였다. 내구에는 8개의 단판연판문이 자리하며,

56) 청동북을 음식 반을 사용한 '飯子'로 표기한 것은 금고의 용도 가운데 공양 시간을 알릴 때 사용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黃壽永, 「新羅·高麗 在銘 禁求考」, 『海圓黃義敦先生古稀記念私學論叢』, 1960, pp. 365~380.

연잎과 연잎 사이에도 잎을 묘사하였다. 중구에는 문양이 없으며, 외구에는 자유로운 당초문을 장식하였다. 뒷면에는 공명구가 넓고 크게 뚫려 구연이 13cm 정도이다. 측면 중앙에는 굽고 가는 세 줄의 용기문이 둘러져 있고, 3개의 고리가 위쪽과 양쪽 측면에 간격을 이루며 달려 있다. 고리의 모양은 살짝 굴곡이 진 삼엽형이다

○ 조성연대

이 청동북은 명문이 있어 조성연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일반적으로 명문은 청동북의 측면에 많이 새기는데, <미륵원명 청동북>은 뒷면의 구연에 있어 눈길을 끈다. 명문은 <도5>와 같이 1행으로 새겼는데, ①의 자리에 “明昌二年庚戌十一月日公州土車懸用仁濟院改號弥勒院懸排鉸子壹入重肆拾參斤捌兩印”이라 쓰고, 14.2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어서 ②의 자리에 “棟梁道人孝安”라고 적어 두었다. 명문은 해서체로 총 44자를 새겼는데, 끝로 여러 번 쪼아서 단정하게 음각하였다.

고려시대 청동북은 대개 연호(年號)나 간지(干支)를 먼저 밝히고 월과 일의 순서로 기록한다. 하지만 11~13세기 청동북은 대부분 월(月)까지만 기록하고 날짜 없이 일만 표기한 경우가 많고, 14세기 이후에는 날짜까지 기록하여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미륵원명 청동북> 역시 금나라 연호인 명창(明昌) 2년을 먼저 쓰고, 간지인 경술(庚戌)을 이어 쓴 후 11월까지 적었다. 날짜(日)는 생략하여 12세기 후반의 시대적 특징이 있는 명문임을 알 수 있다.

명문 중 연호와 간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은 주목된다. 명창 2년(1191년)의 간지는 ‘신해(辛亥)’이며, 경술년은 명창 1년으로 1190년에 해당한다. 고려시대 금고 중 간지와 연호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간지명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청동북의 제작 연대를 1190년으로 올려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⁵⁷⁾

금나라 연호	간지	서기
명창(明昌) 1년	경술(庚戌)	1190년
명창(明昌) 2년	신해(辛亥)	1191년

명문에서 “土車懸用”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주(公州)’라는 지역명에 이어서 ‘토거현(土車懸)’이 적혀 있어

57) 삼성 리움 소장의 경선사명 청동북(보물 제2008호)은 “貞祐二年 戊寅七月日”이라고 조성연대가 적혀 있으나, 연호와 간지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정우 2년(1214년)의 간지는 갑술(甲戌)이며, 무인년은 1218년으로 흥정(興定) 2년에 해당한다.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p. 65.

“공주 토거현에 있는 인제원이 미륵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이 반자를 걸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懸’은 ‘걸다’는 의미로 고을을 뜻하는 ‘縣’과 같은 의미로 보기 어렵고, 특히 명문의 후반에서도 ‘懸排鉞子’ 즉 반자를 걸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懸’을 ‘걸다’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명문을 다시 해석해보면, 토거(土車)를 ‘흙을 운반하는 수레’로 이해하여 “土車懸用”를 “(반자를) 토거에 달아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⁵⁸⁾ 따라서 명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명창(明昌) 2년 경술년 11월 (반자를) 공주(公州) 토거(土車)에 걸어서 사용하다가 인제원(仁濟院)이 미륵원(彌勒院)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이) 반자(鉞子)를 걸었다. 반자 1개의 무게는 43근 8량이고, 중심이 된 동량도인(棟梁道人)은 효안(孝安)”이다. 명문에 청동북을 제작한 연도, 소장처, 무게, 동량을 기록하였다. 특히 청동북을 ‘鉞子’라 표기하였는데, 고려시대 청동북의 명문 중 ‘鉞子’라 3건으로 드문 예에 속한다.⁵⁹⁾



도 479. 명문의 위치



도 480. 명문 세부



도 481. 명문의 세부

○ 현 상

이 청동북은 쇳물을 틀에 부어서 만드는 주조기법에 의해 제작되었다. 측면에 사각형의 돌출된 부분이 2곳 있는데, 하나는 쇳물을 붓는 주입구이고, 하나는 주출구이다. 주출구는 쇳물이 차오르면서 공기가 빠질 수 있는 공기구멍 역할을 한다. 이 주입구와 주출구는 측면의 정중앙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청동북의 틀인 내형

58) 조선 후기의 문신 서영보(徐榮輔)의 시문집인 『죽석관유집(竹石館遺集)』 第2冊 序, 送履翁赴燕序에서 ‘東土車何異’이라는 구절에서 ‘土車’를 수레로 해석하여 “땅에서 수레 타는 것과 뭐가 다르랴”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참고

59) 최응천, 「고려시대 금고의 특성과 명문 고찰」, 『보조사상』 49, 2017, p. 134. <표 1> 고려시대 금고의 명칭과 수량 참고.

(內型)과 외형((外型)이 맞붙는 지점이다. 내형과 외형이 만나는 이 지점에 주입구와 주출구를 만들고, 또, 그 지점에 용기선으로 둘렀다. 이는 완성 후 주입구와 주출구가 눈에 잘 띄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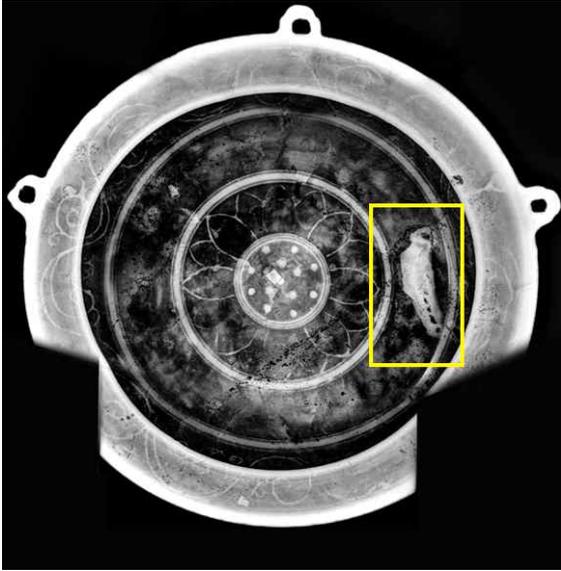
청동북의 표면에는 여러 곳에 미세하게 파인 흔적이 있는데, 이는 기포자국이다. 쇠물을 부을 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공기들로 인해 자국이다.



도 345. 주입구와 주출구



도 346. 반자 측면의 기포자국



도 347. 방사선 투과 사진에 나타난 땀 부분

도 348. 고면의 땀 한 부분

앞면인 고면의 중앙 우측부에 가로 12cm, 세로 3.8cm 정도의 땀을 한 흔적이 크게 남아 있다. 이 부분은 과학 성분 분석에 따르면 바탕체에 비해 납과 주석의 함량이 높게 검출되며 앞면 내외부면의 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이를 땀질하여 보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고면의 지름이 52cm인 이 청동북은 대형 사이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쇳물을 주입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안으로도 청동북의 앞뒷면에 형지(型持)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형지는 청동 제품을 제작할 때 내형(內型)을 고정시키고, 내형과 외형(外型)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다. 앞면인 고면에는 가로세로의 길이가 약 1cm 가량인 사각형의 형지가 4개, 뒷면 구연부면에도 4개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지들은 9~11cm 정도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청동북의 내외부 모서리에는 날카로운 칼로 긁은 듯한 흔적이 있는데, 이는 제작이 완성된 후 줄로 갈아낸 흔적이다. 그리고 청동북의 일부에 파손된 흔적이 남아 있는데, 고면의 땀질한 부분, 뒷면 명문의 ‘孝安’ 옆 구연부는 깊게 파여져 있고, 측면 고리 옆에는 작은 구멍도 있다. <미륵원명 청동북>은 전체적으로 완형을 갖추고 있으며, 큰 손상없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공명 안쪽에 푸른 녹과 함께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추후 보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도 349. 청동북 앞면의 형지 자국



도 350. 구연부의 형지 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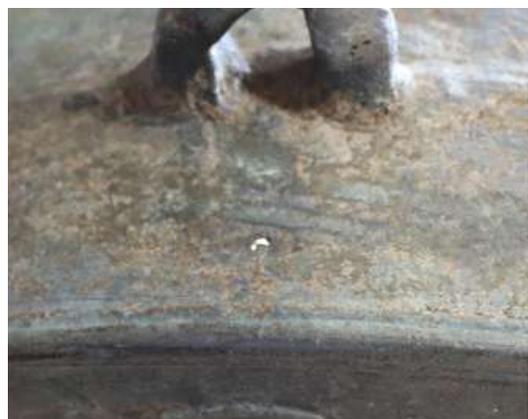
도 351. 줄질한 흔적



도 352. 훼손 된 부분 : 앞면



도 353. 훼손 된 부분 : 구연부



도 354. 측면의 구멍

○ 내용 및 특징 : 현재 제작 연도가 확인된 청동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은 통일신라 경문왕 5년인 865년에 제작된 <함통6년명 청동북(咸通六年銘 靑銅金鼓)>이며, 고려시대 청동북은 국내외에 84여 점이 확인된다. <미륵원명 청동북>은 고면의 지름이 52cm으로, 고려시대 청동북은 대체로 크기가 30~40c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대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고려시대 청동북 중 고면의 지름이 50cm 이상 되는 대형의 청동북은 12점 뿐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⁶⁰⁾

○ 문헌자료

명문에 기록된 ‘인제원’과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 주목된다. 권17, 공주목(公州牧) 역원조(驛院條)에 따르면 인제원(仁濟院)은 주 북쪽 52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⁶¹⁾ 인제원(미륵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 타

<미륵원명 청동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국불교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이다. 이후 재미교포인 소스캇에게 양도되었다가 등구사 주지인 인담스님에게 기증되었다고 한다. 소스캇은 유물의 원래 소재지와 가까운 사찰에 기증하기를 권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2017년 11월 해인사에서 재무소임을 맡아 계시던 인담 스님에게 기증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등구사에 소장되어 있다.

60) 고려시대 청동북 중 50cm 이상의 대형 사이즈는 미륵원명 청동북을 포함하여 모두 12점이다. 이하연, 「고려시대 간지명 금고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pp. 159~162.

61) 『新增東國輿地勝覽』卷17, 忠淸道, 公州牧 驛院, “仁濟院 在州北五十二里”

15. 말모이 원고(말모이 原稿)

가. 검토사항

‘말모이 원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 언론 등으로부터 독립운동사료 포함 근대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재평가 요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재 278건을 대상으로 자문회의('19.7.15./9.5.) 및 본 위원회 제7차 소위원회('19.11.14.)에서 재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말모이 원고’, ‘데니(Denny) 태극기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검토된 문화재 9건을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본 위원회 제6차·제7차 회의('19.10.10./'19.12.12.)에 경과를 보고하였음.
- 이에,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말모이 원고’에 대해 관계전문가 조사('20.7.2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지정조사 대상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 19세기~일제강점기 •(주체) 단체 위주 •(대상) 한글, 태극기 등 대한민국 역사상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문화재
선정대상 (총9건)	① 데니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제382호), ② 김구 서명문 태극기(제388호), ③ 불원복 태극기(제394호), ④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458호), ⑤ 말모이 원고(523호), ⑥ 조선말 큰사전 원고(524-1호), ⑦ 조선말 큰사전 원고(524-2호), ⑧ 윤동주 친필 원고(712호), ⑨ 이봉창 의사 선서문(745-1호)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2012.12.24.)
- 명 칭 : 말모이 원고(말모이 原稿)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인 『말모이 원고』는 2012년 12월 24일에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가 되었다. 이번에 지정문화재 승격대상에 포함되어 지정가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된 바, 그 가치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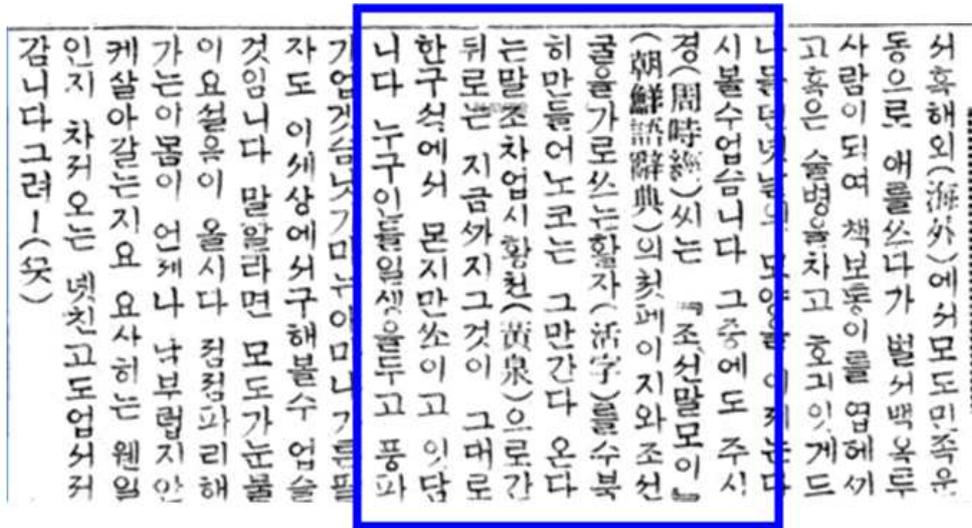
『말모이 원고』는 개화기 이후 국어학자들의 스승인 주시경과 제자들이 민족의 자각심과 우리말의 우수성을 보이고 알리기 위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인 국어사전 원고이다. 더욱이 국가의 운명이 암울하였던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4]년경에 이 원고를 편찬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먼저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시경의 사망과 여러 내외적인 이유로 이 원고의 완성여부는 불명한다. 다 현전하는 원고로는 이 한 책이 유일하다. 당시 편찬 완성된 『말모이원고』가 얼마나 되는 분량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원고가 미농지계통의 고급종이로 만든 『말모이』 전용원고지에 필사된 점을 볼 때, 상당부분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쉽지만 이 한 책이라도 전하여 당시 국어사전 편찬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선각자들의 노력이 이후 발행된 방대한 『조선말 큰사전』의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인 『말모이원고』는 발행은 되지 못하였지만 후일 우리말 사전의 편찬과 발행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표제항과 뜻풀이 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말모이 원고』는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항구히 보존하여야 할 문화재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말모이원고』는 자료 자체에는 조성연대나 작성자의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고 잔존본이 극히 일부인 점, 제작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국어사적 가치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는 분명하다. 즉 『말모이 원고』는 주시경(1879-1914)을 중심으로 김두봉(1889-1960), 권덕규(1890-1950), 이규영(1890-1920)등이 편찬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간행을 위한 시도의 산물이며 “말모이”라는 표기는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26.1.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도 등장하고 있어 (주시경(周時經) 씨는 『조선말모이』(朝鮮語辭典)

의 첫페이지와 조선글을 가로쓰는 활자(活字)를 수북히 만들어 노코는 그만간다 온다는 말조차업시 황천(黃泉)으로 간 뒤로는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한구석에서 문지만쓰이고 잇답니다) 적어도 1926년 이전에 사전 편찬을 위한 초기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26년 1월 2일자]

따라서 우리말 사전의 출간을 위하여 작성된 원고라는 점은 명백하며 우리나라 초기 사전 제작의 모습을 담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말모이 原稿』는 일제강점기에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편찬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이다. 이 같은 역사적인 가치와 함께 국어학 연구의 중요 자료라는 점에서 2012년 12월 24일에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가 되었다.

조사본은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대에 검열과 출판을 위하여 전용 원고지를 제작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인 1909년에 ‘국문연구소’ 주관으로 제정되었던 최초의 국문(國文) 표기 통일안인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이 1910년 식민지화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대신에 조선총독부에서 작성된 ‘보통 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이 시행되었으나, ‘말모이 원고’에는 [국문연구의정안]에서 제정한 철자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사본은 [1914]년경에 편찬을 위한 과정 중에 주시경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여러 내·외적인 이유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원고의 전체적인 수량

과 완성 여부 등이 상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전하는 원고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한편, 조사본의 체제는 ‘알기’·‘본문’·‘찾기’·‘자획찾기’로 되어 있고, 본문은 ‘ㄱ’ 닷소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어(新語), 가택수색(家宅搜索), 감리서(監理署), 조약(條約), 개교식(開校式), 개화당(開化黨)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1,400여개 단어를 체계적으로 수록해놓았다. 아울러 표제항과 뜻풀이 말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곧 근대 시기를 반영하는 ‘우리말 사전’으로서 비록 완성하지는 못했으나, 우리말 사전의 편찬과 발행의 모태가 되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조사본 『말모이 原稿』는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전, 관리하고 연구할 문화재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국어사전은 그 나라의 학문의 총결산이며 그 나라의 문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왜냐 하면 언어와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협동하고 협동을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전달받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사 전달의 기본 요소는 어휘이고 그 어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은 것이 곧 국어사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를 문화의 한 요소로 인식한다면 언어의 단위 중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요소가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를 언어의 기본단위로 하여 편찬된 것은 곧 그 나라의 국어사전이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과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서로가 사용하는 어휘는 곧 의미전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어휘가 다르거나 그 어휘의 의미나 용법이 다르다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사람들은 그가 처해 있는 지역, 시대, 연령,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지역 출신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없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어휘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모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배열하고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은 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사전을 찾으면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찾으려고 하는 어휘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어휘가 등재되어 있는 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의 보물 특호라고 할 수 있고 한글은 유형문화재의 보물 특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글’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

하여 이들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한국어’가 그러하다. 그런데 이 무형적인 ‘한국어’를 유형적이고 한정된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것 중의 하나가 ‘한국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사전’은 매우 중요한 문화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어사전’은 그 이름으로 간행된 ‘책’의 형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사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사전 편찬이 이루어져 온 것은 19세기말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역사전(對譯辭典) 형식으로 출판되어 왔다. 한국어에 대한 단일어사전으로 출판된 것은 1938년에 출판된 문세영 편찬 「조선어사전」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국어사전을 편찬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편찬된 원고는 남아 있으나 출판되지 않아 원고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것이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말모이’이며,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사전’ 원고이다. 전자는 조선광문회에서, 후자는 계명구락부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가 곧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말모이’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로 ‘말모이’는 무형적인 한국어를 유형적인 한국어로 바꾼 최초의 한국어 문화재이다.

둘째로 ‘말모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 편찬의 중요한 흔적이다.

셋째로 ‘말모이’는 20세기 초기의 한국어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넷째로 ‘말모이’는 그 당시의 한국어 문법 인식을 보이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섯째로 ‘말모이’는 그 이후에 등장할 많은 한국어사전 편찬의 모형을 제시하여 국어사전 편찬의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큰 의미를 지닌 ‘말모이’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길이 보존하고 그 가치를 늘 되새기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 (지정 가치 있음)

‘말모이 원고’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편찬한 국어사전의 원고이다. 사전으로 간행되지 못한 원고의 일부이지만,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국어사전의 모형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 갑오개혁 이후 이루어진 어문규범화 사업의 성과를 수렴하였다는 점, 일제강점기 조선어사전편찬사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만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한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모이 원고’는 대한제국 국문연구소의 규범안을 잇고, 조선총독부의 조

선어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된 우리말 사전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

조선총독부는 한일병합 후 1911년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어사전](1920년 간행) 편찬사업을 시작하였고, 1912년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을 공포하였다. 이러한 일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조선어정책이 본격화됨을 의미했는데, [말모이] 편찬사업은 이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공식화한 조선어철자법은 대한제국의 국문연구소에서 제시했던 형태주의 철자법이 아닌 음소주의 철자법이었으며, 이는 총독부에서 편찬하는 [조선어사전]에 반영되었다. 국문연구소의 규범 연구를 주도했던 주시경은 이에 대응하여 형태주의 철자법의 공식화 방안을 모색했고 이를 [말모이] 편찬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에서 대한제국의 국문연구소의 규범안을 관철시키려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데, 이러한 정신은 조선어학회가 국문연구소의 규범안에 기초한 한글맞춤법을 만들고, 이를 적용한 [조선말 큰사전] 편찬에 나서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시경을 비롯한 국문연구소 위원들은 [국문연구의정안]을 완성하면서 하나같이 국어사전의 편찬이 국어규범화사업을 완결하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말모이 원고’는 갑오개혁 이후 줄기차게 진행되어 온 어문규범화 사업을 이어받아 이를 완결지으려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자,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정책에 맞선 민족어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원고는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국어사전의 모형을 처음 제시한 성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출범 당시 발표된 ‘조선어사전편찬회 취지서’에서는 [말모이]가 우리말 사전의 효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1) 조선어사전편찬회 취지서(1929.10.31.)

距今 十七八年前(1911-1912)에 朝鮮光文會에서 故 周時經 氏를 중심으로 하여서 朝鮮語辭典 編纂을 着手한 바이 있으니, 이것이 朝鮮人으로서는 辭典編纂을 착수한 嚆矢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업은 마침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 말게 되었으며...

당시 ‘말모이 원고’는 산실된 상태였지만,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는 이 원고를 만들었던 이들의 정신과 사전편찬의 원칙은 공유하고 있었으니([말모이] 편찬에 참여했던 권덕규는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인이자 편찬위원이었다.), [말모이]를 편찬했

던 경험은 결국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말모이] 편찬은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첫 시도였음에도, 현대 국어사전의 체제와 내용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리말 사전 기술의 틀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말모이 원고’는 근대 초기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사전편찬 역량을 보여주는 실증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말모이 원고’의 수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말모이 원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말 뜻풀이의 방식과 수준이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던 [조선어사전]을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어사전]은 우리말 표제어를 일본어로 풀이한 대역사전이지만, 우리말 풀이를 먼저 한 후에 이를 번역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 사전편찬사업이 우리말 사전편찬의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말모이 원고’의 풀이와 조선총독부 편 ‘조선어사전 원고’에 나타난 풀이를 비교해 보면, 조선총독부의 사전편찬사업이 우리말 사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2) ㄱ. 주격조사 ‘가’의 풀이

[말모이] 가 (심) 어느 입을 다만입이 되게 하는 홀소리 밑에 쓰는 토(배—뜨).

[조선어사전] 가 『助』終聲을 不附한 名詞를 主格으로 하여 表할 時에 用하는 語. (例)“새가 난다” “비가 온다”

ㄴ. ‘가락지’의 풀이

[말모이] 가락지 (제) 손가락에 끼는 노르개.

[조선어사전] 가락지『名』 婦女手指에 貫抽하는 雙環의 稱.(金銀珠玉類로 彫飾한 者).(指環)

ㄷ. ‘가르치다’의 풀이

[말모이] 가르치 (밖)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줌. 또 「가라치」

가르치 (밖) ㉠ 손으로 어느 쪽을 안하야 이끄는 일. ㉡ 무엇을 들어 말함 (누구를 —어 말이나).

[조선어사전] 가르치다(가르쳐/가르친) 『活』 (一) 敎訓의 稱. (二) 指示의 稱.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진 두 사전 원고의 풀이를 보면 우리말을 우리말로 풀이하는 사전의 원형을 누가 제시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진다. 이런 점에서 ‘말모이 원고’는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이룬 최초의 국어사적 성취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말모이 원고’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서지적 측면, 내용적 측면, 편찬 목적의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자료적인 가치가 드러나며, 이 기준에 의거하여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지정되어야 한다.

첫째, ‘말모이 원고’는 현존 근대 국어사 문헌 자료 중에서, 유일한 국어사전 출판을 위한 ‘원고(原稿)’이다. 둘째, ‘말모이 원고’는 현재 국어사전이 갖추어야 할 체계적 완비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학 분야의 독보적인 자료이다. 셋째, ‘말모이 원고’는 단순한 사전 출판용 원고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말모이 원고’는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말모이 원고’는 현존 근대 국어사 문헌 자료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어사전 출판을 위한 ‘원고(原稿)’이다. 이로 인해 1910년대 근대 문헌 자료가 보여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출판을 위해서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전 검열을 거친 뒤에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원고는 대부분 자체 원고지를 제작하여, 내용을 직접 필사했다. ‘말모이 원고’는 근대 문헌 자료가 보여주는 서지적인 특성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처음부터 출판을 목표로 했고, 사전 검열을 위해 제작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둘째, ‘말모이 원고’는 국어사전이 갖추어야 할 체계적 완비, 어휘 수록의 특성과 방향, 가나다순에 의거한 체계적 원칙을 지니고 있다. 이 자료는 ‘알기, 본문, 찾기, 자획찾기’로 되어 있다. 본문은 ‘ㄱ’ 닷소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어(新語), 가택수색(家宅搜索), 감리서(監理署), 조약(條約), 개교식(開校式), 개화당(開化黨)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 1,400여개 단어를 체계적으로 수록해놓았다. 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말모이 원고’는 출간을 계획한 사전(事典)의 제1권의 원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우리말 사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자료는 근대 시기 ‘한국어사전’ 편찬의 출발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말모이 원고’는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글을 지키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은 ‘한글’ 사용의 확대를 위해서 1909년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규정은 시행되지 못했다. 대신에 조선총독부에서 작성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이 시행되었다.

말모이 원고는 이러한 조선총독부 정책과 달리 ‘국문연구의정안’에서 제정한 철자법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말모이 원고’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어떤 목적에서 사전 편찬을 시도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말모이 원고’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문양이 찍힌 황색 표지의 6침 선장본 형식이다. 책등의 상하는 천으로 포각(包角)되어 있다. 그러나 가로쓰기 형식이므로 내용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개 열람하는 방식이다. 앞표지에는 광복이후 적은 것으로 보이는 “말모이 卽 사전”이라는 세로쓰기의 펜글씨가 있다. 앞표지 오른쪽 부분은 위에서 아래까지 일정부분 결락이 있으나 본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정도이며, 뒤표지는 온전하다. 면지 오른쪽 아래에는 전 소장자의 장서인인 「이병근」이라는 소형의 원형 인장이 찍혀 있다. 표제지에는 원래의 서명을 오려낸 뒤에 그 부분을 『口卜근 口卜』라고 찍은 제첩을 붙여 놓았다. 언제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책을 완성하던 같은 시기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 내용 및 특징

『말모이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편찬을 시도한 국어사전 원고이다. 이 사업은 1910년 10월에 창설된 조선광문회에서 1911년 10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찬은 주시경, 김두봉, 권덕규, 이규영 등의 국어학자들이 맡았다. 그러나 1914년에 주도자인 주시경의 사망과 연이어서 일어난 김두봉의 망명, 이규영의 사망 등으로 인해 『말모이』 사전의 편찬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데 그때까지 편찬한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하다.

이후 그 원고들이 어떻게 산일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그 중에서 한 책이 전하는데 바로 이 원고이다. 범례와 어법용어 및 전문용어의 약호가 포함된 “알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말모이원고』 중의 첫 째 권으로 추정된다. 1장(2면)으로 된 “알기”는 전용원고지가 아닌 일반 종이에 쓰여져 있다. 수록된 단어는 ‘ㄱ’부터 ‘갈죽’까지 모두 153면에 걸쳐 있다. 본문이 끝난 뒤에는 표제어에 대한 색인인 “찾기”가 모두 50면, 표제 및 본문 속의 한자어들에 대한 획수 색인인 “字劃찾기”가 모두 26면에 걸쳐 있다.

『말모이원고』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전용원고지에 붓으로 쓰여져 있다는 점이다. 전용원고지는 미농지에 푸른색으로 인쇄되었는데, 한 장에 동일한 원고를 두 면을 찍어 반접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사주쌍변 형식과 상내향어미와 말모이라는 판심제도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고문헌의 판식과 비슷해 보인다. 가로 쓰기의 2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은 8자 15행이므로 한 면당 240자 원고지인 셈이다. 수록된 표제어는 크고 굵은 글씨, 해설은 작고 가는 글씨인데 먹으로 써 놓았다. 혹 보충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추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부첨지에다 보충하여 당해 단어 위에다 붙여 놓았다.

<사진1> 말모이 원고 표지(좌:앞표지, 우:뒤표지)



○ 기 타

한글박물관에서는 이병근 교수로부터 입수하였고, 이 교수는 1967년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사는 석씨 성을 가진 할머니에게서 입수하였다고 함.

□

○ 현 상

서지목록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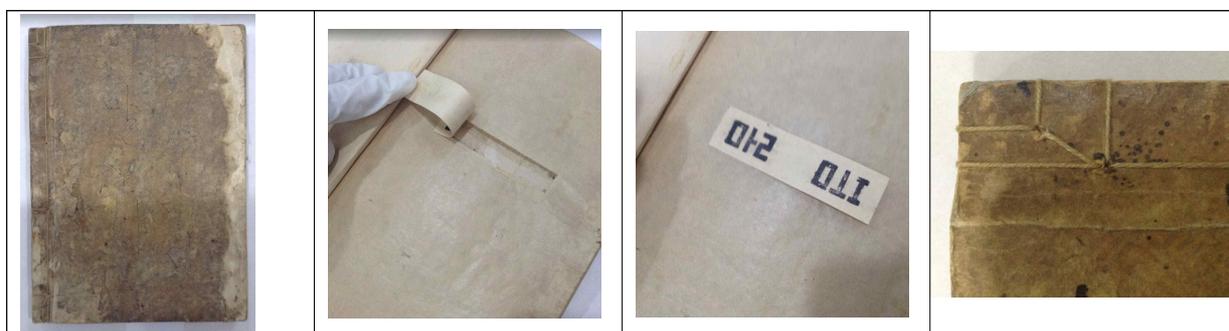
말모이원고 / 저자미상. -- 筆寫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책 ; 23.8 × 17.3cm

원고지에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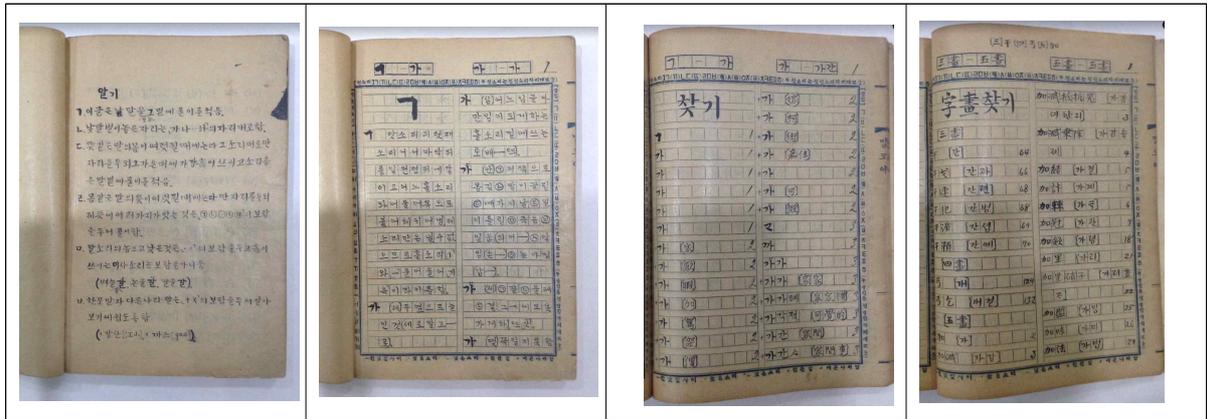
내용 : ‘알기’, ‘본문’, ‘찾기’, ‘字劃찾기’

조사본 『말모이원고』는 필사본 원고로서 표지에 볼펜으로 ‘말모이 卽 사전’이 세로쓰기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후대에 기록된 것이다. 내지에는 별지에 “口卜 ㄷ 口卜 |”로 가로로 풀어서 붙인 제목이 있고 이 별지 안쪽을 열면 정교하게 잘라진 흔적도 있다. 전통 방식인 선장본의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좌철(左綴)이며 앞표지 일부에 손상된 부분이 있으나 자료의 전반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범례에 해당하는 ‘알기’는 선이 없는 백지에 기록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판심에 “말모이”가 인쇄된 1단이 8획 15행으로 된 2단 240자 원고지에 정서한 원고이다. 원고지는 고서의 판식처럼 상하향흑어미를 넣고 판심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말모이’라 인쇄하였다. 또한 광곽의 상하, 좌우에 첫소리로 쓰이는 자음자, 받침으로 쓰이는 자음자, 가운데소리로 쓰이는 모음자 등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어 원고지가 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말모이원고 외형]



[말모이원고 본문의 구성]

○ 소장경위

해당 자료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이병근 소장본이었으나 2014년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매입하여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이병근 교수는 1960년대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사는 석씨 성을 가진 할머니로부터 자료를 입수했다고 알려져 있다.

○ 참고자료

국립한글박물관. 말모이원고 해제

문화재청(2012). 등록문화재 조사보고서

김민수(1983). 말모이의 편찬에 대하여, 동양학 13집. 1-34

이병근(1977). 최초의 국어사전 말모이. 언어 2(1). 67-84

최경봉(2014).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 24(3)

최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

○ 書誌事項

말모이원고 / 저자미상. -- 筆寫本. --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책 ; 23.8 × 17.3 cm

원고지에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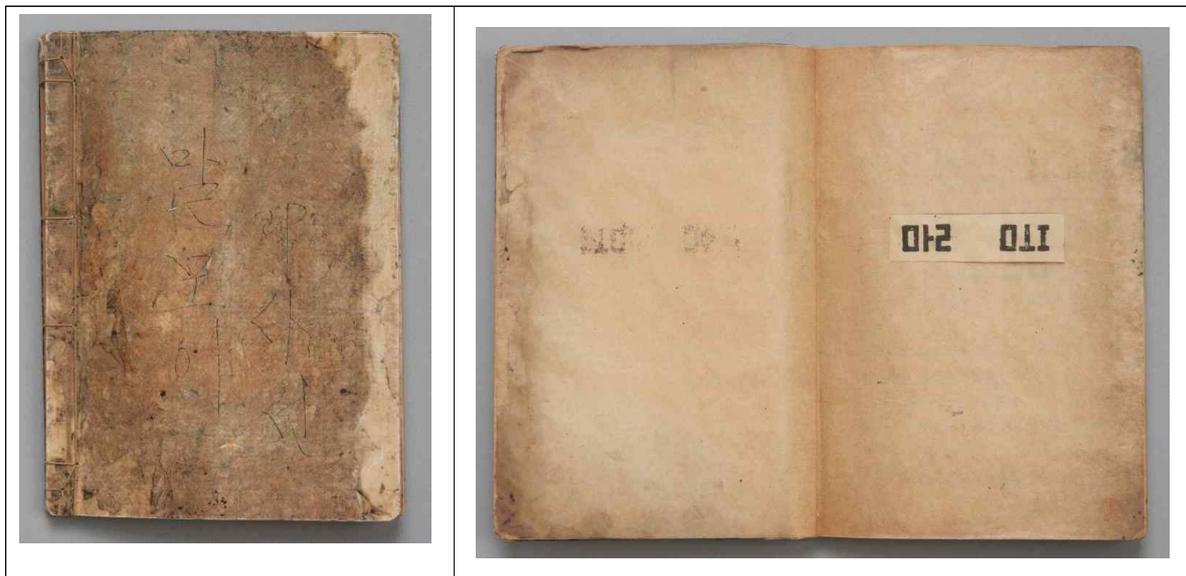
내용 : ‘알기’, ‘본문’, ‘찾기’, ‘字劃찾기’

○ 현 상

‘말모이 원고’는 2014년 한글박물관에서 구입하여 보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소유자는 1967년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사는 석씨 성을 가진 할머니에

게서 입수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색으로 인쇄된 원고지에 붓글씨로 쓴 원고이다. 원고는 가로쓰기의 2단으로 되어 있는데 1단이 8자 15행으로 되어 있는 240자 원고지이다. 판심 서명이 ‘말모이’로 인쇄된 말모이를 편찬하기 위한 전용지임을 알 수 있다.

표지는 문양이 찍힌 황색 표지를 사용하였으며 6침으로 선장하였다. 책등의 상하는 천으로 포각(包角)되어 있다. 앞표지에는 광복이후 적은 것으로 보이는 “말모이 卽 사전”이라는 세로쓰기의 펜글씨가 있다. 표제지에는 원래의 서명을 오려낸 뒤에 그 부분을 『口卜口 口卜口』라고 찍은 제침을 붙여 놓았다. 보존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말모이’는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하고자 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이다. 이 사업을 주관했던 조선광문회는 ‘수사(修史)’와 ‘이언(理言)’과 ‘입학(立學)’을 설립 취지로 내세운 민족 계몽운동단체이다. ‘이언(理言)’은 ‘사전편찬’과 ‘문법정리’에 해당하는데, 조선광문회에서는 이언(理言)의 사업으로 ‘신사전(新字典)’과 ‘말모이’를 편찬하고자 한 것이다.

‘말모이’ 편찬을 주도했던 인물은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을 중심으로 김두봉(金斗奉, 1889~미상)·권덕규(權惠奎, 1890~1950)·이규영(李奎榮, 1890~1920) 등이다.

주시경의 본관은 상주(尙州)이며 황해도 봉산 출생이다. 처음 이름은 상호(相鎬)이며 한헌샘·백천(白泉)으로 불렸다. 신학문에 눈을 뜨며 1894년 9월 배재학당(培材學堂)에 입학하였고, 1896년 4월에는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徐載弼)에게 발탁되어 독립신문사 회계사무 겸 교보원(校補員)이 되었다. 순 한글 신문 제작을 하면서 표기 통일을 해결하기 위한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재필이 주도하는 배재학당협성회·독립협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고, 『제국신문』 기재(記載), 영국선교사 스크랜턴(Scranton, W. B.)의 한어교사, 상동청년학원(尙洞靑年學院) 강사 등을 지냈다. 그의 활동은 계몽운동·국어운동·국어연구로 나누어지는데, 계몽운동은 배재학당협성회 전적(典籍)과 찬술원, 독립협회 위원, 『가정잡지』 교보원, 서우학회 협찬원, 대한협회 교육부원, 보충친목회 제술원(製述員) 등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이었다. 이에 관한 논저는 『가정잡지』와 『월남망국imagefont』(1907), 『보충친목회보』 등에 나타나 있다.

국어운동은 특히 한어개인교사, 상동사립학숙 국어문법과 병설, 상동청년학원 교사 및 국어야학과 설치, 국어강습소 및 조선어강습원 개설 등에서 심혈을 기울였다. 경술국치 후에는 숙명여자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무릇 9개교에서 가르치는 한편, 일요일에는 조선어강습원에서 수많은 후진을 깨우치기에 ‘주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동분서주하며 정열을 불태웠다.

국어연구는 국문동식회를 비롯한 학교내 국어연구회 연구원 및 제술원, 학부 국문연구소 주임위원(奏任委員), 국어강습소 졸업생과 설립한 국어연구학회, 조선광문회 사전편찬 등의 활동 등이 있다. 국어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말을 핵심으로 한 국어문법의 체계화였다. 주된 업적은 필사본 『국문문법』(1905), 유인본 『대한국어문법』(國文講義, 1906), 국문연구소 유인본 「국문연구안」(1907~1908), 『국어문전음학』(1908), 필사본 『말』(1908년경), 국문연구소 필사본 『국문연구』(1909), 유인본 『고등국어문전』(1909년경) 등이며, 학문적 축적을 거쳐 대표적 저술인 『국어문법』(1910)을 이룩하였다. 또한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새받침에 의한 표의주의적 철자법, 한자폐지와 한자어의 순화, 한글의 풀어쓰기 등 급진적인 어문혁명을 부르짖었다. 황무지에서 국어학을 개척한 인물이며 학교와 강습소에서 길러낸 최현배(崔鉉培)·申明균(申明均)·김두봉(金斗奉)·권덕규(權惠奎)·정열모(鄭烈模)·이규영(李奎榮)·장지영(張志暎)·정국채(鄭國采)·김원우(金元祐)·안동수(安東洙) 등 많은 후진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국어학계의 큰인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김두봉의 본관은 김해이며 호는 백연(白淵)으로 경남 동래군 출생이다. 1913년 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에 가입하였으며 이듬해에 배재학교를 중퇴하였다. 당시 최남선(崔南善)이 주재하고 있던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 참여하여 소년잡지 『청춘』을 편집하는 일에 종사하기도 하였고, 조완구(趙琬九)와 함께 민족종교인 대종교(大倣敎)에 관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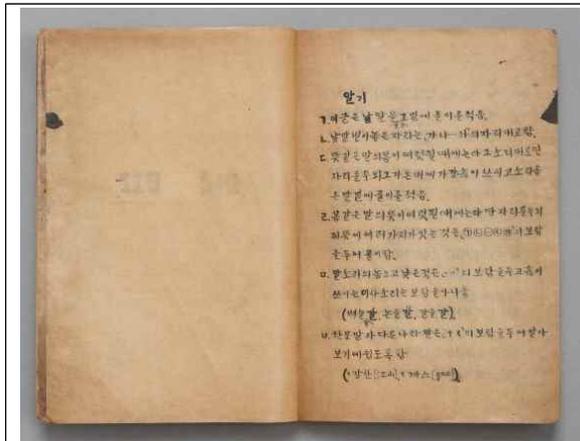
특히 주시경의 수제자로서 한글 연구에 몰두하여 광문사(光文社)에서 발행한 『조선어문전(朝鮮語文典)』 편찬 사업과 ‘말모이’ 편찬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한글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1914년 주시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모이’

편찬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한위건(韓偉健) 등과 함께 서울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해 4월 신의주를 거쳐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 상해에서는 신채호(申采浩)가 주필로 있던 순한문신문인 『신대한신문(新大韓新聞)』의 편집을 맡아 일하였고, 김규식(金奎植) 등의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에 가담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창기에는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내는 등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특히 1922년 상해의 새글집사에서 30여 만의 우리말 단어를 수록한 『집더조선말본(精解朝鮮語文典)』을 출판하면서 국어 연구를 위한 기초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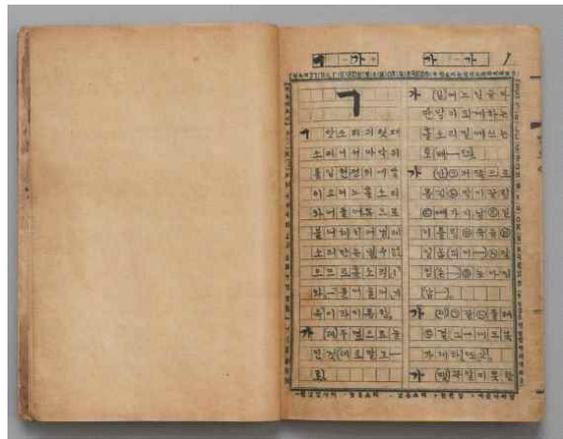
그러나 1920년에 이동휘(李東輝)를 중심으로 한 공산당에 가입하였고, 이후 고려공산당 총무국의 간부, 1935년 김원봉(金元鳳)과 한국민족혁명당(1937년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칭)을 결성하여 중앙집행위원, 1942년 연안[延安]에서 독립동맹을 결성, 주석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국내의 건국동맹 등과 대일연합전선 형성을 위하여 연락하던 중 광복을 맞아 1945년 12월 독립동맹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후 김일성대학 총장, 북조선인민회의 의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국통일전선의장단 의장 등을 역임하였으나, 1958년 3월 제1차 공산당대표자대회에서 반혁명종파분자로 공격받아 축출되었다. 그 뒤 1960년 지방협동농장에서 사망하였다고 전한다.

권덕규는 경기도 김포 출생으로 호는 애류(崖溜)이다. 1913년 서울 휘문의숙(徽文義塾)을 졸업하고 모교와 중앙학교·중동학교에서 국어 및 국사를 가르쳤다. 주시경(周時經)의 뒤를 잇는 몇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1921년 12월 3일 조선어연구회(朝鮮語研究會) 창립에 참여하였다. 『조선어큰 사전』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932년 12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원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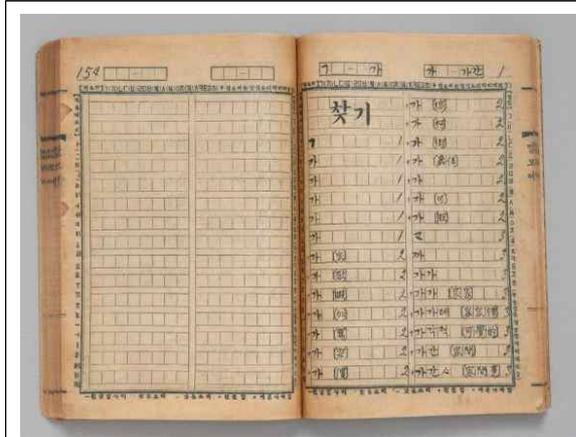
이규영은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호는 검돌이다.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에서 배우고, 1911년 서북협성학교 후신인 오성학교(五星學校)를 졸업하였다. 이어 여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교편을 잡고 조선어 및 조선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1912년 여름에 조선어강습원에서 주시경에게 배웠고, 한때 경상북도 안동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3년 9월에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주시경 주재의 조선어사전 편찬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김두봉(金斗奉)·권덕규(權惠奎)와 함께 죽을 때까지 계속하였다. 주요 저서 가운데 유고는 1912~1913년경 비망록 『온갖것』, 1913년경 초고 『말듬』, 1907~1917년 필사 『한글모죽보기』, 1916~1919년 필사 『한글적새』 6권, 1918~1919년 교안 『읽어리 가르침』, 1920년 7월 『현금 조선문전』(新文館) 등이 전한다. 『온갖것』에는 희귀한 자료가 기록되었고, 『한글모죽보기』는 1907~1917년의 국어운동사 자료로서 귀중하다. 특히, 『한글적새』는 미완성본이나 구조언어학적 자료집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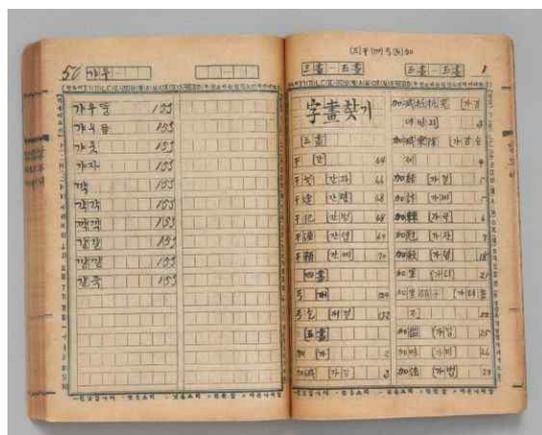
알기



본문 '가'



찾기



자획찾기

조사본 『말모이 原稿』는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대에 검열과 출판을 위하여 전용 원고지를 제작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인 1909년에 ‘국문연구소’ 주관으로 제정되었던 최초의 국문(國文) 표기 통일안인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이 1910년 식민지화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대신에 조선총독부에서 작성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이 시행되었으나, ‘말모이 원고’에는 [국문연구의정안]에서 제정한 철자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문헌자료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2019.

최경봉,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 제24권 제3호

(2014년 가을)

『등록조사보고서』(말모이 원고), 2012.

□

○ 현 상

표지는 6침 장정의 한장(韓裝)이지만 제침이나 책제목은 없다. ‘말모이 卽 사전’이라는 내용이 세로로 연필로 쓰여 있으나 이것은 후대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내지(內紙)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처럼 ‘말모이’를 풀어쓰기로 하여 썼는데, 이것은 양지에 석판으로 인쇄된 것이다.

앞에 ‘알기’(오늘날의 ‘일러두기’에 해당)에 6 항목이 세필의 붓으로 쓴 내용이 있다. 그 순서를 오늘날처럼 ‘1,2,3,4,5,’ 등으로 하지 않고 ‘ㄱ ㄴ ㄷ ㄹ ㅁ ㅂ’으로 하였다. 2쪽에 걸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ㄱ. 올림말에 풀이말을 쓴다.
- ㄴ. 올림말의 순서는 ‘가나’의 순서대로 한다.
- ㄷ. 유의어의 배열 방식과 뜻풀이할 곳
- ㄹ. 동음이의어 및 다의어의 배열 방식과 그 풀이 방식
- ㅁ. 음의 고저 표시 방식
- ㅂ. 한자어와 외래어의 표시방법

그리고 그 뒷면에 약호(略號)에 대한 예시가 있다.

이어서 ㄱ부터 올림말에 대한 뜻풀이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ㄱ’부터 ‘갈죽’까지 이어진다. 모두 153쪽이다.

뒤를 이어서 ‘찾기’가 시작된다. ‘ㄱ’부터 ‘갈죽’까지 모두 50쪽이 이어지고 그 뒤에 ‘字畫찾기’가 ‘三畫’의 ‘干’의 ‘干戈’[간과]부터 시작하여 二十四畫의 ‘鑑’의 ‘鑑定’에 이르기까지 26쪽이 있다.

이 원고의 체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순서	내용(1)	내용(2)	분량	분량정리
1	표지	표지	1장	4장
2		마르口口 (속표지)	1장	
3	일러두기	알기	1장	
4		백지	1장	
5	본문	올림말 - 뜻풀이	154쪽	230쪽
6	부록	찾기	50쪽	
7		字畫찾기	26쪽	
8	뒷표지	뒷표지	1장	1장
	총계		5장 230쪽	

240자 원고지에 쓰이었는데, 120자 모눈 종이가 좌우 2단으로 나뉘어 있는 240자 원고지이다. 모두 연활자로 인쇄되어 있는데, 잉크색은 청색이다. 원고지의 판심어미는 상흑어미(上黑魚尾)이고 판심제(版心題)는 ‘말모이’이다. 사주쌍변 형식을 취해 원고지를 만든 것이다. 이 원고지는 ‘말모이’를 편찬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쇄한 전용 원고지임을 알 수 있다.

원고지 상단, 하단, 좌측, 우측의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치	내용	상세 내용 및 배열순서
상단	첫소리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두 첫소리는 첫첫소리 자리대로 둬)
하단	높낮이, 한자어 외래어 표시	- 한낫말사이 · 높은 소리 · 낮은소리 + 한문말 x 다른나라말
좌측	가운데소리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ㅣ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ㅣ
우측	받침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본문은 ㄱ 계열에 ‘ㄱ’부터 시작하여 ‘갈죽’까지 이어진다. 올림말은 크고 붉은 글씨로 썼는데, 첫칸을 비우지 않고 썼으며, 풀이말은 이보다 작은 글씨로 첫칸을 들여 썼다. 옛 한글 문헌의 편집양식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원고지 상단의 좌우에는 그 단에 쓰여 있는 표제어의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네모 칸 안에 써서 놓았다. 오늘날 사전의 형식과 마찬가지로이다. 원고지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그 원고지의 쪽수를 적도록 밑줄 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쪽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써 놓았다. ‘ㄱ’부터 ‘갈죽’까지 1,370개 정도의 표제항이 있다.

수정할 부분은 고쳐 쓰거나 또는 첩지를 붙여서 써 놓고 이를 다시 원고에 반영

하여 놓았다.

‘찾기’는 표제항과 한자가 있는 표제항은 그 한자를 써 놓았고 맨 오른쪽에 그 항목이 실려 있는 쪽수를 제시하여 놓았다. 그 편집형식은 앞에서 언급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모두 50쪽이다.

‘字畫찾기’는 한자 및 한자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붙인 한자 색인이다. 三畫의 ‘干’이 있고 그 아래에 간과(干戈) 간련(干連)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의 19획에 ‘覺’ ‘鑑’의 ‘鑑定’까지 이어진다.

○ 내용 및 특징

1. 말모이 원고 소장자

말모이 원고 소장자는 원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병근 교수(현재는 명예교수)이었다. 그러다가 국립한글박물관 개관과 함께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병근 교수는 이 자료를 지역 답사 중인 1969년 6월에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사는 석씨 성을 가진 할머니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석씨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도 학자였다고 하는데, 남편의 성함은 추명호(秋明鎬)라고 하였다. 그러나 추명호가 직접 쓴 원고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왜냐 하면 국어학자로서 ‘추명호’라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말모이’의 명칭

‘말모이’란 이름은 오늘날의 ‘사전’의 의미이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이란 단어가 거의 쓰이지 않던 때였다. 이 당시에는 소위 ‘회어’(會語)라는 단어가 신조어로 쓰이었다. ‘말모이’는 이 ‘회어’(會語)의 우리말 번역인데, ‘말모이’라고 하는 단어도 1910년대에 일반에서 쓰이지 않던 어휘이다. ‘말’에다가 ‘모으다’의 명사형으로 ‘모- + -이(명사형 접미사)’를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곧 ‘말을 모은 것’이란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에는 전자 자료인 corpus를 ‘말모둠, 말뭉치’라고 하는데, 이 번역도 ‘말모이’에서 얻은 영감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말모이’란 어휘를 창안해 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다. 이처럼 ‘사전’ 대신에 ‘말모이’란 어휘를 쓴 것은 이 당시에 국어에서는 ‘사전’이란 단어는 잘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전’이란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07년대로 보인다. 1907년에 황성신문에 실린 국문연구회 취지서에 ‘國之字典 辭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나라의 자전’을 ‘사전’이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國文研究會趣旨書

文字는 言語의 符號라 符號가 無准하면 言語가 無規하야 以至凡百行動에 記事論事가 悉皆差誤하야 使人摹捉無所하리니 由此觀之면 文字之於生民에 關係誠大哉로다 我世宗大王이 深察此理하시고 始制訓民正音二十八字하야 頒行中外하시니 大聖人의 裕後 啓蒙하신 至意가 東土四千年에 創有하신 弘業이어늘 噫라 世遠教弛하야 後之學者가 不思對揚하고 一任拋棄 故로 御製二十八字中에 此ㅇ△ㅎ 三字初聲은 失傳已久하야 摸擬不得하고 現用反切一百五十一字에도 疊音이 爲三十六字하니 曷勝悚嘆이리오 今我國民의 言語文字가 每多歧異하야 天을 하늘이라도 하며 하늘이라도 하며 하늘이라도 하야 無一定規例 故로 凡屬言語의 動輒如右者가 十之五六이라 由是로 國語가 無准하고 國文이 無法하니 雖欲使吾人으로 入於文明之域이나 其可得乎아 有自國之字典 辭典 然後에야 可以教國民이오 國民을 以自國文字로 教導之 然後에야 可望其自國精神을 注于其腦也라 欲做此等事業인딘 不得不 先究國文之源流 故로 迺與同志로 發起意見하야 欲糾合高明하야 組織國文研究會하오니 有志君字는 幸勿以人棄言하시고 惠然賜臨하야 協同贊成하심을 盥手頂祝하나이다 發起人 池錫永 趙經九 李炳勗 趙琬九 金明秀 <『황성신문』 1907년 1월 12일>

‘사전’이 일반화된 것은 1920년대로 보인다. 각 언론에 ‘사전’이란 어휘가 쓰이기 시작한 것이 1920년대이기 때문이다.

十年만에 錦衣還鄉, 서서국 철학박사 李灌鎔씨 십칠일밤에 경성에 도라와 獨逸辭典에 朝鮮文發音表, 백림잇는 金重世씨의 활동, 리관용박사의 독일 이야기 <동아일보 1923년 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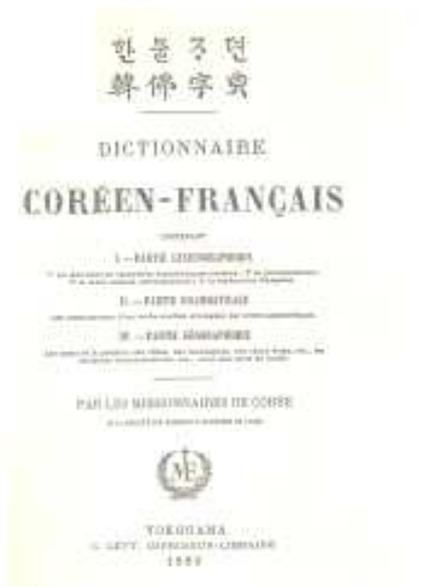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사전’이란 이름을 가지고 출판된 최초의 사전은 심의린이 편찬하여 1925년에 출판된 『보통학교 조선어 사전』과 문세영이 편찬하여 1938년에 간행한 『조선어사전』이다. 표지에 ‘辭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 이전에 나온 모든 사전은 대부분이 ‘字典’으로 나와 있다.



<심익린 : 조선어사전(1925년)>



<문세영 : 조선어사전(1938년)>



<한불자전(1880년)>



<한영자전(18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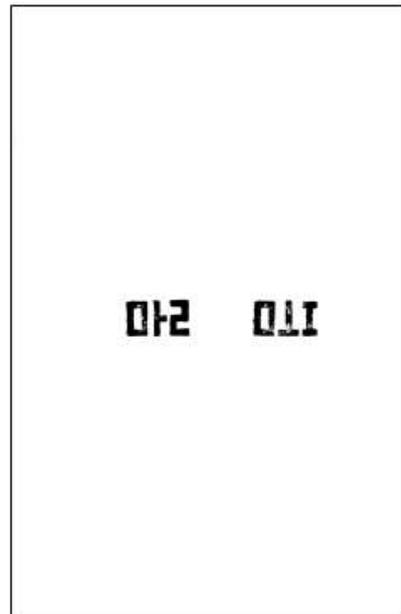
<법한자전(1893-1912)>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이란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회어’(會語)라고 하였고, 이 한자를 풀어 나중에 ‘말모이’란 말로 사용되었다.

大朝鮮國國五百四十年乙未秋八月上漸序
 則世知此立於充簡通譯於世方世備一之則其熱誠計意以
 意際定也止萬言也蓋集於外國漢會語一辭意皆精於此之備單也

校訂 姜道熙
 編輯士 李得善
 記錄士 李得善
 漢文撰前承文院副正李 鄭 珪
 國文解前主顯者長 李 澤 榮

國漢會語



<말모이>

<國漢會語(1895년)>

‘사전’(辭典)이란 말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주로 ‘사전’(辭典)을 사용하지 않고 ‘사전’(詞典)을 더 많이 사용한다.



가끔 ‘사전(辭典)’을 ‘자전(字典)’과 혼동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사전의 하나로 알려진 책 중에 ‘한불즈던’이라고 하는 ‘한국어-불어’ 대역사전이 있는데, 여기에 ‘자전’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 이것은 잘못 쓴 것이다. ‘사전’은 언어에 관한 것이고 ‘자전’은 문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19세기말, 20세기초에 외국인인 편찬한 대역사전에 ‘자전’이란 제목이 붙어 있어서 ‘자전’이 ‘사전’과 동일한 의미일 것으로 알기도 하지만 ‘자전’과 ‘사전’은 다른 의미다. 외국인이 ‘한글’로 썼다는 점에서 ‘자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국어사전’은 있지만 ‘국어자전’은 있을 수 없다. 문자라고 하여도 ‘한글 자전’은 없다. 대신 ‘중국어사전’은 있지만 ‘중국어자전’은 없다. 대신 ‘한자 사전’도 있지만 ‘한자 자전’도 있다.

그래서 말모이 편찬자들은 이 사전의 명칭을 ‘말모이’라고 한 것이다.

3. 말모이의 ‘알림’의 순서 적기

이 말모이가 국어학자가 편찬한 원고라는 사실은 이 말모이 원고의 ‘알림’에서도 볼 수 있다. ‘알림’에는

1. 이 글은 낱말을 보고 그 밑에 풀이를 적음

ㄴ. 낫말 벌이 놓은 자리는 ‘가나···하’의 자리대로 함

과 같이 그 순서를 오늘날처럼 ‘1, 2, 3, 4, 5’로 하지 않고 ‘ㄱ, ㄴ, ㄷ, ㄹ, ㅁ, ㅂ’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1900년대에 국어학자들이 흔히 쓰던 서술 방식이었다. 그만큼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어학자 김두봉(金斗奉)이 지은 김구 선생의 부인 최준례(崔遵禮) 여사의 무덤에 있는 비석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쓰여 있다.



<사진의 왼쪽부터 아들 김신, 백범 김구 선생, 그리고 광낙원, 아들 김인>

ㄹㄴㄴㄴ해 ㄷ달 ㅅㅈ날 남
대한민국 ㅂ해 ㄱ달 ㄱ날 죽음
최 준례 묻음
남편 김구 세움

여기의 ‘ㄹㄴㄴㄴ 해 ㄷ달 ㅅㅈ날 남’은 ‘4222년(1889년) 3월 10월 19일 남’을. 그리고 ‘대한민국 ㅂ해 ㄱ달 ㄱ날 죽음’은 ‘대한민국 6년(1924년) 1월 1일 죽음’이란 의미이다. 이처럼 그 당시의 국어학자들은 숫자를 한글 자모로 쓰곤 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이 말모이 원고는 국어학자가 쓴 것임이 틀림없다. 특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모이를 주도적으로 편찬하려고 하였던 김두봉이 남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김두봉의 친필 글씨체를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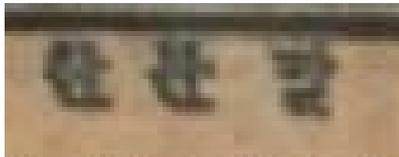
4. 말모이 원고지의 한글 서체 문제

말모이 원고지에는 판심 부분의 ‘말모이’를 비롯하여 죄우 상하에 여러 가지 한글이 인쇄되어 있다. 이 ‘말모이’가 조선광문회에서 편찬하려고 하였다는 많은 증거가 있으나 이 원고지에 쓰인 한글 서체로도 이 원고지가 조선광문회에서 만든 것임이 들어난다. 조선광문회의 출판물은 대부분 육당 최남선이 창설한 출판사인

‘신문관(新文館)’에서 인쇄하였는데, 이 원고지의 한글 서체가 신문관의 인쇄 서체와 동일하여 이 원고지가 조선광문회에서 만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신문관 인쇄의 ‘옥루몽의’ ‘문’과 ‘말’>



<말모이 원고지의 ‘문’과 ‘말’>

특히 ‘문’자를 보면 매우 특징적인 서체이어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말모이’는 조선광문회에서 주관하여 편찬하려고 하였던 국어사전 원고임을 알 수 있다.

5. 말모이 편찬의 미완성

말모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편찬을 시도한 현대적인 국어사전이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표제어로 하여 편찬된 사전들은 초기에는 모두 대역사전(對譯辭典)이다. 그 대역사전들은 모두 19세기말에 등장하는데, 거의 모두가 외국인이 편찬한 것이다. 최초의 대역사전은 조로사전(1874년), 한불사전(1880년) 등이다.

그 한국어를 표제어로 하거나 한국어를 풀이말로 한 대역사전들의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종류	편저자	사전명	편찬 연도	표제어수
한국어 - 한자	이준영, 정현, 이기영, 이명선, 강진희	국한회어	1895년	약 27,000 개
한국어-프랑스어	Félix-Clair Ridel	Dictionaire Coréen - Francais(한불주언)	1880년	약 27,000 개
한국어-영어	H.G.Underwood	A Concise Dictionary of Korean Language(영한 한영사전)	1890년	

	J.Scott	Introduction, English-Corean Dictionary(영한사전)	1891년	
한국어-일본어	趙義淵 井田勤衛	日韓 韓日 言語集	1910년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	1920년	58,639 개 한자어 40,734개 언문어17,178 개 이두 727 개
	조선어연구회	鮮和新辭典	1942년	
영어-한국어	James S. Gale	A Korean-English Dictionary (한영사전)	1897년	약 34,000 개
	George H. Jones	An English-Korean Dictionary (영한사전)	1914년	
	J.W.Hodge	Corean words and phrases	1897년	약 240 개
러시아어-한국어	푸칠로	露朝辭典	1874년	약 4,000 개
	마샤노프	試篇露韓小辭典	1904년	
프랑스어-한국어	Charles Allévêque	Petit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法韓字典)	1901년	

라틴어-한국어		Parvum Vocabularium Lation-Coreanum ad usum studiosae (羅韓小辭典)	1891년	
일본어-한국어	趙義淵 井田勤衛	日韓 韓日 言語集	1910년	
	日語雜誌社	日韓 會話辭典	1906년	
	船岡獻治	鮮譯 國語大辭典	1919년	약 6,300 개

이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어를 표제어로 하여 만든 대역사전은 국한회어(國韓會語)가 최초이다. 그러나 국어사전 중에서 단일어 사전으로 최초인 것은 비록 출판되지 않은 원고의 일부만 남아 있지만, ‘말모이’라고 할 수 있다. 단일어 사전으로 국어사전 중에서 중요한 사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편찬자	사전명	편찬연도	표제어수
조선광문회(주시경, 김두분, 이규영, 권덕규 등)	말모이	1911년-	‘ㄱ-갈죽’ 부분만 원고로 남아 있음
심의린	보통학교 조선어사전	1925년	6,106 개 최초의 국어학습사전
계명구락부(최남선, 정	조선어사전	1927년	‘마름질- 뽕’부분만 원고 형

인보, 이윤재, 임규, 변영로, 양건식 등)			태로 남아 있음
문세영	조선어사전	1938년	약 89,000 개
이윤재	표준조선어사전	1947년	
조선어학회	조선어큰 사전	1947년	164,125 개
문세영	수정 증보 조선어사전	1949년	
신기철·신영철	표준국어사전	1958	
이희승	국어대사전	1961년	약 230,000 개
신기철, 신영철	새우리말큰 사전	1974년	약 310,000 개
이희승	국어대사전(수정증보판)	1982년	
금성사(김민수, 고영근, 임홍빈, 이승재)	국어대사전	1996년	약 300,000 개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년	509,076 개
한글학회	우리말큰 사전	1991년	약 450,000 개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1998년	약 50,000 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2009년	약 390,000 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사전(6권)	1961년 -1962년	187,000 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1992년	약 330,000 개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증보판)	2006년	약 400,000 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 최초의 국어사전은 ‘말모이’이다. 이 말모이는 최남선(崔南善)·박은식(朴殷植) 등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선양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서 주시경(周時經)·김두봉(金斗奉)·권덕규(權德奎)·이규영(李奎榮) 등의 국어학자들이 민족주의적인 애국계몽의 수단으로 편찬하려 했던 원고이다.

말모이는 조선광문회에서 1911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말모이’를 편찬하게 하여 편찬된 사전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출판되지 못하고 원고,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는 사전이다.

말모이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주시경(周時經), 김두봉(金斗奉), 이규영(李奎榮), 권덕규(權德奎) 등 모두 4명이었다. 1914년에 주시경이 세상을 떠나자, 1916년에는 이 말모이의 바탕이 되는 문법책으로 김두봉이 『조선말본』을 간행하기도 하였으나 그가 상해로 망명하고, 이규영이 작고함으로써 말모이의 편찬은 완성 단계에서 멈추어졌고 그 원고조차 산실되어 현재는 그 첫째권으로 보이는 ‘ㄱ-갈죽’까지의 표제항이 있는 한 권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원고는 1927년까지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 하면 동아일보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기사제목 : 朝鮮語辭典 編纂 -시내 인사동 계명구락부에서-

시내 인사동(仁寺洞)에 있는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에서는 전자에 기관잡지 계명(啓明)으로서 조선 고전(古典) 연구에 힘써 오든 바 이번에 다시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을 편찬키로 하고 최남선(崔南善) 씨를 수뇌로鄭寅普(鄭寅普) 리윤재(李允宰) 림규(林圭) 변영로(卞榮魯) 량건식(梁建植) 등 각 방면의 권위를 망라하여 작일부터 위선 어휘(語彙) 모집에 착수하였다는데 지금까지 위선 약 일만오천원의 경비를 예산하는 바 대부분 동 구락부원의 출자가 될 터이라 하며 편찬에는 이전 조선광문회(光文會)에서 모아 둔 것을 기초로 시작하리라더라

<동아일보 1927년 6월 6일>

계명구락부에서 최남선이 주동이 되어 다시 조선어사전 편찬을 시도하였는데, 이전의 조선광문회에서 모아 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그 자료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6. 말모이의 편찬 목적

말모이의 편찬 목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1927년에 ‘말모이’를 편찬하려고 했던 육당 최남선이 주축이 되어 다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려고 하였을 때의 목적이 드러나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하여 말모이의 편찬 목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기사 제목 : 朝鮮語辭典 編纂의 計劃

내용 :

一

啓明俱樂部에서는 今番에 六堂 崔南善氏의 主宰下에 朝鮮語辭典 編纂의 計劃을 세웁다. 그는 매우 適當한 事業인 줄을 안다. 啓明俱樂部는 朝鮮의 知識分子를 만히 網羅하여 잇스니 어느 意味에 잇서서 現下 朝鮮에 잇서서의 知識의 淵叢이라 할 수 잇고 또 그 會員 中에는 相當한 資力을 가진 이가 만히 잇스니 文化事業에 貢獻할 可能性이 充分히 잇다고 하겟다 이 團體에서 計劃된 事業에 對하여는 우리는 그것이 잘 有終의 美를 이룰 것을 믿는 바이다.

二

天地自然의 聲이 잇슨 즉 天地自然의 文이 잇는 것이니 우리 朝鮮文의 發達도 또한 天地自然의 理에 依하여 된 것이다. 그러나 過去에는 여러 가지 事情으로 因하여 朝鮮文의 發達이 매우 遲遲한 바가 잇섯고 따라서 朝鮮語를 朝鮮文으로 써서 記錄해 둔 것이 적었섯다. 語와 文은 서로 因果關係를 지어서 發達되는 것이니 文으로 因하여 語가 더욱 發達되고 語에 依하여 文이 더욱 整理 向上되는 것이다. 오늘날 獨逸國民이 쓰는 完全한 獨逸語는 十六世紀의 初葉에 잇서서의 宗教 改革者인 ‘루텔’이 聖經을 獨逸語로 翻譯함에서 由來한 것이다. 이와 갓치 생각하여 보면 말의 標準되는 文이 잇서서 그것이 弘布됨에 따라서 말이 圓滿한 發達을 보게 되는 것이니 一定한 標準이 업스면 만히 그 散逸을 보게 되야 그 正體를 維持하기에 매우 困難을 感할 수도 업지 아니할 것이다.

三

이러한 意味에 잇서서 오늘날까지에 朝鮮語의 完全한 倉庫가 업다는 것은 朝鮮語의 守護者 되는 朝鮮人을 爲하여 꼭 不名譽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업다. 지금까지에 된 朝鮮語에 關한 辭典이라고 하면 米國人的 編纂에 依한 韓英字典이 잇고 朝鮮總督府에서 편찬한 것이 잇스나 그들이 다 不完全하고 朝鮮語感을 가지지 못하고 朝鮮語의 知識이 深奧하지못한 이들의 事業이요 또 그 事業 自體로 말하더라도 一時的으로 알고 한 것인 故로 꼭 不充分한 것들이니 그것이 將來의 辭典編纂에 對한 有力한 參考材料은 될 수 잇겠지만은 그것들로서 朝鮮語의 把持者로 볼 수는 업는 것이니 不可不 大規模의 朝鮮語辭典의 編纂을 要求하게 되었다. 우리는 勿論 外語를 만히 배울 必要를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世界語가 만히 流行되기도 바란다. 그러나 어느 民族이던지 自語만은 維持하여야 할 것이니 그로 因하여서만 科學이며 文學 等の 自由로운 發達을 보게 될 것이다.

1927년 6월 9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도록 한다.

四

우리는 國粹主義를 排斥한다. 그러나 自語에 依하여 서로 團合되고 서로 人類文化에 貢獻할 民族精神을 이저버릴 수 업겟고 또 이저 버려서도 아니 되겟다. 이러한 意味에 잇서서 우리는 또 朝鮮人에 依한 朝鮮語辭典을 朝鮮民族精神의 守護者로도 보고 심흐다. 어느 點으로 보던지 今番에 斯界의 權威를 網羅하여 編纂을 計劃한 朝鮮語辭典이 速히 完成되기를 바래며 또 우리 同胞가 다 이 事業의 進行에 對하여 모든 方面으로부터 聲援와 助力을 액기지 아니할 것을 確實히 믿는 바이다.

이 기사의 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외국인이 조선어사전을 편찬하였어도 조선어감(朝鮮語感)을 지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한 우리나라 사전 편찬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1927년에 계명구락부에서 계획했던 사전편찬도 무위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1929년 11월 2일자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기사 제목 : 朝鮮語辭典 編纂會의 創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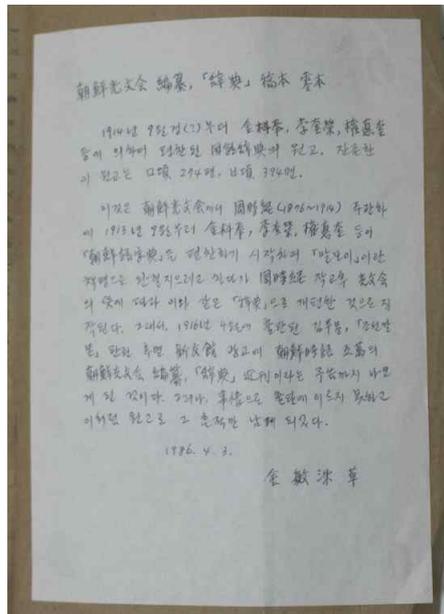
우리 힘으로 朝鮮語辭典을 編纂하려 한 努力이 從來 업든 바는 아니니 朝鮮 光文會, 啓明俱樂部 等은 各各 그 事業을 進行하였다. 그러나 不幸히 兩者가 다 經費 其他의 原因으로 完成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 내용으로 보아 조선광문회에서 계획했던 조선어사전 편찬 계획, 즉 ‘말모이’ 편찬 사업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 편찬 원고가 마무리되었다면 출판이 가능했을 것이지만 출판이 되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마무리 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말모이 원고는 책임을 맡은 어느 국어학자가 자기가 담당한 부분을 완성시킨 원고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통해 현재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사전 편찬 원고가 바로 계명구락부에서 편찬을 시도했던 조선어사전 편찬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어사전 원고임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육당 문고에 소장되어 있고, ‘말모이’ 원고와는 다른 또 하나의 원고가 있어서, 이 원고가 ‘말모이’ 편찬 원고의 하나라고 추정하였던 것이 사실은 계명구락부에서 추진하였던 원고의 일부라는 사실도 알게 된 것이다.

김민수 교수는 이 원고가 ‘말모이’ 원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이 원고의 앞에 김민수 교수가 초(草)해 놓은 다음과 같은 글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朝鮮光文會 編纂, 『辭典』 稿本 零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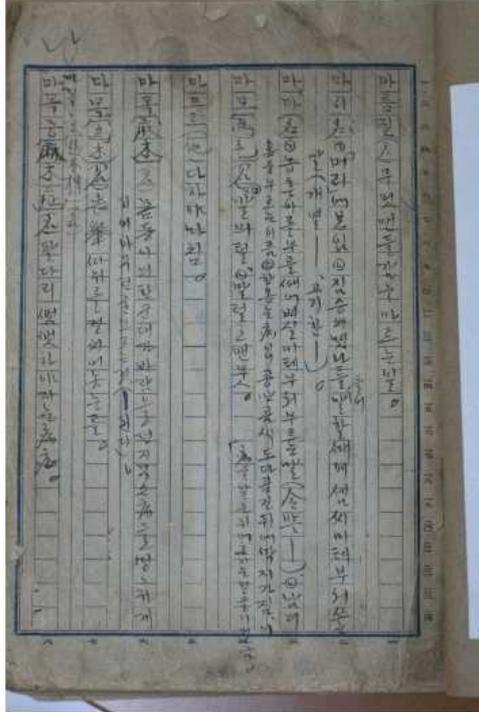
1914년 9월경(?)부터 金料奉, 李奎榮, 權惠奎 등에 의하여 편찬된 國語辭典의 원고, 잔존한 이 원고는 口 項 274면, ㅂ 항 394면.

이것은 朝鮮光文會에서 周時經(1876-1914) 주관 하에 1913년 9월부터 金料奉, 李奎榮, 權惠奎 등이 『朝鮮語辭典』을 편찬하기 시작하여 『말모이』이란 책명으로 완결지으려고 하다가 周時經 작고 후 光文會의 뜻에 따라 이와 같은 『辭典』으로 개편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1916년 4월에 출판된 김두봉 『조선말본』 판권 후면 新文館 광고에 朝鮮語法 五萬의 朝鮮光文會 編纂 『辭典』 近刊이라는 豫告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나 事情으로 출판에 이르지 못하고 이처럼 원고로 그 흔적만 남게 되었다.

1926.4.1.

金敏洙 草

고려대학교 소장 조선어사전 원고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말모이 사전의 본문 내용

(1) 올림말

말모이는 올림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① 명사 : 곡용형이 없이 체언 형태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오랜 전부터의 전통이었다. (예: 가가, 가가례, 가간 등)
- ② 용언은 어미 '-다'를 붙인 활용형을 제시하지 않고 어간형만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어간형의 끝부분에 '-'을 붙이는 방식(예: '가파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형식은 지금까지의 어느 사전에도 보이지 않던 방식이었다. (예: 가파르, 깎, 간간하 등)
- ③ 부사형은 파생형 그대로 표제어로 삼고 있다. (예: 간대로, 간들 등)
- ④ 한자어는 표제항을 한글로 쓰고 [] 안에 한자를 제시하고 있다. (예: 간신 [奸臣]. 간장[肝腸] 등)

(2) 문법 내용 및 용어

문법 내용을 제시하기 위하여 1음절의 약어로 () 안에 표시하여 놓았다. 그 약어는 '알기'에 제시한 그대로 하였다. '제, 닛, 억, 언, 드, 안, 밖, 잇, 입, 읍, 업, 심,

맺, 뚝, 갈, 손, 깎, 잇, 들, 때, 높, 술, 흘소리, 닳소리'의 24개(약어는 22개)의 문법 용어들은 이 당시, 특히 주시경 선생의 문법 용어들을 줄여서 쓴 것이어서, 이 당시의 문법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3) 풀이말

① 표제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는데, 고유어의 풀이말은 가능한 한 고유어로 쓰고(물론 한자어가 있을 경우에는 한자를 쓰고), 한자어에는 한자를 섞어 쓴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자어도 고유어로 풀이한 경우도 많은 편이다.

까 (밖) ㉠ 껍질을 벗김 ㉡ 남이 잘못 너김을 밝힘(뒤를 -)
 가감더항기[加減抵抗器] (제) 電路에 插入하아 電流를 加減하는 그릇이니 한 積
 속에 洋銀줄이나 또 다른 쇠붙이로서 一定한 電氣의 抵抗을 알맞게 견으며 石板
 으로 짓은 뚝게에는 數十介의 接觸點을 排列하고 그 한 끝을 電路 한 끝에 連
 結하고 接觸片에서 電路 다른 끝에 連結하면서 任意로 接觸點에 觸하아 回轉하
 게 한 裝置니 抵抗을 加減하고 電路에 流하는 電流의 強弱을 加減함 [그림]

- ② 풀이말을 기술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 ③ 사전에는 그림을 넣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풀이말의 끝에 [그림]이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판할 경우에 그림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 ④ 뜻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 ㉡ 의 번호를 붙여 기술하고 있다.

(4) 부록

부록으로 ‘찾기’(오늘날의 ‘색인’)와 ‘字畫찾기’가 있는데, 이 방식은 국어사전의 방식이 아니라 한자 사전의 방식이다. 한글이 소리글자[表音文字]이기 때문에 색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데 비해 한자 사전은 뜻글자[表意文字]이어서 ‘찾기’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유행처럼 번져 간행되었던 한자 사전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김민수(1986), 周時經 研究(증보판), 탐출판사.
 이병근(1977), 最初の 國語辭典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67~84.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최경봉(2014),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 24-3, 국립국어원.

홍윤표(1986), 最初の 國語辭典 『國漢會語』에 대하여, 白旻全在昊博士華甲紀念 國語學論叢, pp.633-656.

□

○ **조성연대** : 1914년 경. [말모이] 편찬에 관여한 이들이 남긴 기록을 볼 때, 조선 광문회가 설립된 후 그 이듬해인 1911년부터 주시경과 김두봉의 주도로 사전편찬 사업이 시작되었고, 1913년경 문법 체계를 세우며 사전의 체계가 잡혔고(인용1), 이후 이규영과 권덕규가 참여하면서(인용2) 원고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남선이 [신사전](1915) 서문(인용 4)에서 출간 예고한 우리말사전(我語小典)의 제목이 [조선말본](1916)의 광고(인용 5)에서 ‘말모이’가 아닌 ‘辭典’이 된 걸 보면, ‘말모이 원고’의 작성 후 모종의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신문관 회고담(인용 6)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보면, 이 원고는 주시경이 사망(1914.7.27.)하기 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이 글은 [말모이]에 쓰라고 그러께(1913) 여름에 열물앞, 무원어른 시골집에서 만들었던것인데 지난(1914) 가을붙어 이를 좀 더 다스리어 이제에 마친 것이니라.” (김두봉, [조선말본], 1916)

2) “네즘 두은 네열 여섯해 아홉달(단기 4246년 9월. 서기로는 1913년 9월)에 朝鮮光文會 朝鮮語字典 編纂 하는데 일을 본 뒤에 보고 들은바를 가리어 적음.” (이규영, [온갖것], 1913)

3) “朝鮮光文會가 設立되매 朝鮮語文에 關한 文書校正과 辭典編纂의 指導에 致力하며…….” (周時經先生歷史, [청춘], 1914.10./필자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권덕규로 추정됨)

4) “未久에 踵出할 我語小典과 我文小法 等이 다 其一이라.” (崔南善, [新字典] 敍, 1915)

5) [辭典] 朝鮮光文會 編纂 近刊 /朝鮮時語 五萬의 標準을 定하고 意義를 譯한 것이니 朝鮮有語 以後에 初有한 大著라. 우리의 精神的 血液이 從此로 一段의 生機를 加得할지니라(김두봉의 [조선말본] 뒤편의 신문관 광고)

6) “주시경(周時經) 씨는 『조선말모이』(조선어사전)의 첫페이지와 조선글을 가로쓰는 활자(活字)를 수복히 만들어 노코는 그만 간다 온다는 말조차 업시 황천(黃泉)으로 간 뒤로는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한구석에서 묻지만 쏘이고 잇답니다.” (十九 星霜을 閱歷한 黃金町 新文館, [동아일보], 1926.1.2.)

○ 현 상

‘말모이 원고’는 [말모이] 편찬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가로쓰기의 2단으로 되어 있는 240자 원고지에 붓글씨로 작성되었다. 원고는 1권으로 묶여 있는데, 표지에는 세로쓰기로 쓰인 ‘말모이 卽 사전’이 불펜으로 적혀 있고, 내지에 ‘ㄱㅏㄹ ㅁㅏㅣ’란 가로 풀어쓰기로 쓰인 제목이 나온다. 표지에 불펜으로 적은 글씨는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ㄱㅏㄹ ㅁㅏㅣ’는 별도의 종이에 활자로 찍은 후 ‘말모이 원고’에 붙인 것인데, 이를 보면 모아쓰기로 된 원제목(말모이)을 풀어쓰기로 바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풀어쓴 자모의 형태에서 두드러진 것은 ‘이’ 모음을 나타내는 ‘ㅣ’의 형태이다. 주

시경은 풀어쓰기 자모의 형태를 다양하게 모색했는데, 일직선 형태의 ‘|’를 변형시킨 ‘T’ 형태의 경우 공식 출판물로는 [말의 소리](1914)에 필사의 형태로 처음 등장하였다. 이런 사실을 앞의 인용 6)과 연결지어 보면, 제목에 쓰인 풀어쓰기 활자는 [말의 소리](1914) 이후 그리고 주시경 사망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원고지의 판심에는 책 제목인 ‘말모이’가 인쇄되어 있어 이 원고지가 [말모이]를 편찬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고지에는 표제어의 배열 순서와 부호 표기가 인쇄되어 있다. 원고지 위쪽에는 ‘【첫소리】 ㄱ (ㄱ) ㄴ ㄷ (ㄷ) ㄹ ㅁ ㅂ (ㅂ) ㅅ (ㅅ) ㅇ ㅈ (ㅈ) ㅊ ㅋ ㅌ ㅍ ㅎ’가 인쇄되어 있고 그 위에 2단의 각 단별로 첫 올림말과 끝 올림말이 표시되어 있다. 왼쪽에는 ‘【가운대소리】 ㅏ (·) ㅑ (·)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ㅣ ㅚ ㅜ ㅞ ㅟ’가, 오른쪽에는 ‘【받힘】 ㄱ (ㄱ) ㄴ ㄷ (ㄷ) ㄹ ㅁ ㅂ (ㅂ) ㅅ (ㅅ) ㅈ (ㅈ) ㅊ ㅋ ㅌ ㅍ ㅎ’가, 그리고 아래쪽에는 부호 표기 ‘- 한낱말사이, · 높은소리, .. 낮은소리, + 한문말 X 다른나라말’가 인쇄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1. 조선광문회와 [말모이]

[말모이] 편찬사업을 벌인 조선광문회는 ‘수사(修史)’와 ‘이언(理言)’과 ‘입학(立學)’을 설립 취지로 내세운 민족 계몽운동 단체다. 이중 ‘이언(理言)’은 ‘사전편찬’과 ‘문법정리’에 해당하는데, 광문회에서는 이언(理言)의 사업으로 [신자전(新字典)]과 [말모이]를 편찬하게 된 것이다. 이때 [신자전]과 [말모이] 편찬은 연동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말모이] 편찬을 주도했던 주시경과 김두봉은 [신자전] 편찬에서 국문 훈석을 담당하였다.

7) “我的 言語와 關繫가 深切한 語文의 對譯辭書를 作成함은 辭典計劃의 一要件이 되니 (중략) 朝鮮訓釋에 對하여는 故한헌샘 周時經 白淵 金料奉 兩氏의 用心이 頗勤하였스며” (崔南善, [新字典] 跋, 1915)

다만, [신자전] 편찬이 최남선의 주도로 이루어진 반면, [말모이] 편찬은 주시경과 김두봉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모이]에는 주시경과 김두봉의 어문관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어문관은 ‘말모이 원고’에 나타난 국문 표기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말모이 원고’의 표기법

주시경은 대한제국의 국문연구 기관인 ‘국문연구소’(1907-1909)의 연구위원으로 참여하여 최초의 ‘국가 어문규범안’이라 할 수 있는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

案)](1909)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문연구의정안]이 시행되지 못한 채 한일병합이 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을 공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경은 ‘말모이 원고’에 국문연구소의 철자법을 적용함으로써 [말모이]의 편찬이 대한제국의 어문규범화 사업을 이어 완성하는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국문연구소의 철자법은 형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받침에서 소리로 실현되지 않지만 형태 구분에 역할을 하는 자모(ㄱ ㅊ ㅋ ㅌ ㅍ ㅎ 등과 겹받침)를 받침 표기로 쓰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형태주의 표기법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기원칙이 되어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3. ‘말모이 원고’의 체제

이 원고는 ‘알기(2쪽), 본문(153쪽), 찾기(50쪽), 자획찾기(26쪽)’의 4부분으로 되어 있다. ‘알기’가 처음 나오고 본문의 올림말이 ‘ㄱ’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원고본이 ‘말모이 원고’의 첫째 권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찾기와 자획찾기가 뒤에 포함된 것은 독특하다. 이를 보면 원고 작성 시 본문과 찾기를 함께 작성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말모이 원고’가 본격적으로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 샘플로 작성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알기’에는 ㄱ-ㅂ까지 6개 항목의 범례, 24개의 문법용어와 그 약호, 19개의 전문분야와 그 약호가 제시되어 있다. 범례에서는 (ㄱ)사전의 기술 원칙, (ㄴ)올림말의 배열 순서, (ㄷ)유의어의 배열 및 그 풀이, (ㄹ)동음어와 다의어의 배열 및 그 풀이, (ㅁ)말소리의 높낮이 표시방법, (ㅂ)한자어 및 외래어의 표시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본문’에는 ‘ㄱ-갈쪽’까지의 1,400여 개의 올림말이 제시되어 있다. 기술 방식은 각 올림말의 오른쪽에 ‘문법정보(품사), 전문분야, 뜻풀이, 용례’ 등의 순서로 사전의 미시 정보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말모이 원고’의 편찬자들이 사전에서 갖춰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찾기’는 표제어 색인에 해당하고, ‘자획찾기’는 올림말 및 본문 속의 한자어 색인이다.

4. ‘말모이 원고’의 문법 용어

‘말모이 원고’에 나타난 문법 용어는 독특한 것인데, 여기에 나온 24개의 문법 용어는 주시경의 문법 용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용어 자체가 당시에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알기’에서는 문법 용어 오른쪽에 한자어 문법용어와 대응시키거나 대응 한자어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문법 용어 중 ‘닿소리’와 ‘홀소리’ 2개를 제외한 22개 문법 용어의 경우, 모든 문법형태소를 단어로 보고 각 문법형태소에 품사명을 부여한 주시경 학설의 원칙에 따르되, 주시경의 기존 품사 체계에 비해 세분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원고의 ‘알기’에는 문법 용어가 단순 나열되어 있어서 그 문법 체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말모이] 편찬에 참여했던 이규영의 비방록인 [온갖것](1913)에서는 22개의 문법 용어가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원고에 나온 22개의 품사 명칭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후 문법에서 계승되지 않았다. 다만 이 원고에 제시된 세분화한 문법 용어는 이전의 문법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정밀한 문법 분석의 결과라는 점에서 국어문법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띤다.

또한 자음과 모음이라는 명칭을 ‘닿소리’와 ‘홀소리’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시경이 [국어문법](1910)의 개정판으로 낸 [조선어문법](1913)에 처음 나온 용어이다([국어문법]에서의 ‘웃뜸소리’와 ‘붙음소리’를 대신한 용어). 주시경 사후에 나온 김두봉의 [조선말본](1916)에서는 ‘자음’을 나타내는 용어가 ‘닿소리’로 바뀐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1913년에 [말모이]의 체계를 잡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을 거치며 원고의 체계를 잡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원고에서 제시한 문법 용어가 이후 주시경 학파의 문법 연구에서 일부만 채택되거나 일부 용어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은 1914년에 이 원고를 조성한 이후 이에 대한 일정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5. ‘말모이 원고’의 올림말과 뜻풀이

올림말의 형태, 뜻풀이할 올림말의 선택, 올림말에 따라 세운 뜻풀이의 원칙 등이 특징적이다. 이는 ‘말모이 원고’의 편찬자들이 사전의 편찬 원칙을 정교하게 세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곧 ‘말모이 원고’가 첫 번째 국어사전이면서 우수한 국어사전이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올림말 중 용언 올림말은 기본형 종결어미인 ‘-다’를 생략한 형태인데, 이는 현재 문법과 달리 이를 ‘맺’이라는 품사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주시경 문법의 한 특징인데 주시경은 어미와 조사를 모두 ‘토’로 분류하면서 단어로 봤다. 이런 점에서 ‘말모이 원고’는 문법적 분류 원칙을 세운 후 이를 사전 기술에 정확하게 적용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뜻풀이할 올림말을 선택하는 원칙은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을 연상시킨다. ‘말모이 원고’의 ‘알기’에는 유의어의 경우는 “가장 흔히 쓰이고 소리 좋은 말” 밑에 풀이를 적는다’는 원칙을 나와 있는데, “가장 흔히 쓰이고 소리 좋은 말”을 정하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표준어를 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가얏미’와 ‘개미’, ‘가야금’과 ‘가야고’를 사전에 올리면서 이중 ‘개미’와 ‘가야고’에서 선택해 뜻풀이를

한 것을 보면, ‘말모이 원고’의 편찬자들은 통용되는 말을 최대한 수집해 등재함과 동시에 표준적인 어형을 제시하여 통일적인 언어생활을 유도한다는 편찬 원칙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말모이 원고’ 편찬자들은 어휘 유형에 따라 뜻풀이의 원칙을 따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유어의 뜻풀이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인용 10), 한자어의 뜻풀이에서는 경우에 따라 한자를 사용하였고(인용 9), 일반어의 뜻풀이는 국문 문체를 사용하는 데 반해(인용 9, 10), 전문어의 뜻풀이는 국한혼용문체를 사용하였다(인용 8).

8) 가독상속인[家督相續人] (제) [法]家督을 繼承하는 人이나 被相續人의 家族된 直系卑屬에 對하여 相續人되는 것은 寸數가 다른 사이에는 가깝은 者를 하고 寸數가 같은 사이에는 男을 하고 寸數가 같은 男 又は 女 사이에는 嫡子로 하고 … (하략) …

9) 강스[講師](제) 學術을 講義하는 스승

10) 깜벽 (역) ㉠눈을 뜨었다가 감았다가 하는 것 ㉡불이 죽으라고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것

이러한 뜻풀이 방식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차이, 전문어와 일상어의 차이를 편찬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풀이 방식을 달리하는 원칙을 세웠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어에 대한 뜻풀이의 문체가 두드러졌던 것은 당시 교과서가 국한혼용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말모이 원고’의 용례 ‘말모이 원고’에 압축된 형태로 해당 올림말의 쓰임을 보여주는 용례가 포함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사전의 용도에 대한 편찬자들의 인식이 높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1938년에 출판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에서 용례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 문헌자료

김민수(1986), 《周時經 研究》(증보판), 탐출판사.

김민수(1980), 《新國語學史》, 일조각.

이병근(1977), 最初の 國語辭典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 2-1, 67~84쪽.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최경봉(2005),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최경봉(2014),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24-3, 국립국어원.

□

○ 조성연대

‘말모이 원고’는 현존하는 자료 자체만으로 정확한 제작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에 제시된 각종 관련 기록을 통해서, ‘말모이 원고’의 대략적인 제작 연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 (1) “네즘 두온 네열 여섯해 아홉달(단기 4246년 9월. 서기로는 1913년 9월)에 朝鮮光文會 朝鮮語字典 編纂하는데 일을 본 뒤에 보고 들은바를 가리어 적음.” (이규영, [온갖것], 1913)
- (2) “朝鮮光文會가 設立되매 朝鮮語文에 關한 文書校正과 辭典編纂의 指導에 致力하며…….” (周時經先生歷史, [청춘], 1914)
- (3) “未久에 踵出할 我語小典과 我文小法 등이 다 其一이라.” (崔南善, [新字典] 敍, 1915)
- (4) “이 글은 [말모이]에 쓰라고 그러께(1913) 여름에 열물앞, 무원어른 시골집에서 만들었던것인데 지난(1914) 가을붙어 이를 좀 더 다스리어 이제에 마친 것이니라.” (김두봉, [조선말본], 1916)
- (5) “주시경(周時經) 씨는 『조선말모이』(조선어사전)의 첫페이지와 조선글을 가로쓰는 활자(活字)를 수북히 만들어 노코는 그만 간다 온다는 말조차 업시 황천(黃泉)으로 간 뒤로는 지금까지 그것이 그대로 한구석에서 묻지만 쏘이고 잇답니다.” (十九 星霜을 閱歷한 黃金町 新文館, [동아일보], 1926.1.2.)

(1)의 기록을 통해서, 조선광문회에서 주관하여 국어사전[조선어사전] 편찬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5)를 통해서 조선광문회에서 간행되는 사전이 주시경과 김두봉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사전의 전체 체제와 내용이 기획/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업 과정에서 이규영과 권덕규가 참여하여, 사전 편찬 작업이 본격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편찬 과정에서, ‘말모이 원고’가 거의 완성될 시점에서, 이 사업의 핵심 책임자였던 주시경 선생이 1914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말모이 원고’의 기반을 둔 사전 편찬 작업이 중단되었다. 이후 이 원고는 1926년대까지 방치되었고 원래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말모이 원고’ 관련 기록을 보면, 현재 남은 ‘말모이 원고’는 적어도 1913년부터 1914년 사이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 현 상

‘말모이 원고’는 [말모이] 사전 편찬을 위해서, 전용(專用) 원고지에 작성된 원고(原稿)를 말한다. 현재 남아있는 원고는 전체 1책으로, 표지에 ‘말모이 卽 사전’,

내지에 ‘ㄱㅏㄹ ㄱㅏㅣ’란 제목이 적혀있다. 표지의 제목은 후대에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이고, 원래 명칭이 내지에 적인 ‘말모이’로 보인다.

전용 원고지의 판심제(版心題)는 ‘말모이’로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다면 사전에 사전의 제목을 [말모이]로 정했음을 알 수 있다. ‘말모이 원고’는 사전 편찬을 목적으로 만든 원고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사전에서 볼 수 있는 표제어의 배열순서와 부호 표기를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원고지 위쪽에는 ‘첫소리’, 왼쪽에는 ‘가운대소리’, 오른쪽에는 ‘받힘’, 그리고 아래쪽에는 각종 부호 표기, 예를 들자면 높은/낮은 소리 등이 인쇄되어 있다. 이런 외형적 상태를 볼 때, 이 자료는 사전 출간을 위해서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1) **‘말모이 원고’의 서지적 특징:**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대에 검열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출판 원고는 사전 승인을 조선총독부 경무국으로부터 받아야했다. 이때 각 출판사에서는 검열용 원고(原稿)를 제출한다. 현존하는 자료를 보면 조선광문회나 신문관, 그리고 회동서관 등에서는 자체 원고지를 만든 뒤에, 출판사명(出版社名)을 기재하거나 ‘작품명’을 기입한 것들이 많다. ‘말모이 원고’는 전용 원고지에다가 해당사항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출판을 목표로 했고, 동시에 검열을 위해 제작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2) **‘말모이 원고’의 형태적 특징(표기법):** 대한제국 시기에 최초의 국문(國文) 표기 통일안이 ‘국문연구소’ 주관으로 1909년 제정되었다. 그 안이 바로 [국문연구의정안(國文研究議定案)]이다. 그러나 이 통일안은 식민지가 되면서 시행되지 못했다. 대신에 조선총독부에서 작성된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1912)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현재 ‘말모이 원고’를 보면 보통학교용언문철자법이 아닌 국문연구의정안에서 제정한 철자법을 따르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말모이 원고’를 작성했던 사람들의 언어관, 민족관, 표기법에 의거한 제작 시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말모이 원고’의 전체 체제:** ‘말모이 원고’는 ‘알기(2쪽), 본문(153쪽), 찾기(50쪽), 자획찾기(26쪽)’으로 되어 있다. ‘알기’는 현재의 ‘일러두기’와 같은 것이다. 알기에는 각종 범례, 문법용어, 원고 작성 과정에서의 약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범례가 수록되어 있는데, 범례에서는 (ㄱ) 사전의 기술 원칙, (ㄴ) 올림말의 배열 순서, (ㄷ) 유의어의 배열 및 그 풀이, (ㄹ) 동음어와 다의어의 배열 및 그 풀이, (ㄹ) 말소리의 높낮이 표시방법, (ㅂ) 한자어 및 외래어의 표시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후에 본문은 ‘ㄱ’ 닷소리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1,400여개에 해당하는 단어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말모이 원고’는 출간을 계획한 사전(事典)의 제1권의 원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말모이 원고’에 수록된 단어: ‘말모이 원고’에는 1,400여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단어들을 보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어(新語)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가택수색(家宅搜索), 감리서(監理署), 조약(條約), 개교식(開校式), 개화당(開化黨)과 같은 것들이다. ‘조약’이란 단어는 근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개화당은 1874년(고종 11년) 무렵 김옥균(金玉均), 박영교(朴泳敎),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말모이 원고’에 수록된 단어를 보면 당대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신어들이다. 이 단어를 통해서 ‘말모이 원고’의 제작 상한시기를 살펴볼 수 있다.

○ 문헌자료

- 이병근(1977), 最初の 國語辭典 《말모이》(稿本) 《알기》를 중심으로. 《언어》2-1.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최경봉(2014), 원고로 남은 최초의 우리말 사전, 《말모이》, 《새국어생활》24-3.
박용규(2016),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역사적 의미》, 기록인V35.
최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제2판)》, 책과함께.

16. 조선말 큰사전 원고 (朝鮮말 큰辭典 原稿)

가. 검토사항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8년 언론 등으로부터 독립운동사료 포함 근대문화재에 대한 적극적 재평가 요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재 278건을 대상으로 자문회의('19.7.15./9.5.) 및 본 위원회 제7차 소위원회('19.11.14.)에서 재검토하였음.
- 검토 결과 ‘말모이 원고’, ‘데니(Denny) 태극기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검토된 문화재 9건을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본 위원회 제6차·제7차 회의('19.10.10./'19.12.12.)에 경과를 보고하였음.
- 이에, 지정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 대해 관계전문가 조사('20.8.18./8.26./9.3.)를 실시하고 미공개 원고를 추가로 조사해('20.9.7.)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지정조사 대상 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 19세기~일제강점기 •(주체) 단체 위주 •(대상) 한글, 태극기 등 대한민국 역사상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문화재
선정대상 (총9건)	① 데니 태극기(국가등록문화재 제382호), ② 김구 서명문 태극기(제388호), ③ 불원복 태극기(제394호), ④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458호), ⑤ 말모이 원고(523호), ⑥ 조선말 큰사전 원고(524-1호), ⑦ 조선말 큰사전 원고(524-2호), ⑧ 운동주 친필 원고(712호), ⑨ 이봉창 의사 선서문(745-1호)

다. 주요내용

등록사항 (등록일자)	명칭	수량	규격 (cm)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비고
국가등록 문화재 제524-1호 (12.12.24.)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8책 (2,204장)	27.0 × 19.3 등	(사)한글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사)한글학회	국가지정 기록물 제4호 (‘08.11.3.)
국가등록 문화재 제524-2호 (12.12.24.)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5책 (1,314장)	27.5× 19.6 등	국유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독립기념관	국가지정 기록물 제4호 (‘08.11.3.) (*1985년 한글학회에서 기증)
미등록	조선말 큰사전 원고 (조선말 큰사전 原稿)	1책 (51장)	26.9 × 19.7	김소담·김소영 (김소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 3길 27, 동승학술재단	

- 재 질 : 종이(양지)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선장(線裝, 假綴)
- 조성연대 : 1929~1942년 경
- 제 작 자 :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전신)

◆ 지정대상 목록 : 총14책

소장처	연번	권수 표시	항목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 표기	장수 (표지포함)	책 크기	비고
한글 학회 (8책)	1	제3권	1447 -1505	불다 - 빙다	0011 -0313	274장	27.0 x 19.3	제3권 연필표기
	2	제4권	1890 -1961	시 - 씬	1 -315	318장	27.0 x 19.5	51쪽 2장
	3	권수표시 없음	2253 -2269	외 - 우측통행	1095-1 429	188장	28.0 x 20.4	
	4	제5권	2666 -2712	절용 -제밑	0360 -0639	201장	27.1 x 19.9	
	5	제5권 5의 7	2803 -2848, 1273 -1472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0640 -0882	199장	27.2 x 19.8	
	6	제6권 (6의1)	3125 -3199	ㅌ - 팀파니	1347 -1746	317장	26.8 x 19.5	
	7	제6권 (6의2)	3199 -3298	ㅍ - 핑핑히	1747 -2306	452장	27.0 x 19.1	
	8	제6권	3372 -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쯔]	241 -393	255장	26.8 x 19.7	
독립 기념관	1	5의 1	1 -240	ㅈ -잡제	0011 -0359	249장	27.5 x 19.6	

(5책)	2	5의 8	1473의 1 -1667	찌그리지다 -진도바리	0883 -1117	200장	27.5 x 19.8	
	3	5의 11	201 -399	척사윤음 -청찰	1118 -1346	201장	27.3 x 20.1	
	4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 -영다	0704 -1094	334장	27.5 x 19.8	80쪽 2장 236쪽 2장 이면 표기 757,794 889,906 951
	5	권수 표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0007-0 425	330장	27.4 x 20.1	
개인 소장 (1책)	1	범례, ㄱ	표시 없음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上 中下)	없음	51장	26.9 x 19.7	

※ 수량(張數) 기준: 표지포함/ 첩지 제외(원고지 1장 정도 분량은 장수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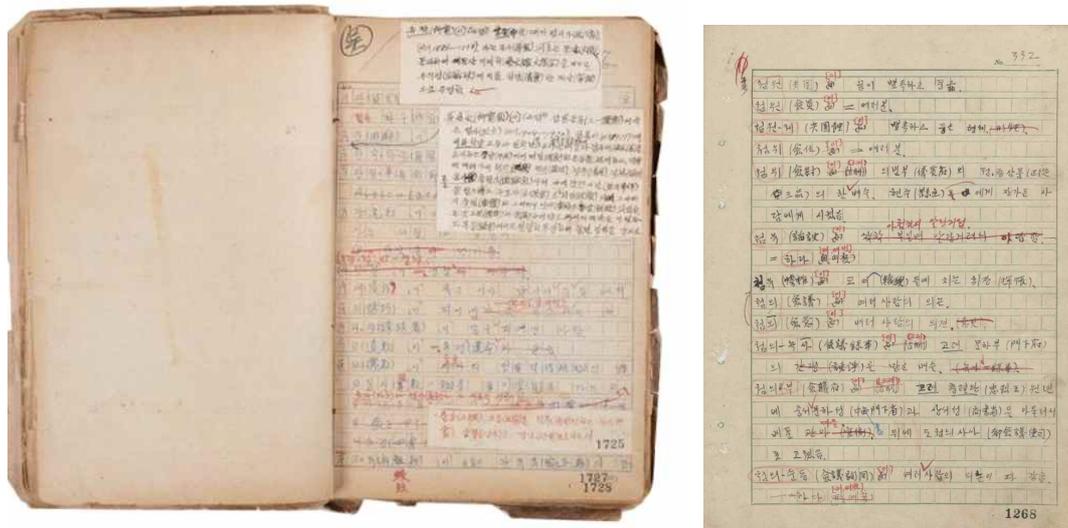


그림529. 조선말 큰사전 원고



(참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바탕으로 간행된 『조선말 큰사전』 1·2권 (1947~1949)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말 사전의 편찬과 발행은 지난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조선어 학회에서는 1929년에 우리말 사전 편찬 사업에 착수하였고, 거의 발행을 앞둔 시기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모든 것이 수포(水泡)가 되어버린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천만 다행으로 해방직후에 이 원고를 발견하여 한글학회에서는 차례대로 『조선말 큰사전』(큰 사전)을 6책으로 완간하게 되었다. 곧 이 원고를 바탕으로 1947년 10월 9일에 1권을 발행한 이후 2권은 1949년 5월 5일, 3권은 1950년 6월 1일, 4권은 1957년 8월 30일, 5권은 1957년 6월 30일, 6권은 1957년 10월 9일 등 모두 6권으로 발행되었던 것이다. 이때 1-2권은 『조선말 큰사전』, 3-6권은 『큰사전』이라는 이름이었다.

이 원고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말을 아끼는 선각자들이 일제의 조선어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을 보존하고 아끼려는 충정에서 편찬 완성한 것이다. 또한 최초로 발행된 우리말 사전의 원고이자 민족운동의 산 증거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항구히 보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사전의 원고로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사전 편찬 작업이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되고 해방 후 발견한 원고를 토대로 사전을 편찬했다는 역사적 가치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사 자료 중 전사본은 제외하고 1940-1942년 사이에 작성된 원고 13책(한글학회 소장본 8책 및 독립기념관 소장본 5책)과 내용에 있어 유일성이 있는 개인 소장본 1책을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 및 보존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었던 ‘조선말 큰사전’을 간행하기 위한 원고이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총독부에 압수되었고, 이후에 행방을 모르다가 해방 이후에 극적으로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1929년 ‘조선어연구회(朝鮮語研究會)’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이후 1931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를 거쳐 1949년 한글학회에까지 계승되었던 ‘조선말 큰사전’

간행은 1957년에서야 비로서 완료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준다.

또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제시된 ‘어휘, 어휘의 수록 순서, 철자,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문법 형태의 표시, 해석의 방식,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항목, 그리고 이에 의거한 어휘 항목의 선정, 어휘의 용례, 관련어, 옛말 등의 표시 등의 다양한 사전의 기술 방식은 사전학의 전범(典範)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사전은 1900년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반어만이 아니라 전문어, 제도어, 옛말, 이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학문적 자료 가치가 높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국어사전은 그 나라의 학문의 총결산이며 그 나라의 문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왜냐 하면 언어와 문자로 의사소통을 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협동하고 협동을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전달받아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사 전달의 기본 요소는 어휘이고 그 어휘의 모든 것을 담아 놓은 것이 곧 국어사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는 문화의 한 요소이며, 언어 단위 중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요소가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를 언어의 기본단위로 하여 편찬된 그 나라의 국어사전은 곧 그 나라 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과 문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서로가 사용하는 어휘는 곧 의미전달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어휘가 다르거나 그 어휘의 의미나 용법이 다르다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사람들은 그가 처해 있는 지역, 시대, 연령,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한다. 동일한 환경, 동일한 지역 출신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면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없지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하여서,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어휘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을 모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배열하고 그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은 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사전을 찾으면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찾으려고 하는 어휘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어휘가 등재되어 있는 사전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어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의 보물 특호라고 할 수 있고 한글은 유형문화재의 보물 특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와 ‘한글’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이들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한국어’가 그러하다. 그

런데 이 무형적인 ‘한국어’를 유형적이고 한정된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것 중의 하나가 ‘한국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사전’은 매우 중요한 문화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어사전’은 그 이름으로 간행된 ‘책’의 형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사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사전 편찬이 이루어져 온 것은 19세기말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역사전(對譯辭典) 형식으로 출판되어 왔다. 한국어에 대한 단일어사전으로 출판된 것은 1938년에 출판된 문세영 편찬 「조선어사전」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편찬된 국어사전을 편찬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편찬된 원고는 남아 있으나 출판되지 않아 원고 형태로만 남아 있는 것이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말모이’이며, 또 하나는 고려대학교 육당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어사전’ 원고이다. 전자는 조선광문회에서, 후자는 계명구락부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계획되고 편찬되고 간행이 된 국어사전은 전술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과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조선말큰사전이다.

최초의 국어사전이라고 하는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도 책은 남아 있지만, 그 사전을 간행하였던 기초가 되는 원고는 남아 있지 않다. 비록 문세영 사전은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희귀성이 없어서 보물로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어사전 편찬회에서 편찬을 시작하여 조선어학회를 거쳐 한글학회에 이르기까지 편찬해 왔던 조선말큰사전도 이미 책으로 출판되어서 그 희귀성의 부족으로 보물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 작성된 원고가 남아 있어서, 이 원고들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조선말큰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되었던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무형적인 한국어를 유형적인 한국어로 바꾼 최초의 한국어 문화재이다.

둘째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국어사전 중에서 원고가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다.

셋째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20세기 초기부터 중기까지의 한국어의 흔적을 보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넷째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의 문화 독립운동의 중요한 기록이다.

다섯째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그 이후에 등장할 많은 한국어사전 편찬의 모형을 제시하여 국어사전 편찬의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러한 큰 의미를 지닌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길이 보존하고 그 가치를 늘 되새기는 일이 중요하다.

○ (지정 가치 있음)

1940~1942년 조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 민족문화운동의 최대 성과물이자 해방 이후 국어 정립의 기반이 되었던 국어사전의 원고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편찬작업의 결과물인 이 원고에는 해방 이후 12년에 걸쳐 진행된 수정 작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해방 전후기 언어 상황 및 사전 편찬 원칙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아래에서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가치를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로 나누어 기술하며, 이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해야 할 근거를 정리하였다.

1. 역사적 가치

식민 지배를 받던 시기에 민족어를 규범화하고 민족어 대사전을 편찬한 사례가 우리 민족 외에는 없었다는 점,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자마자 민족어 교과서를 편찬해 학교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췄던 사례가 우리 민족 외에는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 우리말 연구와 민족문화운동의 결정체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독립을 준비했던 뚜렷한 증거물이라 할 수 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 맥락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이 원고는 일제강점기 전 민족적 호응을 받으며 진행된 사전 편찬사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29년 10월 31일, 좌우를 망라한 사회운동가, 종교인, 교육자, 어문학자, 출판인, 자본가 등 각 분야의 명망가 108인이 발기하여 조선어사전편찬회를 결성하면서 사전편찬 사업이 시작되었다.

조선어사전편찬회 위원(괄호 속 인물은 1931년에 증원된 위원)

권덕규, 김법린, (김병규), (김상호), (김윤경), (김철두), 로기정, (명도석), 박승빈, 방정환, (백남준), 신명균, 안재홍, 유억겸, (윤병호), 이광수, 이극로, (이만규), 이병기, 이상춘, (이순탁), 이시목, (이우식), 이윤재, 이종건, (이형재), (이희승), 장지영, 정열모, 정인보, (조만식), 주요한, 최두선, 최현배

사전편찬에 앞서 대중적 조직으로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결성한 것은 이 사업이 전 민족적 사업임을 공식화하고, 이 사업의 결과물인 사전이 사회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말 사용의 지침을 제시할 것임을 보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밟아 대규모로 이루어진 사전편찬사업은 국어사전편찬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문화운동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 민족문화운동사의 성과와 의의를 보여주는 자

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 이루어진 우리말 규범화 사업의 출발점이자 결과물로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주축이던 조선어학회는 사전편찬의 한 과정으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완성하였다. 조선어학회는 어문규범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철자법 제정위원과 표준어 사정위원을 폭넓게 선정하고, 여기에서 연구한 결과는 철저하게 공론화 과정을 밟은 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처럼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어를 규범화하는 사업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진행한 덕에, 식민 체제에서 그 위상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말은 민족공동체의 공용어로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화사업이 모두 사전편찬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수렴한 결과물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도 우리말 규범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이루어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문화운동으로 진행된 독립운동의 찬란한 성과물이자,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독립을 준비했던 뚜렷한 증거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일본 경찰은 우리말 사전 원고를 완성한 조선어학회를 “학술단체를 가장하여 국체(國體) 변혁을 도모한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하고, ‘조선말 큰사전 원고’를 증거물로 삼아 조선어학회 관계자들을 내란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일본 법원은 “어문운동은 문화적 민족운동임과 동시에 심모원려(深謀遠慮)를 함축하는 민족독립운동”이라 규정하며 조선어학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 내용은 심증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것이었지만 민족어를 규범화하여 사전을 편찬하는 것이 독립국가를 준비하는 일임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사전편찬을 위한 어문정리가 치밀하게 이루어진 덕분에, 우리는 독립이 되자마자 우리말 교과서를 편찬하여 학교 교육을 할 수 있었고, 공공언어에서의 우리말 쓰기도 큰 무리 없이 정착시킬 수 있었다.

2. 학술적 가치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어학 및 근대 문화사 관련 자료로서도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1)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해방 전후기 언어 상황 및 언어 의식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1929년부터 1942년에 걸쳐 진행된 편찬작업의 결과물인 이 원고에는 해방 이후 12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정 작업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데, 역사적 격변기를 거치며 달라진 수정의 흔적은 언어 사용 양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언어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붙임1>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이 원고에는 전문 분야의 분류체계가 제시되어 있고 다양한 전문어의 정의가 담겨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의 전문 영역 체계와 전문어에 대한 인식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특히 전문어에 대한 이 원고의 일차 기술 내용을 해방 후 수정한 내용 그리고 출판된 사전에서의 기술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영역의 체계 변화나 전문어 정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도 이 원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원고는 우리말 어휘를 전면적으로 수집하고 평정(評定)한 후, 이것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기원을 분석한 성과를 일차적으로 담은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 원고의 편찬자들은 문헌 자료를 통해 어휘를 수집하는 한편, 전국 각지의 지식인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방언, 신어, 외래어, 은어, 결말, 관용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말들을 최대한 올림말로 등록하는 한편, 수집한 어휘를 평정하여 이를 표준어와 비표준어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이러한 편찬 방식은 편찬자들이 우리말 어휘의 총량을 담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해야 하는 사전의 역할을 특별히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 원고의 자료는 원고 작성 단계에서의 공통어 인식과 규범 인식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또한 이 원고의 편찬자들은 수집한 말들의 형태와 의미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어원을 추적하여 사전에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의미의 어휘를 면밀히 대조하여 그 의미 차이를 사전의 뜻풀이에 반영하였다. 이 원고에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진 언어 분석 및 의미 풀이의 내용과 해방 이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뜻풀이 수정 작업의 결과가 함께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 원고는 우리말 연구 역량과 사전편찬 역량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상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가치를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성과이자, 국어의 정립이 우리 민족의 힘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실체이며, 국어학과 한국 문화사의 연구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원고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그 의의를 널리 알리고, 이를 보존·관리하여 해당 분야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말 큰사전원고’는 일제강점기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키겠다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보여준 독립운동의 산물이다. 또한 ‘조선말큰원고’는 해방 이후에는 간행된 언어/문화 부분 출판물에서 제일 먼저 출간되어 당대인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준 기념비적 자료이다.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두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국어사전 편찬 과정의 나침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료적 가치, 학문적 가치, 교육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원고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할 사유가 충분하다.

(1)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어학회에서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조선말 큰사전 원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총독부에 압수되었고, 이후에 행방을 모르다가 해방 이후에 극적으로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이처럼 역사적 기록이 분명하고, 실본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이유는 분명하다.

(2) 학문적 가치: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범례’는 사전 편찬을 위해서 얼마나 과학적인 접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범례에 제시된 ‘어휘, 어휘의 수록 순서, 철자,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문법 형태의 표시, 해석의 방식,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항목, 그리고 이에 의거한 어휘 항목의 선정, 어휘의 용례, 관련어, 옛말 등의 표시 등의 다양한 사전의 기술 방식은 사전학의 전범(典範)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 사전은 1900년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반어만이 아니라 전문어, 제도어, 옛말, 이두 등으로 포괄하고 있어 학문적 자료 가치가 높다. 따라서 이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이유가 분명하다.

(3) 교육용 가치: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 조선총독부의 탄압, 해방 이후의 다시 찾게 된 우리말의 본보기로서의 의미, 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조선말 큰사전 원고’이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차치하고 현재 중등교육과정에서 우리말의 역사 단원에서 자세히 배우고 있다. 이러한 대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이유가 분명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현재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김민수(金敏洙) 유족 소유 등 세 곳에 산재되어 있다. 한글학회 소장본은 검정색 철근으로 구멍을 뚫어 두 군데 또는 한 군데를 매어놓은 가철본이다.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한글학회에서 기증한 것인데, 외형상으로는 한글학회 소장본과 거의 동일하다. 김민수 유족 소장본은 범례(22장)과 “ㄱ”의 앞부분(29장)으로 검정색 철근으로 구멍을 뚫어 한 군데를 매어놓은 가철본이다.

가철본의 앞표지에는 첫 번째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를 적어 놓았다. 원고는 조선어 학회 전용원고지에 필사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다. 원고지가 고급지로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다. 더욱이 발행을 앞두고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색의 펜을 사용하는데 별도의 원고지나 부침지를 붙여 놓은 곳이 적지 않아 혼란스럽고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한글학회 소장본 12책은 등록문화재 제524-1호이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그 중 4책(‘우충-윙윙’, ‘유-윗관’, ‘으-윗만이’, ‘ㅎ-허리’)은 해방이후의 전사본임이 밝혀졌다. 이 전사본 4책은 원본의 복제본인 셈인데, 이 중에는 현재 남아있는 원본과 중복된 내용도 있다. 더욱이 전사본의 문제를 떠나 일제강점기 때 편찬된 것으로 이해되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 대한민국의 건국이후의 필사본을 함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지정대상에서는 원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전사본 4책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지정대상은 한글학회 소장본 8책, 독립기념관 소장본 5책 그리고 김민수 유족 소장본 1책 등 모두 14책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선말 큰사전』의 편찬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29년 10월 31일(음력 9월 29일)이었다. 처음 108인의 발기로 조선어사전편찬회를 조직한 뒤 이극로가 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준비위원들이 마련한 규약을 통과시키고, 조선 민족의 총

력으로 조선어사전을 편찬할 것을 결의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1940년 3월 12일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과 삭제 등을 조건으로 출판 허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1942년 10월 1일에 발생한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이 사업은 중단되어 버렸다. 해방 이후인 1945년 9월 8일에야 정인승, 이극로, 김병제, 이중화, 정태진, 이강로, 신영철 등 7명이 편찬원으로 참가하면서 1947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조선말 큰사전』의 첫째 권의 발행을 보게 된 것이다. 이후 모두 6권으로 발행되는데, 그 원고는 일제강점기 때 완성한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바탕이 되었다.

현재 『조선말 큰사전 원고』 중에서 공개된 것으로는 한글학회 12책, 독립기념관 5책, 김민수 유족 1책 등 모두 18책이 있다. 독립기념관 소장의 5책은 한글학회 이사장이었던 허웅 박사가 독립기념관에 양도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한글학회 소장본 중에는 전사본 4책이 있어서 이를 제외한 8책, 독립기념관 5책, 김민수 유족 1책 등 14책이 『조선말 큰사전』의 오리지널 원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각 책은 일정한 기준을 따라 분책한 것이 아니고, 교정을 끝낸 이후 적당히 모아가칠하였기 때문에 분량이 일정하지가 않다.

한편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원고 중에는 전사본이 있다. 이에 대해 정재환은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에서 “(한글)학회는 난리통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사전 원고는 무사했다. 9·28 서울 수복 후 학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큰 사전 원고를 한 권 더 베껴놓았고, 1·4후퇴 때 새 원고는 최현배가 부산으로 가져가고, 원본은 유제환이 천안 고향집에 보관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사본이 탄생하게 된 경위는 6.25전쟁 때 보존을 위해 부분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표1> 한글학회 소장본의 각 책별 표제어 수록범위와 지정대상여부

구분	권수 표시	표제어 수록범위	지정대상 여부
1	제3권	분다 - 빙다	○
2	제4권	시 - 싶	○
3	제4권	외 - 우측통행	○
4	제4권	우층 - 윙윙	×(전사본)
5	제4권	유 - 윗판	×(전사본)
6	제4권	으 - 잇만이	×(전사본)
7	제5권	절용 - 제밑	○
8	제5권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
9	제6권(6의1)	ㅌ - 팀파니	○
10	제6권(6의2)	ㅍ - 핑핑히	○
11	제6권	핸드오르간 - 현훈증	○
12	제6권 여별	ㅎ - 허리	×(전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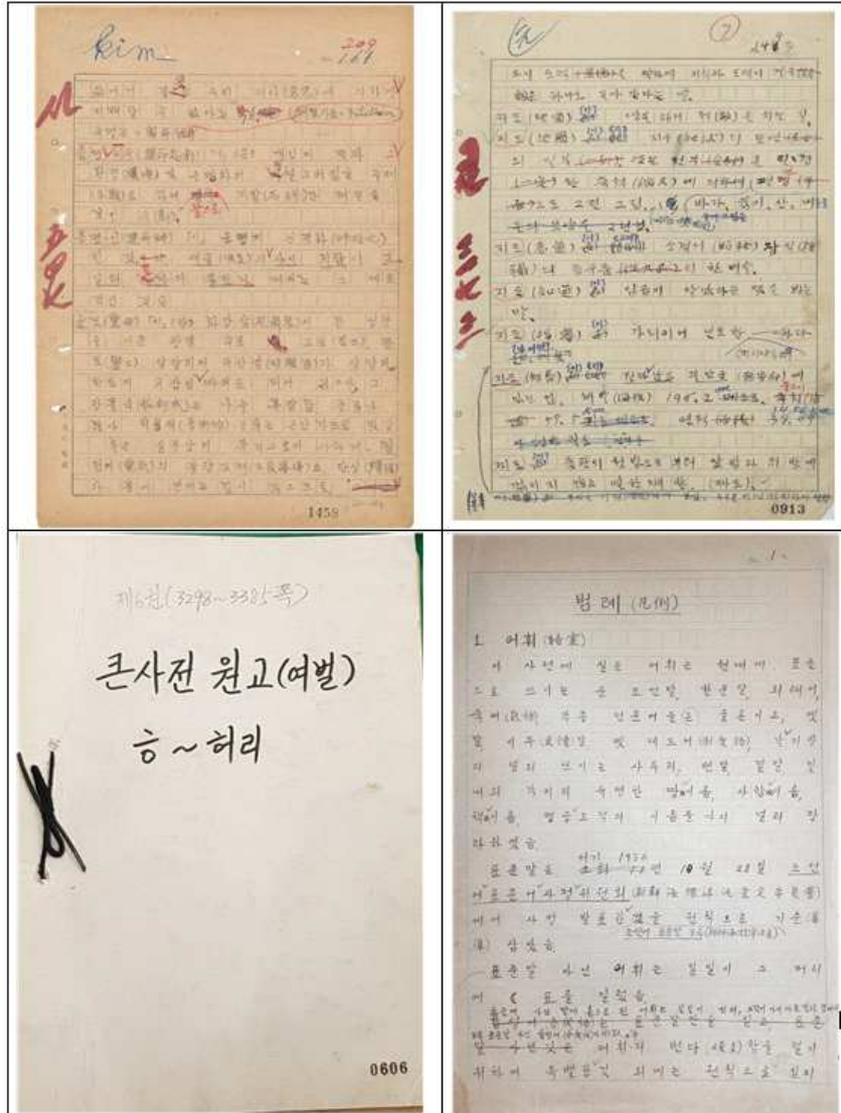
독립기념관 소장본 5책도 한글학회에서 기증한 것이므로 지질이나 교정 그리고 가철된 형식은 동일하다. 양 기관의 원고 17책은 2008년에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로 지정되었다.

<표2> 독립기념관 소장본의 각 책별 표제어 수록범위와 지정대상여부

구분	권수 표시	표제어 수록범위	지정대상 여부
1	5의 1	ㅈ - 잡제	○
2	5의 8	찌그러지다 - 진도바리	○
3	5의 11	척사운음 - 청찰	○
4	없음	여 - 영다	○
5	없음	ㅎ - 핸드백	○

김민수 유족 소장본은 큰 사전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던 고인이 보관한 범례(22장)와 “ㄱ”의 앞부분(29장)이다. 범례는 사전 편찬과 이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고, “ㄱ”의 앞부분도 유일한 원고이다.

<사진1>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김민수 유족 소장본과 제외된 전사본 1책의 표지
(좌상부터 시계방향)



○ 문헌자료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2019.

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리의도,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해제.

『등록조사보고서』 (조선말 큰사전 원고), 2012.

○ 기 타

이 원고는 일제에 압수되었다가 해방직후인 1945년 9월 8일에 경성역 조선통운 화물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재판 증빙자료로 경성고등법원에 보내졌던 것인데, 그

때까지 창고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당시 발견된 원고는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에서 나누어 소장하고 있고, 범례가 포함된 김민수 유족 소장의 한 책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최경봉 교수에 의해 발굴되어 공개되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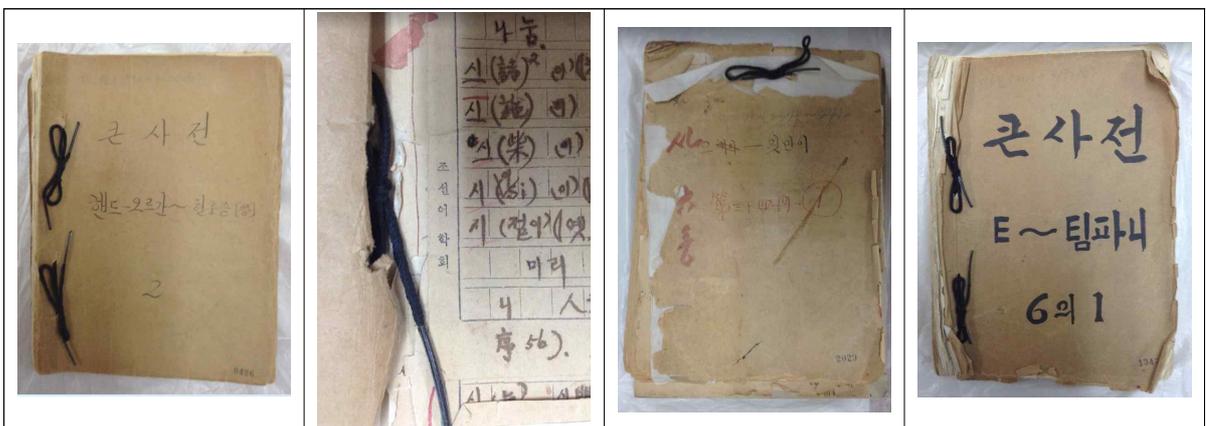
○ 현 상

서지목록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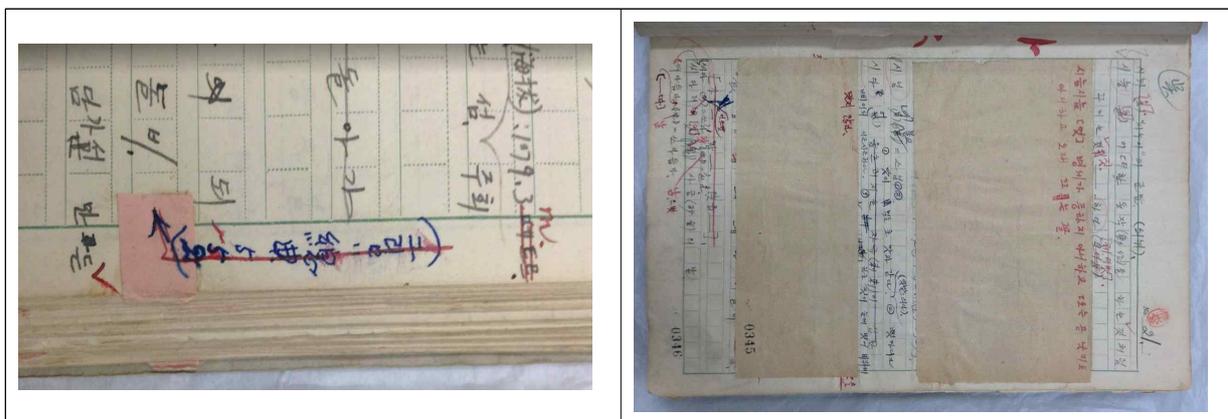
조선말큰사전 원고 / 저자미상. -- 필사본. -- [조선어학회]

1책 ; 27.0 × 19.3 cm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현재 한글학회에 12책, 독립기념관에 5책,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였던 故 김민수 유족이 1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한글학회 소장본과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2008년 11월 3일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24일에는 등록문화재 제524-1호와 제524-2호로 지정되었다. 표지는 황색으로 된 다양한 지질과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용 철끈을 사용하여 제책하였다. 2008년 국가지정기록물로 등록된 이후 국가기록원에서 중성보존상자를 제작. 제공하여 현재 한글학회본과 독립기념관본 모두 각 책별로 중성보존상자에 보관하고 있다. 독립기념관본 2책은 보존처리가 완료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훼손의 상태는 심한 편이다. 특히 원고의 보관 과정에서 다수의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가 부착되어 있고 접착식 메모지 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잉크 상태로 보아 수년 전까지도 추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표지 및 조선어 학회 원고지, 제책 상태]



[접착식 메모지 및 부첨지 사용 현황]

본문은 400자 원고지에 필사된 원고의 형태이며 일부에는 ‘조선어 학회’가 인쇄되어 있다. 본문은 연필과 볼펜으로 작성되었고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수차례에 걸쳐 교정한 흔적이 있고 다양한 지질의 종이를 덧대어 내용을 보충하고 부가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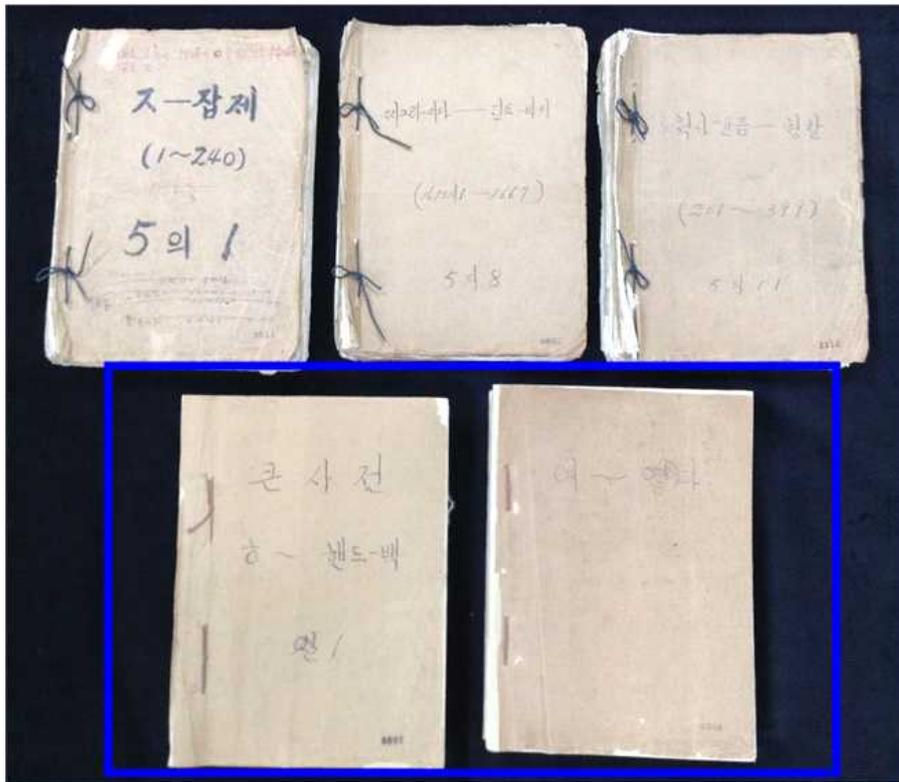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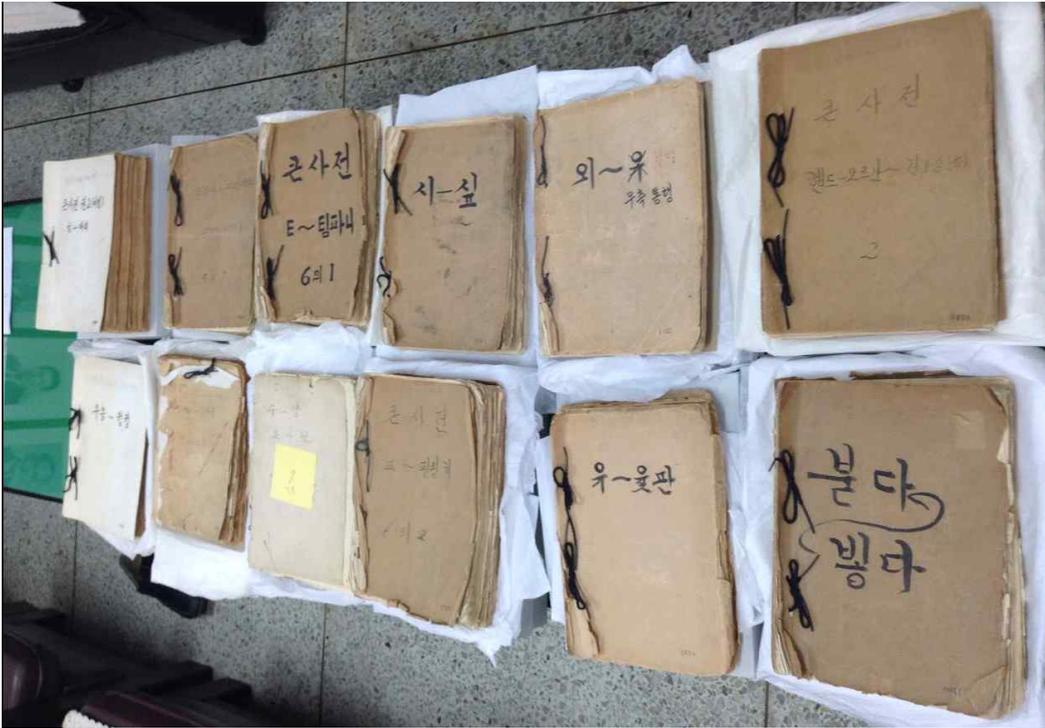


[자료 보관 상태]

[한글학회 소장본 12책]

[독립기념관 소장본, 2책은 보존처리 완료]

조사대상 자료의 세부적인 형태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 형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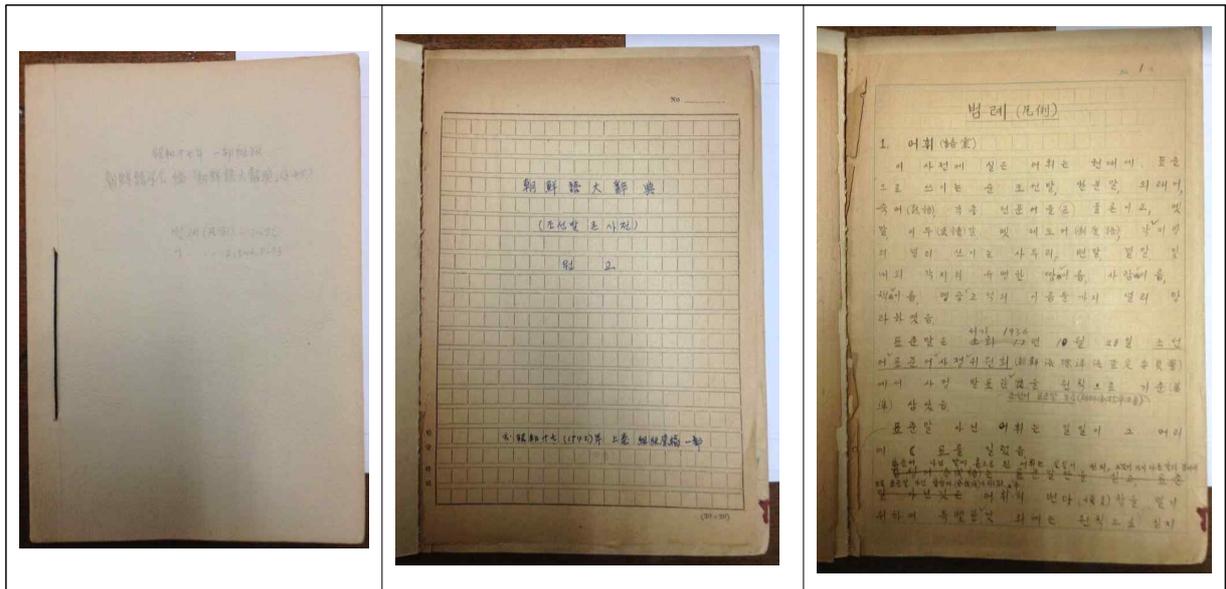
소장처	순서	권수 표시	항목 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호기	장수(표지포함)	책크기	비고
한글 학회	1	제3권	1447-1505	붙다 - 빙다	0011-0313	274장	27.0 x 19.3	제3권 연필표기
	2	제4권	1890-1961	시 - 싶	1-315	318장	27.0 x 19.5	51쪽 2장
	3	권수표시 없음	2253-2269	외 - 우측통행	1095-1429	188장	28.0 x 20.4	
	4	권수표시 없음	2299-2339	우측 - 윙윙	188-366	182장	25.6 x 18.8	전사본
	5	권수표시 없음	2339-2379	유 - 윗판	1699-2028	160장	26.1 x 18.3	전사본
	6	권수표시 없음	2379-2412	으 - 잇만이	1-135	137장	25.9 x 18.4	전사본, 88쪽 누락
	7	제5권	2666-2712	절용-제밀	0360-0639	201장	27.1 x 19.9	
	8	제5권 5의 7	2803-2848, 1273-1472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0640-0882	199장	27.2 x 19.8	
	9	제6권 (6의1)	3125-3199	ㅉ - 팀파니	1347-1746	317장	26.8 x 19.5	
	10	제6권 (6의2)	3199-3298	ㅊ - 핑핑히	1747-2306	452장	27.0 x 19.1	
	11	제6권	3372-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쫘]	241-393	255장	26.8 x 19.7	
	12	여벌	3298-3385	ㅎ - 허리(큰사전원고 (여벌))	0606-1038	431장	26.7 x 19.0	전사본
독립 기념관	1	5의 1	1-240	ㅊ-잡제	0011-0359	249장	27.5 x 19.6	
	2	5의 8	1473의 1-1667	찌그러지다-진도바리	0883-1117	200장	27.5 x 19.8	
	3	5의 11	201-399	척사윤음-청찰	1118-1346	201장	27.3 x 20.1	
	4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영다	0704-1094	334장	27.5 x 19.8	80쪽 2장, 236쪽 2장, 이 면 표기 757, 794, 889, 906, 951 보존처리
	5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0007-0425	330장	27.4 x 20.1	보존처리
개인 소장	1	범례, ㄱ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上中下)		51장	26.9 x 19.7	

*보라색 표시가 지정대상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말 큰사전』의 간행을 위하여 작성된 원본 필사 원고이다.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우리말 사전의 편찬 작업을 시작한 이래로 1936년 조선어학회가 이를 이어 받아 편찬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편찬 작업이 중지되었고 편찬 작업의 중요 기록인 원고가 해방 이후 1945년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되어 이를 토대로 1947년과 1949년 제1권과 2권이 『조선말큰사전』이라는 표제로 간행되고 이후 1950년 제3권, 1957년 제4권-6권이 『큰사전』이라는 표제로 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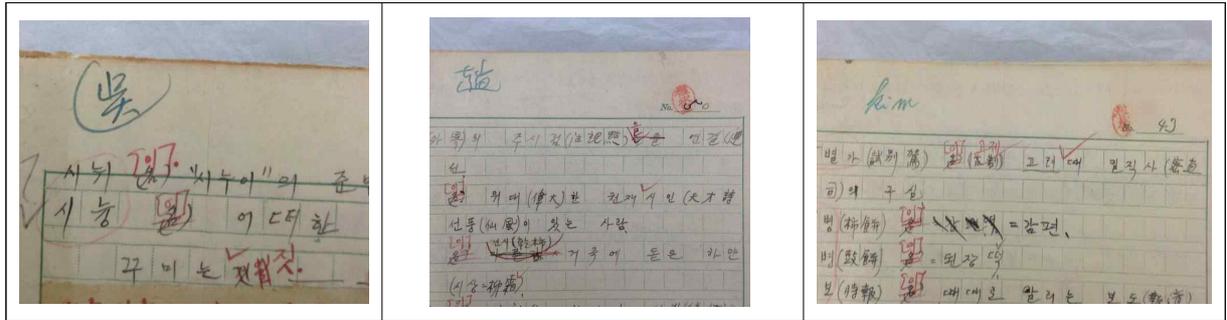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에서 보관하다가 1985년 이 중 5책을 독립기념관에 기증하여 소장처가 나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 중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최경봉 교수에 의하여 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김민수 교수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1책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은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단을 바꿔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上中下), 하단에 ‘범례(凡例) 1-22’ 다시 단을 바꿔 ‘1 ··· 2, 5-6, 8-33’이라고 되어 있다. 본문에는 ‘한글 학회’가 인쇄되어 있는 400자 원고지에 ‘朝鮮語大辭典 (조선말 큰사전) 원고 ※ 昭和十七(1942)年 上卷 組版原稿 一部’라고 필사되어 있다. 다음 장에는 ‘범례(凡例)’가 1. 어휘(語彙), 2. 어휘 별린 순서, 3. 철자, 4. 발음의 표시, 5. 어원(語源)의 표시, 6. 문법 형태(形態)의 표시, 7. 해석의 방식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 ‘전문어 표시의 부호’와 ‘외래어 표시의 부호’가 있고 ‘가거지지(可居之地)’로부터 ‘감각론(感覺論)’까지 사전 편찬 원고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 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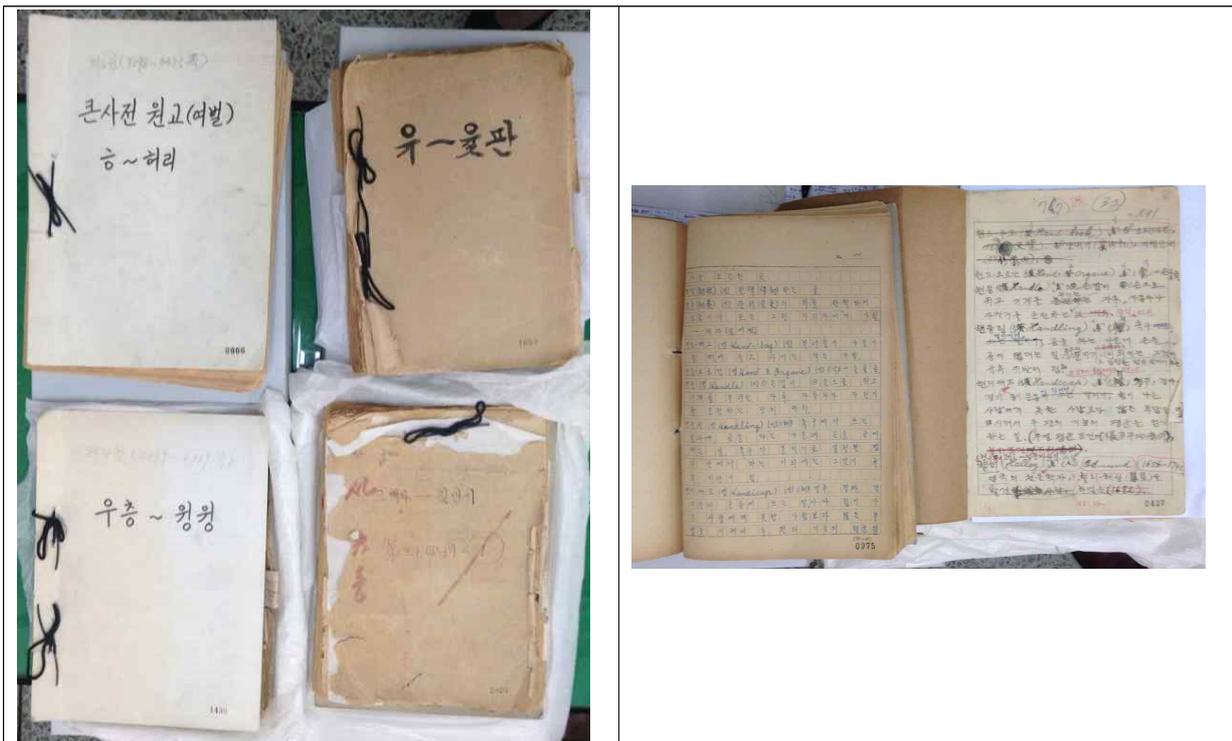
특히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의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원고의 상단에는 작업의 참여자들이 서명(김민수 등) 혹은 도장을 날인(권승욱)하여 표기한 것이 확인된다.



[참여자 확인 서명 및 날인]

한편 한글학회 소장본 중에는 기존 원고를 토대로 전사한 원고본 4책이 확인된다. ‘우층-윙윙’, ‘유-윗판’, ‘으-윗만이’, ‘여벌(ㅎ-허리)’ 4책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 그림은 원본과 전사본의 기록을 비교한 것이다.



[전사본 4책 및 원본 비교]

1945년 발견 당시의 기록을 보면 ‘26,500여장 52책’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번 조사의 수량을 보면 4천여 장이며 전사본을 제외하고는 3,568장으로 발견 당시 수량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57년 사전 발간 이후 상당량의 원고가 폐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52책도 이후 사전 간행 이후 현재와 같이 편의에 의해 제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등록문화재 지정 당시 지정조사보고서에 수량을 26,500여장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이는 오류이다.

○ 소장경위

해당 자료는 해방후 1945년 9월 8일 경성역 조선통운 화물 창고에서 발견되어 이후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에 분산 보관되어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故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 1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참고자료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해제
문화재청(2012). 등록문화재 조사보고서
최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 책과함께



書誌事項

조선말큰사전 원고 / 저자미상. -- 필사본. -- [조선어학회]

1책 ; 27.0 × 19.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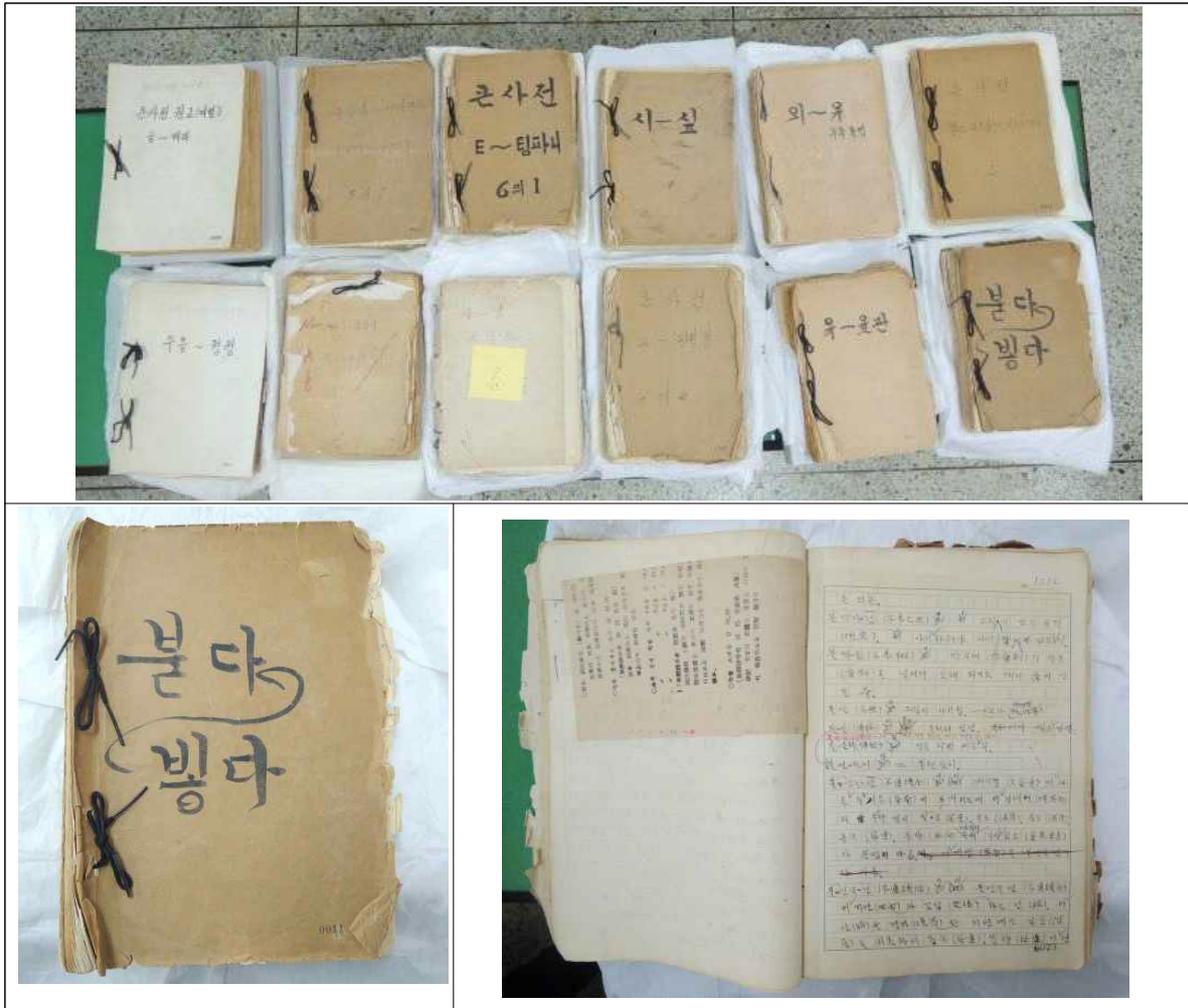
○ 현 상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일제에 압수되었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8일에 경성역 조선통운 화물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재판 증빙자료로 경성고등법원에 보내졌던 것인데, 그때까지 창고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현재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김민수(金敏洙)유족 소유 등 세 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 중 한글학회 소장본과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2008년 11월 3일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제4호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12월 24일에는 등록문화재 제524-1호와 제524-2호로 지정되었다. 표지는 황색으로 된 다양한 지질과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용 철근을 사용하여 제책한 가철본으로 앞표지에는 첫 번째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를 적어 놓았다.

원고는 조선어 학회 전용원고지에 필사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

으며, 본문 전체에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여러 색의 필기구 자국과 함께 별도의 원고지나 부첨지가 붙여진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좋지 않다. 독립기념관본 2책은 보존처리가 완료되었으나 대다수의 원고가 보관 과정에서 접착식 메모지 등이 많이 부착되었고, 그 위에 잉크를 사용한 기록 등 다양한 양상이 혼재된 상태이다. 보관을 위한 안정화 조치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조선말 큰사전』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연구회(朝鮮語研究會)’가 중심이 되어 만들고자 했던 ‘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을 지칭한다. 조선어연구회는 장지영(張志暎, 1887~1976)·김윤경(金允經, 1894~1969)·이윤재(李允宰, 1888~1943)·이극로(李克魯, 1893~1978)·최현배(崔鉉培, 1894~1970)·이병기(李秉岐, 1891~1968) 등을 회원으로 하여 연구발표회와 강연회를 갖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한편, 1927년 2월부터 기관지인 『한글』을 발간했다. 또한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에 착수했

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출판하지 못했다. 1931년 학회 이름을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로 바꾸고,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했다. 이후 1942년 10월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朝鮮語學會事件)>으로 회원 30여 명이 일제에 의해 검거, 투옥되었다. 그리고 해방 후인 1949년 한글학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선어사전’의 편찬을 위하여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조선어사전 편찬위원회’를 두고申明균(申明均, 1889~1941)·이극로·이운재·이중화(李重華, 1881~미상)·최현배(崔鉉培) 등 5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이극로·이운재·한징(韓澄, 1886~1944)·이용기·김선기(金善琪) 등 5명을 편찬원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1936년에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선어학회’에 통합된 뒤에는 전임 집행위원으로 이극로·이운재·정인승(鄭寅承)·한징·이중화 등 5명이 선임되고, 권승욱·권덕규(權惠奎)·정태진(丁泰鎭) 등 3명이 증원되었다. 1945년 9월 8일에는 정인승·이극로·김병제(金炳濟)·이중화·정태진·이강로(李江魯)·신영철 등 7명이 편찬원으로 참가하였고, 1956년 4월부터는 정인승·권승욱·유제한(柳濟漢)·이강로·김민수(金敏洙) 등 5명이 집필을 하고, 한중수·이승화·정재도 등 3명이 교정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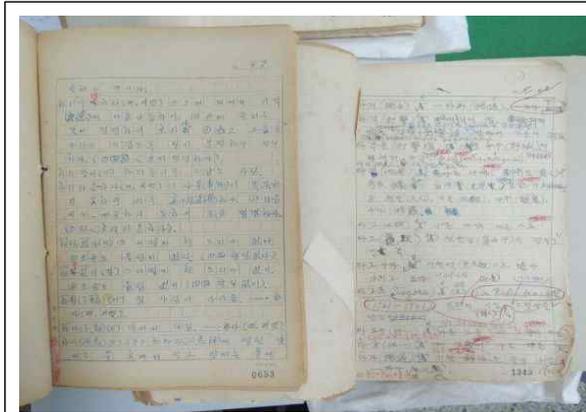
『조선말 큰사전』은 1권과 2권의 책명 만이 ‘조선말 큰사전’이고 지은이도 조선어학회였으나, 조선어학회가 한글학회로 개칭되면서 3권부터 각 권 및 판차가 달라졌다. 지은이도 한글학회로 바뀌고 책명도 『큰사전』이 되었다. 각 권의 발행일은 1권이 1947년 10월 9일, 2권이 1949년 5월 5일, 3권이 1950년 6월 1일, 4권이 1957년 8월 30일, 5권이 1957년 6월 30일, 6권이 1957년 10월 9일이다.

조사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에 해당하는 한글학회 소장본 12책 및 국가등록문화재 제524-2호인 독립기념관 소장본 5책 그리고 미등록된 김민수 유족 소장본 1책이다. 각 책은 일정한 기준을 따라 분책한 것이 아니고, 교정을 끝낸 이후 적당히 모아 가철하였기 때문에 분량이 일정하지가 않다. 우선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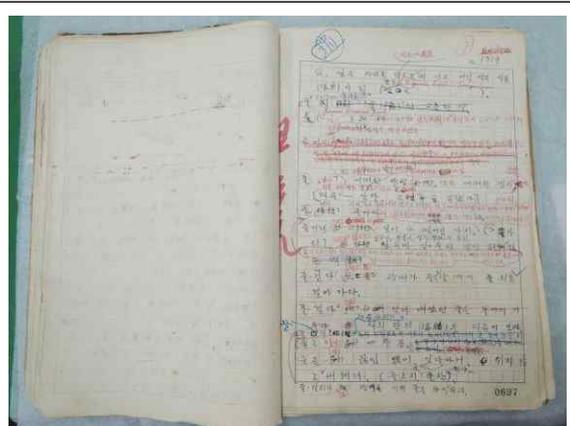
소장처	권수 표시	항목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 표기	장수(표 지포함)	책크 기	비고
한글 학회	1 제3권	1447 -1505	불다 - 빙다	0011 -0313	274장	27.0 x 19.3	제3권 연필표기
	2 제4권	1890 -1961	시 - 싶	1 -315	318장	27.0 x 19.5	51쪽 2장
	3 권수표시 없음	2253 -2269	외 - 우측통행	1095-1 429	188장	28.0 x 20.4	
	4 권수표시 없음	2299 -2339	우측 - 뽕뽕	188 -366	182장	25.6 x 18.8	전사본
	5 권수표시 없음	2339 -2379	유 - 윗판	1699 -2028	160장	26.1 x 18.3	전사본
	6 권수표시 없음	2379 -2412	으 - 윗만이	1 -135	137장	25.9 x 18.4	전사본, 88쪽 누락
	7 제5권	2666 -2712	절용 -제밀	0360 -0639	201장	27.1 x 19.9	

소장처	권수 표시	항목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연번 표기	장수(표 지포함)	책크 기	비고	
	8	제5권 5의 7	2803 -2848, 1273 -1472	주청사 - 찌그르뜨리다	0640 -0882	199장	27.2 x 19.8	
	9	제6권 (6의1)	3125 -3199	ㅌ - 팀파니	1347 -1746	317장	26.8 x 19.5	
	10	제6권 (6의2)	3199 -3298	ㅍ - 핑핑히	1747 -2306	452장	27.0 x 19.1	
	11	제6권	3372 -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증]	241 -393	255장	26.8 x 19.7	
	12	여벌	3298 -3385	ㅎ - 허리(큰사전원고)	0606 -1038	431장	26.7 x 19.0	전사본
독립 기념관	1	5의 1	1 -240	ㅈ -잡제	0011 -0359	249장	27.5 x 19.6	
	2	5의 8	1473의 1 -1667	찌그리지다 -진도바리	0883 -1117	200장	27.5 x 19.8	
	3	5의 11	201 -399	척사윤음 -청찰	1118 -1346	201장	27.3 x 20.1	
	4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 -영다	0704 -1094	334장	27.5 x 19.8	80쪽 2장 236쪽 2장 이면 표기 757,794 889,906 951 보존처리
	5	권수표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0007-0 425	330장	27.4 x 20.1	보존처리
개인 소장	1	범례, ㄱ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上 中下)		51장	26.9 x 19.7		

조사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400자 원고지에다가 항목별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조선어 학회 전용원고지와 일반 원고지의 두 유형이 혼재하고 있다. 권의 표지에는 해당 권에 수록한 표제어가 쓰여 있다. 그리고 본문에는 항목별 기술 내용이외에 해당 사항의 증보를 위한 ‘부첨지(附籤紙)’ 및 기타 교정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도 남아 있으며, 본문 전체에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삭제된 내용 등이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으로 기록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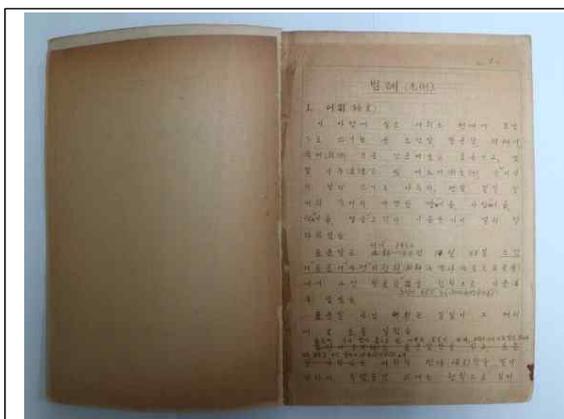


한글학회 전용 원고지 / 일반 원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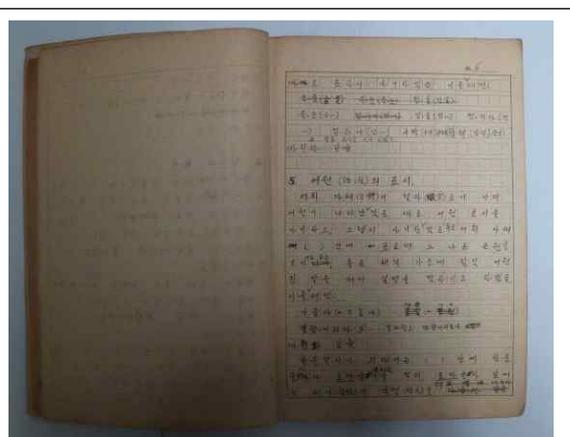


교정 양상

한편 고 김민수 교수의 소장본 권1의 ‘범례’를 통해서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기획했던 사전의 체제, 특징 등을 볼 수 있다. 범례는 ‘어휘, 어휘의 별린 순서, 철자,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문법 형태의 표시, 해석의 방식,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등 9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범례를 통해서 어휘 항목의 선정, 어휘의 용례, 관련어, 옛말 등의 표시 등의 다양한 사전의 기술 방식을 볼 수 있다.



범례 /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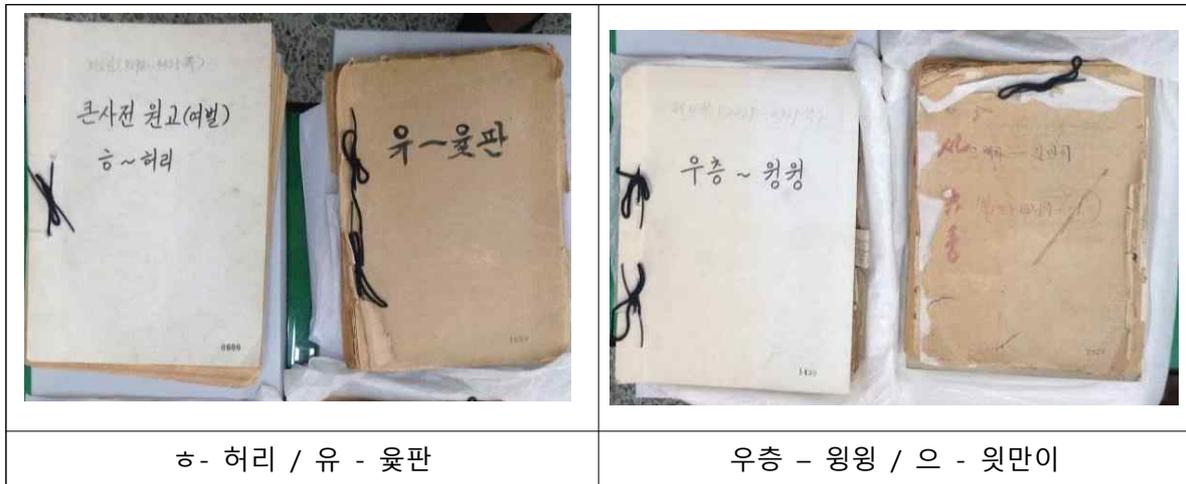
범례 / 어원

한편 조사본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제작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 무렵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 이후에 자료 보관을 위해 ‘여벌’로 작성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 14책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된 뒤로, 1939년 말경에 원고가 마무리되어, 출간을 위해 조선총

독부에 원고가 제출되었고, 1940년 3월에는 원고 일부의 수정을 전제로 검열에 통과하였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원고는 조선총독부에서 사건을 위합 압류용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1940년 이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한글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4책(‘우층-윙윙’, ‘유-윙판’, ‘으-윙만이’, ‘ㅎ-허리’)은 해방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고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여벌’의 원고는 자료 편찬 과정과 변모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원고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사본에 대해서는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에서 “(한글)학회는 난리 통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사전 원고는 무사했다. 9·28 서울 수복 후 학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큰 사전 원고를 한 권 더 베껴놓았고, 1·4후퇴 때 새 원고는 최현배가 부산으로 가져가고, 원본은 유제한이 천안 고향집에 보관하였다.”(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2012)고 이해되고 있다.

○ 문헌자료

최경봉, 『우리말의 탄생』. 서울: 책과함께, 2019.

정재환, “해방 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활동 연구(1945~1957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리의도,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해제.

『등록조사보고서』(조선말 큰사전 원고), 2012.



○ 조성연대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한 큰사전 원고는 이 사전이 1929년부터 편찬 작업을 시작하였고, 1957년에 마지막 권이 간행되었으므로, 1929년부터 1957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것이지만, 실제로 이 긴 시간은 자료 조사로부터 카드 작성을 거쳐 초별로 원고를 쓰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어서 1929년 - 1957년 사이가 원고를 작성한 해는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어사전 작업은 1939년부터 원고 전체의 체계를 잡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3분의 1을 조선총독부에 검열용으로 제출하였으며, 1940년 3월에는 출판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42년 9월에는 대부분의 어휘 카드에 대한 초별풀이를 끝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풀이를 끝낸 어휘가 약 16만개이고 완료되지 않은 것이 약 5천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면 원고 집필은 주로 1939년부터 1942년 9월 사이의 약 3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원고는 1939년-1942년 사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원고는 1942년에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1945년에 다시 찾게 된 것이어서 그 하한선이 1942년임이 틀림없다.

○ 현 상

조선말큰사전 원고는 1929년 조선어사전 편찬회에서 편찬하기 시작한 사업을 1936년 4월 1일에 조선어학회가 넘겨 받아 작업한 원고이다. 이 원고는 일본 경찰이 1942년 소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조선어학회의 임원, 회원, 사전편찬원, 관련 인사등을 구속하거나 입건하여 ‘국사범’으로 함흥 감옥에 투옥시키면서 함께 압수하였던 것이다. 이 원고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후, 1945년 9월 8일 경성역(지금의 서울역) 운송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일본 검찰이 조선어학회의 모든 문서와 함께 증거물로 함흥까지 가져갔던 것으로 회원들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증빙자료로 경성 고등법원으로 이송했던 것인데, 전쟁 말기이어서 그대로 창고에 버려 두었던 것을 찾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된 원고는 다행스럽게도 사전 편찬 원고의 전체였다. 전체가 26,500여장의 원고로 모두 52책으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을 한글학회에서 보관하고 관리해 왔던 것인데, 한글학회 허웅 이사장이 독립기념관에 일부 양도함으로써 현재 이 원고는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다. 한글학회에는 12책이 소장되어 있고 독립기념관에는 5책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1956년에 이 조선어사전 편찬의 마지막 작업에 참여했던 김민수 교수가 한글학회에서 사전편찬 원고 중 일부인 ‘범례’ 부분을 가져 와 검토하고 이용한 후에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조선어사전 편찬을 위해 사용하였

던 원고는 세 곳에 분산되어 소장되게 된 것이다.

<한글학회 소장본>

한글학회 소장본은 모두 12책인데, 400자 원고지에 쓰여 있다. 갈색의 두터운 종이를 표지를 만들어 놓았고 표지에는 원고의 시작되는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가 쓰여 있다. 즉 ‘붙다-뵈다, 시-싶, 외-유, 우층-윙윙’ 등으로 쓰여 있다. 본문은 검은색 펜으로 쓰여 있는데 곳곳에 검은 색 펜과 붉은 색 펜으로 수정한 부분이 보인다. 어느 쪽에는 종이를 오려서 내용을 쓴 후 붙인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 각 책의 원고지 매수는 일정하지 않다. 그 책에 따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순서	책수 표시	항목 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쪽수 (기준)	연번표기	장수 (표지 포함)	책크기	비고
1	제3책	1447-1505	붙다 - 뵈다	303쪽	0011-0313	274장	27.0 x 19.3	제3권 연필표기, 4침
2	책수 표시 없음 제4책 (1890-1961쪽)	1890-1961	시 - 싶	390쪽	1-315	318장	27.0 x 19.5	51쪽 2장
3	책수 표시 없음	2253-2269	외 - 우측통행	372쪽	1095-1429	188장	28.0 x 20.4	
4	책수 표시 없음	2299-2339	우층 - 윙윙	284쪽	188-366	182장	25.6 x 18.8	
5	책수 표시 없음	2339-2379	유 - 윗판		1699-2028	160장	26.1 x 18.3	
6	책수 표시 없음	2379-2412	으 - 윗만이		1-135	137장	25.9 x 18.4	88쪽 누락 / 위넘김
7	제5책	2666-2712	절용-제말		0360-0639	201장	27.1 x 19.9	
8	책수 표시 없음 제5책 5의 7	2803-2848, 1273-1472	주청사 - 찌그러뜨리다		0640-0882	199장	27.2 x 19.8	
9	제6책 (6의1)	3125-3199	ㅌ - 팀파니		1347-1746	317장	26.8 x 19.5	
10	제6책 (6의2)	3199-3298	ㅍ - 핑핑히		1747-2306	452장	27.0 x 19.1	상단 붉은 색펜 449 표기 실제와 차이
11	책수 표시 없음 제6책	3372-3404	핸드-오르간 - 현훈증[쯔]	180쪽	241-393	255장	26.8 x 19.7	
12	여벌	3298-3385	ㅎ - 허리(큰사)	433쪽	0606-1038	431장	26.7 x 19.0	

순서	책수 표시	항목 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쪽수 (기존)	연번호기	장수 (표지 포함)	체크기	비고
			전원고 (여벌))					

이 중에서 12 부분은 ‘여벌’이라는 표시까지 한 것이어서 해당 원고를 다시 필사하여 복제한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벌’이라고 해서 이 자료의 가치가 손상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여벌’이라고 해도 원본이 남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원본은 보이지 않고 이것들만 보이기 때문이다.

<독립기념관 소장본>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모두 5책인데, 한글학회 소장본과 동일하게 400자 원고지에 쓰여 있다. 거의 대부분이 한글학회 소장본과 그 형태가 동일하다. 단지 내용만 다를 뿐이다.

그 책에 따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책수 표시	항목 표시 부분	표제어 내용	쪽수 (기존)	연번호기	장수 (표지 포함)	체크기	비고
1	5의 1	1-240	ㅈ-잡제	347쪽	0011-0359	249장	27.5 x 19.6	
2	5의 8	1 4 7 3 의 1-1667	찌그러지다-진도바리	235쪽	0883-1117	200장	27.5 x 19.8	
3	5의 11	201-399	척사윤음-청찰	228쪽	1118-1346	201장	27.3 x 20.1	
4	책수 표시 없음	표시 없음	여-열다	391쪽	0704-1094	334장	27.5 x 19.8	80쪽 2장, 236쪽 2장, 이면 표기 757, 794, 889, 906, 951
5	책수 표시 없음	표시 없음	ㅎ -핸드백	418쪽	0007-0425	330장	27.4 x 20.1	

<故 김민수 교수 소장본>

고 김민수 교수 소장본은 백지의 표지에 ‘昭和十七年 一部組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大辭典」 (上中下) 범례(凡例) 1-22 ㄱ . . . 2, 5-6, 8-33’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는 400자 원고지에 ‘朝鮮語大辭典 (조선말 큰사전) 원고 ※ 昭和十七(1942)年 上卷 組版原稿 一部’라고 쓰여 있다. 다음 장에는 ‘범례(凡例)’라고 하고, 그 뒤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1. 어휘(語彙)
2. 어휘 별린 순서
3. 철자
4. 발음의 표시
5. 어원(語源)의 표시
6. 문법 형태(形態)의 표시
7. 해석의 방식

그리고 이 뒤에 ‘전문어 표시의 부호’와 ‘외래어 표시의 부호’가 있고 이어서 ‘가거지지(可居之地)’로부터 ‘감각론(感覺論)’까지의 사전편찬 원고가 있다.

범례가 1-22장, 그리고 ㄱ 부분은 5쪽에서부터 30쪽까지, 그리고 다시 1-2쪽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범례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 내용을 1. 어휘 부분만 보도록 한다. 특히 이 원고에서 수정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다.

1. 어휘

이 사전에 실은 어휘는 현대에 표준으로 쓰이는 순 조선말, 한문말, 외래어, 속어(熟語), 각종 전문어들은 물론이요, 옛말, 이두(吏讀)말, 옛 제도어(制度語), 각 지방의 널리 쓰이는 사투리, 변말, 결말, 및 내외 각지의 유명한 땅 이름, 사람 이름, 책 이름, 명승 고적의 이름들까지 널리 망라하였음.

표준말은 서기 1936년 10월 28일 조선어 표준어 사정 위원회(朝鮮語標準語査定委員會)에서 사정 발표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朝鮮語標準語集)을 원칙으로 기준(基準) 삼았음.

표준말 아닌 어휘는 일일이 그 머리에 ㄹ 표를 질렀음

표준어 아닌 말에 ㅎ으로 된 어휘는 일일이 ㅅ되, 그것이 다시 다른 말과 겹쳐서 도로 표준말 아닌 합성어(合成語)가 되는 것은 어휘수의 번다(煩多)함을 덜기 위하여 특별한 것 외에는 원칙으로 ㅅ지 아니하였음. 이를테면:

개고리(=개구리), 다리다(=당기다)

등은 ㅅ되,

개고리밥(=개구리밥), 개고리참외(=개구리참외), 잡아다리다(=잡아당기다), 굶어다리다(=굶어당기다)

따위는 다 ㅅ지 아니하였음.

고유명사(固有名詞)는 밑줄을 그어 표하였음.

이것은 출판된 사전의 범례와 거의 같다. 단지 이것에 각각 1, 2, 3, 4, 5, 6처럼 번호를 붙였을 뿐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한 부분이 더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새 생활 각 부문에 관한 새말(新語), 새 술어(新術語)들은 그 제정 또는 실용의 상황을 따라, 이를 전부 한데 모아, 끝 책에 붙이기로 하였음

이 부분은 출판에 임해서 보충해 넣은 부분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원고는 인쇄 단계로 넘어간 원고가 아니라 최종 원고의 바로 직전의 원고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앞 부분에 ‘組版原稿 一部’라고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원고는 범례 22장, 그리고 ㄱ의 일부 29장으로 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1. 조선말 사전 편찬의 시작

조선말 큰사전은 1929년 10월 31일 한글날 기념식을 마친 후 각 방면의 유명 인사들이 서울 수표정에 있는 조선교육협회에서 모여 조선어사전편찬회 발기회를 조직함으로써 그 편찬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29년 11월 2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에서 알 수 있다. 그 기사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사 제목 : 社會 各界 有志 網羅 朝鮮語辭典 編纂會 (한글 창제 사백팔십년 기념 일에 뜻깊은 우리말사던 편찬회를 창립)

한글은 세종대왕(世宗大王)께서 창제하사 벌써 사백팔십삼년이나 지내게 되매 저간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정리가 일층 더 한글의 참된 가치를 발휘하게 되어 참으로 세계적으로 자랑거리가 되어 잇스나 아즉도 그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한 통일에 들어가지 못할뿐 아니라 말에 잇서서도 역시 학리덕(學理的) 정리와 전국덕 통일이 없어서 일반은 항상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어찌한든지 속히 완전한 조선어사던(朝鮮語辭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얼마 전 사회 각 방면의 인사를 망라한 유진태(兪鎭泰)씨 등 일백팔명의발기로 조선어사던편찬회발기회(朝鮮語辭典編纂會發起會)를 조직하여 한글 기념일인 지난 삼십일일 오후 일곱시 시내 조선교육협회 안에서 한글 기념식을 마치 뒤에 즉시 발기회 총회를 열고 여러 가지로 토의한 결과 결국 조선어사던편찬회를 창립하였는데 발기인은 알에와 갓다더라

兪鎭泰 李昇薰 尹致昊 李鍾麟 南宮薰 崔麟 許憲 宋鎭禹 申錫雨 安熙濟

朴勝彬 兪億兼 金活蘭 李容高 金仁泳 蔡弼近 金法麟 白麟濟 崔奎東 趙東植
 鄭大鉉 李潤柱 崔斗善 金麗植 金美理士 白南薰 張膺震 金東雲 安在鴻 李萬珪
 金昶濟 李世楨 朴熙道 安在鴻 李相協 閔泰瑗 朱耀翰 韓基岳 李時穆 洪命熹
 鄭寅普 李灌鎔 李敦化 黃尙奎 曹晚植 金起進 趙基栻 丁七星 兪珪卿 鄭仁果
 金昌俊 金禹鉉 朴漢永 金科奉 權惠奎 崔鉉培 申明均 李常春 金允經 張志暎
 李奎昉 李秉岐 鄭烈模 李允宰 洪起文 李鐸 姜邁 金智煥 車相瓚 李晟煥
 方定煥 權相老 朴淵瑞 柳滢基 全弼淳 金永鎭 白樂濬 李順鐸 白南奎 安一英
 尹治衡 李光洙 梁柱東 廉想涉 卞榮魯 玄鎭健 李益相 李殷相 崔象德 田榮澤
 池錫永 林圭 沈友燮 李祐植 閔大植 金季洙 張斗鉉 金性洙 張鉉軾 洪淳泌
 魯基禎 白寬洙 金秉圭 尹炳浩 李滢宰 李重乾 李克魯

委員選舉後 規約 等 通過

별항 = 조선어사년편찬회가 창립됨에 싹하 즉석에서 규약(規約) 수개 도를 통과하고 계속하여 위원 선거와 부서를 작당하였다는데 씨명은 알에와 갓다더라

委員 = 安在鴻 朱耀翰 李時穆 鄭寅普 權惠奎 崔鉉培 張志暎 李常春 李秉岐 鄭烈模 兪億兼 朴勝彬 崔斗善 李光洙 方定煥 金法麟 魯基禎 李重乾 申明均 李允宰 李克魯

部署 = 委員長 李克魯 常務 李重乾(經理) 李克魯(編輯) 崔鉉培(研究) 申明均(調查) 鄭寅普(教養) 李允宰(出版)

<동아일보 1929년 11월 2일>

이 기사에 의하면 조선어사건 편찬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발기일 : 1929년 10월 31일
- ② 발기 장소 : 수표정 조선교육협회 사무실
- ③ 발기인 : 유진태를 비롯한 108인(기사에는 발기인이 108명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107명이어서 한 사람이 빠져 있다)
- ④ 위원 : 안재홍 등 21명
- ⑤ 위원장 : 이극로
- ⑥ 부서 : 경리, 편집, 연구, 조사, 교양, 출판

2. 조선어사건 편찬과정

편찬사무소는 京城 水標町에 있는 朝鮮教育協會 내에 두었는데 이 사무소는 후에 花洞 一二九번지로 옮겼다. 1930년 1월 6일부터 편찬사무를 개시하고 이극로, 김

선기, 한징, 이용기, 이윤재가 분담 집필하였다.

1931년 1월 6일에는 조선어사전편찬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1년 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규약을 수정한 후 이 새 규약에 따라 위원 13명을 증원하고 조선어사전편찬회 회장으로 이우식을 선출하게 된다.

- 회장 : 이우식
- 증원된 위원 : 김병규, 김상호, 김윤경, 김철두, 명도석, 백낙준, 윤병호, 이만규, 이순덕, 이우식, 이형재, 이희승
- 간사 : 이극로(간사장) 이중건 신명균 최현배 이윤재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어사전을 편찬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바로 한글맞춤법과 외래어표기법, 어법 및 표준어 등을 통일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편찬 작업은 약간 뒤로 미루고 이 작업을 하게 되어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사전 편찬 업무도 한글학회로 이관하게 된다.

본격적인 편찬사업을 하게 된 시기는 조선어학회가 편찬 사업을 전적으로 넘겨 받은 1936년 4월 1일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1937년 6월에는 편찬 전임 집필위원을 보충하기까지 하게 된다.

이 사건의 편찬을 위하여 조선어사전편찬회는 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를 두고 신명균(申明均)·이극로(李克魯)·이윤재(李允宰)·이중화(李重華)·최현배(崔鉉培) 등 5명을 집행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극로·이윤재·한징(韓澄)·이용기·김선기(金善琪) 등 5명을 편찬원으로 선정하였다.

1936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선어학회에 통합된 뒤, 전임 집필위원으로 이극로·이윤재·정인승(鄭寅承)·한징·이중화 등 5명이 선임되고, 권승욱·권덕규(權惠奎)·정태진(丁泰鎭) 등 3명이 증원되었다.

1945년 9월 8일 정인승·이극로·김병제(金炳濟)·이중화·정태진·이강로(李江魯)·신영철 등 7명이 편찬원으로 참가하였고, 1956년 4월부터는 정인승·권승욱·유제한(柳濟漢)·이강로·김민수(金敏洙) 등 5명이 집필을 하고, 한중수·이승화·정재도 등 3명이 교정을 맡았다.

어휘 수집은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 만든 약간의 어휘 카드, 약 7만 어휘를 간략히 주석한 이상춘(李常春)의 기증원고,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선어사전》(1920), 게일(Gale, J.S.)의 《한영사전》(1897) 및 당시의 간행물에 의존하였으며, 사투리는 《한글》 독자와 방학 동안 귀향하는 학생들에 의하여 수집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을 주도하였던 학자들이 검거되었다. 함경도 함흥재판소는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은 민족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최종판결하여 11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윤재와 한징은 심한 고문으로 옥사하기도 했다.

3. 조선말 큰사전의 간행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947년 한글날을 기하여 조선말큰사전 첫째권을 간행하게 된다.

물론 이 사전의 간행은 이 원고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947년에 1권과 2권은 『조선말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고 3권부터 『큰사전』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학회의 이름이 조선어학회에서 한글학회로 바뀐 것이 그 이유다. 연활자본의 B5판으로 6권으로 간행되었는데 본문은 3,672면, 기타 132면, 총 3,804면으로 을유문화사에서 간행하였다. 순우리말·한자말·외래어·관용어·사투리·은어(변말)·결말을 비롯하여 고유명사·전문어·제도어·고어(옛말)·이두 등 총 16만 4125 어휘를 수집하여 국어로 뜻풀이하였다.

이 사전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조직되어 작업에 들어간 지 28년 만인 1957년 10월 9일 완간되었다.

4. 조선말 큰사전의 원고

조선어학회 사전 증거물로 일제에 압수당했던 원고 2만 6500여장의 52책이었고 이것이 1945년 9월에 서울역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남아 있는 조선말큰사전 원고이다. 현재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 고 김민수 교수가 소장하고 있는 원고는 모두 18책이어서 나머지 34책의 행방은 알 수 없다. 그 일실(逸失)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안타까울 뿐이다.

5.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성격

조선말사전의 원고와 출판된 조선말큰사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고에 쓰인 내용과 출판된 사전을 비교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원고가 초고인지, 출판된 원고인지, 아니면 어느 단계의 원고인지를 알아 보려면 이 원고들과 출판된 사전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전수작업은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책마다 주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임의적으로 2개씩만 선택하여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한글학회 소장본>

(1) 분다 -빙다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분다	제 ㄷ벗. 물건이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수효가 늘어 가다.	[제. ㄷ벗] 물건이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수효가 늘어가다.	동일
불	(이) ① 물질(物質)이 산소(酸素)와 화합하여 열(熱)이 일어나며 환한 빛과 한가지로 타는 현상(現狀). ② 뜨겁게 달거나 타서 빨갱게 된 물체 ③ 쇠와 돌이 몹시 부딪거나 또는 나무끼리 세게 문질러질 때에 일어나는 광과 열 ④ 전기(電氣)의 빛. ⑤ 열정(熱情)이나 탐욕(貪慾)이 타다싶이 하여 치미는 현상 (옛말 : 불) 불에 탄 개 가죽 (마디) 잎이 늘어 가지는 점점 조기라 들기만 함을 가리키는 말. 불에 놀란 놈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 (마디) 몹시 혼이 난 일은 그외 비슷한 것만 보아도 겁을 낸다는 말.	(이) ① 물질(物質)이 산소(酸素)와 화합하여 열(熱)이 일어나며 환한 빛과 한가지로 타는 현상(現狀). ② 뜨겁게 달거나 타서 빨갱게 된 물체 ③ 쇠와 돌이 몹시 부딪거나 또는 나무끼리 세게 문질러질 때에 일어나는 광과 열 ④ 전기(電氣)의 빛. ⑤ 열정(熱情)이나 탐욕(貪慾)이 타다시피 하여 치미는 현상 (옛말 : 불) 불에 탄 개 가죽 (마디) 잎이 늘어 가지는 점점 조기라 들기만 함을 가리키는 말. 불에 놀란 놈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 (마디) 몹시 혼이 난 사람은 그에 비슷한 것만 보아도 겁을 낸다는 말.	‘타다싶이’를 ‘타다시피’로 바꿈 ‘몹시 혼이 난 일은그외’를 ‘무엇에 몹시 혼이 난 사람은그에’로 수정

(2) 시-쉴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시(市)	(이)([법]) 시가지(市街地)를 중심으로한 자치 단체(自治團體)	(이)([법]) 시가지(市街地)를 중심으로한 자치 단체(自治團體)	동일
시(詩)	(이) (문) 자연(自然)과 인생(人生)에 대한 감흥(感興) 상상(想像) 따위를 아름다운 형식으로 표현한 글. 서사시(敍事詩) 서정시(敍情詩) 극시(劇詩)○너 세 가지로 나눔	(이) (문) 자연(自然)과 인생(人生)에 대한 감흥(感興) 상상(想像) 따위를 아름다운 형식으로 표현한 글. 서사시(敍事詩) 서정시(敍情詩) 극시(劇詩)○너 세 가지로 나눔	동일

(3) 외-우측통행

울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외1	(이) 한글의 홀소리 글자 ‘니’의 이름.	(이) 한글의 홀소리 글자 ‘니’의 이름.	동일
외(椶)	(이)(건) 벽을 치려고 댓가지나 수숫대나 싸리나 잡목(雜木) 따위를 종횡(縱橫)으로 엮은 것. 이것에 흙을 붙여 바르면 벽이 됨.	(이)(건) 벽을 치려고 댓가지나 수숫대나 싸리나 잡목(雜木) 따위를 종횡(縱橫)으로 엮은 것. 이것에 흙을 붙여 바르면 벽이 됨.	‘잡목’의 오자를 ‘잡목’으로 바로 잡음

(4) 우층 -잉잉

울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우치(疣痔)	(이) ((의)) 피가 나오는 치질. (혈치=血痔)	(이) ((의)) 피가 나오는 치질. (혈치=血痔)	동일
우케	짚기 위하여 말리는 벼	짚기 위하여 말리는 벼	동일

(5) 유-웃관

울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유(類)1	(이) ① =무리 ②“종류(種類)”의 준말	유(類) (이) ① =무리1 ②“종류(種類)”의 준말. ③ ((생)) 생물 분류상(分類上)의 단위. 강(綱)의 아래요, 과(科)의 위	원고의 유(類)1과 유(類)2를 하나로 통합하고 풀이를 달리함
유(類)2	『발』 종류의 뜻을 나타내는 말. [곤충-=昆蟲類. 경골-=硬骨類]		

(6) 의 - 잇만이

울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으그러뜨리다	(남) 물건의 거죽을 으끄러지게 하다.(으그러떠리다. 으르러터리다, 어그러트리다. 으을어떠리다 (“으끄러뜨리다”의 센말)	남) 물건의 거죽을 으끄러지게 하다.(으그러떠리다. 으르러터리다, 어그러트리다. 으을어떠리다 (“으끄러뜨리다”의 센말)	동일
으그르르	(옛) 먹은 음식이나 마신 물 따위가 목구멍으로 꿇어 오르는 소리	(옛) 먹은 음식이나 마신 물 따위가 목구멍으로 꿇어 오르는 소리	동일

(7) 절용 -제밧

울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절용(節用)	(이) 아끼어서 씹. 씹씀이를 적게 들임. -=하다 (남, 여벗)	(이) 아끼어서 씹. 씹씀이를 적게 들임. -=하다 (남, 여벗)	동일
절음	(이) 마소의 다리를 저는 병	(이) 마소의 다리를 저는 병	동일

(8) 주청사 -찌그러뜨리다

(생략)

(9) ㅌ - 팀파니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ㅌ [티 을]	① 한글 자모(字母)의 열 두째 글자. ②(어학) 닿소리의 하나.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혀끝을 윗잇몸에 대어 입길을 막았다가 목청을 갈아 숨을 불어 내면서 혀끝의 막음을 터뜨리 어 내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치 는 경우는 혀끝을 떼지 아니하여 “ㄷ”과 같게 됨	① 한글 자모(字母)의 열 두째 글자. ②(어학) 닿소리의 하나. 목젓으로 콧 길을 막고 혀끝을 윗잇몸에 대어 입 길을 막았다가 목청을 갈아 숨을 불 어 내면서 혀끝의 막음을 터뜨리어 내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치는 경 우는 혀끝을 떼지 아니하여 “ㄷ”과 같게 됨	동일
타개(打 開)	(이) 얼크러지거나 박힌 일을 잘 처리 하여 나갈 길을 엮. -하다 ‘남, 여벗’	(이) 얼크러지거나 박힌 일을 잘 처리 하여 나갈 길을 엮. -하다 ‘남, 여벗’	동일

(10) ㅍ - 핑핑히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ㅍ [피 음]	① 한글 자모(字母)의 열 세째 글자. ②(어학) 닿소리의 하나. 목젓으로 콧길을 막고 두 입술로 입길을 막막 았다가 목청을 갈아 숨을 불어 내면 서 입술의 막음을 터뜨리어 내는 맑 은 소리. 받침으로 그칠 때는 입술 을 떼지 아니하여 ㅂ과 같게 됨	① 한글 자모(字母)의 열 세째 글자. ②(어학) 닿소리의 하나. 목젓으로 콧 길을 막고 두 입술로 입길을 막막았 다가 목청을 갈아 숨을 불어 내면서 입술의 막음을 터뜨리어 내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칠 때는 입술을 떼 지 아니하여 ㅂ과 같게 됨	동일
파가(罷 家)	(이) 살림살이를 작파함. -하다 ‘제, 여벗’	(이) 살림살이를 작파함. -하다 ‘제, 여벗’	동일

(11) 핸드 오르간 - 현훈증

울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핸들(영 handle)	(이) ① 손잡이 ② 손으로 쥐고 기계를 부리는 자루.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장치 따위	(이) ① 손잡이 ② 손으로 쥐고 기계를 부리는 자루.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장치 따위	동일
핸들링(영 hand ling)	(이)(체) 축구 경기에서 공을 차는 가운데 손을 공에 대는 일. 축구의 문지기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하는 이외에는 그것이 규칙 위반이 됨.	(이)(체) 축구 경기에서 공을 차는 가운데 손을 공에 대는 일. 축구의 문지기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하는 이외에는 그것이 규칙 위반이 됨. (준말 : 핸드 =hand)	‘규칙’을 ‘규칙’으로 바꾸고, (준말 : 핸드 =hand)이 첨가됨

(12) 흥 -허리

울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흥(쌍허 흥)	((옛)) 허뿌리가 목젓의 앞쪽에 거의 닿을 듯할 때에 내쉬는 숨으로 그 자리를 갈아 내는 소리, 곧 “ㄱ” 소리의 자리를 마찰함. [씨(訓①:預 21). 흥(訓;例흥/7]	((옛)) 허뿌리로 목젓의 앞쪽을 거의 마주 대면서 내쉬는 숨으로 그 자리를 갈아 내는 소리, 곧 “ㄱ” 소리 나는 자리를 약간 터놓고 세계 마찰함.	동일
흥 건대 [컨-)	[준} “하건대”의 준말		‘흥 건대’ 항목은 삭제됨.

<독립기념관 소장본>

(1) ㅈ - 잡제

울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ㅈ (지웃)	① 한글 자모(字母)의 아홉째 글자. ② (어학) 닿소리의 하나.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터뜨릴 때에 나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치는 경우는 혀를 입천장에 붙이기만 함.	① 한글 자모(字母)의 아홉째 글자. ② (어학) 닿소리의 하나.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터뜨릴 때에 나는 맑은 소리. 받침으로 그치는 경우는 혀를 입천장에 붙이기만 함.	동일
자1	(이) 길이를 재는 제구. 분(分)과 촌(寸), 또는 센티메트르(cm) 밀리메트르(mm) 따위의 눈을 새겨서 가늠하게 되었는데,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음.	(이) 길이를 재는 제구. 분(分)과 촌(寸), 또는 센티메트르(cm) 밀리메트르(mm) 따위의 눈을 새겨서 가늠하게 되었는데,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음.	원고의 자1에 있던 부분을 자2로

	자에도 모자랄 적이 있고 치에도 너 너할 적이 있다. [마디] 경우에 따 라 많아도 모자를 적이 있고 적어도 남을 적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		
자2	[절이] 우리나라 재래의 길이의 단 위. ‘치’의 열 갑절. 1메트로(metre) 의 33분지 10. (척=尺)	[절이] 우리나라 재래의 길이 단위의 한 가지. ‘치’의 열 갑절. 1메트로 (metre)의 33분지 10. (척=尺) 자에도 모자랄 적이 있고 치에도 너 너할 적이 있다. [마디] 경우에 따라 많아도 모자랄 적이 있고 적어도 남 을 적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	옹 겨 농 음

(2) 씨그러지다 - 진도바리

<생략>

(3) 척사운음 - 정찰

울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침늬(兪 尉)	(이)(고제) 의빈부(儀賓府)의 정· 종삼품(正從三品)의 한 벼슬. 현주 (縣主)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시켰음.	(이)(고제) 의빈부(儀賓府)의 정· 종 삼품(正從三品)의 한 벼슬. 현주(縣 主)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시켰음.	동일
침의(兪 意)	(이) 여러 사람의 의견.	(이) 여러 사람의 의견.	동일

(4) 여- 열다

울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여(如)	(이)(불교) 모든 법(法)이 항상 있어 서 변하지 아니하는 실상(實狀). 참 고: 진여=眞如	(이) 모든 법(法)이 항상 있어서 변하 지 아니하는 실상(實狀). 참고: 진여= 眞如	동일
여각(餘 角)	(이) (수) 합치면 한 직각(直角)이 되는 두 각(角)의 한 쪽을, 다른 쪽 에 대하여 이르는 말.	(이) (수) 합치면 한 직각(直角)이 되 는 두 각(角)의 한 쪽을, 다른 쪽에 대하여 이르는 말.	동일

(5) 흥- 핸드백

올림말	원고	간행된 조선말큰사전	비고
ㅎ(쌍히 응)	(옛) 혀뿌리로 목젖의 앞쪽을 거의 마주 대면서 내쉬는 숨으로 그 자리를 세계 갈아 내는 소라. 곧 ‘ㄱ’소리 나는 자리를 약간 더 놓고 세계 마찰함. [ㅎ爲引(訓例 21) : ㅎ終而爲ㅎ之類(訓例 17)]	(옛) 혀뿌리로 목젖의 앞쪽을 거의 마주 대면서 내쉬는 숨으로 그 자리를 세계 갈아 내는 소라. 곧 ‘ㄱ’소리 나는 자리를 약간 더 놓고 세계 마찰함. [ㅎ爲引(訓例 21) : ㅎ終而爲ㅎ之類(訓例 17)]	동일
하	(토) (옛) 시여. 이시여. [님금하 아 르쇼셔 =(龍:10:52) 稀有ᄃ신 世尊 하(金剛上.7)]	(토) (옛) 시여. 이시여. [님금하 아 르쇼셔 =(龍:10:52) 稀有ᄃ신 世尊하 (金剛上.7)]	동일

이러한 비교를 통해 몇 가지 발견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원고로 남아 있는 자료는 대부분 사전을 간행할 때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② 최종적으로 출판할 때에 수정한 부분이 꽤나 있다. 그래서 이 원고의 모두가 출판된 조선말큰사전 내용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수정할 때에는 교정지 상태에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편찬 원고를 수정하여 다시 인쇄소에 보낸 것은 아니다.
- ③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사전 편찬 원고는 조선말큰사전 편찬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 문헌자료

이극로(1936), 조선어사전 편찬에 대하여, 한글 1권 1호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이운재(1936), 조선어사전 편찬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글 4권 2호.

조선어학회(1947-1957), 조선말큰사전, 乙酉文化社.

조재수(1996), 한글학회와 사전편찬, 한힌샘 주시경연구 9.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

○ 조성연대 : 1940-1942년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사전편찬사업이 시작되었고, 1939년 말경에 기초적인 사전편찬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학회에서는 기관지([한글]7-4, 1939.4.)를 통해 1939년 이내로 사전 편찬을 끝낼 것임을 예고했고, 1939년 말부터 출판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갔다.

1939년 여름에 원고의 체계 잡기에 돌입한 후 원고의 3분의 1을 조선총독부에 제출하였고, 1940년 3월에 원고 수정을 조건으로 검열을 통과하였다. 초벌 풀이와 원고의 체계 잡기가 완성 단계에 이른 1942년 여름에 200여 면의 조판 교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원고는 1940-1942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 상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400자 원고지를 검은 끈으로 묶은 책자 형태로 되어 있다. 각 권마다 앞뒤로 표지가 있고 앞 표지에 해당 권에 수록한 첫 번째 표제어와 마지막 표제어를 써놓았다. 원고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으로 수정 사항을 기록한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는 해방 후 출판을 위한 수정 작업 중 첨삭한 내용들이다. 수정 내용이 많은 경우 부전지를 덧붙이거나 별도의 원고지에 기록해 끼워 넣기도 하였다.

현재 한글학회 소장본 12권과 독립기념관 소장본 5권, 도합 17권의 원고가 국가등록문화재 제524-1호와 524-2호로 지정되어 있고, 고 김민수 교수 유족의 소장본 1권(범례 22장, ㄱ 일부 29장)의 원고는 미등록 상태이다.

이중 한글학회 소장본 4권(‘우층-윙윙’, ‘유-윙판’, ‘으-윙만이’, ‘ㅎ-허리’)은 해방 이후 해당 원고를 다시 필사한 복제본이다. 따라서 1940-1942년 사이에 조성된 원고로 확인된 것은 한글학회 소장 8권과 독립기념관 소장 5권 그리고 고 김민수 교수 소장 1권이다.

○ 내용 및 특징

1. 원고의 전모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3권 혹은 4권 규모로 출간할 예정([한글]10-1, 1942.1.)이었던 ‘朝鮮語大辭典’의 원고로 1940-1942년 사이에 조성된 것이다. 이 원고는 1942년 10월에 일어난 조선어학회 사건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에 압수되었다가 해방 후 서울역 창고에서 되찾아 국어사전 편찬사업이 이어질 수 있었다.

“이 사전 원고는 조선어학회 사건의 증거물로 홍원에 가져갔던 것을 이른바 피고들이 고등법원에 상고하게 되므로 증거물만이 먼저 서울로 발송되었던 것인데 작년 9월 초순에 경성역 창고에서 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원고를 쉽사리 찾게 될 때 20여 년의 적공(積功)이 헛되어 돌아가지 않음은 신명(神明)의 도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원고 상자의 뚜껑을 여는 이의 손을 떨리었다. 원고를 손에 드는 이의 눈에는 눈물이 어리었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부터…….”

- 김병제, <조선어사전 편찬경과>, 《자유신문》, 1946년 10월 9일자.

서울역 창고에서 되찾은 원고는 사전 원고의 전량으로 원고지 26,500여 장이 52권으로 묶여 있었다. 당시 원고에는 16만여 어휘가 풀이되어 있었고, 5천여 어휘는 뜻풀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에는 올림말과 문법정보 등만 있고 뜻풀이가 공란인 경우가 40여 군데 남아 있는데, 이는 원고 조성 당시 뜻풀이가 완료되지 않은 5천여 어휘 중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어학회에서는 이 원고를 바탕으로 출판을 위한 수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1947년 1권, 1949년 2권, 1950년 3권, 1957년에는 나머지 4-6권을 포함하여 1-6권 전질을 출간하였다. 1권과 2권은 조선어학회의 [조선말 큰사전]으로, 3-6권은 한글학회의 [큰 사전]으로 출간되었고, 1957년 이후 1-6권의 제목이 [큰 사전]으로 통일되었다.

서울역 창고에서 회수한 원고가 52권 26,500여 장의 분량인데, 이중 현재 남아 있는 원고는 한글학회와 독립기념관에서 보관 중인 13권(복제본 4권 제외)과 고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 51장을 포함해 총 3,568장이다. 이를 보면 현재 13권으로 묶인 원고는 기존에 묶인 52권을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한 것이 아니라 편찬 과정의 필요에 의해 다시 묶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1947년과 1949년에 간행된 <큰 사전> 1, 2권에 해당하는 원고는 ‘범례’와 ‘ㄱ 일부’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지 않고, 1950년에 간행된 3권에 해당하는 원고는 ‘분다 - 뵈다’(3권의 10%에 미치지 못하는 분량)를 제외하고는 남아 있지 않다. 1957년에 간행된 4-6권에 해당하는 원고는 앞서 간행된 1-3권의 원고에 비해 많이 남아 있지만 이 또한 해당 권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다. 이를 보면 사전이 출간된 후 원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원고가 유실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복제 원고(4권)의 특징

복제본은 한글학회 소장본 4권(‘우층-윙윙’, ‘유-윙판’, ‘으-윙만이’, ‘ㅎ-허리’)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고를 해방 이후 다시 필사한 것이다. 이 중 세 권(‘우층-윙윙’, ‘유-윙판’, ‘으-윙만이’)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고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복제 원고를 만든 후 여기에 수정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한 권(‘ㅎ-허리’)은 수정 작업이 완료된 후 여별로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격적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제한 세 권의 원고(‘우층-윙윙’, ‘유-윙판’, ‘으-윙만이’)도 기존 원고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해방 후에 정해진 기본적인 수정 원칙을 반영하여 필사한 것이어서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원고와는 차이가 있다. 해방 후 제시된 기본적인 수정 원칙으로 두드러진 것은 ‘名, 動, 形, 副...’ 등과 같이 한자로 된 문법 형태 표시를 ‘이, 읊, 어, 엇...’ 등의 고유어로 바꾼 것이나 1946년

개정된 맞춤법에 따라 표기를 바꾼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보면 복제 원고 4권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와 1957년 완간된 [큰 사전]을 잇는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지만, 자료의 성격은 1940-1942년에 조성된 원고와 달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 그 의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복제 원고 4권을 지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3.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내용상 주요 특징

3-1. 범례의 특징

원고 작성 시 설계했던 사전의 체제와 기술 원칙에 대한 것은 범례를 통해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범례’에 해당하는 원고는 총 22장인데, 설명 항목을 ‘어휘, 어휘의 별린 순서, 철자,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문법 형태의 표시, 해석의 방식,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등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사전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어휘’와 ‘해석의 방식’ 부분이다. ‘어휘’ 항목에서는 올림말 선정의 원칙과 범위를 상세하게 밝히면서 올림말 내에서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처리 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석의 방식’ 부분에서는 뜻풀이의 일반 원칙뿐만 아니라 용례, 관련어, 옛말 등의 표시와 관련한 원칙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처럼 ‘범례’를 통해 사전의 구조와 기술 방식을 상세히 보여주는 것은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이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 담을 어휘 정보가 이전 사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본의 범례와 출판본의 범례에는 몇 가지 차이가 보인다. 눈에 띄는 것으로는 원고에서 연호 ‘소화(昭和)’를 ‘서기’로 바꾸었다가 출판 시에는 이를 ‘단기’로 바꾼 점이다.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항목 명칭의 변화로는 원고의 ‘철자’가 출판 시 ‘맞춤법’으로 바뀐 것을 들 수 있고, 설명에서의 변화로는 ‘철자’, ‘발음’, ‘어원’ 등을 설명할 때 든 어휘의 예들이 일부 교체된 것을 들 수 있다.

3-2. 본문의 특징

사전의 체제 및 기술 원칙과 관련한 내용은 ‘범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원고 본문에 대한 특징만을 설명한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에 한정하여 볼 때, 이 원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원고의 내용과 해방 후 수정한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는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 기 타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본은 한글학회 [큰 사전]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던 고 김민수 교수가 사전편찬이 완료된 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김민수 교수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사전 출간이 완료된 후 학회에서 원고를 특별히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출간 전후의 변모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고자 ‘범례’ 22장과 ㄱ 부분 30여 장을 보관하였다고 한다.

□

○ 조성연대

현재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고 김민수 교수 유가족 세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글학회 소장본은 전체 12권,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전체 5권이다. 한편, 최근 전 고려대 국문과 교수였던 김민수 교수의 소장본(1권, 범례 22장, ㄱ 일부 29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전체 18권이다.

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제작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 무렵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 이후에 자료 보관을 위해 ‘여벌’로 작성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된 뒤로, 1939년 말경에 원고가 마무리되어, 출간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원고가 제출되었고, 1940년 3월에는 원고 일부의 수정을 전제로 검열에 통과하였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원고는 조선총독부에서 사건을 위함 압류용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1940-1920년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글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4권(‘우층-윙윙’, ‘유-윙판’, ‘으-윙만이’, ‘ㅎ-허리’)은 해방 이후에 해당 원고를 다시 필사한 ‘여벌’ 복제본이다. 따라서 자료는 1940-1942년 사이에 조성된 원고로 확인된 것은 한글학회 소장 4권과 독립기념관 소장 5권 그리고 고 김민수 교수 소장 1권, 1960년대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한글학회 소장 4권으로 구분된다.

○ 현 상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현재, 검은색 실끈으로 묶인 책자 형태로 되어 있다. 각 권의 표지에는 해당 권에 수록한 표제어가 쓰여 있다. 그리고 본문은 400자 원고

지에다가 항목별 내용을 기술하였다. 본문에는 항목별 기술 내용 이외에 해당 사항의 증보를 위한 ‘부전지(附箋紙)’, 기타 교정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도 남아 있다. 이때, 부전지와 기타 교정 과정에서 생긴 첨가 내용은 빨간색과 파란색 볼펜으로 기록해 두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현재 세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글학회에서 12권, 독립기념관에서 5권, 고 고려대 국문과 김민수 교수 유족의 소장본 1권이다. 이 원고들을 “1947년 1권, 1949년 2권, 1950년 3권, 1957년에는 나머지 4-6권을 포함하여 1-6권 전질”로 출간된 ‘조선말 큰사전(조선어학회)’, ‘한글학회(큰 사전)’과 대조해보면, 원고가 출판본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와 구별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여벌’로 쓰여진 4권의 원고(‘우충-윙윙’, ‘유-윙관’, ‘으-윙만이’, ‘ㅎ-허리’)이다. 이 원고는 해방 이후 학회명칭이 ‘한글학회’로 바뀌고, 이곳에서 간행된 ‘큰사전’의 해당 원고를 다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 내용 및 특징

(1)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서지/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대적 여건 속에서, 조선어학회에서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조선말 큰사전 원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1942년 10월에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총독부에 압수되었고, 이후 행방을 모르다가 해방 이후에 서울역 창고에서 극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자료는 이처럼 역사적 기록과 실체가 분명히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해방 이후에 간행되었던 ‘조선말큰사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지닌 서지/자료적 가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은 현재 중등교육과정에서도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내용상 특징: ‘조선말 큰사전 원고’ 중에서 고 김민수 교수의 소장본 권1의 ‘범례’를 통해서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기획했던 사전의 체제, 특징 등을 볼 수 있다. 범례는 ‘어휘, 어휘의 별린 순서, 철자, 발음의 표시, 어원의 표시, 문법 형태의 표시, 해석의 방식, 전문어 표시의 부호, 외래어 표시의 부호’ 등 9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범례를 통해서 어휘 항목의 선정, 어휘의 용례, 관련어, 옛말 등의 표시 등의 다양한 사전의 기술 방식을 볼 수 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여타의 국어사전들과 다른 특징은 표제어의 배열을 겹닿소리글자의 어휘들을 “가, 가, 거, …… 까, 께, 께, 께, ……”의 차례가 아니라 “가, 께, 거, 께, …… 의 차례로 하고 있다는 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반어만이 아니라 전문어·제도어·고유명사·옛말·이두 등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

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표준말’(1936)에 따라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분하면서, 비표준어와 버려야 할 말에 특별한 표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조선말 큰사전 원고’의 편차 및 자료 구분의 필요성: 현재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한글학회, 독립기념관, 고 김민수 교수 유가족 세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글학회 소장본은 전체 12권, 독립기념관 소장본은 전체 5권이다. 세 곳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제작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 무렵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60년 이후에 자료 보관을 위해 ‘여벌’로 작성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 14권은 1929년 10월 31일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된 뒤로, 1939년 말경에 원고가 마무리되어, 출간을 위해 조선총독부에 원고가 제출되었고, 1940년 3월에는 원고 일부의 수정을 전제로 검열에 통과하였다. 그러나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원고는 조선총독부에서 사건을 위합 압류용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1940-1920년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글학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4권(‘우층-윙윙’, ‘유-윙판’, ‘으-윙만이’, ‘ㅎ-허리’)은 해방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고와는 차이가 있다. 이 ‘여벌’의 원고는 자료 편찬 과정과 변모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원고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 문헌자료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한글학회(2009), 《한글학회 100년사》, 한글학회.

최경봉(2016), 《근대국어학의 논리와 계보》, 일조각.

박용규(2016), 《조선말 큰사전 편찬의 역사적 의미》, 기록인 V35.

최경봉(2019), 《우리말의 탄생(제2판)》, 책과함께.

○ 소장경위

故 고려대 국문과 김민수 교수 유족 소장하고 있는 원고는 1권이다. 수량은 적으나 이 자료는 사전 편찬의 과정과 사전 편찬에 관여한 인물을 적은 ‘범례’ 22장을 통해서 ‘조선말큰사전’ 편찬의 전모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자료에 대한 관리와 보존이 시급한 상황이다.